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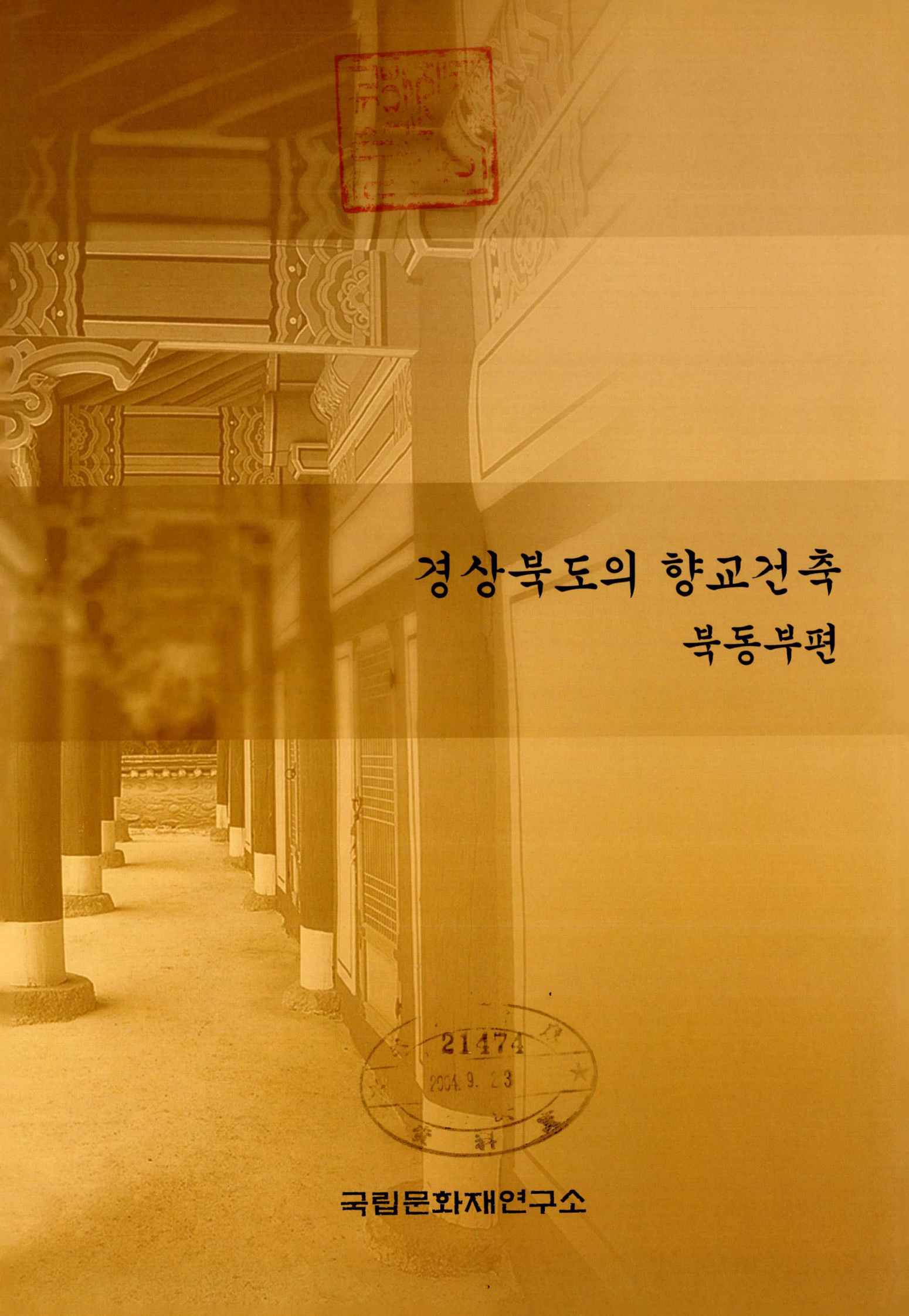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550011-000085-10

경상북도의 향교건축 - 북동부편

문화재청 자료관
EM021474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상북도의 향교건축

북동부편

21474
2004. 9. 23

국립문화재연구소

일러두기

- 각 향교별로 수록된 도면의 축적은 각 향교마다 약간 다르며, 이는 향교의 규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 경상북도 지역 향교를 조사한 시기는 2001년도이며, 보고서 발간시기는 2003년 10월이므로 각 향교 별 내용이 현재의 상황과 약간 다를 수도 있다. 또한 본 보고서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등으로 지정된 향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 향교 관련 보수 연혁 및 기타 자료는 향교지(鄕校誌), 문화재청 소유 보수 기록, 각 지방 자치 단체 소유 문화재 관리 대장 및 보수 기록, 조사 당시의 면담 내용 등을 종합 정리하였으며, 문화재 담당 직원, 전교(典校) 등 향교 임원과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 및 관련 설계사무소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경주향교 및 영천향교는 각각 우리건축사사무소와 종합건축사사무소무진에서 도면을 협조받아 사용하였다.
- 본문에 수록된 古地圖는 모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발간된 『海東地圖』를 인용하였으며 수록 순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신증동국여지승람)』의 수록 체계를 참조하였다. 또한, 현대지도는 1:25,000 축척의 지도를 사용하였다.



경주향교 대성전



영천향교 대성전



흥해향교 대성전



청하향교 대성전



연일향교 대성전



장기향교 대성전



영양향교 대성전



영주향교 대성전



순흥향교 대성전



의성향교 대성전



봉화향교 대성전



진보향교 대성전



예안향교 대성전



군위향교 대성전



비안향교 대성전



용궁향교 대성전



선산향교 대성전



개령향교 대성전



평해향교 대성전



울진향교 대성전

목 차

〈일러두기〉 002

〈원색도판〉 003

Ⅰ. 개설 023

1. 조사 개요 024

2. 보고서의 구성 027

Ⅱ. 향교건축 해설 031

1. 경주향교(慶州鄕校) 032

2. 영천향교(永川鄕校) 056

3. 흥해향교(興海鄕校) 078

4. 청하향교(淸河鄕校) 100

5. 연일향교(延日鄕校) 120

6. 장기향교(長鬐鄕校) 136

7. 영양향교(英陽鄕校) 154

8. 영주향교(榮州鄕校) 170

9. 순흥향교(順興鄕校) 192

10. 의성향교(義城鄕校) 212

11. 봉화향교(奉化鄕校) 236

12. 진보향교(眞寶鄕校) 256

13. 군위향교(軍威鄕校) 272

14. 비안향교(比安鄕校) 294

15. 예안향교(禮安鄕校) 316

16. 용궁향교(龍宮鄕校) 334

17. 선산향교(善山鄕校) 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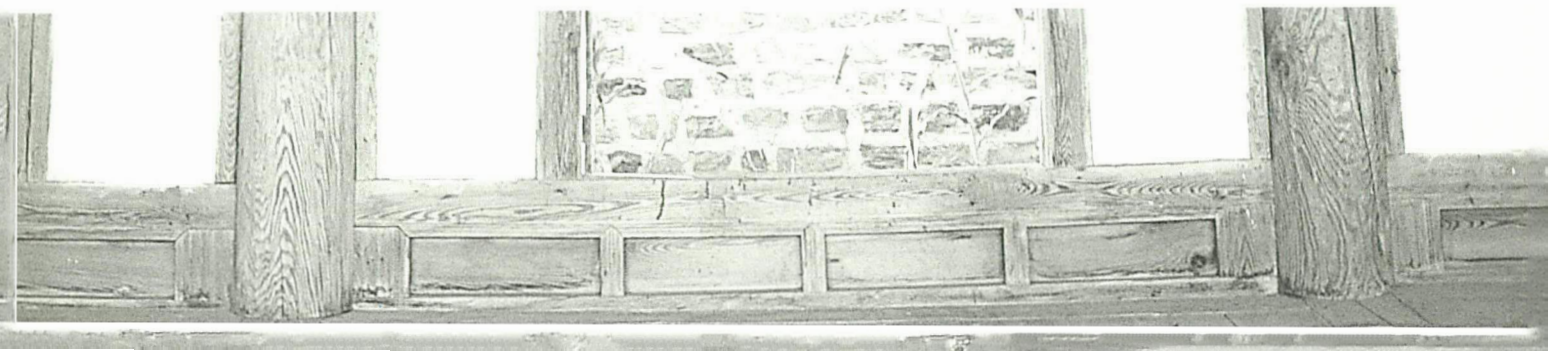
18. 개령향교(開寧鄕校) 374

19. 평해향교(平海鄕校) 392

20. 울진향교(蔚珍鄕校) 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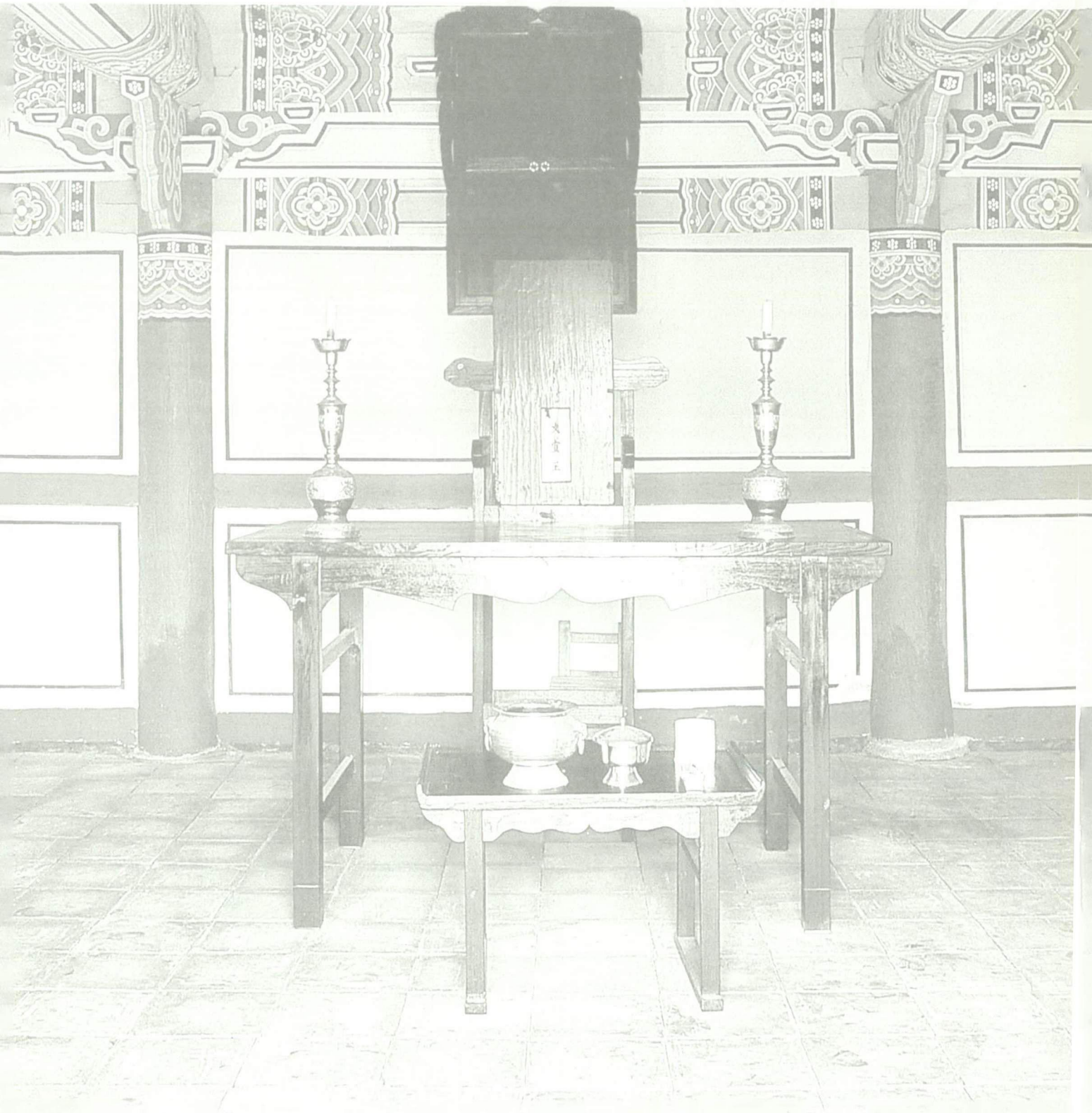
〈참고문헌〉 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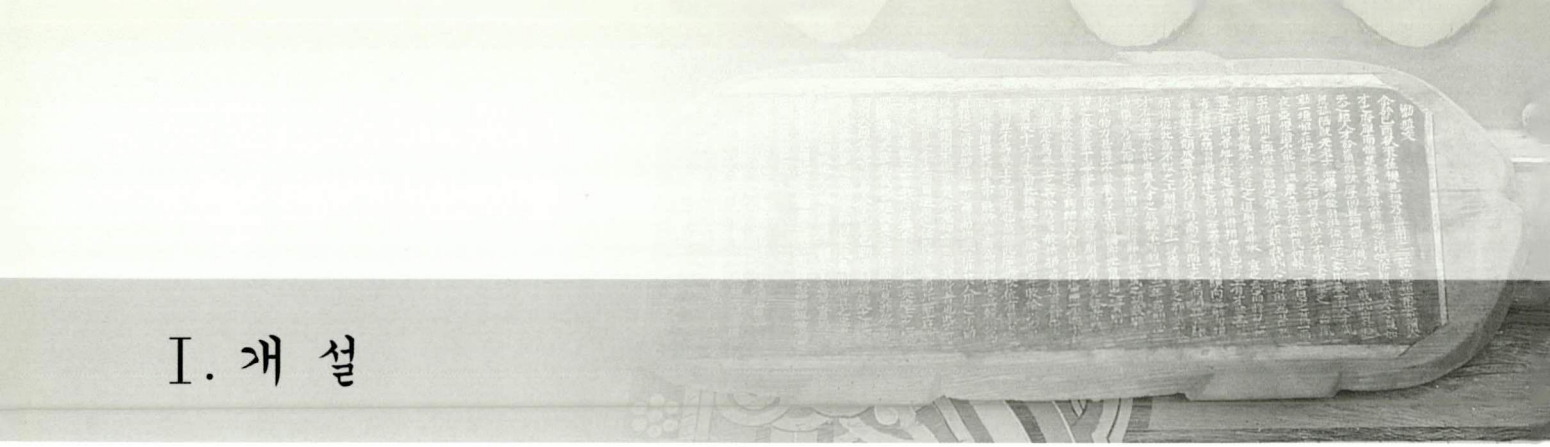
〈Abstract〉 435



Ⅰ. 개 설

1. 조사 개요
2. 보고서의 구성





Ⅰ. 개 설

1. 조사 개요

본 보고서는 한국 전통 건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교 건축물 가운데 향교 건축물에 대한 네 번째 일제 조사 보고서이다. 본 보고서에는 일제 조사시 작성한 실측 도면과 상세한 사진, 건축 양식 및 가구 기법 등에 대한 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를 수록하고 이를 발간하여, 관계기관과 학계에 배포함으로써 향후 문화재 보수·복원시의 고증 및 학술 연구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북지역 향교 조사는 문화재 관련 학술 단체의 전문인력 배양 및 학술 저변 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한정된 연구소 인력을 감안하여 학술 용역 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1년 5월 24일 목조건축물조사 자문회의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개최하였으며, 용역계약대상 및 연구원 구성 방안,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조사대상 및 조사 금액, 기타 협조사항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회의 결과, 용역 수행은 전통건축관련 학술단체가 주축이 되어야 하고, 해당지역 향교에 대한 연구업적이 많은 사람이 사업의 책임연구원이 되어 조사 인력구성을 해야 하며,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한국전통문화학교의 관련 인력 참여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관련 인적 자원 및 연구 활동이 풍부한 문화재청 산하 국내 유일의 전통건축 학술단체인 (사)한국건축역사학회가 용역 수행자로 선정되었다.

경상북도 지역에서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전체 조사 대상 향교는 모두 39건으로 이 가운데 (사)한국건축역사학회에서 학술 용역 조사로 대구향교 등 30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영천향교 대성전(보물 제616호) 등 9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다.

경북지역 향교 조사 보고서는 남서부편과 북동부편으로 나누었으며, 본 보고서는 그 가운데 북동부편으로 경상북도 북부 및 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향교 문화재 20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수록하였다. 조사 기간은, 먼저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 용역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2003년 5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연구소 자체 조사 및 보완 촬영 등을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향교 20건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본문 게재순)

	명 칭	지 정 사 항	소 재 지
1	경주향교(慶州鄕校)	유형문화재 제191호(일 곽)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17-1
2	영천향교(永川鄕校)	보 물 제616호(대성전)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46-1
3	흥해향교(興海鄕校)	문화재자료 제 87호(대성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132
4	청하향교(淸河鄕校)	문화재자료 제328호(대성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성리 190
5	연일향교(延日鄕校)	문화재자료 제 1호(대성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407
6	장기향교(長鬐鄕校)	문화재자료 제327호(일 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202
7	영양향교(英陽鄕校)	문화재자료 제 75호(일 곽)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128
8	영주향교(榮州鄕校)	문화재자료 제 23호(대성전)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1동 167
9	순흥향교(順興鄕校)	문화재자료 제347호(일 곽)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437
10	의성향교(義城鄕校)	유형문화재 제150호(일 곽)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808
11	봉화향교(奉化鄕校)	유형문화재 제253호(일 곽)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봉성리 267
12	진보향교(眞寶鄕校)	유형문화재 제201호(일 곽)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221-1
13	군위향교(軍威鄕校)	문화재자료 제185호(일 곽)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629
14	비안향교(比安鄕校)	문화재자료 제263호(일 곽)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교촌리 285
15	예안향교(禮安鄕校)	유형문화재 제 28호(일 곽)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204-1
16	용궁향교(龍宮鄕校)	유형문화재 제210호(일 곽)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266
17	선산향교(善山鄕校)	문화재자료 제123호(일 곽)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교리 838
18	개령향교(開寧鄕校)	문화재자료 제119호(대성전)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동부리 408
19	평해향교(平海鄕校)	문화재자료 제160호(대성전)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901
20	울진향교(蔚珍鄕校)	문화재자료 제159호(대성전)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653-1

(사)한국건축역사학회의 학술조사는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조영화·정명섭 교수팀(이하 1팀)이 상주향교 등 24건을, 배병선 교수팀(이하 2팀)이 대구향교 등 6건을 담당하였다. 이 가운데 1팀은 상주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배치측량팀을 지원 받아 진행하였으며, 각 향교별 조사는 일정 및 기후 조건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었으나 평균 3~4인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배치 조사, 건축 조사, 문헌 조사 및 사진 촬영을 병행하였다. 학술조사 내역 및 참여 조사원, 조사내역 그리고 조사에 사용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괄호 안의 소속 상황은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음)

■ 학술조사 내역

- 용 역 명 : 경상북도 향교 조사 학술 용역

- 계약금액 : 28,000,000원(일금 이천팔백만원)
- 과업기간 : 2001년 7월 5일 ~ 12월 1일 (착수일로부터 150일)

■ **학술조사 단체 및 조사 구성원**

- (사)한국건축역사학회

책임연구원 : 김동욱(한국건축역사학회 회장, 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연 구 원 : 조영화(대경대학 건축디자인과 교수, 경상북도 문화재전문위원)
: 정명섭(상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경상북도 문화재전문위원)
: 배병선(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건축학과 교수, 경기도 문화재전문위원)
연구보조원 : 김태훈(상주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 오신진(상주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 이용호(상주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 정종민(군산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 최원욱(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건축학과)
: 신귀현(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건축학과)
: 김영아(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건축학과)

조사 보조 : 권영진(상주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 정경재(상주대학교 건축공학과)

토목측량팀 : 장상규(상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김희동(상주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대학원생) 외 7명

- 국립문화재연구소

김재준(국립문화재연구소 건조물연구실 건축주사)
류성열(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현 국립중앙박물관 건축주사)
조상순(국립문화재연구소 건조물연구실 연구원)
문승현(국립문화재연구소 건조물연구실 연구원)
한주성(국립문화재연구소 건조물연구실 연구원)

■ 조사 내역

조사차수	조 사 시 기	조 사 대 상
학술 조사	2001년 6월 ~ 8월	대구향교 등 30건
보완 조사	2003년 5월 27일 ~ 6월 2일	용궁향교 등 4건
	2003년 6월 10일 ~ 6월 15일	순흥향교 등 5건 보완 촬영
	2003년 7월 1일 ~ 7월 6일	의성향교 등 5건 보완 촬영

■ 조사 방법

구 분	내 용	소요인원/시간
학술 조사	• 광파측거기를 이용한 일곽 배치 정밀 측량	2인 / 0.5일
건축조사	• 개별 건축물 평면 실측 • 중요 부재의 크기 및 탁본	2인 / 1일
문헌조사	• 향교별 발간 향교지 협조 • 지방 자치단체 문화재 관련 부서 자료 협조 • 전교(典校) 등 향교 운영자 면담 • 중요 기록 및 향교 소장 문서 필사(筆寫) • 기타 건축 관련 기록 조사	1인 / 0.5일
사진촬영	• 향후 보수 및 복원 시 고증에 필요한 일곽 전경 및 개별 건축물의 건축 요소 파악이 가능한 사진 자료 확보	2인 / 0.5일

2. 보고서의 구성

본문에서 각 향교별 서술 내용은 먼저 향교의 창건 시기를 기점으로 현재까지의 중건(重建) 및 이건(移建), 보수(補修)의 시기와 내용을 연혁 부분에서 먼저 서술한 다음 향교의 입지와 배치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고, 이어서 구체적인 건축물의 구성과 그에 대한 해설을 건축 구성 및 현황 부분에서 서술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각각 대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향영역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한 강학영역, 그리고 기타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지 조사를 통하여 작성한 향교 조사 기록표를 첨부함으로써 본문과 도면에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수치 데이터를 일괄 목록화 하였고 문화재 보수 및 복원과 학술적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본문의 서술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연혁
2. 입지 및 배치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다. 기타
4. 향교 조사 기록표

이상과 같은 체계를 가지고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서술되었다.

먼저 현장 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된 실측 도면과 상세 정보를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실측 도면은 전체 일곽 배치도, 대성전 평면도 1매, 명륜당 평면도 1매 등 향교별로 각각 3매의 도면이 수록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주요 외관과 건축구조 등에 대하여 상세한 사진을 수록하였다.

둘째, 건축물과 관련된 중수기문이나 현판에 기록된 기록 등은 건축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중건(重建), 이건(移建) 및 보수 등에 한하여 간략히 제작 시기 등을 중심으로 원문을 삽입하였다.

셋째, 향교별 조사 내용은 객관적인 사항을 위주로 서술하였으며, 건축물의 건립 연대 등 일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자의 의견을 함께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향교지(鄕校誌)나 기타 문헌상에 등재된 상량문 등 이미 발간된 문헌 기록 외에 현지 조사시 습득한 관련 기록을 포함함으로써 좀 더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본 보고서는 기존에 발간되었던 『서울·경기도의 향교건축』(2000년 간행), 『강원도의 향교건축』(2001년 간행), 『경상북도의 향교건축 남서부편』(2002년 간행)에 이은 유교건축총서 제4집이며, 기존에 발간되었던 향교 조사 보고서와 다른 점은 학술용역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향교별 보고서의 집필도 당시 조사를 담당하였던 연구원의 조사 보고서를 수록하였으며, 집필자 간에 약간의 다른 서술방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조사 보고서는 본 보고서의 수록 순서에 따라 내용 일부가 달라진 경우도 있으며, 기존에 조사보고서가 발간된 향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였다. 그러나, 건축적 내용 등 조사 당시와 다른 변경 사항에 관한 것과 본 보고서의 발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일부 첨가 혹은 삭제되었다. 본 보고서의 기초 보고서 작성은 다음의 필진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영화 : 개령, 군위, 봉화, 비안, 선산, 순흥, 연일, 영양, 영주, 예안, 울진, 의성, 장기, 진보, 청하, 흥해 등 16건
조상순 : 경주, 영천, 용궁, 평해 등 4건(이상 가나다순)



1. 경주향교
2. 영천향교
3. 흥해향교
4. 청하향교
5. 연일향교
6. 장기향교
7. 영양향교
8. 영주향교
9. 순흥향교
10. 의성향교
11. 봉화향교
12. 진보향교
13. 군위향교
14. 비안향교
15. 예안향교
16. 용궁향교
17. 선산향교
18. 개령향교
19. 평해향교
20. 울진향교

大東輿地圖, 1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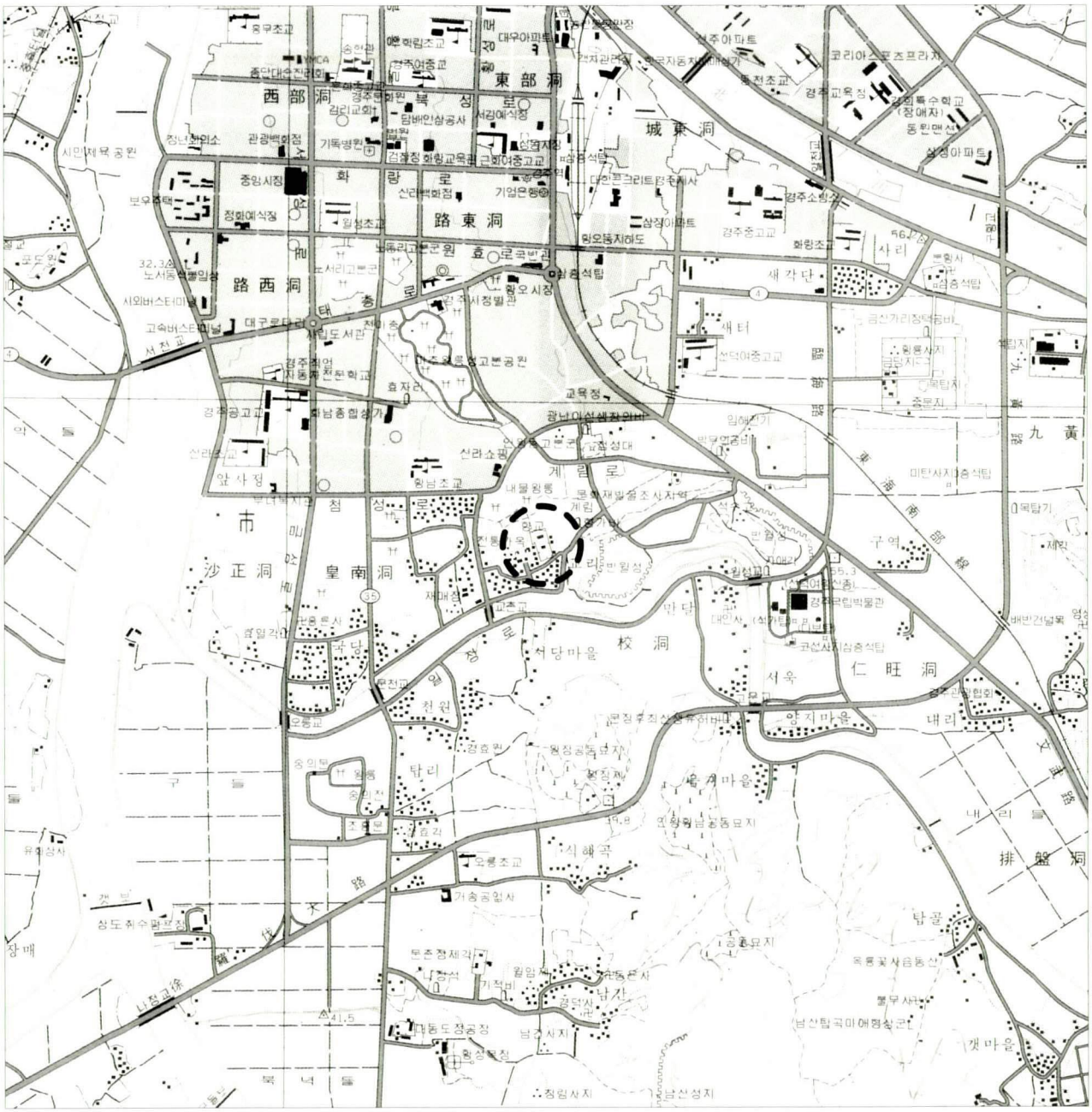
Ⅱ. 향교건축 해설

1. 경주향교(慶州鄕校)
2. 영천향교(永川鄕校)
3. 흥해향교(興海鄕校)
4. 청하향교(淸河鄕校)
5. 연일향교(延日鄕校)
6. 장기향교(長鬐鄕校)
7. 영양향교(英陽鄕校)
8. 영주향교(榮州鄕校)
9. 순흥향교(順興鄕校)
10. 의성향교(義城鄕校)
11. 봉화향교(奉化鄕校)
12. 진보향교(眞寶鄕校)
13. 군위향교(軍威鄕校)
14. 비안향교(比安鄕校)
15. 예안향교(禮安鄕校)
16. 용궁향교(龍宮鄕校)
17. 선산향교(善山鄕校)
18. 개령향교(開寧鄕校)
19. 평해향교(平海鄕校)
20. 울진향교(蔚珍鄕校)



1. 경주향교(慶州鄕校)

- 지정사항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1호
- 지 정 일 : 1985년 10월 15일
-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17-1번지
- 건축구성 : 대성전, 동무, 서무, 명륜당, 동재, 서재, 외삼문, 신삼문, 존경각, 전교실, 전사청, 교직사, 상용문(교직사측 출입문), 협문 2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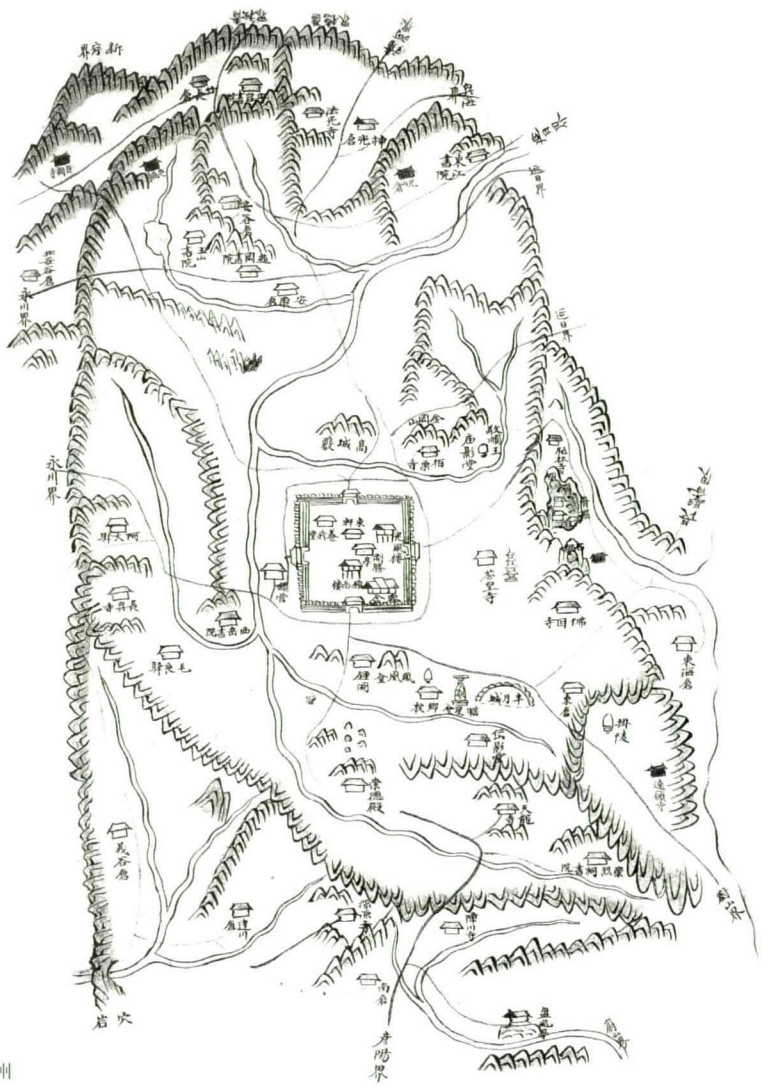
1. 연 혁

경주향교는 『新增東國輿地勝覽(신증동국여지승람)』과 『東京雜記(동경잡기)』에 의거하면 부(府)의 남쪽 3리 계림 서쪽 문천(蚊川) 북쪽에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의 경주시 교동 17-1에 해당한다.

경주지역은 삼국시대 이래 신라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 비록 신라의 멸망과 고려의 성립으로 인해 한국사의 주도권이 이곳 경주를 중심으로 한 경상도 지역에서 개경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으로 옮겨갔지만 여전히 경주는 동경유수사가 설치된 대읍으로서 42개의 읍과 다수의 향소부곡을 거느리면서 상주, 진주권과 더불어 경상도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이곳 출신의 경주 최씨, 김씨, 이씨 등의 인물들이 고려 왕조의 성립 내지 정비기에 각종 문물제도의 정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미 통일신라의 신문왕 2년(682)에 본격적인 유학교육기관인 국학(國學)이 설치되었고, 진덕여왕 16년(717)에 태감(太監) 수충(守忠)이 당(唐)에 갔다오면서 문선왕(文宣王)과 십철(十哲), 공문(孔門) 72도의 화상(畵像)을 가져와 태학에 안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고려 인종 5년(1127)에 향교가 등장하기 전부터 여러 차례 향학(鄕學)의 이름으로 향교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터가 변하지 않고 같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후 조선 성종 23년(1492)에 부윤 최응현(崔應賢)이 향교를 중수하고 제도는 성균관을 모방했다. 이후 임진왜란의 병화로 말미암아 향교는 불타버렸는데, 이 때 문익점의 후손인 문응성(文應星)을 비롯한 여러 명이 성전과 동서무의 위패를 자옥산(紫玉山) 서북 봉우리인 도덕산(道德山)의 도덕암(道德庵) 속에다 임시로 봉안 보호하여 난이 끝난 후 문응성은 집경전참봉(集慶殿參奉)에 임명되었고 나머지 7명은 훈도(訓導)에 제수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만력(萬曆) 경자년(庚子, 1600)에 관찰사 이시발(李時發)이 중건하여 성전 3칸, 전사청 3칸 등을 갖추어 위패를 도로 모셔다가 봉안하였다. 다음 해에는 제



慶州

독(提督) 손기양(孫起陽)이 제생(諸生)을 이끌고 향교 전후에 소나무 약 천여 그루를 이식하였으며, 선조 37년(1604)에 부윤 윤성(尹惺) 때에 다시 중건하였는데, 동무(東廡), 서무(西廡)가 각 12칸이고, 전사청이 2칸이었다. 다시 광해군 6년(1614) 갑인(甲寅)년에 부윤 이안눌(李安訥)이 중건하여 명륜당 5칸, 동재와 서재 각 5칸, 명륜당 동쪽 담 밖에 제독청(提督廳) 4칸을 갖추었다. 이 때 제독청 동쪽에 연못을 파고 연꽃을 심었으며, 작은 누대를 두었다.

효종 6년(1655)에는 명륜당 북쪽에 송단(松壇)을 쌓고 사부(師傅) 정극후(鄭克後)가 기(記)[1]를 지었고, 현종 10년(1669) 가을에는 존경각을 신축하고, 동무와 서무를 중수하였다. 성전 전면에 옛날에는 계단과 정로(正路)가 없었는데 이때 부사 민주면(閔周冕)이 유생과 상의하여 안압지 임해전의 옛 터에 있던 돌 계단을 가져다가 성전 계단 밑에 깔고 또 정로도 쌓았고, 존경각을 송단 동쪽 가에 세웠다.[2]

숙종 31년(1706)에는 진사 임인중(任仁重)이 관찰사와 부윤의 도움으로 교궁(校宮)을 중수하였으며, 순조 29년(1829)에는 대성전과 동서무를 보수하고, 송단을 보식(補植)하였다. 헌종 2년(1836)에는 대성전 내의 촉대(燭臺) 등 제기를 새롭게 구비하였으며, 헌종 7년(1841)에 부윤 정최조(鄭最朝)가 명륜당과 대성전을 중수하고, 이 때 진사 한문건(韓文健)이 상량중수문을 찬(撰)하였다. 헌종 10년(1844)에는 대성전 앞에 명대석(明臺石)을 수축하였고, 철종 7년(1856)에는 부윤 송근수(宋近洙)가 존경각을 중신(重新)하였다. 철종 11년(1860)에는 대성전 내의 위판 및 제기 등을 새롭게 하였으며, 고종 10년(1873)에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수하였다.[3] 고종 17년(1880)에는 부윤 민치서(閔致序)가 명륜당을 중수하였으며,[4] 고종 22년(1885)에 교궁을 중수하였다.[5] 광무 3년(1899)에는 교궁을 수리하였으며,[6] 1919년에 유림들이 모성계(慕聖契)를 조직하여 교궁을 중수하였다.

한국 전쟁 중에 서재와 직원실(현재의 전사청)이 소실되었고, 1952년에는 계림중학교(현 선덕여자중고등학교)의 임시 교사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1956년에는 유림들이 다시 모성계를 조직하여 1958년에 전교실을 중건하였으며, 1978년에 명륜당과 대성전, 동재, 내삼문, 외삼문 및 담 등 향교 일곽을 중수하였고, 1981년에 서재를 복원하였다. 1985년에 유형문화재 제191호로 지정되었으며, 1988년에 전사청 4칸을 중건(重建)하였다. 1990년에는 명륜당, 동서재를 보수하고, 송단(松壇)과 존경각, 축대를 보수하였다.

1991년에 대성전, 서무와 명륜당의 벽체 일부를 보수하였으며, 이듬해인 1992년에 관리사

---

1)_ '鄕校松壇記(향교송단기)' 라는 이름으로 동경잡기에 수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는 명륜당을 이륜당(彛倫堂)으로 칭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2)_ 이상의 중건 및 중수 연혁은「東京雜記(동경잡기)」『韓國名著大全集(한국명저대전집)』(1972, 대양서적, pp.248~250) 을 참고하였다. 참고로, '동경잡기'는 향교 중건 등에 참여했던 부사 민주면이 진사 이채(李埰) 등과 함께 작자미상이었던 '東京誌'를 1669년에 간행한 것으로, 이후 1711년과 1845년에 여지승람(輿地勝覽), 삼국유사(三國遺事), 경주읍지(慶州邑誌) 등을 참조하여 증보 간행한 것이다.

3)_ '鄕校重修記', 기문 말미에 '上之十年癸酉驪江李瑀祥謹撰' 이라 되어 있다.

4)_ '明倫堂重修記', 기문말미에 '崇禎紀元後五庚辰復月上浣' 이라 되어 있다.

5)_ '鄕校重修記', 기문 말미에 '崇禎紀元後五乙酉冬月城崔世鶴記' 라 되어 있다.

6)_ '鄕校重修記', 기문 말미에 '光武三年歲在己亥陰曆七月上澣' 이라 되어 있다.

주실(廚室) 2칸을 증축하고, 소실되었던 명대석을 복원하였다. 1994년에는 명륜당을 번와 보수하였고, 대성전에 관세대(盥洗臺)와 망료석(望燎石)을 복원하였다. 1995년에 대성전과 동무를 보수하고 담 일부를 보수하였으며, 1997에는 유림회관이 완성되었다. 1998년에는 동무와 내삼문을 보수하고 담과 송단 일부를 보수하였다. 2000년에는 대성전 도리 이상 해체보수하여 부식된 부재를 교체하였고, 이 때 1600년 대성전 중건 당시의 묵서명이 발견되었다.[7] 2001년도에 동재를 번와보수하고 중문을 보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주에는 향교 외에 부의 동쪽 2리에 소학당(小學堂)이 있었는데, 부윤 양순석(梁順石)이 중수하여 학술이 있는 자를 택하여 스승으로 삼고 동몽을 모아 가르쳤다고 한다.

조선후기 서원과 향교가 지방민을 위한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자 문치(文治)에 뜻을 둔 지방관들이 학교를 흥하게 하기 위해 양사재(養士齋)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비록 지방관의 주선으로 설립되었지만 지방의 유림들이 과업장소의 확보를 통한 지방교육기관의 부재를 극복하고, 나아가 향촌사회에서 자기신분 보존의 필요성에 의해 양사재의 설립에 적극 협조 호응하였다. 이곳 경주의 경우 역시 이런 의도에서 구(舊) 제독관(提督館)을 양사재로 활용하였다.

향교에 소장된 자료로는 순조 29년(1829)부터 헌종 5년(1839)까지의 향교 교임들의 업무수행을 기록한 일지 등이 포함된 『任司錄(임사록)』과 1908년 이후 1920년까지의 공문을 모아놓은 『各公文編纂綴(각공문편찬철)』 등 다수의 자료가 있다. 또한 만력(萬曆) 갑인(甲寅)년 중창 후 92년 을유년(1705) 8월에 제작된 기문 등 다수의 기문이 명륜당 내에 걸려 있다.[8]

경주향교는 창건 이전 삼국시대 요석궁 터라는 이야기가 전해내려 오며, 실제 기록상으로 신라 때 국학의 창설을 주도한 박사 설총이 요석궁 터를 학교터로 제공했다고 한다. 또한 고려 이후 향학으로 전환되면서, 다른 곳으로 이건되지 않고 현재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안압지에서 옮겨왔다는 대성전 전면의 계단석과, 명륜당 기단 등에서 발견되는 탑재 등의 다양한 유구가 현존하고 있어 그 보존가치가 매우 뛰어나다. 또한 근래 발견된 대성전 상량묵서명에서도 만력 30년(1602) 임인(壬寅) 윤(閏) 2월의 중건 기록을 알 수 있어 건축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9] 이상 창건 이후의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82 유학교육기관인 국학(國學) 설치

7)_ 공사 후 작성된 '大成殿重修記'가 명륜당 대들보 측면에 걸려 있다.

8)_ 이 중창 기록문에는 관찰사 김연(金演)의 이름과 함께 공사에 참여한 다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목수(木手)와 편수(邊手), 개와(盖瓦)를 담당한 장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9)_ 발견된 상량문에는 만력 30년(1602)년의 준공 사실과, 당시 공사에 참여한 관직인사, 훈도, 유학, 유사 등의 이름이 남아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의 벌목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 따라, 벌목을 위해 '伐木監官(벌목감관)' 2인을 두었으며, 대목(大木)으로 승려인 '僧人 德林(승인 덕림)'이 활동하였음은 매우 주목되는 사실이다. 또한 상량문에는 대개 대목장과 번와장의 이름만이 언급되는 것과 달리, '都色手書員(도색수서원), 飜瓦都色書者(번와도색서자), 大木(대목), 副木(부목), 寫字(사자), 鐵匠(철장), 飜瓦匠(번와장), 伐木都色(벌목도색)'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 점도 특이하다.

717	문선왕(文宣王)과 십철(十哲), 공문(孔門) 72도의 화상(畵像) 태학에 안치
1127	향교 창건
1492	향교 중수(성균관 모방)
임진왜란 중	향교 소실
1600	대성전 3칸, 전사청 3칸 등으로 향교 중건
1601	향교 전후에 소나무 약 천여 그루 이식
1604	향교 중건(동서무 각 12칸, 전사청 2칸)
1614	향교 중건(명륜당 5칸, 동서재 각 5칸, 제독청 4칸)
1655	송단(松壇)을 설치
1669	존경각 신축, 동서무 중수
1706	교궁(校宮) 중수
1829	대성전과 동서무 보수, 송단 보식(補植)
1841	명륜당과 대성전 중수
1844	명대석 설치
1856	존경각 중건
1873	대성전과 명륜당 중수
1880	명륜당 중수
1885	교궁 중수
1899	교궁 중수
1919	교궁 중수
한국전쟁 중	서재, 직원실(현재의 전사청) 소실
1952	계림중학교(현 선덕여자중고등학교)의 임시 교사로 활용
1958	전교실 중건
1978	명륜당, 대성전, 동재, 신삼문, 외삼문 및 담 등 향교 일곽 중수
1981	서재 복원
1985	유형문화재 제191호로 지정
1988	전사청 4칸 중건
1990	명륜당, 동서재 보수, 송단과 존경각, 축대 보수
1991	대성전, 서무, 명륜당 벽체 일부 보수
1992	관리사 주실(廚室) 2칸 증축, 명대석 복원
1994	명륜당 번와보수, 대성전에 관세대(洗臺)와 망료석(望燎石) 복원
1995	대성전, 동무 보수, 담 일부 보수
1997	유림회관 완공
1998	동무와 신삼문 보수, 담과 송단 일부 보수

2000 대성전 도리 이상 해체보수

2001 동재 번와보수, 중문 보수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는 대성전, 동무, 서무, 명륜당, 동재, 서재, 외삼문, 신삼문, 존경각, 전교실, 전사청, 교직사, 상용문(교직사측 출입문), 협문 2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입지 및 배치

경주향교는 계림 서편, 문천(蚊川)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경주 시내 천마총 휴게소 오른편 도로로 진입하면 다리를 건너기 전 좌측에 향교로 진입하는 표지판이 있고 담과 면하여 경주 최씨 고가와 면하고 있다. 향(向)은 정남향에서 동쪽으로 약 10도 가량 틀어져 있다.

경주향교는 대설위(大設位) 향교로 평지에 배치되어 외삼문, 신삼문, 대성전, 명륜당이 남향하여 일직선축을 이루는 전형적인 전묘후학(前廟後學)의 배치형식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전묘후학형 배치는 조선 초기 각 지방의 주요 읍치에 건립된 향교 형식과 일치하며, 이와 같은 배치로는 성균관, 전주향교, 나주향교 등이 있다. 또한, 동무와 서무는 대설위 향교에 따른 신위의 규모에 맞추어 12칸의 장대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 경주향교는 임진왜란 때 일곽 건물이 소실된 후 차례로 중건되어 현재까지 당시의 건물이 대부분 복원되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전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주심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대성전의 평면 구성은 전면은 3칸으로 하여 각 칸을 14.5척으로 칸살을 매우 크게 잡고, 측면도 3칸으로 하였으나 중앙칸을 15.5척으로 크게 잡고 양 퇴칸을 7척 정도로 하고 내진주(內陣柱)를 사용하였으며, 전내(殿內)의 바닥은 장마루를 횡으로 길게 깔았다. 장대석을 2단으로 쌓아 기단을 축조하고 기단 전면에는 중앙에 통돌로 만든 계단을 놓고 양 측면에도 돌계단을 놓았다. 특히 중앙에 놓은 계단은 오르는 계단이 좌우로 구성된 이중계로, 통돌을 다듬었으며, 기록에 의하면 안압지에 사용되었던 계단이다. 기단 또한 두툼한 장대석을 이벌대로 정연하게 쌓고 상단에는 단부를 외부로 돌출하여 떨어지는 우수(雨水) 등이 기단면을 상하지 않게 다듬은 석재로 마무리하여 그 기법이 매우 우수하다.

기단 윗면은 갑석으로 마무리하여 전돌을 깔고 그 위에 다듬은 초석을 놓고 흘림이 약한 원주를 세웠으며, 각 모서리에는 원형의 활주를 세웠다. 초석은 방형대좌 위에 원형의 주좌를 이중으로 두었으며, 활주 초석은 활주 직경과 거의 근사한 8각형의 화강석을 다듬어 사용하였다. 벽체의 구성은 정면에는 각 칸마다 문얼굴을 내고 둔테달린 쌍여닫이 판장문을 달아 안으로 열게 하였으며, 문 하부에는 신방목을 놓고 다시 그 밑에 신방석을 깔았다. 또

한 벽체 전체를 빙 돌아 벽체 하단에 별도의 장대석을 깔아 둔 기법은 다른 향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신방목 좌우 측면에는 2중의 원호(圓弧)를 음각하였고, 신방석 역시 신방목 형태에 맞추어 놓였다.

공포는 외1출목의 헛첨차를 사용한 주심포 양식이다. 살미의 형상은 쇠서로 하여 끝을 날카롭게 길게 빼내고 하부를 쌍S자로 초각하였다. 헛첨차도 살미의 형상과 동일하나 기둥에서 나온 길이가 약간 짧다. 첨차는 행공첨차, 주심소첨과 주심대첨으로 구성하고 하부는 교두형으로 둥글게 하고 마구리는 약간 사절시키고 있다. 출목사이에는 순각판 없이 서까래가 드러나 보이게 하였다. 주간에는 창방 위에 윗면이 넓은 파련각한 화반을 1개씩 두었으며 전후면의 화반 형태는 동일하다.

내부 가구(架構)는 드물게 어칸에서 1고주 7량가, 측면에서는 2고주 7량가로 후열(後列)에 내고주(內高柱)를 취하고 있다. 대들보를 전면 평주 위에 걸쳐서 후면 내고주 몸에 끼우고 있으며, 내고주와 배면 평주 사이에는 툇보로 결구시키고 있다. 대들보 위에 동자주를 높이 세워 중종도리, 장혀 및 중종보를 받고, 중종보 위에는 보아지 형태의 대공을 세워 중도리와 장혀를 받는 종보를 걸치게 했다. 그 위에 파련대공을 세우고 종도리와 장혀를 놓았다.

가구의 구성은 매우 소박하게 처리하고 있지만 종도리까지 2, 3척 정도의 높이가 가져다주는 공간감은 엄숙한 느낌을 배가(倍加)시켜 주고 있다. 또한 내고주열 어칸 상부에 우물반자를 구성하여 공자의 위패를 모셔놓아 다른 위패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권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는 다른 향교에서는 보기 드문 특징이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하여 양 박공부에 풍판을 달아 놓았으며, 겹서까래로 하고 막새기와를 드리웠다. 내부에는 바닥에 전(塼)을 깔았으며, 중앙에 공자를 비롯한 5성(聖), 좌우에 해동(海東) 18현과 송조(宋朝) 2현의 위패를 모셨다. 어칸 후벽에는 공자의 초상을 걸어두었다. 내외부 모두 긋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한편 대성전 지붕에는 '道光十年'(1830년에 해당함)이라는 기록이 새겨진 명문와가 남아 있으며, 전면 어칸 상부에 '大成殿' 현판을 걸었다. 또한 평주(平柱)와 우주(隅柱)의 높이가 1척 정도 차이가 나서 뚜렷한 귀솟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성전 앞에는 1844년에 건립하였던 명대석의 흔적이 있으며, 바로 옆에 1992년에 복원한 새로운 명대석이 자리잡고 있고, 측면에는 방형의 석함(石函) 형태로 된 망료위(望燎位)가 자리잡고 있다. 전체적으로 임란 이후 중건되었을 당시의 건축적 풍격을 보여주고 있다.

(2) 동무(東廡), 서무(西廡)

동무와 서무는 각각 전면 12칸, 측면 1칸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무(廡)건물로서 경북지방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다. 이는 대설위였던 향교의 규모에 따른 것이며, 이와 유사한 규모로는 상주향교 동서무로 전면 10칸에 측면 1칸의 규모를 지니고 있다.

단층 기단 위에 초석을 놓고 원형 기둥을 세웠으며 그 위에 3량 구조의 초익공을 결구하

였다. 초석은 방형대좌에 원형주좌를 둔 것에서부터 자연석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살미의 형태는 하단을 쌍S자로 초각하여 끝을 뾰족하게 하였으나, 대성전이나 신삼문과 같이 날카롭게 뻗어나가지 못하였다[10]. 전면에는 북쪽을 기준으로 각 2, 5, 8, 11번째 칸 등 4군데에 두 짝 세살문을 달고, 후면 일부 칸에는 중방 하부에 창호를 두었으며, 바닥은 시멘몰탈로 마감하였다. 벽체는 회벽으로 마감하였고, 가칠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서무는 내부를 통칸으로 하였으나, 동무는 북측 3칸을 별도의 실로 구분하였다. 두 건물은 제향영역의 담과 맞닿아 이어져 있어, 명륜당에서 제향영역으로 들어오지 않고서도 서무 후면의 좁고 긴 공간을 통하여 신삼문 앞 공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3) 신삼문(神三門)

신삼문은 전면 3칸, 측면 2칸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갑석을 두른 기단 위에 다듬은 돌을 초석으로 사용하고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세운 초익공의 3량가 구조이다. 기둥머리에 사괘를 트고 도리방향으로 첨차를 결구한 다음 짤막한 익공재를 결구하였는데 살미와 첨차의 형태는 대성전과 거의 같다. 문지방엔 신방목을 끼우고 그 밑에 신방석을 깔았다.

초석 가운데 일부는 고대 사찰 및 궁전의 초석에서 볼 수 있는 원형 주좌와 고막이의 결합 형태로 다듬어져 있어 타 건물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 고주열의 초석은 원형이며, 전후면의 초석이 거친 방형 대좌로 다듬어진 점이 특이하다. 또한 전후 평주 위에 걸친 대들보 중앙에는 짤막한 동자주가 놓였는데, 보방향으로 짤막한 침목을 고였으며, 상단은 소로 하단면에 맞추어 상부 일부를 깎아내고 그 위에 소로를 얹었다. 그 위에 종도리 장혀와 함께 보방향으로 짤막한 운공(雲工)을 결구하였다.

각 칸에는 판문을 달았으며, 상부에는 안상을 뚫은 궁판과 홍살을 두었고 어칸에는 '神三門'현판을 걸었다. 좌우에 풍판을 달고, 긋기단청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전면 각 판문에는 2태극문양을 도채하였다.

(4) 외삼문(外三門)

외삼문은 향교의 가장 전면에 위치하고 강학영역의 전면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주향교에서는 외삼문이 신삼문 남측에 위치하여 제향영역에 속해 있다.

외삼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맞배지붕 건물로 평지붕으로 되어 있다. 건물의 정면 길이는 내삼문과 같으며 3량의 굴도리집으로 신삼문에 비해 검소한 형태이다. 장대석으로 된 단층 기단 위에 다양한 다듬은 초석을 정연하게 놓고,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웠다. 기둥머리에는 공포 구성없이 바로 사괘를 트고 보와 장혀를 결구한 위에 도리를 얹었으며, 대들보 중앙에는 제형 판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았다. 각 칸에는 두 짝 판문을 달았으되 어칸

10)_ 이러한 형태는 익공의 양식상 비교적 초기로 추정되는 것이며, 향후 구체적인 연대파악이 필요한 건물로 판단된다.

의 것이 크기와 너비가 좌우 칸의 것보다 크며, 각 판문 상부에는 홍살을 꾸몄고, 어칸 상부에는 '慶州鄕校'현판을 걸었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전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겹처마 맞배지붕의 단층건물이다.

기단은 장대석과 구(舊) 탑재(塔材)를 섞어 단층으로 쌓았으며, 기단 상면 둘레는 대성전과 같은 석재로 마감하고 방형의 전돌로 기단 상면을 마무리하였다. 특히 전면 동측 모서리와 중앙 계단 동측에는 형태가 완연한 탑신석(塔身石)이 남아 있다. 초석은 원형 주좌가 있는 초석을 놓고 흘림이 약한 두리기둥을 세웠으며, 건물 각 모서리에는 활주(活柱)를 세워 보강하였는데, 활주 초석은 방형 대좌에 원형의 주좌를 두었다. 활주 상부에는 보방향으로 짤막한 운공을 끼워 전면쪽으로는 외목도리장혀를 받고, 안쪽으로는 소로를 하나 얹어 주심도리장혀를 받고 있다.

명륜당 평면의 구성은 좌우 측칸을 2통칸의 온돌방을 들이고, 전면 1칸을 모두 퇴칸으로 하였다. 정면 어칸을 14.5척으로 가장 넓게 잡고 퇴칸을 11척으로 가장 좁게 하였으며, 측면도 어칸을 14.5척 정도로 하고 나머지 칸은 반으로 처리하였다. 벽체의 구성은 전면은 쌍여닫이 세살창을 두고, 대청 부분은 어칸에만 2짝 불발기문을 내어 출입하도록 하였다. 대청 후벽은 각 칸에 둔테가 달린 쌍여닫이 울거미 널창이 3개소에 달려 있다.

공포 양식은 외1출목의 주심포집으로 살미와 헛첨차의 형상은 대성전과 비슷하나 날카롭지 못하다. 첨차는 마구리가 직절된 교두형이며 주심첨차는 운두를 높게 하여 1개만 사용하고 있으며, 창방 위에 1개씩의 화반을 두고 있다.

가구의 구성은 어칸에서 1고주, 측면에서 2고주 5량가로 하고 2주열을 퇴칸으로 처리하여 내진주를 두었으나 대청부분은 평주로 하고 창방 상부는 벽체를 쳤다. 대들보는 전면 고주와 후면 평주에 걸쳤으며, 전면 퇴칸에는 툇보를 결구하였다. 대청 부분의 내진주 상부에는 첨차를 4단으로 쌓아 대들보와 툇보를 받게 하고, 그 위에 중도리를 받게 구성한 것이 매우 특이하다. 후면 고주열의 중대공은 보방향으로 판대공을 놓고 도리 방향으로 첨차와 뜬창방을 결구하였다. 대청 부분의 종대공은 반타원에 가까운 파련대공으로 하였으나 나머지는 제형판대공으로 하였다.

긋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으며, 내부에는 다수의 기문이 걸려 있다. 전면 퇴칸열의 동서측면에는 창틀이 남아 있어 창호를 설치했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붕 좌우에는 풍판을 달았다. 전체적으로 임란 이후 중건되었을 당시의 풍격을 보여주고 있다.

(2) 동재(東齋), 서재(西齋)

동재와 서재는 각각 전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각 건물 모두 전면 반 칸을 툇마루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통칸으로 하였다. 1고주 5량가의 굴도리 집으로, 측면에서는 고주 없이 대들보 중앙에 받침기둥을 세웠다. 퇴칸 부분은 퇴량으로 결구하였으며 보 밑에는 보아지를 끼워 놓았으며, 기둥은 원주를 사용하였다. 고주는 평주와 같은 높이로 결구되어 대들보를 받고 있으며, 상부로는 방형의 동자주를 높직하게 세운 것처럼 구성되어 있다. 서재는 1981년에 동재와 같은 형식으로 복원되었다.

(3) 존경각(尊經閣)

존경각은 전면 2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명륜당 후면에 자리잡고 있다. 장대석 한 단으로 낮게 마감된 기단 위에 방형대좌에 원형주좌를 둔 초석을 가지런히 놓고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웠다. 각 칸 전면에는 외짝 세살문을 달았고 좌우측면 중방 하부는 판벽으로 마감하였다. 서측칸 전면 상부에는 존경각 현판을 달았으며, 동측칸 상부에는 1990년에 제작된 '尊經閣重建記'[11]가 걸려있다.

다. 기타

기타 건물로는 전교실과 전사청, 교직사, 그리고 상용문 등이 있다. 또한 고종 10년(1873)에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수하였던 부윤 이만운의 송공비(頌功碑)가 향교 내에 남아 있다.

전교실은 전면 4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장대석 단층 기단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웠다. 전면에 툇마루를 달았으며, 중앙 2칸은 온돌로, 서측 1칸은 마루로 꾸몄으며, 동측 1칸은 부엌으로 구성하였다.

전사청은 'ㄱ'자형의 살림집 형태로 되어 있으며, 교직사와 마주보고 있다. 장대석 단층 기단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웠으며, 기둥 상부는 민도리로 구성하고 맞배지붕에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전사청과 교직사 사이에는 우물이 자리잡고 있다.

교직사는 전면 4칸, 측면 1칸 규모의 'ㅡ'자형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장대석으로 정연하게 쌓은 단층 기단 위에 방형 기둥을 올렸다. 전면에 툇마루를 덧달았으며, 중앙 2칸은 온돌을 꾸몄으며 서측 1칸은 마루, 동측 1칸은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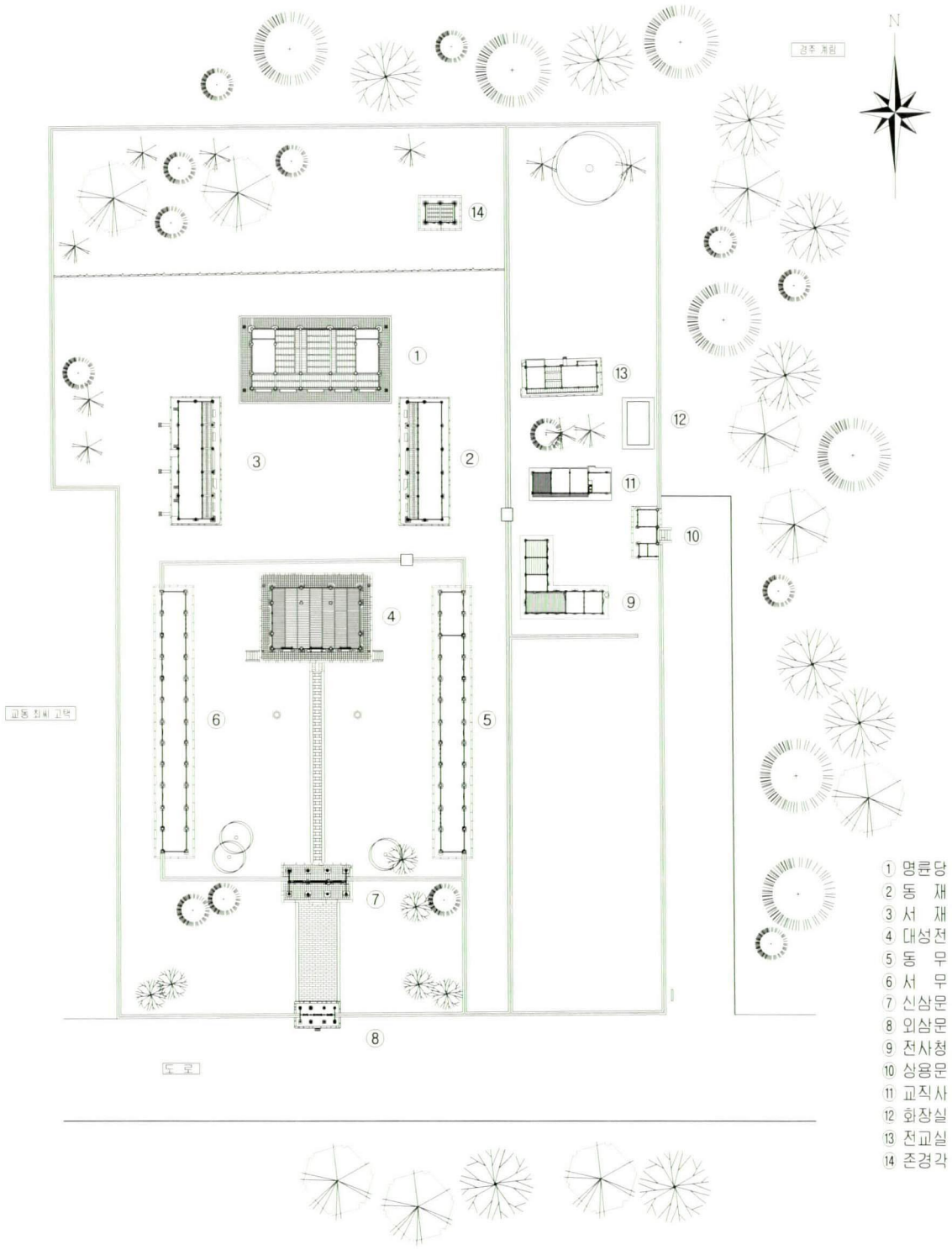
교직사측 출입문은 상용문이라 하며, 향교의 동편 중앙에 자리잡고 있다. 전사청과 전교실 영역으로 출입하는 정문으로 전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가운데 1칸은 판문을 달아 출입 용도로 하고 좌우 각 칸은 벽체로 막아 실(室)과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협문은 모두 2동이 있으며, 하나는 대성전의 동북측 후면에 자리잡고 있어 강학영역과의 출입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동재 남동측 후면에 자리잡고 있어 교직사 쪽으로 출입 역할을 하고 있다. 모두 일각문 형태로 두 짝 판문을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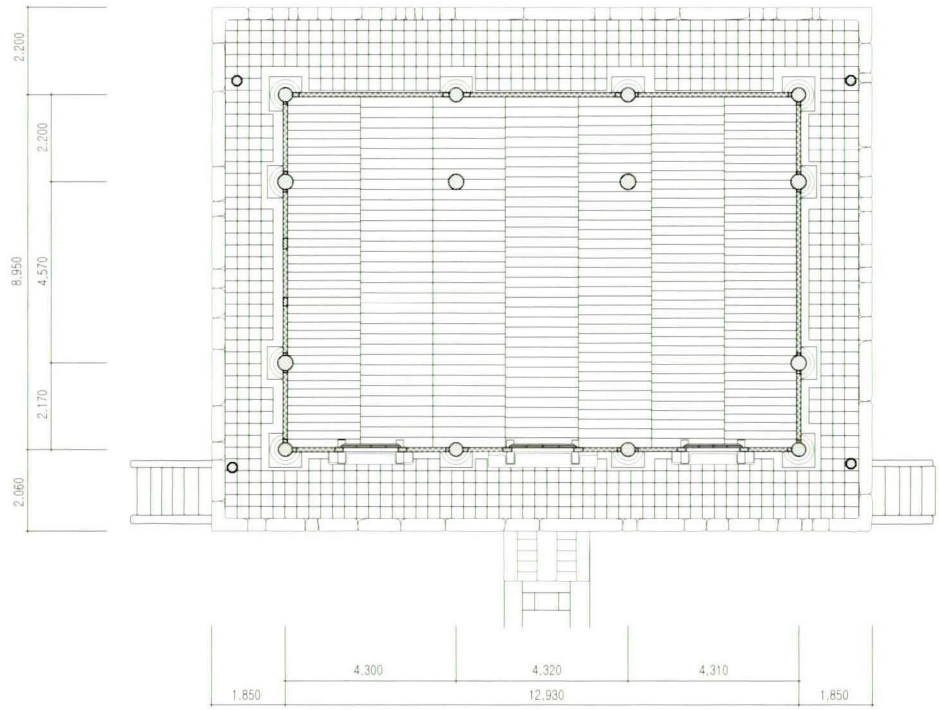
11)_ '尊經閣重建記', 말미에 '大韓民國七十二年庚午三月 日 雞林金亨鎭記'라 되어 있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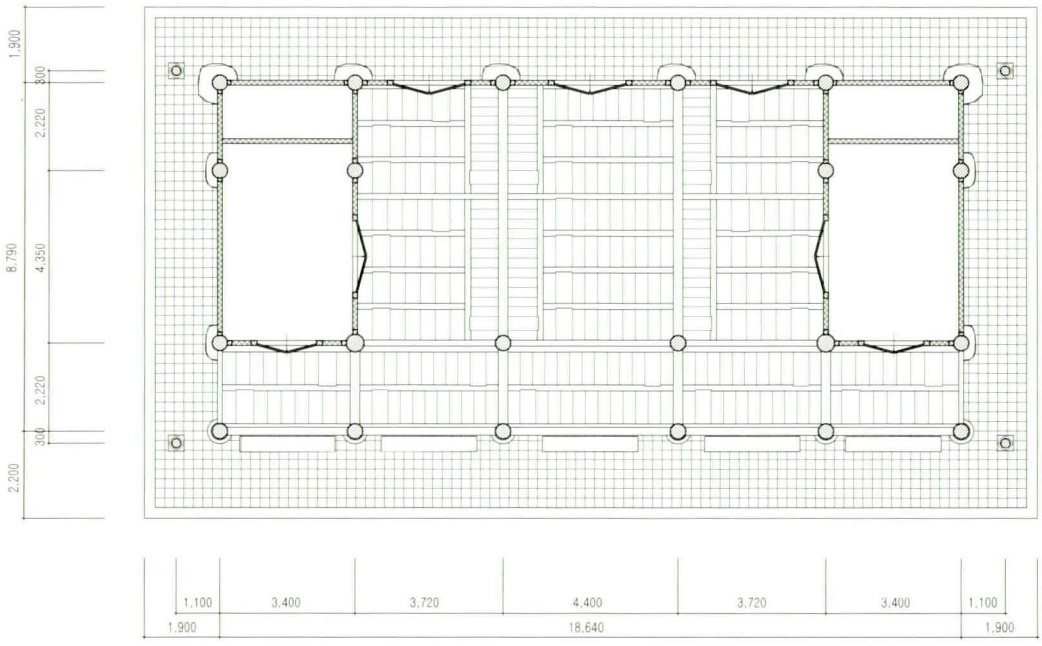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경주향교(慶州鄕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1호(일곽)
창건시기	고려 인종 5년(1127)	입 지	평지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향교재단
좌 향	남향 (S10°E)	배치형식	前廟後學 / 前齋後堂 남북 종축 1개
중건시기	1600~1614 일곽 건물 중건	대지조성	평지
설 위	5聖, 宋朝 2賢, 海東 18賢	인접시설	최씨 고가, 첨성대 등 유적지 다수
건축구성	대성전, 동무, 서무, 명륜당, 동재, 서재, 외삼문, 신삼문, 존경각, 전교실, 전사청, 교직사, 상용문(교직사측 출입문), 협문 2동 등		
특기사항	전체적으로 임란 이후 중건시기 (17세기 초)의 건축 풍격을 유지하고 있음 탑재 및 계단석, 공포 형태 등의 건축문화재적인 가치가 매우 뛰어남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3×3칸, 후1퇴칸 / 외1출목 2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1고주(어칸) · 2고주(측벽) 7량가 / 전돌 / 연등천장 · 반자(어칸 후퇴칸) / 주고 평주 3000, 우주 3360, 고주 4730 / 어칸 3450 / 수장폭 125 / 도리단면 Ø=300전후 / 보단면 : 대들보 450×480, 종보 390×420(너비×춤) / 처마내민길이 2830 / 기단높이 : 전면 950 / 초석크기 약 800×800 전후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이벌대 / 장대석 바른층쌓기 전면 1개 / 좌우측 각 1개(각 5단)	보	대들보 : 전평주 후고주 걸침(어칸)
초 석	정평주초 / 원형 주좌	도 리	7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배흘림 Ø=340 (활주 Ø=240)	대 공	중대공 : 동자주+포대공 중종대공 : 화반+도리방향 첨차 종대공 : 파련대공(어칸), 판대공(측벽) + 첨차
공 포	외1출목 2익공 / 보머리 운궁형 초각	창 방	방형 120×270 / 뺄목 초각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 / 긋기단청 / 연등천장(어칸 후퇴칸 우물천장) / 전돌		
특기사항	신방목과 신방석의 형태가 우수하며, 벽체 하단에 기초석을 둘렀음 전면에 명대석이 있으며, 해체수리 결과 조선 중기 17세기의 건물로 판명됨 기둥 내부 하부에 백색+흑색 띠 두름		
명륜당 건축 요소			
개 요	5×3칸 / 1출목 2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1고주(어칸), 2고주(측벽) 5량가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 室 : 온돌 · 지반자 / 주고 평주 3150 고주 4870 도리뺄목 받침기둥 3340 / 주칸 어칸 4400 / 수장폭 125 / 도리단면 Ø=300 / 보단면 : 대들보 360×450, 종보 330×420 / 처마내민길이 2600 / 기단높이 : 전면 400, 후면 250 / 초석크기 700×700 전후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외벌대 전면 1개 (2단)	보	대들보 : 전고주 후평주 걸침 종 보 : 4분변작
초 석	정평주초 / 원형 초석(고막이 있음)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 배흘림 Ø=370 전후	대 공	중대공 : 판대공+도리방향 첨차 종대공 : 파련대공(어칸), 판대공(측벽)
공 포	외1출목 2익공 / 주간 화반	창 방	말각방형 180×270 / 뺄목 초각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이	지 붕	맞배지붕
수 장	회사벽 / 긋기단청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지반자		
특기사항	내부에 기문 다수가 게액되어 있음 전면 고주 상부의 첨차 중첩형 대공 구성이 매우 특이함 기단 면석에 탑재 등 사찰 부재 다수 포함되어 있음		



경주향교 배치도
(우리건축사사무소 협조)



경주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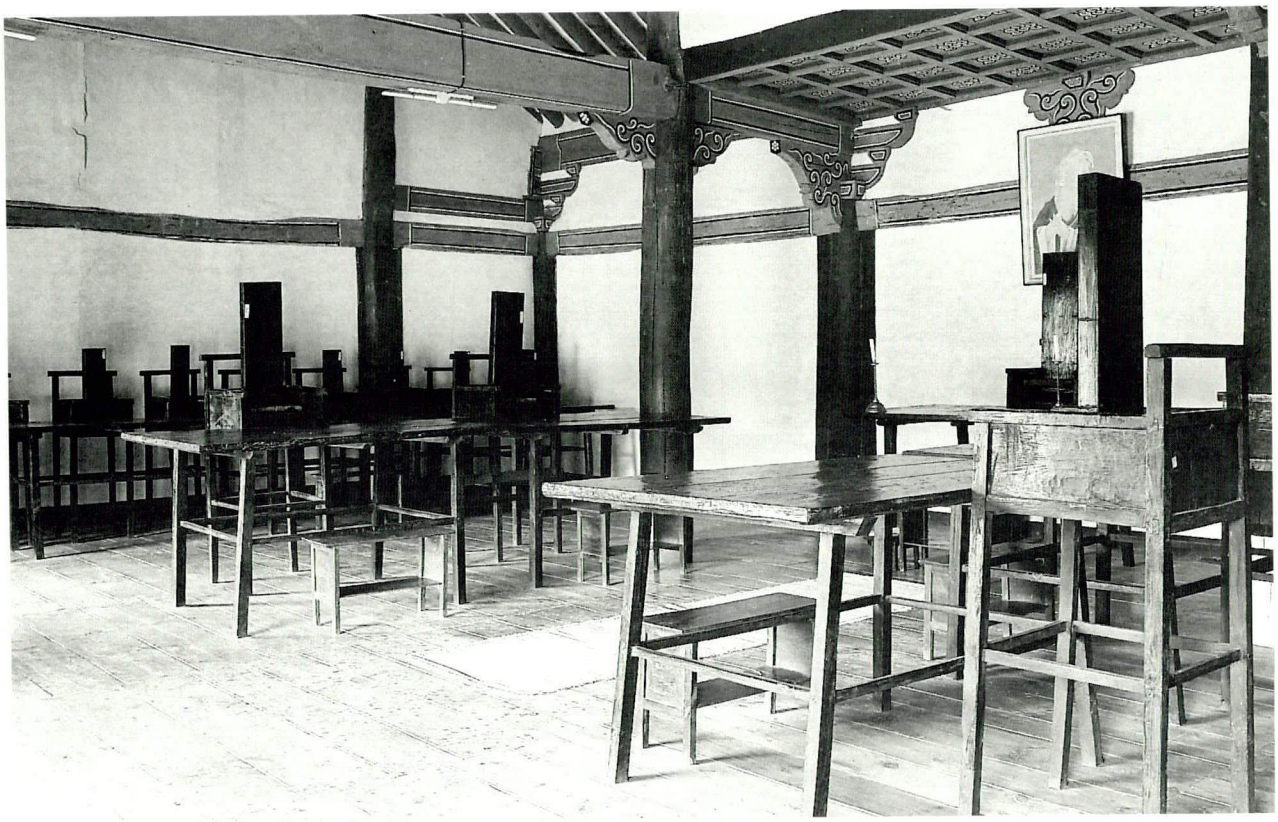


경주향교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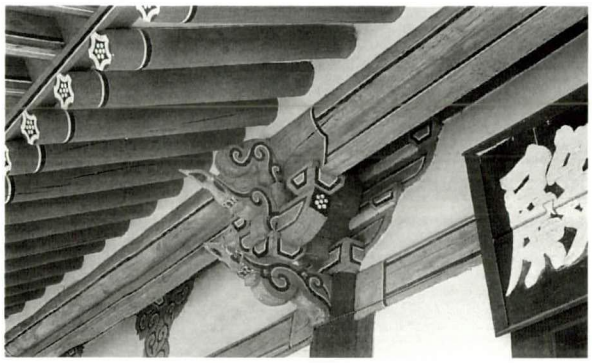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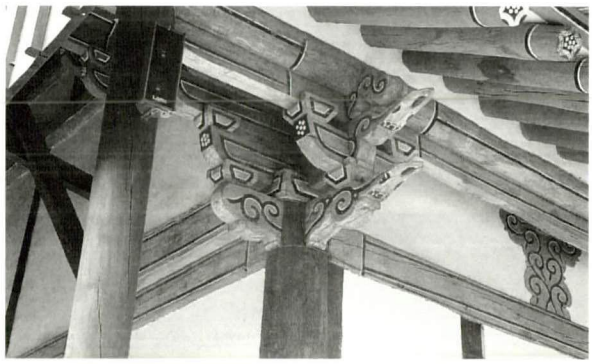
대성전



대성전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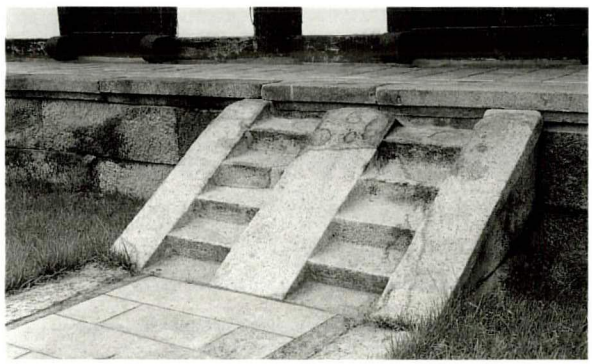
대성전 전면 주상포



대성전 전면 귀포



대성전 전면 화반



대성전 전면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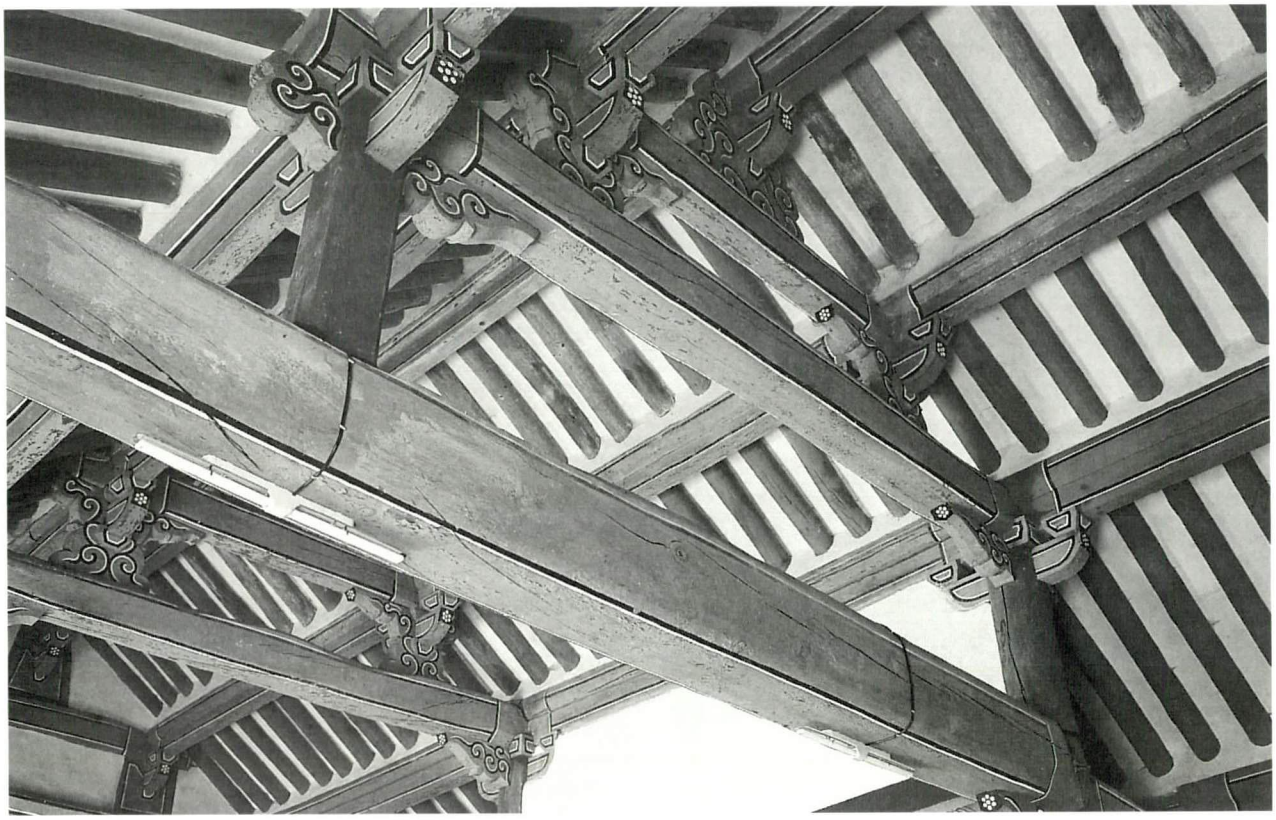
대성전 전면 어칸 창호



대성전 전면 기단 갑석



대성전 전면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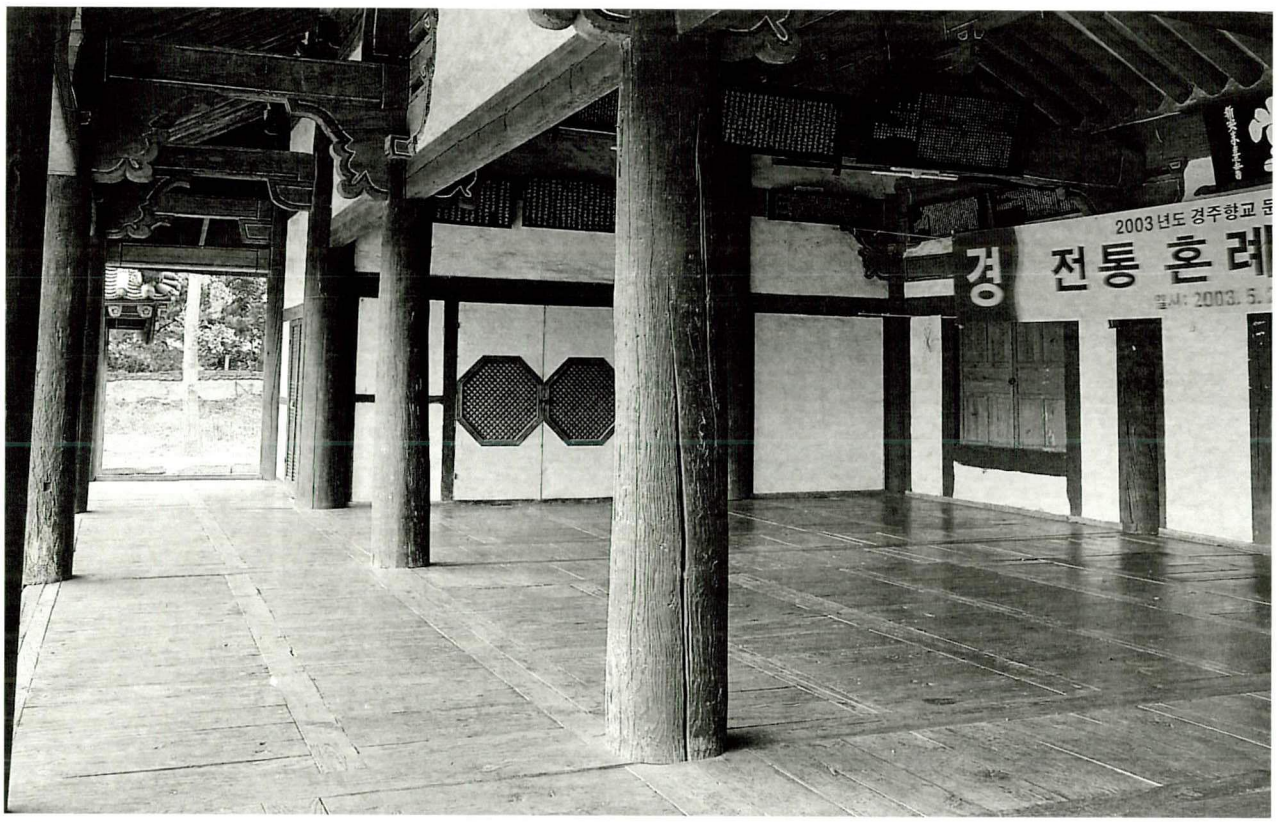
대성전 내부 가구



대성전 내부 가구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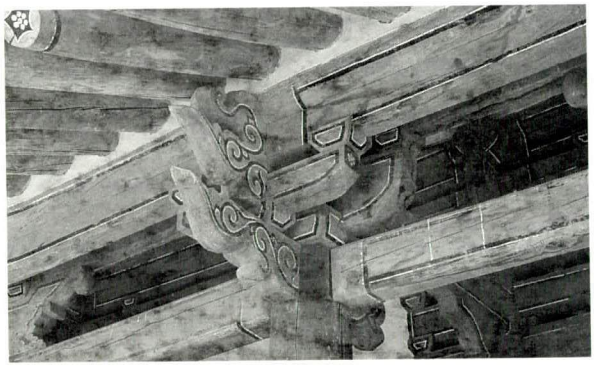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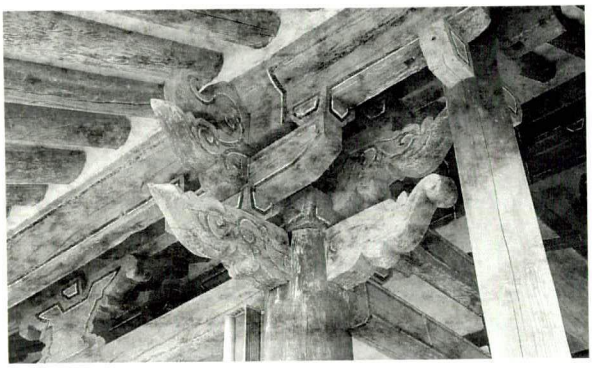
명륜당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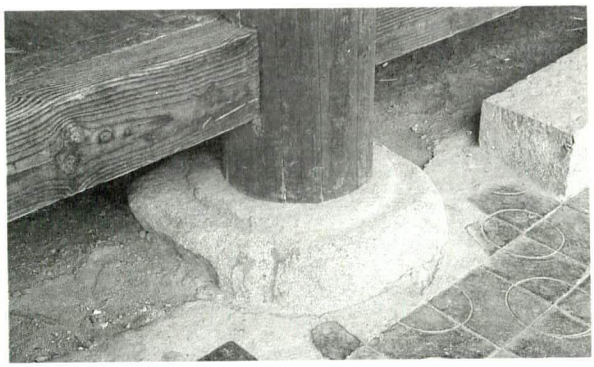
명륜당 전면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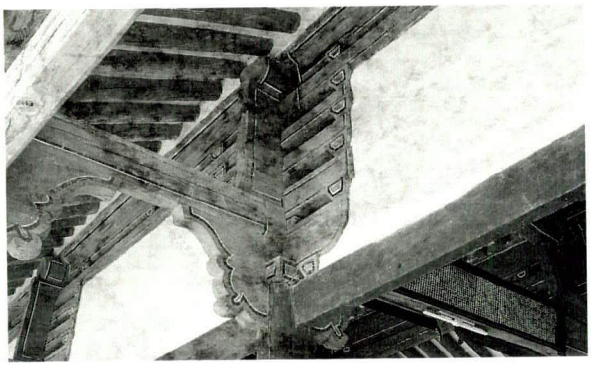
명륜당 전면 주상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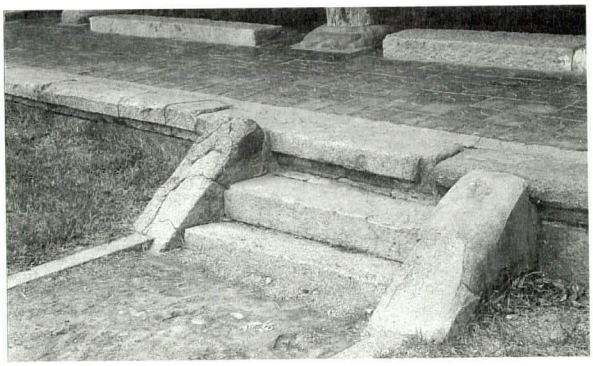
명륜당 전면 귀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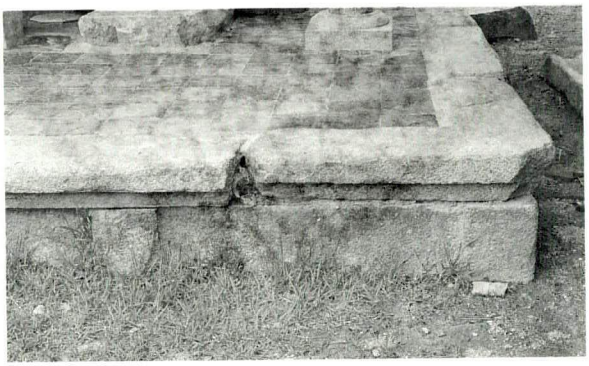
명륜당 전면 초석



명륜당 고주 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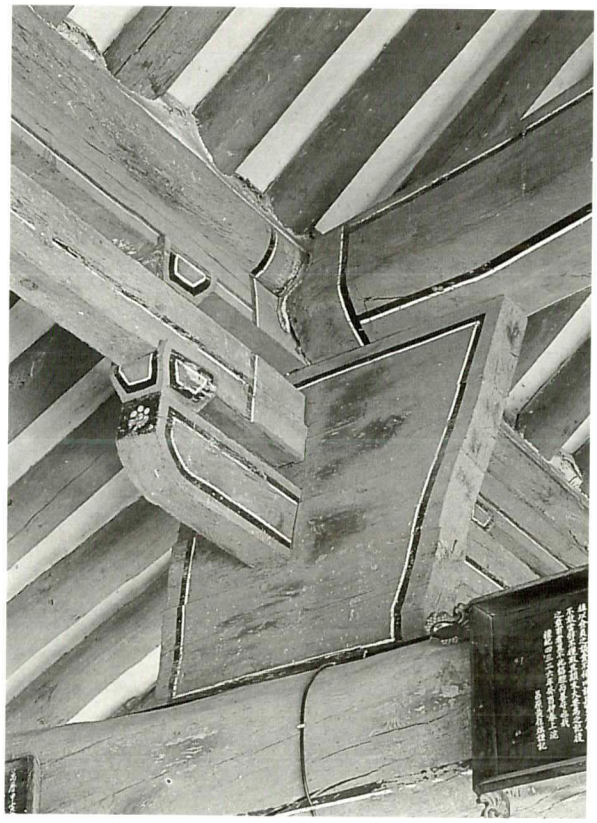
명륜당 전면 계단



명륜당 전면 기단 면석(탑재)



명륜당 내부 가구



명륜당 내부 중대공



명륜당 내부 종대공



동무



서무



동재



서재



신삼문



외삼문



전교실



존경각



교직사



협문



명대석



전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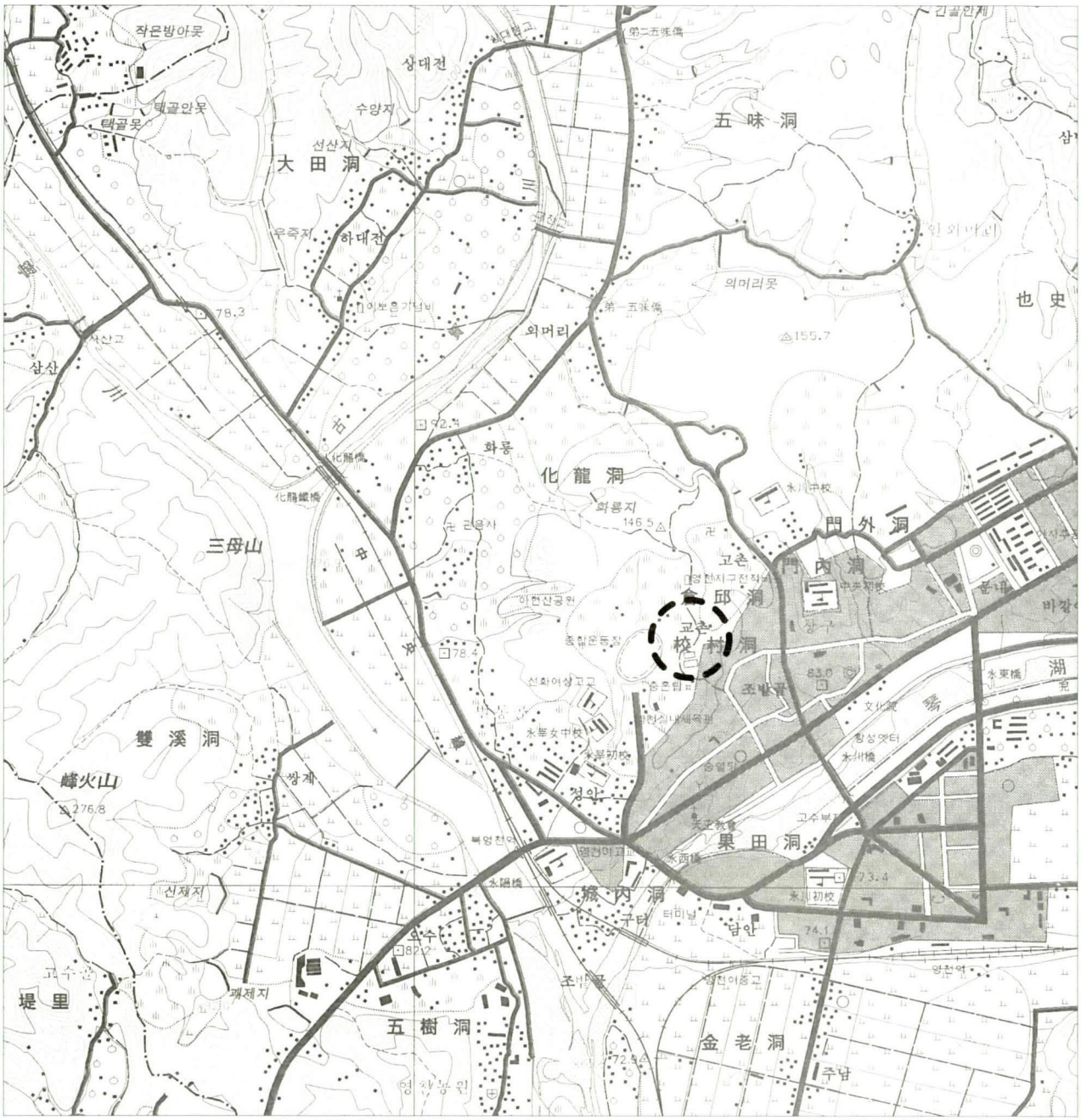


상용문



2. 영천향교(永川鄕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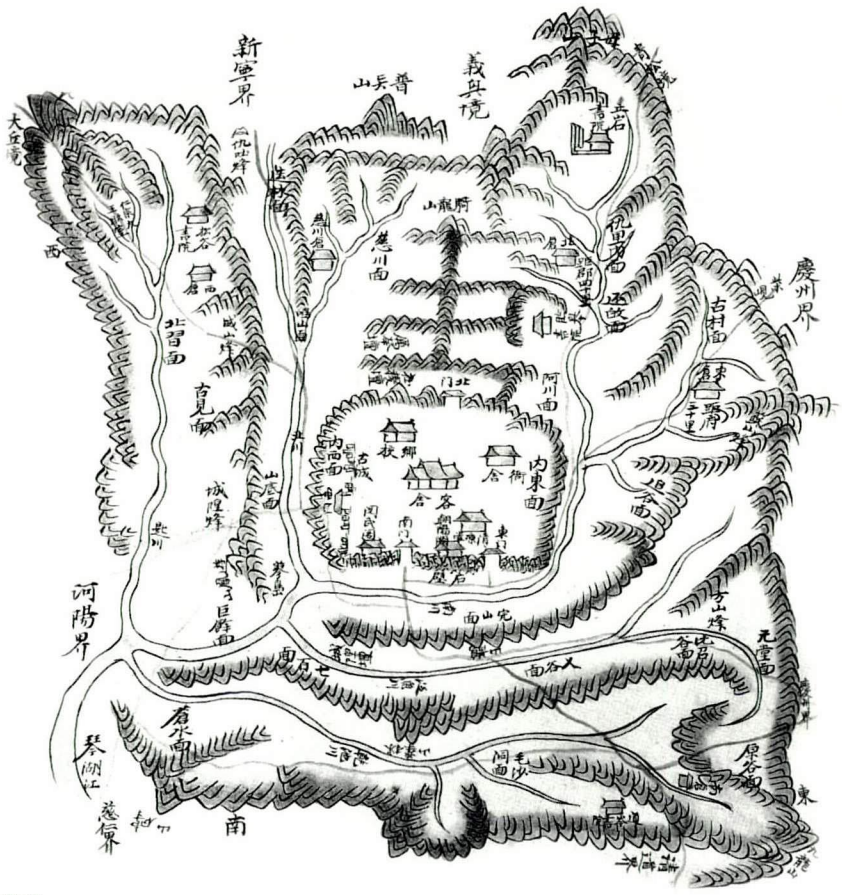
- 지정사항 : 보물 제161호(대성전)
- 지 정 일 : 1978년 4월 11일
-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46-1
- 건축구성 : 대성전, 동무, 서무, 전사청,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유래루, 삼일재, 전교실, 교직사, 대문채, 화장실 등



1. 연혁

영천지역에는 삼한시기에 골벌국이라는 부족국가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236년에 신라에 항복하였고 경덕왕 대에 임고현(臨皐縣)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 도동(道同), 임천(臨川) 2현을 합하여 영주(永州)가 되었으며, 성종 때 자사(刺史)가 설치되었다가 현종 9년(1018)에 경주의 속읍(屬邑)이 되었다. 그후 고려 명종 때 감무(監務)가 설치되었고, 후에 지주사(知州事)로 승격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태종 13년(1413)에 영천도(永川都)로 고치고 신령현을 소속시켰다.

영천향교는 조선 초기에 건립되었으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며, 다만 성종 12년(1481)에 신찬된 『東國與地勝覽(동국여지승람)』에 군 북쪽 2리에 학교가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늦어도 고려말, 조선 초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 세종 17년(1435)에 대성전을 건립하고, 이를 중종 8년(1513)에 군수였던 김흠조(金欽祖)가 중수하였다. 명종 1년(1546) 군수 이중량(李仲樑)이 명륜당을 중건하고 사마소(현 삼일재)와 서별실(西別室), 행곽(行廓), 유래루(牖來樓) 등을 창건하였으나, 명륜당은 선조 3년(1570)년에 소실되었으며, 같은 해에 군수 이유홍(李惟弘)이 동서재를 건립하였다. 임진왜란 때에는 이현남(李顯男)이 대성전에 봉안되어 있던 신위를 기룡산(騎龍山)의 성혈암(聖穴巖)으로 옮겨 난을 피한 뒤 환안(還安)하였다. 광해군 2년(1610)에 대성전과 명륜당이 중건되었으며, 광해군 2년(1610)에 명륜당을 중건하였으며, 광해군 14년(1622)에는 군수 황효의(黃孝儀)가 대성전을 중건[1]하였다. 인조 6년(1682)에는 명륜당에 편액을 게시하



永川郡

1)_ 주남철이 쓴 『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에는 군수 조명운(曺明鄆)으로 되어 있으나, 전례연구위원회에서 간행한 『儒敎大辭典(유교대사전)』(전영사, 1990)에는 조명욱(曺明昱)으로 되어 있어 후자를 따랐다. 또한 중건 시기를 두 책에서는 광해군 11년(1619)으로 하였으며,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永川鄕校大成殿 修理工事報告書」(2001)에는 만력 38년, 광해군 2년(1610)으로 되어 있어, 이를 따랐다.

였고, 영조 12년(1736)에 대성전을 보수하였다. 현종~숙종 대에 군수 한명원(韓明遠)이 전사청을 창건하였다고 전해지고, 영조 20년(1744)에 대성전을 보수하였으며, 영조 27년(1751)년에 대성전에 누수(漏水) 현상이 생겨 중수하였다. 영조 30년(1754)에 다시 대성전이 누수되어 대성전을 중수하였으며, 영조 41년(1765)에 동서재를 보수하였고, 정조 1년(1777)에 대성전과 동서무가 비바람에 기울어 이를 감영에 보고한 뒤 수리하였다. 정조 5년(1781)에는 대성전 기와가 바람에 날리고 비가 새었다고 하며, 이듬해에는 화재로 향교 일부 건물이 소실되어 명륜당과 동서재 등을 수리하였고, 2년 후에 군수 심진(沈鎭)이 명륜당을 재차 중건하였다. 정조 11년(1787)에 대성전과 동서무의 누수부를 수리하였으며, 정조 14년(1790)에 제기 등을 새롭게 만들었고, 정조 21년(1797)에 다시 대성전과 동서무의 창호와 벽체 일부가 파손돼 이를 수리하였다. 순조 18년(1818)에 명륜당과 동재, 서재, 전사청, 대문 등을 보수하면서 주사(廚舍)와 협문(夾門)을 창건하였으며, 2년 후에는 대성전과 동무의 후벽이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였다. 순조 22년(1822)에는 기울어진 대문 3칸을 수리하고, 대성전과 서무의 기와 등을 번와하였으며, 대성전 후면에 물길을 보수하였다. 순조 28년(1828)에는 대성전 동서벽의 창호를 수리하였으며, 헌종 1년(1835)에 사마소를 중건하였다. 헌종 4년(1838)에는 제기고(현 전사청)와 대성전 창호, 신문의 기와, 강당 전후의 담을 보수하고 동재에 번와보수하였다. 철종 1년(1850)에는 대성전과 동서무의 창호를 수리하고, 이듬해에는 대성전과 동서무에 번와보수하였다. 철종 4년(1853)에는 대성전과 동서무의 창호를 수리하고, 철종 13년(1862)에는 대성전과 명륜당, 동재 등의 기둥 썩은 부분을 수리하였다. 고종 2년(1865)에는 대성전과 동서무 창호의 광창을 수리하였으며, 군수 남필우(南泌佑)가 대성전에 단청을 하였다. 고종 6년(1869)에 대성전 광창과 동서무의 창호 등을 수리하고 양무의 지붕을 수리하였다. 고종 12년(1875)에 대성전 창호와 광창을 수리하면서 양사재를 중수하였고, 고종 16년(1879)에 대성전과 동서무를 번와보수하고, 무너진 담을 수축하였다. 광무 3년(1899)에는 대성전과 명륜당의 현판을 수리하고, 광무 4년(1900)에 대성전 서측칸의 벽체를 수리하였다. 1912년에 대성전과 동서무, 신문을 단청하고 명륜당 창호와 마루, 문루의 마루 등을 수리하였다. 1922년에 대성전을 중수하였고, 1925년에 향교 일곽을 정비하였으며, 1927년에 대성전과 동서무, 제기고, 신문 등을 중수하였다. 1928년에 명륜당과 담 일부를 보수하였으며, 1934년에 교직사를 수리하였다. 1936년에는 주사와 삼일재 등을 중수하고 대성전을 번와보수하였다. 1947년에는 명륜당과 삼일재를 중수하였고, 1953년에는 교궁 일곽에 번와보수하였으며, 1955년에 대성전과 동무, 서무, 삼문 등을 수리하였다. 1963년에는 유래루와 대성전, 전사청 등에 번와보수하였으며, 1968년에 다시 향교 일곽을 정비하였다.

1970년에 서재를 보수하고, 1972년에 동재를 보수하였으며, 1974년에는 전사청을 보수하였다. 1978년에는 대성전이 보물 제616호로 지정되었으며, 1979년에 명륜당에 단청과 번와보수를 하였다. 1984년에 유래루와 조양각(朝陽閣)을 보수하였으며, 1985년에 대성전을 중수하면서 동서무를 보수하고 담 일부를 번와보수하였다. 1986년에는 다시 동서재를 보수하였으며,

1987년에 대성전을 완전 해체하여 부식 부재 등을 교체하고 번와하는 등 대대적인 수리를 거쳤다. 1988년에는 동서재를 산자 이상 해체하여, 부식부재 교체, 기둥 드잡이, 기단부 재축, 기단 상면 강회다짐 마감 등의 공사가 수행되었다. 1992년에는 화재에 대비하여 향교 내부에 물탱크 및 소화전 설비를 공사하였고, 1995년에는 유래루 석축을 보수하고 명륜당 기단과 화장실 바닥 등을 보수하였다.

2001년에 대성전을 완전 해체 보수하였고, 해체 이전 상황에 대한 상세한 실측 조사 결과는 문화재청, 『永川鄕校大成殿 實測調査報告書』(2001.7)편에, 수리공사 결과는 문화재청,『永川鄕校大成殿 修理工事報告書』(2001.12)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창건 이후의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초 창건
1435 대성전 건립
1513 대성전 중수
1546 명륜당 중건, 사마소(현 삼일재), 서별실, 행곽, 유래루 창건
1570 명륜당 소실, 동서재 건립
1592 향교 소실
1610 대성전, 명륜당 중건
1610 명륜당 중건
1622 대성전 중건
1736 대성전 보수
1744 대성전 보수
1751 대성전 보수
1754 대성전 보수
1765 동서재 보수
1777 대성전, 동서무 보수
1781 대성전 보수
1782 향교 일부 소실, 명륜당, 동서재 수리
1784 명륜당 중건
1787 대성전, 동서무 보수
1797 대성전, 동서무 보수
1818 명륜당, 동서재, 전사청, 대문 보수, 주사, 협문 창건
1820 대성전, 동무 보수
1822 대문 3칸 수리, 대성전, 서무 번와
1828 대성전 보수

1835 사마소 중건
1838 제기고(현 전사청), 대성전, 신문, 담 보수 및 동재 번와
1850 대성전, 동서무 보수
1851 대성전, 동서무 번와
1853 대성전, 동서무 보수
1862 대성전, 명륜당, 동재 보수
1865 대성전, 동서무 보수 및 대성전 단청
1869 대성전, 동서무 보수
1875 대성전 보수, 양사재 중수
1879 대성전, 동서무 번와, 담 보수
1899 대성전, 명륜당 현판 수리
1900 대웅전 보수
1912 대성전, 동서무, 신문 단청 및 명륜당, 문루 보수
1922 대성전 중수
1925 향교 일곽 정비
1927 대성전, 동서무, 제기고, 신문 중수
1928 명륜당, 담 일부 보수
1934 교직사 수리
1936 주사, 삼일재 중수 및 대성전 번와
1947 명륜당, 삼일재 중수
1953 향교 일곽 번와
1955 대성전, 동무, 서무, 삼문 보수
1963 유래루, 대성전, 전사청 번와
1968 향교 일곽 정비
1970 서재 보수
1972 동재 보수
1974 전사청 보수
1978 대성전 보물 제616호로 지정
1979 명륜당 단청 및 번와
1984 유래루, 조양각(朝陽閣) 보수
1985 대성전 중수 및 동서무 보수, 담 일부 번와
1986 동서재 보수
1987 대성전 완전 해체 보수 및 번와
1988 동서재 중수

1995　유래루 석축 보수 및 명륜당, 화장실 보수
2001　대성전 완전 해체 보수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는 대성전, 동무, 서무, 전사청,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유래루, 삼일재, 전교실, 교직사, 대문채, 화장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입지 및 배치

영천향교는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에 자리잡고 있는데, 구 시가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향교는 경사지에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성전과 명륜당의 향은 약간씩 틀어져 있으며, 명륜당 앞의 동재와 서재로 구성된 마당은 서재의 축이 약간 비켜섬으로 인하여 완전한 방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 또한 서무가 동무보다 좀 더 대성전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내삼문 역시 대성전의 어칸과 완전한 일직선을 이루고 있지 않다.

전체 영역은 크게 3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래루와 내삼문을 사이에 두고 향교 전면에 삼일재와 전교실 등 기타 시설이 자리잡고 있고, 그 다음으로 각각 명륜당과 대성전이 중심이 된 강학영역과 제향영역이 자리잡고 있다. 각 영역 내에서도 건물간의 위계가 나타나는데, 강학영역의 경우 명륜당의 기단이 비교적 높고, 유래루 후면에 단 차이가 있으며, 제향영역에서도 대성전 전면에 월대 형식의 기단이 하나 더 나와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전면 5칸, 측면 3칸의 외1출목 초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잡석으로 다진 단층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민흘림의 원형 기둥을 세웠다. 어칸과 좌우 협칸에 두 짝 여닫이문을 달았으며, 판문 상부에는 살창을 두어 내부 채광에 유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좌우 퇴칸에는 심벽을 두고 중방 상부에 광창을 두었다. 어칸과 좌우 협칸에 설치된 여닫이문은 크게 4등분되어 상단 1/4만을 정자살로 꾸미고 나머지는 청판으로 꾸몄다.

기둥머리에는 외1출목의 초익공을 결구하였으나, 익공이라기 보다는 보아지에 가까운 형태로, 외부로 길게 내밀어진 보머리를 받고 있다. 주심에서는 재주두 없이 주두 위에 바로 대들보와 함께 이중의 장혀를 결구하는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보머리는 마름모꼴로 마무리 한 점이 특이하다.

가구는 어칸에서 5량가 좌우 측벽에서 전후 2고주 5량가의 가구를 취하고 있으며, 어칸에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3분변작의 위치에 중대공을 놓았다. 중대공은 포대공으로 되어 있는데, 도리방향 첨차의 모양이 춤이 높으면서 좌우 단부가 거의 1/4원호에 가깝게 다듬

었다. 종보 위에는 종보방향으로 종보보다 춤과 너비는 작으나 길이가 거의 흡사한 부재를 두고 그 위에 파련대공을 세워 도리방향 장혀와 함께 종도리를 받고 있다. 측벽에서는 파련대공 대신 동자주를 세웠는데 어칸과 동일하게 종보 방향으로 종보 길이와 유사한 방형 부재를 동자주 하부에 결구하였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겹처마로 되어 있으며, 전면 어칸 상부에 '大成殿'현판을 달았다. 좌우에 풍판을 달았고, 내외부 모두 모로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현재 대성전 내부에는 공자를 비롯한 5성과 송조 6현, 해동 18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본 건물은 조선 세종 대에 중국 명(明)나라 목수가 건축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건축적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또한 건물의 규모에 비해 비교적 높은 기둥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주 또한 평주에 비하여 높직하게 되어 있다. 또, 어칸에 비하여 좌우측으로 갈수록 도리의 굵기가 굵어져 처마의 앙곡을 형성하였다. 도리 굵기는 어칸의 경우 주심도리가 가장 작은 단면이 Ø238mm이고, 출목도리가 Ø231mm임에 반하여, 가장 두꺼운 단면은 각각 Ø293mm, Ø295mm로 실측되었다[2]. 또한 부연은 단면 형태가 일반적인 세워 놓은 장방형 단면이 아닌, 옆으로 길쭉한 장방형 단면(말구기준 117×60mm)으로 되어 있어 특이하다. 첨차의 원형(圓形)적 특징과 부연의 단면 형태, 고준한 창호와 광창 등 이러한 특징은 결론적으로 중국인 목수에 의한 중국 사원 건축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3].

(2) 동무(東廡), 서무(西廡)

동서무는 전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자연석 막돌쌓기로 만든 단층 기단 위에 덤벙 주초를 놓고, 원형 기둥을 세웠으며, 기둥머리에 사괘를 트고 대들보와 장혀를 받아 그 위에 도리를 얹었다. 보머리는 대성전과 같이 마름모꼴로 다듬었다.

좌우측면과 후면에는 중방 하부에 화방벽을 쌓았으며, 전면 각 칸에는 두 짝 여닫이문을 달았는데, 창호의 형식은 대성전과 같이 4분하여 상부 1/4부분에만 정(井)자살을 두고 나머지 하단은 청판을 꾸몄다.

기둥에는 석간주가칠하고 도리 이상 긋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으며, 내부는 통칸으로 바닥에는 전을 깔고 상부는 연등천장으로 두었다. 지붕 좌우에는 풍판을 달았으며, 암수막새를 사용하였다.

기단은 대지의 경사에 따라 기단 높이가 남쪽은 높고 북쪽은 낮게 되어 있으며, 서무가 동무에 비하여 대성전 쪽으로 약간 안쪽에 자리잡고 있다.

---

2)__ 문화재청, 『永川鄕校大成殿 修理工事報告書』, 2001 ; p.69

3)__ 이에 대해서 장순용은 『永川鄕校大成殿 實測調査報告書』(문화재청, 2001 ; p.97)에서, 조선 초기에 한양과 거리가 먼 영천 땅에 중국인 목수가 대성전을 만들게 된 연유는 알기 힘드나, 막연히 영천 부근에 정착한 중국인 가운데 목수가 있어 대성전 건립에 참여하게 되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3) 전사청(典祀廳)

전사청은 전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내부는 통칸으로 되어 있으며, 각 칸의 칸살은 각각 다르다.

외벌대로 쌓은 자연석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원형과 방형 기둥을 섞어 세웠다. 어칸에만 두 짝 여닫이문을 달았고 벽체는 판벽으로 처리하였으며, 기둥머리에는 사괘를 트고 장혀와 보방향으로 보아지를 결구하여 대들보를 받고 있다.

가구는 3량가로 중앙에 짤막한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를 받고 있다. 막새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풍판 없이 긋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4)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전면 3칸, 측면 1칸의 익공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건물 내외부에 계단이 있어 전후면의 단 차이가 나는데, 전면 평주는 2번째 계단 상부에 놓여 있어 기둥의 높이가 각각 다르다. 자연석 초석 위에 중앙열은 방형 기둥, 전후면은 원형 기둥을 올렸으며, 전면 좌우측 귓기둥 초석은 어칸 초석에 비해 약간 높이가 높다.

각 칸 중앙에는 두 짝 판문을 달고 판문 전면에 2태극 문양을 도채하였으며, 문 하방은 중앙부가 휘어진 자연재를 사용하였다. 기둥머리에는 외단을 직절한 초익공을 결구하였으며, 주간에는 소로를 수장하였다. 내부는 연등천장에, 모로단청으로 마무리하였으며, 막새기와는 사용하지 않았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전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익공계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명륜당은 정면에서 4단으로 자연석 바른층쌓기한 단층 기단 위에 덤벙 주초를 놓고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웠다. 중앙에는 5단으로 구성된 계단이 놓여져 있으며, 전면 쪽의 초석이 후면보다 조금 큰 편이다.

기둥에는 약한 민흘림을 두었으며, 기둥머리에는 단부를 직절한 초익공을 결구하고 대들보를 받았다. 평면은 전형적인 동서 양방형 평면으로 동실과 서실을 두고 전면에 두 짝 세살문을 달았으며, 또한 당 후면에는 두 짝 당판문을 각각 달았다. 동실과 서실의 서벽, 동벽에는 각각 두 짝 세살문을 달았는데,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맨 아래에는 청판을 꾸몄고 위와 중간에는 정(井)자살을 꾸몄는데 살대의 크기와 간격이 다르게 되어있어 특이하다.

기둥머리에는 초익공을 구성하였는데 외단은 직절하고 하단을 궁글렸으며, 귀부분에서는 창방 뺄목을 익공재 외단과 동일하게 다듬었다. 주간에는 소로를 수장하였으며, 가구는 어칸에서 5량가로, 좌우 실 당 측 벽면에서는 중앙에 평주와 동일한 높이의 기둥을 두고 맞보로 되어 있다. 대들보는 전후 평주에 걸쳐 있고, 3분변작의 위치에 중대공을 놓았는데, 짤막한

동자주 위에 주두를 놓고 십(十)자로 첨차를 결구한 다음 장혀를 놓아 종보를 받았다. 종보 중앙에는 판대공을 놓았는데, 도리방향으로 2중의 첨차를 두었다. 종대공과 중대공, 그리고 주상포와 귀포의 첨차 외단 및 창방 뺄목은 모두 하단을 원형으로 궁글린 형태로 되어있다.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사면 모두 겹처마로 되어 있으며, 암막새와 숫막새를 사용하였다. 부연의 단면 형태는 대성전과 유사하게 횡으로 긴 장방형으로 되어 있으며,[4] 당 어칸 후벽 상부에는 '明倫堂' 현판을 걸었다.

(2) 동재(東齋), 서재(西齋)

동서재는 각각 전면 4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자연석으로 쌓은 단층 기단 위에 덤벙 주초를 놓고 방형과 원형의 기둥을 섞어 올렸다. 양 건물 모두 전면에 툇마루를 두고, 북측 2칸은 온돌로, 남측 2칸은 마루로 꾸몄으며, 실 전면에는 두 짝 세살문을 달고 당 후벽에는 판문을 달았다.

가구는 3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판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았으며, 기둥머리에는 사괘를 트고 대들보와 장혀를 받아 종도리를 얹었다. 보머리는 대성전, 동서무와 같이 마름모꼴로 다듬었으며, 동재의 경우 남측벽에 외짝, 서재는 두 짝 판문을 달아 내었다. 동재는 명륜당에 대하여 직각의 향을 갖추고 있으나 서재는 약간 축을 바깥쪽으로 비틀어 비대칭을 이루고 있다. 각 건물 모두 후면에 아궁이와 굴뚝을 갖추었다.

(3) 유래루(牖來樓)

유래루는 전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홑처마 익공계 맞배지붕의 중층누각이다. '牖來(유래)'는 '공부하러 오는 이는 누구도 막지 않는다'라는 뜻이라 한다.

건물은 강학영역에서 한 단 낮게 자리잡고 있으며, 전면에서 보았을 때 장대석 2단 바른층쌓기로 기단을 형성하였고, 건물 하층 어칸에서 1단, 후면에서 다시 1단의 계단을 두어 후면 평주열과 중앙기둥렬의 높이가 다르다. 초석은 덤벙주초로 되어 있으나, 후면의 경우 초석 위에 다시 초석을 놓은 흔치 않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기둥은 원형 기둥을 사용하였으며 상하층 별재로 되어 있다. 하층은 중앙 각 칸에 판문을 달아 출입용도로 하고 하였으며, 후면 서측 협칸에 상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두었다. 상층 바닥은 우물마루로 짜여졌으며 기둥머리에는 초익공을 결구하였고, 보머리는 직절한 다음 초각한 부재를 끼워 넣었다.

가구는 3량가로 중앙에 판대공을 걸었다. 단청은 하지 않았으며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고, 광해군 14년(1622)에 제작된 '大成殿重修記'[5] 등 다수의 기문이 있다. 상층에는 계자각 난간을 둘렀으며, 전면 어칸 중앙에 '牖來樓' 현판을 달았고, 하층 어칸 기둥에 '永川鄕校' 현판을 걸어두었다.

---

4)_ 명륜당 부연 단면 크기는 145×100mm로 대성전과 마찬가지로 횡으로 길다. 문화재청,『永川鄕校 大成殿 實測調査報告書』, 2001 ; p.210

5)_ 기문 말미에 '天啓二年九月十三日'이라 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大成殿重修上樑文'이 같은 해 제작되어 명륜당 내에 게액되어있다.

다. 기타

기타 건물로는 삼일재(三一齋), 전교실(典校室), 교직사(校直舍), 대문채, 사주문, 화장실, 협문 등이 있다.

삼일재는 정남에서 약 20도 가량 동편을 향한 동남향을 취하고 있다. 삼일재는 또한 사마소(司馬所)라고도 하였으며, 이 지역 향사(鄕士)들이 후진을 양성하던 곳으로, 이곳을 거쳐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이 경비를 대고 관의 보조를 받아 건립한 건물이다. 명종 1년(1546)에 최초로 창건되었고, 이후 헌종 1년(1835)에 중건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근래에는 1974년 7월에 중수하였으며, 이 때 제작된 중수기가 당(堂)에 게액되어 있으며[6], 별도의 담으로 유래루 앞 서편에 구획되어 있다.

건물은 전면 4칸, 측면 1칸 반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시멘몰탈로 마감한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덤벙주초를 놓고 전면은 원형, 후면은 방형 기둥을 올렸다. 기둥 상부는 사괘를 트고 외단을 직절한 보아지와 장혀를 결구하여 대들보와 납도리를 받았다. 가구는 3량가로 중앙에 판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았으며, 대들보 1/3지점에 평주와 같은 높이의 고주를 두어 전면에 퇴칸을 구성하고 툇마루를 꾸몄다. 평면은 중앙 2칸을 당(堂)으로, 좌우에 실(室)을 두었으며, 각각 우물마루와 연등천장, 온돌과 지반자로 마감하였다. 단청은 하지 않았으며, 좌우에 풍판을 두었다. 전면 어칸 상부에는 기미(己未)년에 제작된 '三一齋'현판이 걸려 있다.

전교실은 정확한 창건 연대를 알 수 없으며, 유래루 앞 동편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은 전면 4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동향하여 배면이 유래루 쪽을 향하고 있다. 북측 2칸은 측후면을 판벽으로 두고 남측 2칸을 내부 통칸으로 꾸며 온돌로 두었다. 특히 북측 2칸은 과거에 창고로 사용되었던 것을 개조한 것으로 추측된다. 자연석 단층 기단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워 3량가의 가구를 구성하였다.

교직사는 유래루 남동편에 자리잡고 있으며, 단층 기단 위에 전면 4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서측에서부터 방-부엌-방-마루 순으로 되어 있으며, 배면에 보일러 실을 최근 추가하였다.

대문채는 교직사 영역으로 통하는 문으로 전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자연석 막쌓기로 된 단층 기단 위에 덤벙 주초를 놓고 방형 기둥을 세워 3량가의 가구를 형성하였다. 가운데 칸은 판문을 달아 출입하게 하였으며 좌우칸은 온돌을 들였다. 건물 서편에 전교실과의 사이에 창고를 가설하였다. 후면에 아궁이가 있고 양 실의 전면에는 외부로 돌출되어 굴뚝이 기단 위에 자리잡고 있다.

화장실은 향교 내에 2동이 있으며, 하나는 삼일재 서편 뒤쪽에, 다른 하나는 명륜당 동편에 별도의 담으로 구획되어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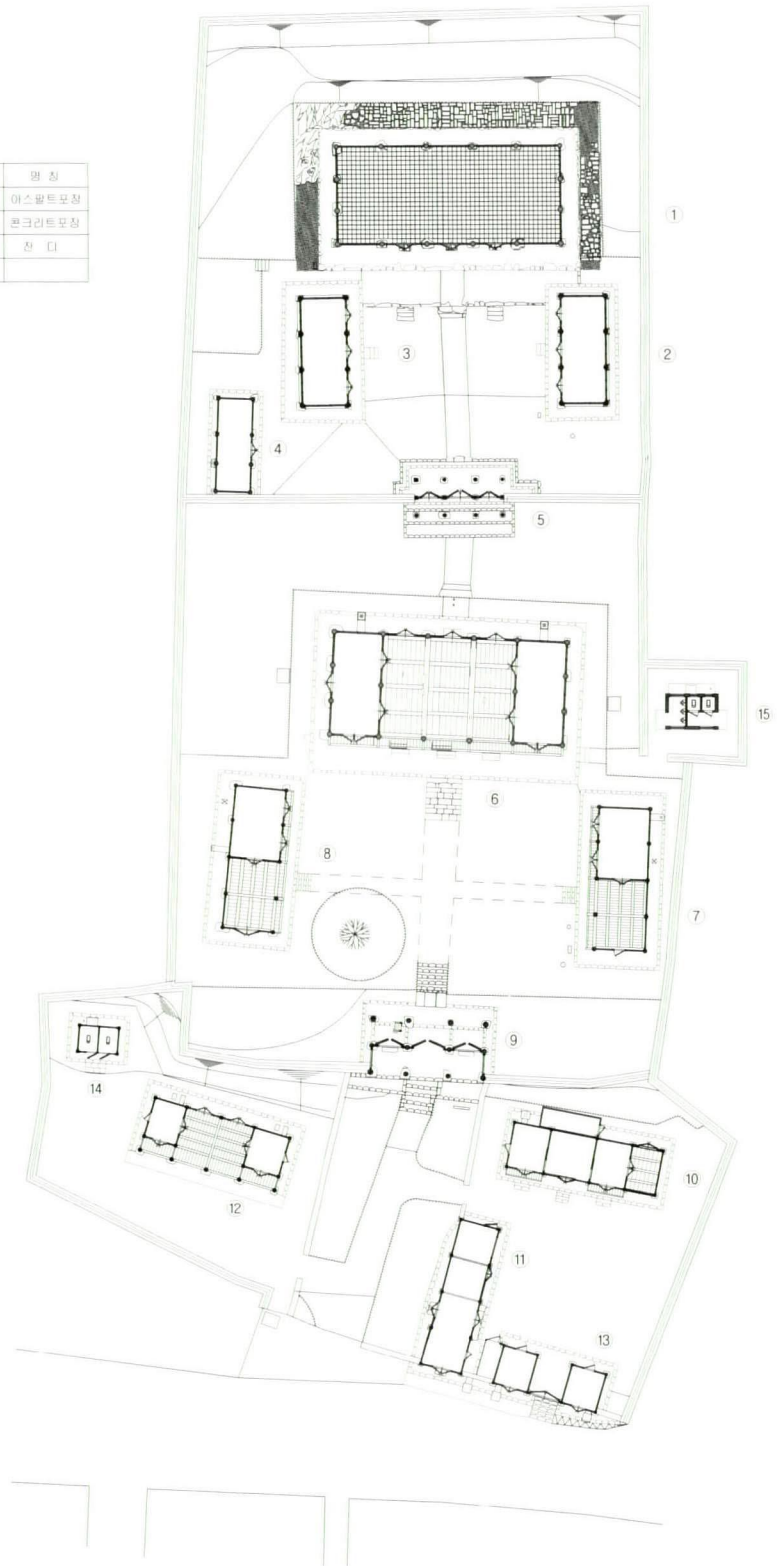
6)_ '三一齊重修記', 말미에 '西紀一九七五年八月 日 永川郡守 李文煥'으로 되어 있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영천향교(永川鄕校)	지정현황	보물 제616호(대성전)
창건시기	조선 초기	입 지	경사지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향교재단
좌 향	남동향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齋後堂 종축 2개
중건시기	임진왜란 이후	대지조성	3단 : 유래루, 내삼문 기준
설 위	5聖, 宋朝 6賢, 海東 18賢	인접시설	숭열당(보물 제521호)
건축구성	대성전, 동무, 서무, 전사청,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유래루, 삼일재, 전교실, 교직사, 문간채, 사주문, 화장실, 협문 등		
특기사항	전체적으로 남북종축선을 중심으로 배치되나 각각의 축은 약간씩 다름 강학영역과 제향영역의 마당 공간이 정방형이 아님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5×3칸 / 외1출목 초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무고주(어칸) · 2고주(측벽) 5량가 / 전돌 / 연등천장 주고 : 평주 3400, 고주 4820 / 어칸 3063 / 수장폭 120 / 도리단면 Ø=280전후 / 보단면 : 대들보 480×540, 종보 270×290 처마내민길이 2070 / 기단높이 : 전면 490, 후면 450 / 초석크기 약 500~1000×500~1000 전후		
기 단 계 단	이중기단 / 자연석 바른층쌓기 전면 3개(각 3단)	보	대들보 : 전평주 걸침(어칸) 종 보 : 3분변작
초 석	덤벙주초 / 자연석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약한 민흘림 Ø=300 전후	대 공	중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파련대공(어칸), 동자주(측벽)
공 포	외1출목 초익공 / 보머리 직절	창 방	방형 210×270 / 뺄목 초각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연등천장 / 전돌		
특기사항	부연의 단면이 횡으로 장방형으로 되어 있음 중대공에서 도리방향 첨차의 형태가 특이하며, 종보 위에 종보방향으로 대공받침 결구 도리 굵기가 좌우로 갈수록 굵어짐		
명륜당 건축 요소			
개 요	5×3칸 / 초익공 / 겹처마 팔작지붕 / 5량가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지반자 주고 3150 / 주칸 3030 / 수장폭 120 / 도리단면 Ø=315 / 보단면 : 대들보 420×430, 종보 240×300 처마내민길이 2200 / 기단높이 : 전면 1000, 후면 150 / 초석크기 500×700 전후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전면 4벌대 전면 1개 (5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3분변작
초 석	덤벙주초 / 자연석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 약한 민흘림 Ø=270 전후	대 공	중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판대공
공 포	초익공	창 방	말각방형 180×240 / 뺄목 하단 궁글림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이	지 붕	팔작지붕
수 장	회사벽 / 백골청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지반자		
특기사항	중, 종대공에 사용된 첨차 및 창방 뺄목 하단을 원호로 굴렸음 부연의 단면 마구 형태 또한 대성전과 마찬가지로 횡으로 긴 장방형으로 다듬었음		

범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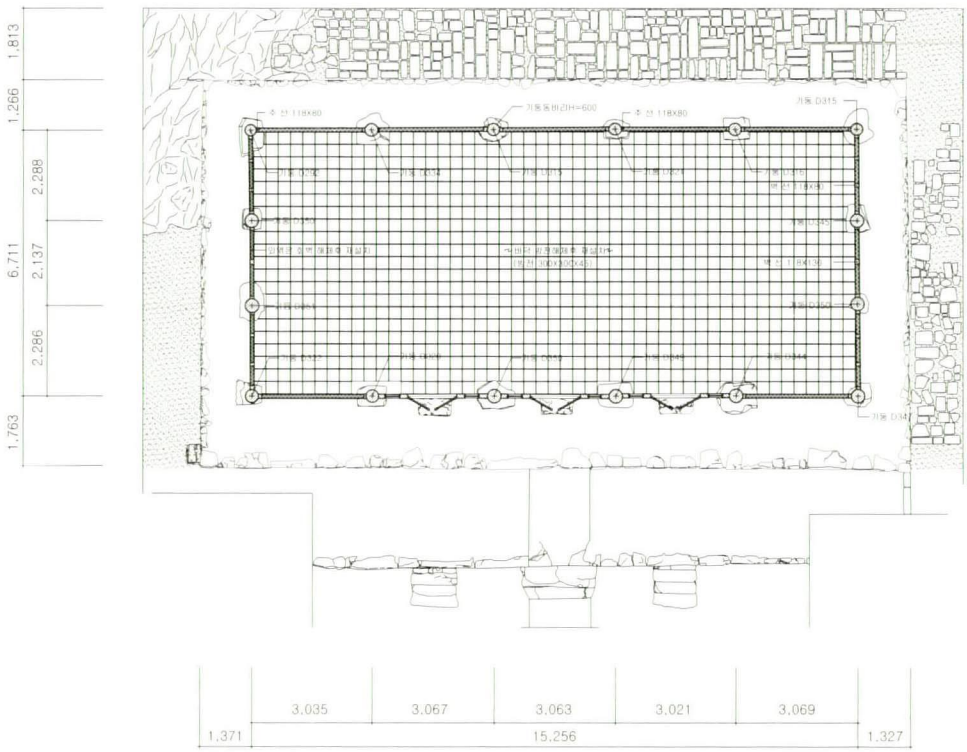
구 분	명 칭	구 분	명 칭
⊙	도 근 점		아스팔트포장
	법 면		콘크리트포장
	자연석석축		잔 디
	견치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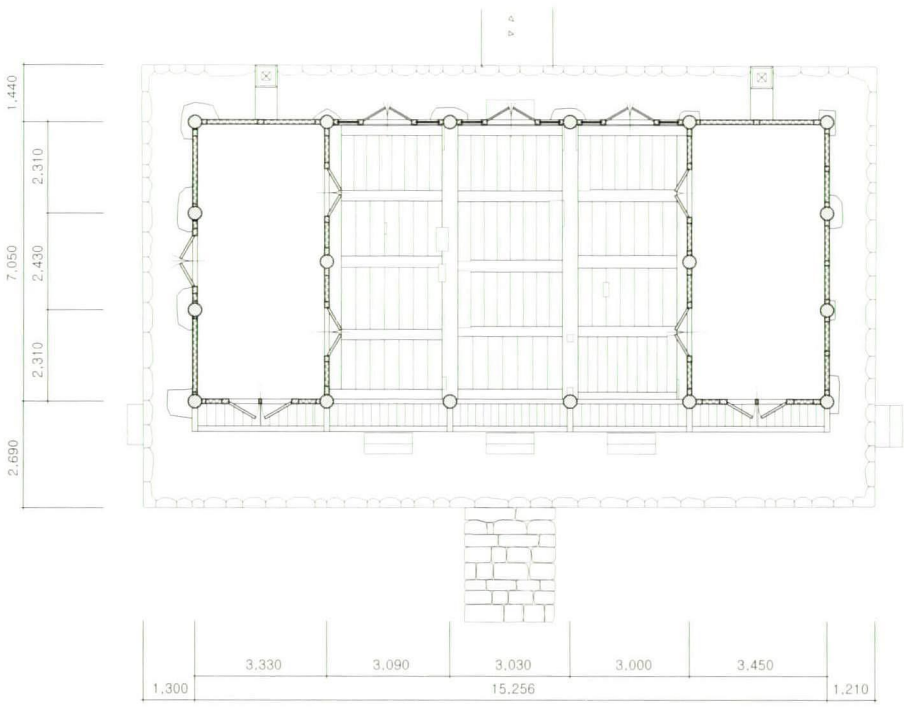
1 대성전
2 동 무
3 서 무
4 전사청
5 내삼문
6 명륜당
7 동 재
8 서 재
9 유래루
10 교직사
11 전교실
12 삼일재
13 대문채
14 화장실
15 화장실

영천향교 배치도
(무신종합건축사사무소 협조)

0 1.5 3.75 7.5 15 M



영천향교 대성전



영천향교 명륜당

0 0.5 1.0 2.0 4.0M



대성전



대성전 내부



대성전 전면 기둥



대성전 전면 주상포



대성전 전면 귀포



대성전 기단 및 계단



대성전 내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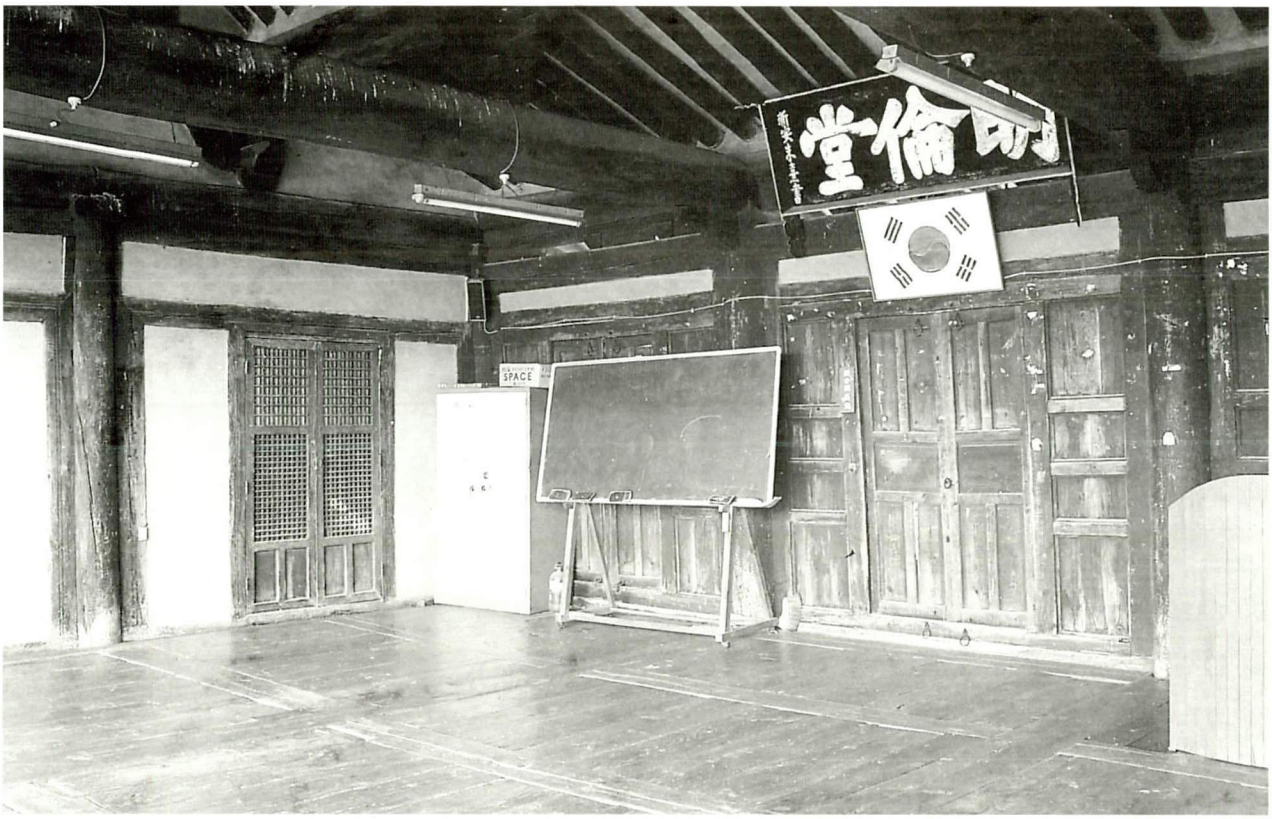
대성전 내부 중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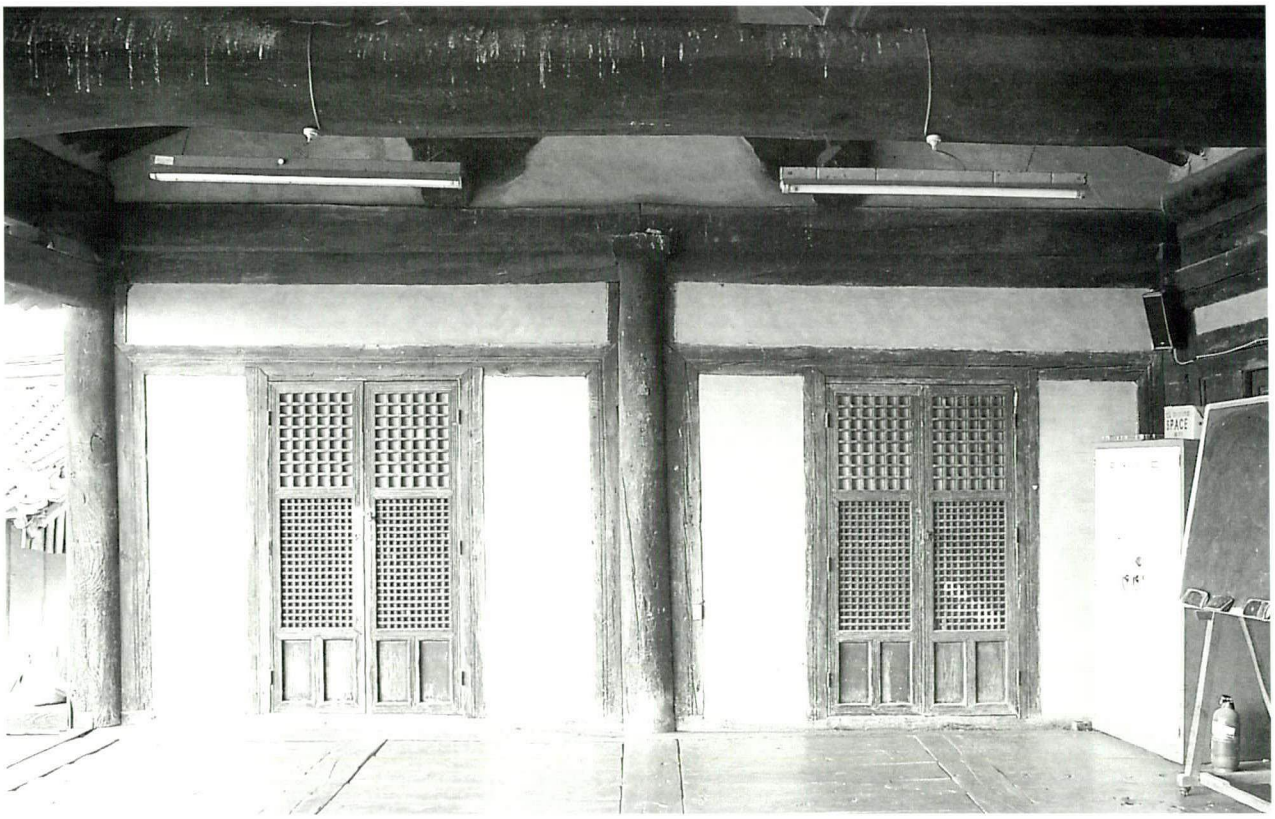
대성전 내부 종대공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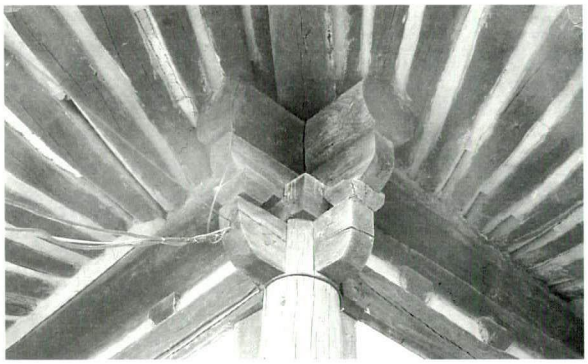
명륜당 내부



명륜당 내부 서실 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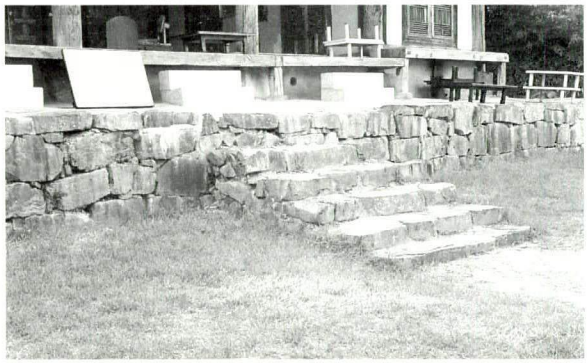
명륜당 전면 주상포



명륜당 전면 귀포



명륜당 전면 초석



명륜당 전면 계단



명륜당 내부 가구


명륜당 내부 중대공


명륜당 내부 종대공



동무



서무



유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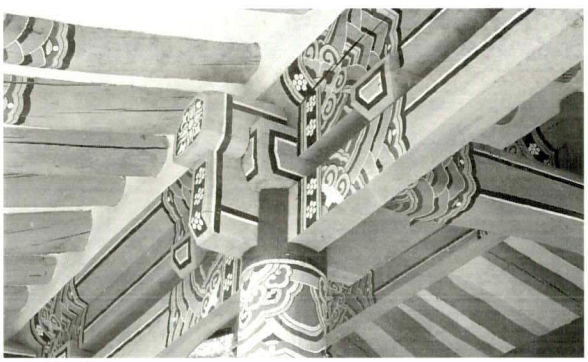
동재



내삼문



서재



내삼문 전면 주상포



삼일재



전사청



전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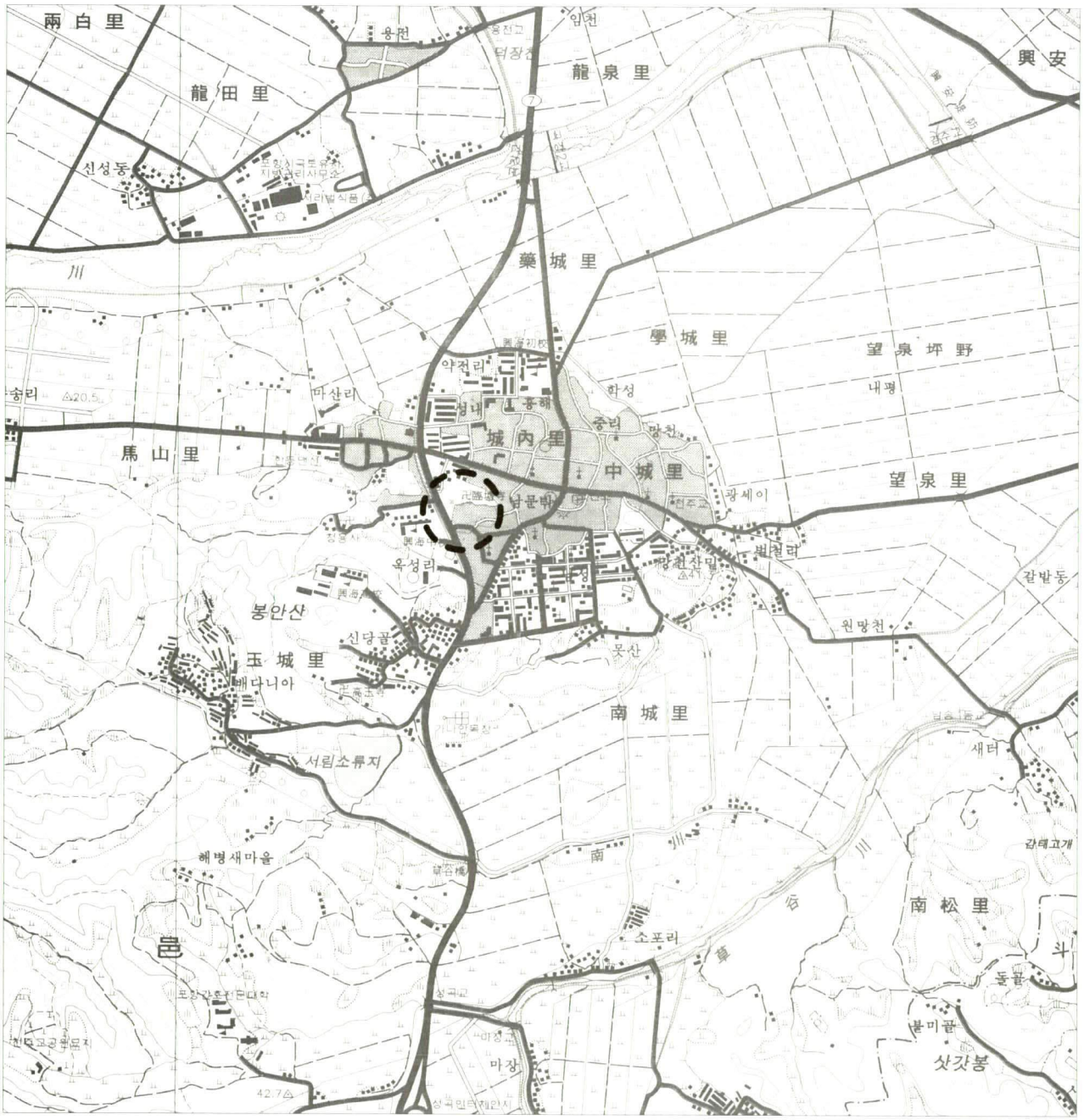
대문채



화장실

3. 흥해향교(興海鄕校)

- 지정사항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87호(대성전)
- 지 정 일 : 1985년 8월 5일
-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132
- 건축구성 : 대성전, 동무, 서무,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태화루, 전사청, 화장실, 교직사, 사주문, 협문 2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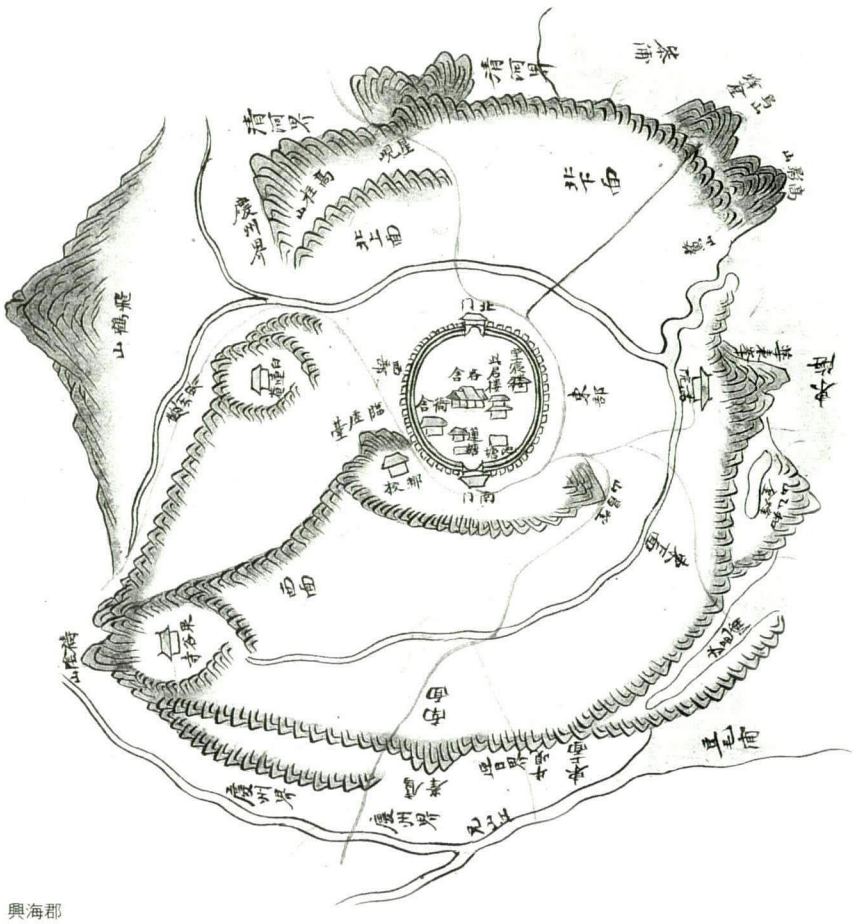


1. 연혁

흥해는 본래 신라 퇴화군(退火郡)이었다. 경덕왕 때의 전국적 군현개편에 즈음하여 의창군(義昌郡)으로 바뀌었다가 고려 초에 현재의 이름인 흥해군(興海郡)으로 고쳐졌다. 그 후 현종 9년(1018)에 경주의 속읍이 된 후 명종 때 감무(監務)가 설치됨으로써 일읍(一邑)으로써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공민왕 때에 접어들어 국사 배천희(裵千熙)의 고향이라 하여 군으로 승격된 후 조선조에 이르러서도 일읍(一邑)으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미 고려말 일읍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갖고 있었으므로 조선 태조 때 지방 향교를 전국적으로 창설할 무렵에 흥해향교가 설치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백이 본군 향교의 설치는 '自建國而創'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흥해향교는 『新增東國輿地勝覽(신증동국여지승람)』(권22)에서 군의 서쪽 1리에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연혁에 관한 자료는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으므로 그 창건연대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정진백(鄭鎭伯, 1897~1924)의 문집인 『석농집(石儂集)』의 「興海鄕校重修記(흥해향교중수기)」에서 "본군 향교의 설치는 건국으로부터 창건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조선조에 접어들면서 이미 향교가 창설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흥해 지역의 연혁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흥해향교에서는 조선 후기에 작성된 「釋奠儀軌(석전의궤)」가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향교의 중수에 관한 단편적인 자료가 있다. 여기에는 우선 정조 즉위년(1776) 12월 24일의 「大成殿重修時告由文(대성전중수고유문)」과 이듬해 3월 21일의 「還安告由文(환안고유문)」이 실려 있다. 거기에 의하면 이 때 대성전의 퇴락에 의해 중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순조 3년(1803) 윤 2월 동서무의 퇴락으로 인한 중수가 이루어지면서 이안제(移安祭)가 행해졌다. 이 때의 군수는 이득강(李得江)이었다. 또 순조 30년(1830) 대성전에 비가 새어 기와를 다시 이었다. 이 때



興海郡

역시 이안제(3월 15일)와 환안제(동월 20일)가 각기 거행되었다. 또한 헌종 9년(1843)에 군수 성대중(成大中)이 명륜당을 중수하였다.

『석농집』에 의하면 흥해향교는 1920년 성전 및 문루의 보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일향(一鄕)의 장보(章甫)[1]가 각자 의연금을 내어 교토(校土)에 보태어 기백원을 만들어 향교를 일신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중 대성전과 동무만 남고 나머지는 소실되었으며, 1953년에 명륜당과 수복실을 새로 지었으며, 1970년에 대성전에 번와보수하였다. 이듬해에는 다시 대성전에 단청을 새로 하였으며, 1975년에 동재를 보수하였다.

소장 전적은 한국 전쟁 중에 대부분 소실되었으며, 1958년에 『興海鄕校儒林案(흥해향교유림안)』을 간행하였다.

1985년에 대성전을 중수하고, 1989년에는 명륜당을 새로 지었으며, 1992년에는 명륜당에 단청을 하고 향교 일부를 보수하였다. 1993년부터 1994년 사이에는 동무를 번와보수 하였으며, 내삼문을 신축하였고 붕괴된 담 일부를 보수하였다. 또한, 1996년부터 1997년 사이 약 6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태화루를 복원하였다. 1998년에도 향교 일부를 보수하였다.

현재 향교 내에는「興海鄕校明倫堂復元記(흥해향교명륜당복원기)[2]」, 「重建記(중건기)[3]」, 「太和樓復元記(태화루복원기)[4]」, 「鄕校重修記(향교중수기)[5]」, 「興海鄕校大成殿重修記(흥해향교대성전중수기)[6]」, 「興海鄕校明倫堂復元上樑文(흥해향교명륜당복원상량문)[7]」등의 기문이 남아 있다.

창건 이후의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초	창건
1776	대성전 중수
1803	동서무 중수
1830	대성전 번와
1843	명륜당 중수

1)__ 장보(章甫)는 유생(儒生)을 달리 부르는 말이다.

2)__ 말미에 '孔夫子誕降二千五百三十九年'으로 되어 있어 1988년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3)__ 말미에 '孔夫子誕降後二千五百七年丁酉'로 되어 있어 1957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기문에는 중간에 중건 당시의 규모에 대해 언급하기를, '堂室兩頭各一間中間廳事一間明倫堂東廚三間庖舍使庫'라 되어 중건 당시 명륜당이 3칸 규모였고 동쪽에 교직사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__ 말미에 '孔夫子誕降二千五百四十七年丙子'라 되어 있다.

5)__ 본문 내용에 聖殿(성전)과 明倫堂(명륜당)의 수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말미에 '孔紀二千五百二十一年庚戌小春'이라 되어 있어 1970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6)__ 말미에 '孔夫子誕降二千五百三十六年乙丑菊秋上澣'이라 되어 있어 1985년의 기록임을 알 수 있다.

7)__ 말미에 '孔夫子紀元二千五百四十年己巳重陽節'이라 되어 있어 1989년의 복원 기록임을 알 수 있다.

1920	대성전 및 문루 보수
한국전쟁 중	대성전과 동무 제외, 일곽 소실
1953	명륜당, 수복실 중건
1970	대성전 번와
1971	대성전 단청
1975	동재 보수
1985	대성전 중수
1989	명륜당 중건
1992	명륜당 단청 및 향교 일부 보수
1994	동무 번와, 내삼문 신축, 담 일부 보수
1997	태화루 복원, 동재 복원
1998	향교 일부 보수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는 대성전, 동무, 서무,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태화루, 전사청, 화장실, 교직사, 사주문, 협문 2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입지 및 배치

흥해향교는 포항시에서 강릉으로 가는 7번 국도를 타고 약 10km 정도 가면, 시 경계에 즈음하여 길 오른편에 경사진 야산에 자리잡고 있다.

향교는 야산에 대지를 3단으로 조성하여 높은 축대 위에 명륜당을 놓고, 뒤에 한 단 높은 대지에다 대성전을 배치시킨 다음, 전방에 동서무를 직각으로 앉혀 서로 마주보게 하였다. 묘(廟)의 공간은 담을 둘러 일곽(一廓)을 이루고 담 밖 동쪽에 일자(一字)형의 주사(廚舍)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남향을 하고 있다.

본 향교는 총 99간(間)의 규모로 이루어졌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대성전과 동무만 남기고 전소되었다. 그 후 1953년에 명륜당과 수복실을 신축하고 뒤이어 서무도 복원하였다. 다시 1989년에 명륜당을 새로이 지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전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익공계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최근에 막돌 바른층쌓기로 2단을 쌓은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민흘림이 있는 원형 기둥을 세웠다. 기단 전면에는 2단으로 쌓은 계단 3개가 각 칸 중앙 전면에 놓여져 있다. 내부는 우물마루를 깔아 놓았으며, 정면에 문얼굴을 내어 각 칸에 쌍여닫이 울거미 널문을 달

았는데, 널은 통재(通材)를 사용하였다.

기둥머리에는 외1출목 2익공으로 쌓았으며, 살미의 형상은 끝을 날카롭게 하여 활달하게 뻗고 있다. 그 익공 살미 위에는 운공(雲工) 장식으로 초각하였는데, 보머리가 그대로 돌출되는 것에 비하면 힘찬 구조적 강건함은 덜하나, 보다 섬세하고 화려한 장식효과는 뛰어나다. 첨차는 위치에 따라 주심첨차와 행공첨차로 구분되는데, 주심첨차는 하부를 둥글게 깎은 교두형이고 행공첨차는 하부를 초각하였고, 출목과 주심 사이에 순각반자를 얹었다. 창방 위에는 당초문(唐草紋)과 연꽃으로 화려하게 투각(透刻)한 화반을 올려놓았다.

가구(架構)의 구성은 어칸에서는 무고주, 측벽에서는 2고주 5량으로 하였다. 대들보는 건물 규모에 비하여 세장한 편이며, 3분변작의 위치에 중대공을 놓았다. 중대공은 파련대공과 도리방향 첨차를 결구하여 그 위에 종보를 얹었다. 종보 중앙에는 파련대공과 도리방향 첨차를 결구하여 종도리 장혀와 종도리를 받고 있다.

좌우측면과 후면에는 심벽을 구성하였으며, 좌우측면 어칸 계량 상부와 후면 어칸 중앙의 화반위치에 채광창을, 측면 어칸과 후면 어칸의 하방 상부에는 방형의 환기구를 두어 채광과 환기를 하였다.

지붕은 전후면을 겹처마로, 암수막새를 사용하였으며, 모로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2) 동무(東廡), 서무(西廡)

동무와 서무는 각각 전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동무는 자연석 바른층쌓기로 2단을 쌓고 전면 중앙에 2단의 계단 1개를 두었다. 자연석 초석 위에 원형 기둥을 세우고 기둥머리에는 보방향으로 짤막한 보아지를 결구한 다음 장혀와 대들보를 걸고 납도리를 얹었다.

각 칸 전면에는 모두 두 짝 여닫이문을 달았는데, 특이하게 문 하방 하부에 머름을 구성하여 심벽을 꾸몄으며, 창호 하부는 궁판을 넣고 상부에는 빗살을 짜 넣었다. 좌우 측벽과 후면은 심벽으로 되어 있다.

내부는 통칸으로 되어 있으며, 대들보 중앙에 세장한 동자주를 놓아 종도리를 받았다. 지붕은 홑처마에 전면에만 암수막새를 얹었으며, 긋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서무는 동무와 같은 규모의 평면으로 구조와 형식이 동일하나 일부 초석은 원형의 다듬은 초석을 사용한 점이 다르다.

(3)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전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지형의 차이로 인하여 내삼문 전면에는 6단으로 쌓은 축대가 있고 내삼문 전면에 5단의 계단 1개가 놓여져 있다. 건물은 축대 위에 단층 기단을 쌓고 거칠게 다듬은 방형의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웠다. 각 칸 중앙렬에는 두 짝 판문을 달고 문 상부에는 홍살을 꾸몄으며 좌우 측면

에는 회사벽을 꾸몄다.

기둥머리에는 사괘를 트고 보방향으로 외단을 직절한 보아지와 장혀를 결구한 다음 대들보와 주심도리를 얹어 3량가를 결구하고 있다. 대들보 중앙에는 제형 판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고 있으며, 지붕은 홑처마로 막새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전면 어칸에는 '神三門' 현판이 걸려 있으며, 긋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고, 어칸 판문 전면 이 2태극 문양을 그려 넣었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전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계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기단은 자연석 바른층쌓기로 5단을 쌓은 기단 위에 다시 한 단의 기단을 더 쌓은 이중기단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전면 중앙에 8단으로 된 계단 1개를 두었다. 초석은 자연석으로 기둥 좌우에 자그마한 목재 받침을 두어 문선의 하중을 받고 있다. 초석 위에는 약간의 민흘림을 둔 원형 기둥을 세웠다.

전면에는 각 칸 모두 네 짝 세살문을 달았으며, 내부 평면은 전면에 퇴를 두고 가운데 3칸은 당(堂), 좌우 1칸은 실(室)로 구분하였다. 당 후벽에는 당판문을 달았으며, 동실과 서실의 서벽, 동벽에는 여섯 짝으로 된 육분합세살문을 달았다.

기둥머리에는 초익공을 결구하였으며, 가구는 5량가로, 4분변작의 위치에 짤막한 동자주를 놓았다. 그러나 사괘를 트지 않고 윗면에 바로 중도리 장혀와 중보를 얹어 결구하였으며, 중앙에 제형 판대공을 놓고 뜬장혀를 결구하였다. 주간에는 화반 대신 소로를 놓았으며, 막새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단청은 모로단청으로 되어 있으며, 동편 기단 바깥쪽에 굴뚝을 내었다. 내부에는 '興海鄕校大成殿重修記(흥해향교대성전중수기)' 등 다수의 기문이 게액되어 있다.

(2) 동재(東齋), 서재(西齋)

동재는 전면 4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웠다. 평면은 중앙 2칸 중 남측칸은 마루로 하고 나머지는 온돌을 꾸몄으며, 실(室) 전면에는 각각 두 짝 세살문을 달았다.

가구는 3량가이며, 대들보 중앙에 판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았고, 당(堂) 종도리 장혀 하단에는 '龜 孔紀二千五百四十八年丁丑十月二十一日午眚立柱上樑 龍'이라 되어 있어 동재가 1997년에 복원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긋기단청으로 마무리하고 좌우 측면 합각 상단에 지네철 장식을 달았다.

서재는 동재와 규모가 같으며, 평면의 형식 및 상량묵서명의 내용 또한 동일하다.

(3) 태화루(太和樓)

태화루는 전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중층 익공계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향교의 전면에 위치하여 하층은 각 칸에 두 짝 판문을 달아 외삼문의 용도를 겸하게 하였고, 후면에서 상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두어 누각(樓閣)의 용도를 겸하게 하였다.

건물은 단층 기단 위에 전후면에는 모를 다듬은 방형 단면의 제형 장주초석을 놓고, 중앙 기둥렬에는 방형 초석을 놓은 다음,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얹어 중층의 5량가 가구를 받았다. 기둥머리에는 외1출목 2익공의 익공을 결구하였으며 주간에는 비교적 춤이 높은 화반을 각각 1개씩 두었다. 상층 바닥에는 우물마루를 구성하였으며, 단 차이로 인하여 하층 어칸 후면에는 강학영역으로 오르는 계단을 두고, 다시 강학영역에서는 태화루 상층 동쪽협칸 후면으로 오르는 계단을 두었다.

전후면을 개방하고 전면에 계자난간을 둘렀으며, 좌우 측면은 판벽을 구성하였다. 가구는 전후 평주에 직선형의 대들보를 걸고 4분변작의 위치에 중대공을 놓았다. 중대공은 포대공으로 도리방향과 보방향으로 짤막한 첨차와 외단을 직절한 보아지를 결합하고 그 위에 주두를 놓아 종보를 받고 있다. 좌우 측면가구에서는 동자주를 놓고 그 위에 중대공을 구성하였으며, 종보 중앙에는 파련대공을 놓고 종도리를 받았다.

처마는 겹처마로 되어 있으며,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고, 모로단청을 하였다. 전면 어칸 상부에 '太和樓'현판을 걸었으며, 내부에는 「太和樓復元記(태화루복원기)」등의 기문이 걸려 있다.

(4) 전사청(典祀廳)

전사청은 전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명륜당 서편에 남향하여 자리잡고 있다. 단층 기단 위에 덤벙 주초를 놓고 그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워 대들보를 걸고, 3량가의 가구를 받았다. 기둥 상부는 공포 없이 민도리로 결구되었으나 좌우 귓기둥에서는 도리방향으로 간단한 첨차를 결구하였다.

내부는 동쪽 협칸만을 방으로 구분하였고, 나머지 두 칸을 통칸으로 두었다. 실(室) 전면에는 두 짝 세살문을 달고, 동측벽 중방 상부에 작은 두 짝 여닫이창을 달았으며, 어칸과 서쪽협칸 전면에는 각각 두 짝 당판문을 달았다. 어칸 상부에 '典祀廳'현판을 걸었으며, 가칠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다. 기타

기타 건물로는 교직사(校直舍)와 사주문(四柱門), 협문(夾門), 화장실 등이 있다.

교직사는 명륜당 동편에 자리잡고 있으며, 전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로, 우진각지붕으로 되어 있다. 시멘몰탈 단층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얹고, 원형 기둥을 세워 기본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벽체는 시멘몰탈 및 블록으로 되어 있다. 현재 향교 관리인이 거주하고 있다.

사주문은 동재 후면에 자리잡고 있으며, 외부에서 교직사로 통하고 있다. 단 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주간에 소로를 수장하였다. 건물은 야트막한 단층 기단 위에 방형의 초석을 놓고 간략한 3량가의 가구를 구성하였다. 두 짝 판문을 달고 전면에 태극문양을 도채하였으며, 긋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고 막새를 얹어 지붕을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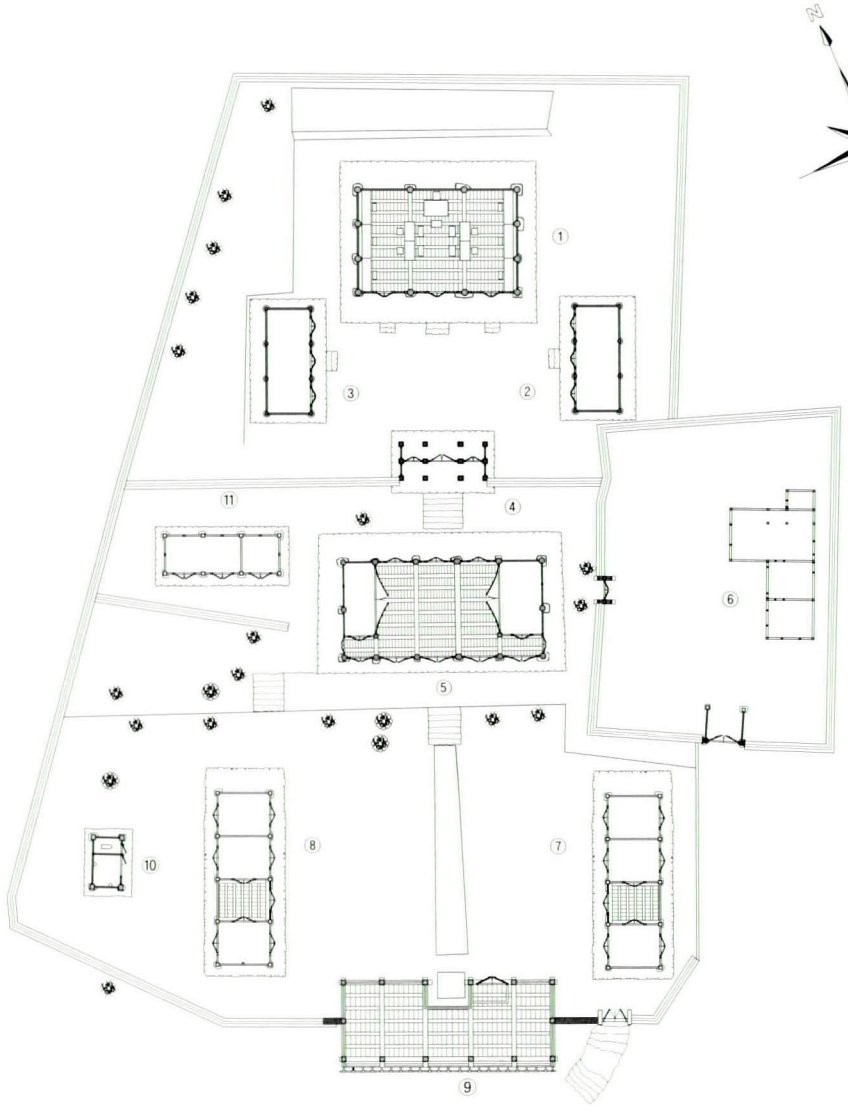
협문은 2동이 있는데, 하나는 명륜당 동편에 위치하여 교직사로 연결되어 있다. 네 개의 가느다란 기둥을 세워 간략한 3량가를 구성하고, 명륜당 쪽으로 두 짝 판문을 달았으며, 긋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다른 하나는 태화루 동편에 위치하여 외부에서 강학영역으로 통하게 되어 있다. 전면에 계단을 둔 간단한 일각문으로 되어 있다.

화장실은 서재 뒤편에 자리잡고 있으며, 전면 2칸, 측면 1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로 되어 있다.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방형 기둥을 세웠으며, 환기를 위해 주심도리 장혀 하단에 사면 모두 살창을 두고 전면에 외짝 출입문을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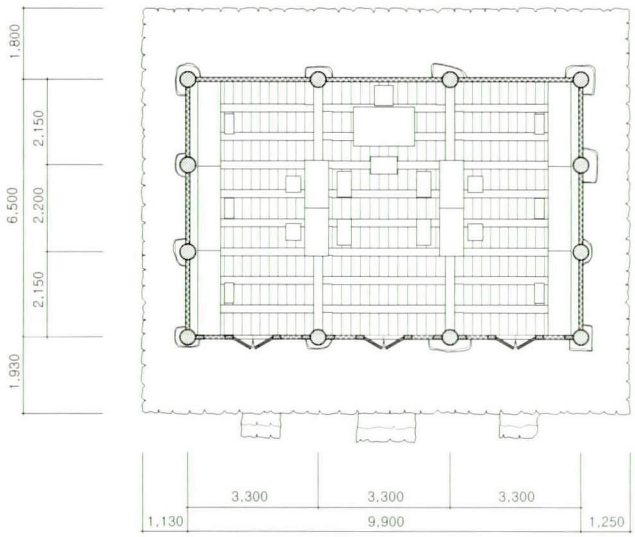
이외에 향교 입구에 자그마한 하마비(下馬碑) 1개가 남아 있으며, 태화루 전면 서편에 문화재안내판이 위치하고 있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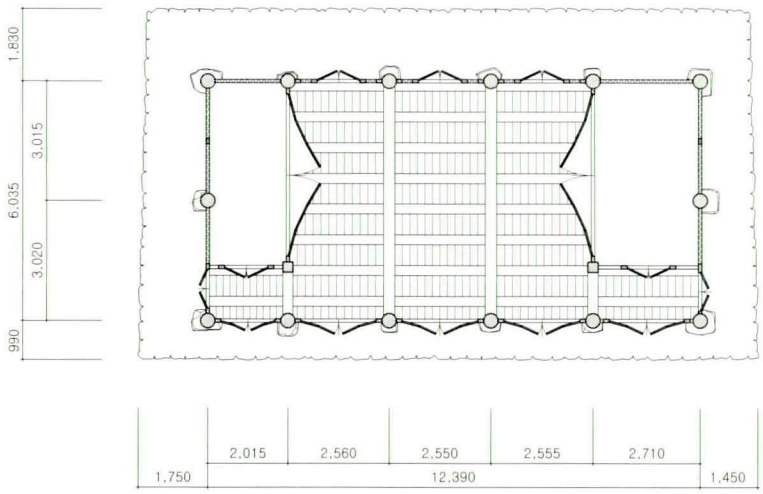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흥해향교(興海鄕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87호(대성전)
창건시기	조선 초기	입 지	산지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향교재단
좌 향	남서향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齋後堂 남북 종축 1개
중건시기	1950 대성전, 동무 외 소실 1953 명륜당 중건 1989 명륜당 중건	대지조성	3단 : 명륜당, 내삼문 기준
설 위	5聖, 宋朝 2賢, 海東 18賢	인접시설	없음
건축구성	대성전, 동무, 서무,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전사청, 태화루, 교직사, 화장실, 사주문, 협문 2동		
특기사항	한국 전쟁 이후 대성전과 동무를 제외한 건물이 새로 복원되었음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3×3칸 / 외1출목 2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무고주(어칸) · 2고주(측벽) 5량가 / 우물마루 / 연등천장 주고 평주 2730, 고주 4260 / 어칸 3300 / 수장폭 110 / 도리단면 Ø=270 / 보단면 : 대들보 430×430, 종보 300×270 / 처마내민길이 2340 / 기단높이 : 전면 430 / 초석크기 약 640×600 전후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이벌대 / 자연석 바른층쌓기 전면 3개(각 2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어칸) 종 보 : 3분변작
초 석	덤벙주초 / 자연석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 약한 민흘림	대 공	중대공 : 도리방향 첨차+파련대공 종대공 : 도리방향 첨차+파련대공
공 포	외1출목 2익공 / 보머리 초각 주간 화반 / 출목사이 순각판	창 방	방형 / 뺄목 초각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이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심벽 / 모로단청 / 연등천장 / 우물마루		
특기사항	주심첨차와 출목첨차의 단부 초각 형태가 다름 내부에 전돌 대신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좌우측면과 후면에 각각 채광창, 환기구를 둠		
명륜당 건축 요소			
개 요	5×2칸 / 초익공 / 홑처마 팔작지붕 / 5량가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 室 : 온돌 · 지반자 주고 평주 2710 / 주칸 어칸 2550 / 수장폭 85 / 도리단면 Ø=270 / 보단면 : 대들보 540×360, 종보 420×300 / 처마내민길이 1650 / 기단높이 전면 300 / 초석크기 800×600 전후		
기 단 계 단	이중기단 / 하단 5단, 상단 외벌대 전면 1개 (8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4분변작
초 석	덤벙주초 / 자연석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 약한 민흘림	대 공	중대공 : 동자주 종대공 : 판대공
공 포	초익공 / 주간 소로	창 방	말각방형 / 뺄목 초각
처 마	홑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이	지 붕	팔작지붕
수 장	심벽 / 모로단청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지반자		
특기사항	전면 모든 칸에 사분합문을 달았음 중대공의 높이가 상당히 낮게 되어 있음		



흥해향교 배치도



흥해향교 대성전



흥해향교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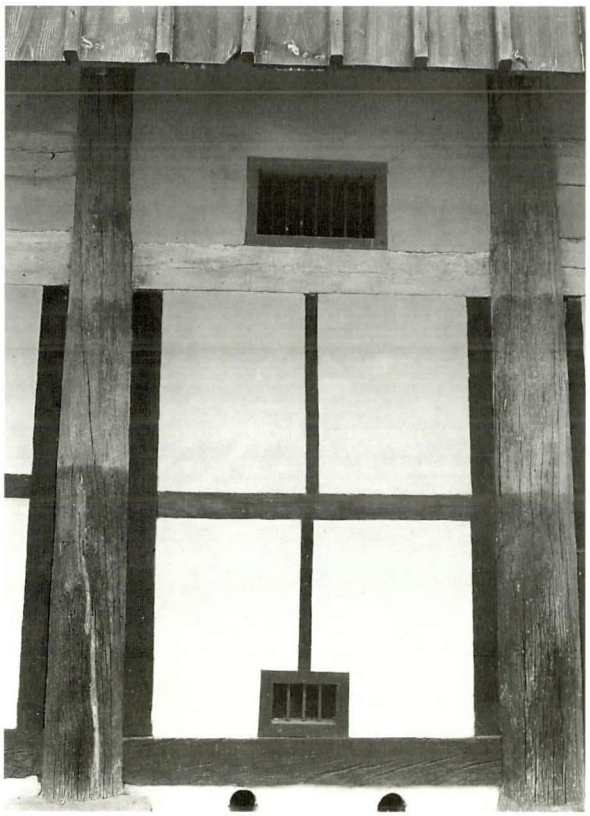




대성전



대성전 내부



대성전 측면 어칸



대성전 전면 주상포



대성전 전면 귀포



대성전 전면 기둥



대성전 전면 화반



대성전 전면 초석



대성전 내부 가구



대성전 내부 중대공



대성전 내부 종대공



명륜당



명륜당 내부



명륜당 내부 가구



명륜당 내부 중대공



명륜당 내부 종대공



동무



서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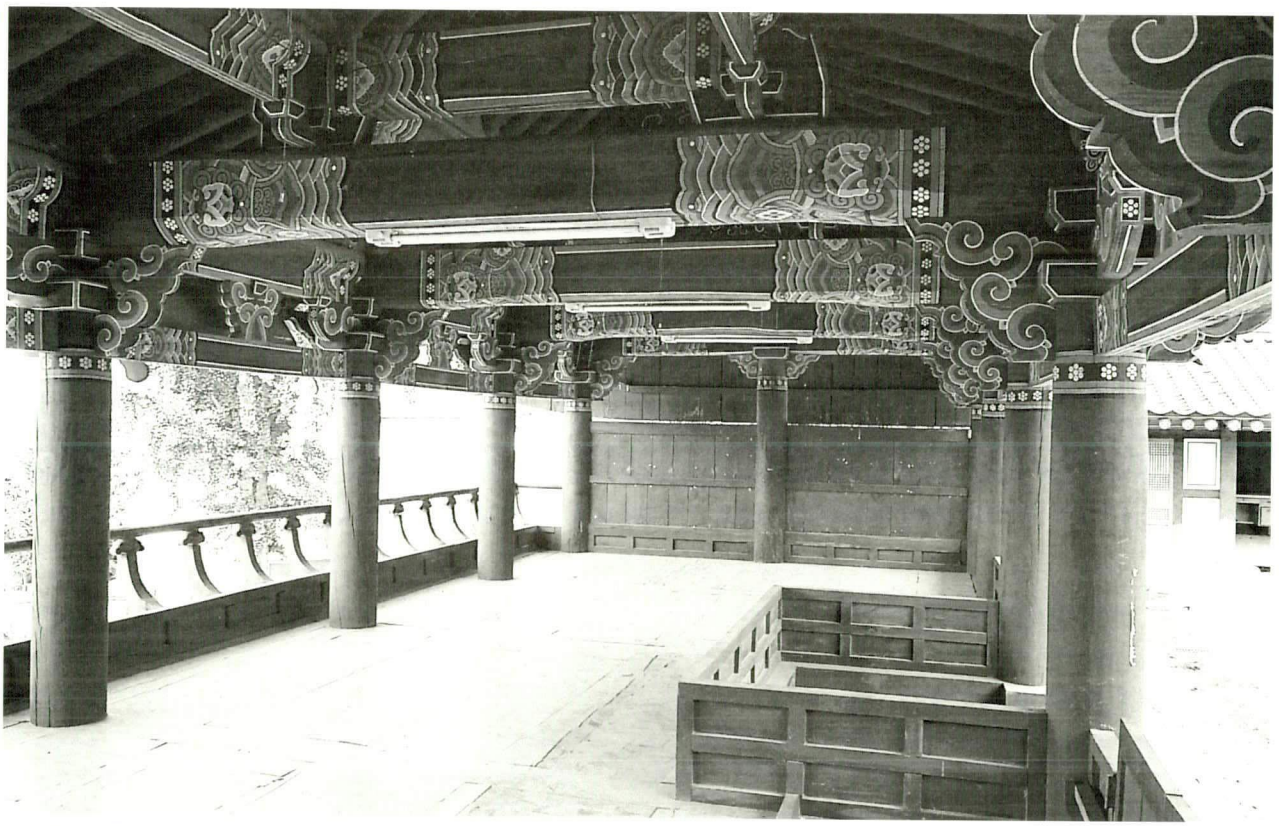
동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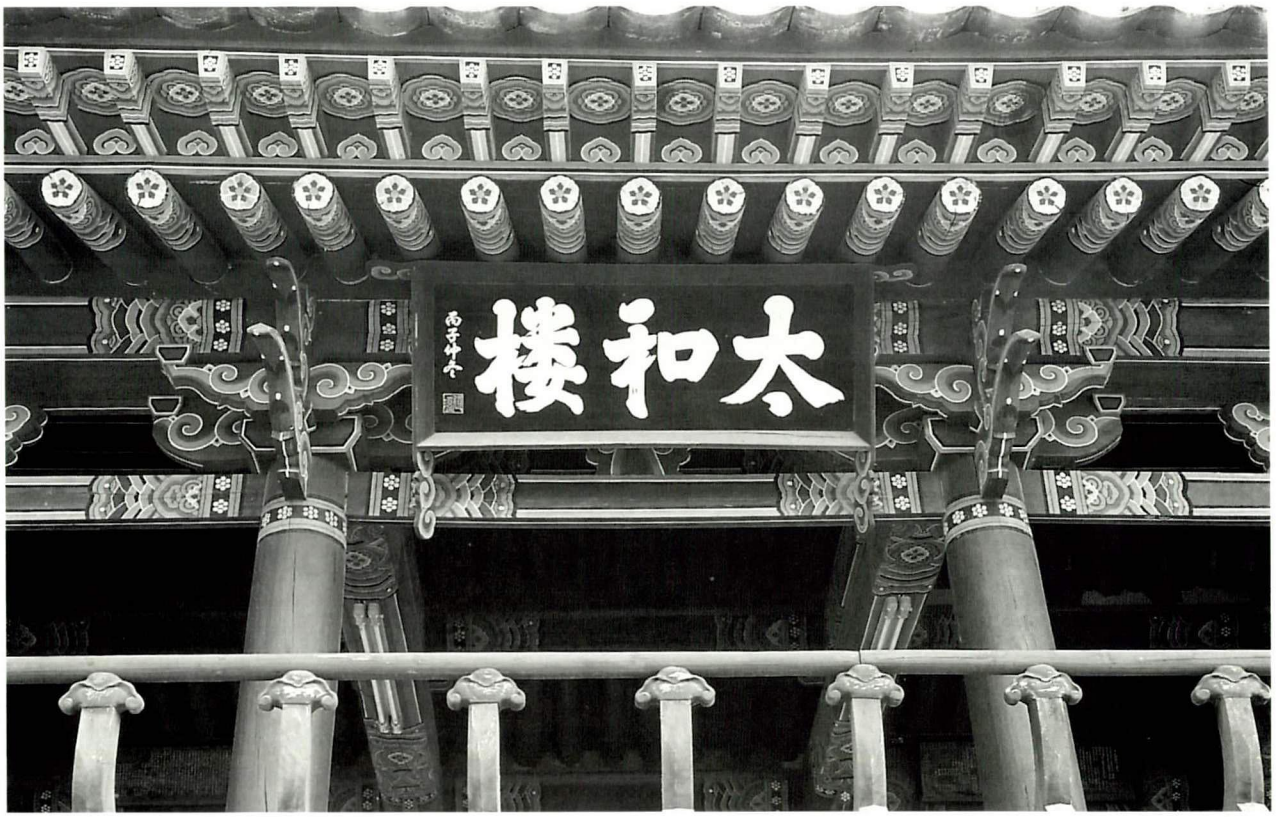
서재



태화루



태화루 상층 내부



태화루 전면 상층 어칸



태화루 후면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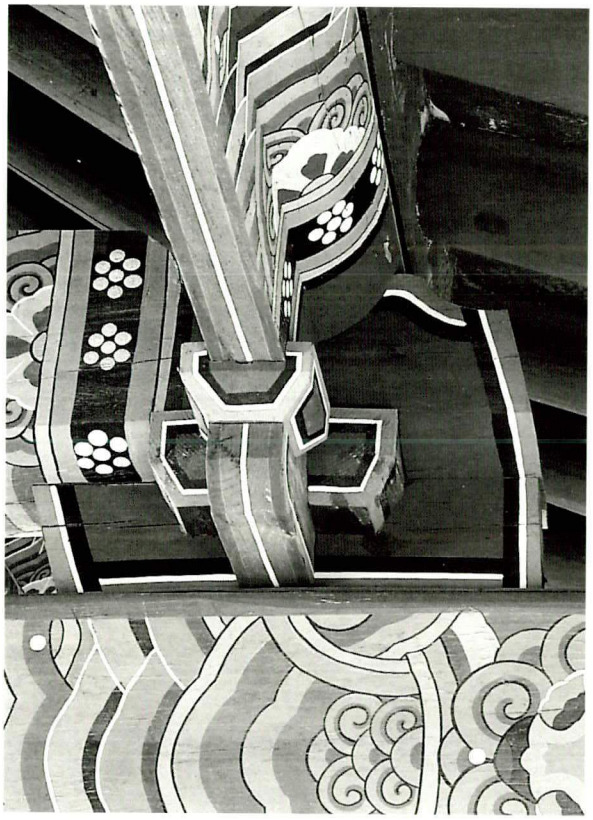
태화루 전면 주상포



태화루 전면 귀포



태화루 상층 내부 가구



태화루 내부 중대공



태화루 내부 종대공



내삼문



교직사



전사청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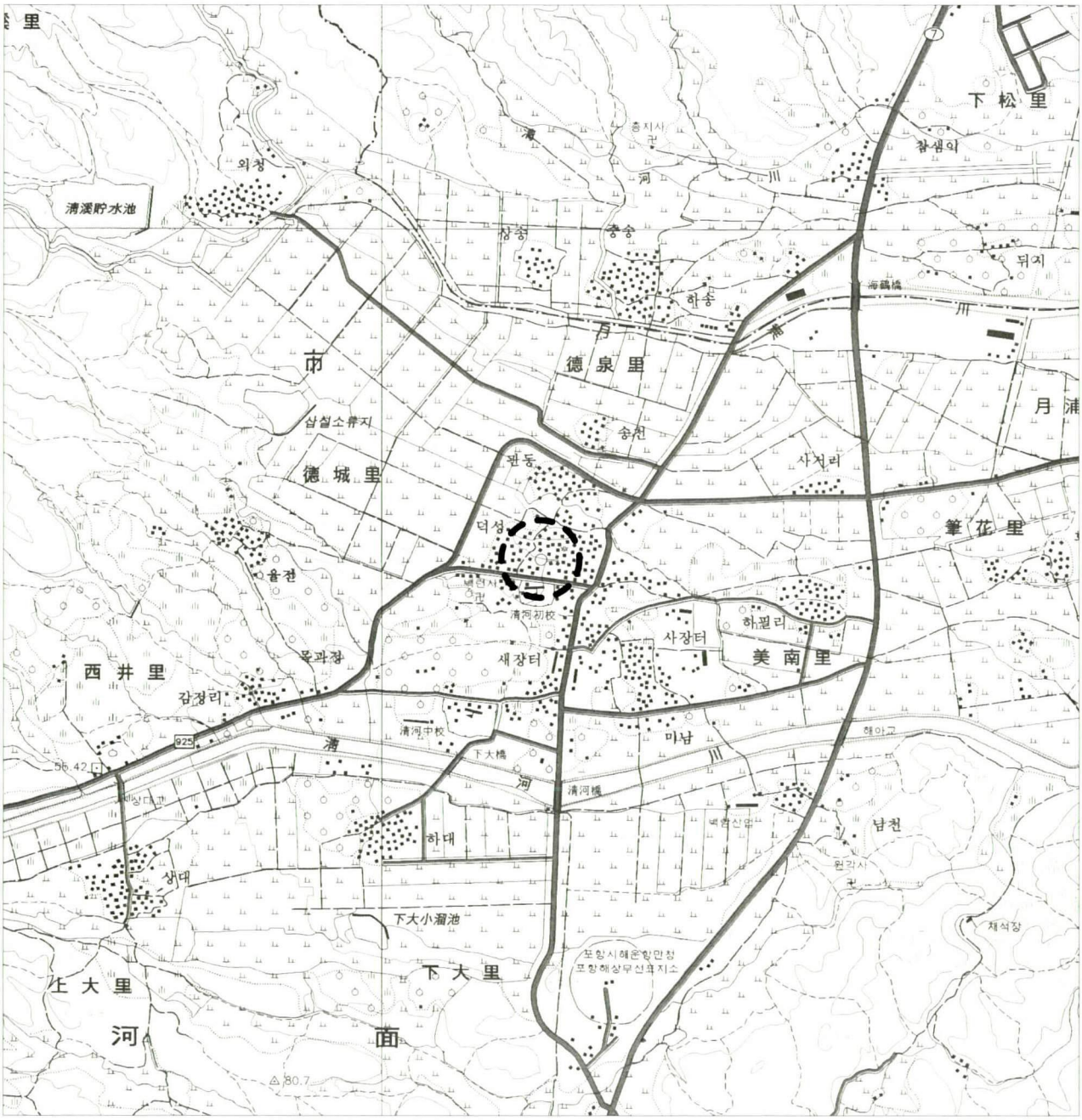


교직사 측 사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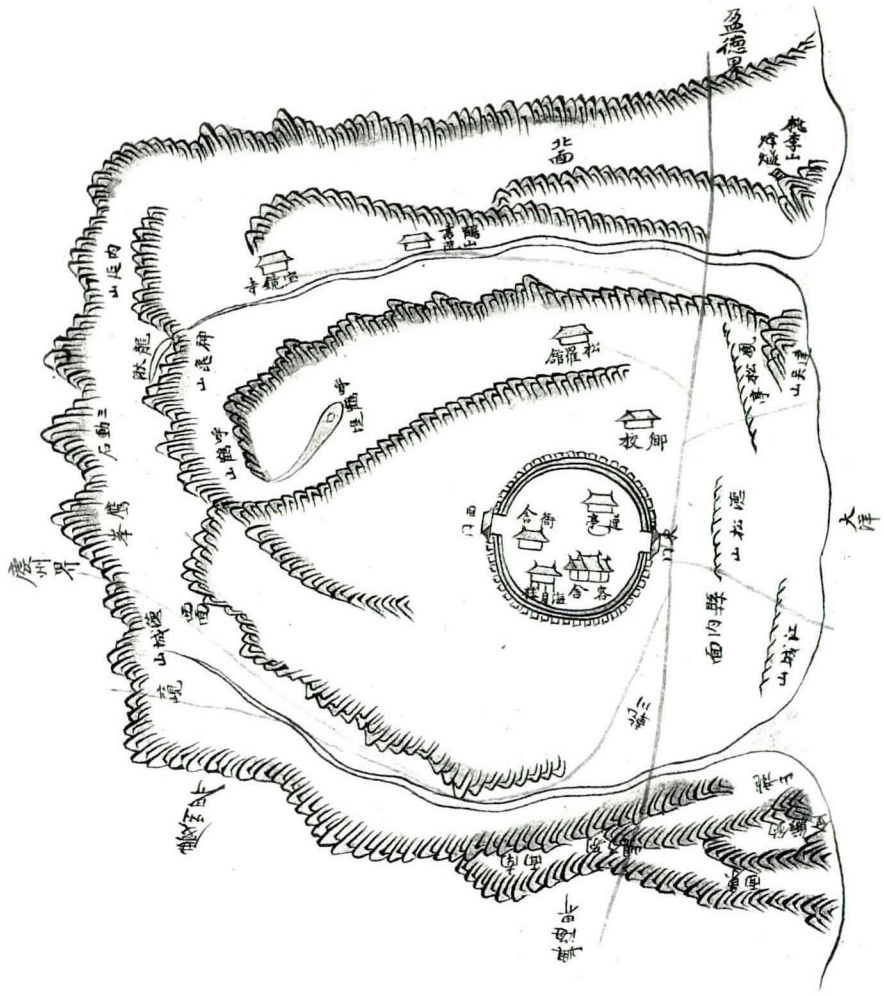
4. 청하향교(淸河鄕校)

- 지정사항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28호(대성전)
- 지 정 일 : 1997년 9월 29일
-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성리 190
- 건축구성 :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천화루, 협문 등



1. 연혁

향교의 역사는 곧 그 읍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청하지역은 고구려 아방현(阿方縣)으로서 신라 경덕왕 때 해아현(海阿縣)으로 개명되어 유린군(有隣郡) 영현(領縣)이 되었다. 그 후 고려 조에 현재의 이름인 청하현(淸河縣)으로 고쳐 부르고, 현종 조 경주의 속읍이 되었다. 조선 태조 때 감무(監務)가 처음 파견됨으로써 비로소 일읍(一邑)으로서의 위치를 갖게 되었으며, 현감이 다시 파견되었다. 이를 두고 볼 때 고려 인종 조 향교가 지방교육기관으로 처음 나타난 시기는 물론 고려말 인근의 여러 지역에 향교가 설치될 때조차 관원이 파견되지 못함으로써 일읍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청하지역에는 향교가 건립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 태조 이후 향교의 증설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이 때 일읍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한 청하향교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 실제 청하향교 앞에 세워진 안내 표지 등에서는 태조 7년(1398) 청하면 서정리 쇠발곡(牛足谷)에 창건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현존하는 사료는 남아 전하지 않으므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성종조 '一邑一校 一官一校'의 원칙에 의해 주읍으로서의 위치를 갖게 된 고을에 향교가 설립되었음을 감안할 때 청하향교 역시 늦어도 성종조 이전에 향교가 설치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新增東國輿地勝覽(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학교조에 향교가 현의 북쪽 1리에 있다고 기록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淸河懸

이후의 단편적인 연혁이 『嶺南邑誌(영남읍지)』「淸河縣邑誌(청하현읍지)」학교조의 知縣(지현) 安錫佺記(안석전기)와 宦蹟條(환적조)의 수령의 명단 아래에 세주(細註)로 표기된 치적 가운데서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청하향교에 관한 대강의 연혁을 살펴볼 수가 있다. 거기에 의하면 현감 김만중(金萬重)이 향교 문루(門樓)를 새로 건

립하였고, 숙종 39년(1713)에 현감 노세환(盧世煥)에 의해 향교가 현재의 자리인 덕성리(德城里) 190번지로 이건(移建)되었고 명륜당은 그 다음해에 수축(隨築)되었다.[1] 그 후 현감 엄주(嚴珠)에 의해 향교 문루가 중수되었고, 현감 윤형철(尹衡喆)에 의해 다시 향교 문루가 개건(改建)되었다. 또 현감 박민순(朴民淳)이 순조 11년(1811)에 향교를 중수하였다. 유도종(柳道宗)이 5성의 신위판과 상탁(床卓) 및 지의(地衣)를 개수(改修)하고, 마을의 장로와 더불어 절용하여 나머지로 경사(經史)를 중인(重印)하고, 학전(學田)을 가치(加置)하여 관동수리자(冠童秀異者)를 가려 뽑아 강열(講閱)하였다. 또 이순겸(李純謙)이 향교를 중수하면서 교궁(校宮)의 유향로(鍮香爐), 유촉대(鍮燭臺)와 제복(祭服), 제기(祭器) 등을 새로 갖추고 학전을 가치하였고, 장윤식(張胤植)은 향교의 서책(書冊)을 보수하였다. 동지(同誌)의 안석전의 기(記)에는 앞의 유도종의 이야기가 수록된 것으로 보아 그보다 훨씬 뒤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23년에 명륜당을 중수하였으며[2], 1949년에 문루가 붕괴되었다. 1964년에 명륜당을 중건하면서 담 일곽을 수축(修築)하였고[3], 단 칸의 대문을 건립하였다. 1967년에 대성전을 중건하였으며, 1970년에 현재의 천화루를 건립하였다.[4] 1971년에 동재를 중건하였으며,[5] 1975년과 1977년에 내삼문을 복원하는 등 향교 일곽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를 시행하였다.

1987년에 대성전 후면의 노목(老木)이 쓰러지면서 대성전을 덮쳐 대성전이 파손되어, 이듬해인 1988년에 대성전을 한차례 중수하였다.[6] 1990년과 1998년에 각각 보수하였으며, 2002년에 서재를 중건하였다.[7]

향교에 소장된 자료로는 『鄕案(향안)』류와 『任司錄(임사록)』, 『新頒敎通淸案(신반교통청안)』, 『新創別所節目(신창별소절목)』 등의 문헌자료가 있다. 특히 『향안』은 숙종 24년(1698)과 28년(1702), 영조 43년(1767)부터 순조 19년(1819)까지의 기록을 수록한 문헌으로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외에도 「淸河鄕校重建記(청하향교중건기)」등 다수의 기문이 명륜당 내에 게액되어 있다.

---

1)_ 「東齋重建事實(동재중건사실)」에 보면, 먼저 숙종 41년 을미(乙未), 1715년에 대성전을 이건하고, 다음 해에 명륜당을 수축하였으며, 이후 4년간 동서재와 문루 등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성전 전면에 남아 있는 암막새에는 강희(康熙) 51년, 즉 1712년으로 되어 있어 이 기록과 차이가 있다. 향교 이건시에 가장 중요한 대성전을 먼저 옮기고, 차례차례 명륜당과 문루 등을 옮겼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대성전의 암막새가 원래 다른 건물에 사용되었던 것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2)_ 「明倫堂重修記(명륜당중수기)」, '(전략)...檀紀四二五六年癸亥에 重修하였으나....(후략)'

3)_ 「明倫堂重建記(명륜당중건기)」, 말미에 '檀紀四二九七年'으로 되어 있어, 1964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_ 이상의 기록은「闡化樓重建事實(천화루중건사실)」이라는 기문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이 기문은 명륜당 내에 걸려 있고, 기문 말미에는 '孔紀二五二一年十月'이라 되어 있어, 1970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5)_ 「東齋重建事實(동재중건사실)」, 기문 말미에 '孔紀二五二三年三月'이라 되어 있어, 1972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문에는 '辛亥又建東齋橫其舊制構架四間而二間'이라 되어 있어 예전부터 동재의 규모가 4칸에 2칸 규모임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이 기문에는 전사청 2칸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향교 복원시에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6)_ 「大成殿重修記(대성전중수기)」, 기문 말미에 '檀紀四三二一年戊辰'이라 되어 있어, 1988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7)_ 「西齋重建記(서재중건기)」, '孔紀二五五三年'이라 되어 있어 2002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창건 이후의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98 창건
1713 이건 개시
1717 이건 완료
1811 향교 일곽 중수
1861 열호재 신축
1923 명륜당 중수
1949 문루 붕괴
1964 명륜당 중건, 담 일곽 수축, 단 칸 대문 건립, 내삼문 보수
1967 대성전 중건
1970 천화루 건립
1971 동재 중건
1975 향교 일곽 보수
1977 내삼문 복원, 향교 일곽 보수
1988 대성전 중수
1990 향교 일곽 보수
1998 향교 일곽 보수
2002 서재 중건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는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천화루 및 협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입지 및 배치

청하향교는 포항에서 청하면 방향으로 7번 국도를 타고 가다 왼편으로 동연강재와 한스윌 사잇길로 진입하여, 읍내로 들어가서 청하정류소 슈퍼를 지나 온수리 약국 앞에서 좌회전하여 청하우체국 좌측길로 들어가면 그 곳에 자리잡고 있다.

원래 향교에는 서재(西齋)나 열호재(悅乎齋)[8], 연무정(鍊武亭), 전사청 등이 있었으나 모두 없어졌었으며, 최근 서재가 복원되었다.

향교의 배치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대성전은 명륜당의 좌측 후면에 축이 꺾어져 자리잡고 있다. 또한 명륜당 전면에 동서 양재가 자리잡고 있는 전재후당(前齋後堂)의 배치를 하고 있다. 인근에 자리잡고 있는 면사무소 내에는 다수의 향교 관련

8)__ 서재 후편에는 悅乎齋(열호재)를 건립한 현감 임택호(任澤鎬)의 중건비가 자리잡고 있다.

비석군(碑石群)이 자리잡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에는 '宋岩洒日鄭氏鳳鎔公追念碑'라고 적혀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전면 3칸, 측면 3칸의 규모의 익공계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거칠게 다듬은 장대석을 2단 쌓아 기단을 구성하였으며, 이 위에 원형 주좌(柱座)가 있는 방형의 초석을 놓고 원형 기둥을 세웠는데 초석은 좌우에 고막이가 되어 있다. 평면은 내부 통칸으로 장마루를 도리방향으로 깔았으며, 정면의 각 칸에는 쌍여닫이 띠장널문을 설치하였는데, 문비(門扉)는 모두 중건시에 개체된 것이다. 현재 양측 벽면은 시멘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기둥이 있는 부분은 외부에 면하여 있고, 측면 어칸 상하부에 각각 채광창과 환기창이 서로 다른 크기로 설치되어 있다.

기둥머리에는 외1출목 2익공의 공포를 결구하였는데, 초익공재는 외단을 앙서로 하고 상부에 연화(蓮花), 하부에 연봉(蓮峰)을 장식하였고, 이익공재는 쇠서형으로 초익공과 동일한 장식을 하였다. 주간에는 전후면 모두 방형의 화반을 1개씩 놓았는데, 꽃병에 연화를 꽂은 장식을 음각(陰刻)해 놓았다. 귀포에서는 주심첨차의 외단을 출목첨차와는 달리 직절하였다.

가구(架構)는 어칸에서 무고주, 좌우 측벽에서 2고주 5량가로 되어 있다.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결구하고, 3분변작의 위치에 중대공을 놓았다. 중대공은 파련대공에 도리방향 첨차를 결구하였는데, 주두 자리에 주두 대신 네갈소로를 놓고 도리방향 첨차를 놓아 중도리장혀와 종보를 받았다. 종보 중앙에는 파련대공을 놓고 도리방향 첨차를 결구한 다음 종도리를 얹었다.

처마는 전후면 겹처마로 되어 있으며, 좌우에 방풍판을 달고, 전면에만 암수막새를 얹었다. 단청은 전면과 내부에만 모로단청을 하였으며 후면에는 가칠단청만 하였다. 또한 내부 대들보 중앙에는 용(龍) 등 화려한 단청을 그려 넣었다.

현재 내부에는 공자를 비롯한 5성과 송조 4현, 그리고 해동 18현 등 모두 27현의 신위가 모셔져 있다. 대성전 전면의 암막새에는 향교 이건 당시인 '康熙五一年 壬辰 六月', 즉 1712년명의 암막새가 남아 있어, 대성전의 건립 시기를 알려주고 있다. 이 암막새에는 또한, '監官 幼士 金□ 尾石 在重□ 色吏 金常(?)明 継仁(?)' 이라는 기록이 함께 남아 있다.

(2)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대성전의 전면에 자리잡고 있으며, 전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익공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야트막한 단층 기단 위에 원형으로 다듬은 화강암 초석을 가지런히 놓고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웠다. 좌우측면은 벽체를 구성하지 않고 중간보다 약간 위쪽에 인방을 결구하였고, 중앙 기둥렬에 방형 문설주를 세우고 각 칸 모두 두 짝 판문을 달았다. 판문의 열림 방향은 대성전 방향이 아닌 내삼문 전면 방향으로 되어 있다. 기둥머리에는 외단을 직절한 익공재와 도리방향 첨차를 결구하였으며, 천화루와 유사하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대들보 중앙에 짤막한 동자주를 두었다. 어칸 종도리 장혀 하단에는 '檀紀四千三百十年十二月十五日復元' 이라 되어 있어 1977년에 복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 칸 전면에는 2태극 문양을 그려 넣었으며, 긋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지붕에는 암수막새를 놓고, 용마루 중앙에는 청색 기와 1개를 얹어 두었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전면 4칸, 측면 2칸의 규모의 익공계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건물은 야트막한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웠다. 평면은 좌우의 양측칸을 온돌방으로 꾸미고, 중앙 2칸은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전면에는 툇마루를 두고 계자각을 둘렀다.

전면 중앙 기둥 서편 마루 일부를 터서 계자각을 놓지 않고 기단 상부에 댓돌 1개를 두어 오르내리게 하였다. 계자각으로 두른 전면의 툇마루는 상당히 폭이 좁은 편이며, 마루 전면 하단에는 짤막한 동바리를 받쳐 두었다. 기둥머리에는 2익공의 공포를 결구하였으며, 주간에는 화반을 두었다. 당(堂) 전면은 사분합문을, 좌우 실 전면에는 두 짝 세살문을 달았다. 좌우측면은 높직하게 중방을 결구하고, 중방 하부는 두텁게 벽체를 구성하였으며, 동편 기단 상부에 굴뚝을 내었다.

가구는 5량가인데, 3분변작의 위치에 중대공을 놓았다. 중대공은 외단을 직절한 보아지를 이중으로 놓고 그 위에 도리방향 첨차를 두어 주두를 놓고 종보를 받았다. 종보 중앙 상단에는 파련대공을 놓고 도리방향 첨차를 결구하였다. 처마는 모두 겹처마이며,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다.

중앙 2칸 중 동측 칸 종도리 장혀 하단에는 명륜당 중건시 작성한 상량묵서명이 남아 있는데, '檀紀四千二百九十七年甲辰二月二十日重建'이라 되어 있어 1964년의 중건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명륜당 내부에는 '大成殿重修記(대성전중수기)' 등 다수의 기문이 게액되어 있다.

(2) 동재(東齋), 서재(西齋)[9]

동재는 전면 4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9)_ 2001년도 학술용역 조사시에는 서재가 건립되지 않았었으며, 2002년도 복원공사를 통하여 서재가 복원되었기에 배치도상에 서재가 누락되어 있음

건물은 야트막한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방형 기둥을 세웠다. 평면은 4칸의 온돌방을 연접(連接)시키고 전면에 툇마루를 두었다. 기둥머리에는 보 방향으로 짤막한 보아지를 결구하고 대들보를 받고 있다.

가구(架構)는 3량가의 간결한 구조인데, 전후면 모두 겹처마를 두고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다. 전면 각 칸에 두 짝 세살문을 달았으며, 전면 가운데 기둥 상부에 '東齋' 현판을 걸어 두었다.

서재는 전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2002년도 복원 공사를 통하여 복원되었으며, 평면 규모만 다를 뿐 기타 특징은 동재와 동일하다. 전면 어칸 상부에 '西齋' 현판을 걸어두었다.

(3) 천화루(闡化樓)

천화루는 향교에서 가장 바깥쪽에 자리잡아 외삼문의 역활을 하고 있으며, 전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익공계 홑처마 우진각지붕 건물이다.

원래 천화루(闡化樓)라는 2층 누각이었으나, 1949년에 도괴되어 1964년에 단 칸 대문으로 건립되었던 것을, 1970년에 현재와 같은 규모로 건립하였다.

시멘몰탈로 된 단층 기단에 전면에 두 단의 계단을 두었다. 거칠게 방형으로 다듬은 초석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웠다. 평면은 어칸 전면 기둥렬에 두 짝 판문으로 된 대문을 두고 좌우에 온돌방을 들였다.

방 전면에는 높직하게 결구한 중방과 장혀 사이에 창호를 두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기둥머리에는 사괘를 트고 짤막한 단부를 사절한 첨차와 외단을 직절한 익공을 결구하고 주두를 놓아 장혀와 대들보를 받았다.

가구는 3량가로, 대들보 중앙에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장혀를 받았으며, 장혀 하단에는 '檀紀四千三百三年庚戌十一月一日重建'이라 적혀 있어 이 건물이 1970년에 건립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판문 정면에는 2태극문양을 도채하였으며, 긋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건물 전면 좌측에 문화재안내판이 서 있다.

다. 기타

기타 건물로는 협문과 비석군, 하마비 등이 있다.

협문은 명륜당 후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일각문 형식으로 긋기단청으로 마감하였고, 두 짝 판문을 달아 후편으로 출입하게 되어 있다. 협문을 나서면 후면에 낡은 건물 1동이 있으나 용도는 불분명하다.

비석군은 현재 명륜당 서편에 자리잡고 있으며, '忠孝'라 써진 비석 1개를 비롯 모두 3개의 비석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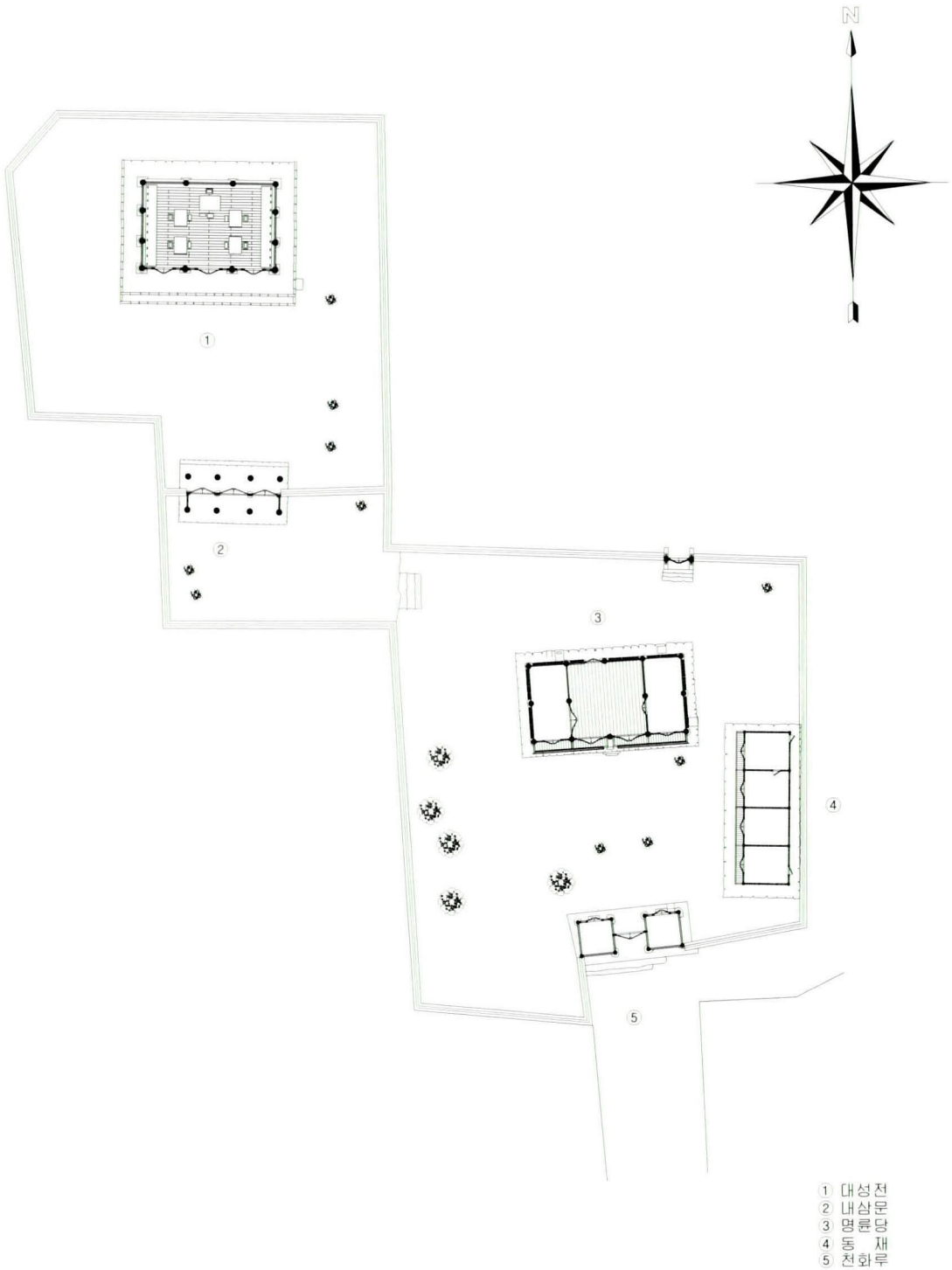
이 가운데 하나는 현감 노세환의 흥학비로 전면에는 '縣監盧候世煥興學碑'라 되어 있으나 좌우측의 연도 기록은 일부 멸실되어 알아 볼 수 없으며, 다만 우측면에 '丁未四月日改立 齋任 李□□' 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다른 하나는 현감 임택호의 열호재창건비로 비석 전면에는 '縣監任候澤鎬悅乎齋創建碑'라 쓰여 있으며, 비석 전면 우측에 '崇禎紀元後五辛巳五月日' 이라 되어 있어 1861년에 건립되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석 전면 좌측에는 '都監 金秉賢 有司 李能遇 金元壽'라 쓰여 있으며 후면에도 다량의 기문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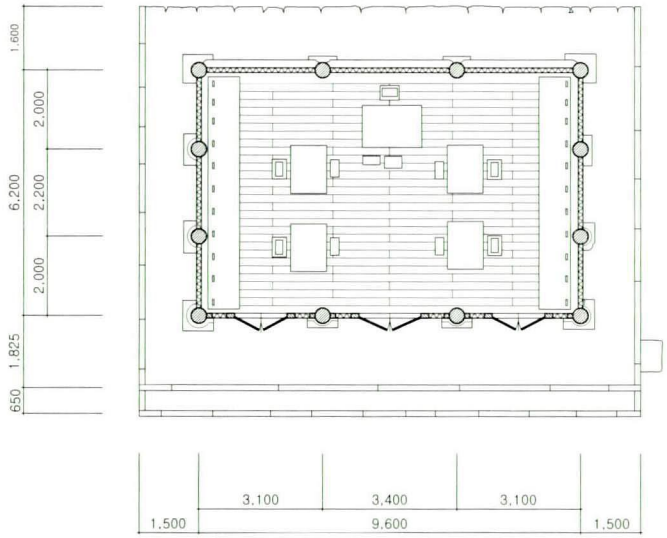
이외에 하마비는 천화루 전면 약 10여 미터 거리에 담에 붙어 '淸河鄕校' 표지석과 더불어 서 있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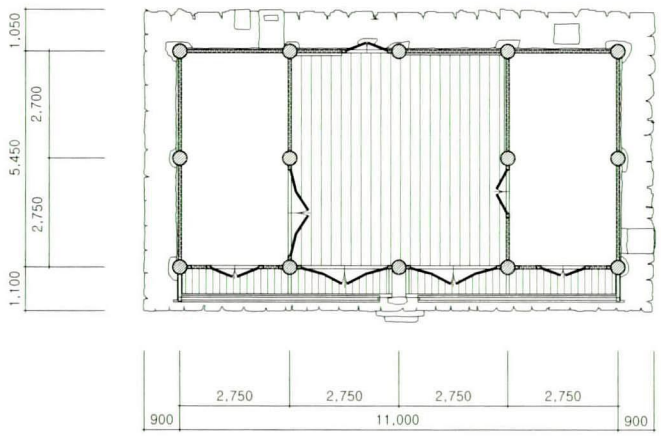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청하향교(淸河鄕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28호(대성전)
창건시기	조선 초기	입 지	평지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향교재단
좌 향	남서향(向 S12°W)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齋後堂 종축 2개(꺾인 축)
중건시기	1712~1717 사이 이건	대지조성	단차이 없음
설 위	5聖, 宋朝 4賢, 海東 18賢	인접시설	청하우체국, 면사무소
건축구성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천화루, 협문 등		
특기사항	대성전과 명륜당이 꺾인 축으로 별개의 축을 형성하고 있음 조선후기에 향교 전역을 이건하였음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3×3칸 / 외1출목 2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무고주(어칸) · 2고주(측벽) 5량가 / 장마루 / 연등천장 주고 : 평주 2800, 고주 3880 / 주칸 : 어칸 3400 / 수장폭 90 / 도리단면 Ø=210전후 보단면 : 대들보 540×430, 종보 420×370 / 처마내민길이 2100 / 기단높이 270 / 초석크기 약 750×750 전후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장대석 바른층쌓기 전면 3개(각 2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어칸) 종 보 : 3분변작
초 석	정평주초 / 원형주좌+고막이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흘림 없음	대 공	중대공 : 파련대공 종대공 : 파련대공
공 포	외1출목 2익공 / 보머리 운궁형	창 방	방형 / 뺄목 초각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이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 측후면 시멘몰탈 / 모로단청 / 연등천장 / 장마루		
특기사항	전후면의 단청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으며, 대들보 중앙에 화려한 문양을 그려 넣음 지붕 전면에 이건 당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명문 암막새 놓여 있음		
명륜당 건축 요소			
개 요	4×2칸 / 2익공 / 겹처마 팔작지붕 / 5량가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지반자 주고 2640 / 주칸 2750 / 수장폭 90 / 도리단면 Ø=210 / 보단면 : 대들보 360×320, 종보 320×270 처마내민길이 1650 / 기단높이 330 / 초석크기 1100×700 전후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전면 외벌대 없음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3분변작
초 석	덤벙주초 / 자연석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 흘림 없음	대 공	중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파련대공
공 포	초익공	창 방	방형 / 뺄목 앙서형으로 초각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이	지 붕	팔작지붕
수 장	심벽, 좌우측 시멘몰탈 / 모로단청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지반자		
특기사항	전면 4칸 규모로 홀수가 아닌 짝수 칸 구성 전면 툇마루 가설, 계자각 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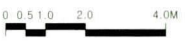
청하향교 배치도



청하향교 대성전



청하향교 명륜당





대성전



대성전 내부



대성전 측면



대성전 전면 주상포



대성전 전면 귀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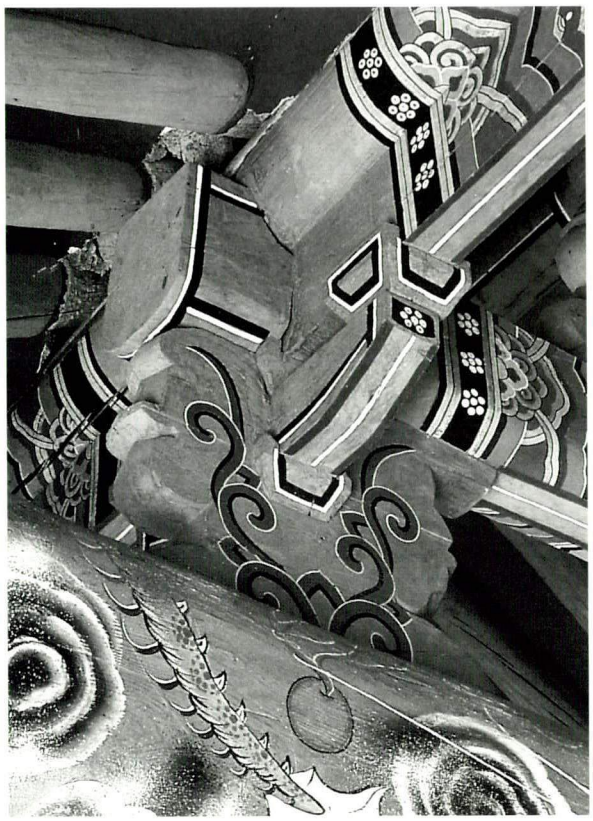
대성전 전면 화반



대성전 전면 귀초석



대성전 내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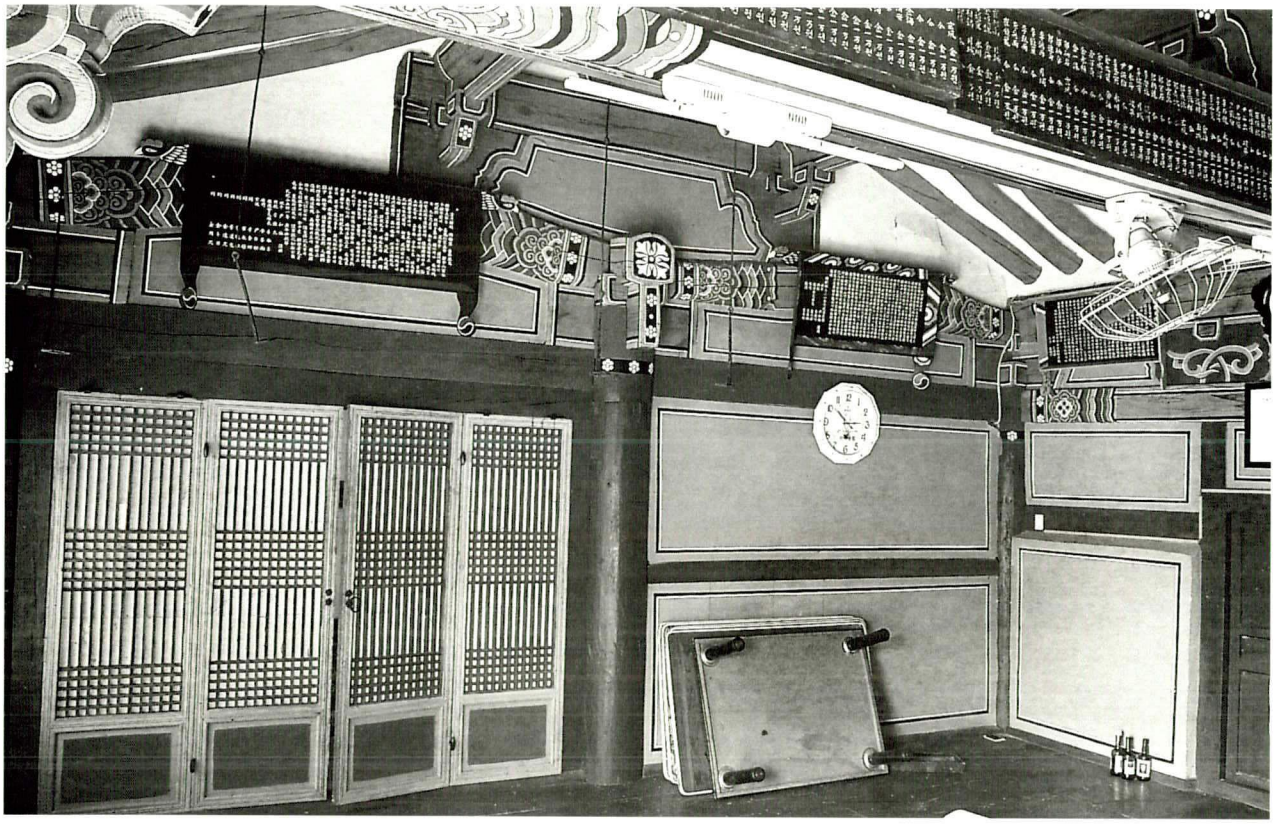
대성전 내부 중대공



대성전 내부 종대공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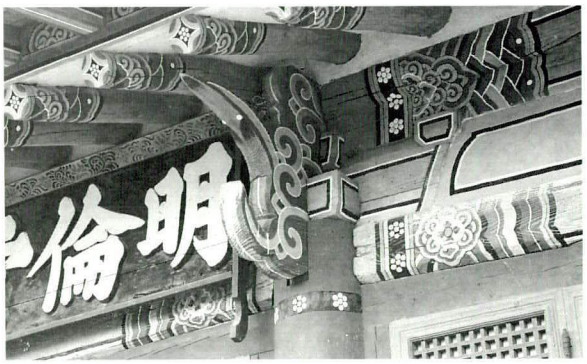
명륜당 내부



명륜당 전면 어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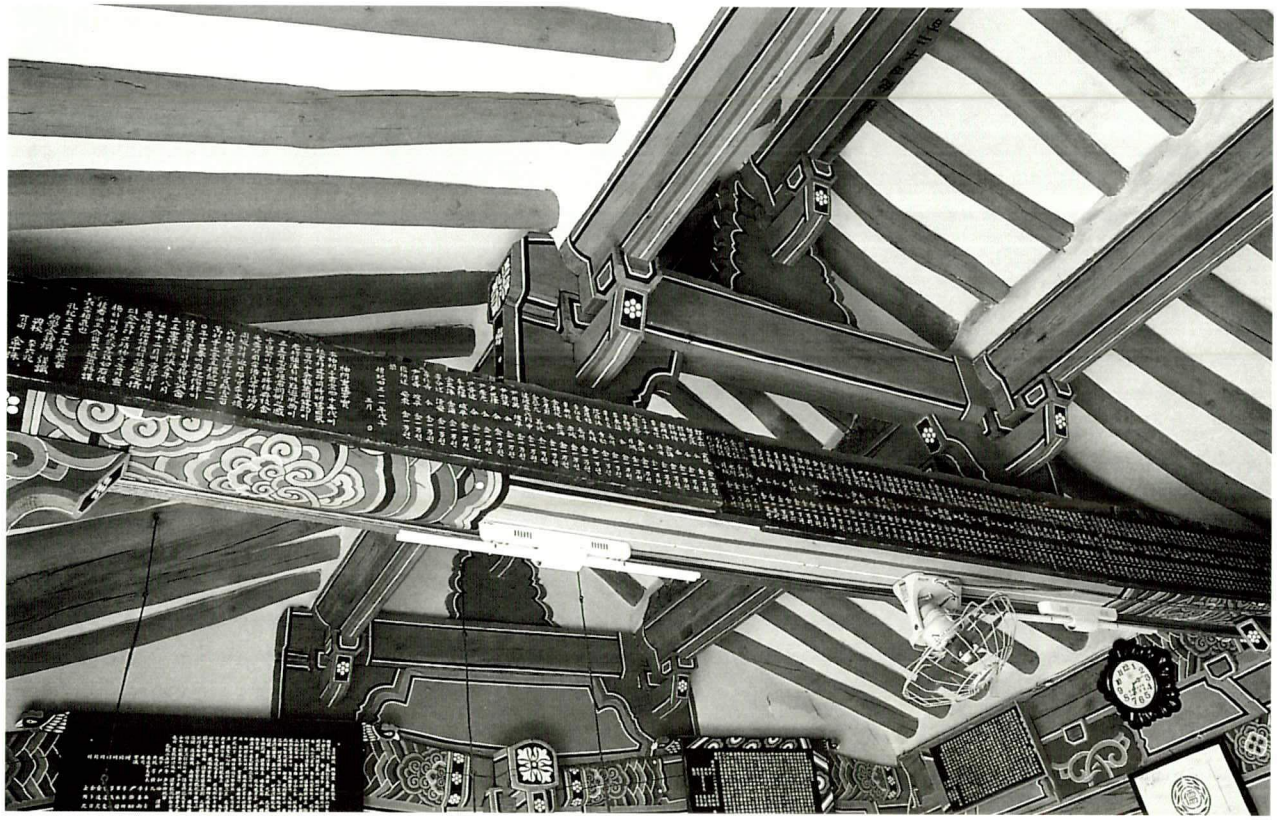


명륜당 전면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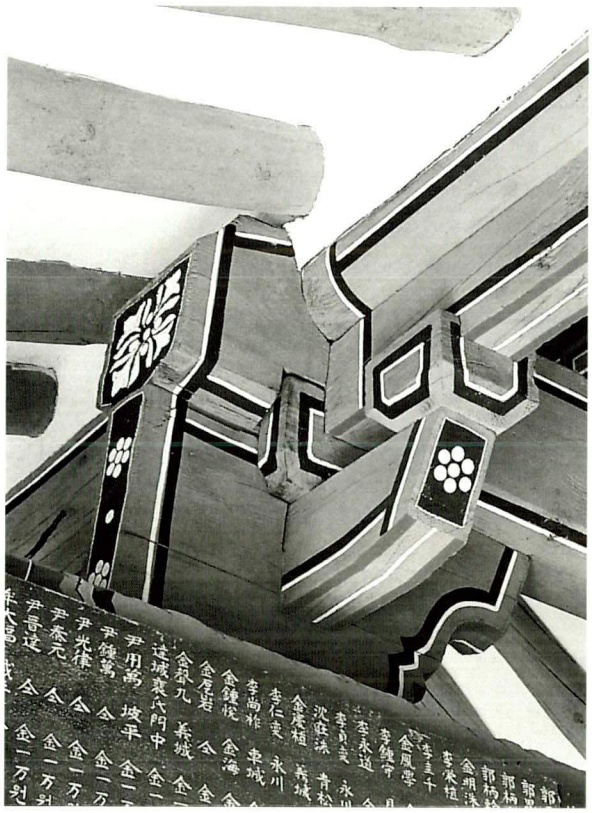


명륜당 전면 주상포


명륜당 전면 귀포



명륜당 내부 가구



명륜당 내부 중대공



명륜당 내부 종대공



동재



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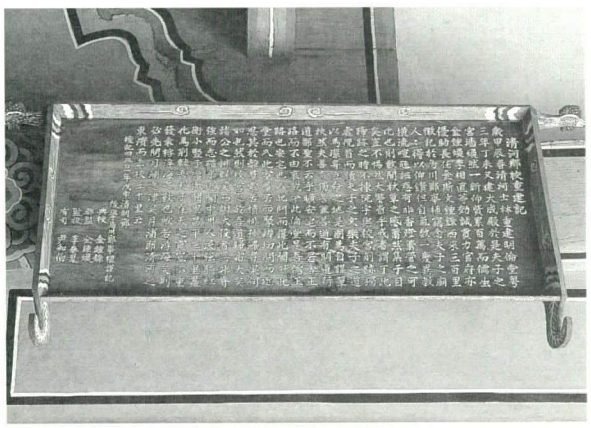
천화루



내삼문



청하향교 전경



기문-청하향교 중수기 (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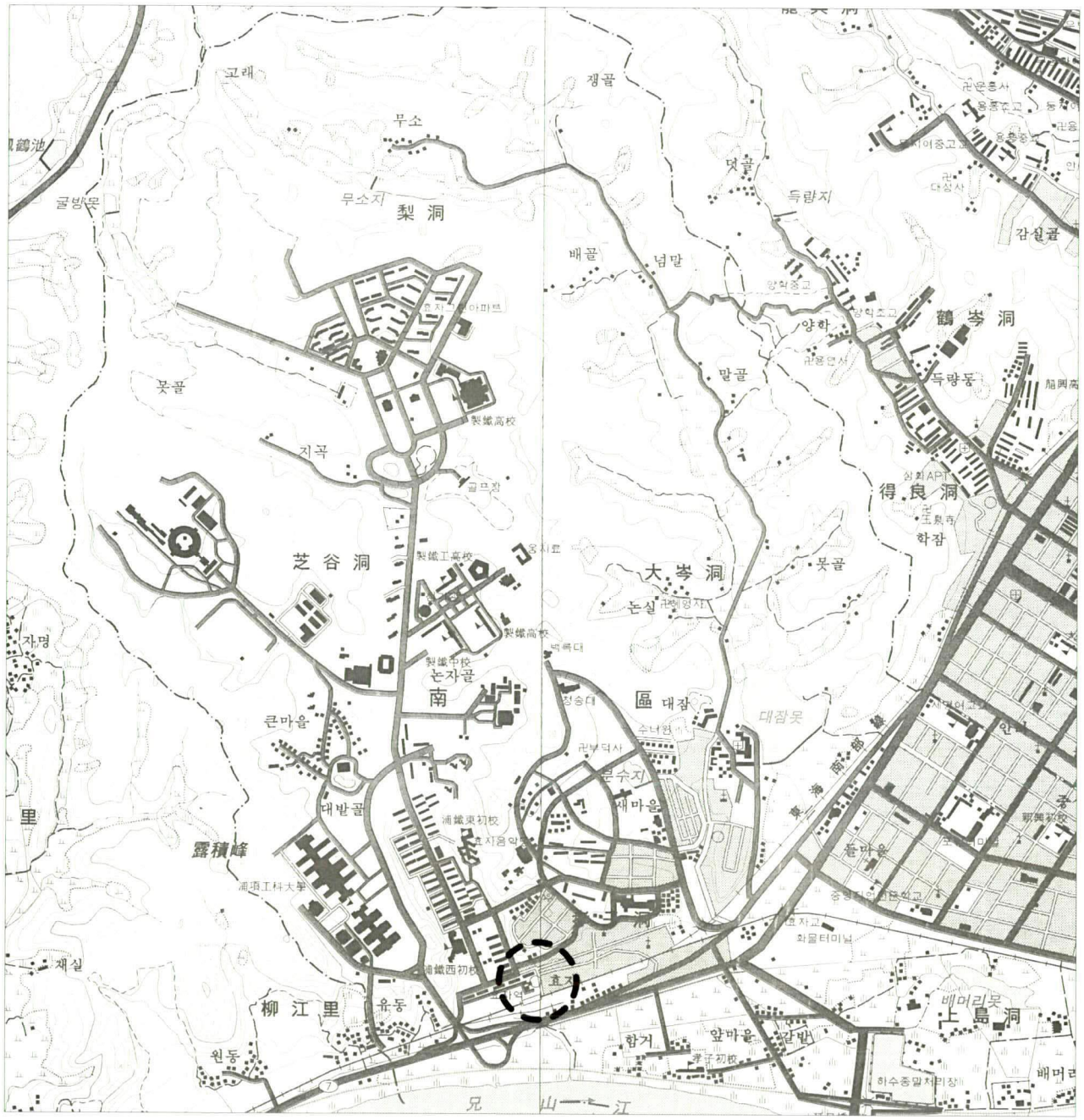


대성전 명문 암막새 (1712)



5. 연일향교(延日鄕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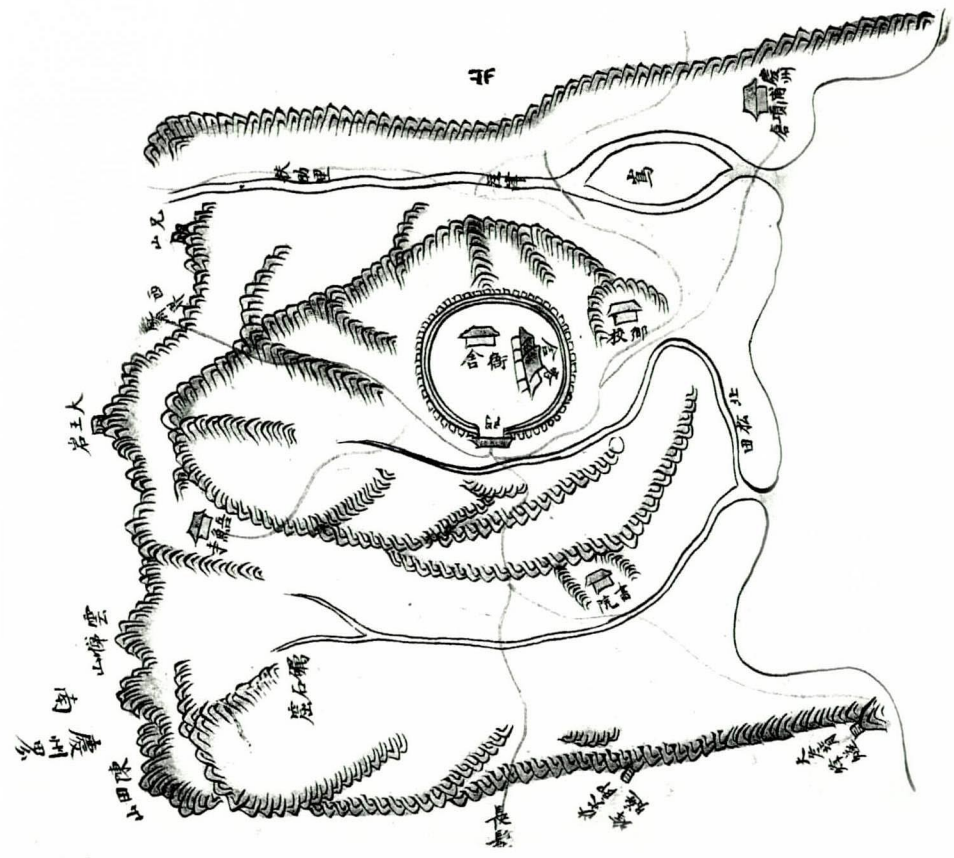
- 지정사항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호(대성전)
- 지 정 일 : 1985년 8월 5일
-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407
- 건축구성 : 대성전, 제기고, 내삼문, 명륜당, 서재, 외삼문, 교직사, 화장실 등



1. 연혁

고려 인종조 지방에 향교가 설치되었지만, 고려말까지는 소수의 대읍(大邑)에만 향교가 건립되었을 뿐이고, 조선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주읍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한 군현에 전국적으로 향교가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성종조 무렵이면 일읍일교(一邑一校), 일관일교(一官一校)의 원칙이 대체로 확립되었다. 따라서 영일 지역의 연혁을 통해 향교가 처음 창건된 시기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일은 본래 신라 근오지현(斤烏支縣)이었는데 경덕왕 때의 전국적 군현개편의 일환으로서 임정현(臨汀縣)으로 고쳐 의창군(義昌郡)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고려 때 영일현(迎日縣)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현종조 경주의 속읍이 되었다가 공양왕 때 감무가 파견되었다. 조선조에 들어와 태종 때진(鎭)을 두어 병마사겸지현사(兵馬使兼知縣事)를 파견하였다. 세종조에 병마겸절제사(兵馬兼節制使)로 개칭하였다가 후에 현감(縣監)으로 고쳤다. 이러한 연혁을 갖고 있는 영일에는 일읍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한 여말선초, 늦어도 성종조 이전에 향교가 건립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新增東國輿地勝覽(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현의 북쪽 5리에 향교가 있다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권(趙聖權)의 대성전 상량문에 처음 장흥(長興)에 건립되었다고 한 것은 바로 그것일 것이다. 그러나 연일향교 외삼문 바깥에 위치한 문화재안내판에는 중종 2년(1507)년 영일군 대송면 장흥동에 창건되었다고 되어 있다.

1987년 연일향교에서 발간한 『延日鄕校誌(연일향교지)』에는 향교 이건과 중수에 관한 자료가 실려있다. 이에 의거해 연일향교의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연일향교는 임진왜란 중에 상당 부분이 소실되었었고, 숙종(1675-1720) 때 대송면 성좌(聖佐)동으로 향교의 이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영조 4년(1728)에 사인(士人) 온양(溫陽) 방(方)씨 태삼(泰三), 광삼(光三) 형제가 1,500금(金)을 내어 제기를 마련하였으며, 또 150량을 내어 제복을 마련하였다. 헌종조에는 광삼의 손자인 사정(四正), 사곤(四坤) 형제가 백미 450두(斗)로서 석채(釋菜)의 예(禮)를 받



延日縣

들게 하였다.

그러나 읍치(邑置) 및 성좌의 향교는 지대가 낮아 물에 자주 잠기어 이읍이교(移邑移校)의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마침내 현감 원우상(元禹常)에 의해 고종 11년(1870) 읍치가 효자(孝子)로 이천(移遷)함에 따라 향교 역시 현재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다.[1] 이 때의 상량문은 조성권에 의해 이루어졌다. 1913년 앞의 방씨의 후손들인 대경(大慶), 대수(大洙), 대규(大奎), 대관(大寬), 대자(大字) 등이 50여 금을 출자하여 제기를 개조하였다. 그 후 1918년 포항 심상(尋常) 소학교의 설립으로 인해 명륜당을 박탈당하였다가 1921년에 중건하였다.[2] 또한 1955년에 향교 내 계단과 신문(神門) 등을 보수하는 등 향교 일곽을 보수하였으며,[3] 1967년에 명륜당을 보수하였다. 1969년에 외삼문을 중건하고, 1976년에 향교 일곽에 대해 보수하였으며, 1990년에 대성전을 산자 이상 해체보수 하고 고색땜단청을 하였으며, 명륜당을 중수하였다.

창건 이후의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07	창건(추정)
1592	향교 일부 소실
1675-1720	이건
1870	이건
1921	명륜당 중건
1955	신문 등 등 향교 일곽 보수
1967	명륜당 보수
1969	외삼문 중건
1976	향교 일곽 보수
1990	대성전 산자 이상 해체보수, 고색땜단청, 내삼문 보수, 명륜당 중건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는 대성전, 제기고, 내삼문, 명륜당, 서재, 외삼문, 교직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입지 및 배치

연일향교는 포항에서 경주로 가는 산업도로를 따라 가다가 시 경계에 즈음하여 육교가 있고, 육교를 지나 오른편에 있는 나지막한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전면에 하천이 흐르고

1)__ '鄕校移建기(향교이건기)'. 이 기문에는 경오(庚午)년, 즉 1870년에 현감 원우상이 물을 피하기 위해 이읍이교(移邑移校) 등을 언급하면서 강 북쪽에 이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말미에는 '歲在乙亥'라 되어 있어 이 기문이 1875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__ '明倫堂重建記(명륜당중건기)'가 명륜당 내에 남아 있으며, 기문 말미에 '孔夫子誕降二千四百七十五年'이라 되어 있어, 1924년에 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으나, 명륜당 상량묵서명에는 1921년으로 되어 있다.

3)__ '迎日鄕校重修記(영일향교중수기)', 기문 말미에 '玆紀四千二百八十八年乙未陽月下弦'으로 되어 있어 1955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있으며,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남향(南向)을 취하고 있다.

대성전을 제일 뒤쪽 높은 곳에 위치시키고, 내삼문, 명륜당, 외삼문을 일렬로 배치하였다. 비교적 단출한 건물군의 구성을 하고 있으며, 대문채를 삼문(三門)으로 하지 않고 양쪽칸을 방으로 꾸민 것이 타 향교와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또한 대성전과 명륜당의 향이 다른데 대성전은 남향을, 명륜당은 약간 남동향을 하여 각각 내삼문, 외삼문과 함께 구성한 제향영역, 강학영역 전체의 축이 비틀어져 있는 배치로 되어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전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계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건물은 장대석을 정연하게 정면 2단, 후면 1단으로 다듬은 단층 기단 위에 약간 높직하게 운두를 둔 원형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웠으며, 후면 귀초석 하나는 방형의 장주초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기둥동바리 대신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건물 전면에는 또한 내삼문 후면에서 이어지는 답도를 따라 각 칸 출입문에 맞추어 2단씩 모두 3개의 계단을 두었다. 평면은 내부 통칸으로 되어 있으며 바닥에는 전을 깔았고 상부는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전면에는 각 칸 모두 두 짝 교살문을 달았는데, 어칸은 중앙에 두고 협칸은 어칸 쪽 기둥에 붙여 달았다. 측면은 2칸으로 하였는데 측면 앞칸을 뒤쪽칸보다 2배정도 넓게 한 색다른 칸살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측후면 중방 하부에 부벽(附壁)을 설치한 점이 특이하다.

공포(栱包)의 구성은 경북지방 향교건축으로는 유일하게 익공계의 외1출목 3익공 양식을 채택하였다. 첨차는 하부를 둥글게 깎은 교두(翹頭)형이고, 단부(端部)는 직절(直切)하였다. 살미의 형상은 2개를 앙서로 하여 끝을 45도 정도로 사절(斜切)시켰고, 제일 위쪽의 살미는 쇠서로 하여 끝은 날카롭게 하였다. 각 살미마다 연봉(蓮峰)이나 연꽃모양이 첨가되어 조선후기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정면과 배면에는 주간(柱間)에 복잡한 연화문을 외부에만 음각(陰刻)한 방형(方形)의 판화반을 어칸 2개, 협칸 1개씩을 끼우고 있다.

가구(架構)는 어칸에서 무고주, 측벽에서 후1고주 5량으로 하였고, 대들보는 직재에 가까운 부재를 거의 치목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였고, 그 위에 초각하지 않은 판재에 주두를 놓고 뜬창방을 직교시켜 포대공으로 만들어 올려 종보를 받게 하였다. 종보 중앙에는 파련대공을 세우고 포를 구성하여 뜬창방과 종도리 및 장혀를 받게 하였다. 중도리 장혀와 뜬창방사이에는 소로를 어칸 5개, 협칸 4개를 끼워 놓았으며, 종도리 장혀와 뜬창방사이에는 간격을 띄워 1칸에 3개의 화반을 끼우는 흔하지 않은 수법을 사용하여 대성전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 측면기둥은 고주(高柱)로 하여 주두(柱頭)없이 그대로 대량을 받고 있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측면에 풍판을 달았으며 겹처마로 구성하였고 암수막새를 얹었다. 단청은 모로단청으로 하였으며, 정면 어칸 상부 중앙에 '大成殿' 현판을 걸었다. 내부에는 공

자를 비롯한 5성과 송조 2현, 해동 18현 등 모두 25현의 위패를 모시고 있으며, 내부 후면 어칸 상벽에 공자의 초상화를 걸어두었다.

(2) 제기고(祭器庫)

제기고는 전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건물은 야트막한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방형의 기둥을 세웠다. 내부는 통칸으로 우물마루로 되어 있으며, 전면 각 칸에는 두 짝 세살문을 내었다. 기둥머리에는 사괘를 트고 장혀와 외단을 직절한 보아지를 결구하여 납도리와 대들보를 받고 있다. 좌우 귓기둥에서는 보방향 보아지가 생략되고 주심장혀 하단에 짤막한 첨차를 결구하였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전후평주에 걸친 대들보 중앙에 제형 판대공을 놓고 종도리를 받고 있다. 긋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으며, 각 칸 창호 하단에는 댓돌을 두었다.

(3)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전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주심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가운데 칸의 지붕을 좌우보다 높게 한 솟을삼문으로 되어 있으며, 1990년 중수공사시 전면 계단을 화강암으로 바꾸었다.

단층 기단 위에 원형으로 다듬은 초석을 놓고, 원형 기둥을 세웠다. 각 칸에는 전면 기둥열에 두 짝 판문을 달았으며, 좌우측에는 판벽을 두었다. 기둥머리에는 사괘를 트지 않고, 주두를 올린 다음 외단을 직절한 살미와 문상방을 결구한 다음, 대들보와 장혀를 받고 주심도리를 결구하였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대들보 중앙에 짤막한 동자주를 두고 종도리를 받았다. 단청은 하지 않았으며, 전면 어칸 상부에 '神門'현판을 걸어두었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전면 5칸, 측면 2칸에 전면에 퇴칸을 둔 익공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자연석으로 2단 바른층쌓기 하여 만든 단층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전면에는 원형, 퇴칸열과 후면 평주에는 방형의 기둥을 세웠다. 계단은 따로 없으며 다만 어칸과 서측협칸, 동측 퇴칸 전면에 한 단의 디딤돌을 두었다. 초석 좌우에는 숫기와로 기둥하부의 부식을 막기 위해 환기구를 내었다. 내부 평면은 중앙 3칸을 당(堂)으로, 좌우 퇴칸을 실(室)로 구분하되 전면 퇴칸을 구분하였으며, 실 후벽으로 중방 상부에 벽체 바깥쪽으로 약간 내밀어 수장 공간을 마련하였다. 좌우실 전면에는 두 짝 세살문을 달았으며, 좌우 실의 당측 벽에는 사분합문을 들였다. 당 후벽 어칸에는 두 짝 당판문을, 좌우 협칸에는 어칸보다 하방의 높이를 높여 외짝 당판문을 달았다. 명륜당의 칸살은 약간 특이한데, 어칸이

2430mm, 좌우 협칸이 2135mm, 2115mm 이고, 좌우 퇴칸이 3095mm, 3115mm로 되어 있다. 이는 원래 3칸 규모의 명륜당에 좌우에 실을 덧붙여 확장한 것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둥머리에는 초익공의 공포를 두었으나, 공포재의 외단이 일반적인 쇠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아 특이하며, 주간에는 화반대신 소로를 수장하였다. 가구는 일반적인 명륜당의 규모가 5량가인 것에 비하여 3량가로 왜소한 편이다. 어칸에서 전후면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제형 판대공을 두고 종도리를 받았다. 도리는 주심도리와 종도리 모두 납도리로 되어 있다. 좌우 실에서는 전면에서 1/3지점에 평주와 같은 높이의 고주를 두고 상부에는 벽체를 구성하였다.

지붕은 홑처마에 숫막새만 얹었으며, 좌우 측면에 방풍판을 달고, 긋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어칸 종도리장혀 하단에는 '龜 孔夫子誕降二千四百七十二年辛酉二月初六日 申時立柱 二十日 辰眚上樑 壬坐丙向 龍' 이라는 묵서가 남아 있고, 동측 협칸 종도리장혀 하단에는 '孔夫子誕降二千五百四十一年庚午九月二十一日 午時重修上樑' 이라는 묵서가 남아 있어, 각각 1921년과 1990년의 중건 기록을 알려주고 있다.

현재 명륜당 내에는 '鄕校移建記(향교이건기)'(1875), '鄕校副齋先進 察序(향교부재선진계찰서)'(1881), '鄕校重修記(향교중수기)'(戊戌, 연도 불명), '鄕校大成殿重修明倫堂重建記(향교대성전중수명륜당중건기)'(1991), '迎日鄕校重修記(영일향교중수기)'(1955) 등이 남아 있으며, 어칸 후벽 상부에 '大成殿' 현판을 걸어 두었다.

(2) 서재(西齋)

서재는 전면 3칸, 측면 2칸 규모에 전퇴를 둔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명륜당과 외삼문 사이에는 원래 전면 5칸, 측면 1칸 규모의 주사(廚舍)[4]가 있었으나 교직사는 현재 외삼문 바깥에 있고, 서재는 1999년에 건립되었다.

건물은 야트막한 단층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방형 기둥을 세웠다. 평면은 좌우에 실(室)을 두고 가운데 당(堂) 한 칸을 두었다. 실 전면과 당측 벽에는 각각 두 짝 세살문을 달았으며, 당 후벽에는 두 짝 판문을 달았다. 또한 실 후면에는 중방 상부에 두 짝 세살창을 내었다. 당은 우물마루와 연등천장, 실은 온돌과 지반자로 마감되어 있다.

가구는 3량가로 앞에서 1/3지점에 평주와 같은 높이의 고주를 두었으며, 대들보 중앙에 제형 판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고 있다. 좌우 측면 기단 상부에 아궁이가 있으며 각 실 후면 중앙에 굴뚝을 내었다. 단청은 하지 않았으며, 내부 당 종도리장혀 하단에는 '龜 孔夫子誕降二千五百五十年己卯八月二十九日未時 立柱上樑 龍' 이라 적혀 있어, 1999년에 건립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4)_ 정면 5칸, 측면 1칸의 홑처마 맞배집으로 어칸을 대문칸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로부터 온돌방 2, 대문, 마루방, 온돌방의 순으로 배치한 3량 납도리 집이다. 경상북도 · 영남대학교, 『慶北鄕校誌』, 경상북도, 1991 ; p.263

(3) 외삼문(外三門)

외삼문은 전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건물은 야트막한 단층 기단 위에 원형 초석을 놓고 원형 기둥을 세웠다. 평면은 양쪽에 방을 두고 어칸 전면 기둥렬에 두 짝 판문을 내었다. 좌우실 전면에는 중방 상부에 작은 두 짝 미닫이창을 달았으며, 후면에는 두 짝 세살문을 달았고 어칸 쪽으로 외짝 세살문을 달았다. 각 실 후면에는 아궁이가 있고 건물 좌우측으로 각각 굴뚝이 있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대들보 중앙에 동자주를 놓아 종도리를 받았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암막새 없이 숫막새만을 얹었으며, 단청은 하지 않았으나 판문 정면에 태극문양을 도채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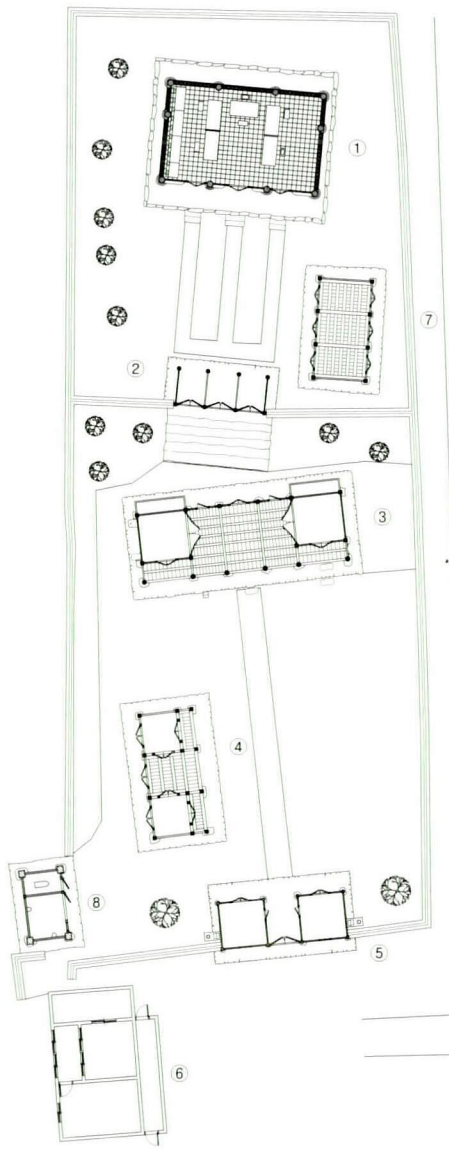
한편 어칸 종도리 장혀 하단에는 '龍 孔夫子誕降二千五百二十年乙酉十月二十日午時立柱二十一日上樑 壬坐丙向 龜' 라는 묵서명이 남아 있어 이 건물이 1969년에 중건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다. 기타

기타 건물로는 화장실과 교직사 등이 있다. 화장실은 현재 외삼문 서편 담에 면하여 있으며, 교직사는 원래 명륜당과 외삼문 사이에 있던 주사(廚舍)를 없애고 현재 외삼문 전면에 현대식 주택으로 지어져 있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연일향교(延日鄕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호(대성전)
창건시기	조선 중종 2년(1507)	입 지	평지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향교재단
좌 향	남향(명륜당 向 S12°E)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齋後堂 남북종축 1개
중건시기	숙종(1675-1720) 이건 고종 11년(1870) 이건 1921 명륜당 중건	대지조성	단차이 없음
설 위	5聖, 宋朝 2賢, 海東 18賢	인접시설	없음
건축구성	대성전, 제기고, 내삼문, 명륜당, 서재, 외삼문, 교직사, 화장실 등		
특기사항	외삼문의 좌우에 실(室)을 두었음 조선후기에 2차례 향교 전역을 이건하였음 전체적인 향은 남향이나 대성전과 명륜당의 향이 서로 다름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3×2칸 / 외1출목 3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무고주(어칸) · 후고주(측벽) 5량가 / 전돌 / 연등천장 / 주칸 : 어칸 3630 협칸 3030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장대석 바른층쌓기 / 이벌대 전면 각 칸 2단씩 3개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어칸) 종 보 : 3분변작
초 석	정평주초 / 원형(일부 방형 장주)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흘림 없음	대 공	중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파련대공
공 포	외1출목 3익공 / 보머리 초각	창 방	방형 / 뺄목 직절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이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연등천장 / 전돌		
특기사항	공포 양식이 외1출목 3익공으로 매우 드문 구성임 벽체 중방 하부에 부벽을 설치하였으며, 전면 좌우 협칸 창호가 어칸 쪽에 치우쳐 있음		
명륜당 건축 요소			
개 요	5×2칸 / 초익공 / 홑처마 맞배지붕 / 3량가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지반자 / 주칸 : 어칸 2430 협칸(평균) 2120 퇴칸(평균) 3105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자연석 바른층쌓기 / 이벌대 없음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초 석	덤벙주초 / 자연석	도 리	3량 / 납도리
기 둥	전면 평주 : 원형기둥 고주 및 후면 평주 : 방형기둥	대 공	종대공 : 판대공
공 포	초익공	창 방	방형 / 뺄목 직절
처 마	홑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이	지 붕	맞배지붕
수 장	심벽 / 긋기단청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지반자		
특기사항	전후면의 기둥 단면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음 칸살의 규모가 달라 3칸 건물에서 5칸 건물로 확장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규모에 비하여 3량가로 구조가 간략하나 전퇴칸을 구성하였음 지붕에 암막새 없이 숫막새만 얹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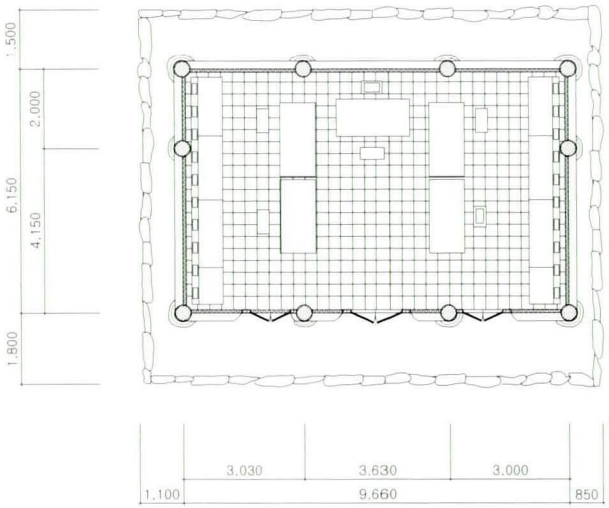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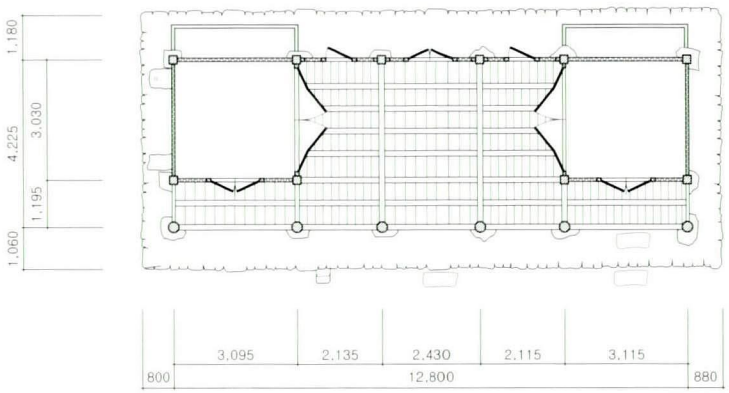
① 대성전
② 내삼문
③ 명륜당
④ 서 재
⑤ 외삼문
⑥ 교직사
⑦ 제기고
⑧ 화장실

연일향교 배치도





연일향교 대성전



연일향교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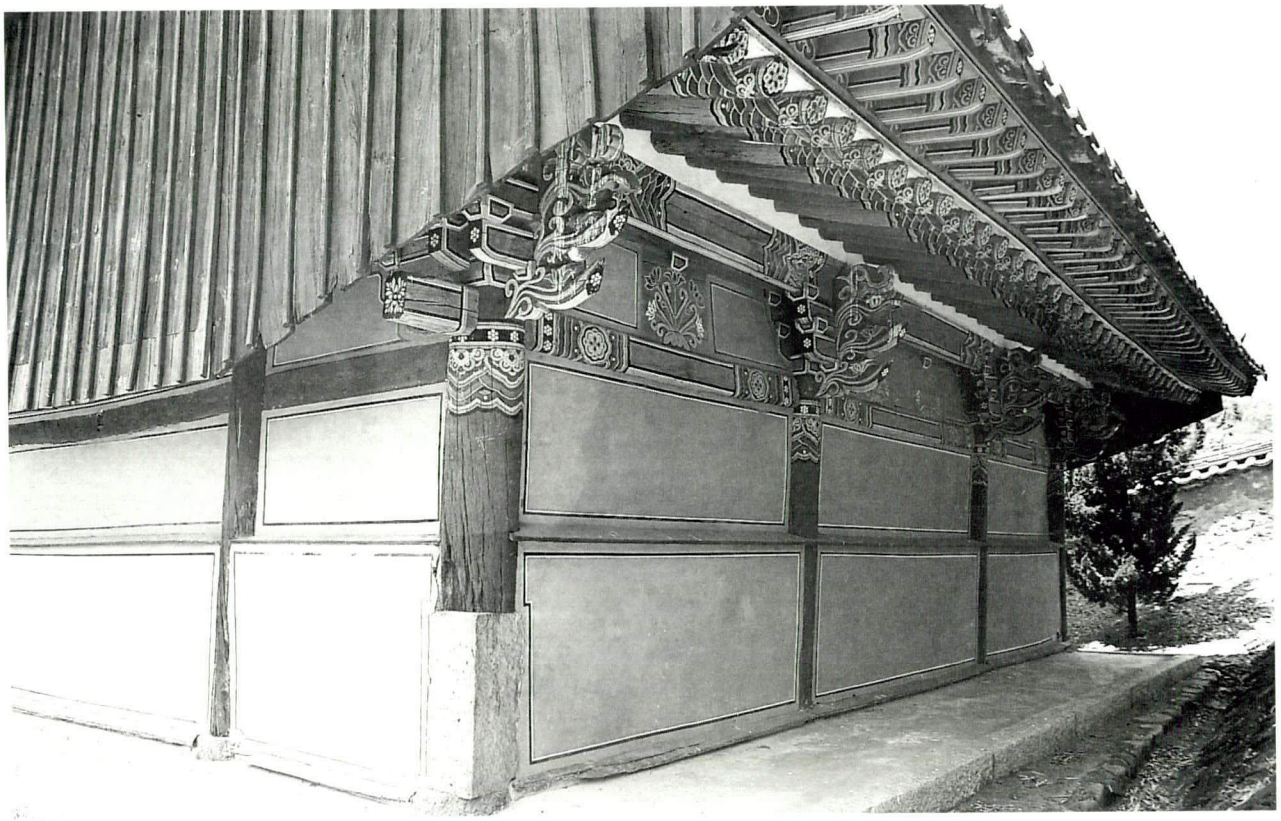
0 0.5 1.0 2.0 4.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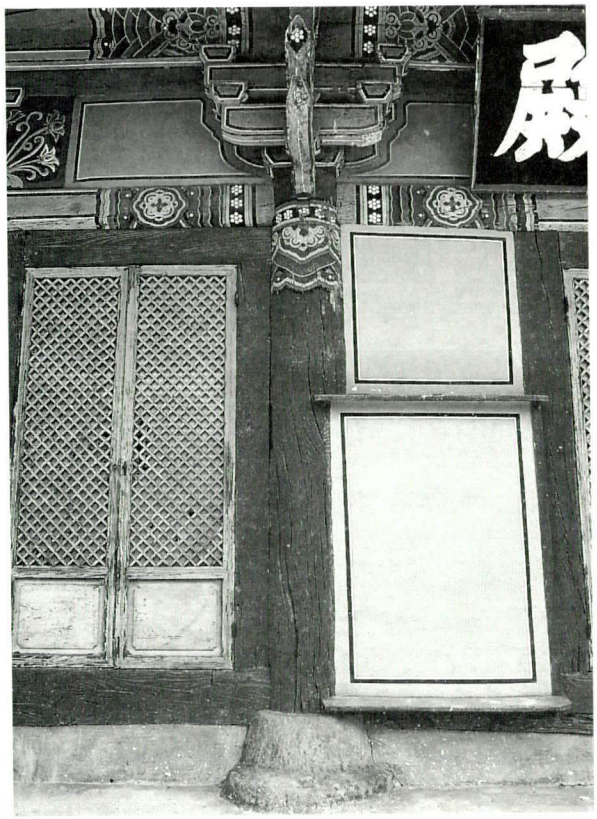
대성전



대성전 내부



대성전 측후면



대성전 전면 평주



대성전 전면 주상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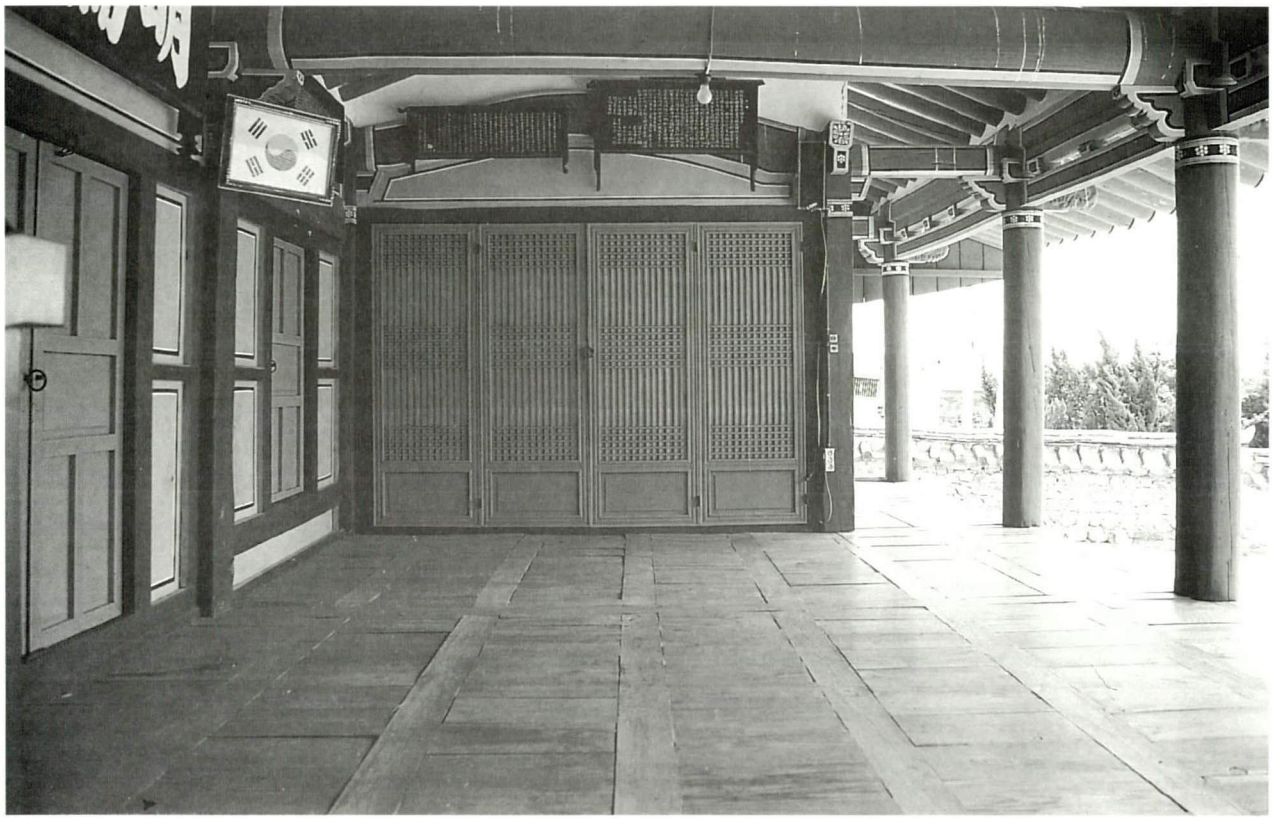
대성전 내부 어칸 가구



대성전 내부 측벽 가구 상세



명륜당



명륜당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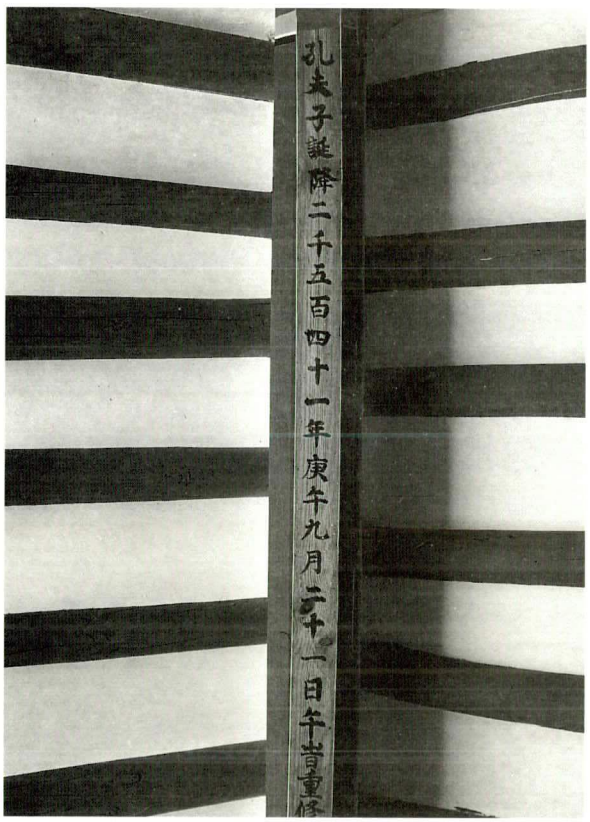


명륜당 전면 평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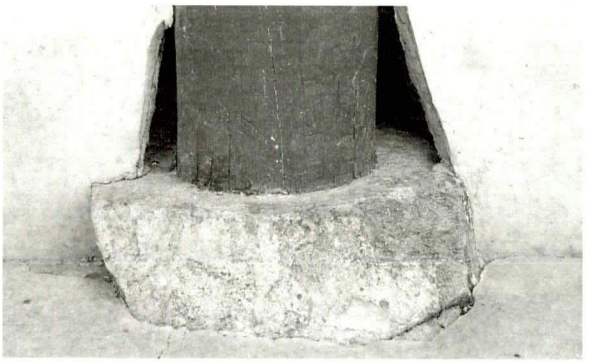

명륜당 전면 주상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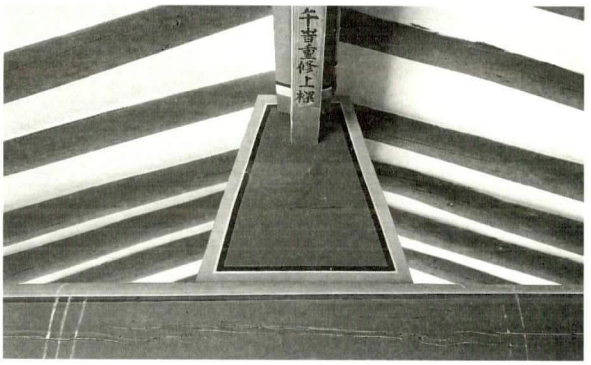


명륜당 현판



명륜당 내부 종도리장혀 묵서명


명륜당 전면 평주 초석



명륜당 내부 종대공



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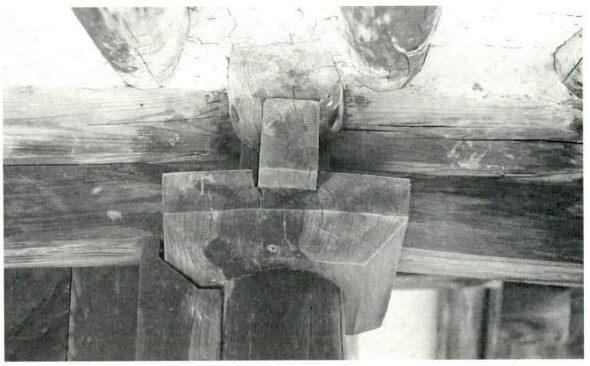
제기고



내삼문



문간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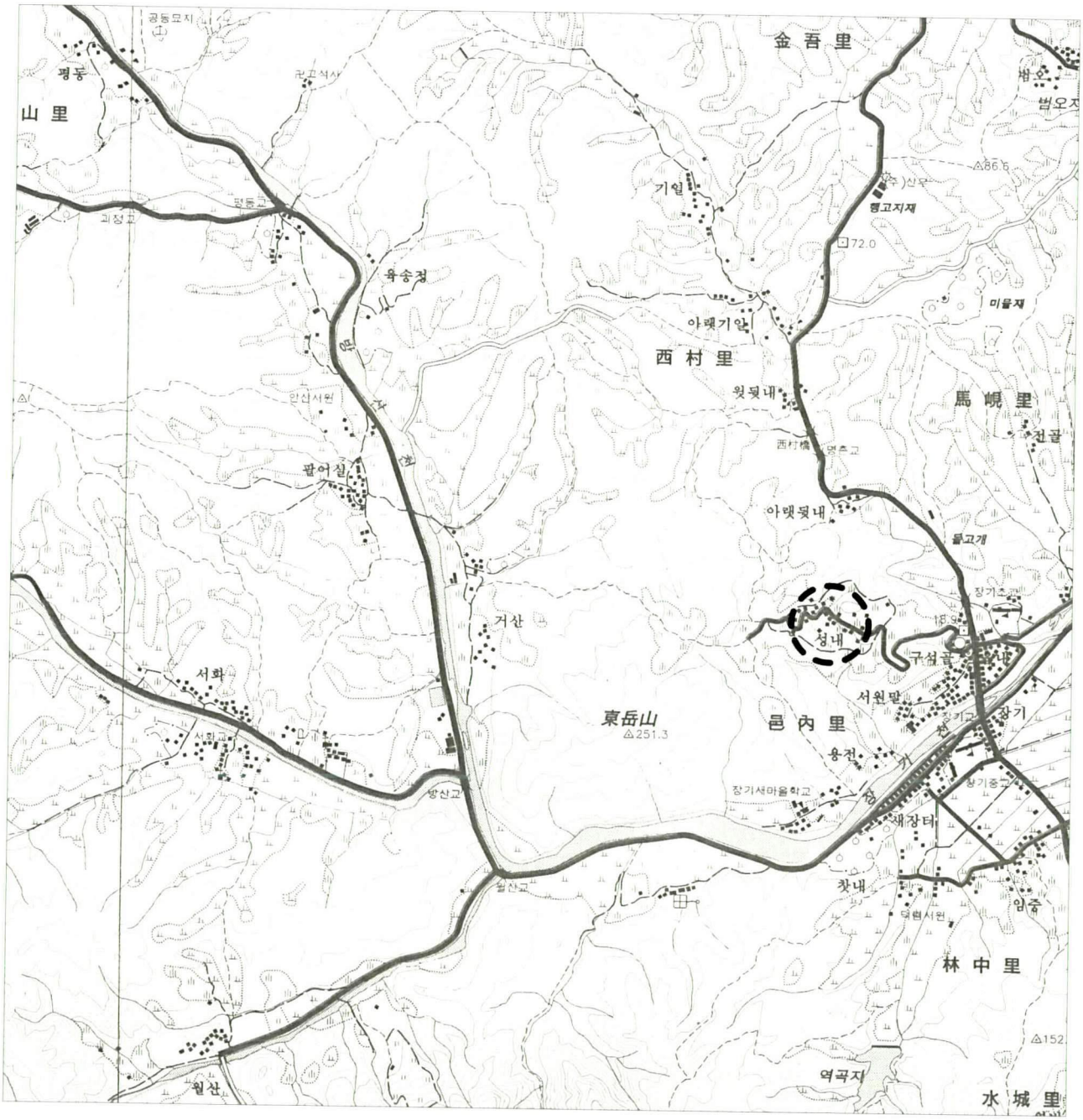


내삼문 주상부 결구



6. 장기향교(長鬐鄕校)

- 지정사항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27호(일곽)
- 지 정 일 : 1997년 9월 29일
-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202
- 건축구성 :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장경각, 동재, 외삼문, 협문, 화장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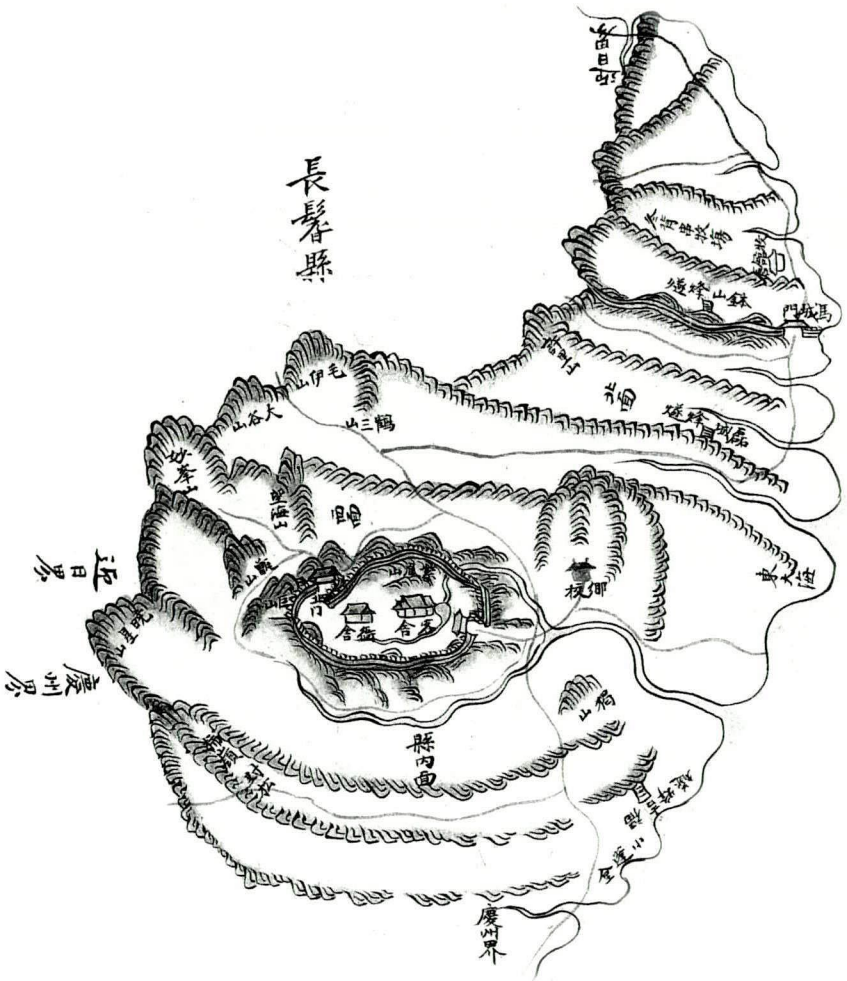


1. 연혁

장기향교의 창건에 관한 자료는 현재 남아 전하지 않는다. 대체로 향교의 역사는 그 읍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고려 인종조 지방에 향교가 처음 설립되기 시작하였지만 고려 말까지는 소수의 대읍에만 향교가 건립되었을 뿐이다. 그 후 조선조에 들어와서 태조 이래 일읍일교(一邑一校)의 표방 하에 전국적으로 향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여 성종조 무렵 일읍일교, 일관일교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따라서 장기현의 연혁을 통해 장기향교의 건립시기를 대충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장기현은 본래 신라 지답현(只畓縣)이었는데, 경덕왕 때 기립현(鬐立縣)으로 고쳐 의창현(義昌縣)의 영현으로 삼았다. 고려 때 현재의 이름인 장기현(長鬐縣)으로 고쳐 경주의 속읍(屬邑)으로 삼았다가 공양왕 때 감무를 파견하였다. 조선 태종 때 지현사(知縣事)로 삼았다가 후에 현감으로 고쳤다. 따라서 장기향교의 건립은 일읍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한 여말선초(麗末鮮初)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장기향교는 태조 5년(1396) 창건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다.[1] 다만 『新增東國輿地勝覽(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현의 남쪽 2리에 있다고 한 것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장기향교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이 때 서극인(徐克仁)은 임진왜란 때 성위판(聖位板)을 수호하여 봉사(奉事)를 받았고, 이대임(李大任)은 8현 위판을 수호하였기 때문에 훈도(訓導)에 제수되었다. 장기향교는 임진왜란 중에 소실되었으며, 그 후 임란 후인 선조 33년(1600)에 중건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영조 1년(1725)[2]에 현감 황익진(黃益鎭)에 의하여 현재의 마현동(馬峴洞, 현 장기초등학교



長鬐縣

1)_ 문화재청 자료에는 태종5년(1405)으로 되어 있다.

2)_ 향교 전면에 위치한 안내판에는 1785년으로 되어 있다.

동편)으로 이건하였다고[3] 한다. 『慶尙道邑誌(경상도읍지)』「章鬐邑誌」에서 구읍치(舊邑置)는 현 남쪽 2리에 있고, 현의 동쪽 2리에 구(舊) 향교가 있다고 한 것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 후 고종 때 군수 김영주가 장기성 내의 구(舊) 객관(客官)을 수리하고 위패를 봉안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향교 전면의 안내판에는 1922년에 읍성[4] 내로 이건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1993년도에 제작된 '長鬐鄕校懸板文(장기향교현판문)'에는 일제 강점기 중 직원(直員) 이종욱(李鍾旭)이 교토곡두(校土穀斗)로 직재장(直材匠)의 공비(功費)를 마련하여 구당(舊堂)의 광탁(廣拓) 동영(棟楹)을 취하여 신실(新室)을 만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제 당시의 이건(移建) 사실을 적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고종 연간에 객관으로 위패를 옮겨 대성전으로 활용하고, 1922년까지 대성전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의 구 향교 건물을 계속 사용하다가 1922년에 기존 건물의 부재를 활용하여 정확하지는 않으나 현 위치에 일부 건물을 지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1947년에 명륜당을 짓기 이전까지는 객관이 제향과 강학 두 기능을 모두 수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47년에 향교로 사용되던 객관이 너무 낡아 선비를 수용하기 어려워 병술년(丙戌, 1946)의 석전을 치르고 나서, 새로이 명륜당과 동서재, 신문 등을 구비하였다.[5] 1970년에 명륜당을 보수하였고, 1975년에 대성전을 보수하고 단청을 새로 하였다.

현재 향교에는 을유(乙酉)년 6월명의 『校案(교안)』, 천계(天啓) 7년(인조 5, 1627)과 강희(康熙) 36년(숙종 23, 1697)명의 『鄕案(향안)』, 가경(嘉慶) 23년(순조 18, 1818) 12월 및 해방 이후의 기록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鄕校各項留坐都錄册(향교각항유좌도록책)』 등의 문헌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창건 이후의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96	창건
임진왜란 중	소실
1600	중건
1725	이건
고종 연간	객관을 수리하여 위패 봉안(대성전으로 사용)
1922	구 향교 부재를 활용하여 일부 건물 이건
1947	명륜당, 동서재, 신문 중건

3)__ 문화재청 자료에 의하면, 임진왜란 이후 향교를 이건할 때 덕계 임재화(德溪 林再華)가 대대로 살던 자기 집터를 희사하여 향교재건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되어 있다.

4)__ 사적 제386호로 지정된 장기읍성은 고려 현종 2년(1011)에 토성(土城)으로 처음 쌓았고, 조선 시대에 현재와 같은 석성(石城)으로 다시 쌓았으며, 성 안에 장기향교와 동헌 터가 남아 있다. 산정(山頂)에 있으면서 읍치(邑治)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특이하다.

5)__ '鄕校重建記(향교중건기)', 기문 말미에 '檀君紀元四千二百八十年十月日' 이라 되어 있어 1947년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기문은 보인회 편역, 『國譯 校宮記集錄』(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3 ; p.150) 에 번역되어 있다. 그런데, 기문에는 대성전 없이 명륜당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 객관은 수리하여 대성전으로 사용하고, 명륜당과 동서재 및 신문 등을 신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1970 명륜당 보수
1975 대성전 보수 및 단청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는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동재, 장경각, 외삼문, 화장실, 협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입지 및 배치

장기향교는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장기읍성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읍내 면사무소를 끼고 좌측으로 돌아 읍성으로 오르는 좁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읍성 안에 위치하고 있다.

배치 형태는 명륜당과 대성전의 축이 병렬로 하여 대성전을 약간 뒤에 배치시킨 좌학우묘(左學右廟)의 형식이다. 향교건물 일곽은 돌담으로 방형(方形)을 이루고 있으며, 제향영역은 별도의 담을 둘렀다. 제향영역과 강학영역의 지반 차이는 별로 없으며 남향으로 건물을 앉혔다. 현존하고 있는 건물은 대성전, 명륜당 이외에 동재(東齋)와 내외삼문이 남아 있어 단출한 느낌을 준다. 향교 전면에 매우 널찍한 마당을 두고 있으며, 향교로 가는 길 중간에 장기향교입구를 알리는 표지석을 세워 두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전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막돌쌓기한 기단 위에 덤벙 주초를 놓고 그 위에 1척 높이의 원형 화강암 초석을 세웠다. 기단 전면에는 3곳에 2단의 석계(石階)를 놓아서 출입을 용이하게 하였다. 벽체의 구성은, 전면(前面)에는 각 칸 마다 출입문을 두었는데, 어칸은 쌍여닫이 궁판교살문을 중앙에 달고, 양 협칸은 폭이 좁은 쌍여닫이 울거미 널문을 어칸 쪽 기둥에 붙여 달았다.

공포의 구성은 외1출목 2익공계의 건물로, 전면과 후면의 초익공재 외단 하부의 형상이 약간 다르다. 살미의 형상은 끝을 45도 정도 사절시키고 연꽃과 연봉으로 장식한 2개의 앙서(仰舌) 위에 봉두(鳳頭)로 초각한 것을 보머리에 덧붙여 놓았는데, 조선후기의 양식으로 보인다. 첨차의 형태는 하부를 둥글게 교두형(翹頭形)으로 하고 마구리는 직절시키고 있으나 그 형상은 '⌓'로 특이한 수법을 보이고 있다. 출목사이는 순각판을 두어 내부를 안보이게 하였다. 창방 위에는 1개씩의 연꽃으로 초각한 화반을 두고 있으나, 배면에는 음각(陰刻)한 연꽃문양으로 된 방형의 판재를 사용하여 전면과 배면이 서로 다르다. 보머리는 외단을 봉황두(鳳凰頭)로 초각하였다.

가구의 구성은 어칸에서 무고주, 측벽에서 1고주 5량가로 하고, 3분변작의 위치에 단면이 거의 원형에 가까운 건실한 부재의 대들보 위에 내단을 연꽃과 연봉으로 초각한 중대공을

올리고, 그 위에 종보를 올린 다음 제형 판대공을 세웠다. 측면 고주는 평주와 거의 같은 높이로 주두 없이 대들보 중간을 받고 있다.

지붕은 맞배로 하여 풍판을 달았다. 정면은 겹처마로 하였으나 배면은 홑처마로 하여 정면을 강조하였다. 전내 바닥은 시멘트로 마감하였으며, 장판을 깔아놓았다. 단청은 모로단청으로 하였으며, 후면에는 뇌록바탕에 긋기단청만 하였고, 내부 대들보 계풍에는 화려한 용(龍) 문양을 베풀었다. 대성전 전면에는 내삼문 후면에서 이어지는 3개의 답도가 놓여져 있다.

(2)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전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초익공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자연석으로 2단을 쌓은 단층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다시 항아리형(또는 고복형)의 초석을 얹었으며,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올렸다. 각 칸 전면 기둥열에는 두 짝 판문을 달았으며, 전면에 2태극 문양을 그려 넣었다. 기둥머리에는 외단을 직절한 초익공재를 결구하였으며, 주간에는 소로를 수장하였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대들보 중앙에 도리단면 크기의 판대공을 두었으며, 판대공은 종도리 장혀하단이 대들보 상단에 닿을 정도로 매우 낮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전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계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가운데 2칸을 당(堂)으로, 좌우 협칸을 실(室)로 꾸몄다. 또한 서실(西室)은 서측벽에 벽장을 설치한 특이한 구성을 하고 있다. 막돌쌓기한 기단 상면을 시멘몰탈로 마감하고 그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다시 원형의 초석을 놓았다.[6]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웠는데, 서측면과 내부의 고주는 방형 기둥을 사용하였다. 동측벽에는 중앙에 원형 기둥을 세워 대들보를 받고, 다시 전면 귓기둥과의 사이에 방형 단면의 고주를 두었다. 동실 전면에는 두 짝 세살문을, 서실 전면에는 외짝 세살문을 내었으며, 동실의 서벽에는 하부에 청판을 두고 단청을 한 두 짝 세살문을 달고, 서실의 동벽에는 형태는 동실의 서벽과 동일하나 외짝인 세살문을 달았다. 당 후벽에는 각 칸 모두 두 짝 판장문을 달았다. 전면에 구성한 퇴칸에는 각각 좌우에 외짝 판문을 달았다.

기둥머리에는 무출목 2익공을 구성하였는데, 살미의 형상은 전후면이 서로 틀리게 구성되어 있다. 전면의 살미형상은 용이 물고기를 물고 있는 형상으로 하였으며, 내부 보아지는 물고기 뒷지느러미(용의 꼬리) 형상으로 초각하였다.[7] 이익공재 외단에는 쇠서 위에 연화장식

6)_ 기둥 하부 동바리 이음으로도 볼 수 있으나, 여모중방이 기둥에 결구되지 않고 기둥과 화강암 초석에 걸쳐 결구되어 있으며, 대성전을 비롯한 내삼문, 동재, 장경각 등이 모두 덤벙주초 위에 별도의 초석을 둔 것 등으로 미루어 보아, 장기향교 건물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보인다.

을 하였다. 초익공의 이러한 형태는 통도사(通度寺) 등에서도 볼 수 있다. 배면과 우측면의 살미형태는 대성전과 동일하다. 주심첨차는 좌우 단을 따내고 소로를 얹었으며, 주심도리장혀와 밀착되어 있고 그 귀에 대들보를 걸었는데, 보머리에는 봉황두를 초각하여 끼워 넣었다. 창방 위에는 화반을 얹었는데, 전면에는 연화를 꽂은 꽃병을 새겨 넣은 화반을 각 칸 마다 중앙에 1개씩 놓고 후면에는 간략한 원형 판화반을 1개씩 끼워 놓았으며, 전면 동측 어칸 상부에 '明倫堂' 현판을 걸었다.

5량의 구조로 된 명륜당의 가구구성은 3분변작의 위치에 중대공을 놓았는데, 중대공은 장혀 밑에 첨차를 끼운 판대공을 세웠으며, 종도리는 제형판대공으로 아무런 장식재 없이 소박하게 꾸며 놓았다. 건물의 우측면은 처마도리가 서까래를 받고 있으나, 벽장이 있는 좌측면은 보가 처마도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재의 하부에는 원주를 끼운 흔적이 남아 있는 등, 여러 부재에서 장부구멍의 흔적이 있어, 원래의 구조에서 변경이 된 것 같다. 홑처마로 구성된 팔작지붕으로 최근에 번와공사와 단청을 새로이 했다. 지붕에는 암수막새를 얹었고, 다수의 명문와가 남아 있으나 마모가 심하여 내용을 알 수 없었으며, 지붕 용마루 좌우에는 귀면와(鬼面瓦)를 얹었다.

명륜당 내에는 '長鬐鄕校懸板文(장기향교현판문)'(1993), '鄕校重建記(향교중건기)'(1947) 등의 기문이 걸려 있다.

(2) 동재(東齋)

동재는 교직사로 활용되고 있으며, 전면 4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3칸을 방으로 하고 부엌으로 1칸을 사용하고 있다. 단층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3량가로 대들보 중앙에 동자주를 놓아 종도리를 받았다. 중앙 2칸과 북측협칸 전면에 툇마루를 내었으며, 암수막새를 얹었고 긋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3) 장경각(藏經閣)

장경각은 전면 2칸, 측면 1칸 규모의 익공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시멘몰탈로 마감한 단층기단 위에, 방형 대좌에 원형 운두를 지닌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웠다. 초석은 하단의 방형 대좌와 상부의 원형 운두가 재질이 다른 점으로 보아 별재(別材)로 보인다. 전면 각 칸에는 두 짝 세살문을 달았으며, 기둥머리에는 초익공을 결구하였다. 내부는 통칸으로 되어 있으며 벽체는 회사벽으로 되어 있다.

---

7)_ 전면 서측 어칸 주상포의 경우는 용이 물고 있는 물고기 머리가 동쪽을 향하고 있으며, 전면 가운데 주상포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되어 있는 반면, 전면 동측 어칸 주상포의 경우는 물고기의 머리가 보방향으로 되어 용의 입속으로 물린 형상으로 되어 있는 등 각각 다르게 되어 있어 특이하다. 또한 본고에서는 전면을 제외한 귀포 등에서 초익공과 이익공재 외단이 앙서로 되어 있고 상단에 연화를 초각하는 등 이익공으로 하였으나, 전면 가운데 2칸의 공포 3개는 초익공재를 안초공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 하다.

측면에서는 중방으로 전후 기둥을 이었으며, 가구는 3량가로 대들보 중앙에 제형 판대공을 놓았다. 지붕에는 암수막새를 얹었으며, 모로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4) 외삼문(外三門)

외삼문은 전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솟을삼문으로 되어 있다. 어칸을 대문칸으로 하고 양 협칸을 방으로 꾸며 일반적인 삼문의 형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장기향교를 비롯하여, 청하향교, 연일향교, 영양향교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이하다. 덤벙주초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웠으며 가구는 3량가로 중앙에 판대공을 두었다.

어칸에는 전면 기둥렬에 판문 두 짝을 달았고, 좌우 실 전면에는 중방 상부에 두 짝 세살창을, 후면에는 두 짝 세살문을 달았다. 각실 좌우 측면기단 상부에는 후면쪽으로 아궁이가, 전면쪽으로 굴뚝이 나 있다. 최근에 서까래 이상 보수한 적이 있으며, 암수막새를 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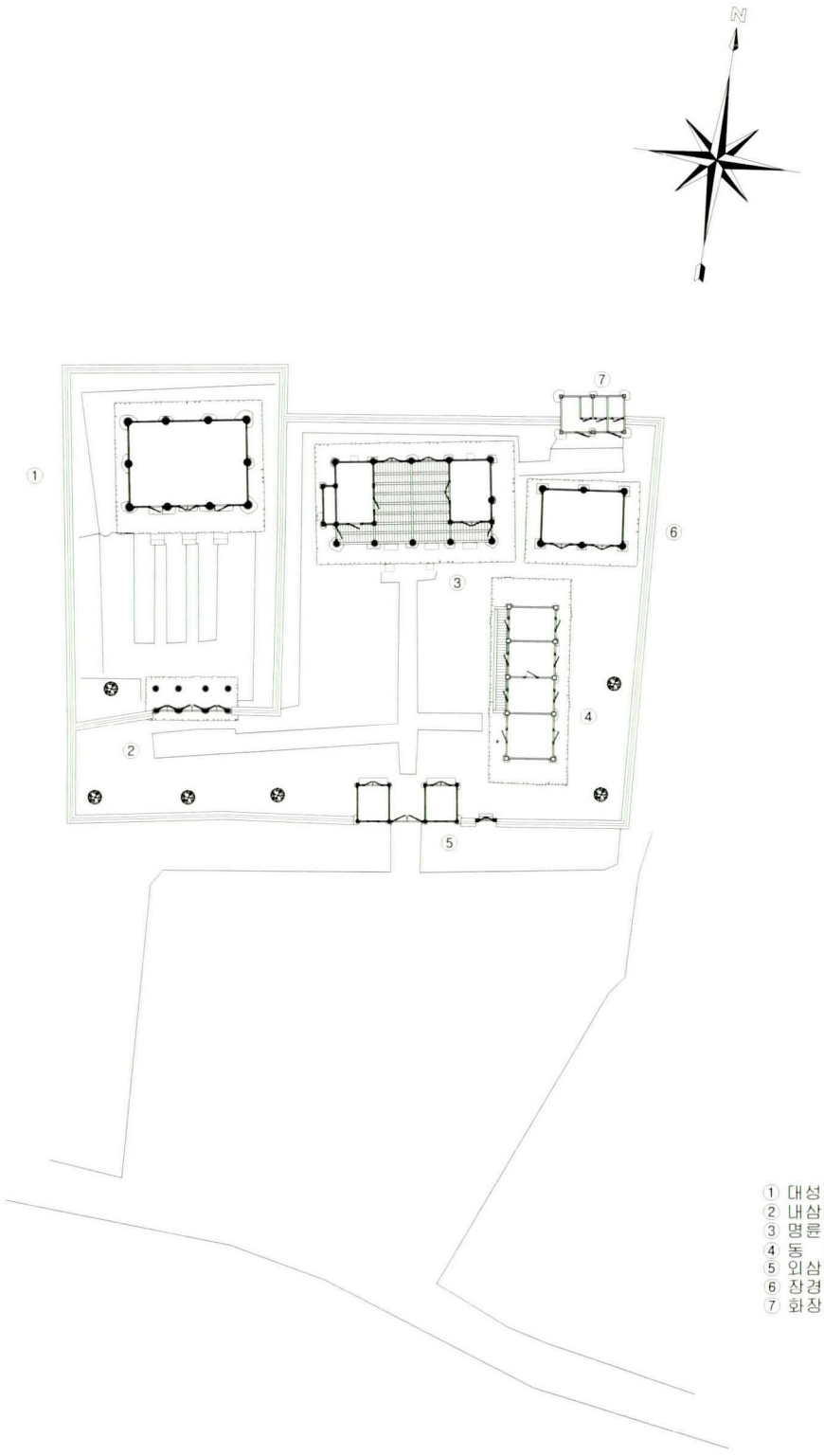
다. 기타

기타 건물로는 화장실과 협문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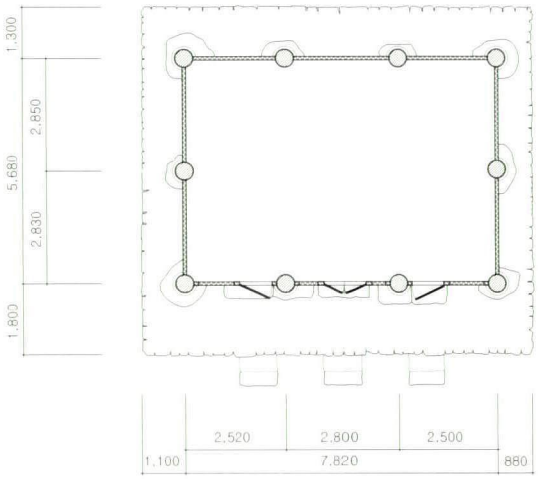
화장실은 장경각 후면에 위치하며, 전면 2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며 3량가로 되어 있다. 협문은 외삼문 동편에 일각문 형식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중앙에 두 짝 판문을 달았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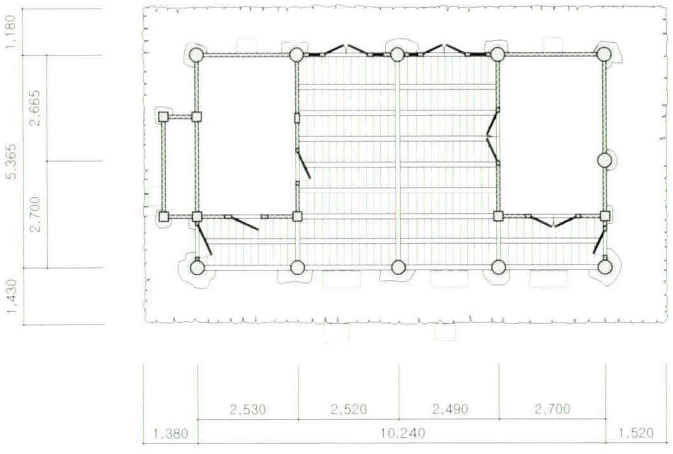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장기향교(長鬐鄕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27호(일곽)
창건시기	조선 태조 5년(1396)	입 지	평지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향교재단
좌 향	남향(대성전 向 S20°W)	배치형식	左學右廟 / 前齋後堂 남북종축 2개
중건시기	1600 중건 1725 이건 1947 이건	대지조성	단 차이 없음
설 위	5聖, 宋朝 2賢, 海東 18賢	인접시설	장기읍성, 동헌 및 면사무소
건축구성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장경각, 동재, 외삼문, 화장실, 협문 등		
특기사항	향교 일곽 담이 돌담으로 되어 있음 임진왜란 이후 2차례 이건하였고, 좌학우묘(左學右廟)의 흔치 않은 배치형식을 지님 외삼문의 형식이 포항지역 인근 향교의 형식과 동일함 외삼문과 화장실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의 초석이 덤벙주초+정평주초 형식을 띠고 있음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3×2칸 / 외1출목 2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무고주 5량가 / 시멘몰탈+장판 / 연등천장 / 주칸 : 어칸 2800 협칸 2510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자연석 바른층쌓기 / 이벌대 전면 각 칸 2단씩 3개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어칸) 종 보 : 3분변작
초 석	덤벙주초+정평주초(원형)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흘림 없음	대 공	중대공 : 판대공 종대공 : 판대공
공 포	외1출목 2익공 / 보머리 초각	창 방	방형 / 뺄목 직절
처 마	전면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이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 / 전면 및 내부 모로단청, 후면 긋기단청 / 연등천장 / 시멘몰탈+장판		
특기사항	측면에 고주 대신 평주 높이와 거의 같은 기둥을 두고 주두 없이 대들보를 받고 있음 내부 대들보 계풍에 화려한 용(龍) 문양을 베풀었음 주상포 결구에서 출목 사이에 순각반자를 두었음		
명륜당 건축 요소			
개 요	4×2칸 / 이익공 / 홑처마 팔작지붕 / 5량가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지반자 / 주칸 : 어칸 2520 협칸(평균) 2615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막돌쌓기 / 시멘몰탈 마감 1단 3개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3분변작
초 석	덤벙주초+정평주초(원형)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전후평주 및 동측중앙 : 원형기둥 고주 및 서측면 : 방형기둥	대 공	중대공 : 판대공 중대공 : 판대공
공 포	이익공(초익공재는 안초공과 유사)	창 방	방형 / 뺄목 직절
처 마	홑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이	지 붕	팔작지붕
수 장	회사벽 / 모로단청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지반자		
특기사항	초익공재가 안초공의 형태를 띠고 있음 지붕에 다수의 명문와가 남아 있으나 마모가 심하여 내용은 파악하기 어려움 장부 구멍 등 기존의 건물에 사용되었던 부재를 이용하여 건축한 흔적이 남아 있음		



장기향교 배치도



장기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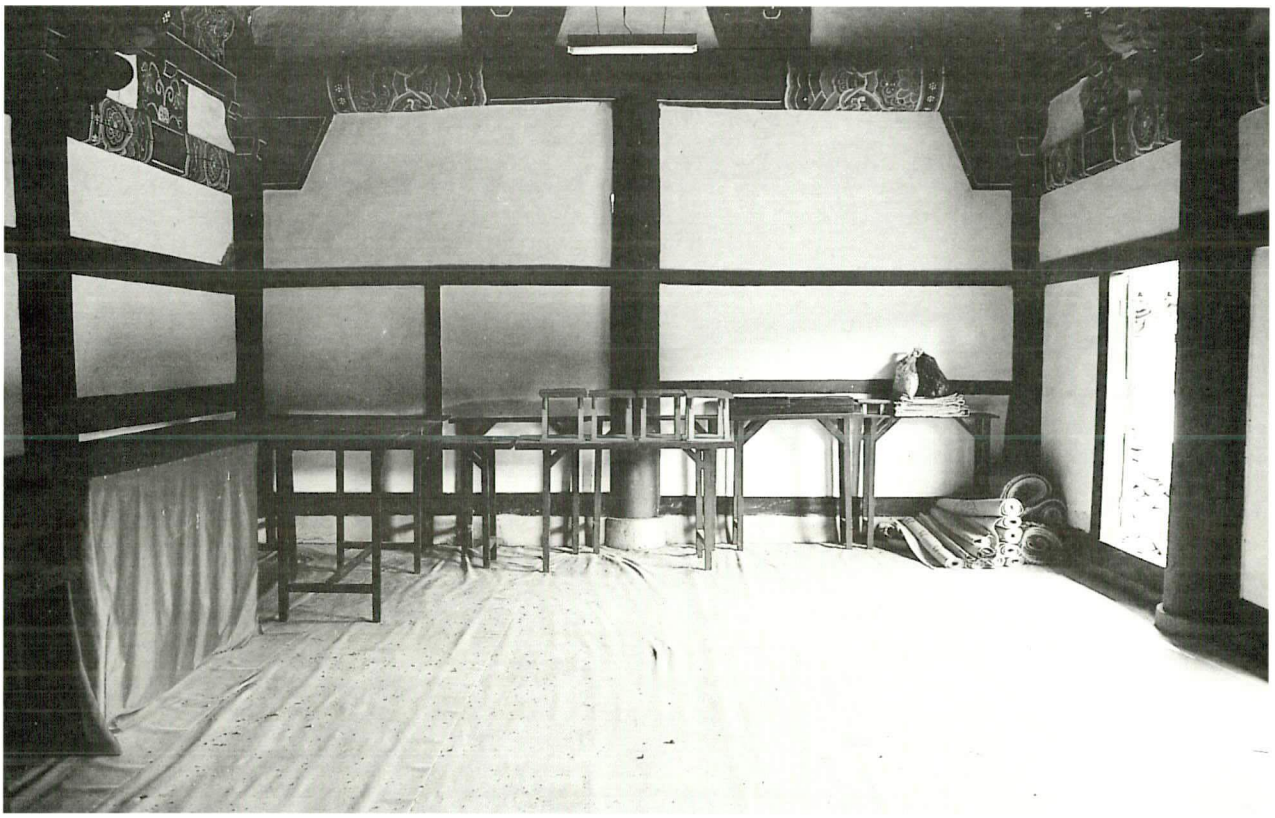


장기향교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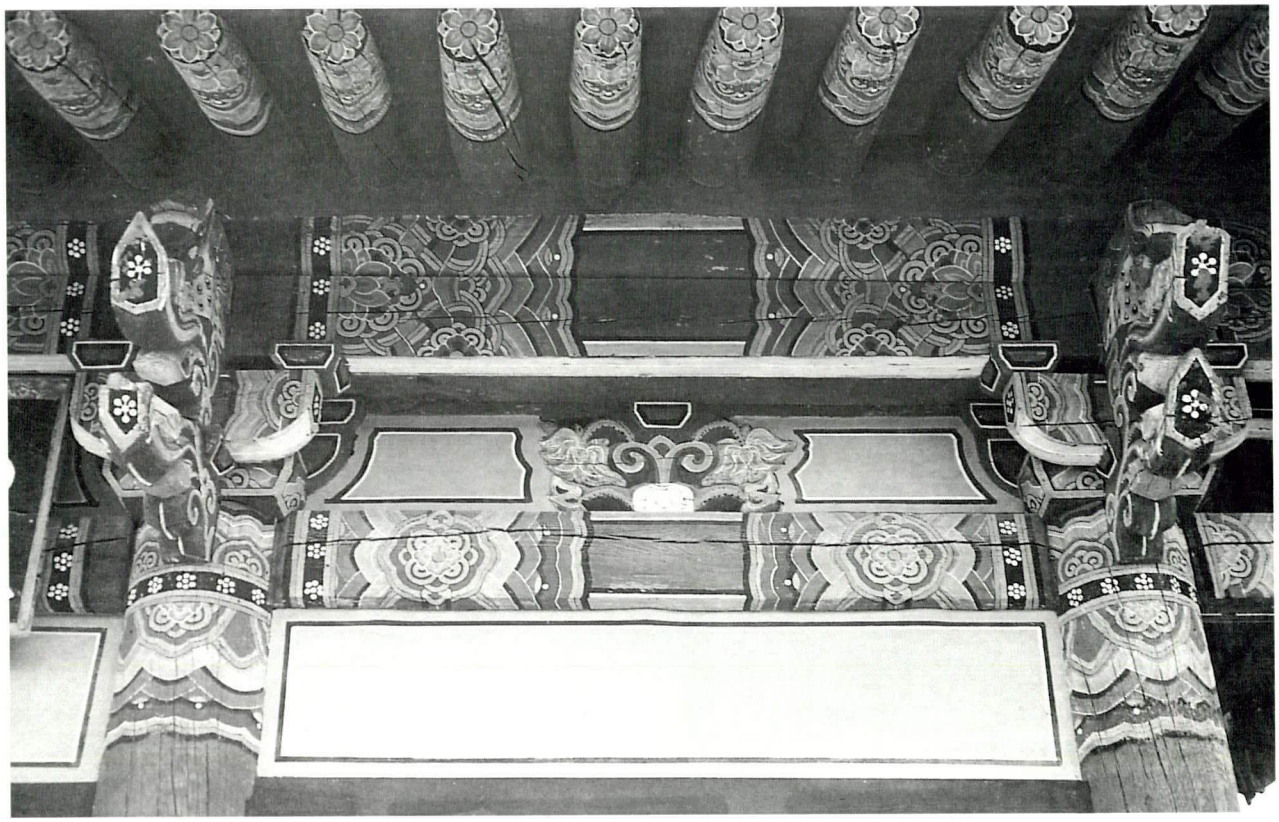




대성전



대성전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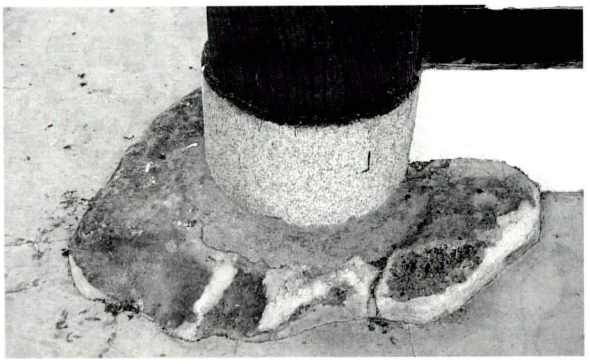
대성전 전면 협칸



대성전 전면 평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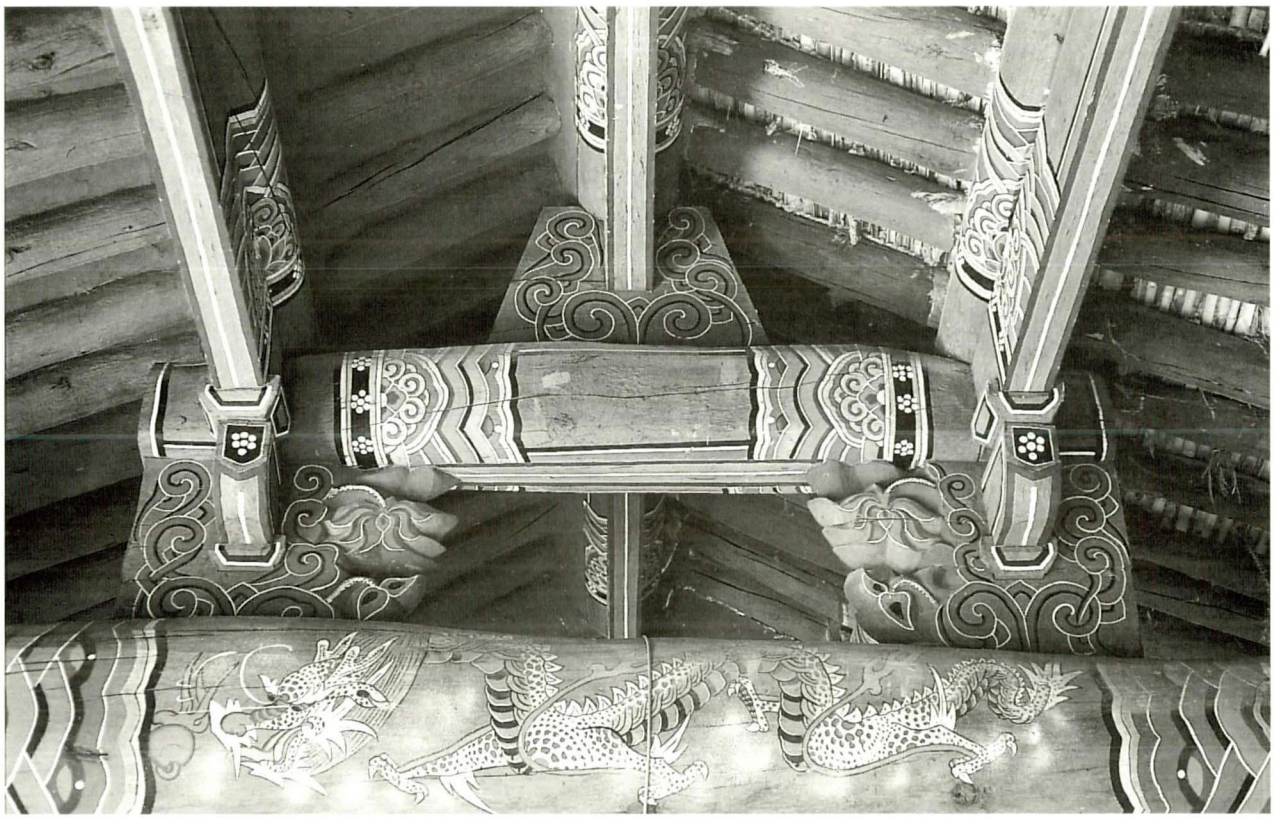
대성전 전면 주상포



대성전 전면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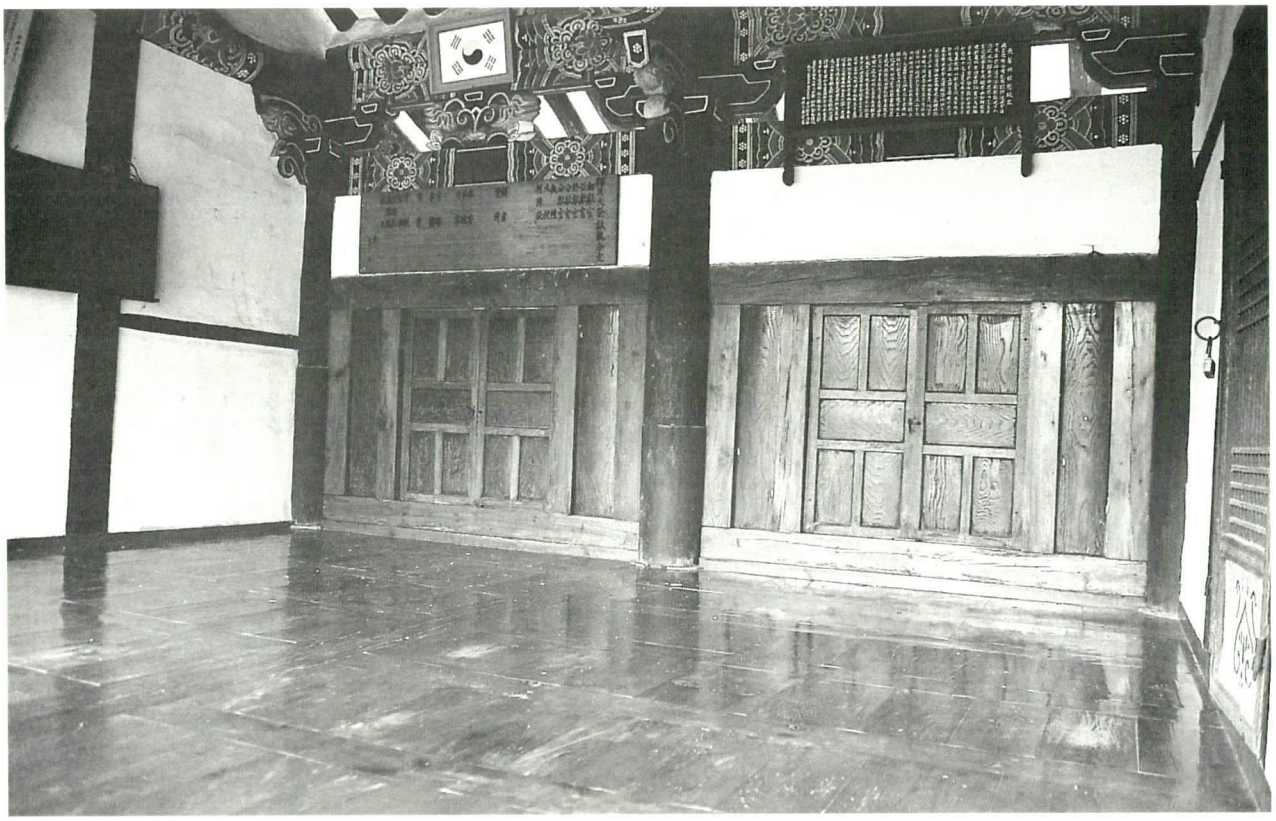
대성전 내부 가구



대성전 내부 가구 상세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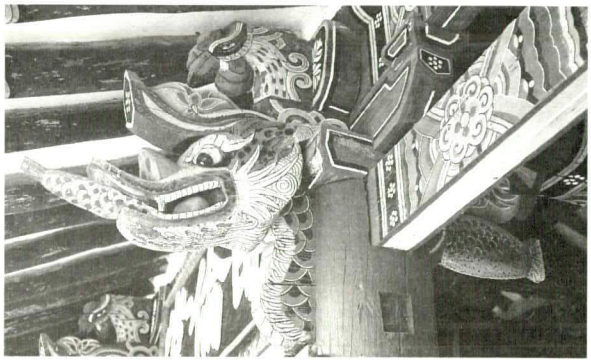
명륜당 내부



명륜당 전면 공간



명륜당 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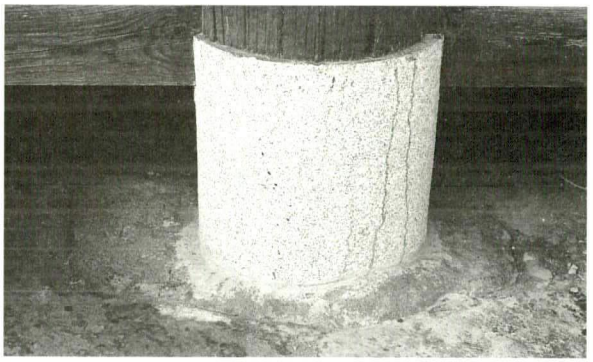
명륜당 전면 어칸 주상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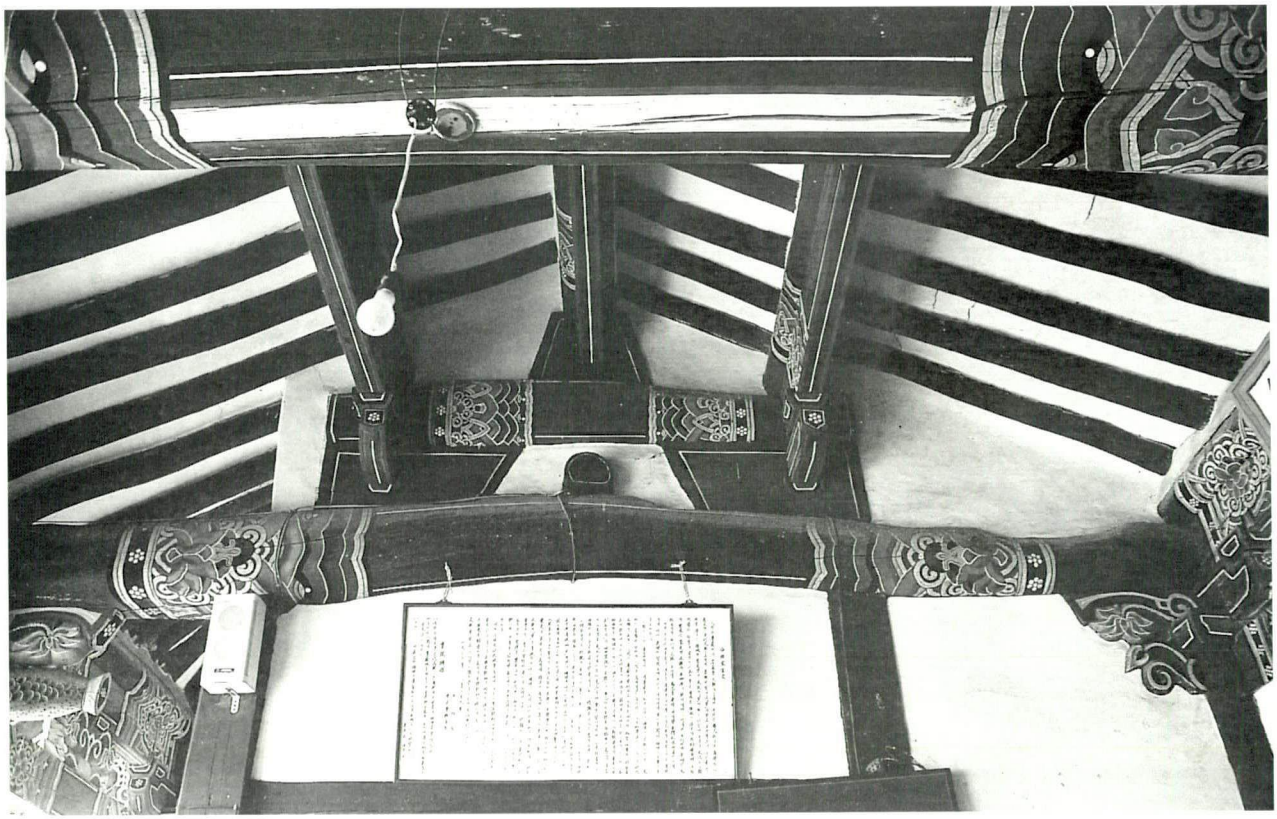
명륜당 전면 평주



명륜당 전면 협칸 주상포



명륜당 전면 평주 초석



명륜당 내부 가구



명륜당 내부 협칸 구성



제기고



동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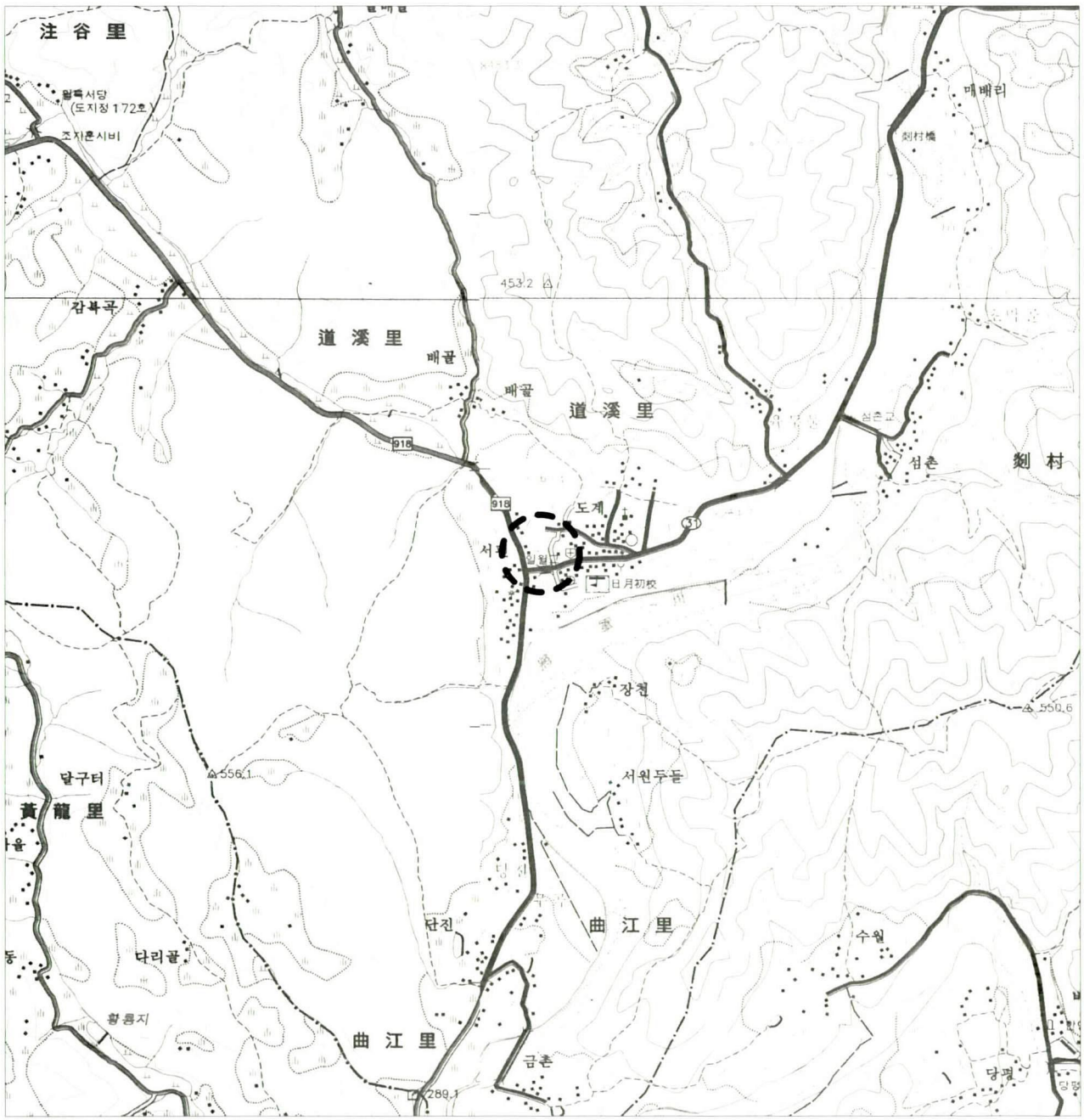
내삼문



외삼문

7. 영양향교(英陽鄕校)

- 지정사항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75호(일곽)
- 지 정 일 : 1985년 8월 5일
-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128
- 건축구성 :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문간채, 전사청, 협문 2동 등



1.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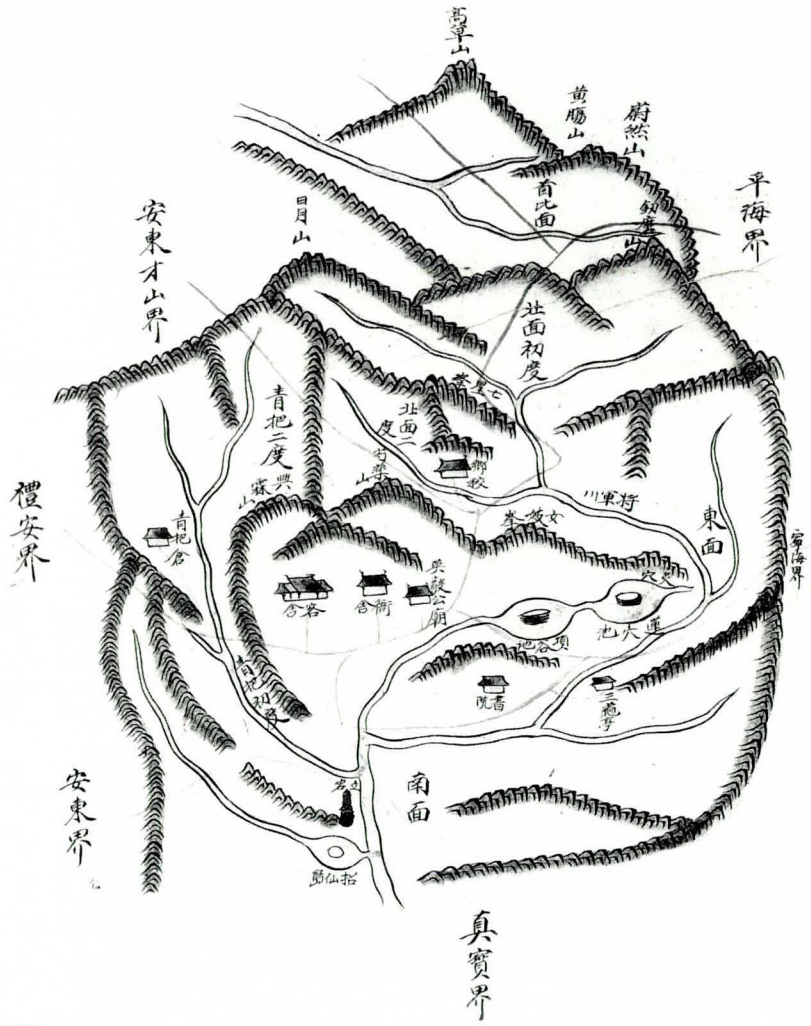
영양향교는 현재 일월면(日月面) 도계리(道溪里)에 위치하고 있는데, 숙종 9년(1683)에 복현(復縣)되면서 이곳에 창건되었다.[1]

영양은 본래 고은현(古隱縣)이었으며, 고려 현종(顯宗) 때에는 예주(禮州)에 예속되어 있었다가, 고려 명종 5년(1175)에 감무를 두었다. 따라서 고려조에 이미 향교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영양 남씨 족보에 의하면 영양읍 동부동 여기봉(女妓峰) 아래 일대가 속칭 향교동(鄕校洞)이라고 하였으니 일찍이 이곳에 향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왕조 건국 후 오랫동안 폐현으로 있다가 숙종 2년(1676)에 군민의 진정으로 복현되었다가 곧 폐현되어 영해부(寧海府)에 환속되었으며, 숙종 4년(1678)에는 진보현에 영속(領屬)되었고, 숙종 9년(1683)에 다시 복현되었다. 향교는 따라서 숙종 3년(1677)에 창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남아 있는 기록으로는 명륜당 암막새에 강희(康熙) 23년 즉 1684년이라는 기록이 있다.

당시 향교를 영건하게 되자 일향(一鄕) 부로(父老)와 선비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항재(恒齋) 이숭일(李崇逸)의 영양향교 상량문(上樑文)을 보면 향교의 기지(基地)에 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일월산이 북쪽으로 솟아서 남으로 돌아 내려와 단록(短麓)을 이루었는데 그 국세(局勢)가 웅장하고 성봉(星峰)이 좌편으로 솟아 우편으로 늘어서서 명미(明媚)한 경관이 하나의 명당을 이루었다.



英陽縣

1)_ 『慶北鄕校誌(경북향교지)』(경상북도 ·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1 ; p.649)에는 이와 같이 되어 있으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에는 이보다 빠른 숙종 5년(1679)으로 되어 있고, 향교 앞에 위치한 문화재안내판에는 숙종 3년(1677)으로 되어 있다. 또한 근래 발간된 『校宮大觀(교궁대관)』(성균관, 2003 ; p.843)에는 숙종 3년(1677)으로 되어 있다.

전설에 의하면, 향교 기지는 본래 전 영해부사 김천보(金天寶)의 구기(舊基)였다. 향교를 영건(營建)함에 향중에서 이 구기를 좌편으로 옮겼다고 한다. 향교 건립의 경비는 사민(士民)의 자력(資力)과 노력이 컸다.

그 후 대성전과 명륜당, 그리고 육영루(育英樓)가 점차 낙성(落成)되었다. 숙종 9년(1683) 향교 영건시 대성전과 명륜당이 세워지고, 10여 년이 지난 숙종 25년(1699) 현감 한세기(韓世箕)가 도임하여 명륜당 앞에 육영루를 신창(新創)하였다. 현감 한세기가 연봉(捐俸)을 출조(出助)하고 향중인사가 각각 출미(出米)하여 당시 교장(校長)인 조시상(趙是常)과 조덕수(趙德壽) 2인이 영건에 착수, 숙종 27년(1701) 10월에 낙성하였다. 육영루의 현액(懸額)은 한세기의 수필(手筆)이며, 옥천 조덕린의「육영루기」가 있다. 이후 정조, 헌종 연간에 명륜당을 수리하였으며, 1925년에 육영루를 철거하여 문간채를 신축하였으니 중간은 통문(通門)이면서 좌우 양편은 주사(廚舍)이다. 현재 문간채 전면에 육영루의 초석 일부가 남아 있다.

1932년에 동서무를 철거하고 몇 년 후 동서재도 철거되었다. 1958년에 문간채를 이건하였으며, 1974년에 명륜당을 보수하였는데, 명륜당 현판을 고려말 명필 한수(韓修)가 썼음이 밝혀졌다.

1990년에 대성전을 보수하였으며, 1992년에는 명륜당을 보수하였다. 1993년에 문간채를 보수하였고, 1994년에 일곽 담을 보수하였다. 2001년도에 전사청을 신축하였다.

향교 소장 자료로는 다수의『校生案(교생안)』및『校案(교안)』외에『執綱錄(집강록)』,『應講案(응강안)』,『鄕校田畓案(향교전답안)』,『鄕校奴婢案(향교노비안)』, 그리고 節目(절목)류, 고문서(古文書) 등 그 수량이 매우 많다. 명륜당 내에는 학령(學令)[2] 1개가 남아 있는데, 기문 말미에 '上之十二年丁未'라 되어 있으나 이에 맞는 연도는 없으며, 추정컨데 헌종 13년(1847)의 것으로 보인다.

창건 이후의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77	창건
1701	육영루 창건
정조, 헌종 조	명륜당 수리
1925	육영루 철거, 문간채 신축
1932	동서무 철거
미상	동서재 철거
1958	문간채 이건

2)_『校宮大觀(교궁대관)』(성균관, 2003 ; pp.844-846) 에 번역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기문 중에 '(전략)... 重繕齋室改粲筵席以及講堂之修理 ...(후략)' 이라 되어 있어 이 시기를 전후하여 대성전 내의 위판 일부를 교체하고 강당을 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1974	명륜당 보수
1990	대성전 보수
1992	명륜당 보수
1993	문간채 보수
1994	일곽 담 보수
2001	전사청 신축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는 대성전, 명륜당을 비롯하여 내삼문, 문간채, 전사청 및 협문 2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입지 및 배치

영양향교는 영양읍내에서 태백방향으로 약 10여분 정도 가다가 경찰서 앞 일월삼거리에서 우회전하면 길 좌측에 있는 임야 후면에 자리잡고 있으며, 입구에 표석이 서 있다.

탕건봉을 뒤로하고 장군들을 바라보는 완만한 경사지에 자리잡고 있다. 원래 동서무와 동서재가 있었으나 철거되었으며, 현재의 공간구성으로 볼 때 명륜당 전면에 동서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재 동서재는 없으나 전재후당(前齋後堂)의 배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배치계획은 문간채, 명륜당, 내삼문, 대성전의 순으로 동일축선상에 두고 남향하게 하였다. 2001년에 대성전 담 밖 서편으로 3칸 규모의 전사청을 신축하였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전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장대석을 2단으로 쌓고 갑석을 둘러 전돌을 깔아 기단을 형성하고, 원형의 정평주초를 놓아 원주를 세웠다.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하고 전렬(前列)을 개방시킨 전퇴형(前退型)이다. 측면의 칸살 구성은 앞 칸을 다른 칸의 반 정도로 하여 퇴칸을 구성하였다.

창방 위에는 화반을 1개씩 두고 기둥머리에는 공포를 구성하였는데 외1출목 2익공 양식이다. 살미는 끝을 날카롭게 하여 밖으로 길게 뻗게 하였는데 수서(垂舌)형이다. 첨차는 주심, 행공 모두 하부를 초각하고 마구리를 사절시킨 형태이나 배면 주심첨차의 형상은 전면과는 달리 장방형의 판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출목간에 순각판을 얹었다. 또한 주간에는 화반을 놓았는데 후면의 경우 방형이며, 전면에는 좌우를 세 번 궁글린 형태로 되어 있다.

어칸에서는 1고주 5량가로 되어 있으며, 좌우 측벽에서는 고주와 후면 평주 중간에 다시 평주와 비슷한 높이의 분심평주를 세우고 양분된 맞보를 받았다. 3분변작의 위치에 판대공을 높게 세우고 첨차를 끼웠으며, 종보 위에는 파련대공으로 하여 마룻도리를 받게 했다. 전

체적으로 과다한 치장은 피하면서도 도리와 보의 간격을 넓게 하여 간결하면서 시원스런 맛을 준다.

창호의 구성은 전면 어칸에 쌍여닫이 궁판세살문을 달고 협칸에 외여닫이문을 달았는데 문은 어칸의 것과 같은 형상이다. 또한 양측칸은 광창(光窓)을 내었는데 창살은 끝을 둥글게 등밀이하여 대성전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 문얼굴의 구성은 상부는 반연귀로 하고 하부는 맞댄연귀로 하였다.

겹처마를 한 맞배지붕으로 풍판(風板)을 달아 놓았다. 퇴칸의 상부는 모두 반자로 막아 놓았는데 어칸은 우물반자로 격을 달리 하였다.

전후면 지붕에는 다수의 명문와가 잘 남아 있으며, 모로단청으로 마무리하였으나, 외부의 단청은 상당히 퇴색되었다. 특히 내부 대량 중앙에 머리초를 맞대어 그려 놓았는데, 이는 좌우 측벽에서 맞보로 된 단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매우 특이하다.

(2)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전면 3칸, 측면 1칸의 홑처마로 구성한 맞배지붕 건물이다. 3량 굴도리집으로 방주(方柱)를 사용하였다. 각 칸에는 두 짝 판문을 달아내었으며 열리는 방향이 대개 대성전 방향으로 열리는데 반하여 여기서는 바깥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제형 판대공을 두었다. 판문 상인방과 장혀 사이는 심벽대신 판벽을 구성하였으며, 좌우측면에는 기둥 절반 높이의 흙담을 쌓았다.

좌우 측벽 중방 하부에는 심벽을 꾸몄으며, 기둥 일부는 최근 보수시 기둥 하부를 동바리 이음하여 교체되었고, 건물 일부에는 가칠단청의 흔적이 남아 있다.

(3) 전사청(典祀廳)

전사청은 2001년에 신축되었으며, 전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방형 기둥을 사용하였고, 좌우에 풍판을 달아내었다.

내부는 남측 협칸을 따로 실로 구분하였으며, 북측 협칸에는 북측벽 쪽으로 네 짝 미닫이문을 두어 벽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면에 제향영역으로 통하는 협문을 두었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전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건물이다.

자연석으로 3단을 쌓고 상면을 시멘트로 마감한 기단 위에 거칠게 방형으로 다듬은 주초를 놓고 방주(方柱)를 세웠다. 평면은 중앙 3칸은 대청(大廳)으로 우물마루를 깔고 서측칸은 통칸 온돌방이며, 동측칸은 1칸 반이 온돌방이고 전면 반 칸은 퇴(退)를 구성하여 마루를 깔았다. 전면 어칸 좌우 기둥만은 방형 기둥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원형 기둥을 사용하였다.

기둥머리에는 주두 없이 기둥머리에 사괘를 트고 보아지와 장혀를 결구한 위에 대들보를 얹었다. 지붕은 공(工)자형의 흔하지 않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가구(架構)의 구성도 바뀌었는데, 당(堂)은 5량으로 하고 온돌방은 3량으로 처리했다. 내부의 가구는 5량가의 굴도리집으로 잘 다듬은 건실한 부재의 대들보 위에 동자주를 짧게 세워 종보를 받고, 종보 위에는 파련대공을 세운 뒤 첨차와 소로를 끼웠다. 별다른 장식재를 사용하지 않고 소박하게 처리하였다. 이러한 공(工)자형 지붕 형식은 타지역에 비하여 인동향교, 신령향교 등 경북지역 향교 명륜당 및 인근 지역 건축물에 비교적 다수 채용되고 있어 지역적 특색으로 보인다.

당(堂) 내부는 연등천정이다. 전면은 판벽으로 하여 창과 문을 달았는데, 근자에 와서 신설한 것이다. 배면은 판벽으로 하여 하부는 머름을 들이고 반연귀로 문얼굴을 짜 맞추고 쌍여닫이울거미널창을 두었다. 특히 좌우 협칸 후면 창호는 영쌍창으로 되어 있다. 우측 협칸 전면에는 쪽마루를 시설한 흔적이 남아 있으며, 지붕은 홑처마로 구성하고, 단청의 흔적이 전혀 없는 백골(白骨)집이다. 그러나 명륜당 현판에는 일부 단청의 흔적이 남아 있고 판각이 우수한 편이며, 전면에만 막새를 놓고, 어칸부분에는 4개의 명문와가 남아 있다.

어칸 대들보의 서측면에는 '上之十二年□□二月'이라는 명문이 남아있는데, 두 글자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上之十二年'은 순조 12년(1812), 헌종 12년(1846)과 고종 12년(1875) 등이 있으며, 명륜당 내 '學令(학령)'의 기록이 헌종 대로 추정되므로, 현재의 명륜당 건물이 헌종 대의 것에서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명륜당 현판은 고려말 명필인 한수(韓脩, 1333~1384)가 쓴 것이라 한다.

(2) 문간채

문간채는 외삼문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전면 5칸, 측면 1칸의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어칸을 대문(大門)으로 사용하고 좌우보다 지붕을 높여 솟을삼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좌우 각 협칸은 온돌방을 들였으며, 나머지는 부엌과 창고로 하여 주사(廚舍)에 해당하게 하였다. 원래는 '육영루'라는 중층 누각의 자리였으나 현재의 건물로 바뀌었다. 현재도 누각이었을 당시의 초석이 남아 있다. 어칸 종도리 장혀 하단에는 '檀紀四二九一年陰戊戌八月二十一日移建'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 이 건물이 1958년에 이건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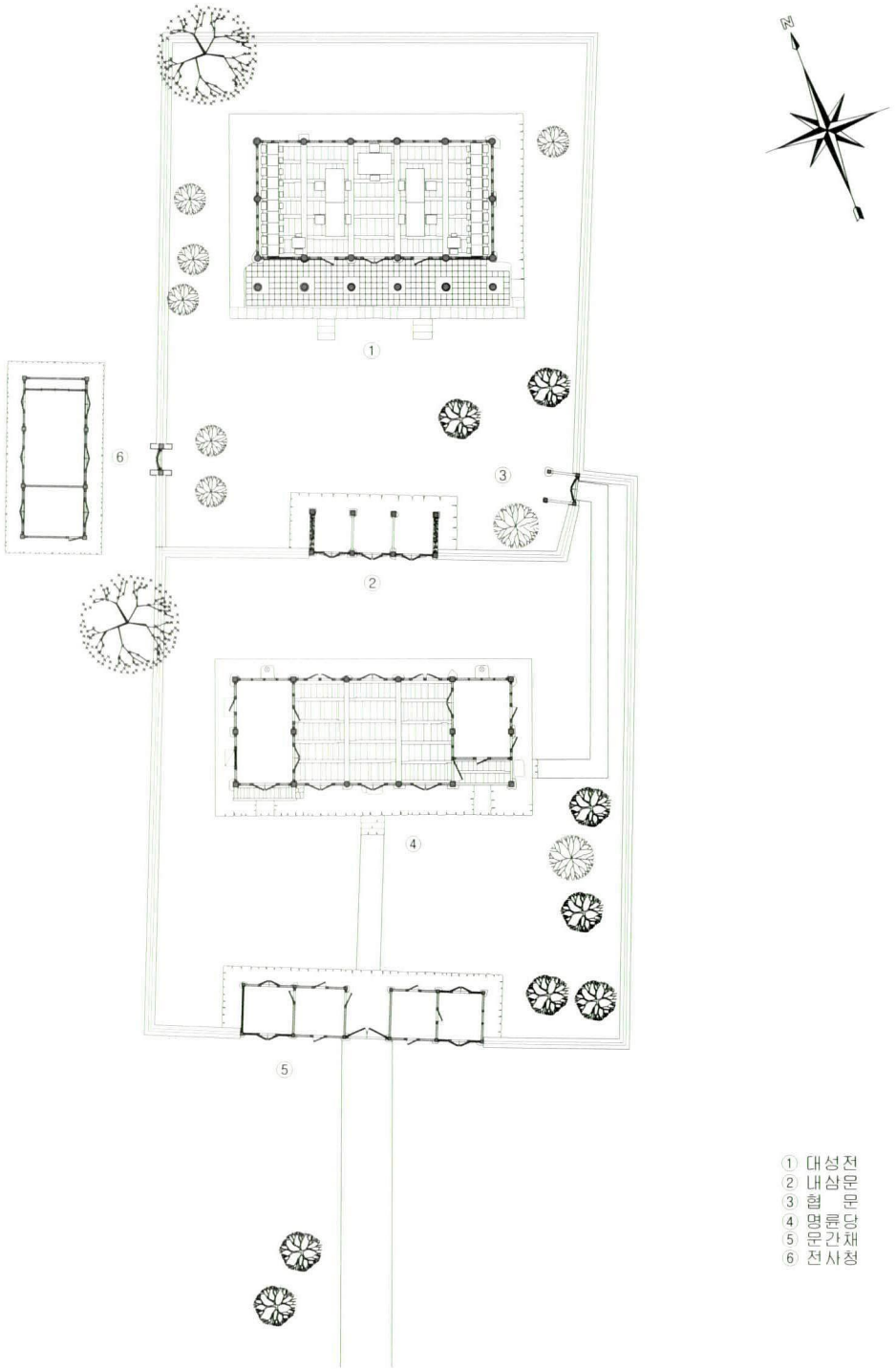
다. 기타

기타 건물로는 협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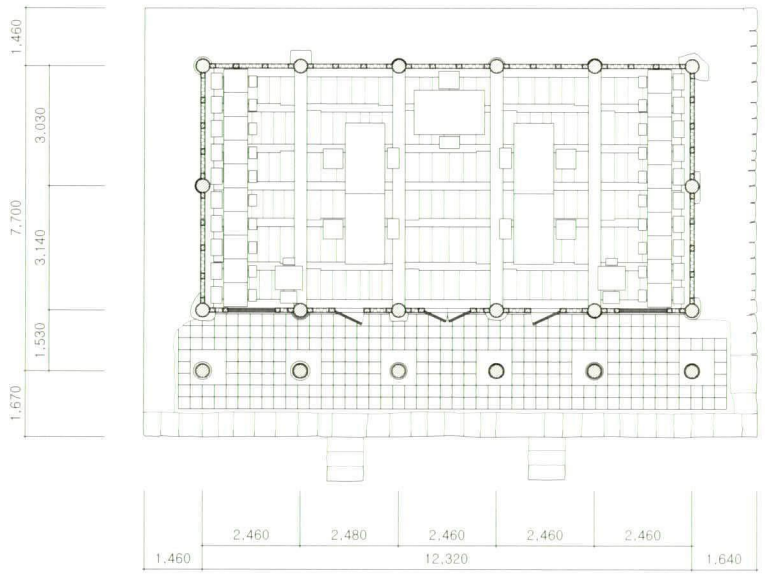
협문은 두 개가 있는데, 내삼문 동편에 자리잡고 있는 협문은 사방 단 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방형 기둥을 사용하고 있으며, 두 짝 판문을 달았고 단청은 하지 않았다. 전사청을 신축하면서 지은 또 다른 협문은 대성전 서측 담 남측에 자리잡고 있으며 일각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간략하게 좌우에 풍판을 달고 방형 기둥을 사용하였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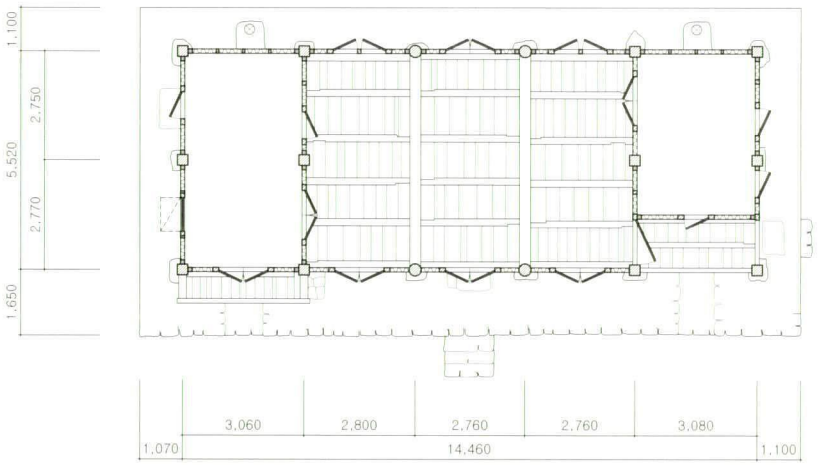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英陽鄕校(영양향교)	지정현황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75호(일곽)
창건시기	조선 숙종 3년(1677)	입 지	평지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향교재단
좌 향	남서향(대성전 向 S20°W)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齋後堂(추정) 남북종축 1개
중건시기	현 위치 변동 없음	대지조성	단 차이 없음
설 위	5聖, 宋朝 4賢, 海東 18賢	인접시설	없음
건축구성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문간채, 전사청, 협문 2동		
특기사항	외삼문 대신 좌우에 각 2칸의 실(室)을 둔 문간채로 되어 있음 외삼문 전면에 육영루라는 누각의 초석이 남아 있음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5×3칸 / 외1출목 2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1고주 5량가 / 우물마루 / 연등천장 주고 평주 2600 / 주칸 2460 / 수장폭 105 / 도리단면 Ø=220 / 보단면 : 대들보 340×340, 종보 300×270 처마내민길이 840 / 기단높이 : 전면 850 / 초석크기 약 Ø=500 전후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바른층쌓기 / 이벌대 전면 좌우 협칸 3단씩 2개	보	대들보 : 전고주후평주 걸침 종 보 : 4분변작
초 석	정평주초(원형)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약한 민흘림	대 공	중대공 : 판대공 종대공 : 파련대공
공 포	외1출목 2익공 / 보머리 초각	창 방	방형 / 뺄목 첨차형 초각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이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연등천장 / 우물마루		
특기사항	측벽에서 전고주후평주 사이에 분심평주를 두고 맞보를 받았음 대들보 중앙에 좌우 측벽 맞보에 맞추어 머리초를 그려 넣었음 전퇴 상부를 반자로 처리하였는데, 특히 어칸은 우물반자로 다른 칸과 차별을 두었음		
명륜당 건축 요소			
개 요	5×2칸 / 민도리 / 홑처마 공(工)자형지붕 / 堂 : 5량가, 우물마루 · 연등천장 / 室 : 3량가, 온돌 · 지반자 주고 평주 3050 / 주칸 어 · 협칸 2760 퇴칸 3060 / 수장폭 90 / 도리단면 Ø=270 / 보단면 : 대들보 430×340, 종보 270×240 처마내민길이 1650 / 기단높이 전면 570 / 초석크기 650×450 전후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바른층쌓기 / 시멘몰탈 마감 어칸 3단 1개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4분변작
초 석	덤벙주초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어칸 전후 : 원형기둥 기타 : 방형기둥	대 공	중대공 : 동자주 종대공 : 파련대공
공 포	민도리	창 방	방형
처 마	홑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이	지 붕	공(工)자형지붕
수 장	회사벽 / 백골청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지반자		
특기사항	좌우 후면 협칸 창호가 영쌍창으로 되어 있음 지붕의 형태가 공(工)자형이며, 중앙 3칸의 당(堂)과 좌우 실(室)의 맞배가 결합됨		



영양향교 배치도



영양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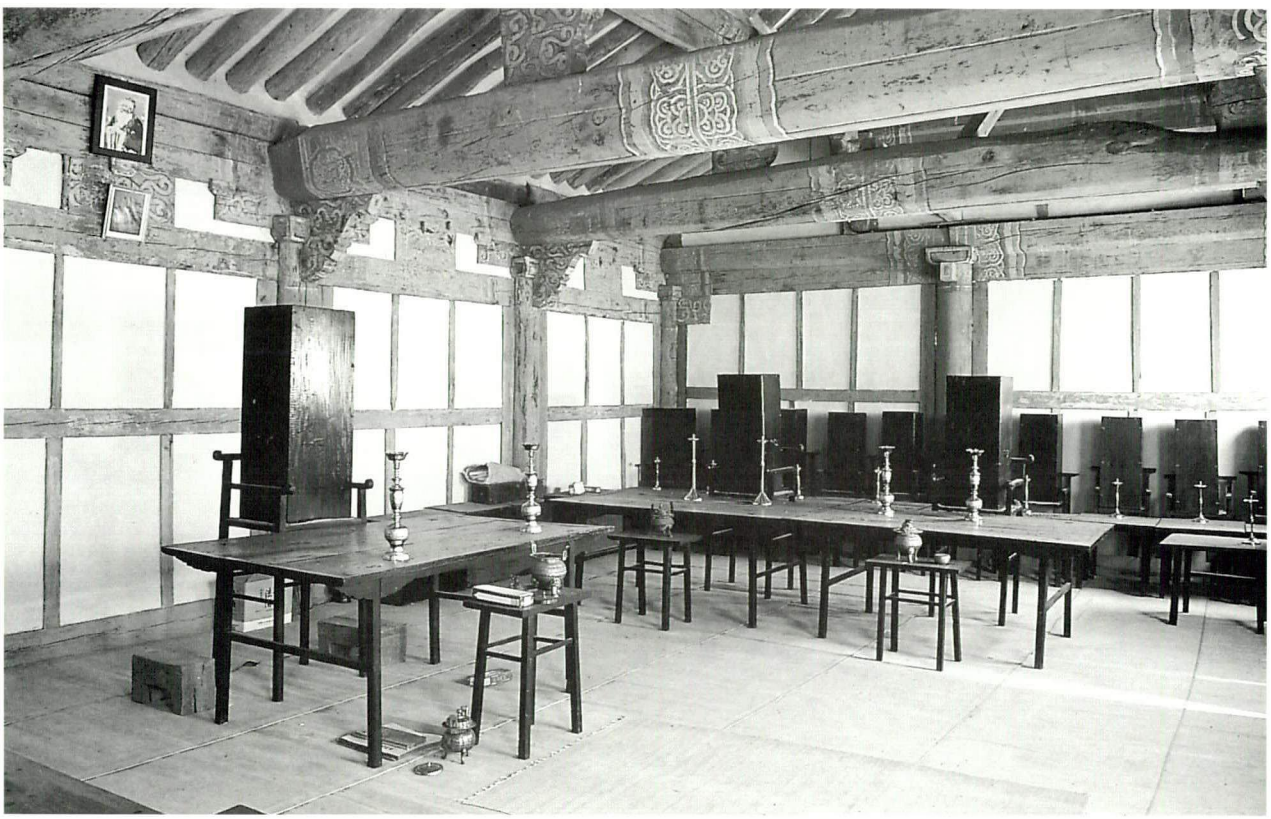


영양향교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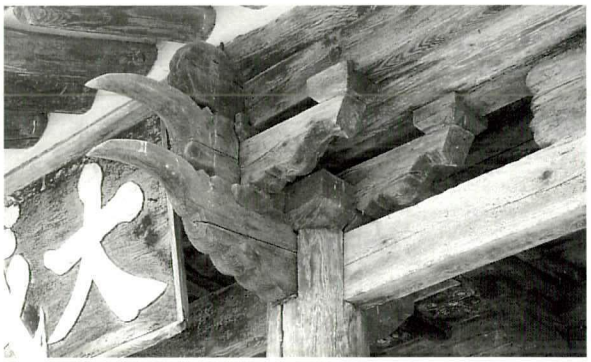
대성전



대성전 내부



대성전 전면 어칸


대성전 전면 주상포


대성전 전면 귀포



대성전 전면 기둥


대성전 전면 화반


대성전 전면 초석



대성전 내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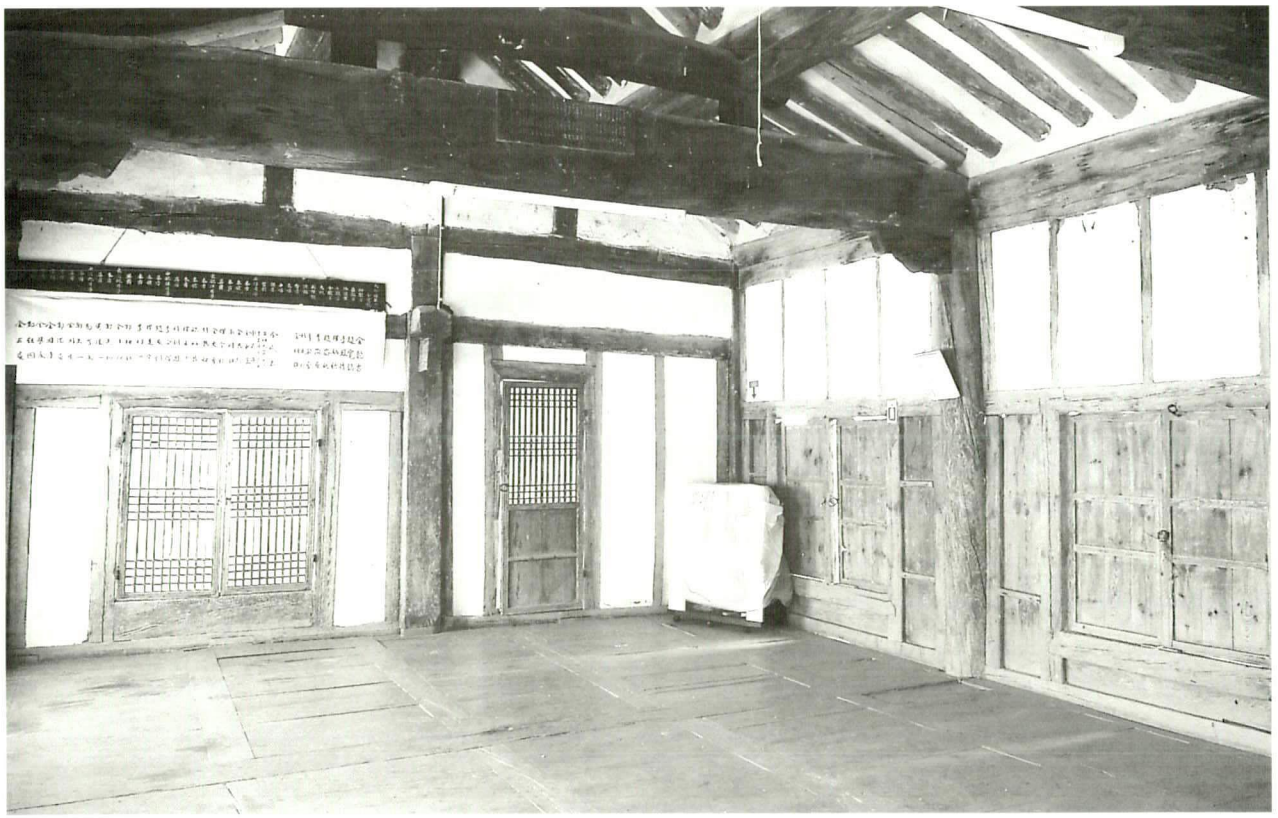
대성전 내부 중대공



대성전 내부 종대공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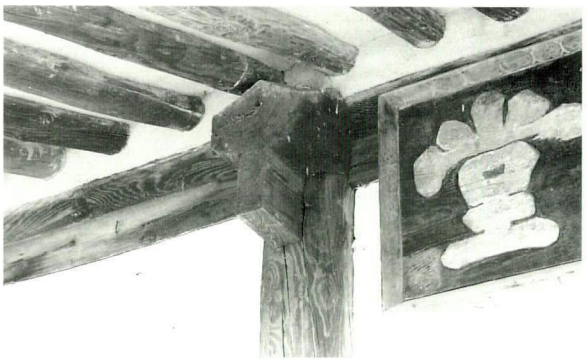
명륜당 내부



명륜당 측후면



명륜당 전면 어칸



명륜당 전면 주상부 결구



명륜당 전면 초석



명륜당 내부 가구



명륜당 내부 중대공



명륜당 내부 종대공



전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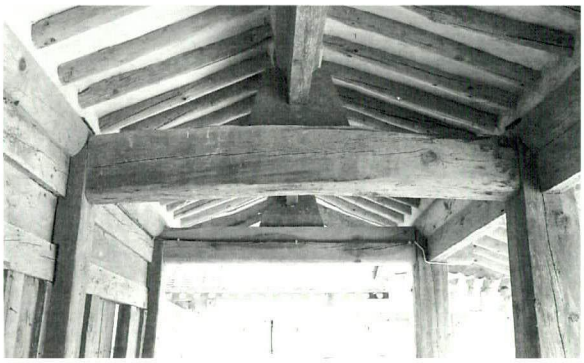
문간채



내삼문



협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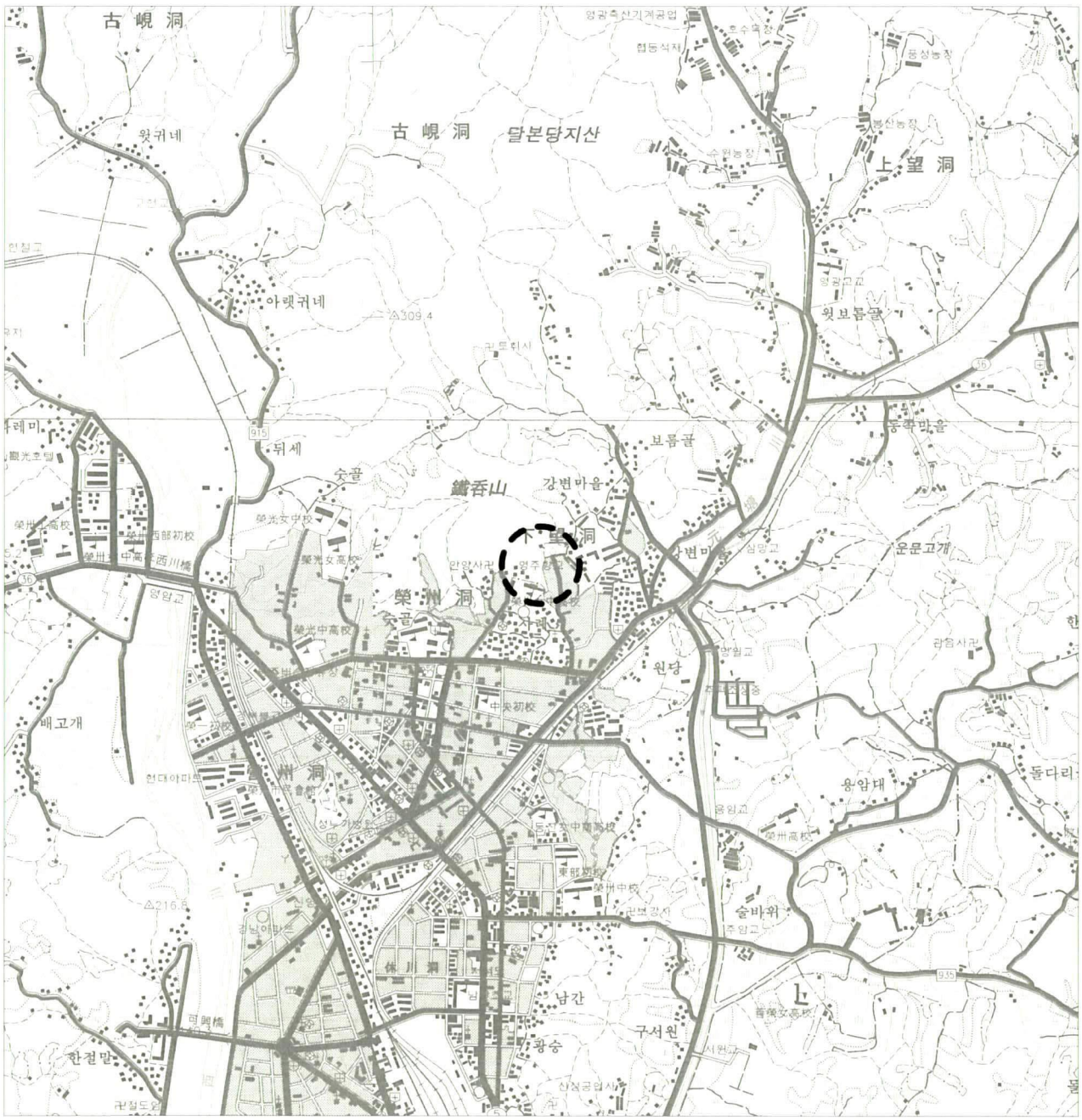


내삼문 내부 가구



8. 영주향교(榮州鄕校)

- 지정사항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3호(대성전)
- 지 정 일 : 1985년 8월 5일
-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1동 167
- 건축구성 : 대성전, 동무, 서무, 신문, 명륜당, 동재, 서재, 영귀루, 교직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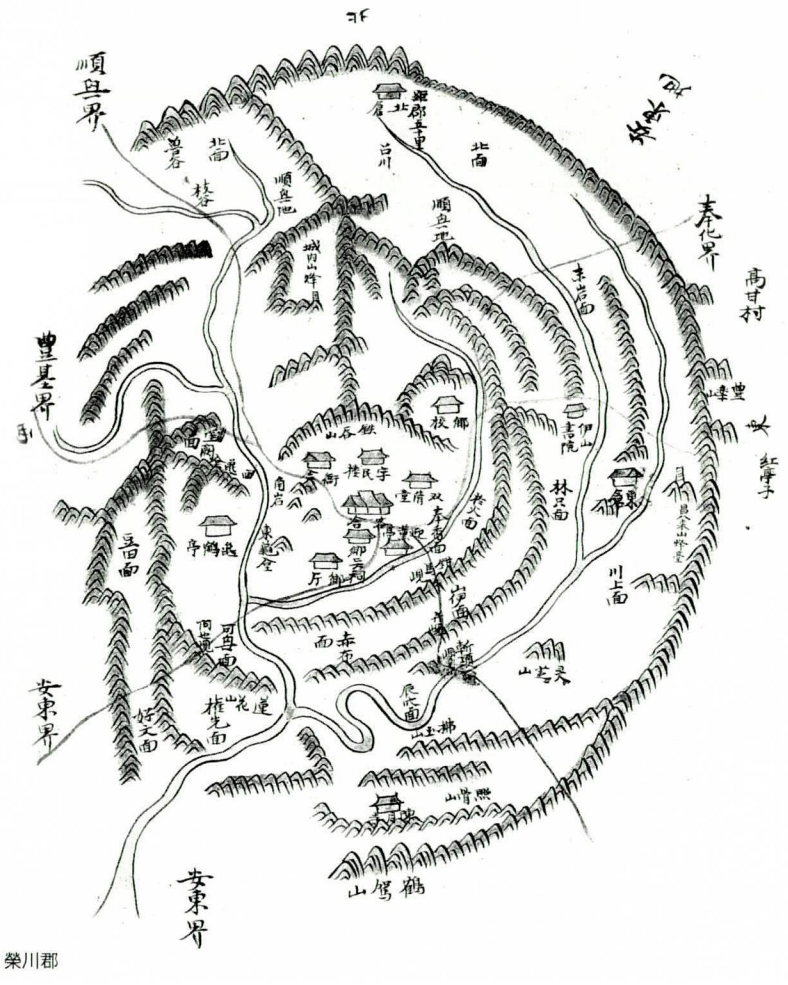


1. 연혁

영주는 고려 현종 때 길주에 속해 있다가 인종 때 순안현(順安縣), 고종 때 영주(榮州) 등이 되었다가 조선 태종 13년(1413)에 영천(榮川)으로 바뀌었다. 세조 3년(1457)에는 단종 복위사건과 관련하여 순흥(順興)이 혁파됨에 따라 마아령(馬兒嶺) 이하 부석(浮石) 등 3개 면(面)이 할속(割屬)되었다가 숙종 9년(1683)에 순흥부가 복설됨에 따라 돌려주었다. 그러다가 고종 건양(建陽) 원년(1896)에 다시 부석면 등이 할속되었고, 1914년의 지방 행정 구역의 재정비와 더불어 순흥, 풍기와 안동 북후면(北後面) 두산동(斗山洞)과 예안군(禮安郡)의 3개 동 등이 합속(合屬)하여 영주군을 형성하였다.

향교는 고려 공민왕 17년(1368)에 군수 하륜(河崙)이 창건하였고,[1] 세종 15년(1433)에는 군수 반저(潘渚)가, 선조 10년(1577)에는 군수 이희득(李希得)이 각각 중수하였다. 선조 30년(1597)에는 명(明) 장수 아국기(芽國器)가 군사를 거느리고 영주를 지날 때 문묘에 알묘(謁廟)한 뒤 서편의 산이 낮고 오솔길이 있어 풍수상 좋지 않다 하여, 인조 13년(1635)에 진사 박종무(朴樅茂)가 유림과 협의하여 오솔길을 막고 산을 돋우었다고 한다.

이후에도 영조 15년(1739)에는 군수 최상관(崔尙觀)에 의해서 중수되었다. 이전의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할 수 없으나, 선조 10년(1577) 군수 이희득과 영조 15년(1739) 군수 최상관에 의해 중수된 사정은 박승임(朴承任)과 장위항(張緯恒)의「明倫堂重修記(명륜당중수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 대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榮川郡

영주의 향교는 진산(鎭山) 왼편에 있었는데, 세운지 오래여서 좁고 초라하여 고을 선비들이 안타까워 한지 오래였다. 선조 9년(1576)에 군수 이희득이 부임한 다음 해 가을에 대성전 3칸 5가(架)를 지었다. 또 그 다음해 봄에는 동서재사를 지었는데 방이 각각 3개였다. 그리고 그 남쪽에 누(樓)가 5칸이

1)_ 1743년에 작성된「明倫堂重修記(명륜당중수기)」에 의하면, 호정(浩亭) 하륜(河崙)이 향교를 홍무(洪武) 9년인 고려 우왕 2년(1376)에 창건하였다고 되어 있다.

었다. 대성전 앞 동편에 본래 조그마한 존현당(尊賢堂)과 교관(敎官)이 거처하는 방이 있었는데 모두 헐어 남쪽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명륜당을 지었다. 이 역사(役事)를 감독한 사람은 생원(生員) 김사호(金士皓)와 유학(幼學) 전개였다.[2] (만력(萬曆) 6년 무인(戊寅, 1578), 박승임(朴承任) 기(記))

영주향교는 공민왕 때 군수 하륜이 창설하고 그 뒤 군수 반저와 이희득이 중수했음은『榮州誌(영주지)』와 소고 박선생의 기문에 전한다. 그때는 동서무가 없었으므로 명륜당이 지금의 동서무 자리에 있었다. 그 뒤 선조 21년(1588)에 군수 이대진(李大震)이 왕명으로 동서무를 새로 지었다. 이 때 명륜당은 드디어 담 밖 약간 남쪽으로 옮겨 세웠는데 서향(西向)이었다. 세월이 오래되어 집이 낡아 스승과 생도가 걱정한지 오래였는데, 영조 15년(1739) 여름에 최상관이 군수로 부임하여 물자와 경비를 모두 관에서 부담하여 다시 중수하였다. 이 때 향교의 영임(領任)은 생원 김엽(金燁)이었고, 역사를 감독한 사람은 고을 선비 김서견(金瑞肩)이었다. 건륭(乾隆) 8년(1743) 계해(癸亥).[3]

이후에도 향교는 각 건물 별로 보수와 중수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보수와 중수 기록은 오늘날 향교의 현판에 기문(記文)과 상량문(上樑文)의 형식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영주향교에도 이러한 기록을 모아『文獻錄』으로 간행하였다. 문헌록에 등재되어 있는 이들 기사를 연도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榮州鄕校重修記(영주향교중수기)」(현판은 명륜당 좌측에 있다)

군수 전성오(全省五)가 부임하여 향교를 중신(重新)할 방도를 강구하였는데, 과장(課長) 이법주(李範周)에게 부탁하여 학전(學田)으로 시장(市場)이 된 것을 검사하여 수(數) 만전(萬錢)을 얻어 시작하였다. 의랑(議郞) 권상두(權相斗)가 이 때 주관하였고, 침랑(寢郞) 권태순(權泰洵), 박준양(朴濬陽) 등 향사(鄕士) 들의 도움을 얻어, 수개월만에 완성하였다. (계해(癸亥) 박승진(朴勝振) 기(記))

(2)「記(기)」(동재 서측면 우측에 있다)

군수 박용빈(朴容斌)이 부임한 후 학사(學舍)에 관심을 두어 150냥을 출연(出捐)하여 강학의 자료로 삼게 하고, 대성전의 비 새는 곳을 수리하고, 문장(門墻)과 층각(層閣) 등을 수리하였는데 모두 봉름(捧廩)을 내어서 하였다. (생원 김병호(金秉浩))[4]

(3)「記(기)」

임인(壬寅) 7월에 군수 이병묵(李丙默)이 부임하여 원장을 보수하고 전(田) 80두락(斗落)을 전부 돌려 줌. (정대직(丁大稙) 기(記))

(4)「重修時記事(중수시기사)」

정사년에 당이 이미 퇴폐하고 동신문과 주사 3,4 칸이 또한 허물어져 중수할 필요가 있었다. 마침

2)__『嘯皐集(소고집)』,「明倫堂重修記」및『文獻錄』,「榮州鄕校重修記」; 재인용 慶尙北道 · 嶺南大學校,『慶北鄕校誌』, 1991 ; p. 401
3)__『文獻錄』,「明倫堂重修記」(영주향교) 이것은 명륜당 현판에 남아 있다.
4)__ 기문 중에 성월(成粵) 4년(年)이라는 내용이 보이나 연대 파악이 난해하다.

두성(豆星)에 거주하는 무교(武校) 우성범(禹盛範)이 원납전(願納錢) 50민(緡)을 내어서 수리함. 이에 3대에 한하여 잡역(雜役)을 물침(勿侵)함. (정사(丁巳) 오월(五月))

(5)「明倫堂重修記(명륜당중수기)」

각 읍의 향교 중 황폐한 것은 수리하라는 조정(朝廷)의 령에 따라 군수가 부임해 와서 경비를 대어 수리하였다. 또 담학전(膽學田)을 마련하여 양사지자(養士之資)로 삼았다. 이 역사는 박수일(朴秀一)이 주관하였다. (숭정(崇禎) 오(五) 임신(壬申, 1872) 김기헌(金騏獻))

(6)「聖殿修補時記事(성전수보시기사)」

대성전에서 물이 새서 경신(庚申)년에 보수할 방법이 없어 성곡(星谷)에 거주하는 우서귀(禹敍龜)가 원납 70민을 내어서 수리함. 이에 세세토록 잡역을 물침할 것을 약속함. (경신(庚申, 1680) 5월)

(7)「大成殿神門修建時記事(대성전신문수건시기사)」

(1885, 생원 송태인(宋泰仁))

(8)「故候金公修學舍廣學田事實(고후김공수학사광학전사실)」

기문 중간에 명륜당을 선리(繕理)한 기록이 있다. (광서(光緖) 20년 갑오(甲午) 정월(1894), 진사 박우상(朴遇尙) 식(識))

(9)「鄕校重修記(향교중수기)」

을해(乙亥, 1815)년에 현감 윤이현(尹彝鉉)이 부임하면서 이듬해인 병자(丙子, 1816)년에 서무 서편의 전사청과 공억사(供億舍)를 철거하고 새로 지었으며, 기묘(己卯, 1819)년에 대성전 기와를 고치고, 재실 일부를 옮겨지었으며, 명륜당과 존현실(尊賢室), 영귀루를 보수하였다는 기록이 있음.[5] (숭정(崇禎) 기원후 사(四) 기묘(己卯, 1819), 박시원(朴時源) 근서(謹書))

(10)「明倫堂重修記(명륜당중수기)」

기문 말미에 '上之十九年癸亥(1743) 장위항(張緯恒) 기(記)'라 되어 있으며, 이 기문에는 창건 시기를 홍무(洪武) 9년인 고려 우왕 2년(1376)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세조 15년(1433)인 선덕(宣德) 계축(癸丑)년 반저(潘渚)가 향교를 중수하고, 만력(萬曆) 정축(丁丑)년인 선조 10년(1577)에 군수 이희득이 향교를 대수(大修)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 이후 10년이 지나 선조 21년(1588)인 무자(戊子)년에 국가의 명령(朝命)에 의해 동서무를 짓기 위해 담 밖으로 명륜당을 이건하여 배을향신(背乙向辛)의 당(堂)을 건립한 사실 역시 기록하고 있다. 명륜당은 이 때 창호를 보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6]

(11)「榮川鄕校重修記(영천향교중수기)」[7]

영주군은 예전에 영천(榮川)으로 불렸었으며, 기문에는 전당(殿堂)을 수리한 내역이 수록되어 있고, 기문 말미에 만력(萬曆) 8년(年) 경진춘(庚辰春)으로 되어 있다.(1580, 박승임 기)

(12)「鄕校重修記(향교중수기)」

---

5)__ 보인회, 『校宮記集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3 ; pp.91-95

6)__ 「明倫堂重修記(명륜당중수기)」, 成均館, 『校宮大觀』, 成均館, 2003 ; pp.850-852

7)__ 같은 제목의 기문이 하나 더 있는데 말미에 '癸亥(계해)'라 되어 있으며, 본문에는 명륜당과 주사(廚舍)에 대한 언급이 보인다. 1543년 내지 1604년의 기문으로 추정된다.

기문 말미에 경진(庚辰) 구월(九月) 박명수(朴明壽)라 되어 있다.

이상의 과정을 볼 때 영주향교는 빈번한 중수와 수리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수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였는데, 대부분 군수가 담당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해방 이후에는 영주여자중학교가 설립되어 향교 건물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1968년에 영귀루를 이건하였으며, 1970년에 명륜당을 중수하고, 1975년에 대성전과 명륜당에 단청을 하였다. 1990년에 영주향교 내에 있던 학교 부속 건물을 철거하였으며, 1991년에 영귀루를 현재의 위치로 옮기고 단청을 하였으며, 석축을 쌓았다. 1993년에 명륜당을 이건하였다.[8]

창건 이후의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68 창건
1433 향교 중수, 하마비 건립
1577 향교 중수, 대성전 중건
1578 동서재 건립(3칸 규모), 존현당 및 교관실을 이건하고 명륜당을 그 자리로 이건
1588 동서무 건립 후 명륜당 이건
1739 향교 중수
1811 명륜당 중건
1816 전사청, 공억사 중건
1819 대성전 번와 보수, 재실 이건, 명륜당, 존현실, 영귀루 보수
1872 명륜당 등 향교 일곽 보수
1885 대성전, 신문 중건
1894 명륜당 보수
1943 영주농업중학교 설립, 향교 시설 사용
1946 명륜당을 영주여자중학교 교사로 임시 사용
1953 향교 일곽 대 보수
1968 영귀루 이건
1970 명륜당 중수
1975 대성전, 명륜당 단청
1984 명륜당, 동서무, 동서재 단청
1987 대성전 및 부속 건물 단청, 명륜당, 동서무, 동서재 보수
1990 영주향교 내 학교 부속 건물 철거, 대성전 주변 정비

8)_ 현재 명륜당 동측 퇴칸에 '明倫堂移建記(명륜당이건기)'가 있으며 기문 말미에 '光復後癸酉梅雨節'로 되어 있어 1993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991 영귀루 이건 및 단청, 석축 조성
1993 명륜당 현 위치로 이건
1994 향교 일곽 보수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는 대성전, 동무, 서무, 신문, 명륜당, 동재, 서재, 영귀루, 교직사, 협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입지 및 배치

영주향교는 철탄산(鐵呑山) 동쪽 기슭에 남향하여 자리잡고 있는데, 현재 영주여고의 구내에 위치하고 있다.

향교 내 건물은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남북 종축선을 따라 좌우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마당의 폭은 제향영역[9]이 강학영역에 비하여 횡으로 넓게 구성되어 있으며, 양재가 명륜당 후면에 위치한 전당후재(前堂後齋)형 배치로 되어 있다. 1992년에 명륜당을 동재 후면에서 현재의 위치로 옮기면서 향교의 면모가 일신되었다.[10] 현재 영귀루 서편 담 밖에 하마비(下馬碑)가 서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전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전퇴를 둔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계단은 기단 좌우 측면에 각 1개씩 3단을 구성하였으며, 장대석 기단 위에 상면을 다듬은 주초를 놓았고, 기단 상면은 시멘몰탈로 마감하였다. 흘림이 있는 원주를 세워 전퇴를 벽체 없이 개방하고 고주열에 벽체를 한 전퇴형의 평면을 하였다. 측면은 어칸을 넓게 하였고, 전내는 우물마루를 깔고 5성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전면 어칸에는 가운데에 두 짝 세살문을, 좌우에는 열리는 방향이 각각 중앙을 향하는 외짝 세살문을 달아냈으며, 좌우 협칸 전면에는 큼직한 만(卍)살광창을 두었다. 이는 풍기향교

9)_ 제향 영역 주변 담은 돌담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사진 곳의 담은 단을 지게 하는데 여기서는 경사지게 이었으며, 담 맨 위에 얹는 숫기와는 맞닿는 부분에 회를 둥글게 덮었다. 이는 경사진 담으로 인하여 담이 손상되거나 기와가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처리로 판단된다.

10)_ 이전의 기록을 살펴보면, 영귀루(詠歸樓)는 1686년에 운동장 밖으로 이건되었고, 명륜당과 동서재 역시 학교 건물로 사용한 적이 있다. 배치형태는 대성전을 높은 곳에 놓고 명륜당은 동서재와 같은 방향으로 축을 이뤄 높은 대지 위에 서향하였는데, 대성전과는 직교되는 축을 가진 이형(異形) 배치를 하고 있다. 기문(記文)에 '그 때는 동서무가 없었으므로, 명륜당이 지금 동서재 자리에 있었다. 그 뒤 선조 21년에 구수 이대진이 왕명으로 동서무를 새로 지을 때, 명륜당을 드디어 담 밖 약간 남쪽으로 옮겨 세우게 됨에, 이래서 서향 모습으로 바뀌었으니...' 란 기록(『榮州 · 榮豊鄕土誌(영주 · 영풍향토지)』 상(上), 송지향(宋志香) 편저, 1978, 여강출판사) 으로 보아 1588년에 대강의 배치형태가 형성된 듯 하다. 존현당, 전사청, 전곡청(錢穀廳) 및 교아(校衙)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라 되어 있다. (慶尙北道 · 嶺南大學校, 『慶北鄕校誌』, 1991 ; p.404)

(豊基鄕校) 대성전의 정면 구성과 같은 수법이다. 전면 기둥머리에는 초익공을 구성하였으며, 살미의 형상은 전면은 쇠서로 하여 끝을 날카롭게 뻗게 하였으나, 후면은 익공재 외단을 직절하였다. 얼핏보았을 때 전면은 2익공으로 볼 수 있으나, 툇보의 머리를 익공재처럼 초각한 것으로, 초익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구는 어칸에서 1고주 5량가로, 퇴칸에는 약간 가늘게 느껴지는 툇보를 결구하였다. 잘 다듬은 대들보 위에는 4분변작의 위치에 동자주를 놓아 포대공을 구성하였다. 종보 중앙에는 키가 높은 파련대공을 올려놓았다. 중·종도리 장혀 밑에는 뜬창방을 결구하였다.

지붕은 전면에만 겹처마로 하고, 맞배지붕으로 하였으며, 풍판은 달지 않았다. 지붕에는 암수막새기와를 얹었는데, 일부 명문이 남아 있다. 용마루에는 '丁亥三月 都有司徐老'라 되어 있으며, 내림마루에는 '庚申七月校'라 되어 있다.

(2) 동무(東廡), 서무(西廡)

동서무는 각각 전면 3칸, 측면 2칸 규모에 전면에 개방형 퇴칸을 둔 민도리계홑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내부는 우물마루를 깔아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장대석 단층 기단 위에 거칠게 방형으로 다듬은 주초를 놓고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웠다. 전면 어칸에는 두 짝 세살문을 달고, 좌우 협칸에는 큼직한 방형의 만살광창을 두었다. 측후면은 심벽을 구성하였으며, 가구는 1고주 5량가로 되어 있다. 3분변작의 위치에 동자주를 세우고 종보를 받았으며, 종보 중앙에 제형 판대공을 두고 종도리를 받았다. 보머리는 네모서리를 깎아 마름모꼴로 다듬었으며, 창방 이상 모로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대지 자체의 경사로 말미암아 기단 상면이 북쪽은 높고 남쪽은 낮게 되어 있는데 초석의 높이로 조절된 듯 하다. 전면 평주와 고주 하단에 부재를 결구했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용마루 좌우에는 머거블 대신 숫기와 하나를 세로로 세워 두었다.

(3) 신문(神門)

신문은 사방 단칸 규모의 익공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대개 내삼문이라 하여 3칸 규모의 솟을지붕 혹은 평지붕으로 되어 있으나, 영주향교에서는 제향영역 전면 중앙에 단칸 규모의 문을 두고, 동서무의 남측 담 중간에 일각문 형태의 협문 2동을 각각 두었다.

신문의 전면에는 제향영역으로 오르는 계단이 놓여져 있고, 단층 기단 위에 방형 기둥을 세우고 기둥머리에 초익공을 구성하였으며 주간에 소로를 수장하였다. 좌우 측벽은 심벽으로 되어 있고, 중앙렬 기둥에 두 짝 판문을 달았다.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판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았으며, 지붕 용마루 좌우에는 망와와 머거블을 두는 대신 숫기와 하나를 세워 두 단의 적새를 받고 있다. 긋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특이한 점은 후면에 장혀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는 후면의 기단이 오히려 경사로 인하여, 내부 바닥면 보다 한 단 높게 되어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좌우 측 협문은 각각 단 칸 규모의 3량가 맞배지붕 건물로, 중앙에 두 짝 판문을 달았으며, 긋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고, 용마루 좌우에 머거블 대신 숫기와를 세워놓았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전면 5칸, 측면 2칸 규모에 전면에 퇴칸을 둔 익공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단 차이를 두어 전면은 상하층 기둥을 구분하고 계자각 난간을 둘러 중층 건물 처럼 구성한 점이 특이하다. 또한 퇴칸을 구성하되 고주를 두지 않고, 중대공 하단 위치에 좌우실의 당쪽 벽에서는 주두 없이 기둥만 놓아 대들보를 받았으며, 측면에서는 익공을 구성하였다.

막돌쌓기한 높은 위에 초석을 놓고 원형 기둥을 세웠다. 내부는 좌우에 실(室)을 두고 가운데 3칸을 마루로 하였다. 또한 좌우 실 전면에는 퇴칸을 꾸며 마루를 구성하였다. 좌우 측벽은 심벽을 구성하고, 실 전면에는 두 짝 세살문을 달았으며, 실의 당쪽 벽에는 사분합문을 달았다. 당 후벽은 어칸에 두 짝 판장문을 달고, 좌우칸에는 하방 상부에 머름을 구성하고 두 짝 판장문을 달았다. 또한 좌우실 후면에는 동서무와 동일한 만살광창을 달았다.

기둥머리에는 외단을 궁글린 몰익공을 구성하였으며, 주간에는 화반을 놓았다. 가구는 5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3분변작의 위치에 포대공을 놓아 종보를 받았으며, 종보 중앙에 파련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았다. 측면에서는 특이하게 대들보와 창방 사이에도 화반을 두고 고주에도 전면과 동일한 익공을 구성하였다. 이는 측면에 풍판을 두지 않아 장식적 효과를 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붕은 전후면 홑처마로, 풍판은 두지 않았으며, 창방 이상 모로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각 실 후면 기단 상면에는 아궁이를 두고 좌우측 기단면에 붙여 굴뚝을 두었다. 전면 평주열 바깥쪽으로 폭이 좁은 난간을 두었는데, 좌우 귓기둥 바깥쪽으로 확장하여, 후면으로부터 좌우측 기단을 지나 오를 수 있게 하였다. 모로단청으로 마무리하였으며, 현재 서실 내부에는 다수의 기문을 보관하여 두고 있다.

현재의 명륜당은 원래 동재 후면에 있었던 것을 1992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면서 새롭게 구성한 것이다.[11] 현재 명륜당 내부에는 영조 19년(1743)에 제작된 '明倫堂重修記(명륜당중수기)', 순조 11년(1811)에 제작된 '明倫堂重修上樑文(명륜당중수상량문)', 고종 9년(1872)과 1970년에 각각 제작된 '明倫堂重修記(명륜당중수기)' 등의 기문이 걸려 있다.

11)_ 이건 전에는 전면 4칸, 측면 2칸 건물이었으며, 내부를 통칸으로 두고 바닥은 장마루를 깔았었다고 하며, 좌측 협칸 전면에는 별도의 2개의 기둥을 세워 박공지붕을 얹어 현관모양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전면 벽체의 구성은 가운데 2칸은 광창을 달고, 양측칸은 쌍여닫이문을 달아 출입할 수 있게 하였으며, 좌측면과 배면 역시 전면과 같은 형태의 광창을 달았었다. 우측면은 벽체로 되어 있었으나 쌍여닫이문을 단 문틀이 남아 있었으며, 5량가로 하여 대량 위에 보아지와 첨차, 소로 및 접시받침으로 구성된 포대공으로 하여 종량과 중도리를 받치고 있었다. 대공의 형상은 위치마다 약간씩 다른 형상을 하고 있으며, 종량 위에는 드물게 보이는 형상의 파련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치고 있다고 되어 있다. (慶尙北道 · 嶺南大學校, 『慶北鄕校誌』, 1991 : p.405)

(2) 동재(東齋), 서재(西齋)

동재와 서재는 각각 전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전면에 개방형 퇴칸을 두고 마루를 짰으며, 내부는 통칸으로 되어 있다. 자연석 단층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5량가이나 측면의 칸살이 좁아 서까래를 장연과 단연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하였다. 4분변작의 위치에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받고 제형 판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았다.

모로단청으로 마무리하였으며, 각 칸 고주열 전면에는 두 짝 세살문을 달았으며 기단 남측면에 아궁이를 두고 북측에 굴뚝을 두었다. 후면에는 중방 상부에 두 짝 세살창을 달았다.

(3) 영귀루(詠歸樓)

영귀루는 전면 5칸, 측면 1칸의 중층 누각으로 된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건물은 장대석을 1단으로 쌓은 단층 기단 위에 일부 배흘림을 둔 원형 기둥을 세워 중층의 누각을 구성하였다. 기단 상면은 시멘몰탈로 마감되어 있으며, 초석은 기둥 직경과 큰 차이가 없는 원형초석으로 일부는 기단 상면 마감으로 인하여 묻혀 있다. 하층에는 벽체를 꾸미지 않았으며, 좌우 퇴칸 후면칸에는 상층으로 오르내리는 계단을 두었다. 상층에는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후면은 벽체 없이 두고 계자각 난간을 둘렀으며, 좌우 측벽에 판벽을 가설하였다. 전면 각 칸에는 하부에 머름을 짜고 두 짝 판장문을 달았으며, 기둥머리에는 초익공의 공포를 결구하였다. 주간에는 소로를 수장하였고, 가구는 3량가로 대들보 중앙에 제형 판대공을 두었다. 지붕은 홑처마로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창방 이상 모로단청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전면 어칸 상부에 걸린 '詠歸樓' 현판 좌측에는 庚申(경신) 명문이 있어 1980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귀루 내에는 현재 2개의 이건 기문이 남아 있다. 하나는 '詠歸樓移建記(영귀루이건기)'로 기문 말미에 '戊申檀紀四三〇一年'으로 되어 있어 1968년의 기록임을 알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기문 제목은 동일하되, 내용을 살펴보면 1989년 기사(己巳)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년 후인 신미(辛未)년에 완공하면서 단청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기문 말미에는 '大韓光復後一辛未'로 되어 있어, 1991년에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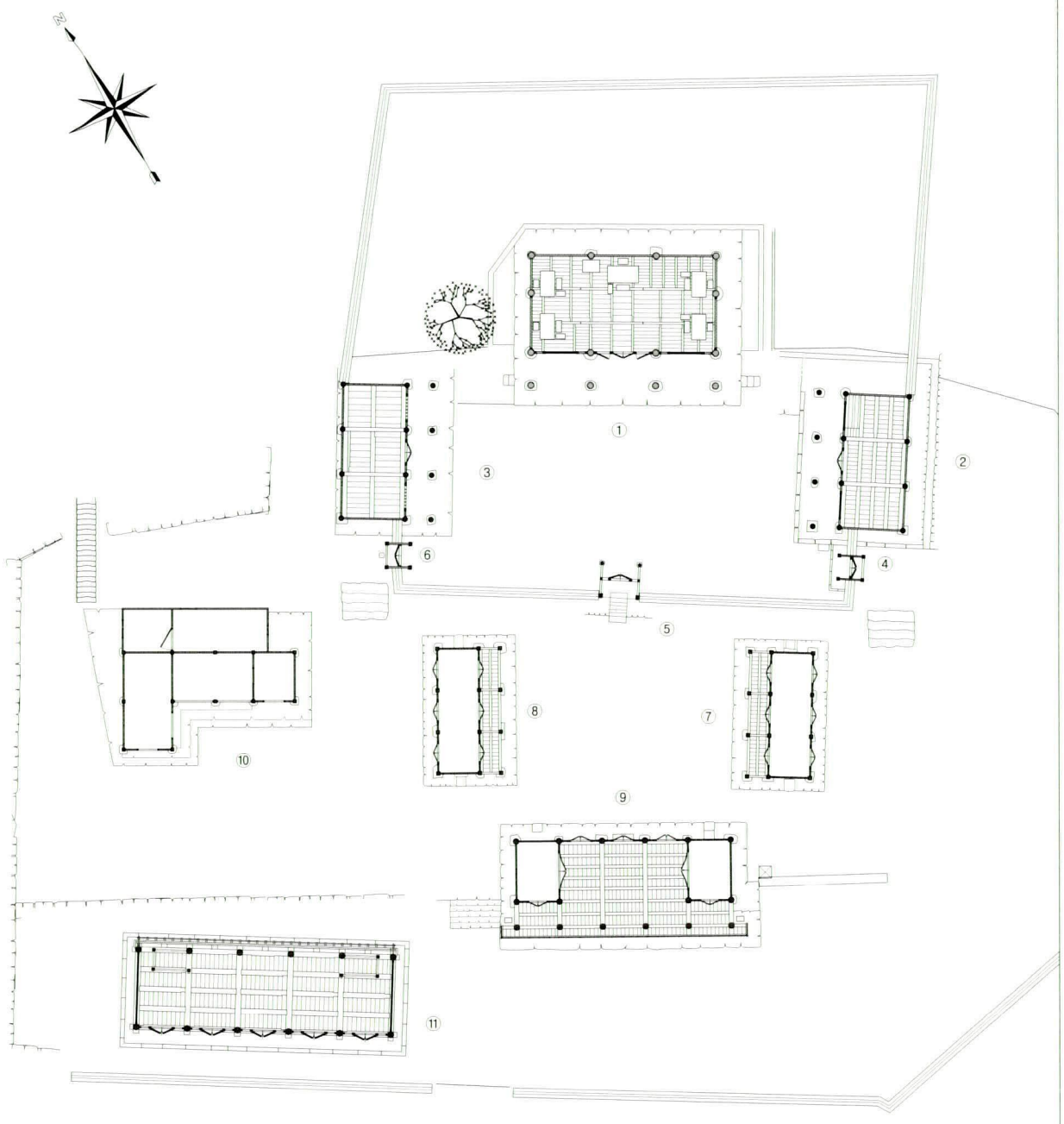
다. 기타

기타 건물로는 교직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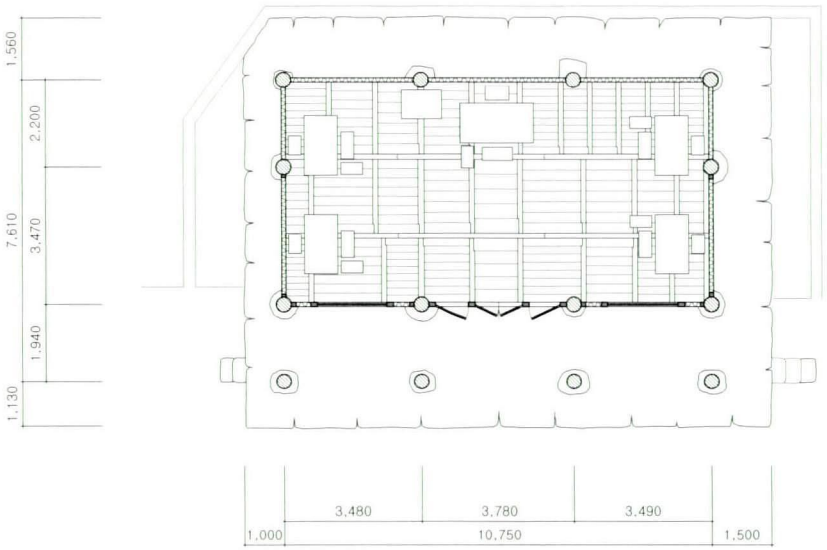
교직사는 'ㄱ'자형의 살림집 형태로 되어 있으며, 시멘 몰탈 기단 위에 방형 기둥을 세우고 맞배지붕으로 처리하였다. 현재 향교 관리인이 거주하고 있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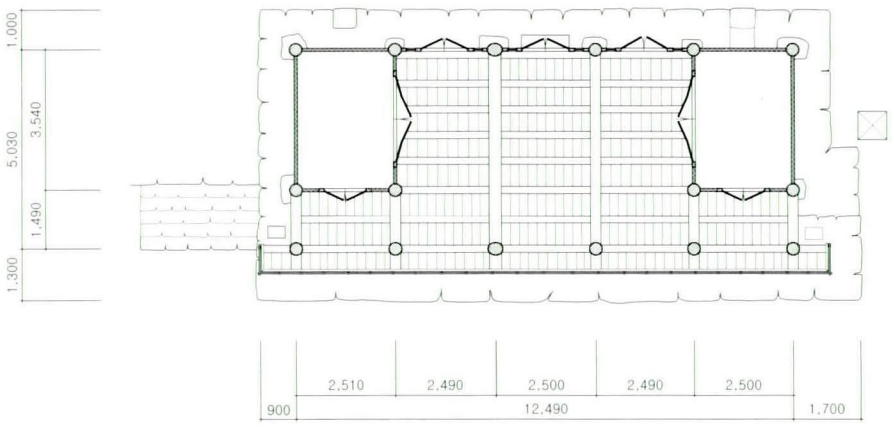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영주향교(榮州鄕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3호(대성전)
창건시기	고려 공민왕 17년(1368)	입 지	구릉지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향교재단
좌 향	남향 (대성전 向 S23°W)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堂後齋 종축 1개
중건시기	1577 대성전 중건 1578 명륜당 이건 1588 명륜당 이건 1993 명륜당 이건	대지조성	3단 : 명륜당, 신문 기준
설 위	5聖, 宋朝 2賢, 海東 18賢	인접시설	영주여자고등학교
건축구성	대성전, 동서무, 신문, 명륜당, 동서재, 영귀루, 교직사		
특기사항	현 위치에서 명륜당의 자리를 다수 옮긴 과정 중에 서향(西向)으로 배치한 경우가 있음 영귀루의 측면 구성이 특이함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3×3칸, 전1퇴칸 / 초익공 / (전면) 겹처마 (후면)홑처마, 맞배지붕 / (어칸) 1고주 (후면) 2고주 5량가 / 우물마루 / 연등천장 / 주칸 어칸 3780 협칸 3485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전면) 세벌대 / 장대석 바른층쌓기 좌우 각 1개(각 3단)	보	대들보 : 전고주 후평주 걸침(어칸) 종 보 : 4분변작
초 석	정평주초 / 자연석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대 공	중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파련대공(어칸), 판대공(측벽)
공 포	초익공 / 보머리 익공재 초각	창 방	방형 / 빨목 첨차형 초각
처 마	(전면) 겹처마 (후면) 홑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이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없음
수 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연등천장 / 우물마루		
특기사항	좌우에 풍판이 생략됐으며, 전면 좌우 퇴칸에 만살광창을 둠 전후면 익공재 외단이 다르며, 전면은 툇보머리를 익공재 처럼 초각, 이익공처럼 조성		
명륜당 건축 요소			
개 요	5×2칸, 전1퇴칸 / 초익공 / 홑처마 맞배지붕 / 1고주 5량가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지반자 / 주칸 2500 (각 칸 동일)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자연석 없음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3분변작
초 석	덤벙주초 / 자연석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대 공	중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파련대공
공 포	초익공 / 익공재 외단 궁글림	창 방	방형 / 빨목 첨차형 초각
처 마	홑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이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없음
수 장	회사벽 / 모로단청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지반자		
특기사항	익공재 외단을 몰익공으로 구성함 측벽에 화반 및 고주 익공을 전면처럼 조성하여 측면 의장성 강조 다수의 이건 과정을 거쳐 1993년에 현재의 위치에 이건됨		


N
① 대성전
② 동 무
③ 서 무
④ 내삼문 동측 협문
⑤ 내삼문
⑥ 내삼문 서측 협문
⑦ 동 재
⑧ 서 재
⑨ 명륜당
⑩ 교직사
⑪ 영귀루
0
5
10
20 M

영주향교 배치도



영주향교 대성전



영주향교 명륜당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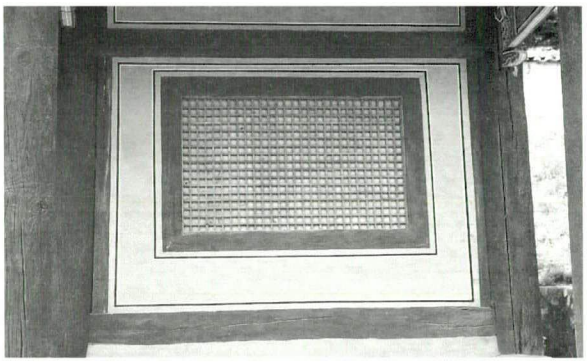
대성전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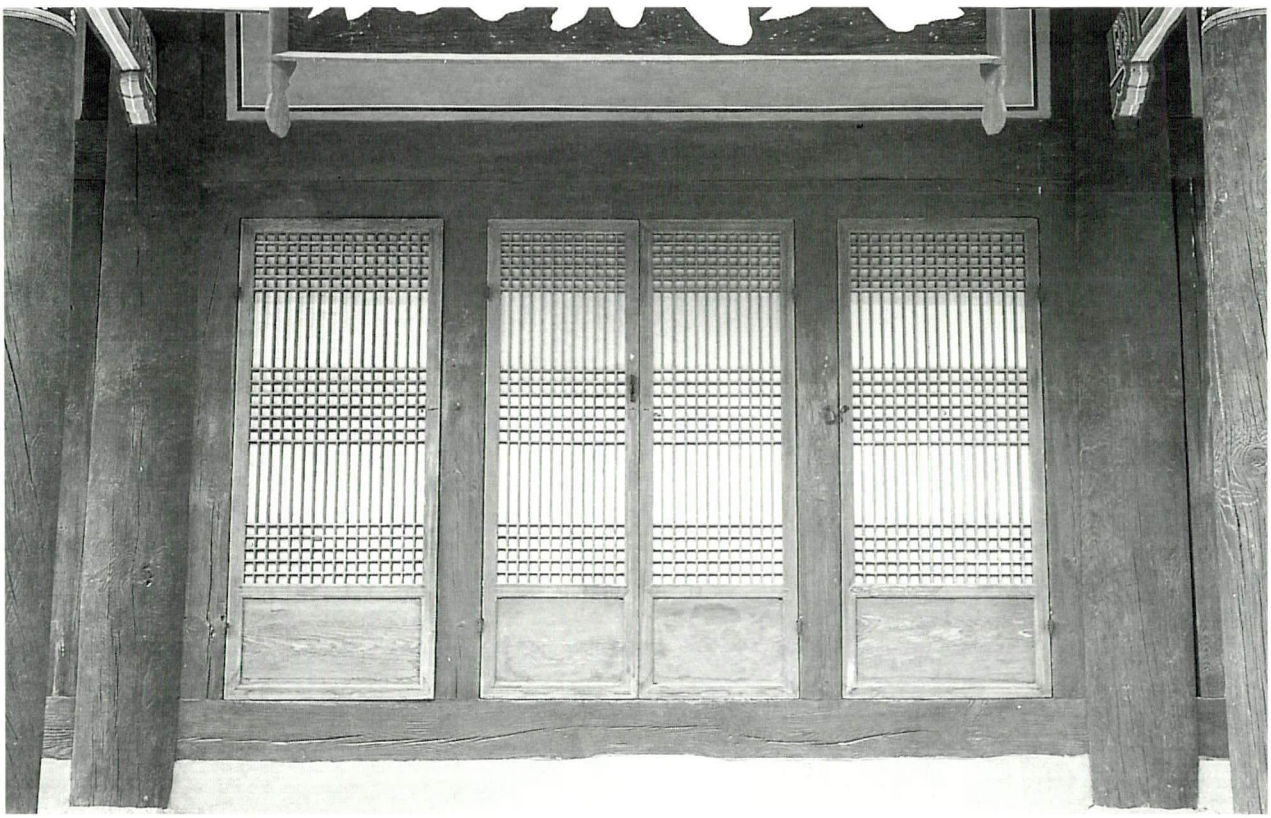
대성전 전면 퇴간



대성전 전면 주상포



대성전 전면 협칸 창호



대성전 전면 어칸 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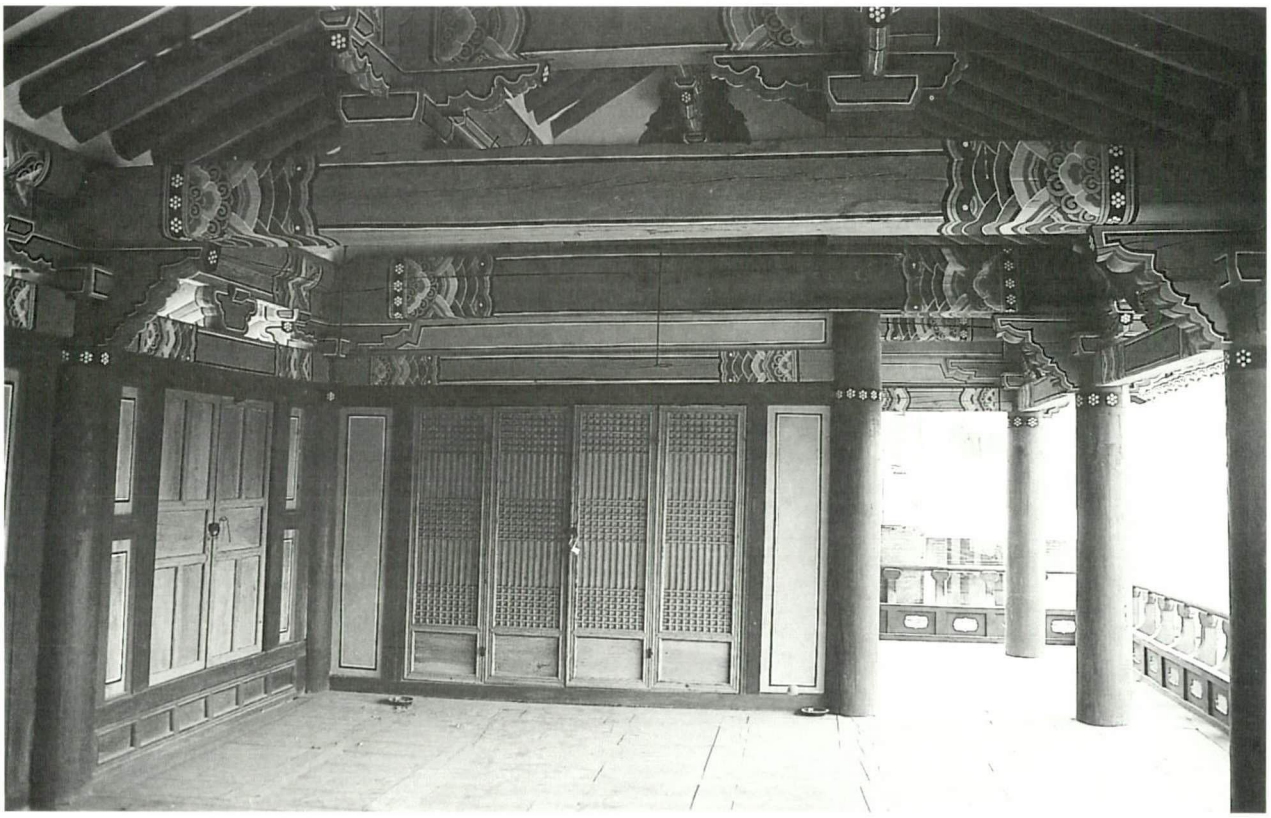
대성전 내부 어칸 가구



대성전 내부 측벽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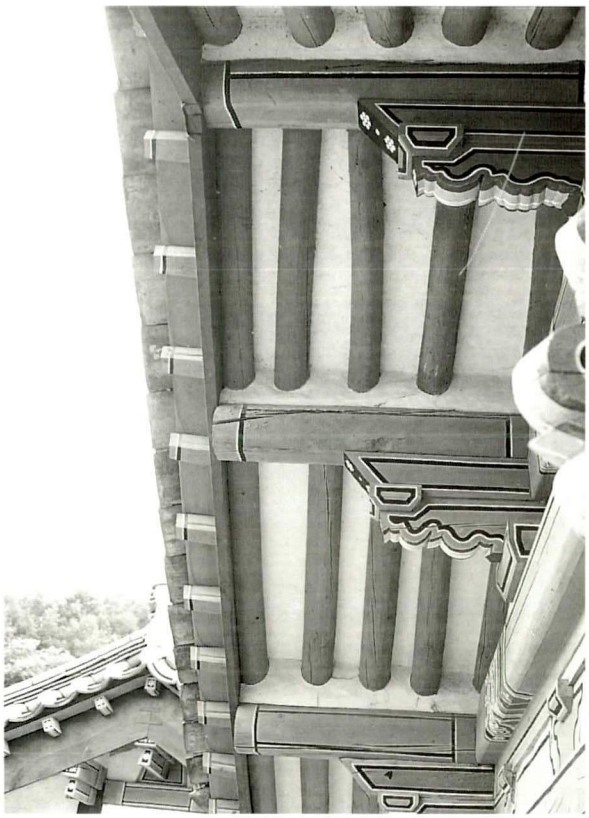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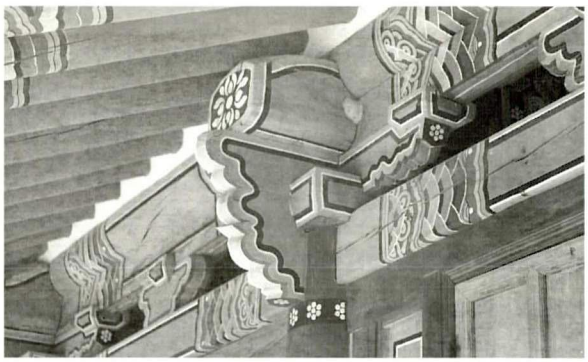
명륜당 내부



명륜당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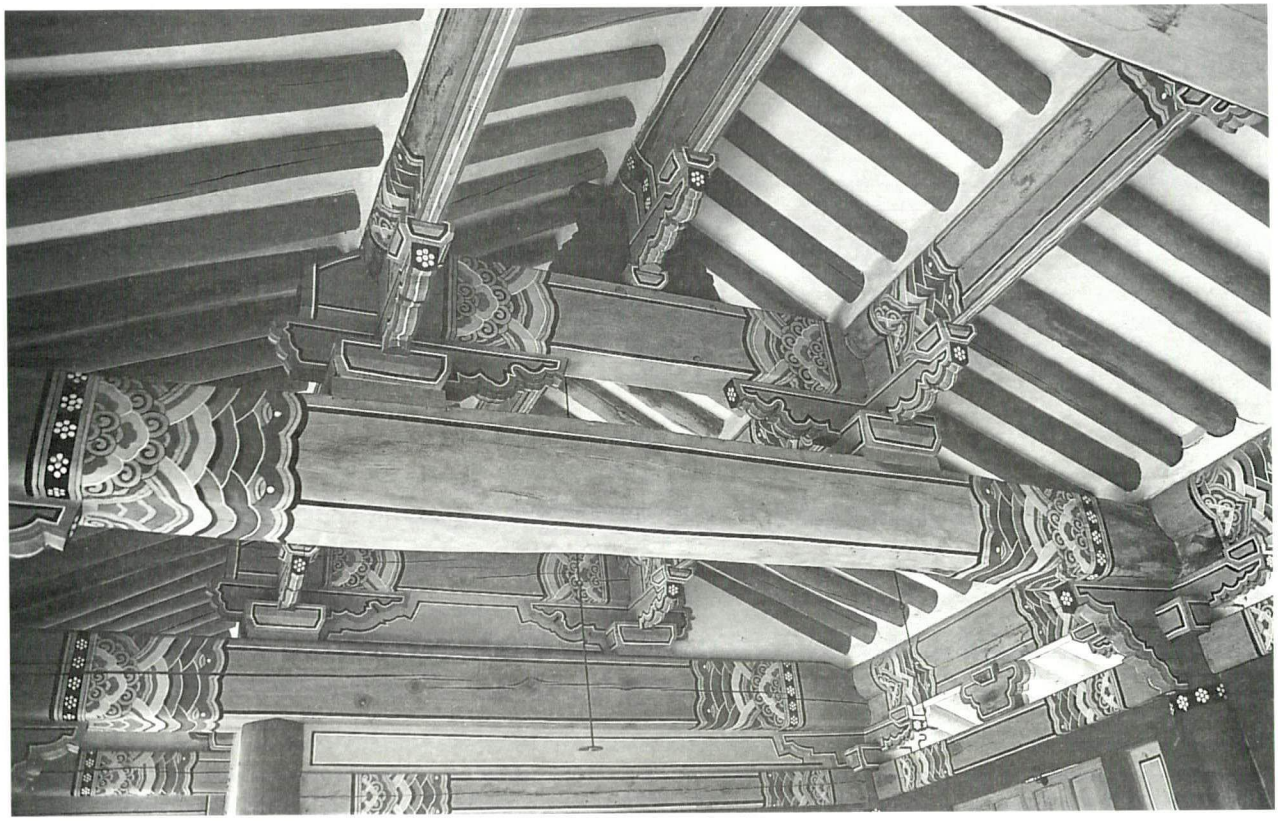
명륜당 측면 도리뺄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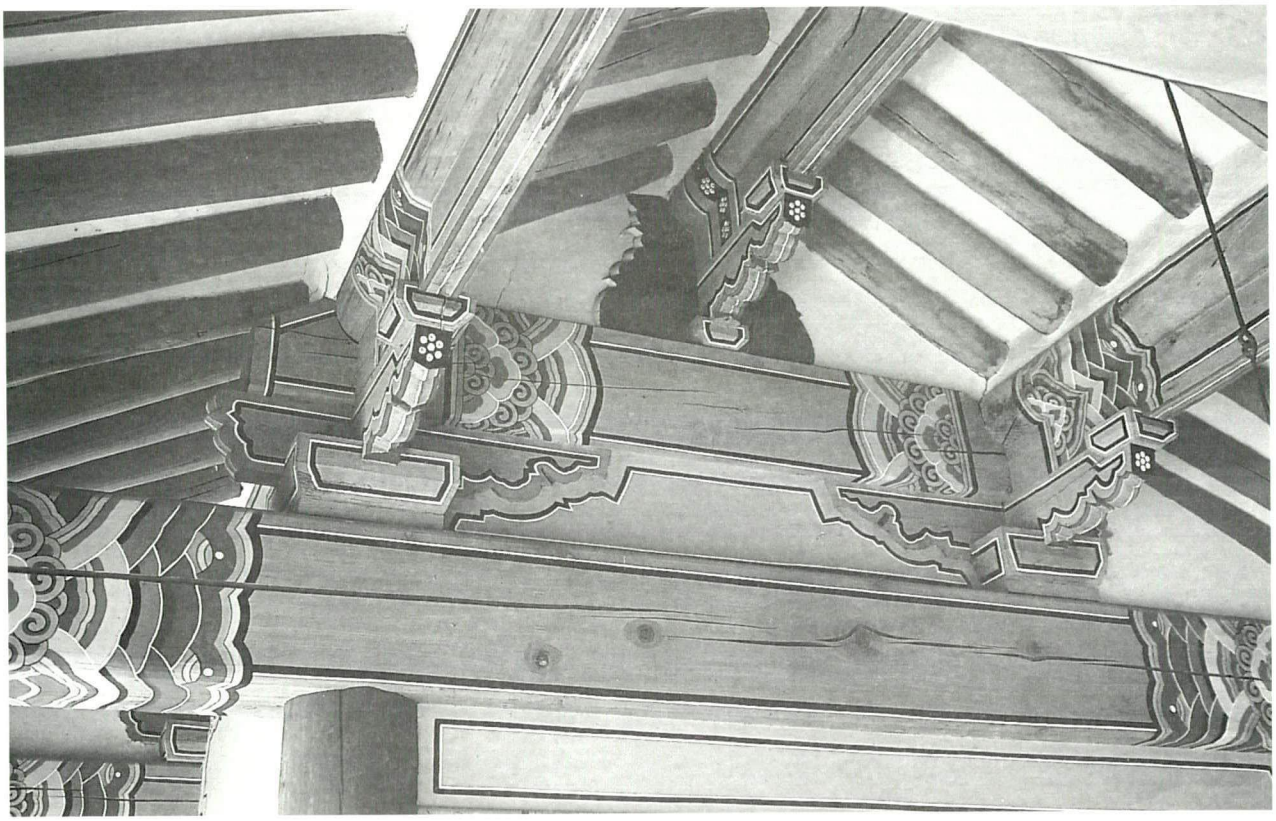
명륜당 후면 주상포



명륜당 후면 주간 화반



명륜당 내부 어칸 가구



명륜당 내부 협칸 가구



동무 및 협문



서무 및 협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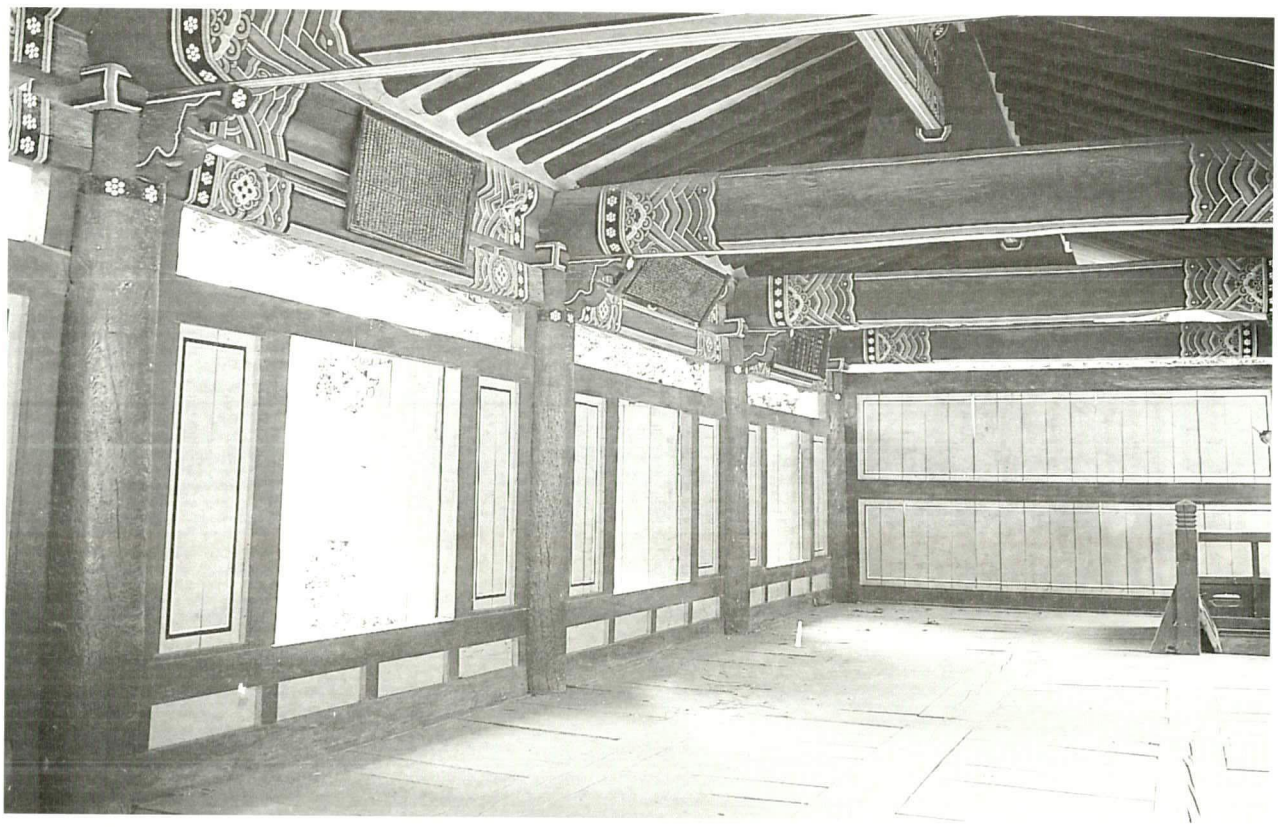
동재



서재



영귀루



영귀루 내부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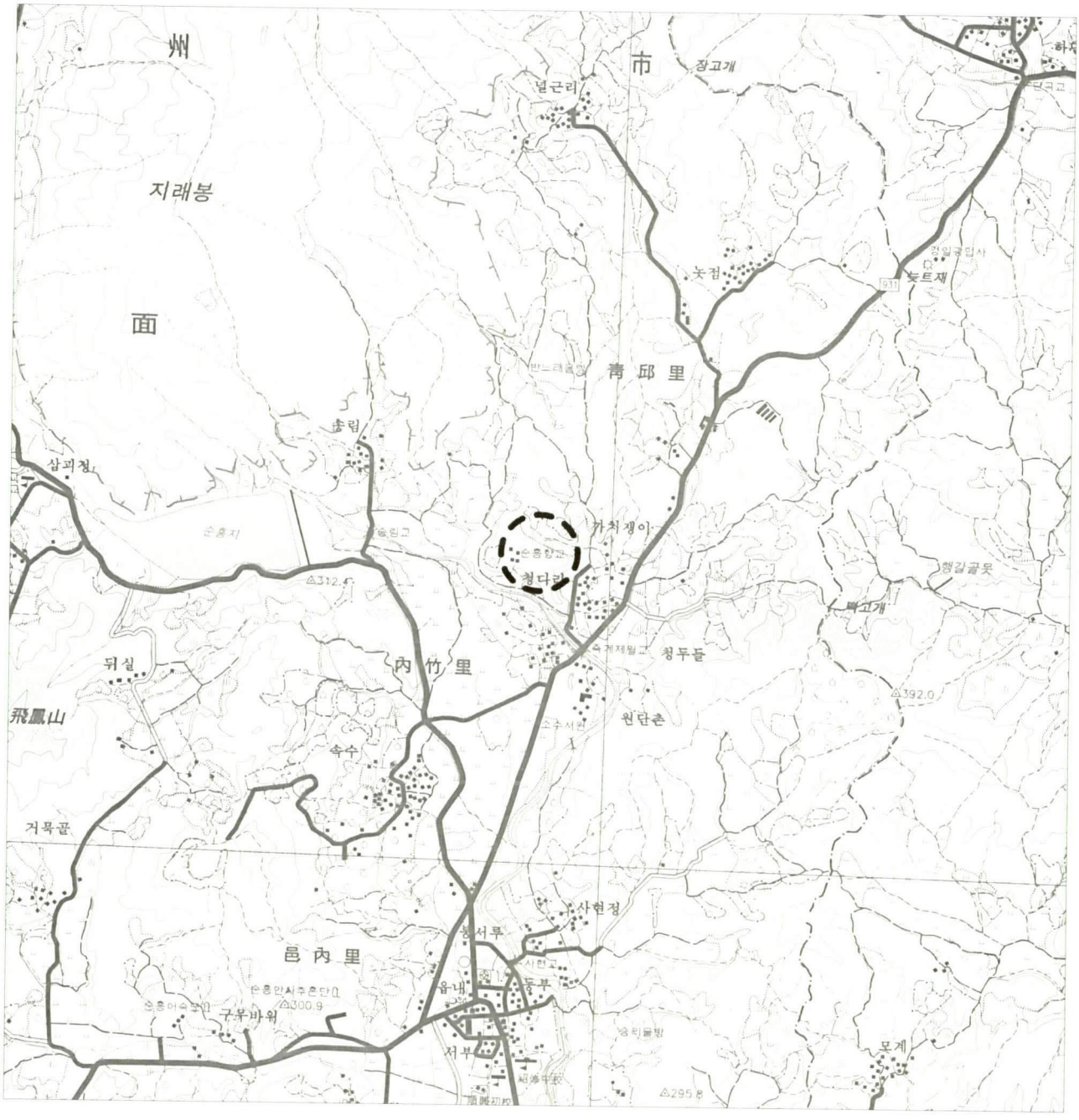


교직사



9. 순흥향교(順興鄕校)

- 지정사항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47호(일곽)
- 지 정 일 : 1998년 4월 13일
-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437
- 건축구성 : 대성전, 동무, 서무, 신문, 명륜당, 동재, 영귀루, 교직사, 화장실, 협문 4동 등



1. 연혁

순흥은 고려 성종(成宗), 현종(顯宗) 때에 안동부에 속했다가 후에 순안현(順安縣)에 이속되고 충렬왕 때 흥녕현(興寧縣)으로 개명되고, 충목왕(忠穆王) 때 순흥부가 되었다. 조선 태종 13년(1413)에는 도호부가 되었으나 세조 3년(1457)에 부사 이보흠(李甫欽)과 금성대군(金城大君) 유(瑜)가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됨으로써 혁파되어 영역은 풍기와 영천, 봉화로 이속되었다. 이후 수차에 걸친 복설의 상소가 있었으나 복설되지 못하였다가 숙종 9년(1683)에 복설되었다. 복설과 더불어 관찰사, 순흥·풍기·영주 등 인접 수령이 모여 경계를 정하였으나 옛 경계가 모두 회복되지는 못하였다. 그 후 순조 29년(1829)에도 일시 현(縣)으로 강등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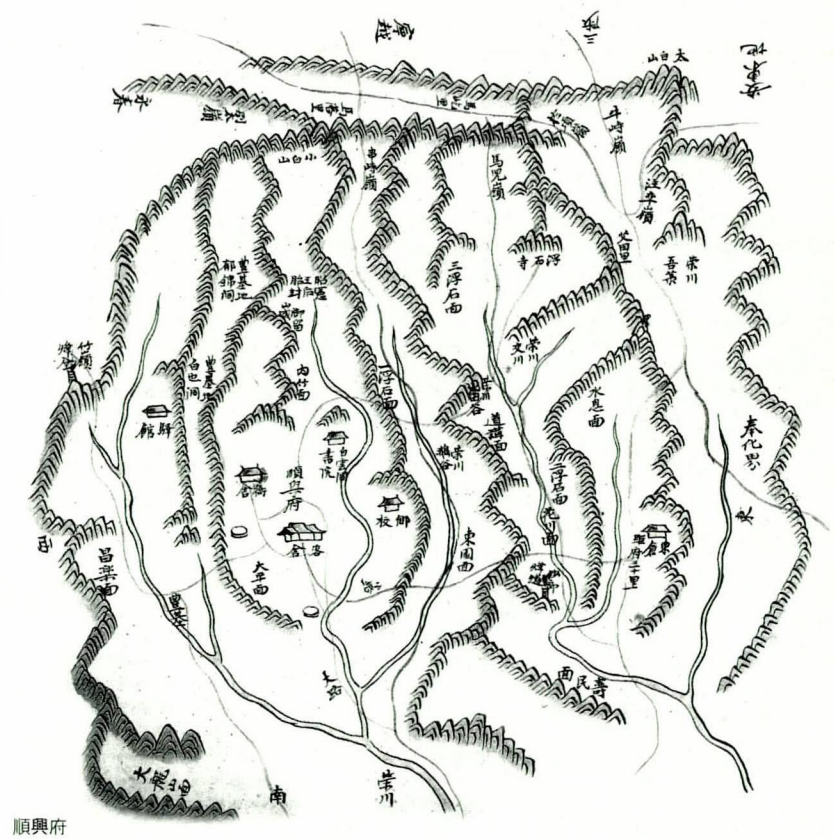
향교 또한 이러한 군현의 치폐와 같이 하고 있었다. 즉 여말선초에 순흥에도 향교가 설립되었을 것이나, 부(府)와 함께 향교 역시 혁파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고려 충렬왕 30년(1304)에 순흥부 북방 금성리(金城里, 현 내죽리(內竹里))에 창건하였다고 한다.[1] 그리고 향교가 다시 건립되는 것은 숙종(肅宗) 9년(1683), 부의 복설과 함께 시작되었다.

순흥향교의 복설과정을 『校中雜錄(교중잡록)』에[2]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숙종 9년(1683)에 부사가 파견되어 오면서 향중에서 곧 바로 관아와 향교의 건립을 위한 교중 임원과 조성유사(造成有司)가 선출되어 부 북쪽 금성(金城)에 대성전의 터를 잡아 다음 해 2월 7일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기고사(開基告辭) 집사(執事)를 보면 다음과 같다.

執事獻官 : 李聖命, 祝 金文漢, 贊修 金惟允, 奉享 黃道翊, 奉爐 金斗允, 尊爵 勸胤錫

上樑執事 : 獻官 朴施雨, 讀文 徐○○, ○者 金文漢, 謁者 權重基, 奉享 勸永○, ○○ 權正基, 封爵 李雄烈, 尊爵 金升允

그래서 양반과 중인은 향교의 역사를 맡고 상한(常漢)은 대청의 역사를 분담하였다.


順興府

1)_ 成均館, 『校宮大觀』, 成均館, 2003 : p.819
2)_ 『校中雜錄』(순흥향교 소장)

역량(役糧)은 양반이 담당하였다. 또한 양반이 출급(出給)한 남정(男丁) 500여 명과 상한 1,400여 명이 동원되었다. 그리고 각 동과 서당(書堂)에서 곡식을 거두기도 하였는데, 이 때 거둔 곡식은 38석이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여 서원에서 100석을 이송하여 보태기도 하였다. 1685년 8월에 대성전 9칸, 전사청 3칸, 명륜당 12칸, 동서재 각 6칸 등이 일시에 완성되었다. 이 공사에는 성주(城主)와 도감(都監) 서천석(徐天錫), 권영기(權永基)가 큰 역할을 하였고, 제기(祭器)와 제복(祭服)은 묘당(廟堂)에서 획급하여 주었다.

그러나 향교의 터가 습한 곳이어서 완성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일부 건물이 허물어지게 되었다. 이에 이건의 요구가 계속되어 숙종 44년(1718)에 부사 이명희(李命熙)에 의하여 부남(府南) 5리 위야동(渭野洞)으로 옛 순흥 교기(校基)에 옮겼으며, 경종(景宗) 4년(1724)에 대성전을 중수하였다.[3] 영조 26년(1750)에 여름 부사 신종(申宗)에 의해 다시 석교리(石橋里)로 옮겨졌는데, 명륜당·동서재·영귀루 등이 있었다. 정조 14년(1790)에 다시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였으며, 1971년에 중수하고, 1975년에 누각을 단청 보수하였다. 2000년에 일곽에 단청을 새로 하였으며,[4] 2001년에 명륜당을 중건하고, 영귀루를 중수하였으며 일곽 담을 증축하였다.

현재 향교에 소장된 자료로는 『執事案(집사안)』, 『校中雜錄(교중잡록)』, 『鄕校雜錄(향교잡록)』등 이외 다수의 문헌이 있다.

창건 이후의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04 창건
1683 창건(부 복설로 인한 재창건)
1685 대성전, 전사청, 명륜당, 동서재 완성
1718 이건
1724 대성전 중수
1750 이건
1790 현 위치로 이건
1971 향교 일곽 중수
1975 영귀루 단청 보수
2000 향교 일곽 단청
2001 영귀루 중수, 일곽 담 증축, 명륜당 및 대성전 중건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는 대성전, 동서무, 신문, 명륜당, 동재, 교직사, 영귀루, 화장실 및 협문 4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__ '順興都護府 大成殿重修上樑文(순흥도호부 대성전중수상량문)', 기문 말미에 '皇明崇禎戊辰紀元後九十七年甲辰八月二十九日己亥 進士 李鎭萬 製' 라 되어 있다. 成均館, 『校宮大觀』, 成均館, 2003 ; pp.823-824

4)__ '順興鄕校重修記(순흥향교중수기)', '(전략)... 光復後庚辰小春節 ...(후략)' 여기서 광복 후 경진년은 2000년이다. 成均館, 『校宮大觀』, 成均館, 2003 ; pp.822-823

2. 입지 및 배치

순흥향교는 금성대군 사리기 안치소 방향으로, 소수서원을 지나서 200m 직진 후 좌회전하면 다리를 건너자마자 산기슭에 배산임수(背山臨水)하여 남향하여 있다.

영귀루를 지나면 동재와 교직사가 명륜당 앞에 있고, 명륜당 뒤의 내삼문을 통과하면, 대성전이 북쪽 높은 곳에 서 있다. 대성전 앞에는 동서무가 마주보고 있다.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방법을 따르고 있으나 대성전과 명륜당의 축이 조금 어긋나 있으며, 원래 제향영역 내의 건물만 일곽으로 하여 담으로 싸고 있었으나 2001년도에 영귀루를 보수하면서, 주변의 담을 쌓았다. 또한 교직사 영역은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직사 전면에 교직사영역으로 출입하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으며, 교직사 동측에도 출입문을 두었다.

전체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계단석 및 초석 등에 석등 혹은 석탑의 부재들이 다수 사용되었으며, 고대 사찰 초석 등에서 보이는 고막이 초석 등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전면 3칸, 측면 4칸 규모에 전면에 개방형 퇴칸을 둔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장대석 이벌대로 가지런히 쌓은 단층 기단 위에, 주좌가 있는 원형주초와 방형 주초 및 8각의 연화문초석, 석탑 옥개석으로 보이는 초석 등을 혼용하였다. 또한 전면 기단 중앙에 계단이 위치했던 부분에 사용되었던 장대석이 있다. 어칸의 디딤돌도 석탑의 옥개석으로 보이며 인근의 폐사(廢寺) 부재를 사용하였다.

원형 기둥을 사용하였으며,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를 깔았다. 전면 어칸에는 두 짝 여닫이 세살문을 달고 좌우 협칸에는 어칸 기둥 쪽에 붙여 외짝 세살문을 두었다. 벽체는 창방이하 판벽으로 두고 창방 이상은 심벽을 구성하였다. 좌우 측벽에서 종보 하단과, 대들보 상단 후면 평주와 후면 고주 사이 벽에는 방형의 환기창을 두었다.

기둥머리에는 외1출목 2익공의 익공을 결구하였고, 전면에는 각 칸에 1개씩의 화반을 올렸는데, 화반의 형태는 소로를 3개 끼웠으며 연꽃장식을 한 장화반(長花盤)이다. 후면은 각 칸 마다 세 개씩의 화반을 놓았는데 전면 화반과 형태가 다르다. 살미의 형상은 단부를 사절하고 앙서와 수서를 혼용하였으며, 연꽃과 연봉을 첨가시킨 장식이 과다한 수법을 보이고 있다. 첨차는 주심첨차와 행공첨차로 구성되며 그 형상은 마구리를 사절시키고 하부는 초각한 형태이다. 툇보머리를 외출목 바깥까지 내밀고 봉황두를 초각하여 끼워 넣었으며, 후면에서는 주심첨차를 생략하고, 보머리를 외목도리 안쪽에 놓았으며, 외단에는 봉황두를 새겨 결구하였다. 출목간에는 순각판을 얹었으나 단청은 하지 않았다.

가구(架構)의 구성은 어칸에서 1고주 7량가, 측벽에서 2고주 7량가로 구성하였다. 대들보는 자연재를 사용하였으며, 고주에서 툇보 뒷뿌리 상단에 바로 외단을 직절한 보머리를 내

밀어 결구하였고, 그 위에 중보 머리를 두었다. 가구 구성이 매우 특이한데, 대개 7량가에서 전면에 고주를 둔 경우 중보는 고주와 후면 중대공 위에 결구되는데, 여기서는 중보가 없는 대신 중대공과 종중대공의 동자주 측면에 단면이 장혀와 유사한 부재를 연결하였다. 중대공은 짤막한 동자주로 되어 있고, 포대공으로 구성된 종중대공은 대들보 위에 놓여있으며, 종보 중앙에 제형 판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았다. 측벽에서는 전후 고주에 툇보를 결구하고, 고주 위에 중보를 놓은 다음 중종대공을 놓고 종보를 받았다. 또한, 어칸에서 대들보의 후면에 중대공과 후면 평주 사이에 원형의 기둥을 세워 바로 대들보를 받고 있는데, 이는 어칸에 감실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향교 대성전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다.[5]

지붕은 전면만 겹처마로 두었으며,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고, 좌우 측면에는 하단이 호형(弧形)인 풍판을 달았다. 모로단청으로 마무리하였고, 전면 어칸 상단에 '大成殿' 현판을 걸어두었으며, 현재의 건물은 2001년도에 중건된 건물이다.[6]

(2) 동서무(東西廡)

동서무는 전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전면에 퇴칸을 구성한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낮은 장대석 기단 위에 원형 주좌를 둔 대성전과 같은 초석을 놓아 전면에만 원형 기둥을 세우고 나머지는 방형 기둥을 세웠다. 내부는 통칸으로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어칸 전면에는 두 짝 세살문을 달았다. 좌우 측면에는 중방 상부에 만(卍)살 광창을 두었으며, 대들보 상단 종대공 건물 후면쪽으로 환기용의 아무런 살대를 구성하지 않은 작은 방형 창을 내었다.

기둥머리에는 창방을 생략한 초익공을 구성하였다. 전후면의 익공재 외단과 주심첨차 형태는 다른데, 전면의 익공재 외단은 초각한 반면 후면은 직절하고, 전면의 주심첨차와 달리 후면은 방형의 첨차를 결구하였다. 가구는 3량가이나 퇴칸을 구성하기 위에 평주와 같은 높이의 고주를 두었다.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제형 판대공을 두었다. 긋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첨차 마구리에 태평화문양을 도채한 점이 이채롭다.

(3) 신문(神門)

신문은 전면 1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신문을 경계로 전후 단 차이가 있어, 전면의 기둥이 후면보다 크다. 자연석 초석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웠으며, 그 위에 3량가를 구성하였고, 대들보 중앙에 짤막한 동자주를 두었다. 규모는 단 칸이나 중앙렬에는 3칸으로 구분하여 가운데 칸에 쌍여닫이 판문을, 좌우칸에는 외여닫이 판문을 내었다. 판문 전후면에는 삼태극을 도채하였으며, 긋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

5)_ 경주향교 대성전의 경우 어칸 후면에 고주를 두어 우물반자를 구성하였으나, 순흥향교에서는 별도의 처리 없이 기둥만을 받쳐 두었다.

6)_ '順興鄕校大成殿上樑文(순흥향교대성전상량문)', '(전략)... 辛巳春分節 原成均館副館長 達成 徐丙極 謹撰', 成均館, 「校宮大觀」, 成均館, 2003 : p.820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전면 4칸, 측면 3칸 규모에 전면에 퇴칸을 구성한 익공계 팔작지붕 건물이다.

전면에 놓인 7단의 계단 가운데 위에서 네 번째 단에는 8각형의 석등재로 추정되는 석재가 놓여져 있으며, 전면 평주열 초석에 고막이 초석 등이 사용되고 있다.

단층 기단 위에 초석을 놓은 후 전면과 배면에만 원주를 세웠다. 평면 중앙 2칸을 협칸보다 1척 정도 좁게 하여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협칸은 전후 통칸 온돌방으로 전면 반 칸을 툇마루로 구성하였다. 당(堂) 전면은 쌍여닫이 궁널띠살문을 2군데에 설치하고 툇마루로 통하는 부분도 외짝 여닫이문을 달았는데, 나중에 설치한 것이다. 당 배면은 모두 두 짝 여닫이문을 내고 있다. 실(室) 전면은 쌍여닫이 띠살문을 달고 대청과 면하는 부분도 각 칸마다 외여닫이문을 달았다. 전면 좌우 퇴칸 기단 상면에 아궁이를 두고 후면에도 각각 굴뚝을 내었다.

기둥머리에 창방을 결구시키고 각 칸마다 1개씩 방형 판화반을 설치했으며, 기둥 위에는 공포를 구성하여 외1출목 2익공으로 하였다. 살미의 형상은 쇠서로 하여 촛가지를 길게 빼내고 있으며, 각 살미 하부에는 따로 연봉을 만들어 꽂아 놓은 것이 재미있다. 대들보 머리를 외목도리 밖까지 빼내고 봉두(鳳頭) 형상으로 초각한 부재를 대량 머리에 꽂아 놓았다.

가구는 5량가로, 3분변작의 위치에 동자주를 높이 올려 보아지와 첨차를 결구시킨 다음 포대공을 형성하여 장혀와 중도리 및 종보를 받게 하였다. 종보 위에는 폭이 넓은 제형판대공을 세워 첨차를 끼워놓고 종도리와 장혀를 받치고 있다. 특이하게도 동실 서벽에는 좌측 어칸 좌우에 사용된 두툼한 대들보 대신 세로로 긴 장방형의 보를 사용하였으며, 중대공이 비교적 긴 동자주로 되어 있다. 지붕의 합각 부분이 매우 작은 것으로 보아, 측면 어칸 기둥 상부에 연결된 충량 머리가 중도리로 구성된 외기 위에 얹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처마는 서까래에 부연을 단 겹처마로 구성하여 팔작지붕을 올렸다. 막새기와는 쓰지 않고 아귀토로 마감하였으며, 용마루 좌우에 머거블 대신 숫기와 1개를 세워 장식하였고, 모로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당 서측벽 상단에 '明倫堂'현판을 걸었으며, '順興明倫堂移建記(순흥명륜당이건기)'라는 기문 말미에 '庚午仲秋東□申宗夏記'라 되어 있다.[7] 현재의 명륜당은 2001년에 중건한 것이다.[8]

(2) 동재(東齋)

동재는 전면 2칸, 측면 2칸 규모에 전면에 개방형 퇴칸을 둔 민도리계 팔작지붕 건물이다. 내부는 통칸으로 온돌방을 꾸몄으며, 전면 퇴칸에는 툇마루를 가설하였다. 단층 기단 위

7)_ 1750년과 1790년에 향교를 이건한 전후 경오(庚午)년은 1750년과 1810년이다. 신종(申宗)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으로 보아 1750년의 기록으로 보인다.

8)_ '順興鄕校明倫堂上樑文(순흥향교명륜당상량문)', 기문 말미에 '辛巳春分節 原成均館副館長 達成 徐丙極 謹撰'이라 되어 있어, 2001년에 중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成均館,『校宮大觀』, 成均館, 2003 : p.821

에 방형 기둥을 세웠으며, 남측기단 상면에 아궁이를 두고 북측기단 상면에 굴뚝을 내었다. 단청은 하지 않았으며, 기둥 일부는 자연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3) 영귀루(詠歸樓)

영귀루는 전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초익공계 홑처마 맞배지붕 중층 누각 건물이다.

경사진 지형으로 인하여, 전면에는 이중의 기단을 조성하고, 그 위에 덤벙주초를 놓아 원형 기둥을 세웠다. 하층은 벽체 없이 사방을 개방하였으며, 동측 협칸 후면칸에 상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두었다. 상층 기둥은 방형 기둥을 사용하였으며, 전면 각 칸에는 두 짝 판문을 달고 창방 상부와 좌우측벽은 심벽을 구성하였다. 후면은 벽체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기둥머리에는 외단을 직절한 초익공재를 결구하였고, 주간에 소로를 수장하였다.

가구는 5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3분변작의 위치에 높직한 굽을 둔 주두를 놓아 종보를 받았다. 종보 중앙에는 제형 판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았으며, 지붕은 전후면 홑처마로 풍판은 두지 않았다. 전면 어칸 상부에는 '詠歸樓'현판을 걸어두었으며, 전면 서측 퇴칸 전면에 안내판을 두었다.

다. 기타

기타 건물로는 교직사와 화장실, 협문 등이 있다. 교직사는 'ㄷ'자형 평면의 전형적인 살림집으로, 단층 기단 위에 방형 기둥을 세우고,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대들보는 자연재를 사용하였으며, 중앙에 동자주를 두어 종도리를 받았다. 동측 행랑의 전면에는 툇마루를 구성하였으며, 서측 행랑의 남쪽 한 칸을 부엌으로 두고, 중앙 2칸을 대청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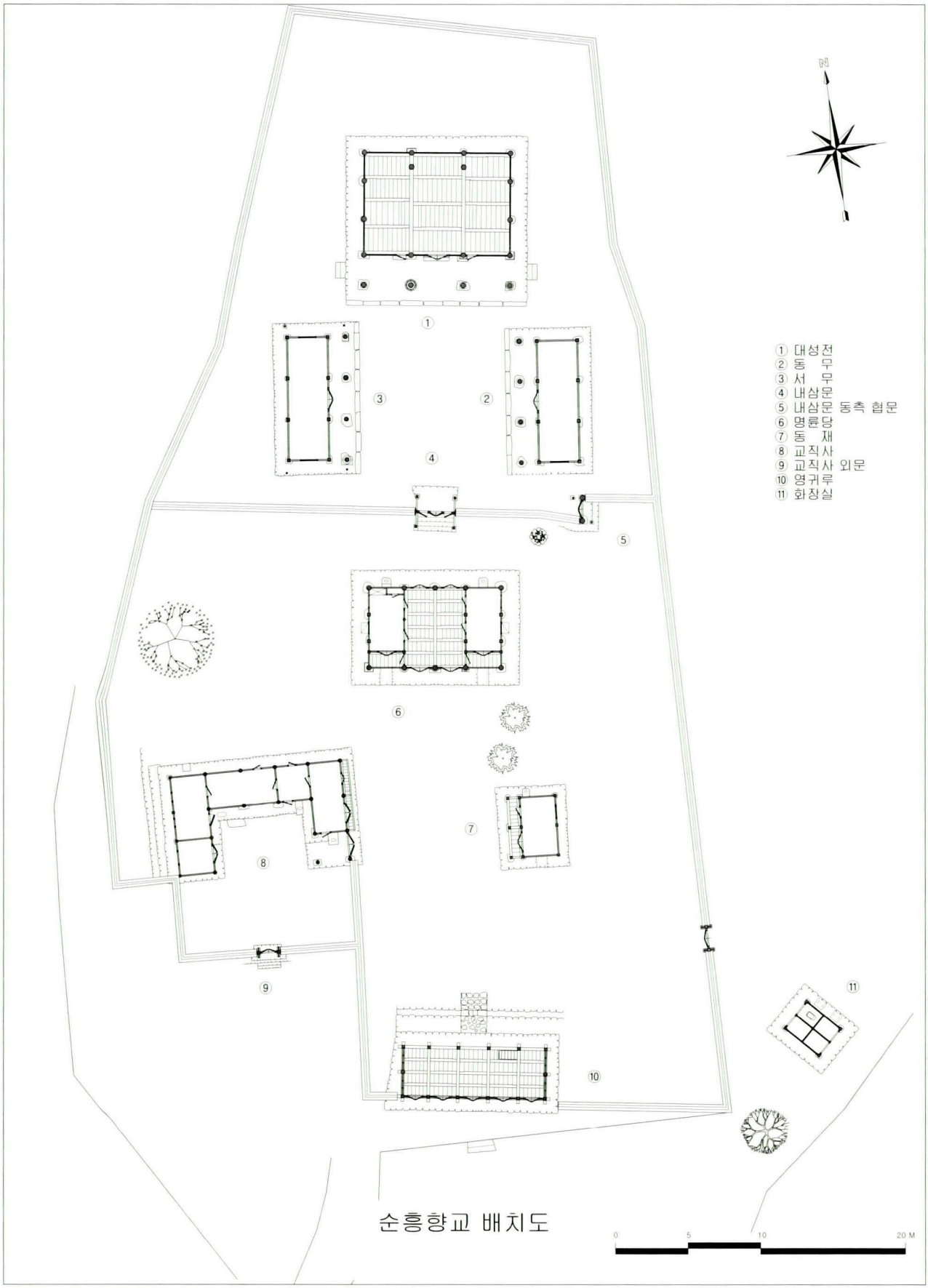
화장실은 향교 외곽 남동쪽 약간 언덕진 곳에 자리잡고 있는데, 사방 단 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박공면에 출입문을 두었다.

협문은 모두 4개가 있는데, 하나는 동무 남측에 위치하고 있다. 일각문으로는 비교적 굵직한 원형 기둥을 사용하였으며, 전면 우측과 후면 좌측의 기둥은 담 위에 지지되어 있다. 규모는 작으나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고, 두 짝 판문을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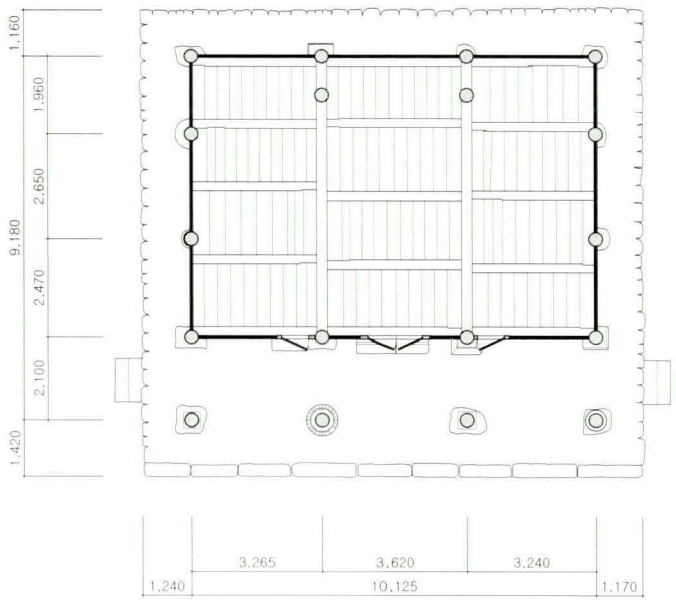
다른 하나는 동재 후편 담 중간에 자리잡아 외부 화장실로 통하고 있다. 2001년도에 건립하였으며, 두 짝 판문을 달았다. 나머지 두 개는 교직사 영역에 있는데, 하나는 교직사로 통하는 정면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에 두 짝 판문을 달았다. 마지막 하나는 교직사 동측 행랑 남쪽에 바로 면하여 있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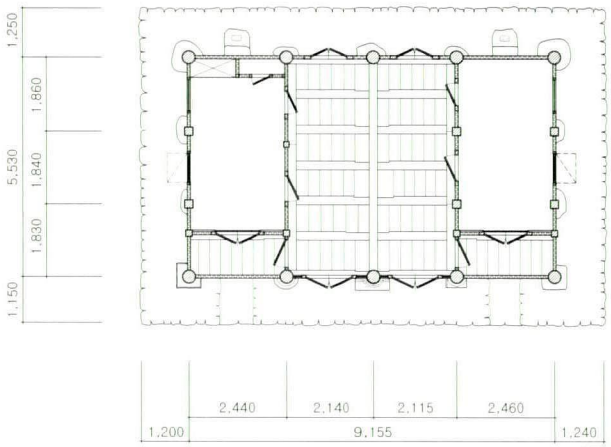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순흥향교(順興鄕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47호(일곽)
창건시기	고려 말(추정) 조선 숙종 9년(1683, 재창건)	입 지	구릉지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향교재단
좌 향	정남향 (영귀루 정남향)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齋後堂 종축 1개
중건시기	1718 이건 1750 이건 1770 현 위치로 이건 2001 대성전, 명륜당 중건	대지조성	3단 : 명륜당, 신문 기준
설 위	5聖, 宋朝 6賢, 海東 18賢	인접시설	금성대군 사리기, 소수서원
건축구성	대성전, 동서무, 신문, 명륜당, 동재, 영귀루, 교직사, 화장실, 협문 4동		
특기사항	제향영역을 둘러싼 담은 암기와를 세로로 세워 방향을 교대로 바꿔 쌓은 와장(瓦墻)임 향교 전역에 걸쳐 불교와 관련된 석물, 즉 탑재, 석등재 등이 계단, 초석으로 사용됨 교직사의 평면형태가 'ㄷ' 자형으로 되어 있음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3×4칸, 전1퇴칸 / 외1출목 2익공 / (전면)겹처마 (후면) 홑처마 맞배지붕 / 1고주(어칸) · 2고주(측벽) 5량가 / 우물마루 / 연등천장 / 주칸 어칸 3620 협칸 (평균)3253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이벌대 / 장대석 바른층쌓기 없음(기단면에 흔적이 남아 있음)	보	대들보 : 전고주 후평주 걸침(어칸) 종 보 : 4분변작
초 석	정평주초 / 원형 주좌, 연화문 등 다양함	도 리	7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대 공	중대공 : 동자주 중종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판대공
공 포	외1출목 2익공 / 보머리 직절 후 봉황두 초각재 끼움	창 방	방형 / 뺄목 직절
처 마	(전면) 겹처마, (후면) 홑처마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판벽+심벽 / 모로단청 / 연등천장 / 우물마루		
특기사항	초석에 다수의 불교관련 석재 및 석등재 등이 사용되었음 기단 전면에 계단을 두었던 흔적이 남아 있음 7량가의 가구로 중보를 생략하고 중대공과 중종대공을 잇는 부재로 대치하였으며, 중종대공이 대들보 위에 바로 놓임 창방 이하 벽체가 판벽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후면의 주상포, 화반 구성이 각각 다름		
명륜당 건축 요소			
개 요	4×3칸 / 외1출목 2익공 / 겹처마 팔작지붕 / 5량가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지반자 / 주칸 어칸(평균) 2128 협칸 2450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장대석 이벌대 전면 1개 (7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3분변작
초 석	정평주초 / 원형 주좌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방형기둥	대 공	중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판대공
공 포	외1출목 이익공	창 방	말각방형 / 뺄목 익공재 초각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 붕	팔작지붕
수 장	심벽 / 모로단청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지반자		
특기사항	동실 서벽의 대들보는 서측어칸 좌우의 대들보와 달리 장혀와 유사한 단면으로 구성됨 전후면과 측면의 기둥이 원형과 방형으로 각각 다름 중량 뒷뿌리의 결구 위치가 대들보가 아닌 외기로 추정됨		


N
① 대성전
② 동 무
③ 서 무
④ 내삼문
⑤ 내삼문 동측 협문
⑥ 명륜당
⑦ 동 재
⑧ 교직사
⑨ 교직사 외문
⑩ 영귀루
⑪ 화장실
0
5
10
20 M

순흥향교 배치도



순흥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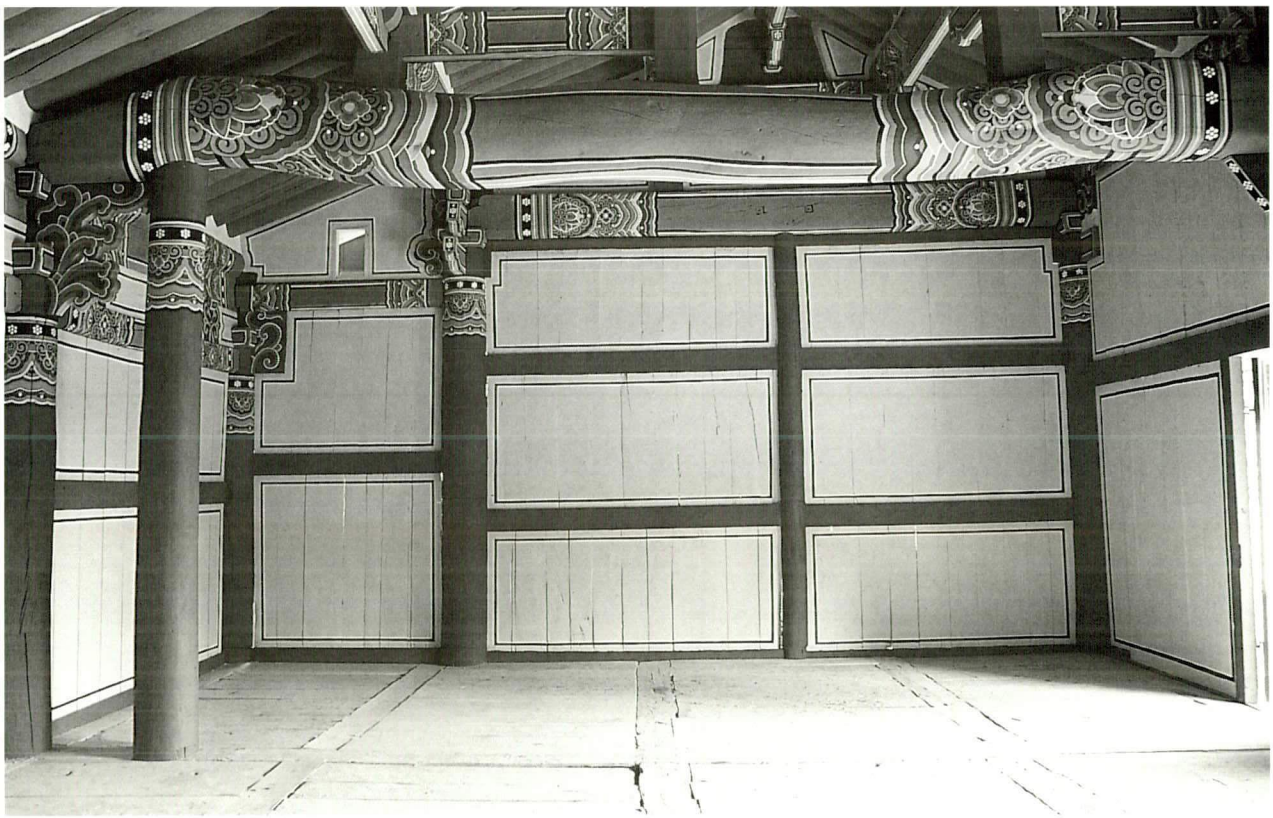


순흥향교 명륜당





대성전



대성전 내부



대성전 전면 퇴칸



대성전 전면 어칸 주상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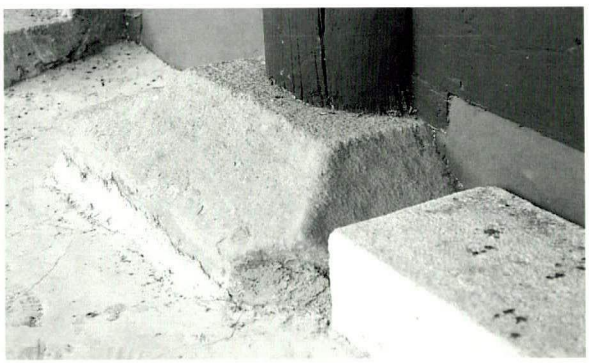
대성전 전면 주간 화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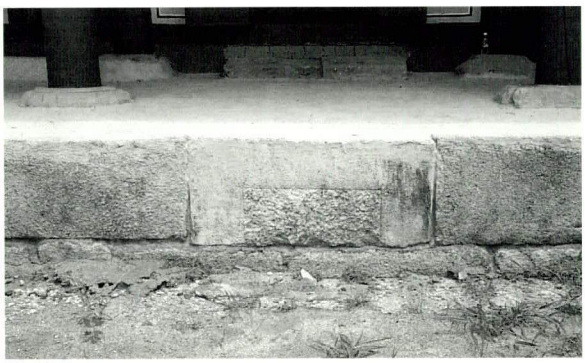
대성전 전면 평주 초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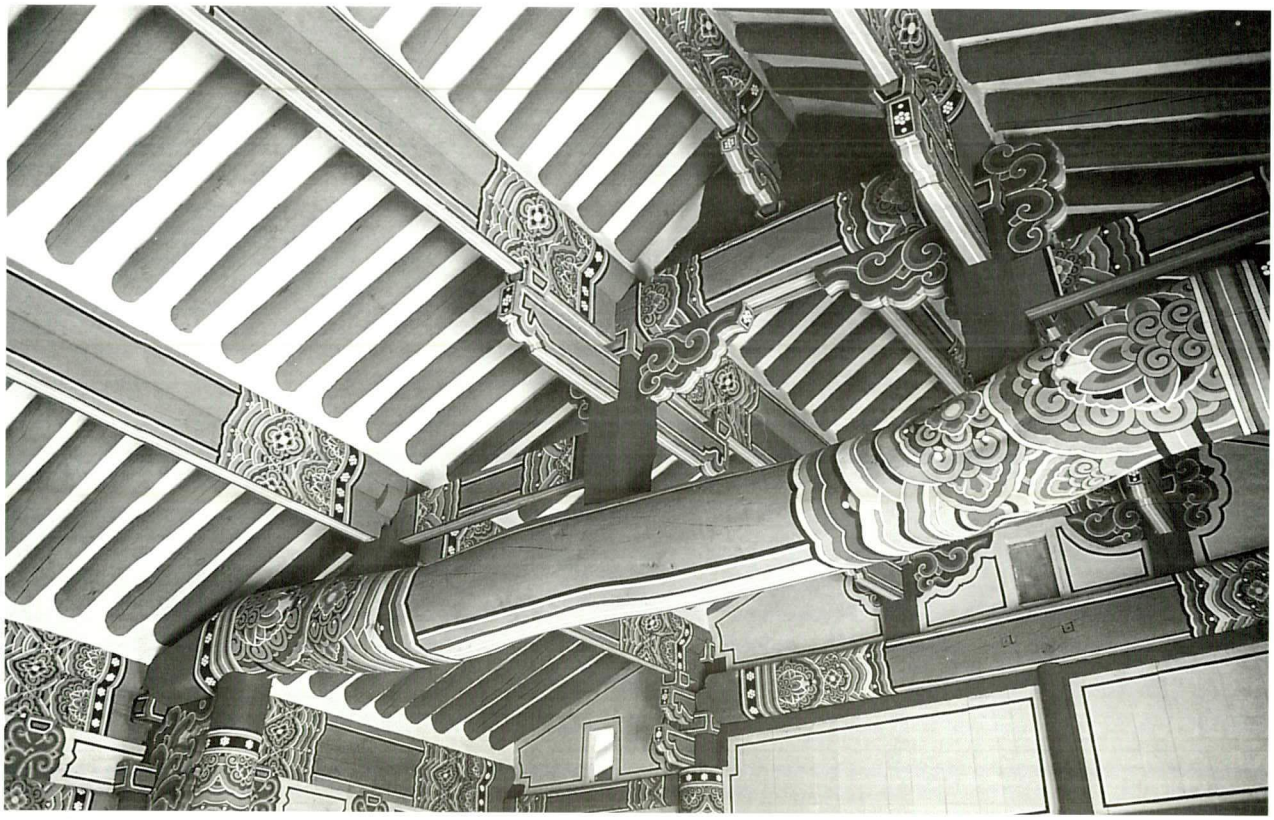
대성전 전면 평주 초석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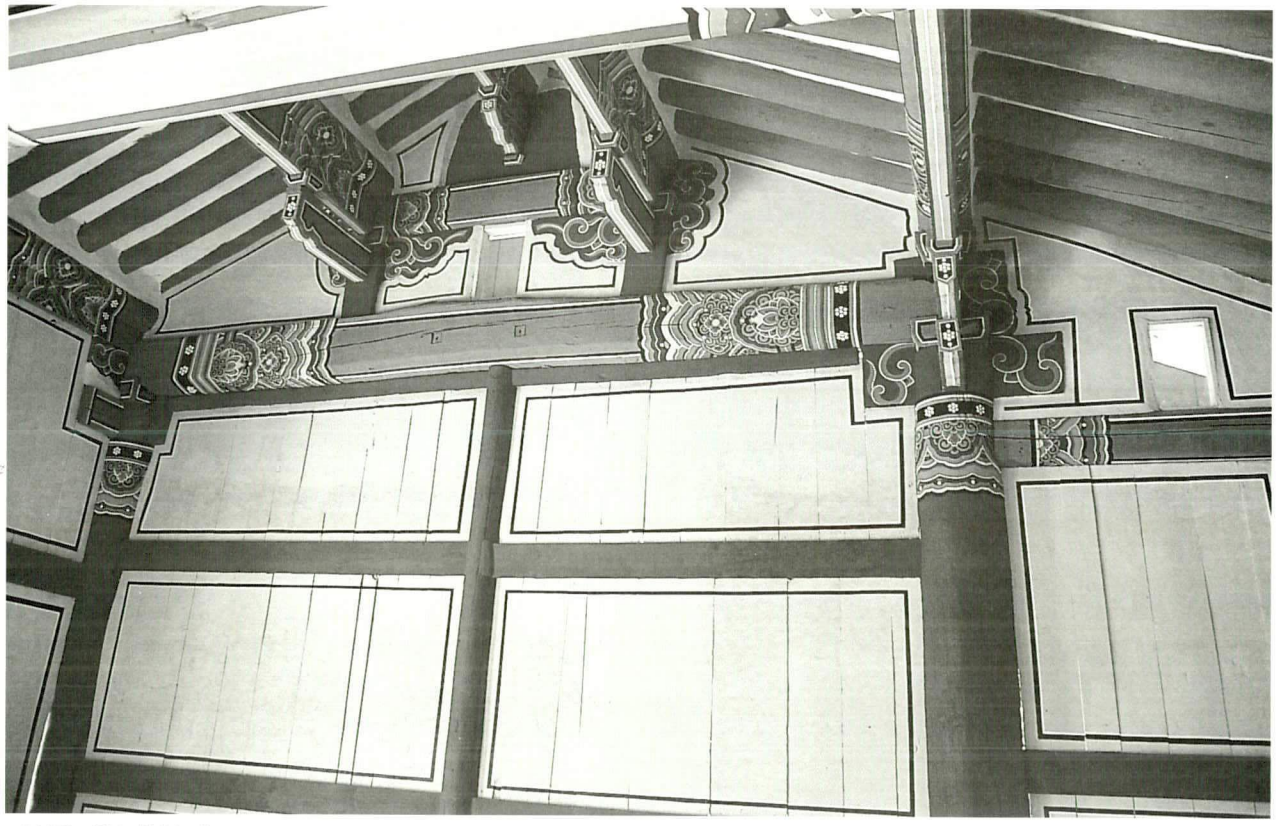
대성전 전면 고주 초석



대성전 기단 전면 상세



대성전 내부 어칸 가구



대성전 내부 측벽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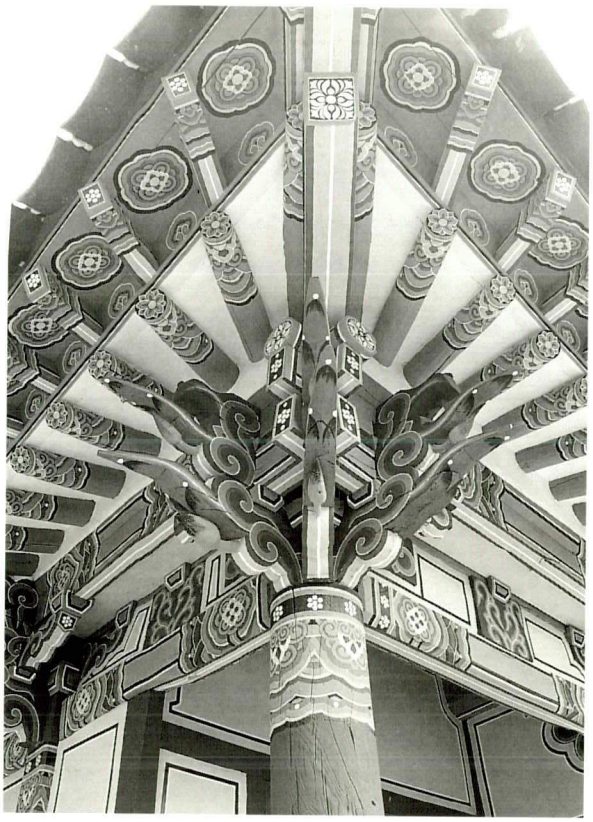
명륜당



명륜당 내부



명륜당 측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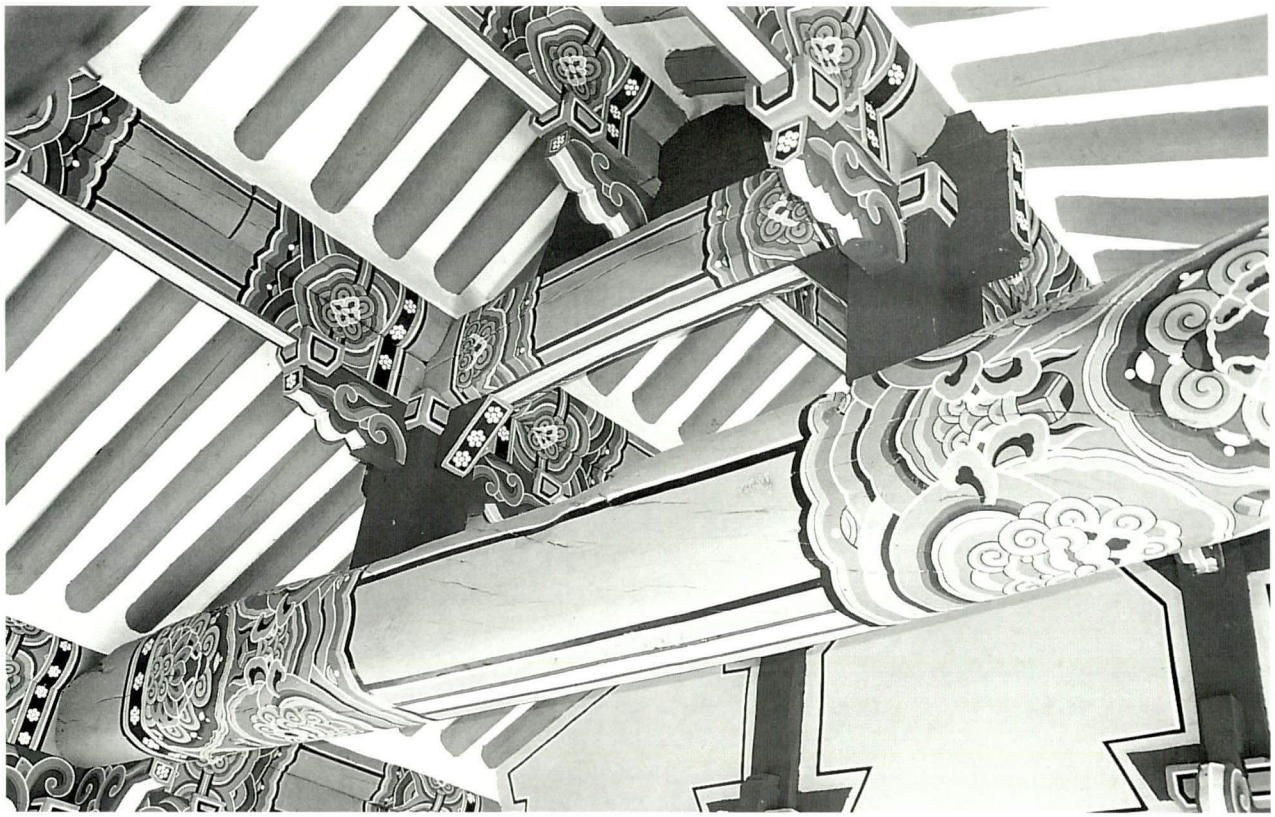
명륜당 귀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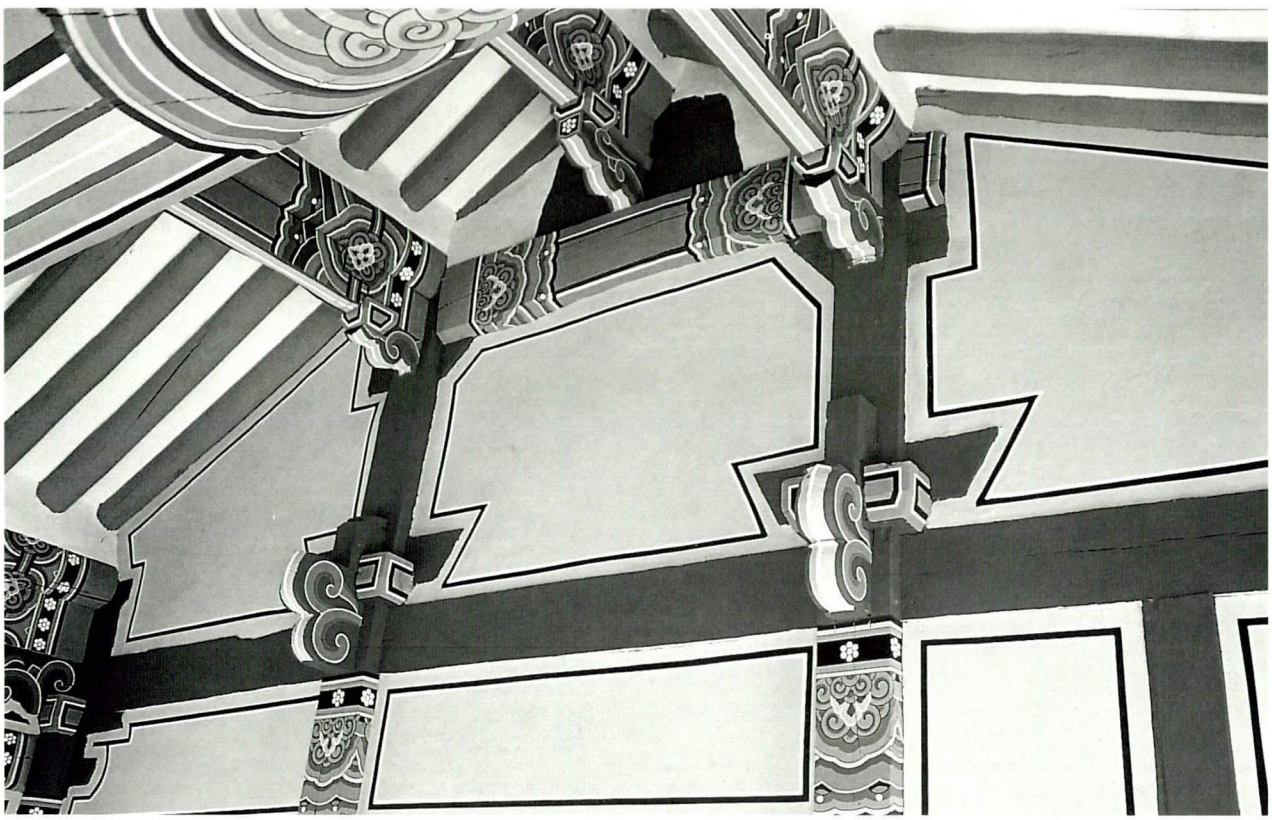
명륜당 전면 주상포



명륜당 전면 평주 초석



명륜당 내부 어칸 가구



명륜당 내부 협칸 가구



동무



서무 및 전면 주상포



영귀루



영귀루 상층 내부 가구



동재



신문



교직사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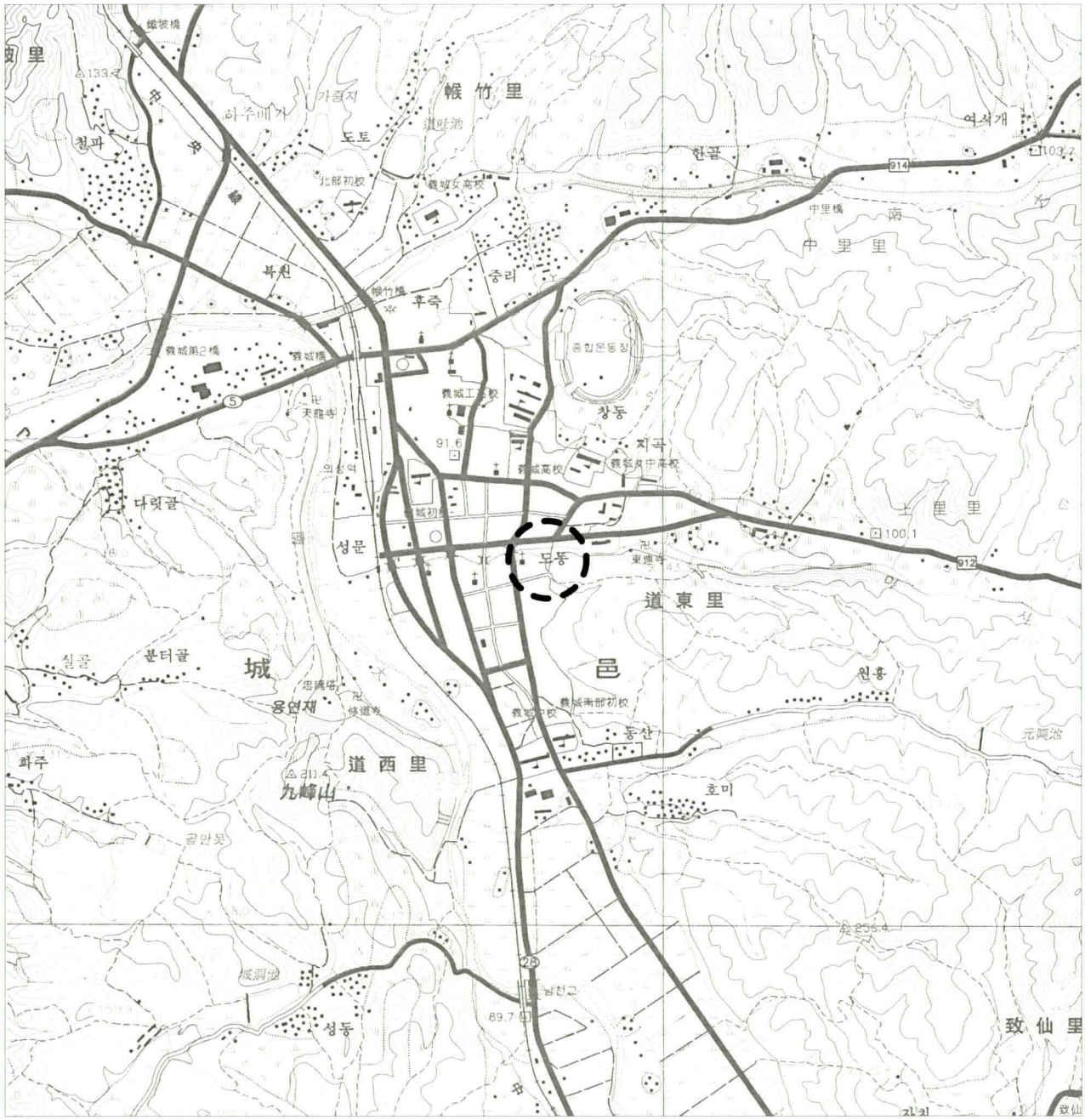


내삼문 동측 협문



10.의성향교(義城鄕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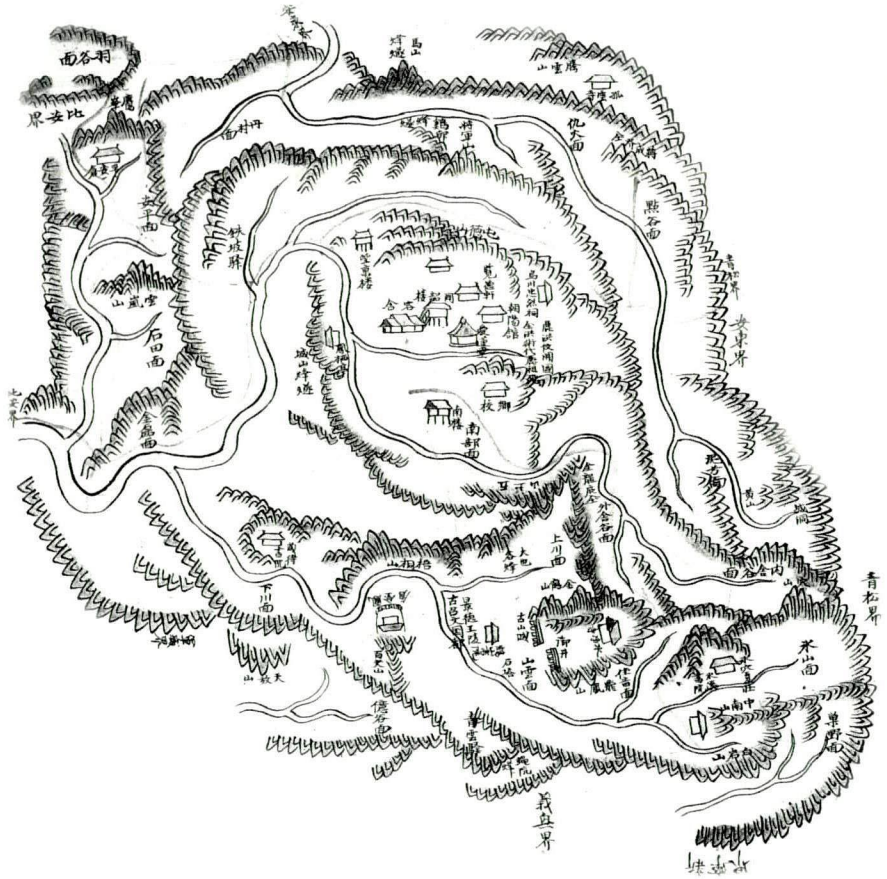
- 지정사항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50호(일곽)
- 지 정 일 : 1982년 2월 24일
- 소 재 지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808
- 건축구성 : 대성전, 대성전 외사주문, 명륜당, 동서재, 광풍루, 외사주문, 교직사, 비각, 화장실, 협문 3 등



1. 연혁

『義城縣誌(의성현지)』의 건치연혁에 의하면 의성은 본래 소문국(召文國)이었으나 신라가 벌휴왕(伐休王) 2년(185)에 이를 취하였고, 경덕왕은 그 동생의 두 아들을 여기에 봉(封)하고 이름을 고쳐 문소군(聞韶郡)이라 하였다(757). 고려 초에 승격하여 의성부(義城府)가 되었으나 현종 때 안동부(安東府)에 소속되었다. 인종 21년(1143) 현령을 두었으나 신종(神宗) 때 적(賊)에게 함락되어 항복하였다 하여 감무를 두게 되었다. 충렬왕 때 대구(大丘)에 병합되었지만 얼마 후 다시 현령을 두게 되었다.[1] 고종 32년(1895) 제도개혁으로 군수를 두었으며, 1907년에는 비안(比安) 일부가 내속(來屬)되었고, 1914년 구(舊) 용궁(龍宮) 일부를 제외한 비안군이 내속되었다. 같은 해 군 일부를 군위군에 할양(割讓)하였다.

이와 같은 연혁을 가진 의성의 향교는 의성읍 도동동 동산(東山) 위에, 오토산(五土山)과 금성산(金城山)이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옛날 문소군 초기에 공자묘(孔子廟)가 있었다 하니 이는 약 1200여 년 전의 일이다. 당시에는 공자를 비롯한 5성을 제향(祭享)하는 문묘(文廟)의 구실만 한 듯하고 그 위치는 "在縣東一里"[2]라 했으니 현재의 중리동 아사천(衙舍川) 인근이 아닌가 추측된다. 공자묘는 고려 초 이후 향교의 역할까지 겸했으나 점점 쇠퇴해졌다. 조선 왕조의 태조가 개국한 이후 퇴락한 건물을 복건(復建)하였다(태조 3년, 1394년으로 추측). 성종 홍치(弘治, 1488-1505) 연간에 현령 이종준(李宗準, 號 傭齋)이 현재의 동산으로 이전하였으며,[3] 인종 1년(1545)에 한 차례 증축, 중수하였고, 임진왜란 때 왜적이 방화하여 소실되었다. 전후



義城縣

1)__ 재인용, 『慶北鄕校誌』(경상북도 · 영남대학교, 1991), p.601 ; 『高麗史』卷 5, 地理 2, 義城條

2)__ 재인용, 위의 책, p.601 ; 『義城縣誌』(1895), 學校條

3)__ '聞韶鄕校聖殿重修記(문소향교성전중수기)', 成均館, 『校宮大觀』, 成均館, 2003 ; pp.898-902

(戰後)인 선조 35년(1602)에 현령 허민중(許旻重)이 복원하였으며 이 시기에 동서무를 건립하였다. 선조 36년(1603)에는 대성전 내 위판(位版)일부가 없어져 당시 경상감사 이시발이 사건을 조사하였다.[4] 현종 11년(1670)에 현령 이당규(李堂揆)가 확장하였고, 숙종 7년(1681)에 대성전을 보수하였다.[5] 1700~1800년 사이에 수차에 걸쳐 보수되었다. 특히 영조 21년(1745)에 대성전과 명륜당이 중건(重建)되었으며, 영조 38년(1762)에 대성전[6]과 광풍루가 중수되었다. 순종 5년(1805)에는 전답을 매수(買收)하고 교궁도 보수하였다. 영조 11년(1787) 혹은 헌종 13년(1847)년에 대성전을 중수하였다.[7] 1830~1900년 사이에 다수의 중수가 있었으며, 철종 2년(1851) 신해(辛亥)년에 대성전에 빗물이 새어 연목과 기와를 교체하였다.[8] 고종 8년(1871)에는 대성전, 명륜당, 광풍루의 서까래와 기와를 교체하고, 단청을 하였다.[9] 고종 26년(1889)에 대성전을 중수하였으며,[10] 고종 27년(1890)에 감사 민시중(閔蓍重)이 대성전을 확장 중건하였다.[11] 1910년에는 광풍루를 중수하였으며, 1921년에 명륜당을 중건하면서 대성전, 대성전 정문, 서협문, 공수고(供需庫), 서재 등을 보수하고 광풍루에 난간을 덧붙였다.[12]

일제시대에는 전반적으로 향교 기능이 위축된 상태였으나 유림의 노력으로 1930년에는 위토(位土)를 정비(整備)하고 묘당(廟堂)·루원(樓垣)·상탁(床卓)을 개수(改修)하였다.[13] 해방 후 1950년에는 한국전쟁으로 위판이 소실되었으나 1954년에 복향(復享)하였다.

1968년에 향교 일곽을 보수하였으며,[14] 1971년에 광풍루를 중수하고,[15] 1980년에 대성전을 중수하였다.[16] 1982년에는 명륜당과 광풍루를 보수하였고,[17] 1991년에 서재를 신축하였으며,

---

4)__ 『朝鮮王朝實錄』, 宣祖 36년 12월 9일 경인

5)__ 대성전 암막새에 남아 있는 명문에는 강희(康熙) 20년 신유(辛酉)년, 즉 숙종 7년(1681)이라 되어 있는데, 이 시기의 기록은 현재 찾을 수 없으며, 보수의 범위 또한 정확히 알 길 없으나 최소한 산자 이상 해체 보수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6)__ '聖殿重修記(성전중수기)', 成均館, 『校宮大觀』, 成均館, 2003 ; pp.909-911

7)__ '鄕校聖殿重修與脯牛變通記(향교성전중수여포우변통기)', 기문 말미에 '上之十二年丁未十二月'로 되어 있으나 맞는 해가 없으며 다만, 1787년 혹은 1847년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成均館, 위의 책, pp.907-909

8)__ '聖殿重修記(성전중수기)', 기문 말미에 '丙辰嘉平下澣'이라 되어 있어 1856년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成均館, 위의 책, pp.916-918

9)__ '鄕校重修記(향교중수기)', 기문 서두에 '聖上八年辛未', 기문 말미에 '龍集甲戌二月上澣' 이라 되어 있어 1874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成均館, 위의 책, pp.918-920

10)__ '聖殿重修記(성전중수기)', 기문 중에 '金上二十六年己丑'으로 되어 있고, 기문 말미에 '歲己丑重陽月'이라 되어 있어, 1889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成均館, 위의 책, pp.923-925

11)__ '聞韶鄕校聖殿重修記(문소향교성전중수기)', 기문말미에 '康熙庚戌後二百二十一年庚寅具月上澣'이라 되어 있어 1890년에 작성된 기문임을 알 수 있다. 成均館, 위의 책, pp.898-902

12)__ '明倫堂重建記(명륜당중건기)', 기문 중간에 중건 및 보수 기록을 언급하면서 '辛酉'라 하였고, 기문 말미에 '孔夫子誕降二千四百七十三年壬戌仲春' 이라 되어 있어 1921년에 중건하고, 기문은 다음 해인 1922년에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成均館, 위의 책, pp.930-933

13)__ '文廟重修記(문묘중수기)', 기문 말미에 '孔夫子誕降後二千四百八十一年 庚午'라 되어 있어 1930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成均館, 위의 책, pp.933-934

14)__ '義城鄕校重修記(의성향교중수기)', 기문 말미에 '孔夫子誕生二千五百十九年戊申仲秋日'이라 되어 있어 1968년에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成均館, 위의 책, pp.936-938

15)__ '義城鄕校光風樓重修記(의성향교광풍루중수기)', 기문 말미에 '隆熙庚戌後再辛亥三月己巳'라 되어 있어 1971년에 기문을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곽을 보수하였다. 이후 1992년과 1993년, 1994년, 1997년에 각각 보수하였다.

의성향교의 중수기(重修記)는 실로 많아 19건에 이르고 있다. 『義城鄕校誌(의성향교지)』에 실려 있는 중수기의 제목과 기(記)의 저술인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연번	기 문 명	저 술 인
1	聞韶鄕校聖殿重修記(문소향교성전중수기)	南夢賚(남몽뢰, 1890)
2	鄕校聖殿重修與脯牛變通記(향교성전중수여포우변통기)	申述模(신술모)
3	聞韶聖殿重修記(문소성전중수기)	申俊模(신준모)
4	題目缺(제목 없음)	申大奎(신대규)
5	題目缺	未詳
6	聖殿重修記(성전중수기)	金養植(김양식)
7	鄕校重修記(향교중수기)	金驥善(김기선)
8	韶州鄕校重修記(소주향교중수기)	金魯善(김노선)
9	聖殿重修記(성전중수기)	李澈在(이철재)
10	鄕校重修記(향교중수기)	申仁植(신인식)
11	鄕校光風樓重修記(향교광풍루중수기)	金壽璜(김수황)
12	題目缺	金幹裕(김간유)
13	義城明倫堂重修記(의성명륜당중수기)	具琬(구완, 1922)
14	文廟重修記(문묘중수기)	申鐘榮(신종영, 1930)
15	題目缺	申炳鉉(신병현)
16	義城鄕校重修記(의성향교중수기)	朴在九(박재구, 1968)
17	義城鄕校重修費慮成錄(의성향교중수비헌성록)	具洪書(구홍서, 1968)
18	大成殿重修記(대성전중수기)	權正寅(권정인, 1980)
19	義城鄕校重修記(의성향교중수기)	李壽洛(이수락, 1982)

의성향교의 자료는 1988년에 발간된『義城鄕校誌』에 일괄 수록되어 있으며 필사본 등 원자료는 거의 멸실된 상태로 보인다. 이 향교지의 내용을 보면 향교의 유래, 향교의 연혁, 의성의 향약, 의성향교의 권과절목(勸課節目), 기문 등의 자료가 있으며, 여기에는 20여 건의 향교 관련 중수기(重修記), 축문(祝文)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義城鄕校學資記(의성향교학자기)'[18], '學令(학령)'[19] 등 다수의 기문이 명륜당 내에 걸려 있다.

16)_ '大成殿重修記(대성전중수기)', 중수기간은 무오(戊午)년 봄부터 기미(己未)년 가을까지로 1978년에서 1979년 사이에 중수되었고, 기문 말미에 '檀紀四千三百十三年庚申三月下澣'이라 되어 있어 기문은 1980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成均館,『校宮大觀』, 成均館, 2003 ; pp.940-94

17)_ '義城鄕校重修記(의성향교중수기)', 기문 말미에 '孔子紀元二千五百三十三年壬戌八月'이라 되어 있어 1982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成均館, 위의 책, pp.942-943

18)_ 기문 말미에 '嘉靖二十四年十二月初十日'이라 되어있어, 조선 인종 1년(1545)의 것임을 알 수 있다.

19)_ 기문 말미에 '正德十二年七月日'이라 되어 있어, 조선 중종 12년(1517)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창건 이후의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94	창건
1488-1505	이건
1545	향교 일곽 중수
임진왜란 중	화재로 소실
1602	향교 일곽 중건, 동서무 건립
1670	향교 확장
1681	대성전 보수
1745	대성전, 명륜당 중건
1762	대성전, 광풍루 중수
1805	향교 일곽 보수
1787(1847)	대성전 중수
1851	대성전 서까래 이상 해체 보수 및 번와
1871	대성전, 명륜당, 광풍루 서까래 이상 해체 보수 및 번와, 단청
1889	대성전 중수
1890	대성전 확장 중건
1910	광풍루 중수
1921	명륜당 중건 및 대성전, 대성전 정문, 서협문, 공수고(供需庫), 서재 보수
1930	위토 정비, 묘당 · 누원 · 상탁 개수
1950	한국전쟁으로 위판 소실
1954	위판 복향
1968	향교 일곽 보수
1971	광풍루 중수
1980	대성전 중수
1982	명륜당, 광풍루 보수
1991	서재 중건, 향교 일곽 보수
1992	향교 일곽 보수
1993	향교 일곽 보수
1994	향교 일곽 보수
1997	향교 일곽 보수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는 대성전, 대성전 외사주문, 명륜당, 동서재, 광풍루, 외사주문, 교직사, 비각, 화장실, 협문 3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입지 및 배치

의성향교는 의성군 읍내 농협에서 군청방향으로 월정사 입구 표지판을 지나 의성침례교회 표지판이 위치한 곳의 맞은 편(길 우측 골목)으로 들어가서 약 10m 가량을 직진한 곳에 널찍하게 자리잡고 있다.

의성향교는 대성전이 동측 전방의 높은 터에, 명륜당은 서측 후방의 낮은 터에 각각 별개의 방형 일곽 토담 속에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병렬축의 좌묘우학(左廟右學)으로 정형(定型)에서 벗어난 특이한 배치를 보이고 있다. 의성향교는 소설위(小設位)로, 대성전 앞에 동서무가 없으며, 경내의 정면과 측면에 사주문을 두어 출입을 가능케 하였다. 명륜당 앞의 서재는 허물어지고 동재만 남아 있었으나 1991년에 서재를 신축하였다. 전방에는 누문인 광풍루(光風樓)가 서 있으며, 명륜당 서측 담 밖에 'ㄱ'자 평면의 주사(廚舍)가 배치되어 있다.

현재 향교로 진입하는 길은 명륜당 서측에서 오르는 길이 있으며, 담과 만나 꺾어지는 부분에 '義城鄕校' 비석을 세워두었다. 외사주문과 대성전 서편의 협문 사이의 공간에는 다수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건물 초석으로 보이는 석재가 남아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전면 5칸, 측면 3칸 규모에 전면에 개방형 퇴칸을 둔 익공계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기단 전면에는 좌우 퇴칸과 기단 좌우측면 전면쪽에 각각 3단씩 모두 4개의 계단이 놓여져 있다. 장대석을 2단으로 가지런하게 쌓은 단층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일부 배흘림을 지닌 원형 기둥을 세웠다. 측후면은 심벽을 구성하였고, 전면 중앙 3칸은 각각 두짝 판문을 달았는데, 어칸의 것이 조금 더 크다. 출입문 하부에는 신방목과 지방석을 두었으며, 각 칸의 판문은 종묘 정전과 같이 일부러 틈새를 두어 벌어지도록 되어 있다. 좌우 퇴칸은 벽체를 '정(井)'자형으로 구성하고, 중앙에 만(卍)살 광창을 두었다.

기둥머리에는 2익공을 결구하였는데, 살미의 끝은 날카로우며 활달하게 뻗어 있다. 첨차는 끝을 사절시키고 하부를 초각하였는데 배면은 교두형으로 하였다. 기둥머리는 창방으로 결구하고 화반을 올렸는데, 화반의 형태는 정면과 후면이 각각 다르다.

가구(架構)의 구성은 소설위 향교로는 드물게 7량으로 하였다. 전면 고주열은 평주와 같은 높이의 기둥을 두고 툇보와 대들보를 받았으며, 그 위에 다층의 첨차를 올려 중보를 받게 하였다.[20] 전면 퇴칸은 보아지와 같은 두께의 퇴량을 걸어 주심도리 밖으로 내밀고 보머리를 초각하였다. 대들보 위에 주두, 양봉 및 첨차로 구성된 포대공(包臺工)을 세우고 뜬장

20)_ 이러한 고주 상부의 처리방식은 경주향교 명륜당과 유사하다.

혀를 건너지르게 한 후 중보를 올렸다. 중보 위에는 양봉, 첨차로 된 대공으로 종보를 받게 하고 파련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게 했다. 또한 맞배지붕 건물임에도 우측면 평주 위에서 충량(衝樑)을 결구하고 뒷뿌리를 대들보 위에 걸어놓은 것이 특이하다.

지붕은 전후면 모두 겹처마로 되어 있으며, 좌우에 풍판을 달았다. 모로단청으로 마무리하였으나 내부 대들보 중간에는 화려한 용(龍)문양 등을 그려 넣었다. 내부 후벽 상부에는 공자상을 걸어 두고 막을 쳐 놓았으며, 내부 바닥은 전돌을 깔고 현재 그 위에 장판을 깔아 놓았으며, 공자를 비롯한 5성과 22현의 위패를 모셔놓고 있다.

현재 대성전 지붕에는 다수의 명문와가 남아 있으며, '庚戌閏二月 義城官□', '庚戌二月日 聖廟', '康熙二十年辛酉四月日義城官' 이라 되어 있다. 앞의 두 개는 1890년의 것으로 파악되며, 맨 마지막 명문은 조선 숙종 7년(1681)의 것으로 보인다.

(2) 대성전 외사주문

대성전 외사주문은 사방 단 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대성전 전면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면에 통칸으로 2단의 계단을 두었다. 덤벙 주초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웠고, 중앙렬에는 방형 기둥을 세우고 판벽을 구성하였으며, 두 짝 판문을 달았다. 판문 전면에는 2태극 흑백 문양을 도채하였고, 문 하방에는 신방목을 끼워 넣었다. 문 상부에는 풍혈을 둔 궁판을 구성하고, 상부에 홍살을 꾸몄다. 3량가의 간략한 가구로, 보머리는 마름모꼴로 다듬었다. 좌우 벽체는 판벽으로 되어 있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전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익공계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전면 중앙에 8단으로 구성된 계단이 있고, 최근에 보수한 장대석으로 축조한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원형 기둥을 세웠다. 정면의 가운데 3칸은 우물마루를 설치하고 양측에 온돌방을 대칭으로 두고 있다. 방 정면의 벽체는 기둥에서 1/3칸 정도를 후퇴시키고 퇴칸을 조성하였는데, 바닥은 마루를 깔고 상부는 방 상부에서 빼낸 고미반자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문얼굴의 구성은 대청 전면은 문을 두지 않고 개방시켰으며, 배면은 심벽으로 하고 각 칸 하부에 머름을 두어 쌍여닫이 띠장널창을 두었다. 실 전면에는 각각 두 짝 세살문을 달았으며, 좌우 실의 당(堂)쪽 면에는 각 칸 모두 외짝 세살문을 달았다. 실 전면 좌우 기둥에는 원래 창호를 구성했던 장부 구멍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당쪽 벽체에도 창호를 달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기둥머리에는 초익공을 구성하고, 주간에 소로를 수장하였다. 익공재의 외단은 쇠서형으로 하고 보머리는 직절한 다음 초각한 부재를 끼워 넣었다. 후면에서는 익공재 외단을 직절하였다. 가구(架構)의 구성은 5량가로 하였으며, 동실 서벽과 서실 동벽에서는 중간에 기둥을 세

워 맞보로 받았다. 어칸에서는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3분변작의 위치에 초각하지 않은 판재를 서로 교차시켜 중대공을 구성하여 놓았다. 그 위에 종보를 올리고 제형판대공으로 종도리를 받게 했다. 장식재는 별로 사용치 않고 단청도 올리지 않아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좌우 퇴칸에는 어칸과 달리 높직한 동자주에 보방향 첨차를 결구하여 종보를 받고 있다.

전면 어칸 상부에 '明倫堂'현판을 걸었으며, 내부에는 다수의 기문이 걸려 있다. 또한 동실 서벽 중앙에는 '三省齋', 서실 동벽 중앙에는 '四勿齋' 현판을 걸어두었다.

(2) 동재(東齋), 서재(西齋)

동재는 전면 4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평면구성은 4칸 중 가운데 2칸을 통칸으로 두고, 양 협칸도 각각 온돌방으로 꾸며져 있는데 간벽(間壁)에 문을 달아 서로 통하게 하였다. 자연석으로 쌓은 단층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방형 기둥을 세웠다. 각 칸 전면 기단 상면에는 아궁이를 두었으며, 남측 어칸에는 외짝 세살문을, 나머지 칸 전면에는 두 짝 세살문을 달았다. 전면 북측 어칸 상부에는 '敬義齋' 현판을 걸었다. 가구는 3량가로 북측벽에서는 중간에 평주를 세워 맞보를 받고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를 받았다.

서재는 1991년에 신축하였으며, 외관상의 건축적 특성은 동재와 같다. 다만, 각 칸 전면에 두 짝 세살문을 달았으되 북측 어칸의 것이 조금 더 크며, 전면 북측 어칸 상부에 '學習齋' 현판을 걸었다. 또한, 내부 평면에서 동재와 다른 점은 중앙 2칸을 마루로 두고, 좌우 협칸을 온돌방으로 꾸민 점이다.

(3) 광풍루(光風樓)

광풍루는 전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익공계 홑처마 맞배지붕의 중층 누각 건물이다.

건물은 야트막한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았다. 누하주(樓下柱)는 현저한 배흘림이 있는 원형기둥이며, 상층에도 배흘림이 있는 원주를 사용하여 상층 바닥에 우물마루를 깔고 계자각 난간을 사방에 둘렀다. 동측 협칸 후면칸에는 상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두었다.

공포의 구성은 처마도리 장혀 하부에 뜬창방을 부가시켜 3익공의 매우 특이한 구조를 형성하였다. 살미의 형상은 제일 하부의 초익공의 경우 살미를 짧게 끊어 사절시켜 헛첨차와 같은 형상으로 하고, 이익공과 삼익공은 끝을 날카롭게 하여 길게 빼내었다. 첨차는 하부를 쌍S자로 초각하고 단부를 사절시켰다.[21]

가구는 5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치고, 3분변작의 위치에 포대공을 놓아 종보를

21)_ 의성향교 광풍루 주상포는 조선 후기의 다양한 공포구성 기법을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외관상 삼익공으로 되어 있으나 초익공은 완연한 헛첨차이며, 삼익공재는 사실상 보머리를 초각한 것이고, 그 위에 놓인 부재는 헛보머리로 사실상 주심도리를 구르지 않게 잡아주는 승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받았으며, 파련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았다. 지붕은 전후면 홑처마로 좌우 측면에 방풍판을 달았다. 상하층 모두 벽체 없이 개방하였고, 하층 중앙 기둥렬에는 어칸을 제외한 나머지 칸에 드문드문 살대를 두어 벽체를 구성하고, 어칸에 여닫이문을 달았다. 상층 좌우측면 고주 좌우에는 주선이 남아 있으며, 하방 상부에도 장부 구멍이 남아 있어 벽체 혹은 창호를 구성하였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상층 내부에는 '義城鄕校光風樓重修記(의성향교광풍루중수기)'가 걸려 있으며, 전면 어칸 상부에 '光風樓' 현판을 달았다.

(4) 외사주문

외사주문은 단 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방형 기둥을 세웠다. 간략한 3량가의 가구로, 판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았다. 전면에 두 짝 판문을 달고, 전면 좌측 기둥 전면에 '義城鄕校' 현판을 걸어두었다.

다. 기타

기타 건물로는 비각, 교직사와 화장실, 협문 등이 있다.

비각은 사방 단 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자연석 초석 위에 원형 기둥을 세우고, 벽체 없이 사방에 나지막한 홍살을 꾸몄으며, 주간에 소로를 수장하였다. 내부에 비석 1기를 두었는데, 비석 전면에는 '縣令施軒張先生淸德碑'라 되어 있고 후면에는 '萬曆三十二年六月一日 碑之建在萬曆甲辰今四十年'이라 되어 있어, 1603년 내지 1643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내부 후벽 상부에는 기문이 남아 있는데, 기문 말미에 '上之二十二年乙酉十月'이라 되어 있어, 고종 22년(1885)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직사는 명륜당 서편에 자리잡고 있으며, 'ㄱ'자형 평면의 살림집 형태로 되어 있다. 간략한 3량가의 가구에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향교 관리인이 거주하고 있다. 전면에 화장실이 있으며, 외부로 향하는 협문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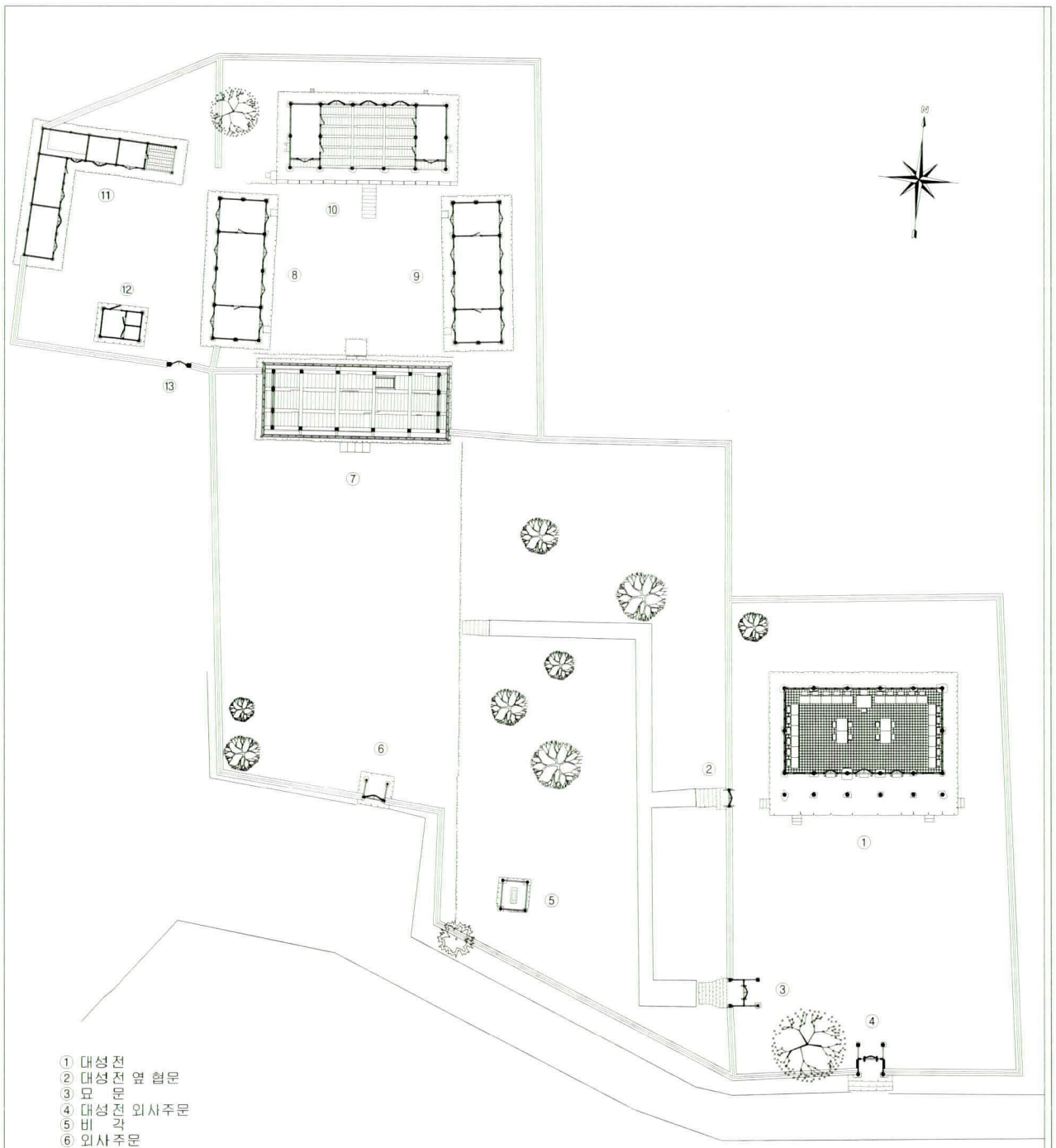
화장실은 단 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로 되어 있으며, 교직사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협문은 모두 3개가 있는데, 하나는 교직사의 출입을 담당하는 일각문이며, 다른 두 개는 대성전 서편 담 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그 가운데 대성전에 가까이 있는 협문은 간략한 일각문으로, 방형 기둥을 세워 두 짝 판문을 달고 위에는 맞배지붕을 얹었다. 남쪽으로 치우쳐져 위치한 또다른 협문은 '廟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으며, 사방 단 칸의 규모를 제대로 갖춘 문으로, 방형 기둥 위에 맞배지붕을 얹었다. 중앙에 두 짝 판문을 달았으며, 판문 전면에 2태극 문양을 흑백으로 도채하였고, 문 상부에 홍살을 꾸몄다.[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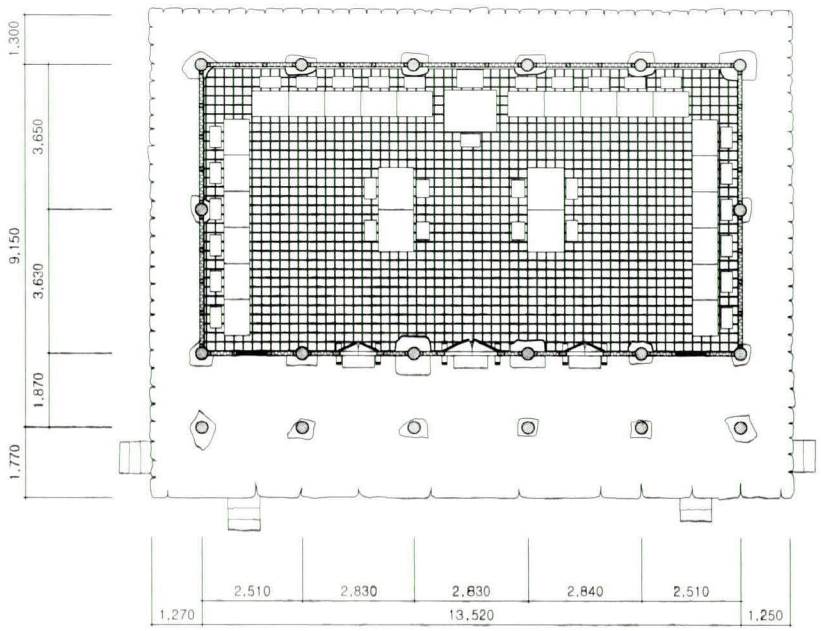
22)_ 추정하건대, 남측 협문은 향사시 제관들의 주 출입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며, 북측의 협문은 남측의 협문보다 위계가 낮아 제수를 들여가거나 기타 평상시 출입문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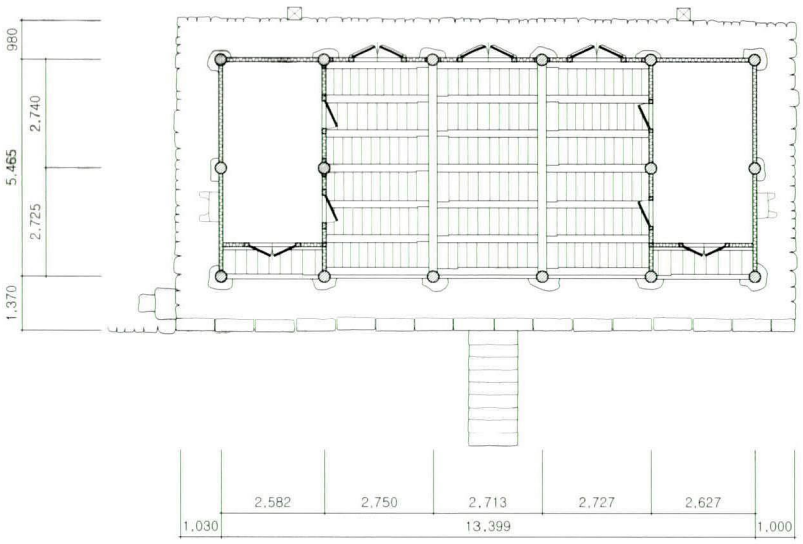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의성향교(義城鄕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50호(일곽)
창건시기	조선 태조 3년(1394)	입 지	구릉지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향교재단
좌 향	정남향 (대성전 정남향)	배치형식	左廟右學 / 前齋後堂 종축 3개(제향, 강학, 교직사 영역)
중건시기	성종 조 이건 임란 중 소실 1602 향교 일곽 중건 1745 대성전, 명륜당 중건	대지조성	2단 : 대성전 서편 협문을 기준으로 제향 영역과 강학영역 간에 경사짐
설 위	5聖, 宋朝 4賢, 海東 18賢	인접시설	없음
건축구성	대성전, 대성전 외사주문, 명륜당, 동재, 서재, 풍화루, 외사주문, 교직사, 화장실, 비각, 협문 3동		
특기사항	좌묘우학(左廟右學)의 배치로 성주향교와 같은 배치 형식을 취하였음 다수의 기문이 남아 있으며, 특히 일부 대성전 명문와는 17세기 후반에 제작되었음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5×3칸, 전1퇴칸 / 이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1고주(어칸) · 2고주(측벽) 5량가 / 전돌 / 연등천장 주고 평주 2940 고주 3060 / 주칸 어칸 2830 / 수장폭 100 / 도리단면 Ø=240전후 / 보단면 : 대들보 540×480, 종보 300×270 / 처마내민길이 1950 / 기단높이 전면 630 / 초석크기 약 540×450 전후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이벌대 / 장대석 바른층쌓기 전면 2개, 좌우측면 각 1개(각 3단)	보	대들보 : 전고주 후평주 중 보 : 전고주 후중대공 종 보 : 3분변작에 근접
초 석	덤벙주초	도 리	7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 민흘림, 배흘림이 섞임	대 공	대들보 : 전고주 후평주 중 보 : 전고주 후중대공 종대공 : 파련대공
공 포	이익공 / 툇보머리 초각	창 방	방형 / 뺄목 초각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연등천장 / 전돌		
특기사항	내부 우측 퇴칸에 충량을 결구하였으며, 대들보 중앙에 용(龍) 문양 도채함 전면 고주에 첨차를 중첩하여 중대공을 구성하였고, 판문을 일부러 어긋나게 하였음		
명륜당 건축 요소			
개 요	5×2칸 / 초익공 / 홑처마 팔작지붕 / 5량가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고미반자 주고 2860 / 주칸 어칸 2713 / 수장폭 100 / 도리단면 Ø=240 / 보단면 : 대들보 380×350, 종보 320×300 처마내민길이 1520 / 기단높이 : 전면 1100, 후면 400 / 초석크기 720×340 전후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4벌대 전면 1개 (8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3분변작
초 석	덤벙주초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 약한 민흘림	대 공	중대공 : 판대공 종대공 : 판대공
공 포	초익공	창 방	방형 / 뺄목 직절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 붕	팔작지붕
수 장	회사벽 / 백골청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고미반자		
특기사항	전후면 익공재 외단의 처리가 다름 당(堂) 후면 창호 상하부의 문둔테 처리가 매우 훌륭함 좌우실 전면에 툇마루를 두고 당과 직접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한 점이 특이함		


N
① 대성전
② 대성전 옆 협문
③ 묘 문
④ 대성전 외사주문
⑤ 비 각
⑥ 외사주문
⑦ 광풍루
⑧ 서 재
⑨ 동 재
⑩ 명륜당
⑪ 교직사
⑫ 화장실
⑬ 교직사 외문
0 5 10 20 M

의성향교 배치도



의성향교 대성전



의성향교 명륜당

0 0.5 1.0 2.0 4.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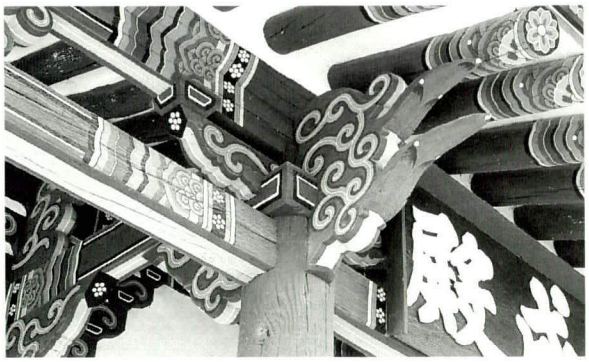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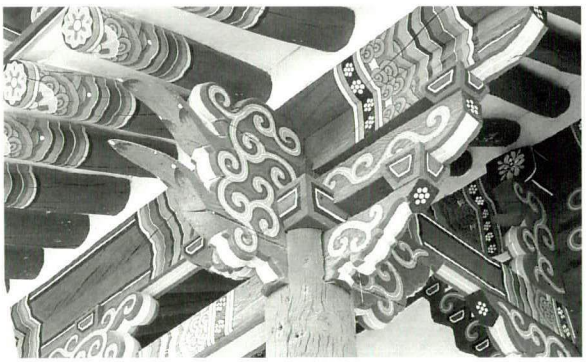
대성전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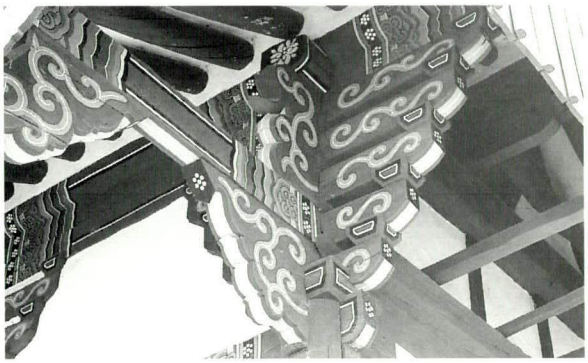
대성전 기단 및 계단



대성전 전면 주상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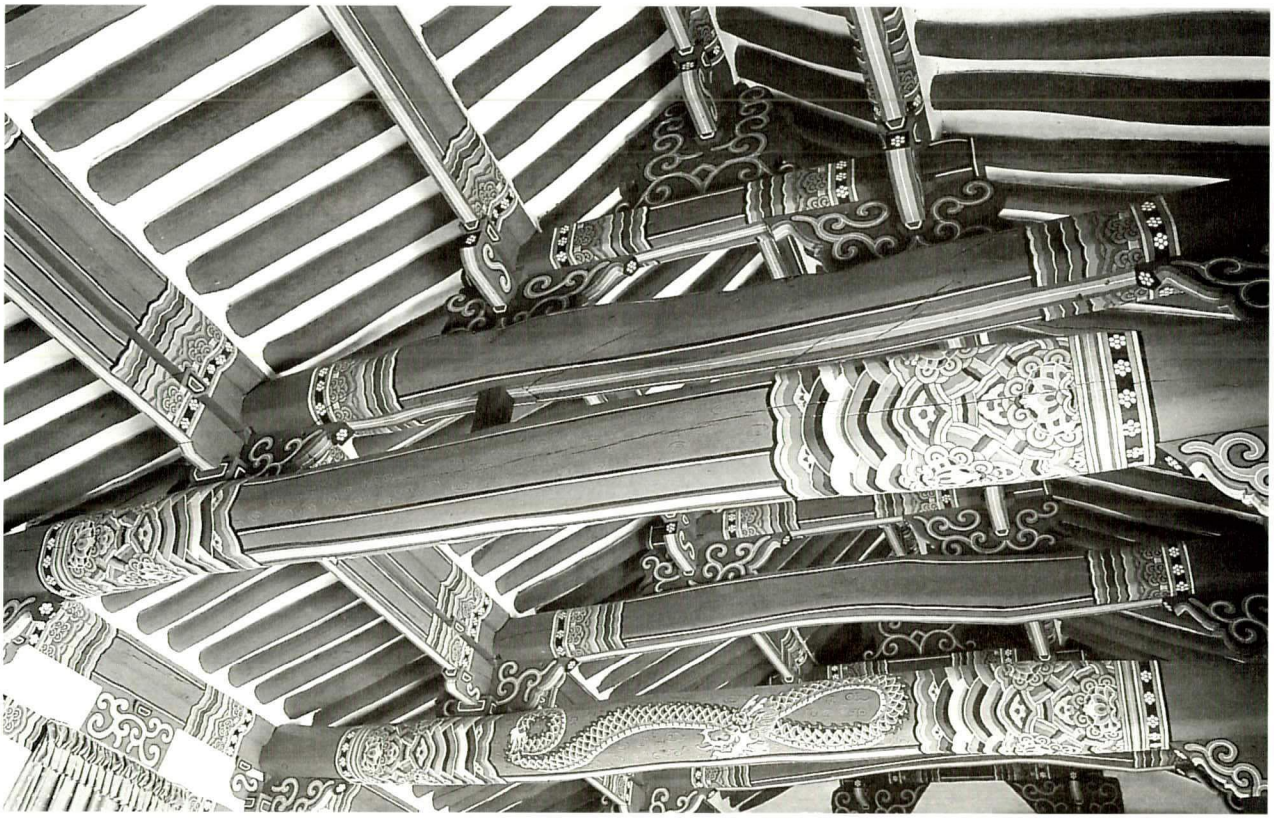
대성전 전면 귀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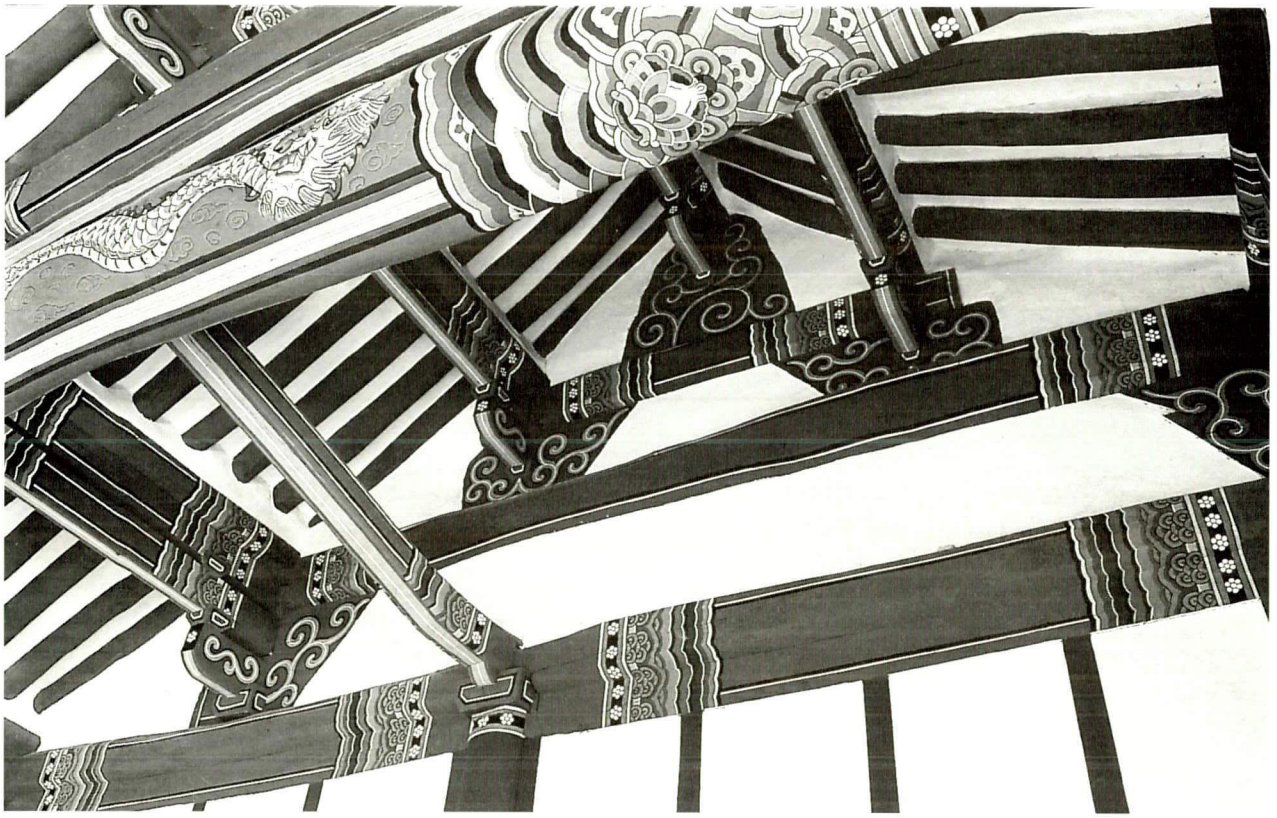
대성전 전면 퇴칸 고주 귀포



대성전 전면 어칸 신방목



대성전 내부 어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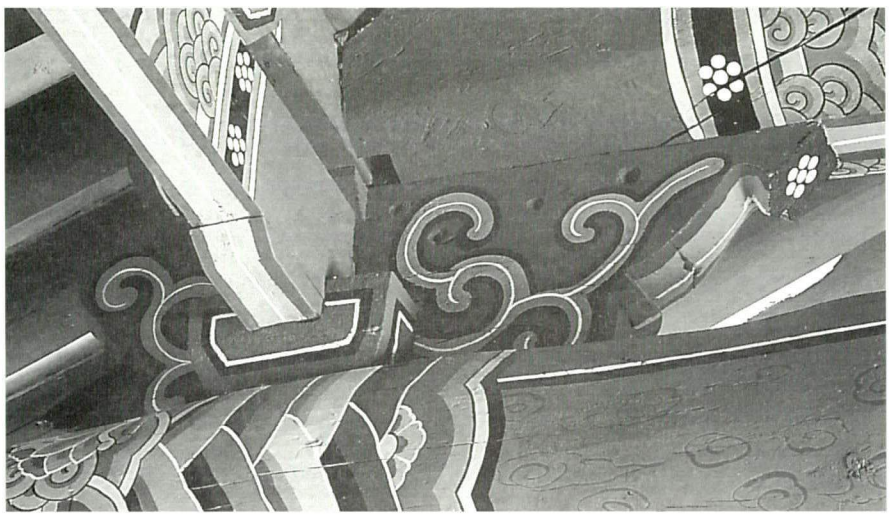
대성전 내부 측벽 가구



대성전 내부 가구 종대공



대성전 내부 가구 중종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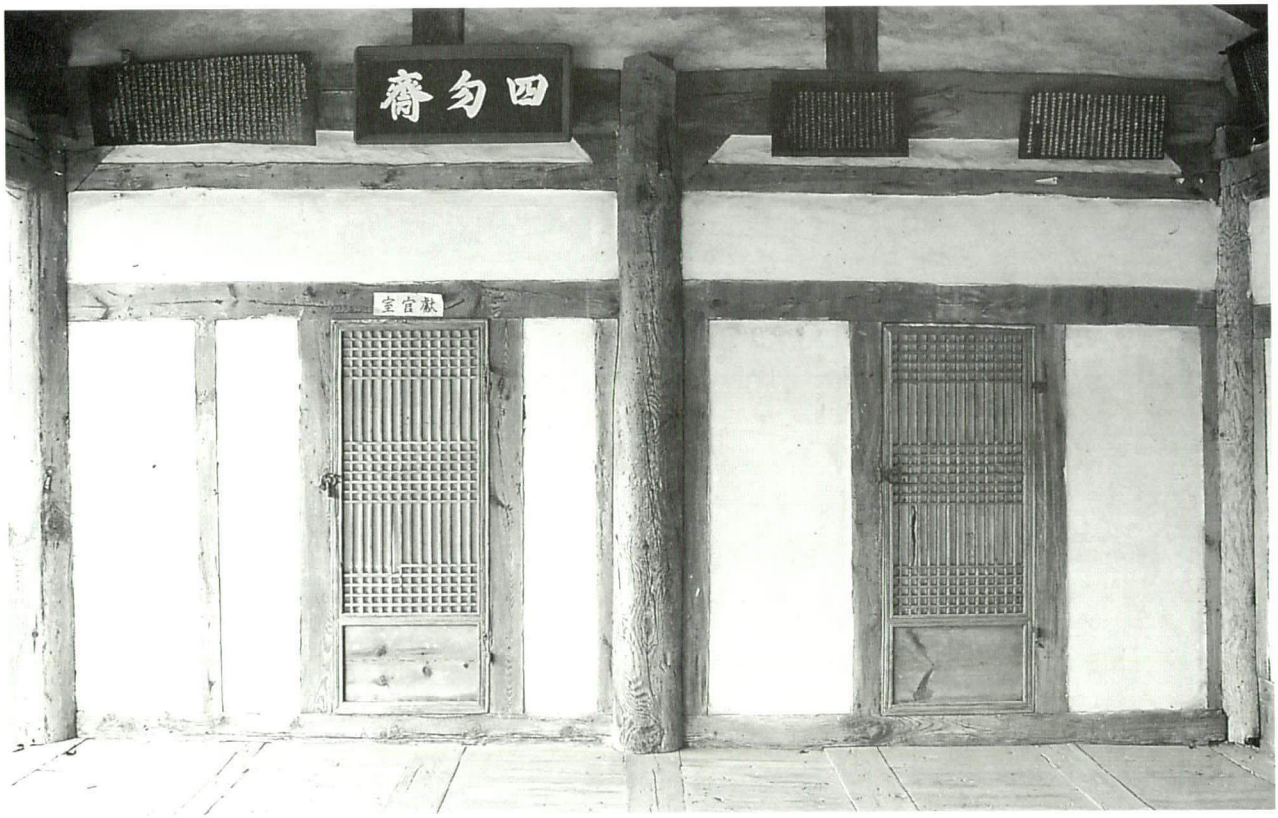
대성전 내부 가구 중대공



명륜당



명륜당 내부



명륜당 내부 서실 동측면 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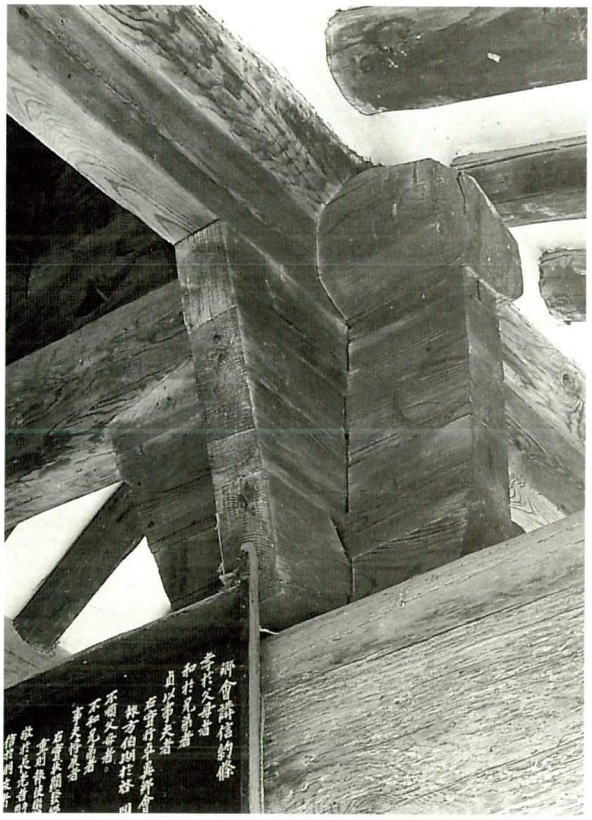
명륜당 전면 주상포



명륜당 전면 귀포



명륜당 내부 가구



명륜당 내부 중대공



명륜당 내부 종대공



동재



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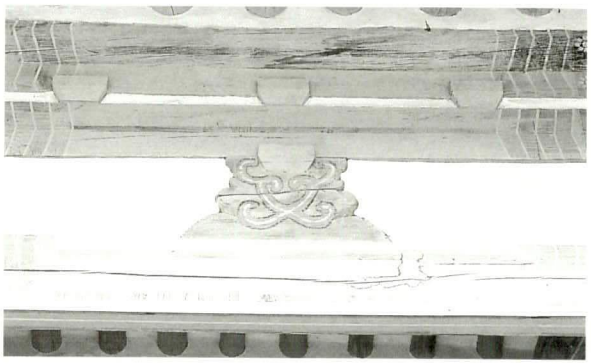
광풍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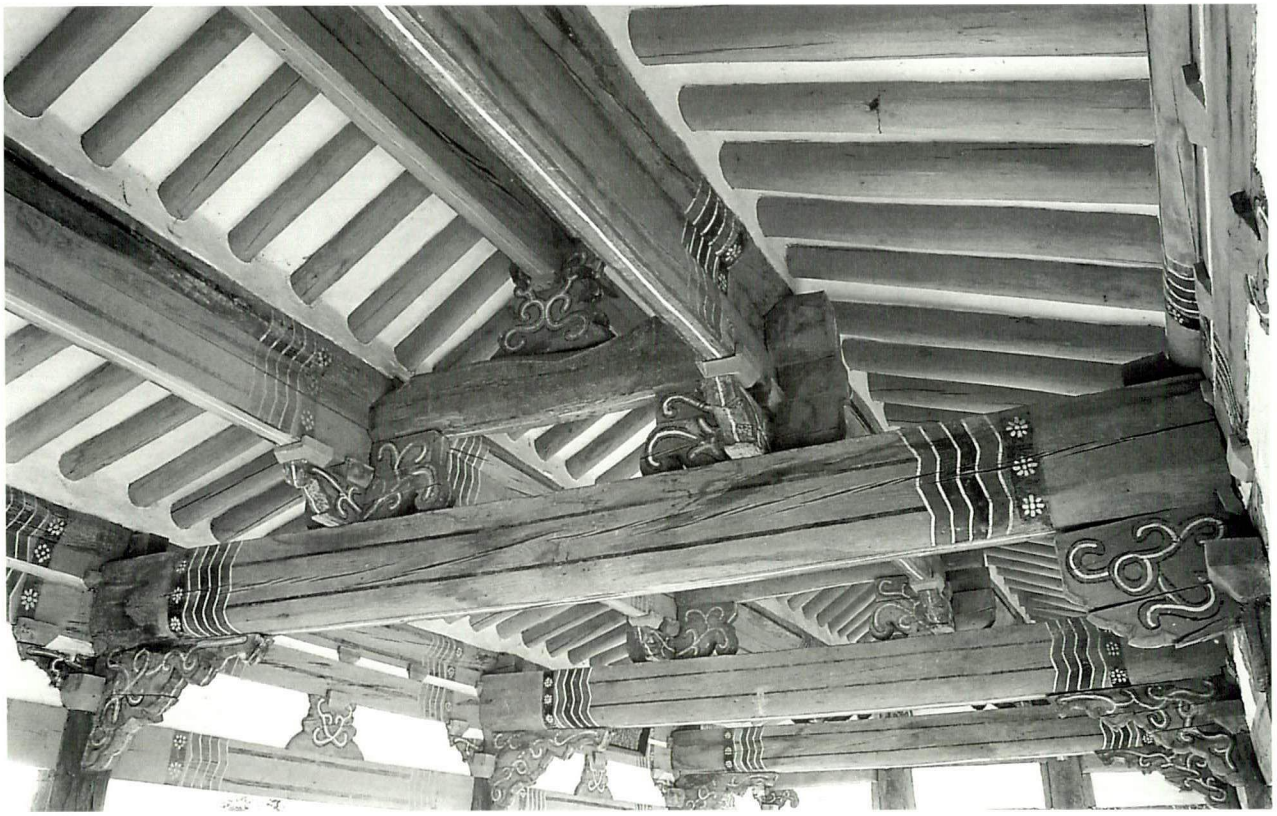
광풍루 전면 기둥



광풍루 전면 주상포



광풍루 전면 화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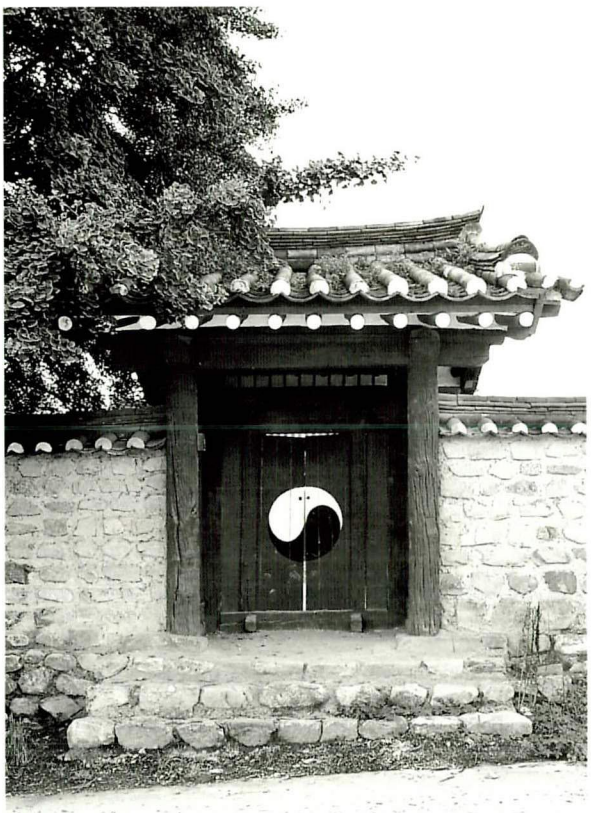
광풍루 내부 가구



광풍루 상층 내부



비각



대성전 외사주문



외사주문



교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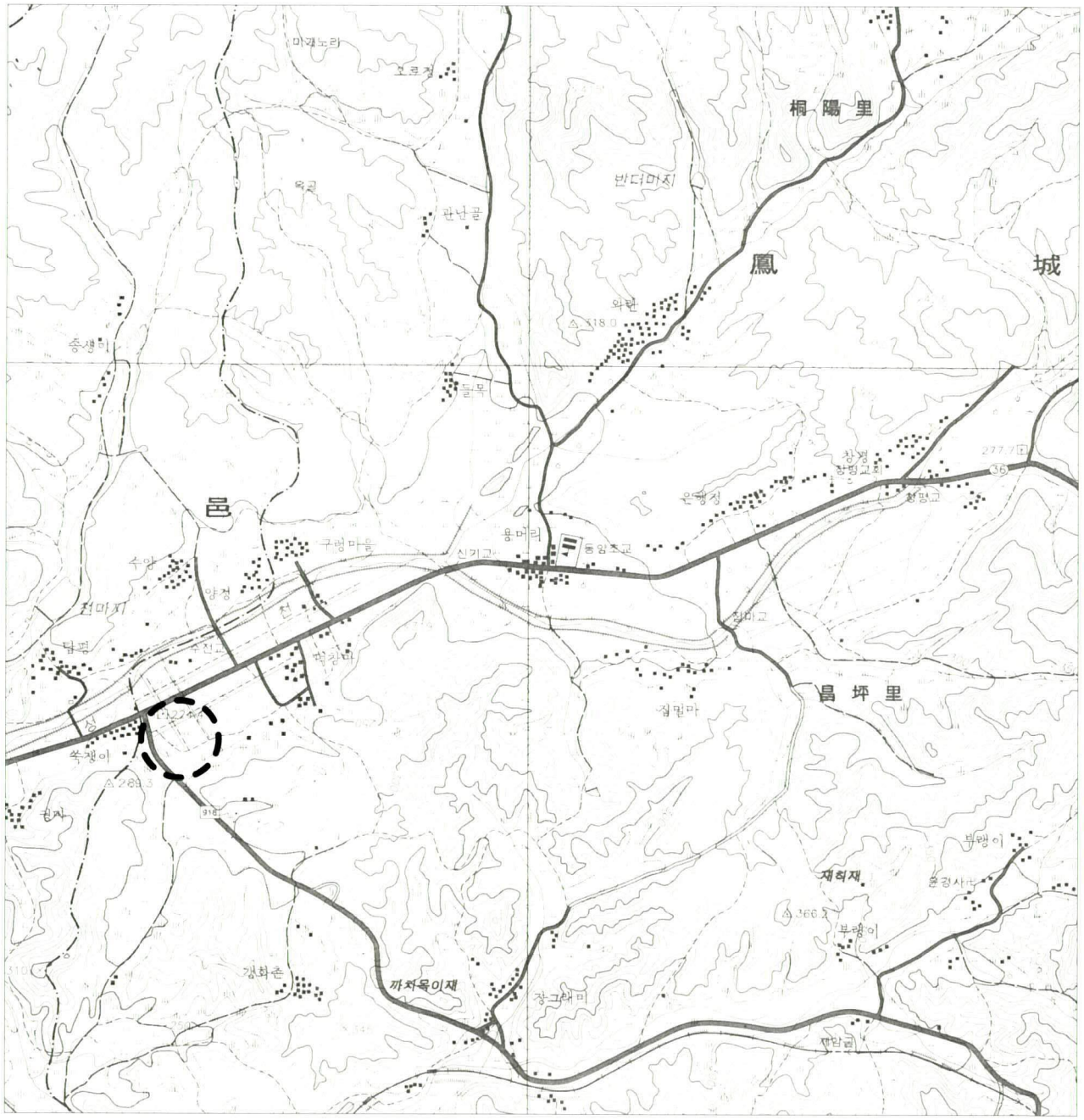
대성전 옆 협문



묘문

11. 봉화향교(奉化鄕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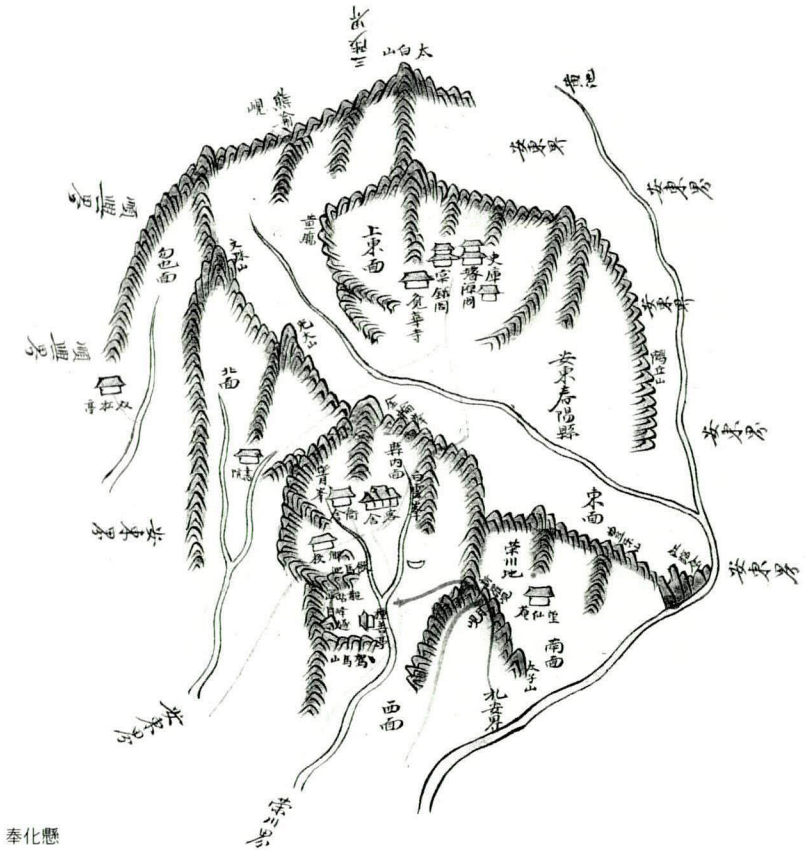
- 지정사항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53호(일곽)
- 지 정 일 : 1990년 8월 7일
- 소 재 지 :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봉성리 267
- 건축구성 : 대성전, 전사청,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문루, 외사주문, 교직사, 협문 1동 등



1. 연혁

봉화는 옥마 혹은 봉성(鳳城)이라고 하였으며, 고려 현종 때에 안동부에 속했다가 고양옹 때 감무(監務)를 두었고, 조선 태종조에 현(縣)으로 개칭되었다. 세조 3년(1394)에는 순흥의 일부가 편입되었다가 숙종 9년(1683)에 순흥부가 독립되면서 환원되었다.

봉화향교는 세종조에 창건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선조 12년(1579)에 노후한 것을 현감(縣監) 조목(趙穆)이 중건하였고, 1925년에는 군수 서병린(徐丙麟)이 중수하였다.[1] 1950년에 향교 내에 봉성고등공민학교가 설치되었다가 1975년에 폐교되었다. 이후 학교로 사용되는 동안 크게 훼손되었던 것을 1975년에 군수 권명흠(權明欽)과 적리자군(適莅玆郡)의 전교 이성호(李成鎬)의 노력으로 대대적인 중수를 거쳐 현재의 윤곽을 갖게 만들었다.[2] 1979년에는 문루(門樓)와 궁장(宮墻)을 조복갑(趙僕甲)이 수리하였다.[3] 1987년에 다시 전교 이성호의 노력으로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 받아 번와하고 단청을 하였다.[4] 1989년에 명륜당과 동재, 문루, 주사(廚舍) 등을 보수하였으며,[5] 1992년에 대성전과 명륜당에 방충방연제를 도포하였다. 1993년과 1994년, 1997년에 각각 일곽을 보수하였다. 2002년에 내삼문 좌우의 담을 수리하였다.


奉化縣

소장자료로는 『司馬錄(사마록)』, 『州縣釋奠正配位饌實圖(주현석존정배위찬실도)』외에 『笏記(홀기)』 등이 있다. 또한 명륜당 내부에는 '校宮甘紀(교궁감기)'[6], '學令(학령)'[7], '白鹿洞規(백록동규)'[8], '勸學記(권학기)'[9], '奉化鄕校重修記

1)__ '奉化鄕校重修記(봉화향교중수기)', 기문 말미에 '乙丑仲秋下澣郡守徐丙麟記'라 되어 있어, 1925년의 기록임을 알 수 있다.
2)__ '奉化鄕校重修記(봉화향교중수기)', 기문 말미에 '歲乙卯小春節'이라 되어 있어 1975년의 기록임을 알 수 있다.
3)__ '奉化鄕校重修記(봉화향교중수기)', 기문 말미에 '檀君四千三百十二年'이라 되어 있어, 1979년의 기록임을 알 수 있다.
4)__ '奉化鄕校重修記(봉화향교중수기)', 기문 말미에 '孔夫子誕降二千五百三十八年丁卯百五節'이라 되어 있어, 1987년의 기록임을 알 수 있다.
5)__ '鄕校重修記(향교중수기)', 기문 가운데 명륜당과 동서재, 주사(廚舍)를 보수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문 말미에 '大韓光復後己巳淸明節'이라 되어 있어 1989년의 기록임을 알 수 있다.
6)__ 기문 말미에 '辛未六月二十一日'이라 되어 있다.
7)__ 기문 서두에 '正德十二年丁丑六月二十二日'이라 되어 있으며 이는 중종 12년(1517)에 해당함
8)__ 연대 미상
9)__ 기문 말미에 '正德丁丑秋 觀察使金安國'이라 되어 있어, 위의 교궁감기와 같은 시기의 것임

(봉화향교중수기)' 외에 '奉化鄕校重修記(봉화향교중수기)' 등 다수의 기문이 남아 있다.

창건 이후의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종조 창건
1579 중건
1925 중수
1950 향교 내에 봉성고등공민학교 설치
1975 학교 폐교, 중수
1979 문루, 궁장 수리
1987 향교 일곽 번와 단청
1989 명륜당, 동재, 문루, 주사 보수
1992 대성전, 명륜당 방충방연제 도포
1993 향교 일곽 보수
1994 향교 일곽 보수
1997 향교 일곽 보수
2002 담 보수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는 대성전, 전사청,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문루, 외사주문, 교직사, 협문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문루 동남쪽에는 수령이 440여 년에 이르는 행목(杏木) 한 그루가 자리잡고 있다.

2. 입지 및 배치

봉화향교는 봉화에서 울진으로 가는 36번 국도변인 유곡 3거리 인근에 자리잡고 있다.

도로변 나지막한 산 입구에 남향하여 자리잡고 있으며, 향교의 정문인 사주문(四柱門, 由敎門)을 들어서서 넓다란 마당을 지나면 문루와 명륜당의 순으로 나타난다. 명륜당 앞에는 동서재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좌측 전면에 와가(瓦家)인 주사가 있다. 또한 명륜당의 우측 후면에 내삼문과 대성전이 방형(方形)으로 구획된 담 내에 건립되어 있으며, 대성전의 전면 서측에 전사청(典祀廳, 정노당)이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다. 1950년부터는 봉성고등공민학교로 사용되었으며, 이 때 문루와 명륜당에 유리창을 끼우는 등 원형을 크게 훼손한 바가 있었는데 최근에 보수를 하였다.

전체적으로 전학후묘(前學後廟)의 일반적인 향교 배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양재가 명륜당 앞에 위치한 전재후당(前齋後堂)의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전면의 문루, 명륜당, 대성전의 중심이 약간씩 동편으로 치우치게 배치되고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전면 3칸, 측면 3칸 규모에 전면에 개방형 퇴칸을 둔 익공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측면 중앙칸을 전후 퇴칸보다 2배정도로 넓게 하였다.

높은 대지 위에 자연석 3단 축대를 쌓고, 다시 장대석을 두벌대로 쌓아 기단을 출조하여 덤벙주초를 놓고 원주(圓柱)를 세웠다. 기단은 투박하게 쌓은 듯 보이나 비교적 정교한 편인데, 어칸 서편에는 상하단 사이에 작은 틈을 막은 괴돌을 넣고, 전면 동편의 어긋난 부분은 모양대로 돌을 다듬어 조각퍼즐 처럼 맞춘 점이 특이하다. 평면은 전면을 개방한 전퇴형이며, 전내(殿內)는 우물마루를 깔았다. 정면 3칸 중 어칸만 문얼굴을 내어 쌍여닫이 궁널띠살문을 달고, 양 협칸은 격자살로 된 붙박이 광창을 설치하였다. 기둥 위는 공포를 구성하여 초익공으로 하였는데, 살미는 쇠서가 생략된 몰익공 양식이다.

가구(架構)의 구성은 소설위 향교로는 드문 2고주 7량가로 건물의 위엄을 높이고 있다. 2주열의 기둥은 모두 고주로 하여 기둥 몸에 툇보와 대들보를 결구시키고 있다. 툇보는 보기 드문 우미량(牛尾樑) 형태로 반듯하게 치목하였다. 대들보 잘 치목한 직재(直材)를 사용하고 위에 그 위에 포대공을 놓았는데, 동자주로 보아지와 뜬창방을 끼우고 주두를 올려 중보를 받고 있다. 중보 위에는 중종대공을 올렸는데, 동자주, 보아지, 주두 및 첨차로 구성된 대공을 올려 종보를 받고 있다. 종보 위에는 중앙에 종대공을 올렸는데 첨차를 끼운 파련대공을 세웠다. 대성전에 사용된 툇보를 제외한 보 부재는 모두 잘 다듬은 직재를 사용하였고, 높이와 폭은 거의 2:1에 가깝다.

전반적으로 볼 때 외부는 소박하게 처리했으나 내부 가구는 장중하게 하였으며, 치목수법이 특이하다. 지붕 마루에 명문이 있는 암막새를 사용하였으며, 전면 어칸 고주열 상부에 '大成殿' 현판을 걸었다.

(2) 전사청(典祀廳)

전사청은 '정노당'으로도 불리며, 대성전 앞에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고, 전면 5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평면구성은 남쪽으로부터 부엌 1칸, 온돌방 2칸, 2칸 통칸인 마루의 순으로 되어 있다. 건물 자체는 제향영역 안에 들어와 있으나, 명륜당 후면의 측면 박공 부분으로도 외짝 판문을 달아 출입하고 있다. 단층 기단 위에 덤벙 주초를 놓고 방형 기둥을 세워 3량가로 가구한 납도리집이다.

북측 퇴칸은 다른 칸에 비하여 칸살이 작아 증축한 부분으로 추정되며, 어칸 전면에는 두 짝 세살문을, 남측 협칸에는 외짝 세살문을, 북측 협칸에는 두 짝 판문을 달아 내었고, 북측 협칸 후면으로 굴뚝을 내었다. 이와 같이 제향영역 내에 부엌을 갖춘 살림집과 유사한 건축

물을 두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10]

(3)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전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전면 동측 협칸 전면에 3단의 계단을 1개 두고, 단층기단을 만들어 자연석 주초 위에 방형의 기둥을 세웠다. 각 칸 중앙렬에 두 짝 여닫이 판문을 달았으며, 하방에 신방목을 결구하고, 문상방 상부에 홍살을 꾸몄다.

가구는 3량가로 대들보 중앙에 짤막한 판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았다. 좌우에 풍판을 달았으며, 측면에서 전면측 반 칸에만 벽체를 두고 후면측에는 두지 않았으나 벽체를 두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전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계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명륜당은 막돌쌓기한 4.5척 정도의 높은 기단 위에 연화문(蓮花紋)이 있는 초석과 덤벙주초를 혼용하여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서쪽의 실(室) 주변 기둥은 모두 방형 기둥을 쓰고 나머지는 원형 기둥을 사용하였다.

평면형식은 전면 좌측 협칸은 전후 통칸으로 온돌방을 들이고, 나머지는 우물마루를 시설하였다. 당(堂) 전면 3칸 중 가운데 칸에만 문얼굴을 내어 쌍여닫이 궁널띠살문을 달고 당어칸의 양측칸은 격자살의 붙박이 광창을 끼워 대성전과 같게 구성하였는데 이는 최근 보수시에 유리창과 문을 뜯어내고 새로이 만든 것이다. 대청 배면은 좌측 2칸만 쌍여닫이 띠살창을 내고 다른 한 칸은 벽체로 막았으며, 측면은 모두 벽체로 하였는데 측면 2칸 중 뒤쪽칸은 배면과 같은 형태의 창틀이 남아 있다. 전면 기단 상부에 아궁이가 있다.

온돌방의 정면은 쌍여닫이 띠살창을 내고, 좌측면에는 각 칸에 외여닫이 띠살창을 내고 있으나 서측면 남측칸에는 양개창(兩開窓)이었던 것을 한 쪽을 막아 놓았으며 창틀 중앙에 가운데 설주의 유구(遺構)가 남아 있다. 또한 당과 면하는 부분은 각각 중앙에 높이가 대들보 중앙 고주의 4/7정도인 쌍여닫이문을 내었는데, 문틀과 문짝 모두 개체된 것이다.

주상부에는 초익공을 결구하였는데, 외단을 몰익공으로 처리한 초익공재를 올리고 외단을 약간 사절한 대들보를 얹었다. 다만 좌측 협칸 우측 상부에서는 대들보의 단면이 작아졌으며 초익공과의 사이에 외단을 직절한 부재를 결구하였다.

10)_ 전라남도 장성에 소재한 필암서원의 경우 전사청이 제향영역에 직각으로 배치되어 봉화향교와 같이 박공부분으로 출입하게 되어 있으나 봉화향교와 달리 내부는 장마루로 되어 있다. 추측하건대, 봉화향교의 전사청 북측 두 칸이 마루로 된 점으로 보아 이 두 칸이 제기고의 역할을 하고, 어칸과 남측 협칸은 제관들의 숙소로 사용되었거나, 교지기가 거주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가구(架構) 구성은 초익공의 5량가로 하였는데, 살미의 형상은 대성전과 같다. 잘 다듬은 직재(直材)의 대들보 위 3분변작의 위치에 보아지와 첨차로 구성된 중대공을 놓고 그 위에 종보를 올렸다. 그 위에 대성전과 같은 형태의 파련대공을 세워 쌍S자로 초각한 첨차를 끼웠는데 일부 첨차에서 소로가 탈락된 채 종도리 장혀와 첨차 사이가 떠 있다. 측면의 충량은 우미량의 형태로 대들보 위에 뒷뿌리를 얹었다.

정면 동측 귓기둥 초석에 연화 문양이 새겨져 있으며, 후면 동측 귓기둥에는 기둥과 초석 사이에 방형의 기둥 받침재를 사용하였다. 내부에 다수의 기문이 게액되어 있으며, 당 가운데 칸 후벽 상부에 '明倫堂' 현판을 걸었다. 모로단청을 하였으며, 대들보에는 용(龍) 문양을 도채하였다. 명륜당에 있어서 각 부재의 치목수법이나 형상은 대성전과 거의 동일하다.

(2) 동재(東齋)

동재는 전면 3칸, 측면 2칸 규모에 전면에 개방형 퇴칸을 둔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전면 3칸을 툇마루로 구성하고 나머지 3칸은 모두 통칸 온돌방이다. 자연석 단층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전면은 원형 기둥을, 나머지는 방형 기둥을 사용하였다. 어칸과 북측 협칸 전면에는 두 짝 세살문을, 남쪽 협칸에는 규모가 어칸보다 약간 작은 두 짝 세살창을 달았다. 가구는 3량가로 납도리집으로 가칠단청 하였다.

(3) 서재(西齋)

서재는 전면 2칸, 측면 2칸 규모에 전면에 퇴칸을 둔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자연석을 2단으로 쌓은 단층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았으며, 전면 남측칸의 좌우 기둥만을 원형 기둥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방형 기둥을 사용하였다.

평면은 전면 2칸을 툇마루로 만들고 나머지 2칸은 온돌방을 들였으며, 중간에 미서기문으로 벽체를 대신하고 있다. 또한 방 배면에는 쪽마루를 시설하였다. 남측칸 전면에는 외짝 세살문을, 북측칸 전면에는 두 짝 세살문을 달았다. 가구는 3량가로 납도리를 사용하였고 가칠단청을 하였다.

(4) 문루(門樓)

문루는 전면 5칸, 측면 1칸의 중층 누각으로 3량가의 구조에 홑처마를 갖춘 맞배지붕 건물이다.

전면 기단 중앙에 5단의 계단을 1개 두고, 단층 기단 위에 덤벙 주초를 놓아 원형(圓形) 단면의 통재(通材)기둥을 사용하였다. 하층은 가운데 3칸은 각각 두 짝 판문을 달아 통로로 사용하며, 좌우측 퇴칸은 판벽으로 마감하였다. 대지의 경사를 이용하여, 문루 좌측 퇴칸 후면에서 상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두었다. 상층에는 우물마루를 깔고 후면에 난간을 설치하였

다. 상층은 전면 각 칸 모두 하부에 두툼한 하방을 두고 쌍여닫이 띠장널문을 달았으며, 영쌍창 형식으로 창틀 중앙에 가운데 설주를 세웠는데 이는 최근 보수시에 복원한 것이다. 측면은 판벽으로 처리하고 배면은 개방시키고 있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짤막한 동자주를 얹었다. 내부에는 '鄕校重修記(향교중수기)' 기문이 걸려 있으며, 전면 어칸 상층 상부에 '奉化鄕校' 현판을 걸었다.

다. 기타

기타 건물로는 교직사(校直舍)와 외사주문(外四柱門), 협문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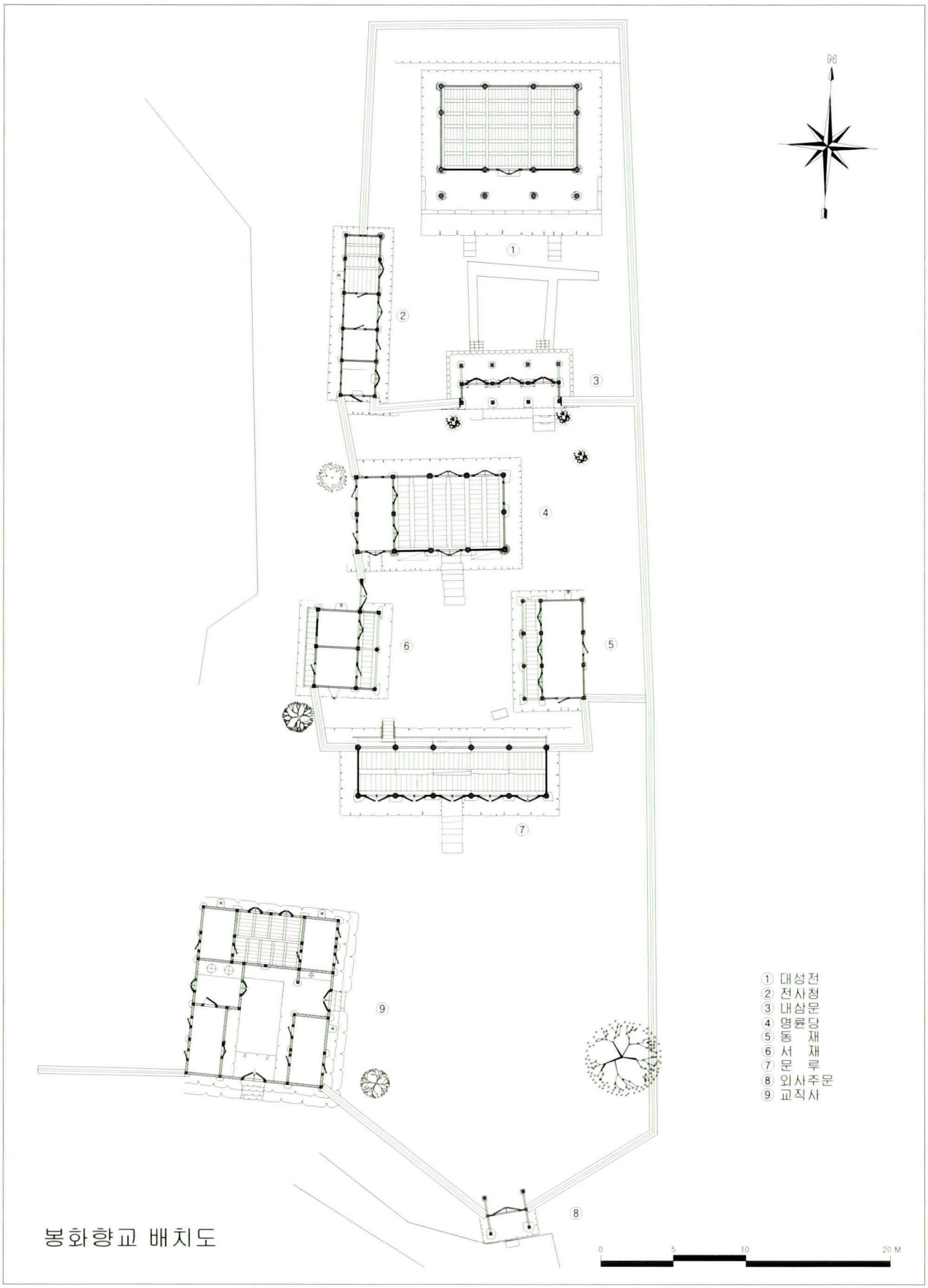
교직사는 문루의 남서편에 자리잡고 있으며, 원래 남쪽이 트인 'ㄷ'자형 건물이었으나 남쪽 가운데에 문을 달아 좌우를 벽으로 막아 완전한 'ㅁ'자 건물을 조성하였다. 동측면은 향교 내부와 면하고 있으며, 전면의 문을 통하여 외부와 바로 연결되고 있다. 최근에 보수하였으며, 3량가로 된 맞배지붕 건물이고 살림집처럼 북측에 놓인 안채에 해당하는 건물의 지붕을 좌우보다 높게 하였다. 동측면 중앙에 판문을 달고 문루 앞으로 통하게 하였다.

외사주문은 향교의 가장 바깥쪽 전면에 자리잡고 있으며, 사방 단 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문 상부에 홍살을 달아 꾸몄고, 유교문(由敎門)이라는 현판을 달고 있다. 현판 한 쪽에는 병신 4월(丙申四月)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으며, 두 짝 판문 정면에는 2태극 문양을 도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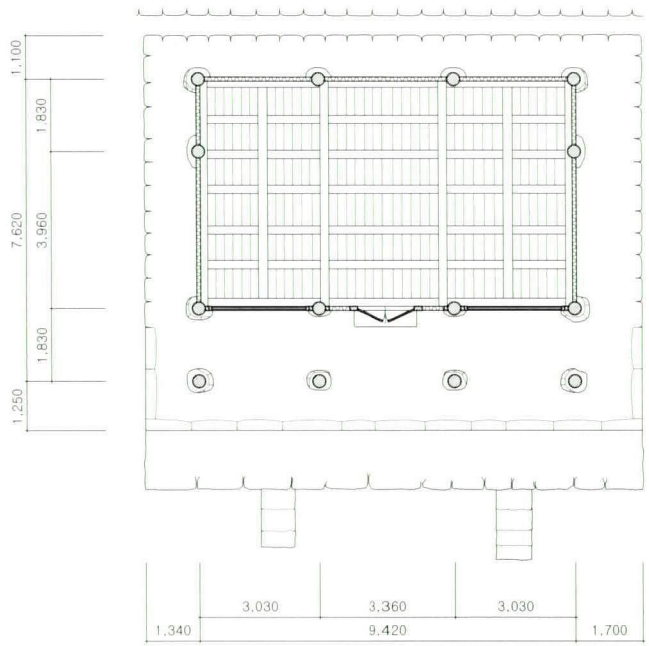
협문은 서재의 북측면에 붙어 있으며, 일각문으로 중앙에 두 짝 판문을 달았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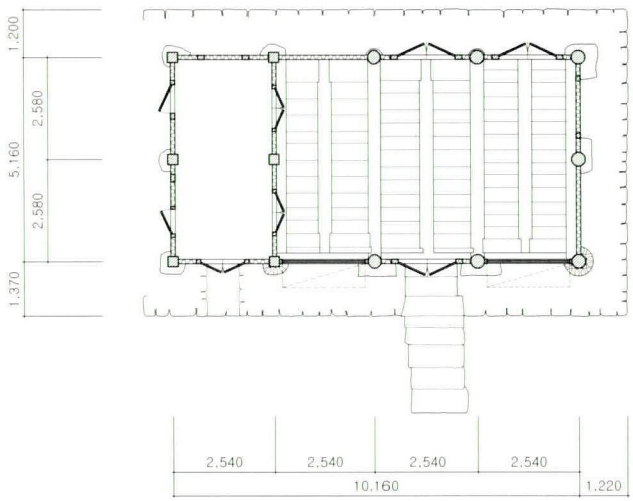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봉화향교(奉化鄕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53호(일곽)
창건시기	조선 세종조	입 지	구릉지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향교재단
좌 향	남향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齋後堂 종축 1개
중건시기	1579 중건 1975 대대적 중수	대지조성	3단 : 문루, 내삼문 기준
설 위	5聖, 宋朝 2賢, 海東 18賢	인접시설	없음
건축구성	대성전, 전사청,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문루, 외사주문, 교직사, 협문 1동		
특기사항	교직사의 형태가 'ㅁ' 자 형임 전사청이 제향영역 안으로 면하여 있으며, 살림집과 제기고를 합한 평면을 구성함 배치는 남북종축으로 되어 있으나, 약간의 서고동저(西高東底) 형 지형으로 기단의 동쪽 높이가 서쪽보다 약간 높음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3×3칸, 전1퇴칸 / 몰익공 / 홑처마 맞배지붕 / 1고주(어칸) · 2고주(측벽) 7량가 / 우물마루 / 연등천장 주고 2880 / 어칸 3360 / 수장폭 110 / 도리단면 Ø=270전후 / 보단면 : 대들보 340×480, 중보 270×340 / 처마내민길이 전면 1870 후면 1640 / 기단높이 : 전면 530, 후면 240, 측면 320 / 초석크기 약 500×700 전후		
기 단 계 단	이중기단 / 이벌대 / 장대석 바른층쌓기 전면 2개(3, 5단)	보	대들보 : 전고주 후평주 걸침(어칸)
초 석	덤벙주초	도 리	7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 약한 배흘림	대 공	중대공 : 포대공 중종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파련대공(어칸), 판대공(측벽)
공 포	몰익공 / 보머리 직절	창 방	방형 / 빨목
처 마	홑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연등천장 / 우물마루		
특기사항	툇보의 형태가 우미량 형태로 되어 있음 외부는 소박한 편이나 내부 가구는 대성전으로서는 흔치 않은 7량가로 장중하게 하였음		
명륜당 건축 요소			
개 요	4×2칸 / 몰익공 / 홑처마 팔작지붕 / 5량가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지반자 주고 3200 / 주칸 2540 / 수장폭 110 / 도리단면 Ø=270 / 보단면 : 대들보 430×370, 종보 340×270 처마내민길이 전면 1680 후면 1300 / 기단높이 : 전면 1200, 후면 300, 측면 400 / 초석크기 700×700 전후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자연석 전면 1개 (5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3분변작
초 석	정평+덤벙주초 연화문 초석, 기둥받침재 사용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실(室)좌우 방형 기둥 당(堂) 원형 기둥 / 배흘림	대 공	중대공 : 보아지+첨차 종대공 : 파련대공+첨차
공 포	몰익공 / 보머리 직절	창 방	방형 / 빨목 초각
처 마	홑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 붕	팔작지붕
수 장	회사벽 / 모로단청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지반자		
특기사항	주상포의 형태가 약간 다른 것이 섞여 있음 실과 당에 따라 기둥의 단면형태가 각각 다름 부재의 치목수법이 대성전과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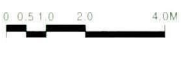
봉화향교 배치도



봉화향교 대성전



봉화향교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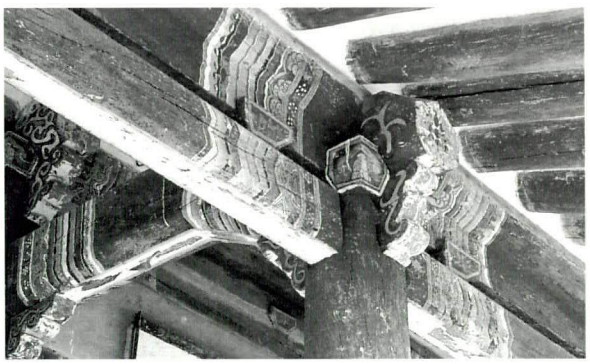
대성전



대성전 내부



대성전 전면 기단 및 계단



대성전 전면 주상포



대성전 전면 귀포



대성전 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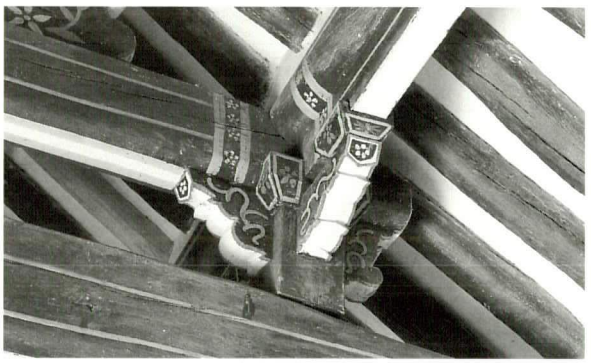
대성전 전면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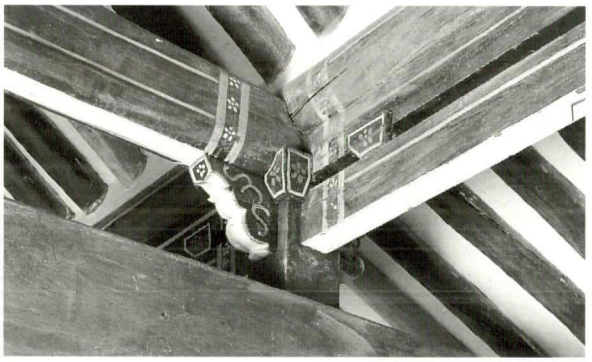
대성전 내부 가구



대성전 내부 종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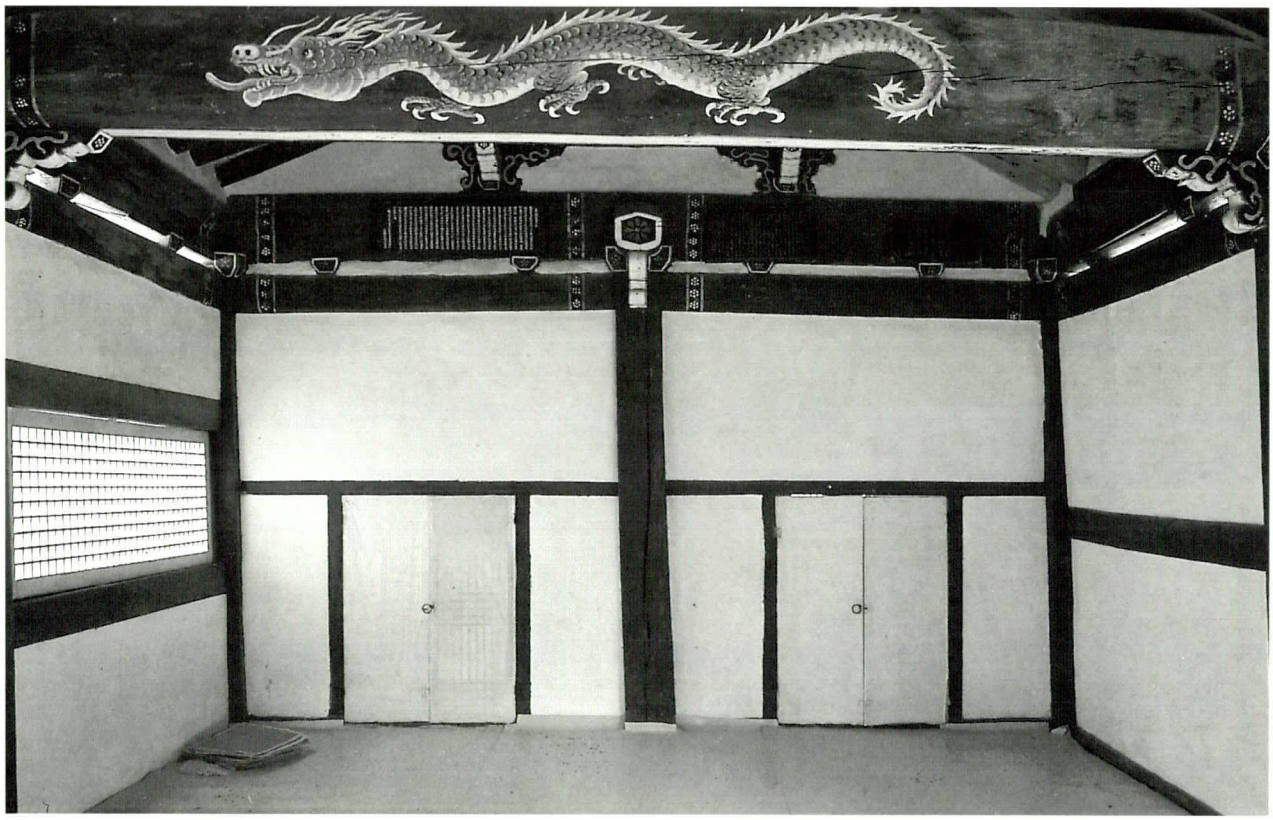
대성전 내부 중종대공



대성전 내부 중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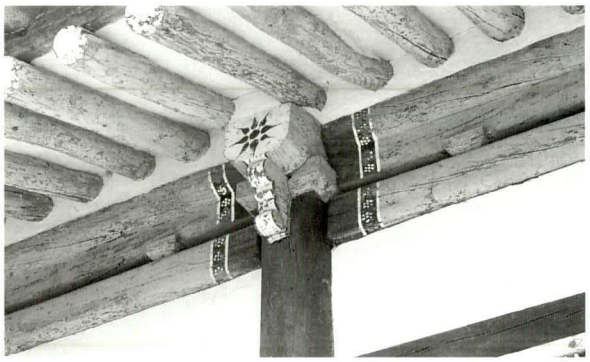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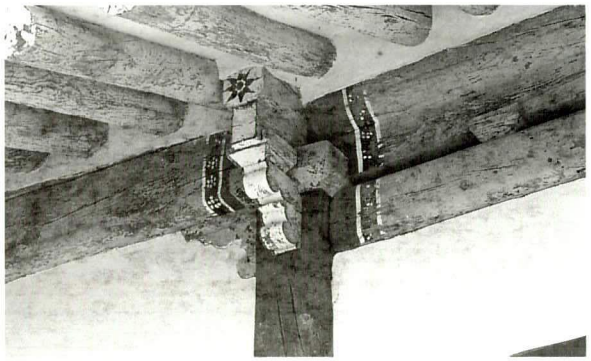
명륜당



명륜당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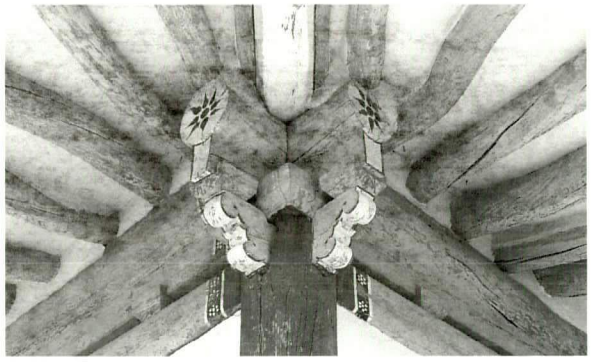

명륜당 전면 어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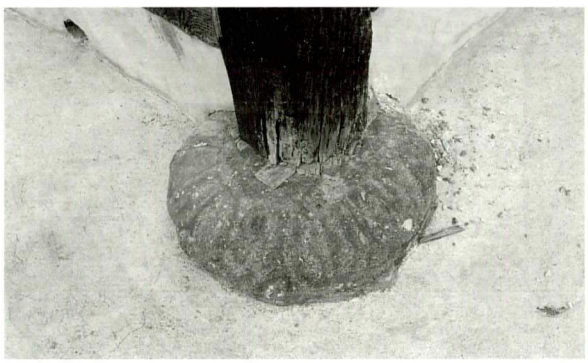

명륜당 전면 구칸 주상포


명륜당 전면 서측 협칸 주상포



명륜당 현판


명륜당 전면 귀포


명륜당 초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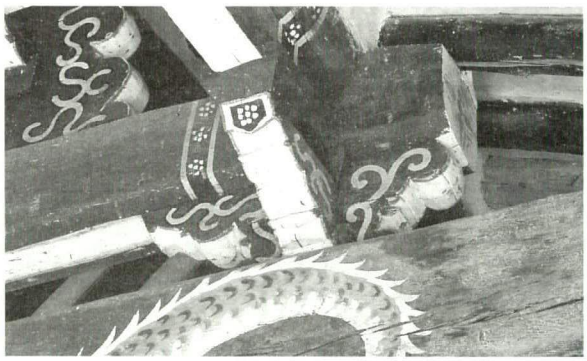

명륜당 초석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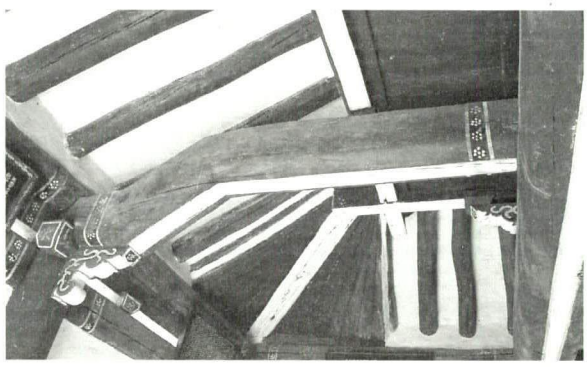
명륜당 내부 가구



명륜당 내부 종대공



명륜당 내부 중대공



명륜당 내부 충량



동재



서재



문루



문루 상층 내부



전사청



교직사



내삼문 및 신방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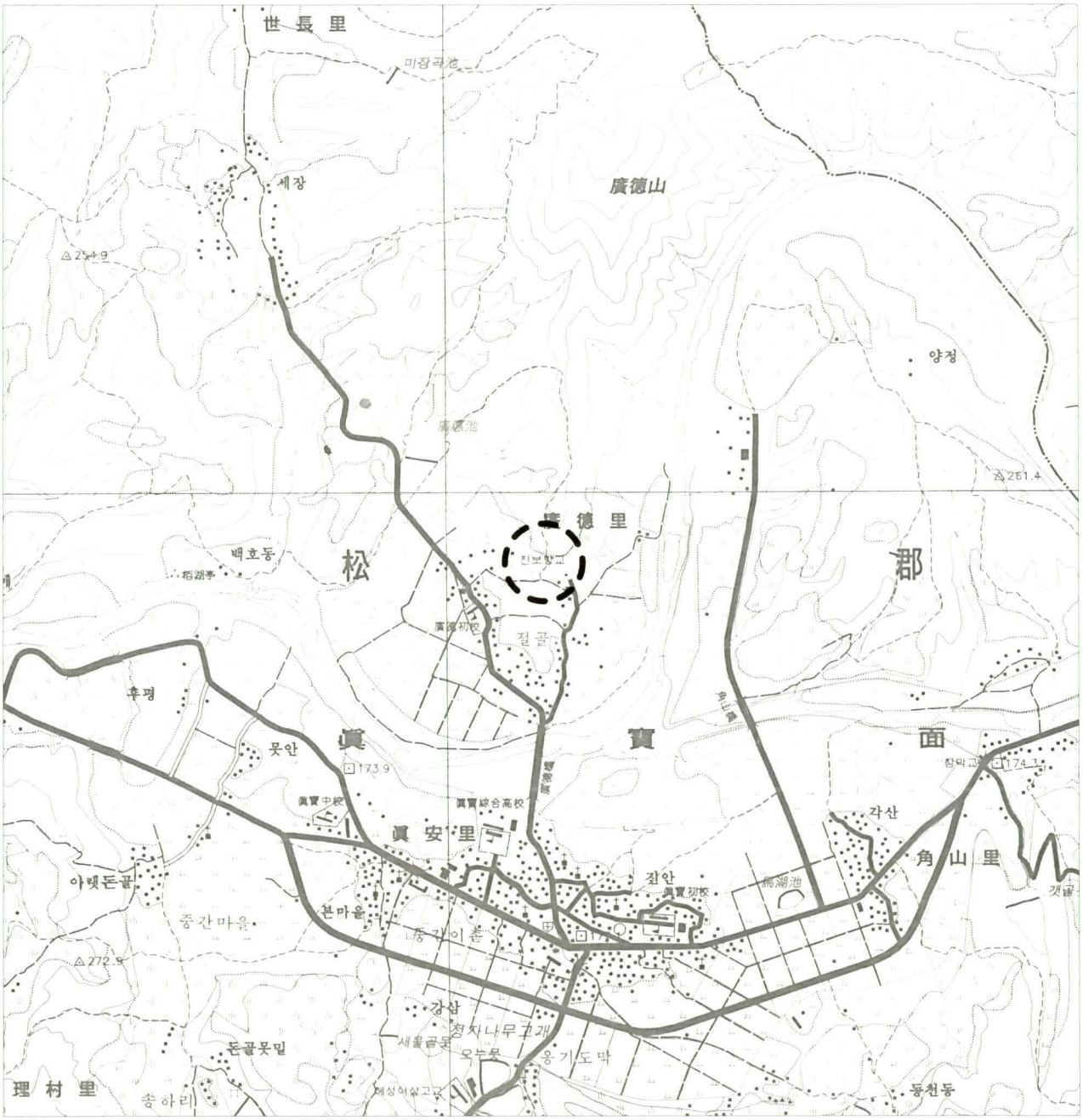


외사주문



12. 진보향교(眞寶鄕校)

- 지정사항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01호(일괄)
- 지 정 일 : 1985년 10월 15일
- 소 재 지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221-1
- 건축구성 :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외삼문, 화장실, 교직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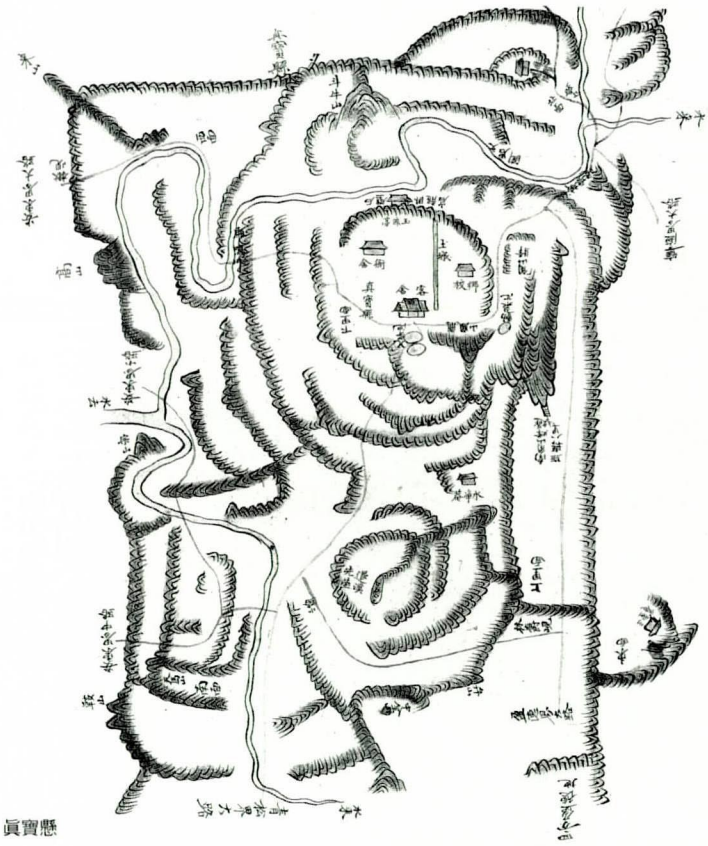


1. 연혁

『嶺南邑誌(영남읍지)』「眞寶縣邑誌(진보현읍지)」에 의하면 진보향교는 '縣(현)의 북쪽 2리에 있다'고 하였으니 현재의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이며 광덕산(廣德山)의 남쪽 기슭이다.

진보는 신라 경덕왕 2년(743)에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여 고려조에 진안(眞安), 보성(甫城)으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조선조에 들어와 태조 시에 보성 감무(監務)를 두었다가, 세종 때에 일시적으로 청보군(淸保郡)으로 불렀으나, 곧 지금의 명칭으로 고치고 현(縣)으로 하였다. 그 후 성종 5년(1474)에 현인(縣人) 금맹성(琴孟誠)이 현감 신석동(申石同)을 구타한 사건으로 청송부에 이속(移屬)하였다가, 동왕 9년 복구되었다.

진보향교는 태종 4년(1404)에 건립되었다. 현재 초창지로 추측되고 있는 옥천면 관동의 명칭을 '향교들'이라고 하는 점으로 미뤄 볼 때, 이곳에 향교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 권일암(權一庵)의 『一庵集(일암집)』에 의하면 고려말에 비봉산 시창(始創)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그 후 영조 38년(1762) 광덕산 서쪽 기슭으로 이건했다가, 고종 18년(1882)에 구읍으로 또 이건하였다[1].


眞寶縣

현재의 위치로 향교가 이건된 것은 고종 23년(1886)이다. 그 후 1896년 진보현이 폐읍되고 청송군으로 합병될 때에 향교도 청송군 관할로 들어갔다. 광무 2년(1898)에는 명륜당을 중수하였다.[2] 1976년에 대성전을 보수하고 단청을 새로 하였고, 1983년에 외삼문을 번와보수 하였다. 1984년에 대성전을 보수하였고,[3] 1990년에 서재를 보수하였으며,[4] 1992년에 동재를 중건하였다.[5] 1993년에

1)_ 儒道會眞寶支部, 『儒道會誌』, 眞寶鄕校, 1987 ; p.47

2)_ 명륜당 내부 종도리 장혀 하단 묵서명에 이러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또한 '明倫堂重修記(명륜당중수기)' 에도 기문 말미에 '上之三十六年己亥三月' 이라 되어 있다.

3)_ '重修記(중수기)', 기문 중에 대성전이 기울어져 이를 당시 전교 권기대(權奇大)가 군수인 박희삼(朴熙杉)에게 수리를 요청하여, 2000만원을 받아, 보수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기문 말미에 '光復後甲子陽月下澣' 이라 되어 있어 1984년임을 알 수 있다. 보인회, 『校宮記集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3 ; pp.158-160

4)_ '西齋重修記(서재중수기)', 기문 말미에 '歲庚午七月旣望' 이라 되어 있어, 1990년에 중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5)_ '眞寶鄕校東齋重建記(진보향교동재중건기)', 기문 말미에 '孔夫子誕降二五四三年壬申下澣' 이라 되어 있어 1992년에 중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교직사를 보수하였으며, 1994년에 재사(齋舍)를 중수하였다.[6] 2003년에 대성전, 명륜당, 내삼문 등을 해체보수 하였다. 청송군지(靑松郡誌)에 의하면 본래에는 전사청(典祀廳)이 있었다고 한다.

그 외에 옥천(玉川) 조덕린(趙德麟, 1658~1737)의 「眞寶鄕校移建上樑文(진보향교이건상량문)」과 방산(舫山) 허훈(許薰, 1836~1907)의 「眞寶明倫堂重建上樑文(진보명륜당중건상량문)」이 있다. 이외의 소장자료로는 『遞任錄(체임록)』 몇 권과 『儒案(유안)』등이 있으며, '勸學記(권학기)'[7] 등 다수의 기문이 명륜당 내부에 걸려 있다.

창건 이후의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04	창건
1762	이건
1882	이건
1886	이건
1898	명륜당 중수
1976	대성전 보수, 단청
1983	외삼문 번와보수
1984	대성전 보수
1990	서재 보수
1992	동재 중건
1993.	교직사 보수
1994	재사(齋舍) 중수
2003	대성전, 명륜당, 내삼문 해체보수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는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외삼문, 교직사,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입지 및 배치

진보향교는 진보읍내에서 광덕교를 건너자 마자 우회전하는 곳에 표석을 세워 위치를 표시하였다. 풍수적으로 비교적 길지(吉地)에 자리잡고 있는데 좌우로 언덕이 나지막하게 감싸고 있고, 전면에는 호명천(虎鳴川)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있다. 관아 터가 현 향교의 전면에 있다.

---

6)__ '齋舍重修記(재사중수기)', 기문 말미에 '歲在甲戌春三月' 이라 되어 있어 1994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7)__ 김안국(金安國)이 소학(小學)을 읽을 것을 권하는 내용으로, '正德丁丑秋仲' 이라 되어 있다.

광덕동 마을 뒤쪽 야산 기슭에 경사가 심하지 않은 곳을 택하여 남향으로 건립되었다. 건물의 배치는 대성전을 뒤로한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식으로, 대성전과 명륜당이 같은 축선상에 놓여 있다. 명륜당 뒤에 동서재를 배치하였는데, 이런 경우 명륜당과의 동선을 고려해서 명륜당의 평면이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나, 진보향교는 평상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전면 3칸, 측면 3칸의 겹처마로 된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화강암 장대석 기단을 낮게 축조하여, 어칸과 동측협칸 기단 전면에만 1단의 계단을 두고, 전면 기둥에만 원형초석을 사용하였다. 흘림이 있는 원주와 방주를 겹쳐 전면기둥을 2중으로 구성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따라서 전면 벽체는 원주가 아닌 방주 측면에 이어지고 있는 대신, 창방과 공포는 원주에 끼우고 하인방과 상인방을 방주에 끼워 문틀을 세웠다. 따라서 전면은 원주가 완전히 돌출 되게 벽면을 구성하고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처음 계획하여 치목 했을 때 보다, 위패를 모셔보니 규모가 작아서 넓혔다고 하는데, 대들보 하부에 주두를 끼운 듯한 십자(十字) 홈이 있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전면 각 칸에는 쌍여닫이문을 세 군데에 달았으되 좌우 협칸의 문을 어칸쪽에 약간 치우쳐 달았고, 측벽은 부축벽으로 하여 중방 하부가 두툼하게 되어 있다. 창방 위에는 주간에 화반을 끼웠는데, 전후면의 형상이 서로 다르다. 공포는 외1출목 2익공으로 하였는데, 살미는 단부를 사절시켜 앙서(仰舌)로 하였고, 초제공 위에 연봉을 하나 올려놓았다. 첨차의 형상은 행공첨차는 단부를 사절시키고 하부는 초각을 하였다. 가구(架構)의 구성은 2고주 5량가로 하여 대들보 위에 포를 짜서 포대공을 구성하여 뜬창방을 결구시켰다. 뜬창방과 중도리장혀 사이에는 화반을 끼운 것이 특이하다. 종보 위에는 파련대공을 얹어 종도리를 받고 있다. 전내의 바닥에는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전면만 겹처마로 두었고, 지붕 좌우에 방풍판을 달았다.

2003년 해체 보수시에 대성전 현판 뒤에 묵서명이 발견되었는데, 정갈한 붓글씨로 '崇禎後初去乙巳崇□□□上丁□□賜三字'라 되어 있어, 이 현판이 현종(顯宗) 6년인 1665년에 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8]

(2)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전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익공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8)_ 2003년도 보완 조사 도중 해체 수리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대성전에서 도리 간의 이음이 없어 좌우로 기울어져 보수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장대석으로 기단을 쌓고 전후면의 크기가 약간씩 다른 원형으로 된 정평주초를 놓아 원형 기둥을 세웠다. 각 칸 전면에 두 짝 판문을 달고 좌우 측면에는 중방 하부에 심벽을 구성하였다. 내삼문으로는 보기 드물게 파련대공을 한 초익공 건물로 3량가의 구조에 운형대공을 올렸다. 주간에 소로를 수장하였으며, 판문 전면에 2태극 문양을 도채하였다. 대개 귀솟음을 위하여 귓기둥의 높이를 평주보다 높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전면 어칸의 좌우 기둥이 귓기둥보다 낮으며, 기둥 일부는 동바리 이음하였다. 전면 주칸에 비하여 측면 칸살이 비교적 넓은 편이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전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계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9]

평면은 좌우 실 전면 평주열에서 약 1/3칸 가량을 후퇴시켜 나머지 전후칸을 통칸으로 온돌방으로 두고 다시 후면칸의 일부를 벽체로 구분하여 벽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앙 3칸과 나머지 전면 퇴칸 등을 우물마루를 시설하고 전면에는 계자각 난간을 설치했다.[10]

막돌쌓기한 기단 위에 전면 기둥열만 원주(圓柱)로 하고 나머지는 방주(方柱)를 세우고, 마루를 약간 높게 설치했다. 몰익공의 5량가로, 대들보 위에 운두가 낮은 첨차를 중대공으로 하여 종보와 중도리를 받게 하고, 종보 위에는 제형판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게 한 소박하고 건실한 구조를 구성하였다.

단청을 올리지 않은 백골(白骨)집이다. 문얼굴의 구성은 좌우 실 전면을 머름을 들인 쌍여닫이세살창으로 하였으며, 당(堂)과 면하는 면은 전면 칸은 머름을 들여 외여닫이세살창을 구성하고, 후면칸은 들어열개 사분합문을 달았다. 당 배면은 판벽으로 하여 하부는 머름을 들이고 위에 쌍여닫이울거미널창을 두었는데, 어칸의 구성은 창방을 문윗틀로 하여 다른 칸의 창 보다 키를 높게 하였는데, 이는 명륜당 뒤쪽에 동서재가 있어 동선(動線)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문의 구성이 특이한데, 대성전과 같이 전체 높이를 3등분 하여 하부 2칸에 널을 두고 상부 1칸에만 세살을 꾸몄다. 실 바닥은 마루보다 낮게 하고 천정은 고미반자를 취하였는데, 전면 퇴칸의 상부는 우물반자로 하였다. 종도리장혀 하부에 '上之三十五年戊戌八月初八日巳時立柱 同月十三日卯時上樑'이란 상량문이 보이는데 1898년으로 보인다. 내부에 '東齋重建記(동재중건기)' 등 다수의 기문이 걸려 있으며, 전면 어칸 상부에 '明倫堂' 현판을 걸었으며, 현재 용마루 동쪽편에 명문와가 남아 있다.

---

9)_ 측면 두 칸의 주칸은 각각 전면 칸이 2670mm, 후면칸이 2660mm 이다. 이 가운데 전면 칸의 앞 부분 850mm 가량을 뒤로 밀어 기둥을 세웠으므로, 언뜻 측면 두 칸 반으로 볼 수 있으나, 가구 및 칸살 구성상 두 칸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10)_ 우물마루의 구성이 약간 특이한데 마루 청판의 방향이 각각 다르다. 추정하건대 원래 전면 퇴칸이 없었던 것을 추가로 덧달아 내었고, 좌우 실 전면 퇴칸의 공간이 좁자 이를 넓히기 위해 다시 측면칸의 1/3칸 가량을 뒤로 밀고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당 부분의 우물마루에서는 어칸 동귀틀의 간격이 좌우 협칸에 비하여 좁게 되어 있다.

(2) 동재(東齋)

동재는 전면 3칸, 측면 2칸 규모에 전면에 퇴칸을 둔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단층 기단 위에 원형과 방형의 기둥을 섞어 사용하였으며, 대들보 중앙에 판대공을 얹어 3량가를 구성하였다. 평면은 어칸과 남측협칸의 2/3 가량을 통칸으로 온돌방을 꾸몄으며, 남측협칸의 1/3칸과 북측협칸, 그리고 전퇴는 모두 우물마루를 깔았다. 특히 남측 협칸의 귓부분에서 고주열의 귓기둥과 평주열의 귓기둥을 잇는 45°각도의 부재를 놓고 남측 협칸 마루부분을 약 3치 가량 높였다. 좌우에 풍판을 달았으며, 전면 남측에 정료대(庭燎臺)로 보이는 석재가 일부 남아 있다. 또한 남쪽에 금(禁)자를 새긴 8각형의 표석을 두었다.

(3) 서재(西齋)

서재는 전면 3칸, 측면 2칸 규모에 전면에 퇴칸을 둔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전면과 북측면에서 1/3칸 정도를 후퇴시켜 퇴칸을 구성하고, 남측 협칸과 함께 우물마루를 깔았다. 어칸과 북측협칸 2/3칸은 통칸으로 온돌방을 꾸몄다. 3량가의 납도리로 구성한 백골집이다. 어칸의 칸살이 좌우 칸 보다 1척 가량 작다. 명륜당 내부에 걸린 '西齋重修記(서재중수기)'에 의하면, 1990년에 중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외삼문(外三門)

외삼문은 전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원형 기둥을 세운 3량가로, 지붕은 어칸이 높은 솟을삼문으로 하였는데, 어칸은 기둥을 높이지 않고 서까래 위의 알매 기와를 올려 고설(高設)로 한 것이 특색있다. 1983년에 기둥, 문을 개체하고 번와공사를 하였다. 타 건물에 사용되었던 부재를 사용하였으며, 일부 기둥 하부는 초석면과 그렝이질 하지 않고 그냥 얹었다. 전면 우측에 하마비(下馬碑)가 자리잡고 있다.

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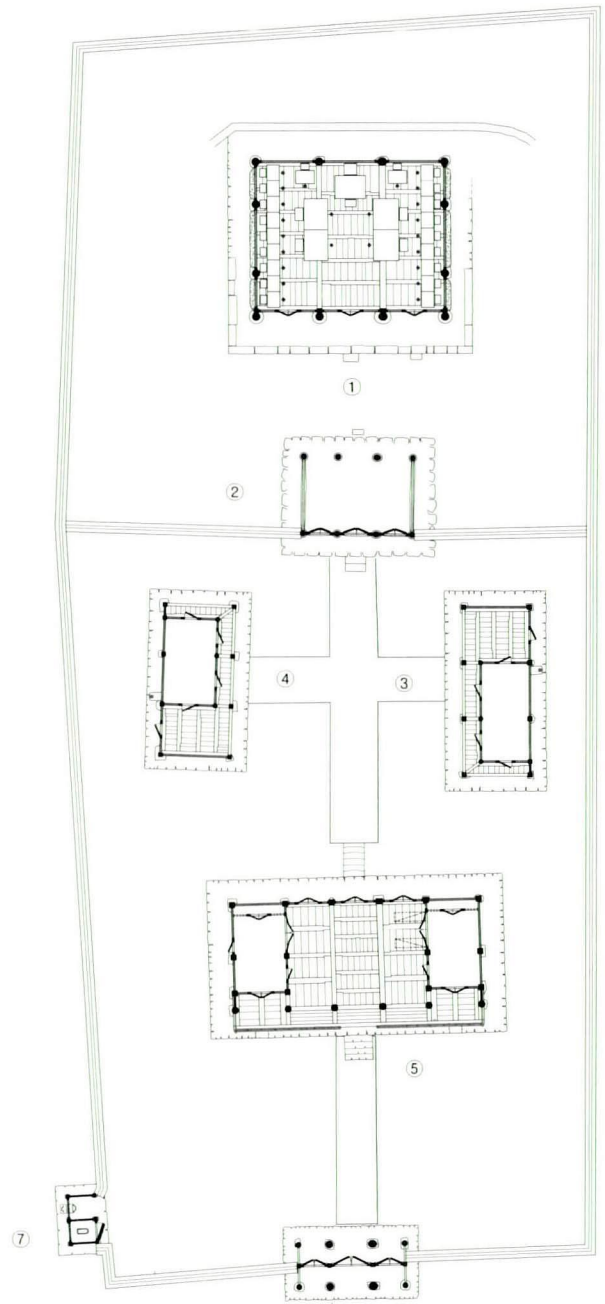
기타 건물로는 교직사(校直舍), 화장실 등이 있다.

교직사는 향교 담 외곽 남동쪽에 한 단 낮은 곳에 'ㄱ'자형의 살림집으로 자리잡고 있다. 모서리 부분에 부엌을 두었으며, 창호 다수가 변형되어 있다. 3량가의 간략한 가구에 팔작지붕으로 되어있다.

화장실은 명륜당 서편 담 남쪽 끝 부분에 자리잡고 있다. 2칸 규모의 맞배집으로 내부는 칸을 구분하였고, 건물 자체는 전면 기둥렬이 담과 연이어 있어 사실상 향교 외곽으로 빠져 있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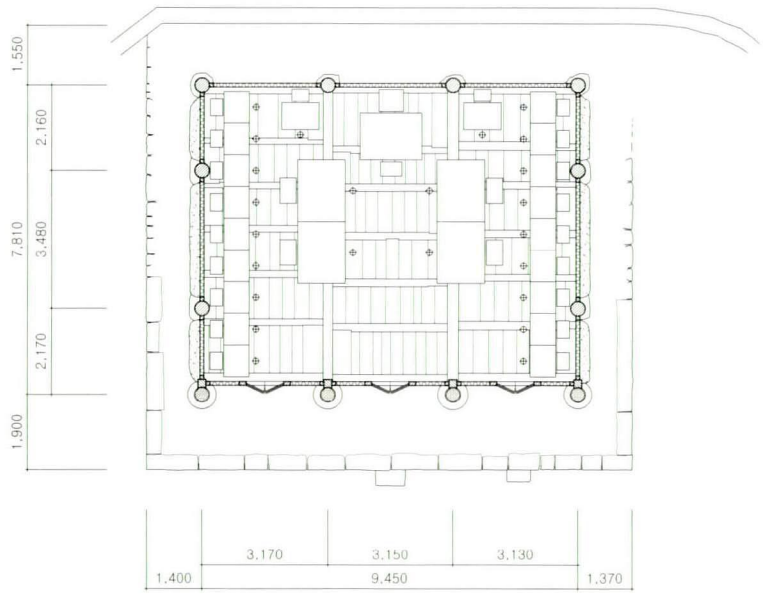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진보향교(眞寶鄕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01호(일곽)
창건시기	조선 태종 4년(1404)	입 지	구릉지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향교재단
좌 향	정남향 (대성전 정남향)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堂後齋 종축 1개
중건시기	1762 이건 1882 이건 1886 현 위치로 이건	대지조성	2단 : 내삼문 기준
설 위	5聖, 宋朝 4賢, 海東 18賢	인접시설	구(舊) 관아터
건축구성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외삼문, 교직사, 화장실		
특기사항	내삼문의 형식이 특이하게 정연하게 건립된 익공식을 취하고 있음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3×3칸 / 외1출목 2익공 / (전면) 겹처마 (후면) 홑처마 맞배지붕 / 2고주(측벽) 5량가 / 우물마루 / 연등천장 / 주칸 어칸 3150 협칸 3150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이벌대 / 장대석 바른층쌓기 전면 2개(각 1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어칸) 종 보 : 4분변작
초 석	정평주초 / 원형 및 자연석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방형기둥	대 공	중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파련대공
공 포	외1출목 이익공 / 보머리 초각	창 방	방형 / 뺄목 초각
처 마	전면 겹처마, 후면 홑처마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부축벽(측면 중방 하부) / 백골청 / 연등천장 / 우물마루		
특기사항	전면에 평주 안쪽으로 방형 기둥을 덧대어 전면 평주가 완전히 돌출되도록 하였음 좌우측벽 중방 하부에 부축벽을 형성하였음		
명륜당 건축 요소			
개 요	5×2칸 / 몰익공 / 겹처마 팔작지붕 / 5량가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고미반자(퇴칸 우물반자) / 주칸 어칸 및 협칸 2350, 퇴칸 2650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이벌대 전면 1개 (4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3분변작
초 석	덤벙주초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방형 기둥	대 공	중대공 : 도리방향 첨차+소로 종대공 : 제형판대공
공 포	몰익공	창 방	방형 / 뺄목 직절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 붕	팔작지붕
수 장	회사벽 / 백골청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고미반자(퇴칸 우물반자)		
특기사항	전면 퇴칸을 구성하려고 실 전면칸의 측면 폭을 감소시켰음 마루 청판의 방향이 당 부분과 당 · 실 전면 퇴칸에서 각각 다르게 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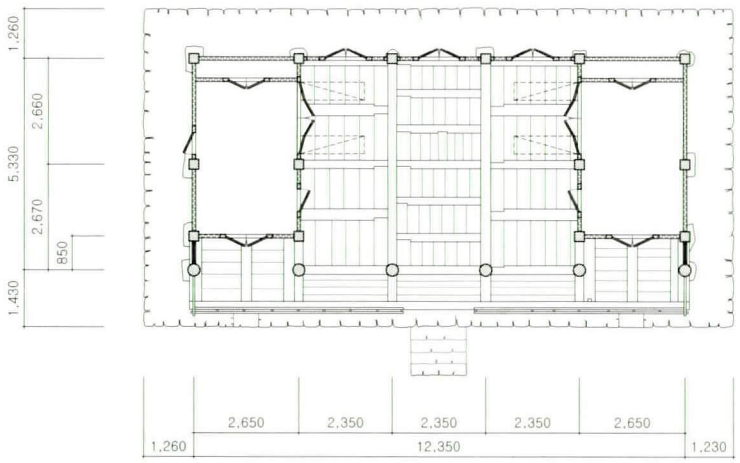
① 대성전
② 내삼문
③ 동 재
④ 서 재
⑤ 명륜당
⑥ 외삼문
⑦ 화장실
⑧ 교직사

진보향교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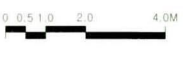
0 5 10 20 M



진보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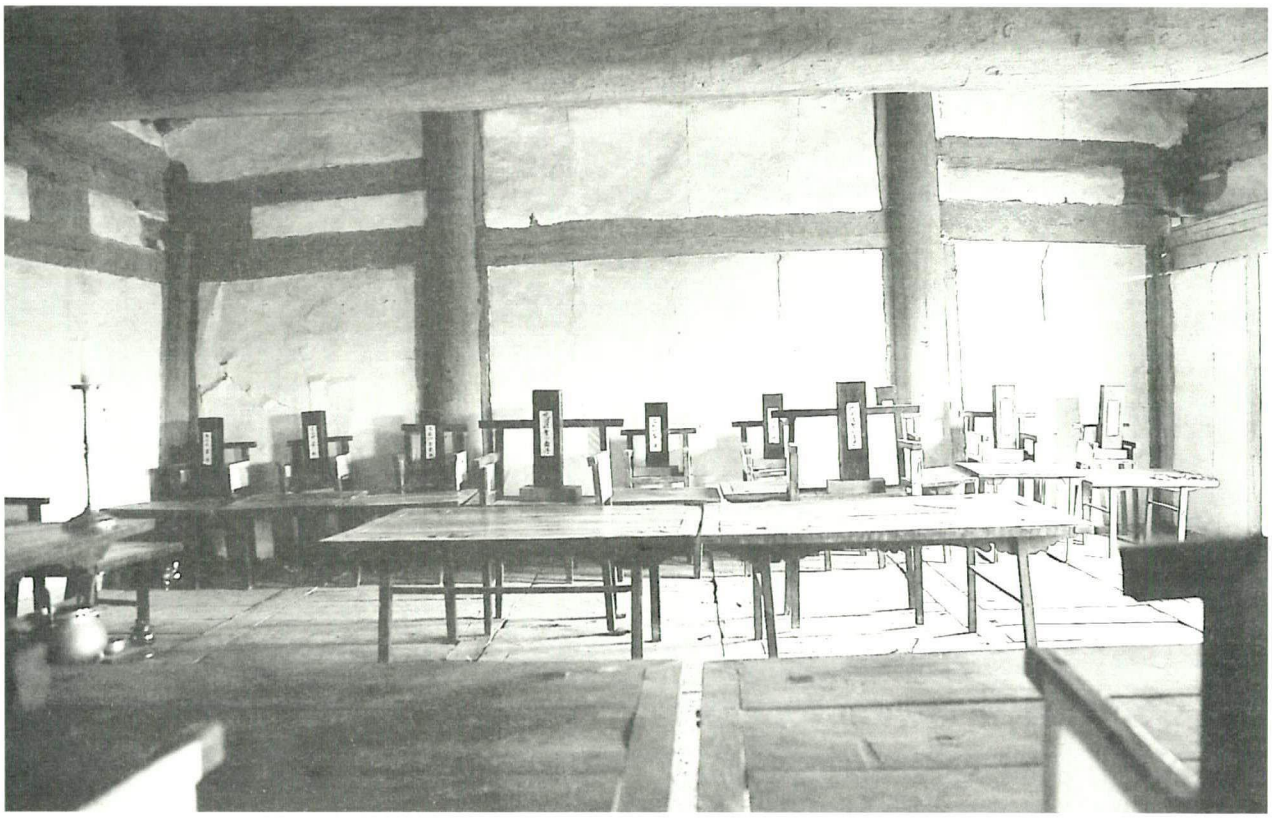


진보향교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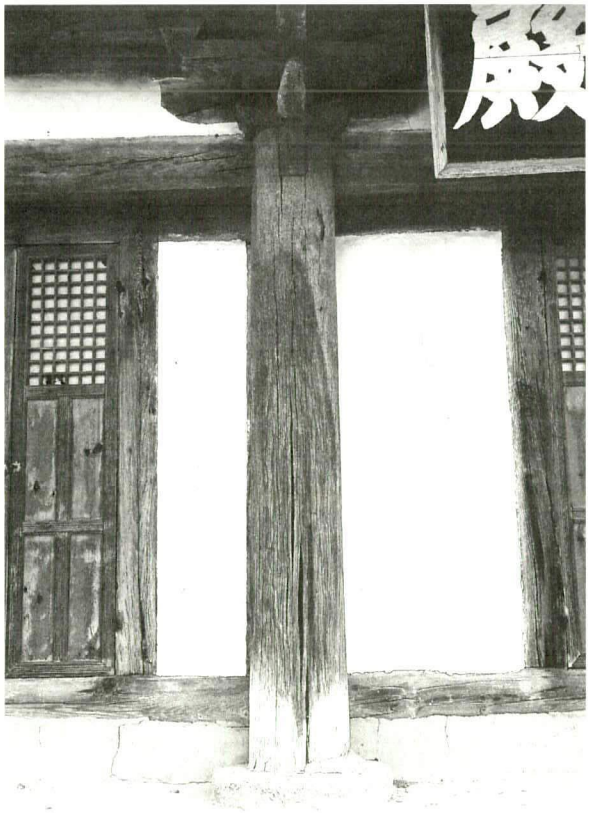




대성전



대성전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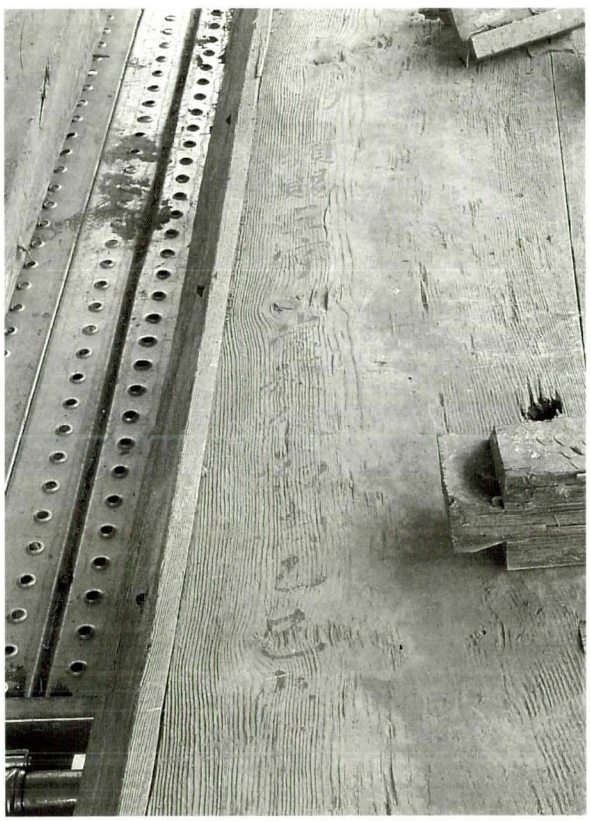
대성전 전면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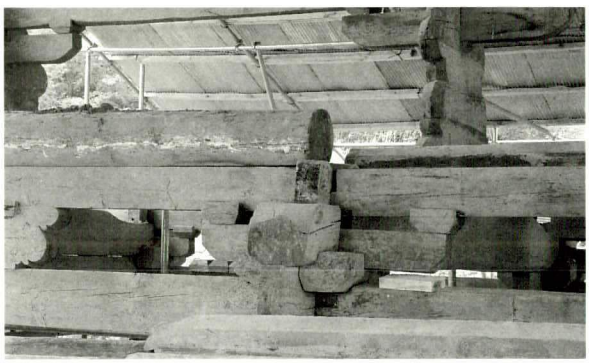
대성전 전면 주상포



대성전 전면 주상포 대량 결구(해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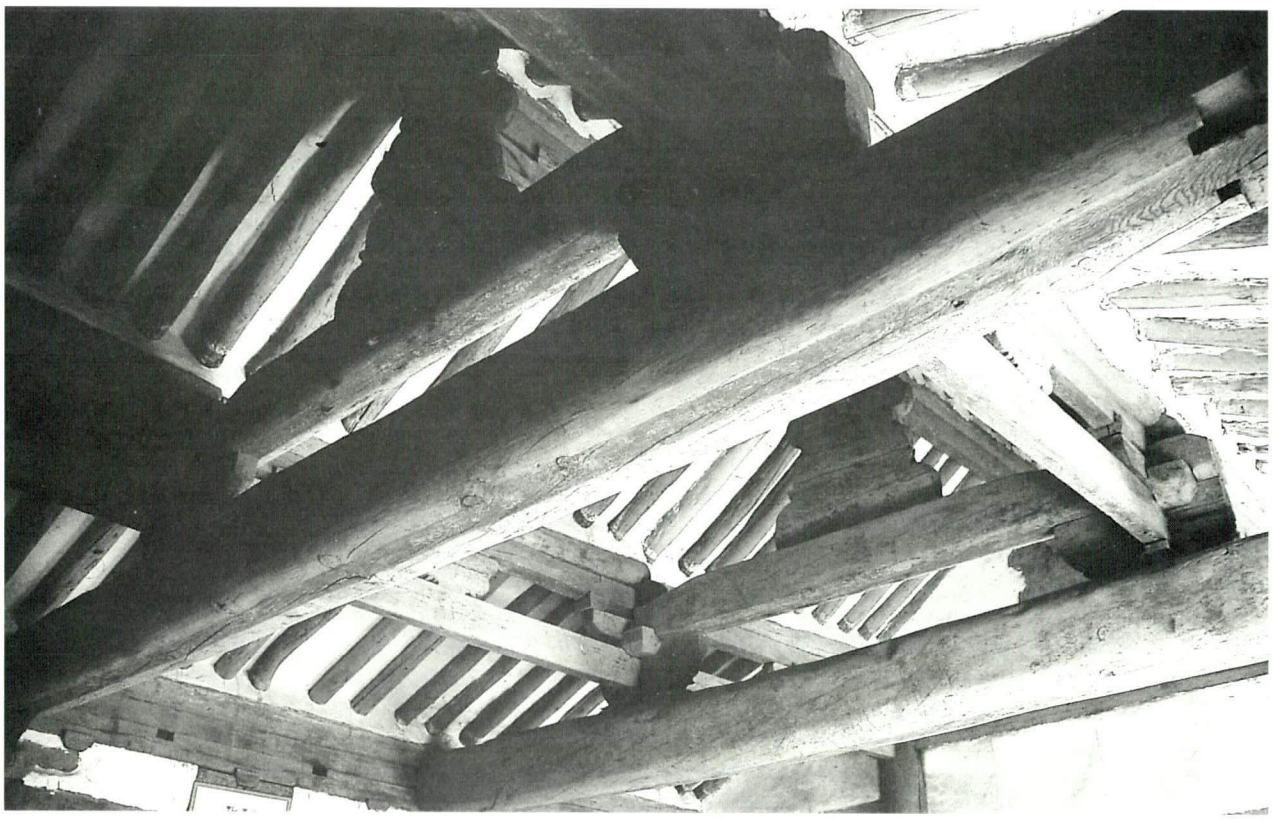
대성전 현판 후면 묵서명(해체 중)



대성전 내부 중도리 결구(해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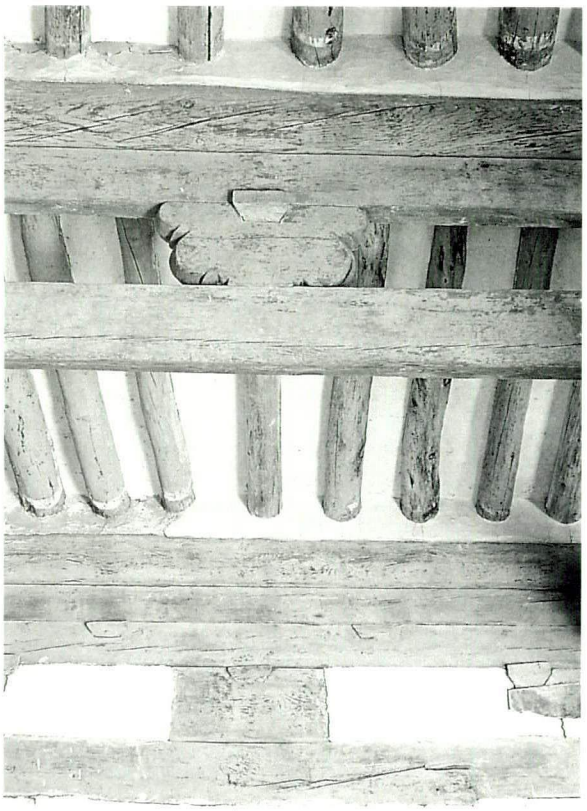
대성전 내부 종대공(해체 중)



대성전 내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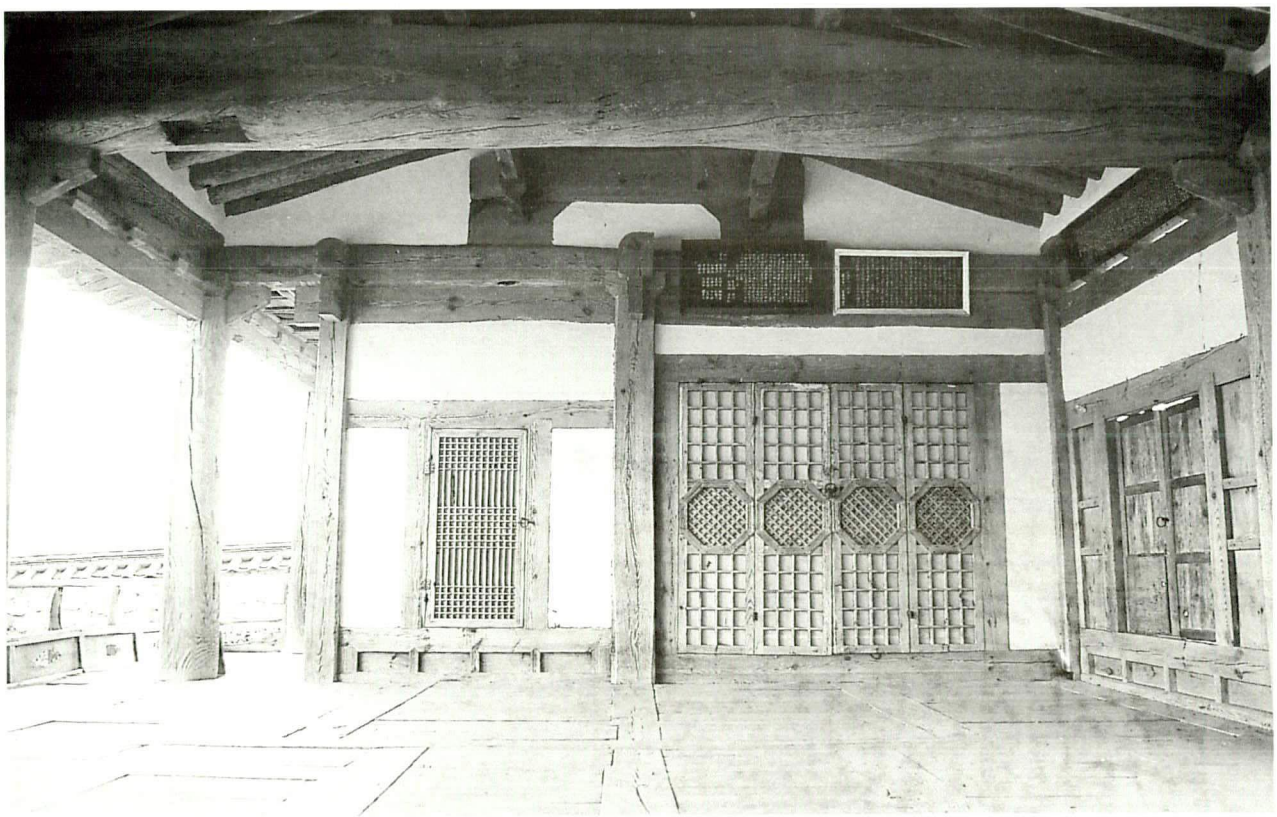
대성전 내부 중대공



대성전 내부 협칸 구성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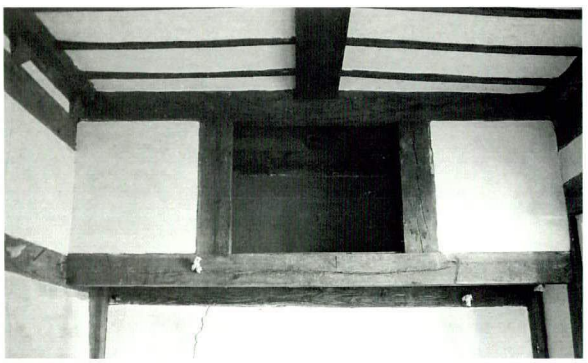
명륜당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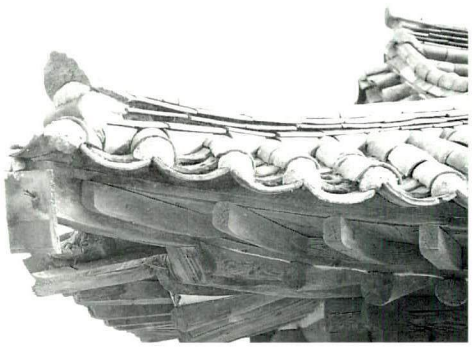
명륜당 내부 가구



명륜당 전면 어칸



명륜당 내부 다락



명륜당 추녀



내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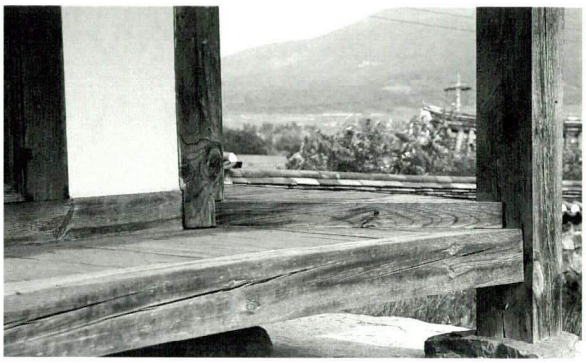
외삼문



동재



화장실



동재 마루 상세



하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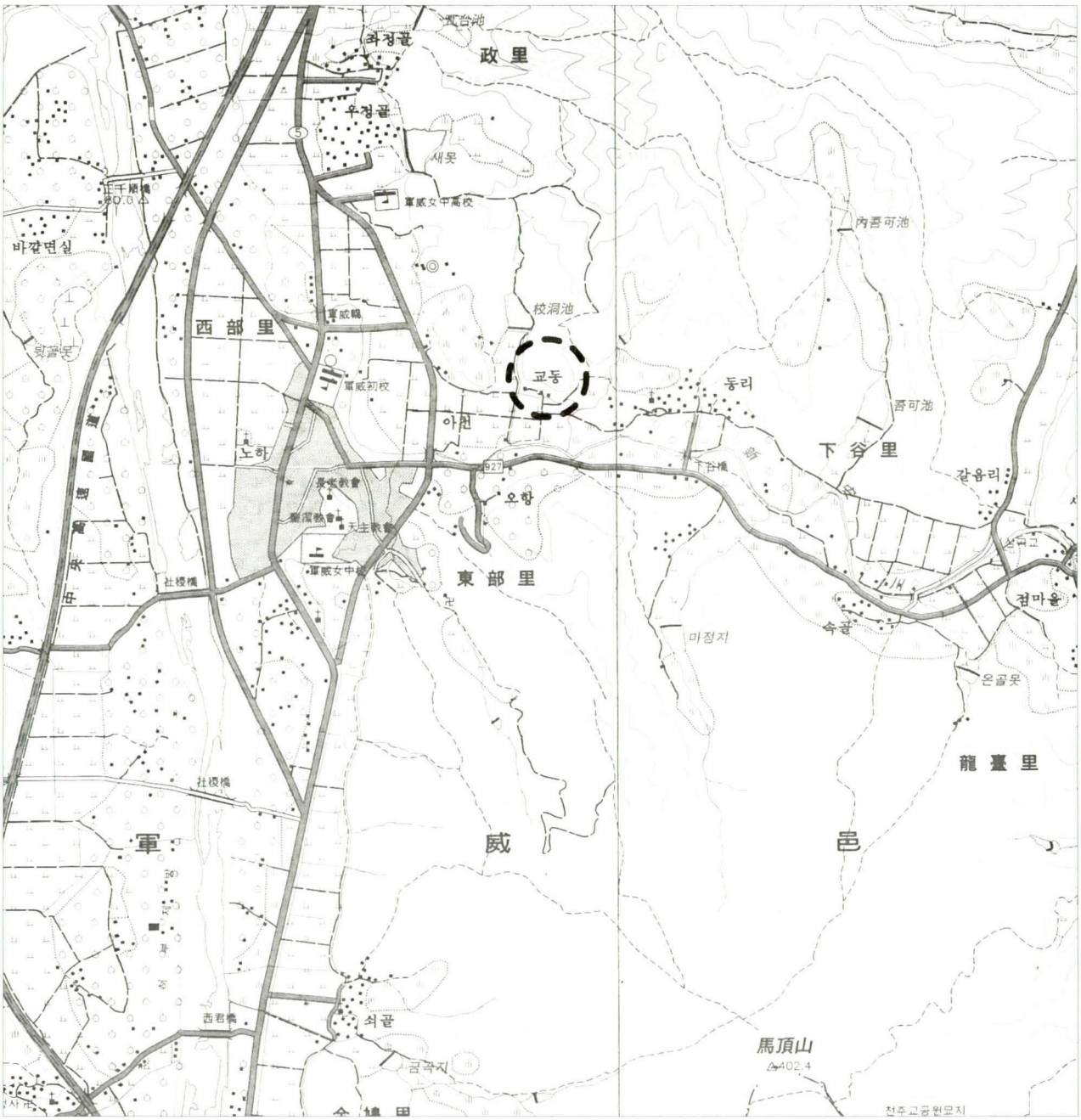


대성전 앞 석물



13. 군위향교(軍威鄕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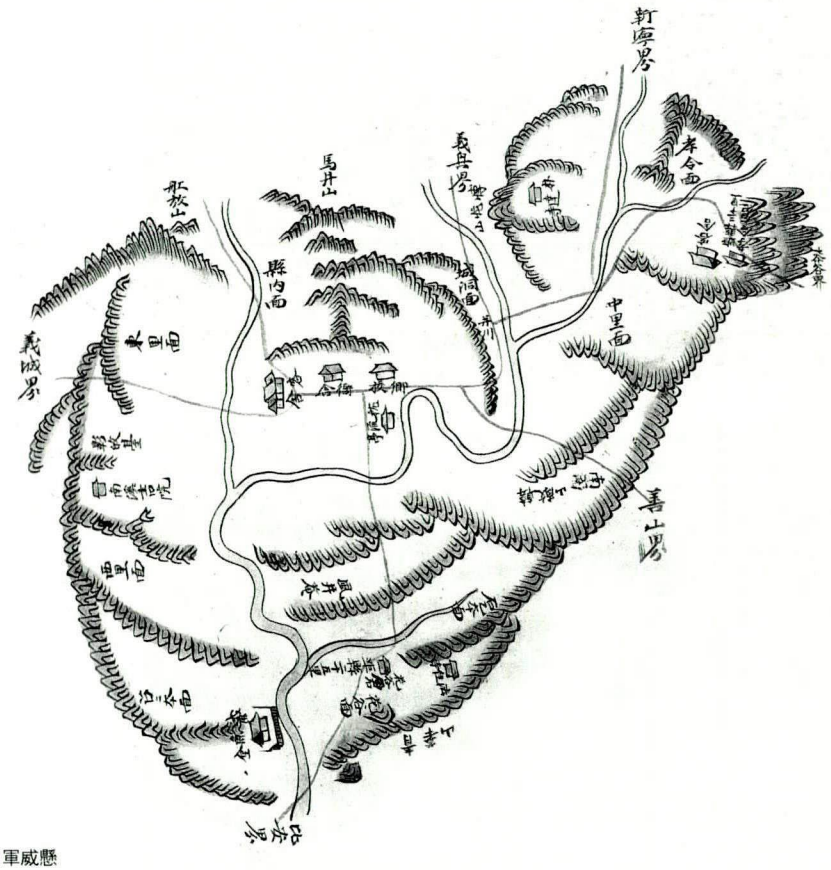
- 지정사항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85호(일괄)
- 지 정 일 : 1987년 5월 13일
- 소 재 지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629
- 건축구성 :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광풍루, 외문, 화장실 등



1. 연혁

군위현(軍威縣)은 본래 신라 노동멱현(奴同覓縣)이었으나 신라 경덕왕 때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숭선군(嵩善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 9년(1018)에 상주에 속했다가 인종 21년(1143)에 일선현(一善縣, 현 구미시)에 환속되었다. 공양왕 때 감무를 두었다가 조선 태종 13년(1413)에 현감을 두게 되었다.[1] 1914년 지방행정 구역 개편에 따라 의흥군을 병합하여 오늘의 군위군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역 연혁을 가진 군위의 향교는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629번지에 위치하고 있다.[2] 군위는 남북이 길고 동서가 짧은 지형인데 향교의 배면인 동쪽에는 마정산(馬井山)이 있으며 전면인 서쪽에는 위천(渭川)이 흐르고 있다.



軍威縣

군위향교는 조선 태종 7년(1407)에 군위읍 동부리 마정산(馬井山)에 창건되었으나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당시 소실되었다. 전쟁이 끝난 선조 40년(1607)에 유서애(柳西厓)·이오봉(李五峯) 선생이 풍수지리를 잘 보는 성지대사(聖知大師)[3]를 본향에 보내어 선방산(船放山) 남쪽 기슭에 쇠똥골에 이건하였으나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향교가 있었던 곳이라 하여 교동(校洞)이라 부르고 있다. 현 위치로 재이건한 것은 숙종 27년(1701)이었다.[4] 1926년에 광풍루를 건립하였으며,[5] 이 시기를 전후하여 대성전과 명륜당, 광풍루, 그리고 담 일부를 보수하였다.[6] 현재의 서재는 한국전쟁 이후에 재건한 건물이며, 1966

1)__ 재인용, 『慶北鄕校誌』(경상북도 · 영남대학교, 1991) p.579 ; 『軍威縣邑誌』建置沿革條

2)__ 재인용, 위의 책, p.579 ; 『軍威郡邑誌』 學校條(학교조)에 향교는 현의 동쪽 1리에 있다고 하였다.

3)__ 재인용, 위의 책, p.579 ; 『赤羅誌(적라지)』 下 事實條

4)__ 재인용, 위의 책, p.579 ; 『赤羅誌』 上 學校條 鄕校에, '在縣東三里 馬井山北麓下 壬辰火毁于兵 癸柳西厓 李五峯 在京送相地僧聖智 改卜新基于縣東五里 船放山下乾坐之地 肅宗辛巳又移建于距縣衙一里 金堤下' 라 되어 있다.

5)__ '新修鄕校光風樓記(신수향교광풍루기)', 기문 말미에 '丙寅' 년명이 보인다.
'鄕校光風樓重建記(향교광풍루중건기)', 기문 말미에 '丙寅重陽節' 이라 되어 있다.

6)__ '鄕校重修記(향교중수기)', 간지(干支)나 연호(年號)가 없어 연대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기문 가운데 '직원(直員)'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일제 강점기 때의 것으로 보이며, 광풍루가 중건된 1926년 이후일 것으로 판단된다.

년에 대성전을 보수하면서 담 일부를 보수하였다.[7] 1973년에 일곽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를 하였으며, 이후 1990년과 1991년, 1998년에 보수공사를 하였고, 1993년에는 방충방연제 도포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01년에 대성전과 명륜당을 보수하고 담 일부를 보수하였다.[8] 현재 향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로는 『任司錄(임사록)』, 『釋奠儀(석전의)』, 『釋典大祭陳設圖(석전대제진설도)』 및 기타 홀기(笏記) 등이 있으며, 다수의 기문이 명륜당과 광풍루 상층 내부에 걸려 있다.

창건 이후의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07	창건
1592	임진왜란 당시 소실
1607	이건
1701	현 위치로 이건
1926	광풍루 건립
한국전쟁 이후	서재 건립
1966	대성전, 담 일부 보수
1973	향교 일곽 보수
1990	향교 일곽 보수
1991	향교 일곽 보수
1993	방충방연제 도포
1998	향교 일곽 보수
2001	대성전, 명륜당 보수, 담 일부 보수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는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광풍루, 화장실, 외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입지 및 배치

군위향교는 읍내에서 경찰서를 마주 보고 우측 길로 진입하여, 천주교회 골목으로 진입한 후 오른쪽 길로 약 10여 미터를 가다가 다시 좌측 길로 20여 미터를 간 곳에 자리잡고 있다. 전체적으로 약간의 경사가 있는 구릉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서편과 북편으로 다수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

---

7)_ '大成殿重修記(대성전중수기)', 기문 말미에 '檀紀四二九九年丙午' 라 되어 있다.

8)_ '軍威鄕校重修記(군위향교중수기)', 기문 말미에 '檀紀四三三五(二00二)壬午' 라 되어 있으며, 기문 중에 보수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한때 명륜당을 유치원으로 사용하다가 최근에 복원을 하였고, 동재는 교직사로 사용하고 있다. 군위읍 동부동 마을 안에 군위중·고등학교와 인접하여 경사지에 배치하였다.

동남향으로 건물을 놓고 일직선상에 광풍루, 명륜당, 내삼문 순으로 제일 뒤쪽 높은 곳에 대성전을 둔 전학후묘(前學後廟), 전재후당(前齋後堂)의 배치방식을 따랐다. 또한 명륜당 앞에 동재와 서재를 마주보게 하고, 동서무는 소설위 향교인 관계로 건설하지 않았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전면 3칸, 측면 3칸 규모에 퇴칸을 둔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장대석으로 네 단을 쌓은 축대에 한 단의 기단을 올렸으며, 기단 전면에는 우측 협칸과 기단 좌측 끝에 각각 4단으로 된 계단 1개씩을 두었다. 전퇴를 구성하면서 초석을 중심으로 다시 한 단을 높이고, 내부 바닥은 몰탈 마감했던 것을 2001년도에 보수하면서 전돌로 바꾸었다. 전면의 축대는 아래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춤이 작아지고 있다.

둥글게 다듬은 초석 위에 약한 흘림을 둔 원형 기둥을 세웠으며 상부는 창방을 둘렀다. 전면 벽체는 모두 판벽으로 하였는데 올거미를 짜서 문과 같은 형상을 한 것이 이채롭다. 어칸의 문얼굴은 쌍여닫이 울거미널문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판벽을 구성하였으며, 양 협칸은 외여닫이 울거미널문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판벽을 구성하였는데, 판벽과 문의 모양을 동일하게 한 점이 특이하다. 양측면 중방 하부는 화방벽으로 두고, 전면 퇴칸에서 우측은 개방하고 좌측은 기둥 절반 높이의 토담을 쌓은 점도 특이하다.

창방 위에 화반을 2개씩 올려놓았는데 전후면의 화반 형태가 다르다. 기둥머리에는 공포를 형성하여 외1출목 2익공으로 하였는데 살미의 형상은 단부를 사절한 쇠서모양으로 아직 연봉은 나타나지 않았다. 2익공 살미 위에 퇴량머리를 초각하여 올려놓았다. 첨차는 행공첨차와 주심첨차로 구분되는데, 행공첨차는 하부를 초각하였으며, 주심첨차는 교두형이고 도리 사이는 순각판으로 막아 상부를 가리고 있다.

가구(架構)의 구성은 어칸에서 1고주, 측벽에서 2고주 5량가이다. 어칸 좌우에서 고주(高柱)는 평주(平柱)와 같은 높이로 하여 툇보를 놓고, 고주열 주심 밖으로 대들보 머리를 내밀어 고주 뒷뿌리를 끼워 넣었다. 그 위에 3단의 첨차를 교차중첩 시켜 종보를 받게 하였다. 자연 곡재를 그대로 대들보로 하였으며 짧은 동자주를 올려 높이를 조절한 후 주두를 놓고 2중으로 중첩시킨 첨차를 교차시켜 포대공을 형성하였고, 종보와 중도리를 받게 하였다. 종보 위에는 외연(外緣)에 테두리를 두른 제형판대공을 세우고 뜬장혀를 건너지르게 하였다.

소설위 향교임에도 기둥을 높게 하여 규모를 크게 한 것이 인상적이다. 정면은 겹처마, 배면은 홑처마로 하고 맞배지붕을 하여 양측면에는 방풍판을 달아 놓았다. 전면 어칸에 '大成殿' 현판을 걸었으며, 지붕에는 암수막새를 얹었는데, 현재 동재 후면에 놓인 것과 같은

명문 암막새가 다수 놓여져 있다.

(2)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전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솟을삼문으로 되어 있다.

축대 전면에 2단의 계단을 놓고, 그 위에 다시 단층 기단을 조성한 다음 덤벙주초를 놓고 전면은 방형, 후면은 원형 기둥을 세웠다. 각 칸 전면에 두 짝 판문을 달았으며, 가구는 3량가로 대들보 중앙에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를 받았다. 벽체는 구성하지 않고 중방으로만 연결하였으며, 판문 전면에 2태극 문양을 도채하고 가칠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전면 6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계 홑처마 결합지붕 건물이다.

자연석으로 5.5척 정도의 높은 기단을 쌓아 운두가 높은 주초를 놓고 주고(柱高)가 높은 원주를 세웠다. 평면 형태는 경상북도 안에서 유일하게 정면 6칸, 측면 2칸으로 하여 세장(細長)한 느낌을 준다. 중앙 4칸을 우물마루로 꾸미고 양측칸을 2통칸 온돌방을 들였다.

방 전면은 벽체 중방 상부에 쌍여닫이 세살창을 내고 대청부분은 2칸 중 앞칸은 쌍여닫이문을 높게 만들었으며, 뒷칸은 외여닫이문을 같은 크기로 내고 있다. 대청 배면은 판벽으로 하여 하부에 머름을 들이고 그 위에 쌍여닫이 울거미널창을 달았다. 원래 유치원으로 사용되었다 복원하면서 창호를 모두 개체하였다.

가구(架構)의 구성은 초익공으로 하여 익공 살미는 끝을 뾰족하게 하고 하부를 초각한 형태로 높은 고주에 비해 빈약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홑처마의 맞배지붕에 가적지붕을 덧붙인 형태로, 대청부분은 5량가이나 온돌방은 3량가이다. 이러한 구조는 신령향교에서도 볼 수 있다. 대들보 위에 운두가 낮은 판재를 넣어 종보를 올리고, 그 위에 제형판대공을 세우고 첨차를 끼워 종도리를 받게하였다.

명륜당 가구의 처리는 주고(柱高)를 높이 하여 건물을 높게 하였으나 주심도리와 중도리간의 높이차이를 작게 하여 지붕 물매가 약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또한 방 전면 기둥하부에 쪽마루를 두었던 듯한 흔적이 남아 있다. 현재 일부 명문 암막새가 남아 있으나 멸실이 심하여 해독이 어렵다.

(2) 동재(東齋)

동재는 전면 4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좌측부터 방·마루·방·부엌의 평면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좌측 2칸 전면에 툇마루를 내었으며, 좌측 어칸은 마루와 퇴칸을 트지 않고 문을 달아 구획하였다. 단층 기단 위에 덤

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웠다.

현재 동재 후면에는 대성전을 보수하면서 내려놓은 명문와가 놓여져 있고, '康熙四十一年歲在壬午孟秋'라 되어 있는데 이는 1702년에 해당하며, 숙종 27년(1701)의 이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동재는 교직사로 사용하고 있다.

(3) 서재(西齋)

서재는 한국전쟁 당시 소실된 후 재건한 건물로 전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전면에 툇마루를 달았으며, 내부는 각 칸을 구획하여 방으로 하고, 전면에는 두 짝 세살문을 달았다. 단층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전면에는 원형, 후면에는 방형 기둥을 세웠으며, 가구는 3량가로 단청은 하지 않았다.

(4) 광풍루(光風樓)

광풍루는 전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민도리계 중층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야트막한 단층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웠다. 하층 전면에는 예전에 창호를 설치했던 문선과 하방이 남아 있으며, 특히 어칸 상방 후면에는 문을 달았던 둔테가 남아 있다. 좌측 협칸 후면칸에 상부로 오르는 계단을 두었고, 상층 바닥은 우물마루로 두었으며, 계단이 닿는 부분에 위로 열리는 두 짝 판문을 달았다.

상층 기둥은 방형으로 되어 있으며, 기둥머리에 사괘를 트고 보방향으로 짤막한 보아지를 결구한 다음 바로 대들보와 장혀를 받은 민도리식으로 결구되어 있다. 사방에 난간을 두르고 벽체는 두지 않았으며, 천장은 어칸 좌우 외기부분에만 반자를 구성하였다.

가구는 5량가로, 3분변작의 위치에 높직한 주두를 놓아 종보를 받았다. 종보 중앙에는 판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았는데, 대공 좌우에 연봉을 장식한 것이 특이하며, 전면 어칸 상부에 '光風樓' 현판을 걸었다. 모로단청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원래 청아루(菁莪樓)였던 것으로 보이는데,[9] 현재 명륜당 내부에 청아루 현판이 남아 있다.

(5) 외문(外門)

외문은 향교의 가장 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층 기단 위에 사방 단 칸 규모로 세운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건물은 좌우 담 밖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전면에 6단의 장대석으로 만든 계단을 두고 장대석으로 사방을 두른 기단 위에 방형 초석을 놓았다. 그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웠으며, 중간에 설주를 두고 두 짝 판문을 달았다. 3량가의 구조에 전면 우측 기둥에 '軍威鄕校' 현판을

9)_ 慶尙北道 · 嶺南大學校에서 1991년에 발간한 『慶北鄕校誌』에는 청아루로 되어 있다. 慶尙北道 · 嶺南大學校, 『慶北鄕校誌』, 1991 ; p.585

달았다. 현재 용마루에 명문와가 남아 있으나 멸실이 심하여 글자를 판독하기 어렵다.

다. 기타

기타 건물로는 화장실과 비석군이 있다.

화장실은 서재 후편에 자리잡고 있으며, 사방 단 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전면에 외짝 판문을 두 개 달았으며, 내부는 둘로 나뉘어져 있다. 단층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방형 기둥을 세웠으며, 가구는 3량가로 짤막한 동자주를 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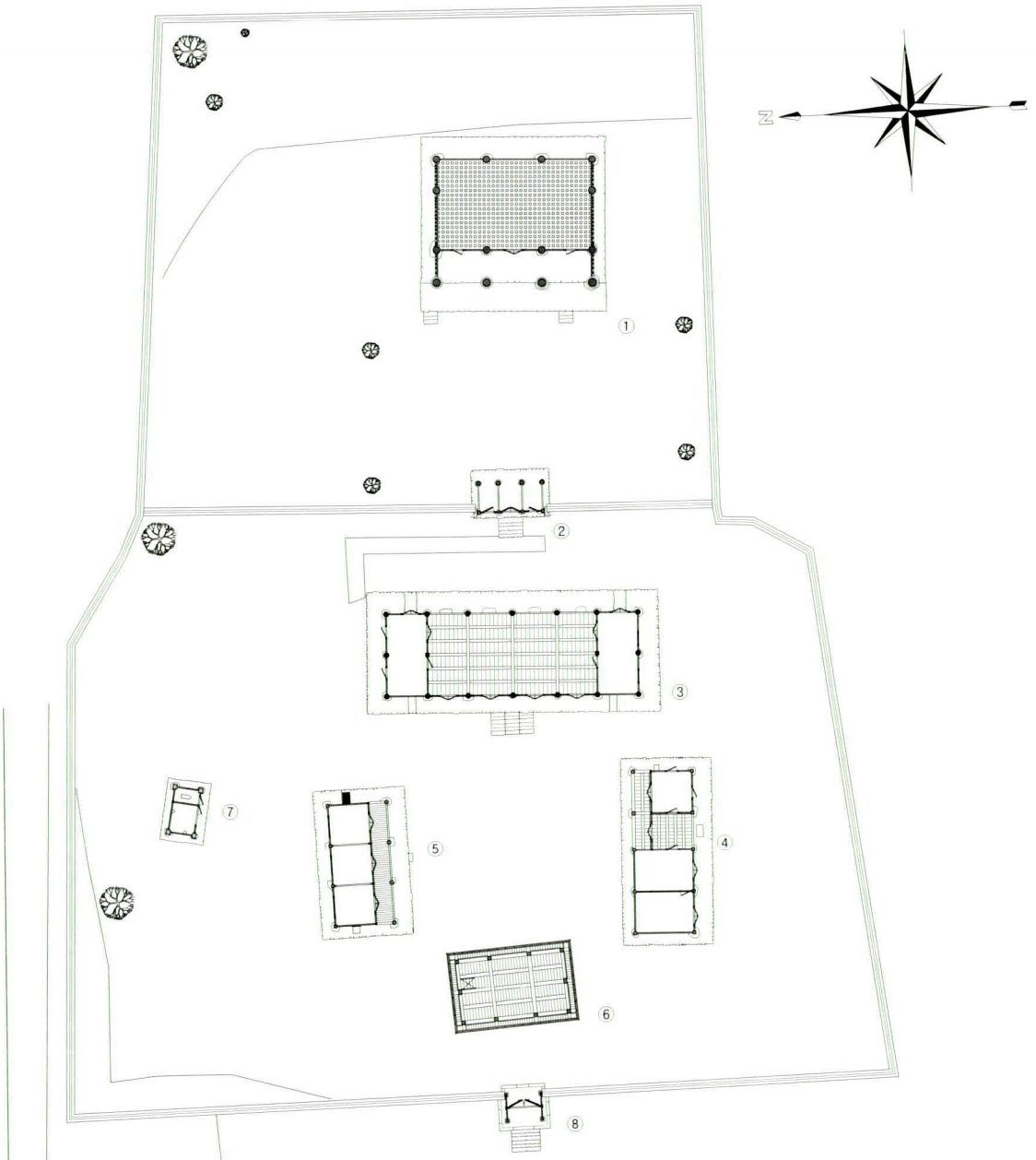
비석군은 향교 서남쪽 모퉁이 'ㄱ'자 형으로 모두 15개가 있다. 가첨석을 올린 것이 세 개이며, '觀察使金公世鎬去思碑' 등 불망비(不忘碑) 혹은 송덕비(頌德碑) 이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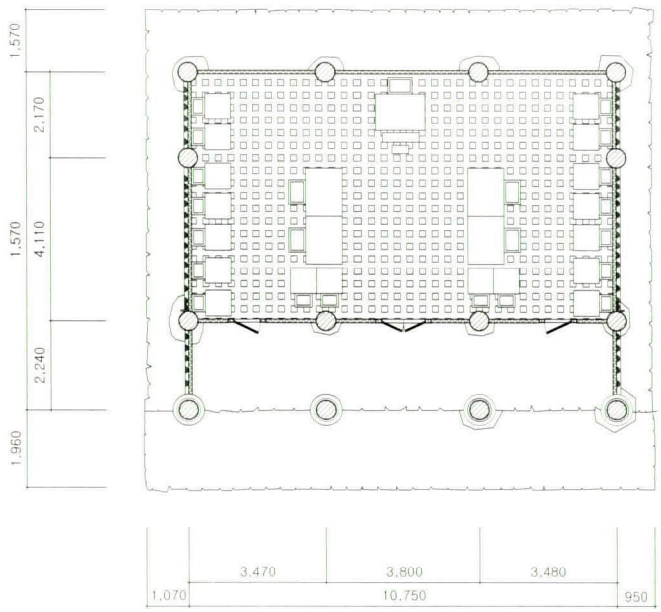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군위향교(軍威鄕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85호(일곽)
창건시기	조선 태종 7년(1407)	입 지	구릉지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향교재단
좌 향	동향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齋後堂 종축 1개
중건시기	임란중 소실 1607 이건 1701 이건	대지조성	2단 : 내삼문 기준
설 위	5聖, 宋朝 2賢, 海東 18賢	인접시설	군위 중고등학교
건축구성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광풍루, 외문, 화장실		
특기사항	일반적인 남향 대신 동향을 하였음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3×3칸, 전1퇴칸 / 외1출목 2익공 / (전면) 겹처마 (후면) 홑처마 맞배지붕 / 1고주(어칸) · 2고주(측벽) 5량가 / 전돌 / 연등천장 주고 3180 / 어칸 3800 / 수장폭 110 / 도리단면 Ø=270전후 / 보단면 : 대들보 / 540×470, 종보 420×400 / 처마내민길이 2330 / 기단높이 : 전면 930, 측후면 180 / 초석크기 약 Ø=520 전후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네벌대 / 바른층쌓기 전면 2개(각 4단)	보	대들보 : 전고주 후평주 걸침(어칸) 종 보 : 4분변작
초 석	정평주초 / 거칠게 원형으로 다듬음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 흘림 없음	대 공	중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판대공
공 포	외1출목 이익공 / 보머리 초각	창 방	방형 / 뺄목 직절 후 하단 궁글림
처 마	전면 겹처마, 후면 홑처마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화방벽 / 가칠단청 / 연등천장 / 전돌		
특기사항	전면 기단과 축대의 구성이 매우 이채로움 어칸에서 고주가 평주와 같은 높이로 되고 상부에 중대공과 같이 첨차를 중첩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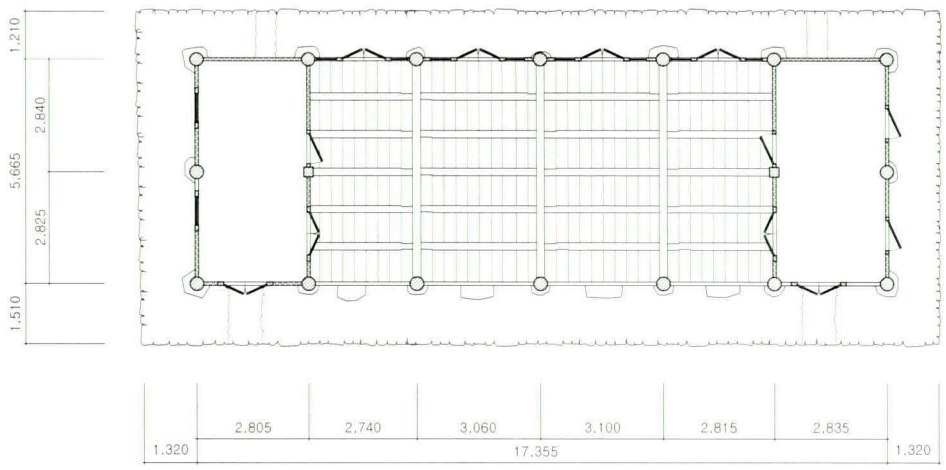
명륜당 건축 요소			
개 요	6×2칸 / 초익공 / 홑처마 결합지붕 / 5량가+3량가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지반자 주고 3320 / 주칸 어칸 3080 / 수장폭 105 / 도리단면 Ø=240 / 보단면 : 대들보 450×420, 종보 340×310 / 처마내민길이 1700 / 기단높이 : 전면 540, 후면 250 / 초석크기 480×500 전후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6벌대 전면 1개 (8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3분변작
초 석	덤벙주초	도 리	당(堂) 5량, 실(室) 3량 / 굴도리
기 둥	원형 기둥 방형 기둥 : 실 당측벽 고주	대 공	중대공 : 보방향 판재 종대공 : 제형판대공+첨차
공 포	초익공	창 방	방형 / 뺄목 초각
처 마	홑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이	지 붕	결합지붕, 맞배지붕+가섭지붕
수 장	회사벽 / 백골청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지반자		
특기사항	세장한 느낌의 기둥에 비해 익공 결구가 간략한 초익공으로 되어 있음 중도리 높이가 낮아 지붕 물매가 낮음		



군위향교 배치도



군위향교 대성전



군위향교 명륜당

0 0.5 1.0 2.0 4.0M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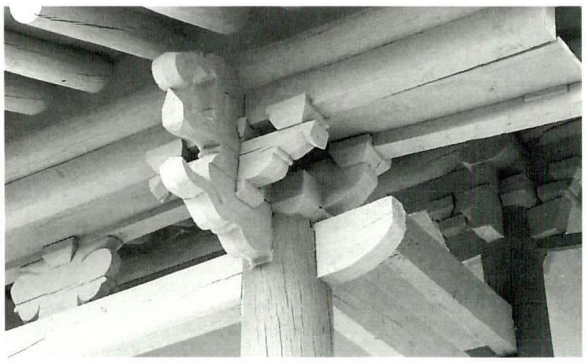
대성전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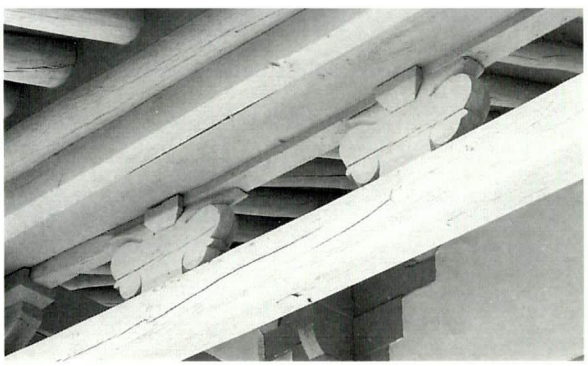
대성전 전면 퇴칸 가구



대성전 전면 주상포



대성전 전면 귀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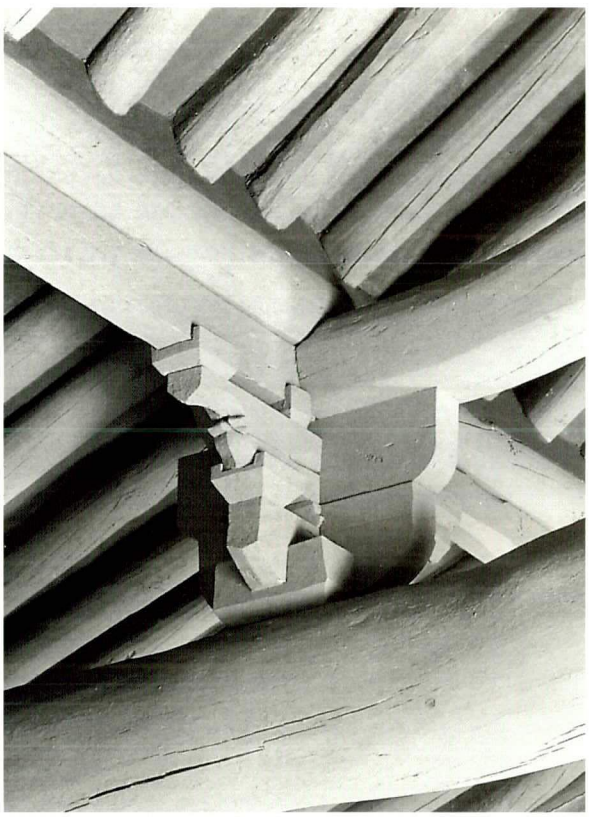
대성전 전면 화반



대성전 전면 초석



대성전 내부 가구



대성전 내부 중대공



대성전 내부 종대공



명륜당



명륜당 내부



명륜당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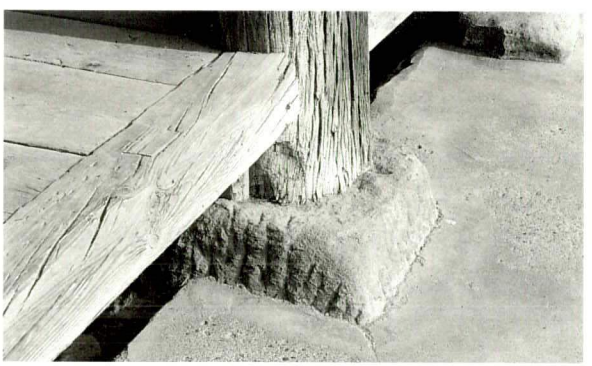
명륜당 전면 주상포



명륜당 전면 귀포



명륜당 전면 계단



명륜당 전면 초석



명륜당 내부 가구



명륜당 내부 중대공



명륜당 내부 종대공



동재



서재



광풍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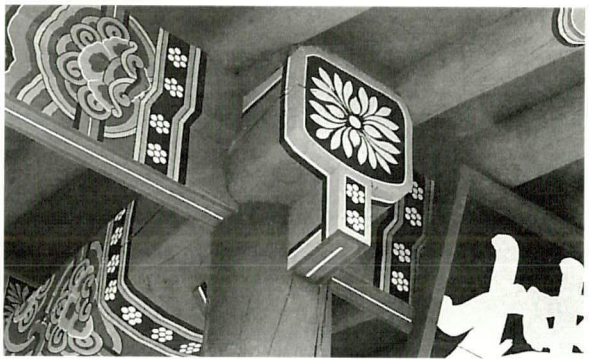
광풍루 상층 내부



광풍루 하층



광풍루 어칸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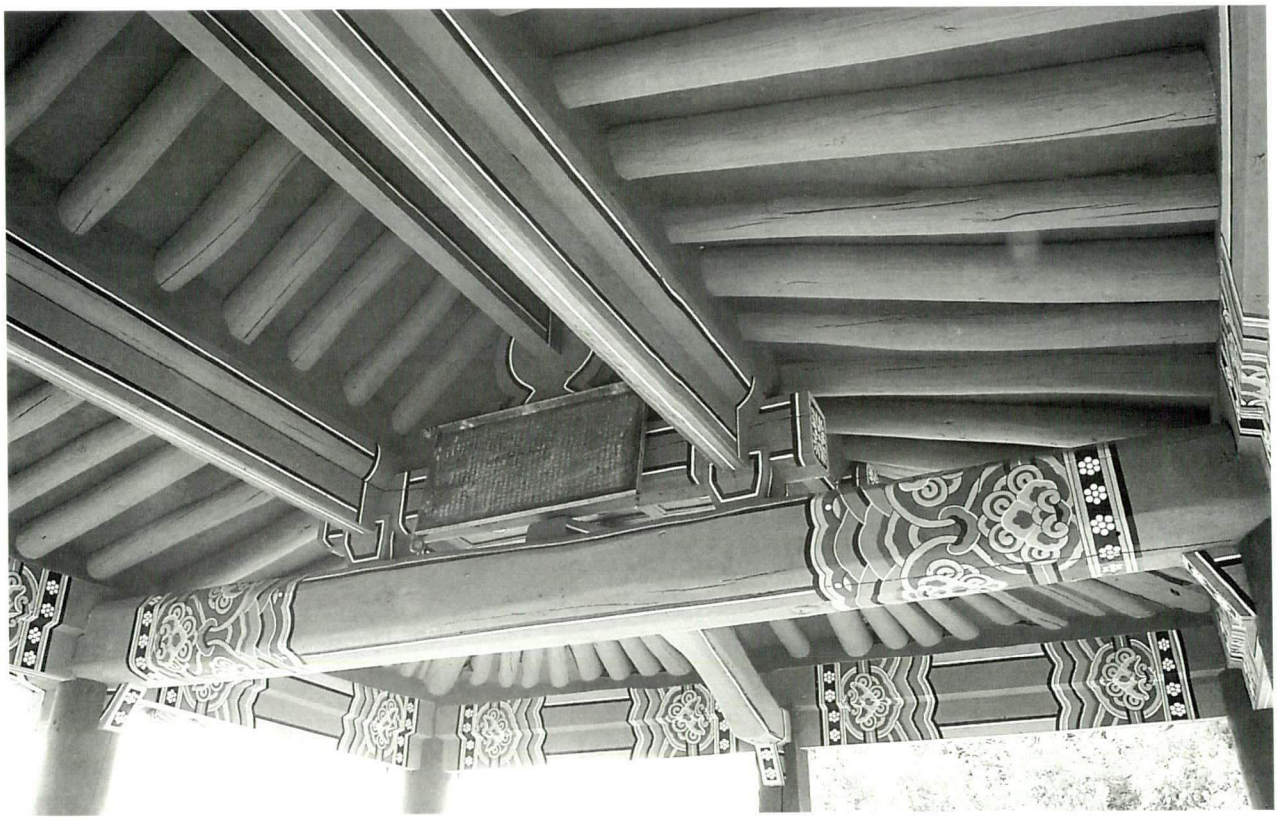
광풍루 전면 주상부 결구



광풍루 전면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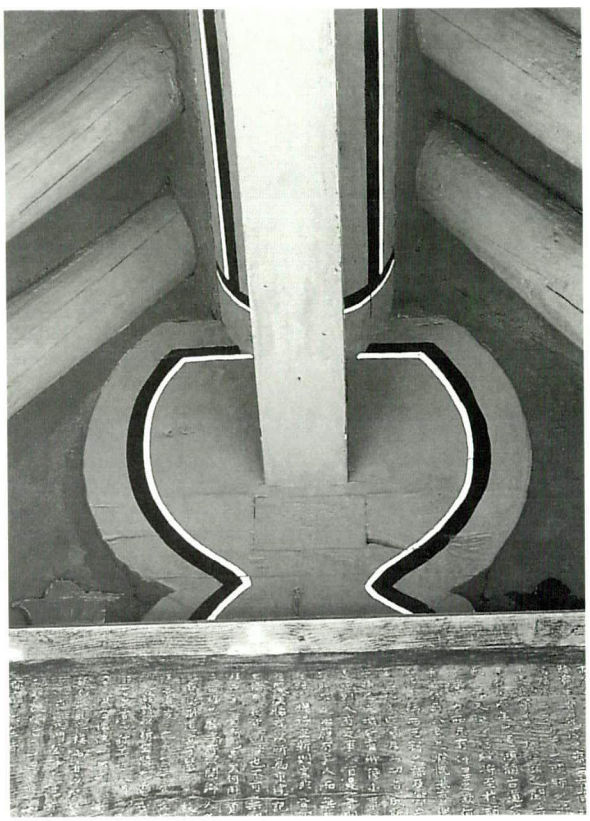
청아루 현판



광풍루 내부 가구



광풍루 내부 중대공



광풍루 내부 종대공



내삼문



외문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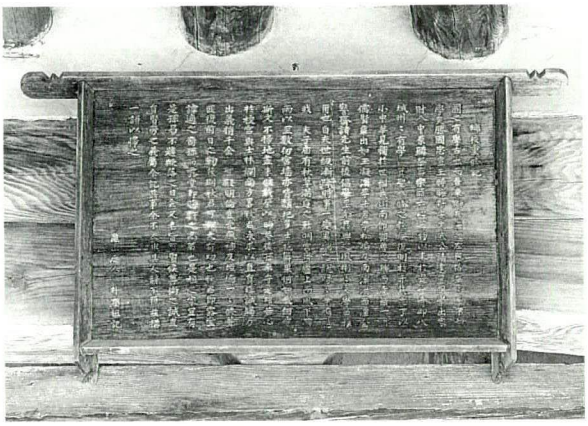
비석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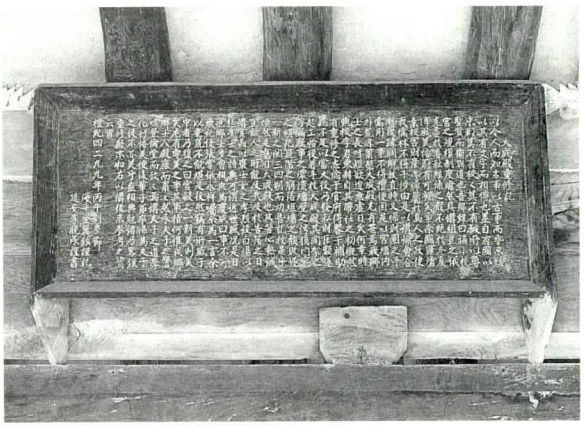
강희(康熙) 41년명 암막새



군위향교 전경



기문-향교중수기 (일제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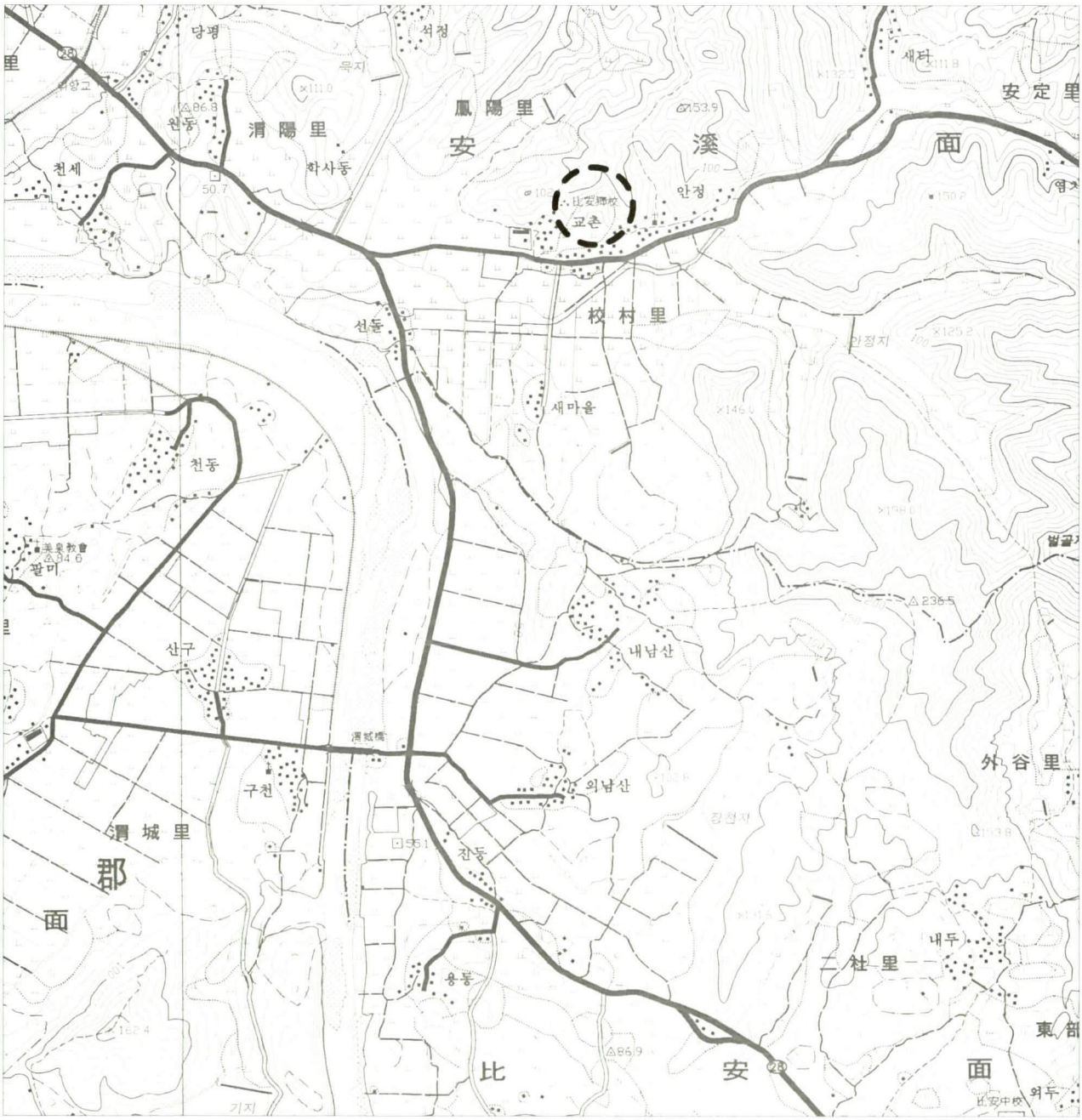


기문-대성전중수기 (1966)



14. 비안향교(比安鄕校)

- 지정사항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63호(일곽)
- 지 정 일 : 1992년 11월 26일
- 소 재 지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교촌리 285
- 건축구성 : 대성전, 동무, 서무, 내삼문, 명륜당, 광풍루, 외삼문, 교직사, 화장실, 협문 4, 연못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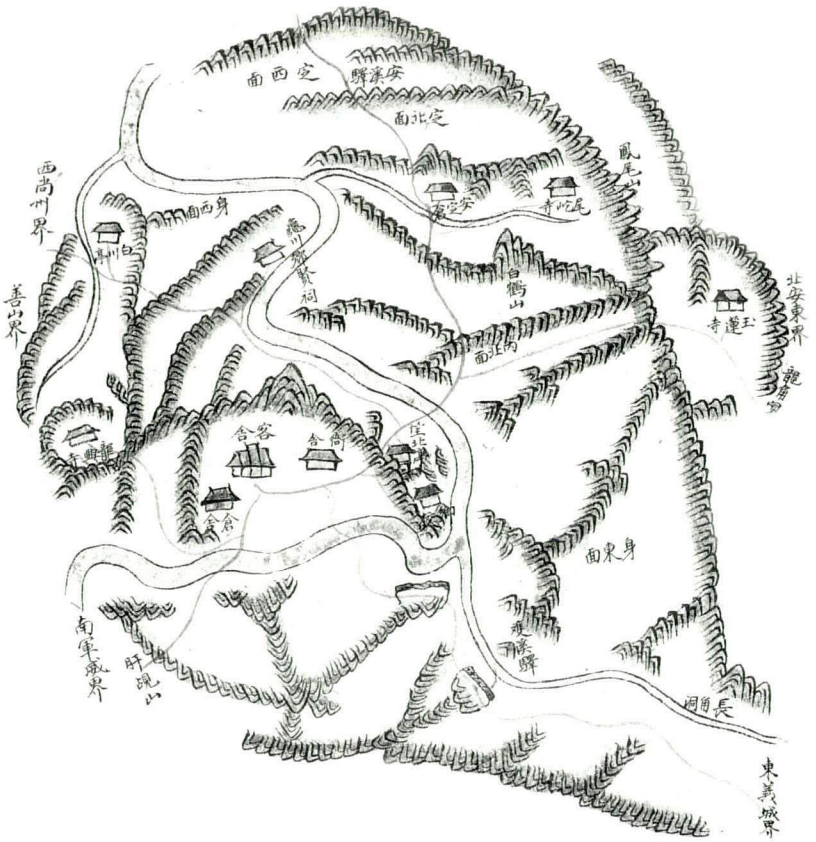


1. 연혁

비안(比安)은 본래 신라시대 아화옥현(阿火屋縣, 혹은 并屋)이었으나, 경덕왕 때 비옥(比屋)이라고 고쳐 문소군(聞韶郡)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 현종 때에 상주(목)에 소속되었다가 공양왕 2년(1390) 안정현(安貞縣)에 병합되었다. 조선 세종 3년(1421)에 비안현으로 개치하였으며 동왕 5년에는 비옥에 치소(治所)를 되돌리고 비로소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속현으로 안정현이 있다.[1]

안계동 교촌동에 위치하고 있는 비안향교는 그 연혁을 기록한 문헌이 없어져서 상세한 내력은 알지 못하고 있다. 비안향교는 조선 태조 7년(1398) 전국의 고을에 공부자묘와 향교를 함께 짓도록 한 개국이념에 맞추어서 국령이 획기적으로 시행될 때 혹은 『邑誌』내용으로 미루어 비안이 독립현으로 존재하게 된 세종 2년에서 5년을 전후한 시기에 세워졌으리라 생각된다. 그 시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一邑一校(일읍일교)의 원칙이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의 비안향교는 관아의 소재지였던 비안읍에 있었는데,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 당시에 완전히 불타 없어졌다고 한다. 7년에 걸친 왜란이 끝나자 지방의 유생들이 다시 모여 향교재건을 협의하였고, 그 결과 지금의 자리에 다시 짓도록 합의가 되었다. 5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선조 41년(1608)에 착공하여 광해군 2년(1610)에 준공하였다고 전하여 진다.

비안향교는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으나 鄕人(향인) 손복(孫福)이 5성위의 위패를 모셔다가 현의 남쪽 5리 지점에 있는 산중의 굴속에 보관하여 화를 면했다는 기록이 전해오고 있다. 『輿地勝覽』(여지승람, 영조 5년(1729) 己酉 간행)에 의하면 비안향교는 현의 서쪽 1리 지점에 있었으나 이 책이 간행되던 당시에는 향의 동쪽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약 90년 전 조선 고종 때 발간된 『교남지(嶠南誌)』 비안편에는 정사(丁巳)년에 지금의 안정리 자리로 옮겨지었다고 한다.



比安懸

임진왜란 직후의 이건은 본래의 자리

1)_ 재인용, 「慶北鄕校誌」(경상북도 · 영남대학교, 1991), p.611 ; 「邑誌(읍지)」比安縣 沿革條

이던 비안읍 서부동에서 그 이웃 동부동으로 옮겨 지은 것을 말함이고, 1729년 이후의 어느 때로 보이는 정사년(1737년 혹은 1797년으로 추정됨)은 현재의 자리로 옮겨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판단일 것이다.

1981년에 대성전을 대폭 중수할 때 이건 당시의 상량문을 확인해 보지 못한 것은 큰 실수였으나 그 몇 년 전 중수 때 기와에 萬曆戊申(만력무신, 1608)이라 새겨진 것을 발견하였다. 이로써 임진왜란 후의 중건 연대가 사실로 확인되었고 뒷날 그 건물을 옮겨 이 곳에 지었음도 실증되었다. 고종 24년(1887) 봄에 명륜당이 화재를 입어 재건하였고, 같은 해에 대성전을 번와보수 하였다.[2] 1898년에는 향교 일곽 건물의 누수 부분을 보수하였으며,[3] 1924년에는 향교 일곽 담을 보수하면서 삼문을 보수하였다.[4] 1921년에는 광풍루를 한 차례 중수하였으며,[5] 1935년에 다시 향교 일곽 비 새는 곳을 수리하였고,[6] 1947년에는 명륜당을 중건하였다.[7] 1981년에는 대성전을 보수하고, 1983년 여름에 명륜당과 외삼문을 함께 중수하였다.[8]

옛 비안읍의 소재지는 위천 건너편에 있었으므로 강물이 많으면 향중 대부분 지역에서 내왕하기 어려워 읍소재지를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고 본다. 이곳은 신라, 고려와 조선초기까지도 안정현의 유허지(遺墟地)였던 점과 지리상 향교의 자리가 명당(明堂)이던 이유도 크게 고려되었다고 사료된다. 건물은 대성전을 위시하여 명륜당, 광풍루, 전사청, 변두실(籩斗室), 내삼문, 외삼문, 학생문(學生門), 주사 등이 있었고 고자소(孤子所)는 일제 때에, 표의각(表義閣)은 1983년 봄에 철거하였다.

1894년 과거제 폐지로 인하여 공립학교로서의 향교의 역할이 없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비안향교는 점차 퇴락하여 수차에 걸친 부분적 보수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전 향중의 유림이 향교유지를 위한 대대적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1982년에 위토(位

---

2)_ '知縣王侯性濬重修實記(지현왕후성준중수실기)', 기문 중에 명륜당의 도리를 수리하고 대성전의 기와를 보수하였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기문 말미에 '聖上踐阼後二十四年丁亥仍月下澣' 이라 되어 있어 1887년의 기록임을 알 수 있다. 成均館, 『校宮大觀』, 成均館, 2003 ; pp.789-790

3)_ '校宮重修記(교궁중수기)', 기문 말미에 '大韓光武二年戊戌重陽下浣' 이라 되어 있어 1898년의 기록임을 알 수 있다. 成均館, 위의 책, pp.790-891

4)_ '校宮修理記(교궁수리기)', 기문 말미에 '孔子誕降後二千四百七十五年 中元甲陽復之月' 이라 되어 있어, 1924년의 기록임을 알 수 있다. 成均館, 위의 책, pp791-792

5)_ '光風樓重修記(광풍루중수기)', 기문 말미에 '聖誕後二千四百七十二年重光作噩仲秋下澣' 이라 되어 있어 1921년 기록임을 알 수 있다. 成均館, 위의 책, pp.799-801

6)_ '文廟重修記(문묘중수기)', 기문 말미에 '孔子誕降二千四百八十六年乙亥' 라 되어 있어 1935년의 기록임을 알 수 있다. 成均館, 위의 책, pp.792-793

7)_ '明倫堂重修上樑文(명륜당중수상량문)', 기문 중에 '丁亥四月' 이라 되어 있어 1947년 기록임을 알 수 있다. 成均館, 위의 책, pp.796-797

8)_ '鄕校重修記(향교중수기)', 기문 말미에 '孔夫子誕降二千五百三十五年甲子' 로 되어있어 기문은 1984년에 제작되었으나, 기문 내용에는 신유(辛酉)년인 1981년에 대성전을 중수하고, 계해(癸亥)년인 1983년에 명륜당과 삼문 전체를 개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成均館, 위의 책, pp.794-796
'明倫堂重修上樑文(명륜당중수상량문)', 기문 말미에 '檀紀四三一六年癸亥 秀夷月' 이라 되어 있어 1983년의 기록임을 알 수 있다. 成均館, 위의 책, pp.797-799

土)를 10여 두락이나 추가 확보하고 1983년 봄에는 주사를 보수하였다. 지방 유림의 이장한 공로를 전후하여 정용운(鄭鏞韻) 군수는 대성전을, 김희윤(金熙潤) 군수는 명륜당과 외삼문을 중수하였고, 광풍루 중건과 내삼문 중수, 주사의 입구 원장(垣墻) 까지 개축공사를 발주하고 이임하니 전 유림은 영세불망이라 하였다. 신영식(申永湜) 군수의 부임으로 공사의 대업을 마무리하고, 변두실, 전사청과 원장까지 대폭 개축하여 비안향교의 면목이 일신되었다.

1981년 가을부터 1986년 봄까지 비안향교에서 일대 중흥을 이룬 공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균관장 이재서(李載瑞)는 '比安儒道中興紀念碑文(비안유도중흥기념비문)'을 지었고, 반남(潘南) 박춘국(朴春國)은 '校宮重修記文(교궁중수기문)'을, 순천(順天) 박노선(朴魯善)은 '光風樓重建記文(광풍루중건기문)'을 지어, 기념비는 외삼문 밖에 세우고 기문은 명륜당과 광풍루에 걸었다. 광풍루는 구 건물이 초라한 단층이었는데, 원래 비안읍에서 옮겨 지을 때 같이 지었던 것이고, 창건은 1716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해체 공사시 확인) 1984년에 중수한 바 있다.[9] 1994년에 방충방연제 도포공사를 하였고, 같은 해 전기시설공사와 함께 교직사를 보수하였으며, 1999년에 일곽을 보수하였다.[10]

현재 향교에 소장된 자료는 다수의 『儒案(유안)』과 『靑衿錄(청금록)』, 그리고 『掌議案(장의안)』, 『鄕案(향안)』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현종 5년(1664)에 작성된 『儒案』이 가장 오래된 자료이다. 상기 언급된 기문 외에도, '校土復舊顚末記(교토복구전말기, 丁亥十一月)' 등이 있다.

창건 이후의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종조	창건(추정)
1592	임진왜란으로 소실
1608	대성전 중건
1610	향교 일곽 중건
1716	광풍루 중건
1737(1797)	이건
1887	명륜당 중건, 대성전 번와보수
1898	향교 일곽 보수
1921	광풍루 중수
1924	향교 일곽 담 보수, 삼문 보수
1935	일곽 보수
1947	명륜당 중건

9)__ '光風樓重修記(광풍루중수기)', 기문 말미에 '孔子誕降二千五百三十五年甲子秋九月'로 되어 있어 1984년 임을 알 수 있다.

10)__ '比安鄕校重修記(비안향교중수기)', 기문 말미에 '孔紀二千五百五十年(一九九九年)'이라 되어 있다.

1981	대성전 보수
1983	교직사 보수, 표의각 철거, 명륜당 및 외삼문 중수
1984	광풍루 중수
1994	방충방연제 도포공사, 전기시설공사 및 교직사 보수
1999	일곽 보수
2000	대성전 단청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는 대성전, 동무, 서무, 내삼문, 명륜당, 광풍루, 외삼문, 교직사, 화장실, 협문 4, 연못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입지 및 배치

의성에서 대구방향으로 국도 5, 28번을 따라 화전사거리에서 예천 방향 28번 국도로 접어든 다음, 비안면 경계를 지나 직진하여 안정리·교촌리 표지판이 나오는 곳에서 급하게 좌회전하면 교촌리로 들어가게 된다. 향교는 마을로 들어가는 길 첫골목에서 좌회전하여 50미터 가량을 올라가면 그 곳에 자리잡고 있다.

비안향교는 의성군 비안면 서부동 앞산에 건립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전소되어 1610년에 지금의 안계면(安溪面) 교촌동(校村洞)에 대성전, 명륜당, 강궤루(降几樓), 동서재 등 그외 부속건물을 완성하였다. 그 후 강궤루는 단층 3칸으로 되었는데, 1984년 중층으로 신축하면서 광풍루(光風樓)로 개칭했다. 본 향교는 경사지를 2단으로 대지를 조성하여 남서향으로 배치시켰다. 외삼문을 통하면 명륜당이 나타나며, 당(堂)의 동쪽 후방의 높은 대지에 대성전을 세웠다. 대성전 앞에는 동무(東廡)와 서무(西廡)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 또한 명륜당의 좌전방에, 대성전의 축과 비슷한 선상에 광풍루를 세우고 누각 앞에 연못을 파서 운치를 돋구었다. 동서재는 현재 없으며, 명륜당 서쪽 담 밖에 교직사가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전면 5칸, 측면 3칸 규모에 전면에 퇴칸을 둔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막돌로 3단 바른층쌓기한 단층 기단 전면에 중앙과 좌우측 끝 부분에 각 3단으로 구성된 계단을 두었다. 기단 위에는 상부만 원형으로 다듬은 초석에다 원주를 세웠다.

평면형식은 전면을 퇴칸으로 개방한 전퇴형으로 퇴칸의 측면은 벽으로 막아 놓았으며, 바닥은 몰탈로 마감했다. 전면 벽체의 구성은 중앙 3칸을 쪽이 좁은 쌍여닫이 울거미 널문을 달아 놓고 하방에 원산을 끼웠으며, 양측칸은 중방 상부에 살홍살을 댄 광창을 꾸몄다.

기둥 상부는 창방으로 짜 돌리고 화반을 올렸으며, 기둥머리에는 2익공으로 공포를 구성

하였다. 살미의 형상은 쇠서의 끝을 날카롭게 하고 길게 내밀어 활달한 맛을 풍기고 있다. 2익공 쇠서에는 연봉을 올렸다. 첨차의 형상은 전면은 하부를 초각하고 단부를 약간 사절한 형태이나 고주열과 배면은 장방형의 판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툇보머리는 초각하였으며, 고주열에서 대들보와 연결되어 있다.

가구는 어칸에서 1고주, 측벽에서 2고주 5량가로 구성되었으며, 전면 2주열의 고주(高柱)를 모두 평주로 하여 대들보와 툇보를 걸었다. 고주 상부에서는 다시 익공재를 한 단 혹은 두 단을 중첩하여 놓고 중보 머리를 얹었다. 곡재(曲材)의 대들보를 사용하여 4분변작의 위치에 보방향 보아지를 2단으로 놓아 중대공을 만들어 종보를 받게 했다. 종보 위에는 파련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고 있으며, 각 대공에는 뜬장혀를 결구하고 있다.

처마의 구성은 정면은 겹처마로 하고 배면은 홑처마로 서로 다르게 꾸몄다. 좌우 측면에는 방풍판을 달았으며, 모로단청으로 마무리하였는데, 좌우 박공널에 당초문을 그려 넣고, 연목에도 문양을 그려 넣는 등 매우 화려하게 도채하였다. 2000년에 단청하던 중 상량문을 발견하였으나 다시 종도리 장혀에 넣어 밀폐하였다고 한다.

(2) 동무(東廡)

동무는 전면 2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단층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방형 기둥을 세웠다. 평면은 각 칸을 구분하였고, 전면에 각각 외짝 판문을 달았다. 가구는 3량가로 동자주를 얹어 종도리를 받았다. 용마루 전면 우측에 명문와가 남아 있다.

(3) 서무(西廡)

서무[11]는 전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전면 우측칸에 마루를 두고, 어칸은 온돌방으로 구분하였으며, 좌측칸은 아무런 시설을 두지 않았다. 단층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방형 기둥을 세웠다. 어칸 전면에 외짝 판문을 달았으며, 마루의 측후면은 벽체로 막았고, 가구는 3량가로 되어 있다.

(4)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전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전면의 강학영역과 단 차이가 높아 전면에 여러 단으로 된 계단을 놓았으며, 내삼문 좌우로 각각 협문을 두고 있다. 전면 기단의 폭이 매우 좁으며, 단층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방형 기둥을 세웠다. 각 칸 전면에 심벽을 구성하고 각 칸 모두 두 짝 판문을 달았다. 좌우

11)_ 원 필자인 조영화 교수는 전사청(典祀廳)으로 보았으며, 실제로 평면 형태가 온돌방을 둔 것으로 보아 전사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균관에서 발간한 '校宮大觀(교궁대관)' 에 서무(西廡)로 되어 있어 향교 자체의 명칭을 존중하는 뜻에서 서무로 교정하였다.

측면은 중방 하부에 암기와를 적층시킨 와장(瓦墻)을 구성하였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대들보 중앙에 동자주를 놓아 종도리를 받았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전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평면의 구성은 가운데 2칸을 우물마루로 꾸미고 양측칸은 통칸, 온돌방을 들였다. 6척 반 정도의 높은 축대를 막돌로 쌓고, 전면에 계단을 우측 어칸 앞에 두고, 아궁이를 좌우 실 전면에 놓았다. 기단 일부를 파내어 아궁이를 놓고 그 위에 판석을 얹어 기단 상면으로 마감하였다.

자연석주초 위에 흘림이 약한 원주를 세웠으며, 벽체의 구성은 방 전면은 쌍여닫이 세살창으로 하고 대청 전면은 최근에 안쪽으로 들어올려 여는 사분합문을 달아 놓았다. 방과 통하는 대청 측면은 앞의 칸이 쌍여닫이문, 뒤쪽 칸이 외여닫이문을 달았는데 모두 개체된 것이다. 또한 대청 배면은 심벽으로 하여 하부에 토머름을 들이고 상부에 둔테달린 쌍여닫이 띠장널창을 달았다. 배면 창틀의 구성은 상하 온연귀 맞춤으로 하고 있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되어 있으며, 서실의 서벽은 화방벽으로 되어 있다.

공포의 구성은 전면에는 2익공으로 하여 창방 위에 화반을 설치하고 있으나, 배면은 초익공으로 하고, 외단을 직절하였으며, 창방 위엔 소로를 끼워 놓았다. 살미의 형태는 대성전과 비슷한 형태로 끝은 날카롭게 내고 있으나 연봉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2익공 살미 위에는 보머리를 도리 밖으로 그대로 빼내어 직절시키고 있다. 두공첨차의 형태는 2가지로 나타나는데, 좌측방 상부에만 교두형이고 나머지 3곳은 하부를 초각한 형태이다. 배면의 살미 형태는 판재를 초각하지 않고 그대로 보머리의 밑에 끼워 놓았다. 귀포에서는 또한 창방의 단부를 2단으로 층지게 직절하였다.

가구(架構)는 5량가로 하여 곡재의 대들보 위 3분변작에 근접한 위치에 군위향교 명륜당에서와 같이 운두가 낮은 보방향 판재를 끼워 종보를 받게 하고, 그 위에 파련대공으로 종도리를 받게 하였는데 장식재를 사용하지 않고 매우 소박하게 꾸몄다. 마루와 방이 접하는 경계벽의 상부구조는 좌우가 약간 다른 구성을 하고 있으니, 좌측방 내벽의 상부는 원주를 세우고 합보를 시켜 충량을 끼웠는데, 우측은 대량을 사용하여 위에 충량을 걸치게 하고 대량 하부는 가느다란 방주(方柱)가 주두 없이 그대로 대량을 받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면의 두공첨차의 형상도 마루부분의 그것과 같아서 상부가구만 보고 추측하건대 우측 온돌방이 마루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나 정확한 기록이 없어 단언하기는 힘들다.

처마의 구성은 정면은 겹처마로, 배면은 홑처마로 하였으며, 좌우에 풍판을 달아내었다. 긋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으며, 내부에 다수의 기문이 걸려 있고, 전면 우측어칸 상부에 '明倫堂' 현판을 걸었다.

(2) 광풍루(光風樓)

광풍루는 전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계 중층 누각으로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야트막한 단층 기단 위에 덤벙 주초를 놓고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웠다. 하층에는 벽체를 두지 않았으며, 좌측 협칸 후면에 상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두었다. 상층 바닥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으며, 주변에 계자각 난간을 둘렀고, 기둥머리에는 2익공을 구성하였다. 초익공재 외단은 쇠서로 하여 연봉을 올렸고, 이익공은 초각하였으며, 보머리는 직절한 다음 봉황두를 초각하여 끼워 넣었다. 주간에는 화반을 수장하였으며, 다수의 주련(柱聯)이 걸려 있다.

가구는 5량가로 되어 있는데, 4분변작의 위치에 주두와 도리방향 첨차를 놓아 종보를 받았으며, 중앙에 고준한 제형 판대공을 두어 뜬장혀와 종도리를 받았다. 내부는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으며, 충량 머리는 대들보 중앙에 걸쳤다.

전면 어칸 전후에 '光風樓' 현판을 걸었으며, 내부에는 다수의 기문이 걸려 있다. 모로단청으로 마무리하였는데, 기문 기록에 의하면, 1921년에 보수하였고, 1984년에 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외삼문(外三門)

외삼문은 전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솟을삼문으로 되어 있다. 전면에 통칸으로 4단의 계단을 두었던 것을 가운데는 흙으로 덮어두었고, 단층 기단 위에 덤벙 주초를 놓고 그 위에 바형 기둥을 세웠다. 각 칸 전면에 두 짝 판문을 달았으며, 어칸 문상방 상부에 홍살을 꾸몄다. 가구는 3량가로 동자주를 얹어 종도리를 받았으며, 긋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전면 좌측에 '比安鄕校儒道中興紀念碑(비안향교유도중흥기념비)' 1개가 자리잡고 있다.

다. 기타

기타 건물로는 교직사와 화장실, 협문 및 연못 등이 있다.

교직사는 향교 서편에 별도의 담으로 구획되어 있으나, 단 차로 인하여 전면의 담 상단과 명륜당 기단 모서리의 높이가 같아 명륜당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건물은 간략한 3량가의 맞배지붕 건물로 'ㄱ'자형 살림집 형태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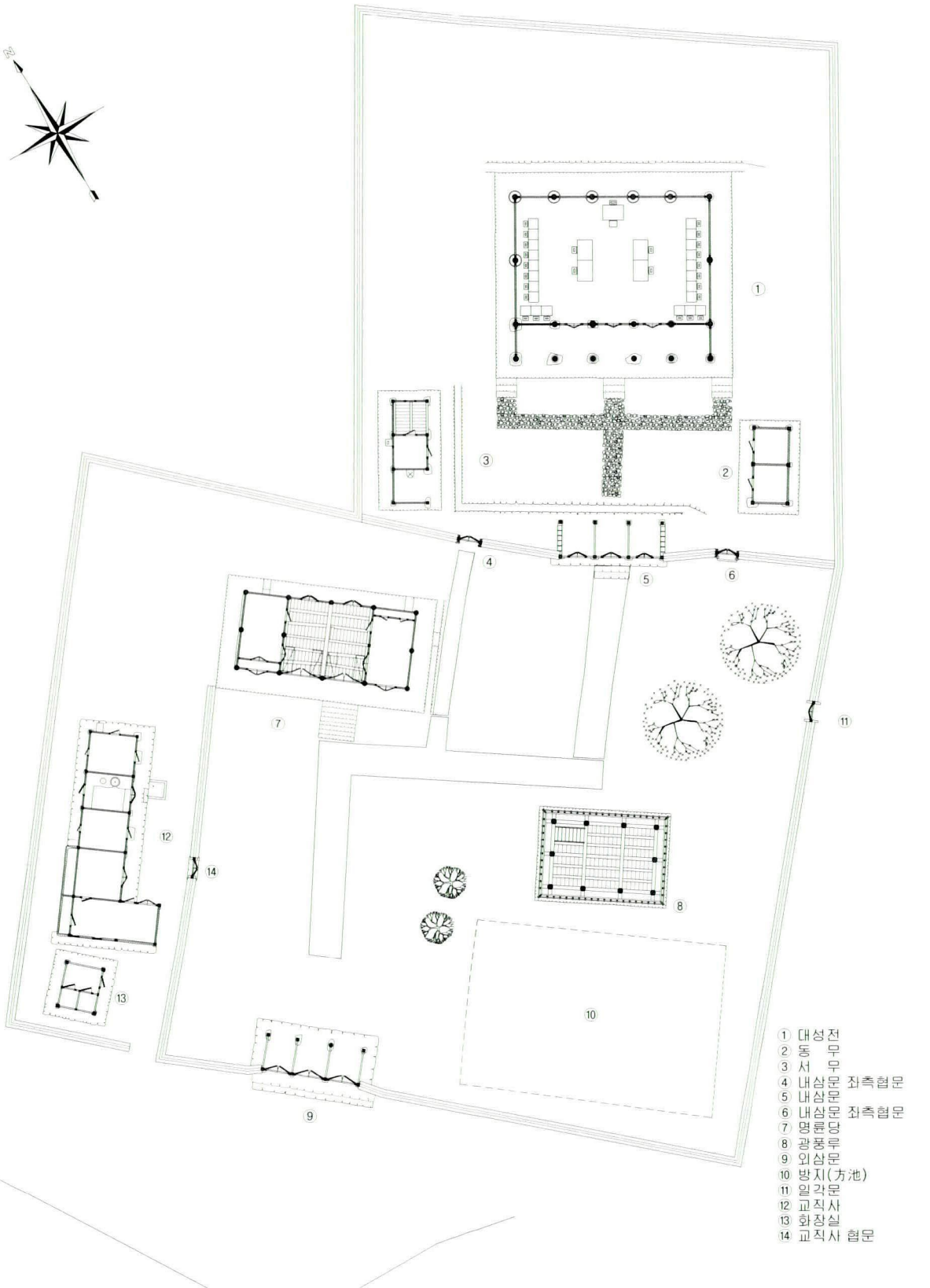
화장실은 교직사 남측에 자리잡고 있는데, 사방 단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로, 내부는 둘로 나뉘었다. 방형 기둥을 사용하였으며 간략한 3량가로 되어 있다.

협문은 모두 4개가 있는데, 두 개는 내삼문의 좌우에 위치하고 있고, 1개는 광풍루 동북편 담 중앙에, 다른 하나는 교직사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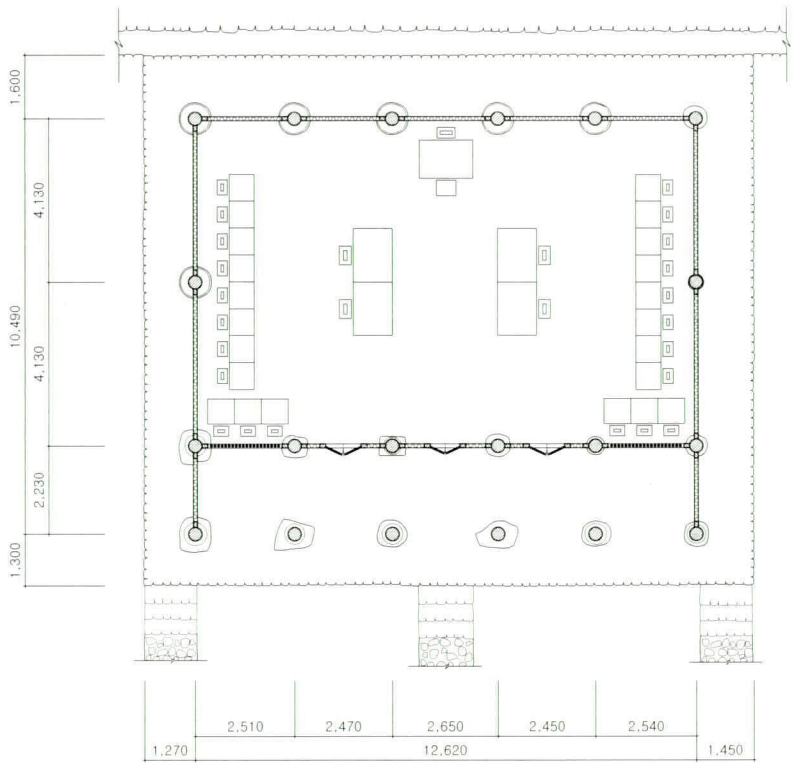
연못은 광풍루 전면에 자리잡고 있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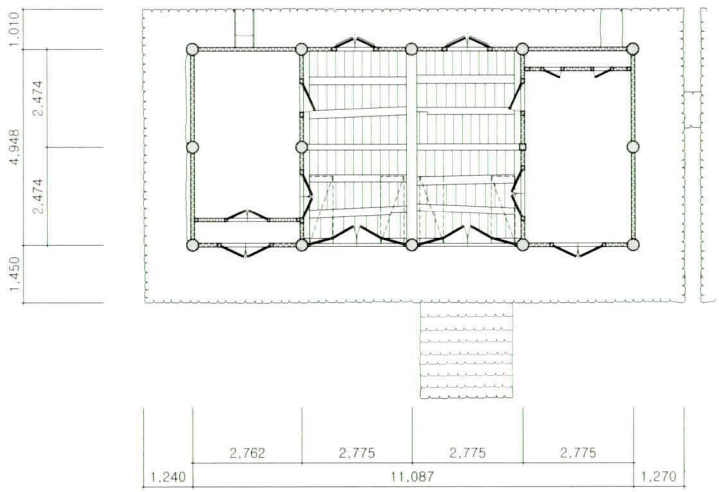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비안향교(比安鄕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63호(일곽)
창건시기	조선 세종조 (추정)	입 지	구릉지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향교재단
좌 향	남서향	배치형식	前學後廟 / 종축 2개 대성전과 명륜당이 꺾인 축임
중건시기	1729(혹은 1797) 이건 1887 명륜당 중건 1947 명륜당 중건	대지조성	2단 : 내삼문 기준
설 위	5聖, 宋朝 4賢, 海東 18賢	인접시설	없음
건축구성	대성전, 동무, 서무, 내삼문, 명륜당, 광풍루, 외삼문, 교직사, 화장실, 협문 4, 연못		
특기사항	기본적으로 전학후묘의 배치를 취하고 있으나 대성전과 명륜당의 중심축이 다름 제향영역 내에 전사청의 기능을 갖춘 건물을 서무에 수용하였음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5×3칸, 전1퇴칸 / 2익공 / (전면) 겹처마 (후면) 홑처마 맞배지붕 / 1고주(어칸) · 2고주(측벽) 5량가 / 전돌 / 연등천장 / 주고 평주 2630 고주 3760 / 어칸 2850 / 수장폭 105 / 도리단면 Ø=270전후 / 보단면 : 대들보 520×520, 종보 400×400 / 처마내민길이 2030 / 기단높이 : 전면 900, 후면 300 / 초석크기 Ø=520전후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세벌대 / 막돌바른층쌓기 전면 3개(각 3단)	보	대들보 : 전고주 후평주 걸침(어칸) 종 보 : 4분변작
초 석	정평주초 / 원형 주좌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 약한 민흘림	대 공	중대공 : 보방향 판재(혹은 보아지) 종대공 : 파련대공(어칸), 판대공(측벽)
공 포	2익공 / 툇보머리 초각	창 방	방형 / 빨목 첨차형 초각
처 마	전면 겹처마, 후면 홑처마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연등천장 / 전돌		
특기사항	어칸을 제외한 나머지 칸은 칸살이 거의 같으며, 어칸은 반 척 정도 더 넓음 지붕에 다수의 명문와가 남아 있으며, 박공판에 당초문을 그리는 등 화려하게 단청함		
명륜당 건축 요소			
개 요	4×2칸 / 2익공 / (전면) 겹처마 (후면) 홑처마 맞배지붕 / 5량가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반자 주고 2410 / 주칸 2775 / 수장폭 110 / 도리단면 Ø=240 / 보단면 : 대들보 380×380, 종보 320×270 처마내민길이 (전면) 1510 (후면) 1210 / 기단높이 : 전면 1500, 후면 240 / 초석크기 750×500 전후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막돌쌓기 전면 1개 (7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3분변작
초 석	덤벙주초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 민흘림	대 공	중대공 : 보방향 판재 종대공 : (어칸) 파련대공 (측벽) 판대공
공 포	2익공 / 보머리 직절	창 방	방형 / 빨목 2단 직절
처 마	전면 겹처마, 후면 홑처마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화방벽 / 굿기단청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반자		
특기사항	경사지를 감안하여 높직하게 기단을 조성하고 아궁이를 기단 상면이 아닌 측면에 조성 기단 차를 이용하여, 명륜당 서실에서 교직사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게 하였음		


① 대성전
② 동 무
③ 서 무
④ 내삼문 좌측협문
⑤ 내삼문
⑥ 내삼문 좌측협문
⑦ 명륜당
⑧ 광풍루
⑨ 외삼문
⑩ 방지(方池)
⑪ 일각문
⑫ 교직사
⑬ 화장실
⑭ 교직사 협문
0
5
10
20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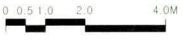
비안향교 배치도



비안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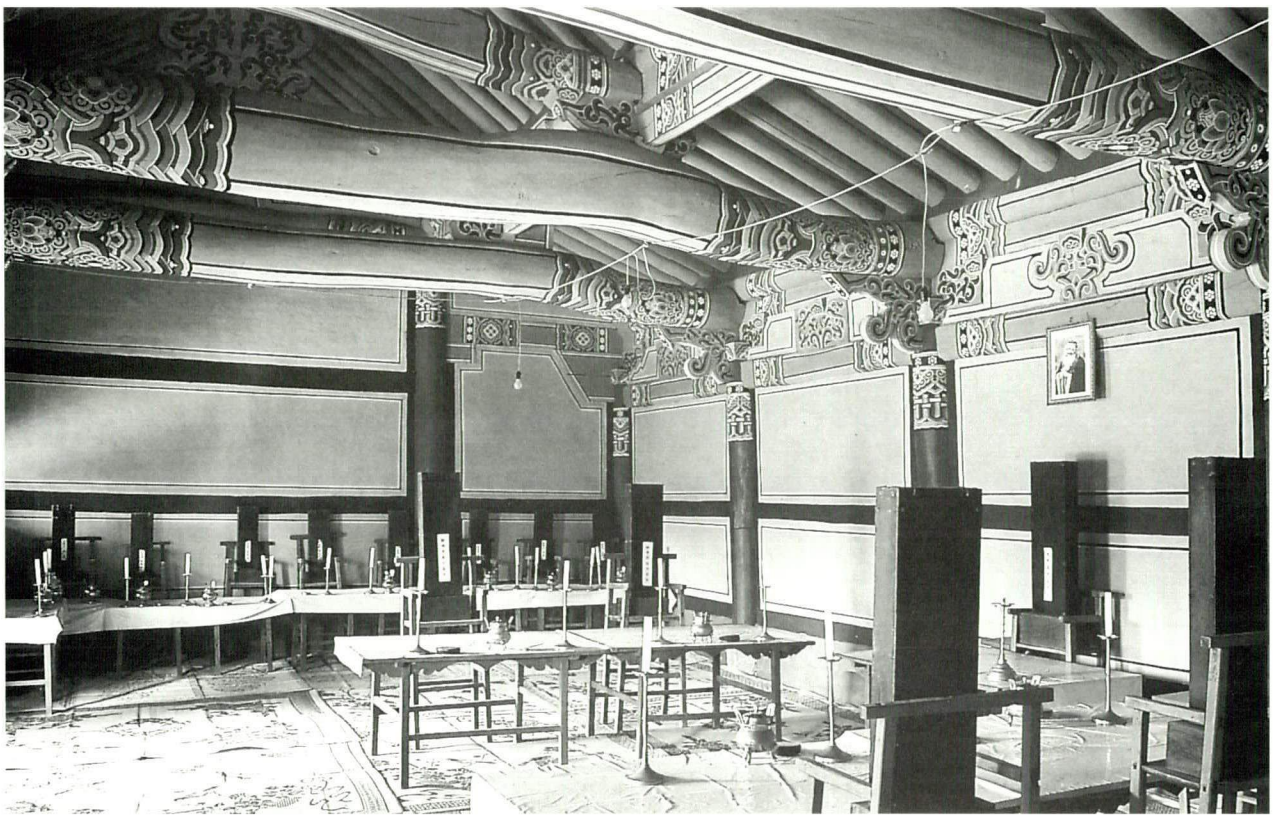


비안향교 명륜당





대성전



대성전 내부



대성전 동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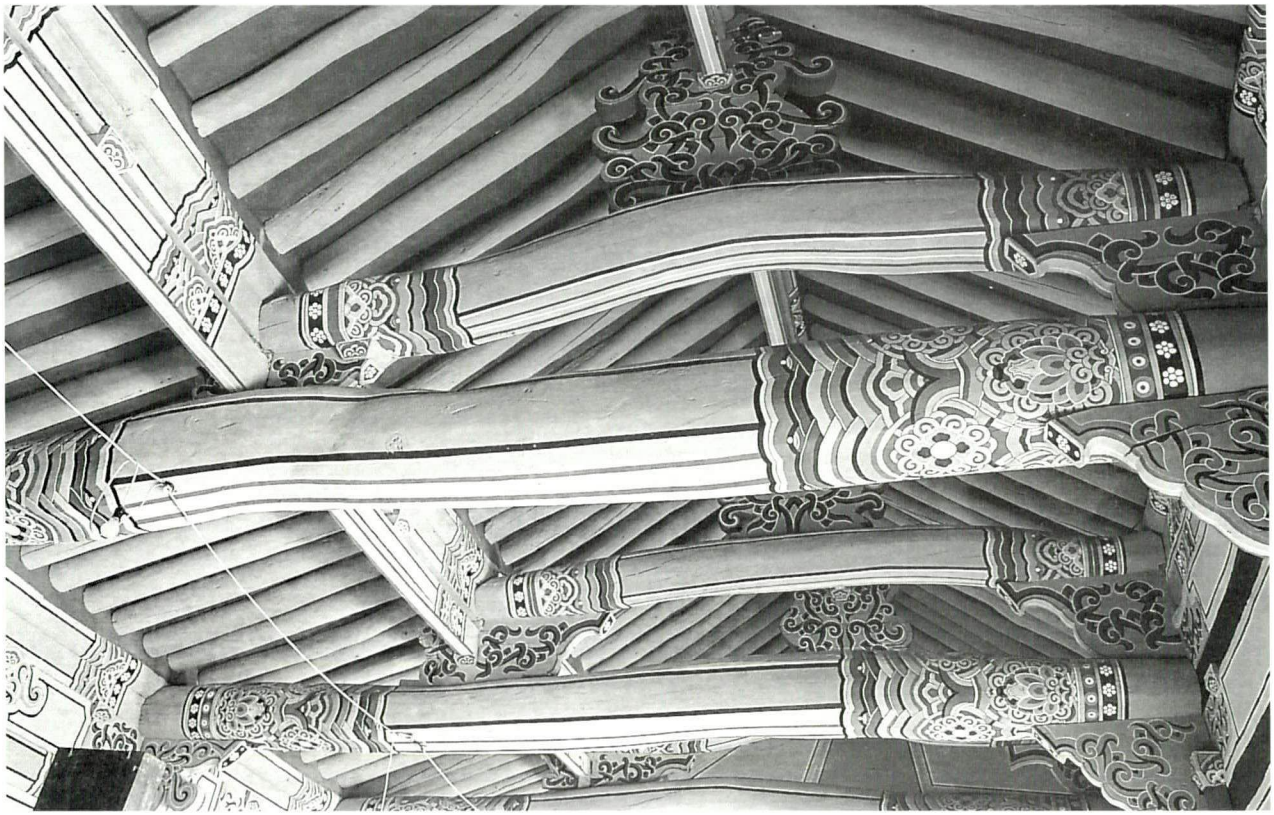
대성전 전면 퇴칸



대성전 전면 주상포



대성전 전면 귀포



대성전 내부 가구



대성전 전면 툇보 결구



대성전 내부 중대공



대성전 내부 종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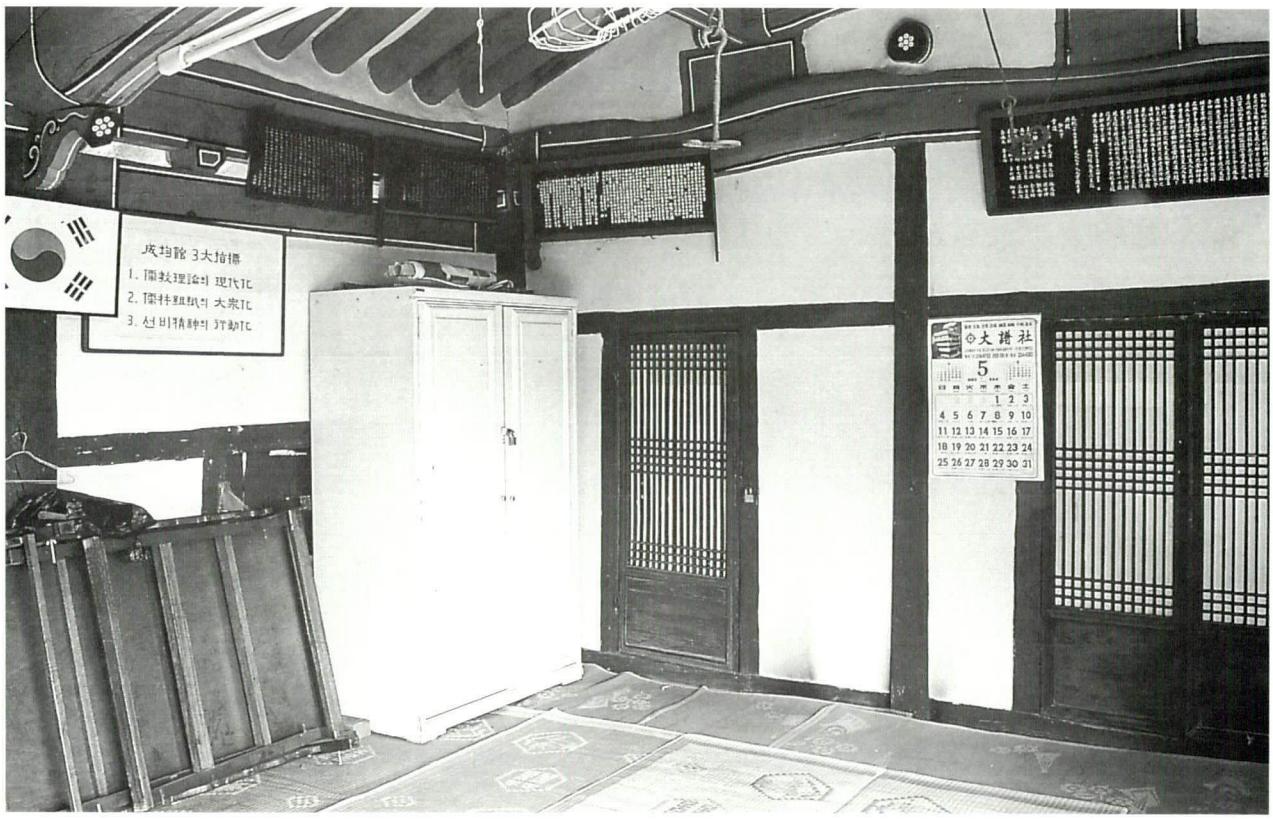
동무



서무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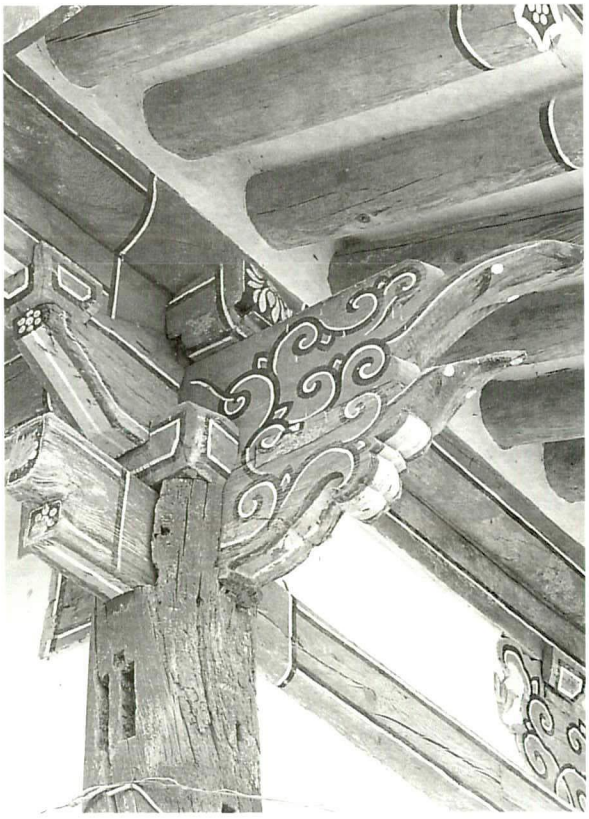
명륜당 내부



명륜당 전면 협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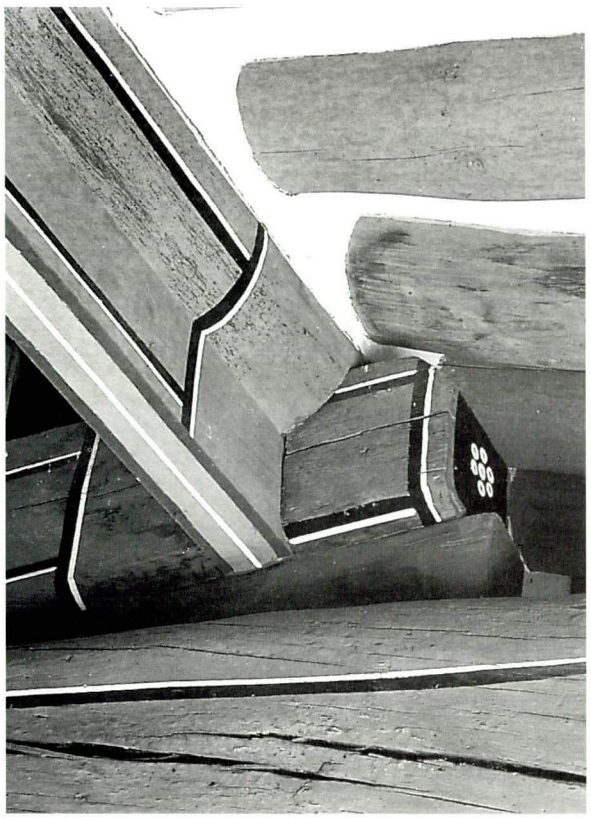
명륜당 전면 주상포



명륜당 전면 귀포



명륜당 내부 가구



명륜당 내부 중대공



명륜당 내부 종대공



광풍루



광풍루 상층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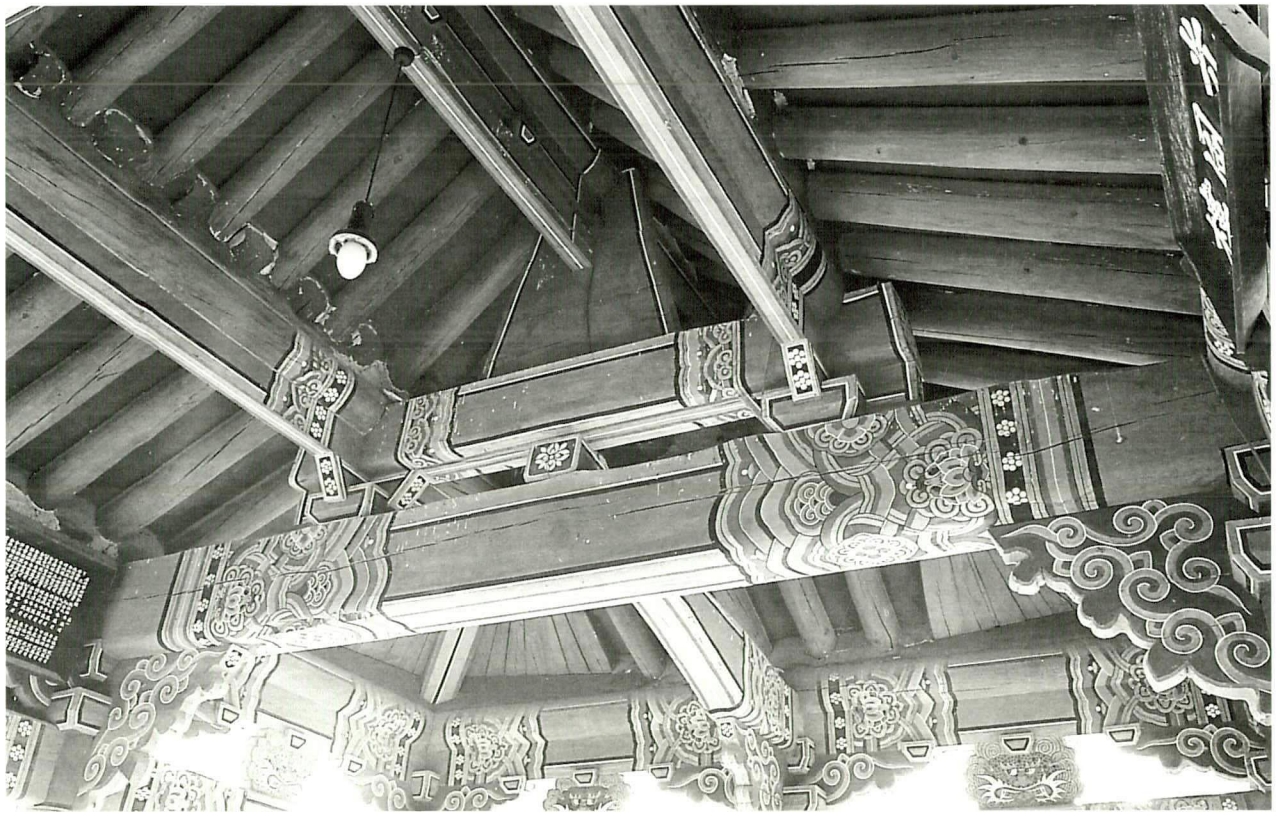
광풍루 하층 계단



광풍루 전면 주상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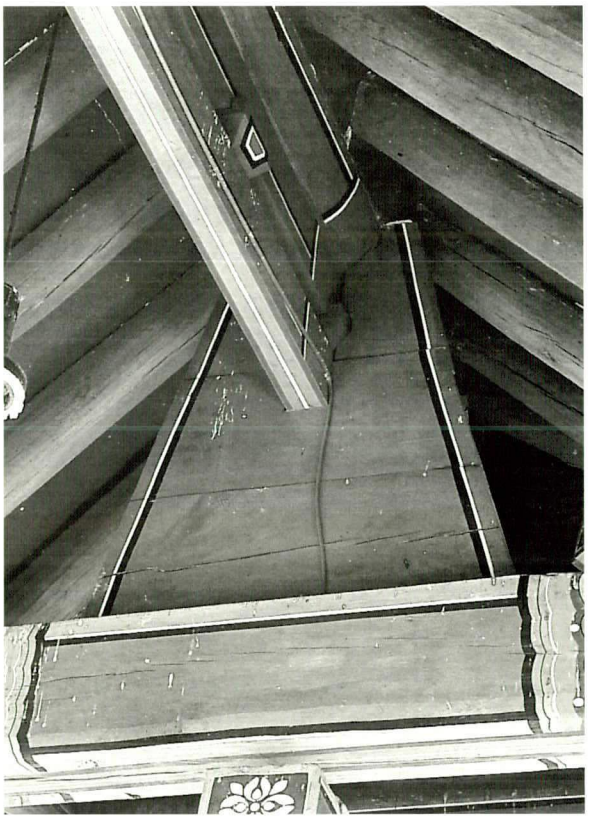
광풍루 전면 귀포



광풍루 내부 가구



광풍루 내부 중대공



광풍루 내부 종대공



외삼문



내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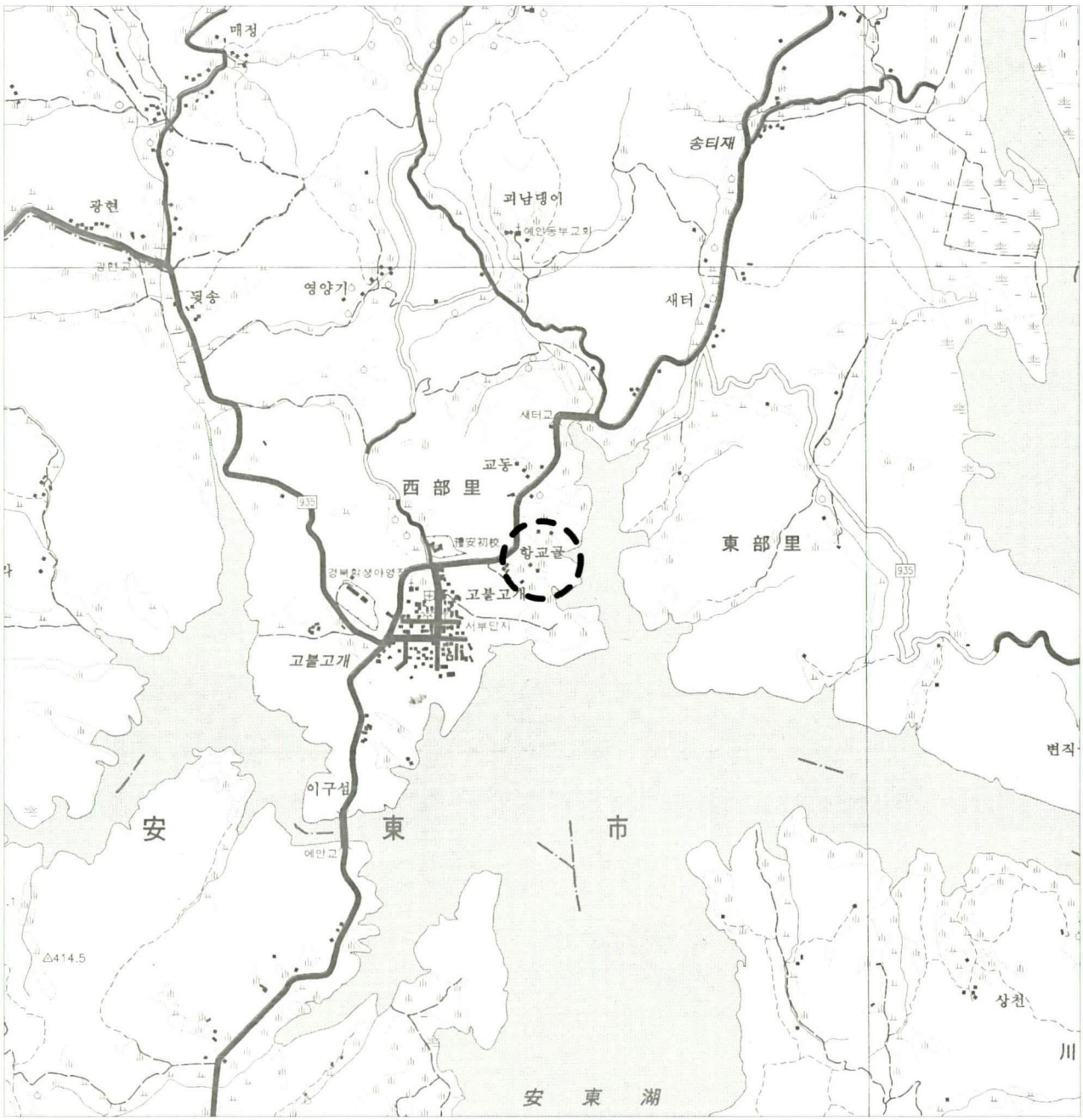


교직사



15. 예안향교(禮安鄕校)

- 지정사항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8호(일곽)
- 지 정 일 : 1973년 8월 31일
- 소 재 지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204-1
- 건축구성 :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외사주문, 전사청, 교직사, 교직사 외문, 화장실, 협문 등



1.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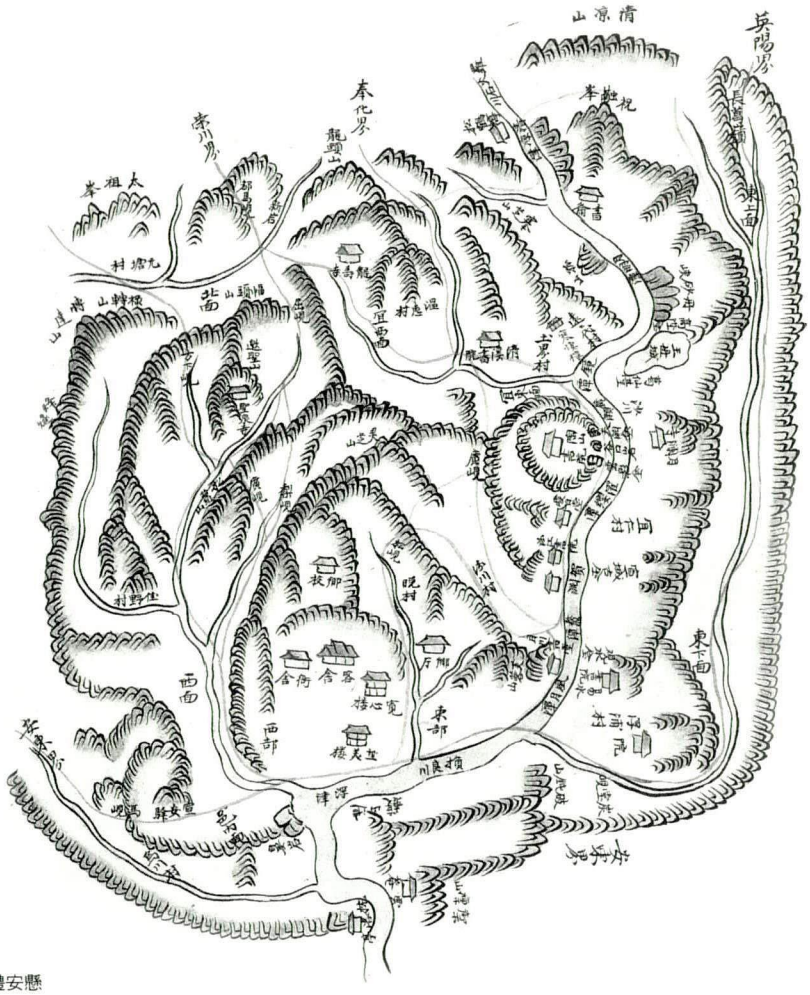
예안은 본래 고구려의 매곡현(買谷縣)이었는데, 신라 때 선곡(善谷)으로 고치고, 내령군(奈靈郡)의 영현(領縣)으로 두었다. 고려 태조 때에는 성주(城主) 이능선(李能宣)이 거의(擧義)하여 귀순(歸順)하였으므로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군으로 승격되었다.

고려 현종 때 길주(吉州)에 붙였으며 신우(辛禑)가 그 태(胎)를 현지(縣地)에 간직하였다 하여 다시 군으로 하다가 얼마 후에 주(州)로 승격하였다. 공양왕 때 감무(監務)를 두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 현(縣)으로 승격되어 현감(縣監)이 파견되었다.

향교는 태종(太宗) 15년(1415)에 창건되어 성종 21년(1490)에 중수된 이후에도 여러 번에 걸친 중수와 수리가 있었다. 선조 2년(1569) 현감 손영제(孫英濟)에 의해 중수된 향교는 임란 후 선조 34년(1601)에 한차례 중수된 다음, 인조 3년(1625)에 중수되었다. 영조 21년(1745)에는 현감 김광수(金光遂)에 의해 크게 중수되고, 헌종 7년(1841)에 다시 수리되었다. 고종 37년(1900)에는 현감 남연필(南延弼)에 의해 또 다시 중수되었으며, 1954년에는 교장(校長) 이탁(李鐸)이 중수하였고, 1969년에는 일곽 담을 중수하였다. 1981년에 전교(典校) 이윤항(李潤恒)이 군에서 지원을 받아 명륜당과 동서재, 전사청, 주사(廚舍), 원장(垣墻) 등을 보수하였다. 이듬해에 제기와 제복을 새로 마련하고, 제기고(祭器庫)를 마련하였다. 향교는 『新增東國輿地勝覽(신증동국여지승람)』에 "향교 縣北 1里에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원래 읍의 북쪽에 있었던 것이나 현재에는 안동댐 건설로 인해 신읍(新邑) 부근으로 이건되었다.

1986년에 대성전을 보수하고, 협문을 해체 보수하였으며, 향교 일곽 담 또한 보수하였다. 1988년에는 대성전과 내삼문을 보수하고, 대성전 후면의 석축을 보수하였다.

한편 향교에는 『鄕錄(향록)』, 『校案(교안)』, 『儒案(유안)』, 『田畓奴婢案(전답노비안)』등 다수의 옛 문헌들이 소장되어 있으며, 또한 김안국의 권학기(勸學記)와 중수시 1수가 있다.[1]



禮安懸

창건 이후의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15 창건
1490 중수
1569 중수
1601 중수
1625 중수
1745 대규모 중수
1841 향교 일곽 수리
1900 중수
1954 중수
1969 일곽 담 보수
1981 명륜당, 동서재, 전사청, 주사(廚舍), 원장(垣墻) 보수
1982 제기, 제복 마련 및 제기고 신축
1986 대성전 보수, 협문 해체보수, 일곽 담 보수
1988 대성전, 내삼문 보수, 대성전 후면 석축 보수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는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외사주문, 전사청, 교직사, 교직사 외문, 화장실, 협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입지 및 배치

예안향교는 도산서원 들어가는 길을 따라가다, 도산서원 거의 다 와서 길 우측 경사지에 자리잡고 있어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작은 길이 하나 있어 급하게 우회전하여 들어가는길로, 안동댐의 호수가 보이는 경사지에 동(東)으로 30도 가량 틀어서 배치하고 있다.

배치는 좌묘우학(左廟右學)의 병렬축으로 하여 오른편의 뒤쪽 높은 곳에 대성전을 두고, 담을 둘러 별도의 제향영역을 조성하였다. 내삼문 왼편으로 앞쪽 낮은 곳에 명륜당을 두었으며, 그 앞에 동서재를 시립(侍立)하게 하였다. 명륜당의 후면 약간 좌측에 교직사를 두었으며, 그보다 뒤로 높은 곳에 거의 대성전과 횡으로 같은 선상에 전사청을 두었다. 1982년에 제기고를 신축하였으나, 현재는 없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1)__ '示禮安學者勸讀小學(시예안학자권독소학, 正德丁丑年(1517))', '敬次禮安鄕校重修(경차예안향교중수, 1969, 군수 최진태)'. 보인회, 『校宮記集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3 ; pp.110-111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전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전면에 개방형 퇴칸을 둔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6척 정도의 높이로 막돌쌓기 기단을 축조하고 전면 좌우에 장대석 계단을 두어 오르게 했다. 평면형식은 전면을 개방시킨 전퇴(前退)형으로 측면은 어칸을 넓게 잡고 있다.

덤벙 주초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전면 평주만 방주(方柱)를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원주(圓柱)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전면 기둥은 의장성이나 건물의 위엄을 표시하기 위하여 원주를 사용하는 것이 상례(常例)인데, 본 건물은 오히려 반대의 수법을 채택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전면 좌우 도리 뺄목 하단에는 세장한 방형 기둥을 세웠는데, 기둥 최상부를 제외하고 모접기를 하였다.

벽체의 구성은 전면 3칸 가운데 어칸에만 쌍여닫이 울거미널문을 두고 양 협칸과 측면 어칸 중앙에 만(卍)살 광창을 설치하였다. 이렇게 대성전의 문이 1개소인 경우는 경북의 경우 예안향교와 봉화향교에서 볼 수 있다. 광창은 온연귀로 결구되어 있으며, 창틀을 지지하는 부재는 벽체에 가려져 있어서인지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이는 고식의 수법이다.

어칸에서 1고주, 측면에서 2고주 5량가의 무익공 건물로 전면 2주열은 모두 고주(高柱)로 처리하였다. 기둥머리에는 원칙적으로 초익공을 구성하여야 하나, 외단을 직절하고, 뒷뿌리를 툇보와 같이 고주 측면에 끼워 넣은 계량(繫樑)을 첨가한 것이 특이하다. 대들보 위에는 동자주를 세워 종보와 중도리를 받게 하였는데, 중도리 하부에는 뜬창방을 두고 있으며, 종보 밑에도 뜬창방과 같은 높이로 동자주 외단으로 머리를 내밀고 직절한 계량을 가설하여 독특한 건축양식을 띠고 있다. 종보 위에는 공(工)자형 소로 받침의 각대공(角臺工)을 쓰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이와 비슷한 형태는 부석사 무량수전과 조사당, 은해사 거조암 등에서 나타나는 고식(古式)으로 인동향교 명륜당의 대공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지붕은 전후면을 모두 홑처마로 처리하였으며, 좌우에 풍판을 달았다. 또한 명문이 있는 암막새를 얹었는데, 암막새의 머리부분은 '山(산)' 형으로 되어 있고, 모두 아홉 글자가 있으나 마멸이 심하여 '□永□□辰年八月日'이라 되어 있다. 전면 고주열 어칸 상부에 '大成殿' 현판을 걸었다.

내부는 전돌로 바닥을 마감하였으며, 문선왕 위패 위에는 흰 천막을 쳐서 불전에서 닫집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전면만 모로단청을 하였으며, 퇴칸 벽체나 건물 내부 등에는 가칠단청 하였다. 전체적으로 매우 소박하게 처리한 건물이다.

(2)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전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좌우 협칸 전면으로 각 4단으로 된 계단이 각각 놓여 있으며, 단층 기단 위에 덤벙 주초를 놓고 그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웠다. 각 칸 중앙에 두 짝 판문을 달고, 판문 전면에는 청색,

흰색, 초록의 3태극 문양을 도채하였다. 좌우 측벽은 중방 하부만 판벽을 구성하였으며, 가구는 3량가로, 처마 끝은 갈모산방으로 처마곡을 잡고 있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전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계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대지의 경사로 인하여 전면에 동서재의 기단 상면에 맞춘 축대를 쌓고, 막돌쌓기한 축대를 쌓은 위에, 다시 막돌쌓기한 기단을 형성하였다. 전면에는 6단으로 된 계단을 2개 두었으며, 운두가 높은 덤벙주초를 놓고 기둥을 세웠다. 외부에 사용된 기둥은 모두 원주이고, 내진주만 방주를 사용하였다. 평면구성은 좌측 1칸을 통칸 온돌방으로 하고 나머지 3칸은 우물마루를 시설하였다. 가운데 마루를 중심으로 양 옆에 방을 대칭으로 하는 것이 경북지방 향교 명륜당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예안향교 명륜당과 같은 형식은 경북지방에서는 봉화, 풍기, 영주의 향교에서만 볼 수 있다.

벽체는 대청 배면과 우측면을 판벽으로 하여 머름을 들이고 쌍여닫이 띠장널문을 달았다.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하였으며, 충량이 결구되는 우측협칸의 외기부분은 우물반자를 구성하였는데, 달동자 처리가 우수하다. 온돌방 상부는 고미반자로 하였으며, 후면칸은 약 3척 가량을 뒤로 빼고, 벽장을 시설하였다. 방의 정면 창호는 쌍여닫이 띠살창이고, 방 측면 앞칸은 문턱이 높은 쌍여닫이 띠살문이며, 뒷칸은 키가 큰 외여닫이문을 달았다.

기둥머리에 외단을 직절하고 하부를 궁글린 익공을 놓고 주두를 놓아 대들보를 받았으며, 주간에는 소로를 수장하였다. 또한 동측벽 기둥에서 창방을 생략하였다. 가구는 5량가로, 단면이 원형에 가까운 직재로 대들보를 걸고 위에 초각하지 않은 보아지를 끼운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받았다. 종보 위는 초각한 첨차를 끼운 파련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게 하고 3분변작으로 도리 간격을 배분한 소박한 구조의 백골집이다. 한편 충량 머리는 대들보 중앙에 얹었다. 내부 당 어칸 후벽 상부에 '明倫堂' 현판을 걸어두었으며, 다수의 기문이 걸려 있다. 또한 당 어칸 내부에 전면쪽으로 '養浩樓(양호루)' 현판이 걸려 있다.

(2) 동서재(東西齋)

동재와 서재는 각각 전면 3칸, 측면 2칸 규모에 전면에 퇴칸을 둔 민도리계 3량가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평면 구성은 3칸의 전면에 반 칸 폭의 툇마루를 깔았으며, 동재는 남측 1칸을 벽체로 구획한 반면 서재는 내부를 통칸으로 두었다. 높직한 단층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방형 기둥을 세웠다. 어칸과 북측칸 전면에는 외짝 세살문을, 남쪽 칸 전면에는 두 짝 세살문을 달았다. 서재 북측면에는 창호를 달았던 흔적이 있으며, 동재 어칸 전면에는 '由義齋(유의재)' 현판을, 서재 전면 어칸에는 '居仁齋(거인재)' 현판을 각각 달았다. 두 건물 모두 대지

자체의 경사에 의하여, 기단 북측면이 남측면 보다 낮다. 동재 내부에는 완문(完文) 1개가 걸려 있고, 서재 측면 대들보 상부에는 동자주 좌우에 원형의 환기구를 두었다.

(3) 외사주문(外四柱門)

외사주문은 사방 단 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향교의 정문이다.

단층 기단 위에 덤벙 주초를 놓고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웠다. 중간에 설주를 두어 두 짝 판문을 달았으며, 가구는 3량가로, 대들보 중앙에 짤막한 동자주를 얹어 종도리를 받았다. 좌우 벽체는 높이를 3등분하여, 위에서 1/3 지점에 중방을 가로지르고 하부에 판벽을 구성하였다. 건물은 후면 기둥이 좌우 담에 연하여 있어 향교 전면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전면 기둥 상부와 전면 주심도리 장혀 하단을 잇는 45도 가새를 각각 좌우에 두었다.

다. 기타

기타 건물로는 전사청과 교직사, 화장실, 교직사 외문, 협문 등이 있다.

전사청은 전면 2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명륜당 후면에 약간 높직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자연석 단층 기단 위에 덤벙 주초를 놓고 방형 기둥을 세웠으며, 가구는 3량가로 중앙에 짤막한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를 받았다. 도리는 납도리를 사용하였으며, 좌측 1칸은 온돌방으로 두어 후면에 굴뚝을 두었다. 우측 1칸은 전후면과 우측면 벽을 판벽으로 두고, 전면과 우측면에 각각 두 짝 여닫이 판문을 내었으며, 우물마루로 두었다. 각 칸 전면에 두툼한 디딤돌을 놓았다.

교직사는 전면 5칸, 측면 1칸 규모의 3량가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명륜당 후면 좌측에 자리잡고 있다. 평면은 좌측칸부터 부엌, 방, 마루, 방, 부엌의 '一'자형 살림집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건물 좌측면은 담 외부에 면하여 있으며, 좌측 방은 부엌에서 난방하고, 우측 방은 기단 전면에 아궁이를 내고 후면에 굴뚝을 두고 있다. 단층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았는데, 우측 전면 귓기둥 초석만 원형 초석을 놓았다. 좌우 퇴칸의 전면과 후면 중방 하부는 판벽으로 두었으며, 다른 곳에 사용되었던 부재를 다수 사용하였다.

화장실은 사방 단 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로, 방형 기둥을 사용한 3량가 건물이다. 서재 후편 향교 외곽에 자리하고 있다.

교직사 외문은 서재 후면에 자리잡고 있으며, 교직사로 바로 통할 수 있다. 단 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로, 전면에 4단의 계단을 두고, 방형 기둥을 사용하였다. 전면 기둥렬에 두 짝 판문을 달았으며, 가구는 3량가로 좌우측면은 판벽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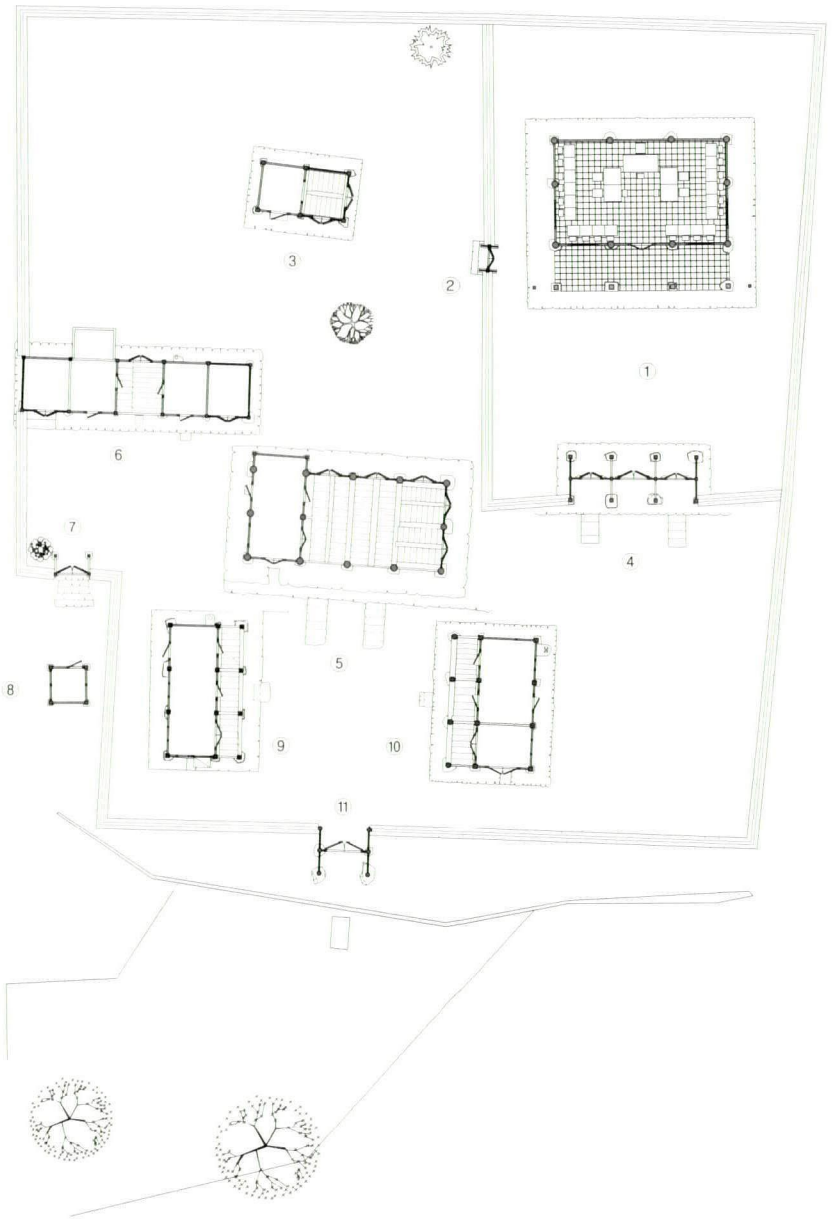
협문은 대성전 왼편 담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으며, 전사청에서 바로 대성전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하였다. 판문 전면 좌우 기둥 상부에 장혀와 기둥 상부를 45도로 빗겨 댄 가새를 두었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예안향교(禮安鄕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8호(일곽)
창건시기	조선 태종 15년	입 지	구릉지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향교재단
좌 향	남동향 (명륜당 向 S36°E)	배치형식	左廟右學 / 前齋後堂 남북 종축 2개
중건시기	1745 일곽 중수	대지조성	3단 : 명륜당, 내삼문 기준
설 위	5聖, 宋朝 2賢, 海東 18賢	인접시설	도산서원, 시사단
건축구성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외사주문, 전사청, 교직사, 교직사 외문, 화장실, 협문 1동		
특기사항	대성전과 명륜당이 각각의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각각의 향도 약간씩 틀어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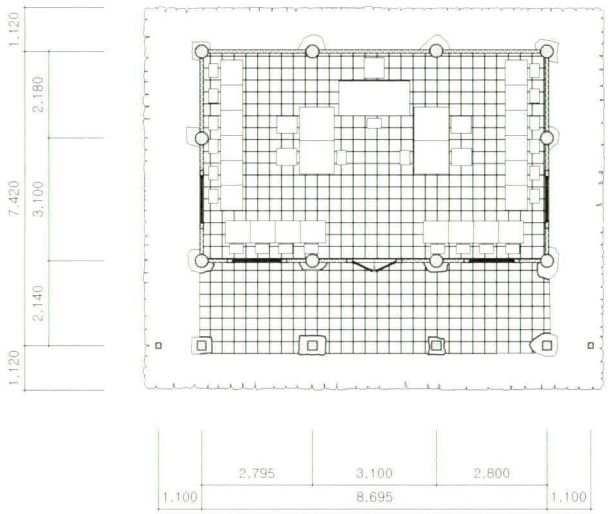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3×3칸, 전1퇴칸 / 무익공 / 홑처마 맞배지붕 / 1고주(어칸) · 2고주(측벽) 5량가 / 전돌 / 연등천장 주칸 어칸 3100 협칸 2800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막돌쌓기 전면 2개(각 6단)	보	대들보 : 전고주 후평주 걸침(어칸) 종 보 : 3분변작에 근접
초 석	덤벙주초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전면 평주 방형 기둥 기타 원형 기둥	대 공	중대공 : 동자주+계량, 주두 종대공 : 공(工)자형 대공
공 포	무익공 / 보머리 직절	창 방	방형 / 뺄목 직절 후 하단 궁글림
처 마	홑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 / 전면 모로단청, 내부 및 기타 긋기단청 / 연등천장 / 전돌		
특기사항	익공구성부분과 중대공 부분에 계량을 사용하였음 종대공 구성 방식이 공(工)자형으로 고식(古式)임 어칸에만 판문을 두고 좌우 협칸 및 측면 어칸에 광창(光窓)을 둠 전면 평주는 방형 기둥을, 나머지는 원형 기둥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경우에서 벗어남		

명륜당 건축 요소			
개 요	4×2칸 / 몰익공 / 홑처마 팔작지붕 / 5량가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우물반자(외기), 室 : 온돌 · 고미반자 / 주칸 2380		
기 단 계 단	이중기단 / 막돌쌓기 전면 2개 (6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3분변작
초 석	덤벙주초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실 당측벽 고주 방형 기둥 기타 원형 기둥	대 공	중대공 : 동자주+보아지 종대공 : 파련대공
공 포	몰익공	창 방	방형 / 뺄목 직절 후 하단 궁글림
처 마	홑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 붕	팔작지붕
수 장	회사벽 / 백골청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우물반자(외기), 室 : 온돌 · 고미반자		
특기사항	좌우 대칭으로 실(室)을 구성하지 않고 서실(西室)만 두었음 대지 경사를 이용하여 이중기단을 형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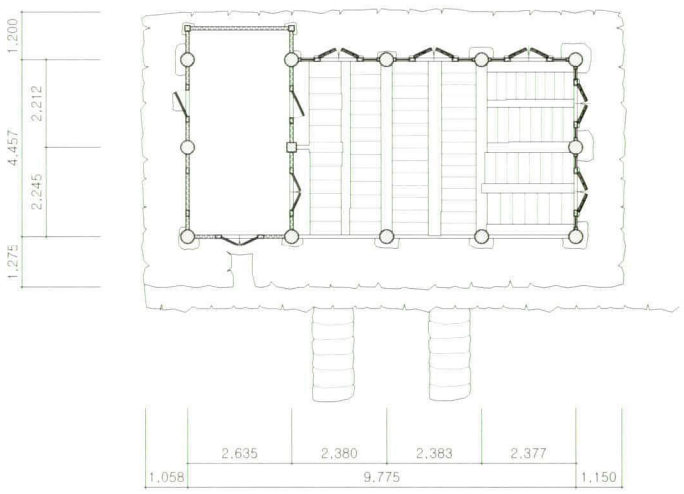


예안향교 배치도

0 5 10 20 M



예안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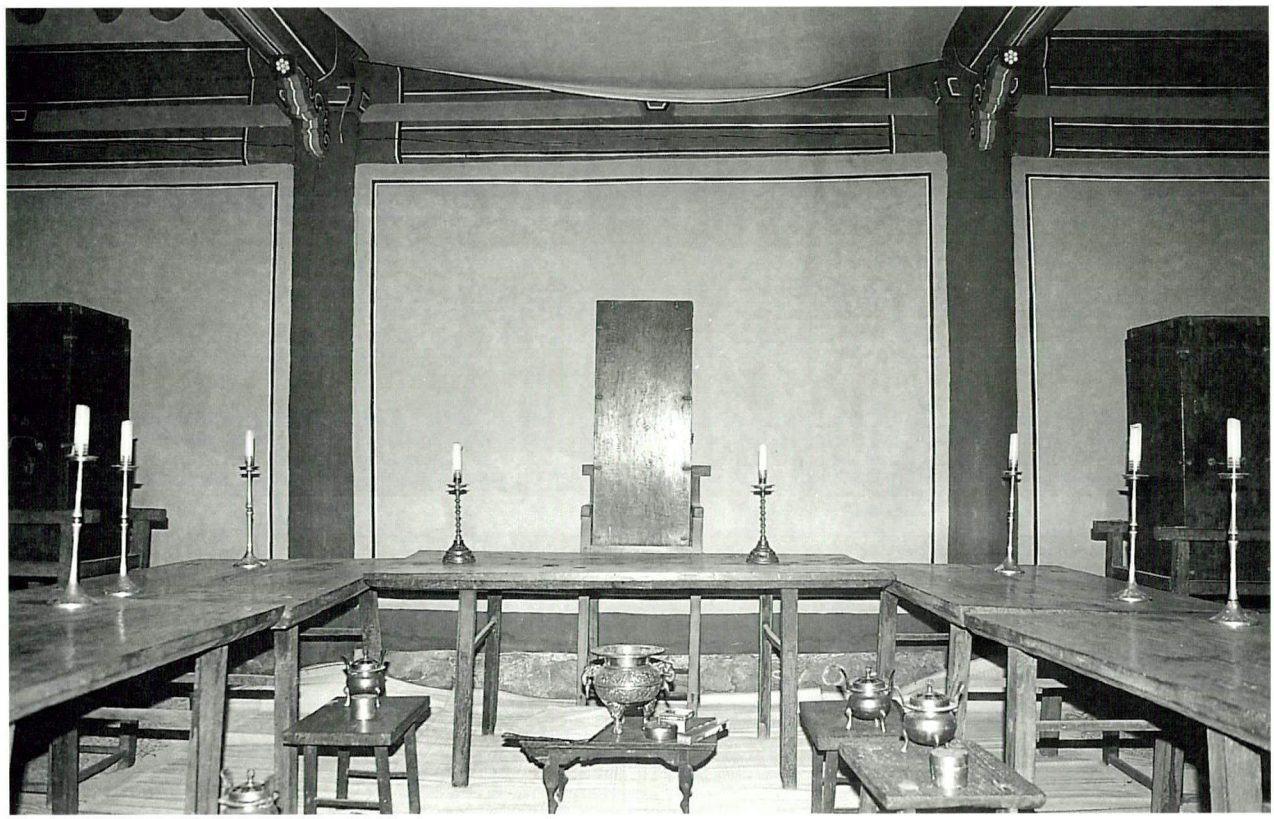


예안향교 명륜당

0 0.5 1.0 2.0 4.0M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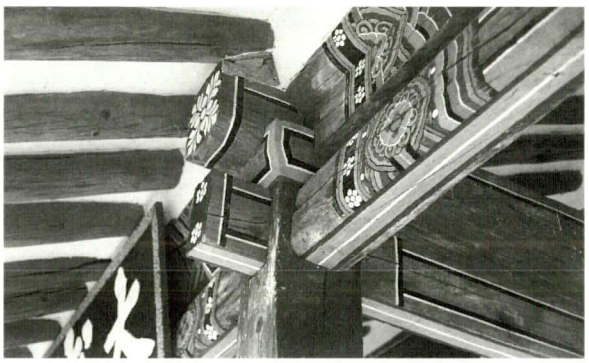
대성전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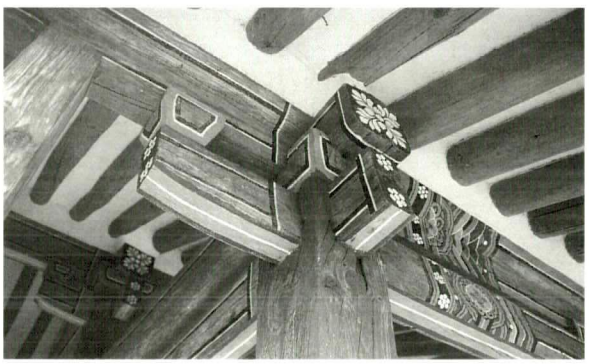
대성전 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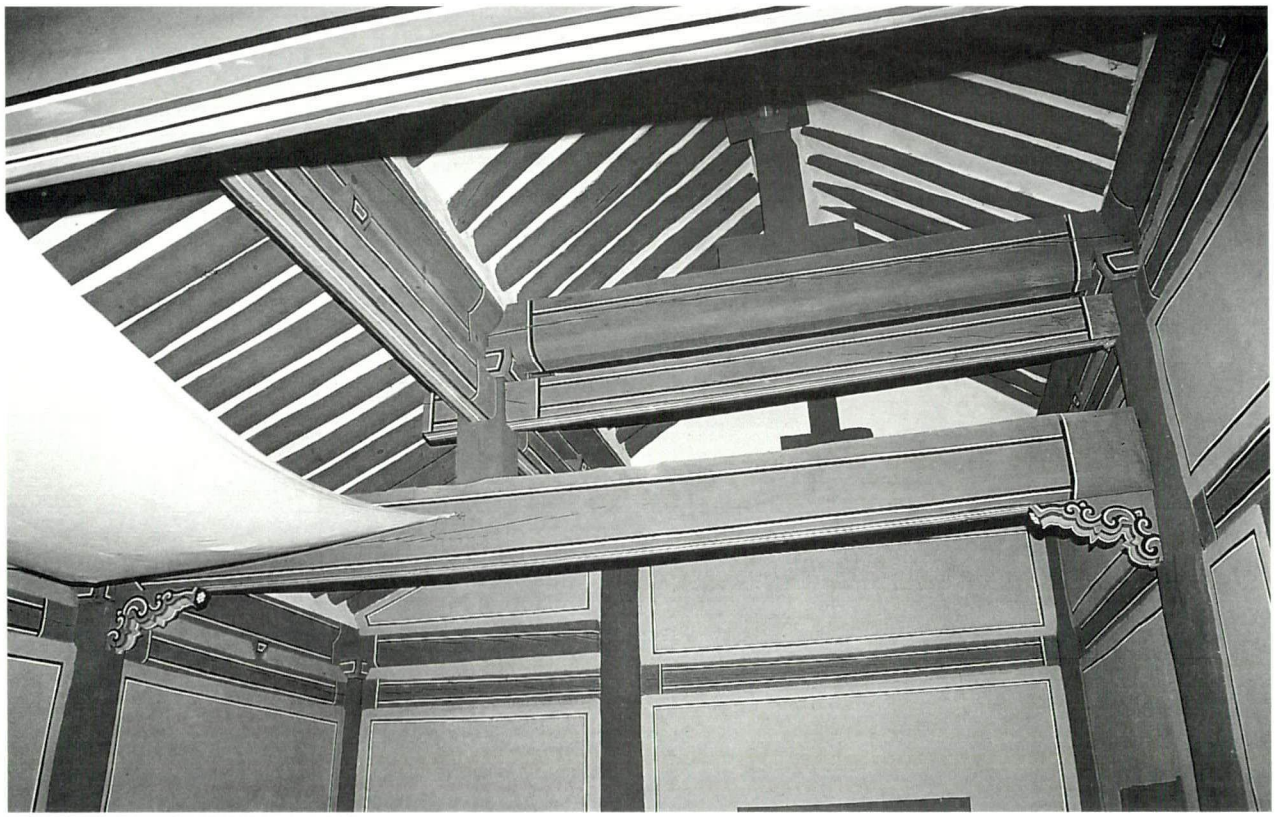
대성전 전면 퇴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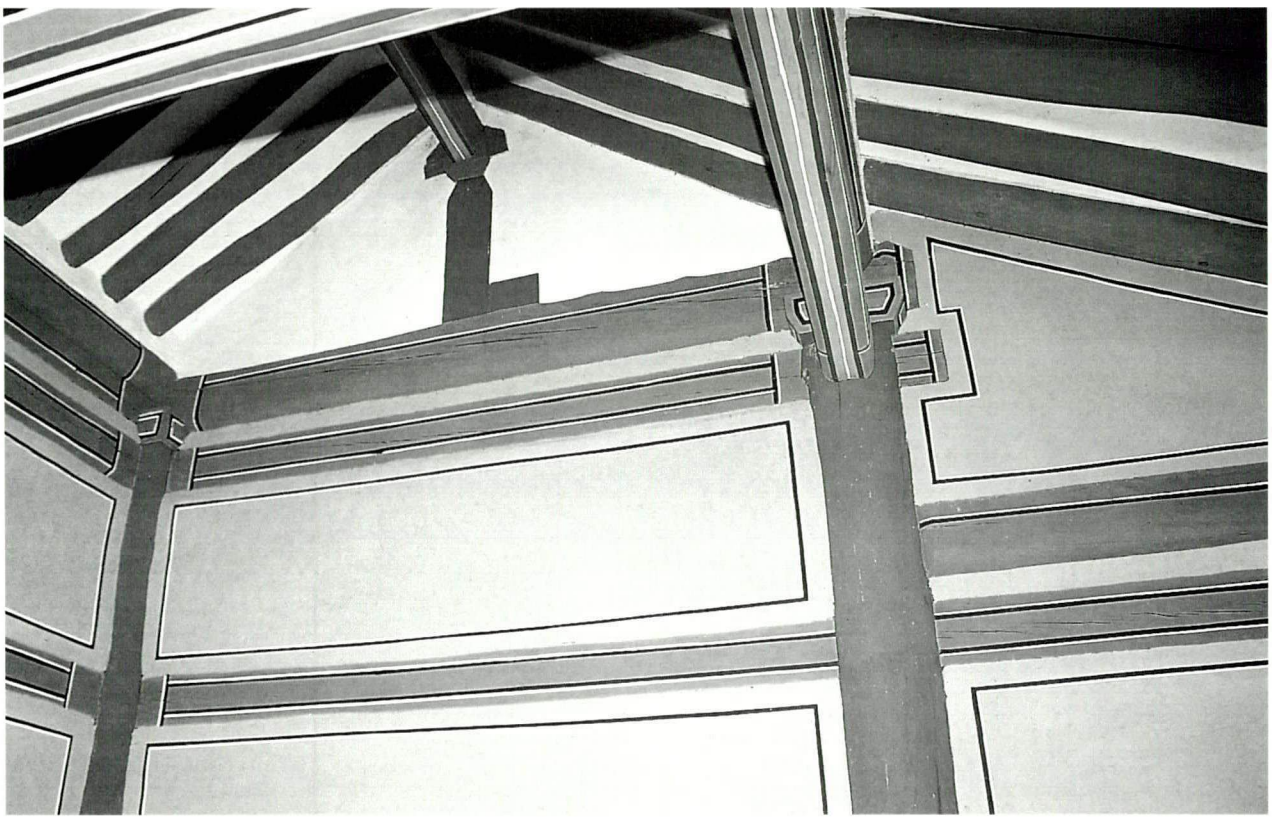
대성전 전면 주상포



대성전 전면 귀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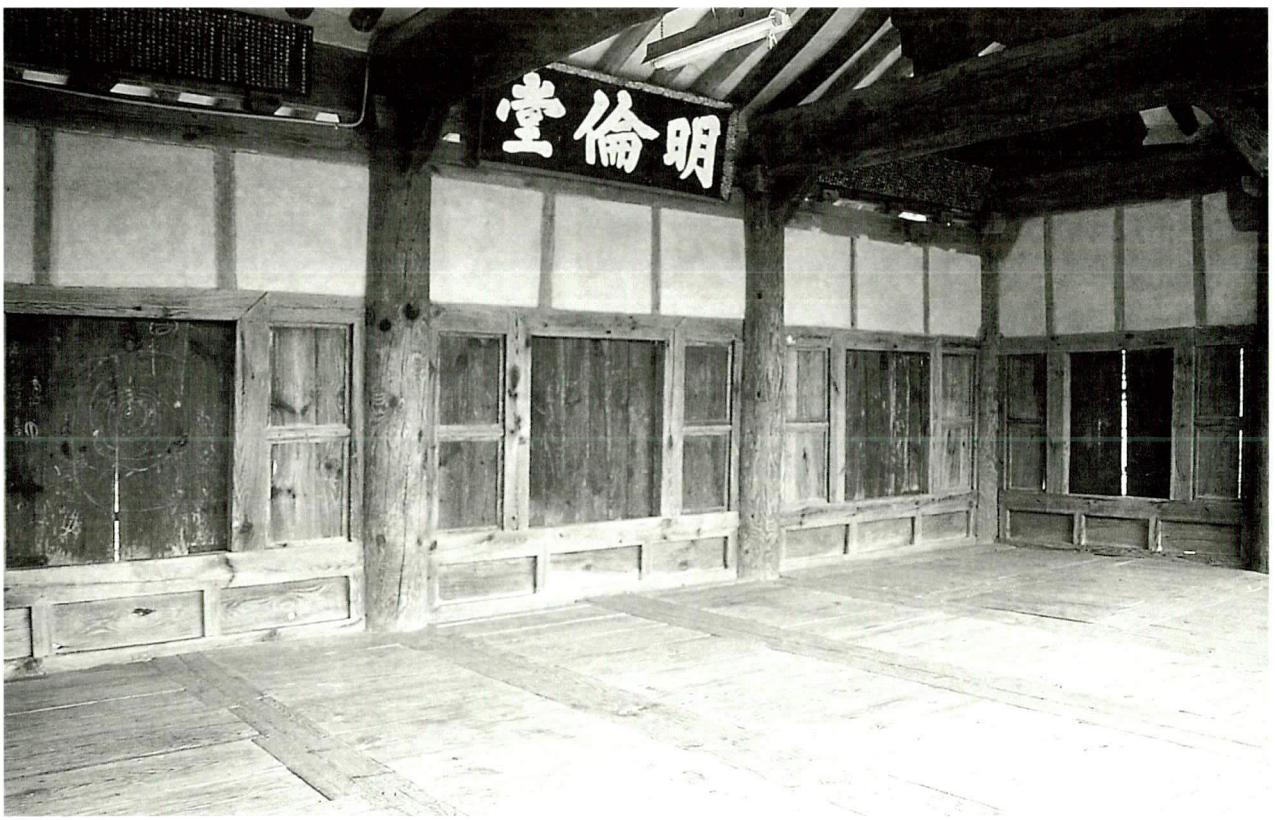
대성전 내부 어칸 가구



대성전 내부 측벽 가구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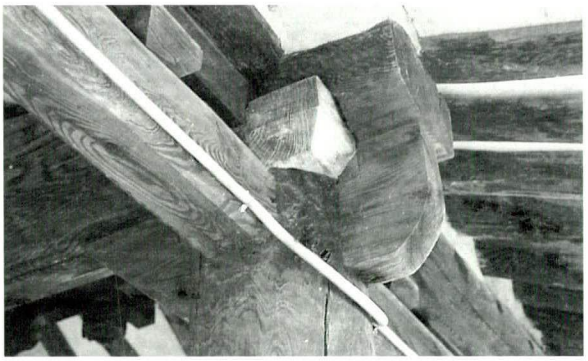
명륜당 내부



명륜당 후면



명륜당 전면 평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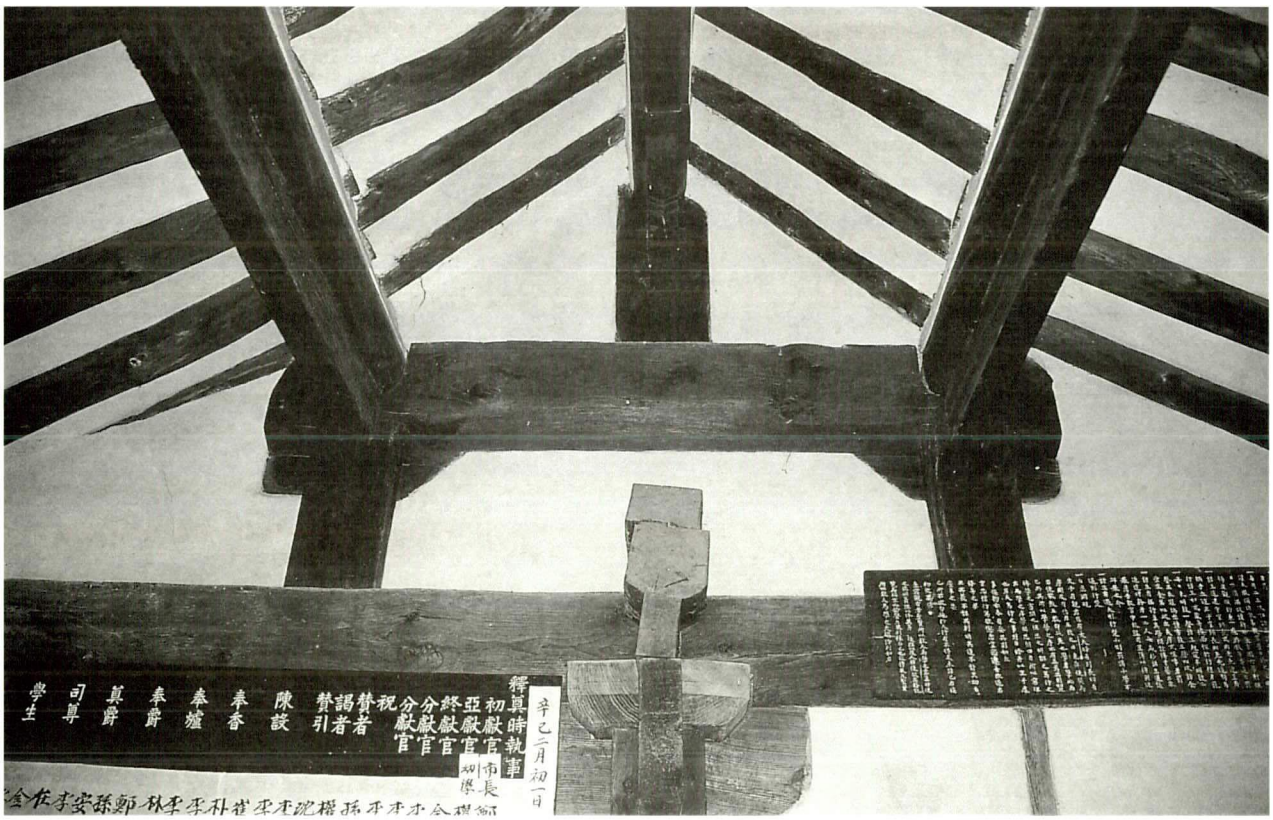
명륜당 전면 주상포



명륜당 전면 평주 초석



명륜당 내부 가구



명륜당 내부 협칸 가구



동재 및 현판



서재 및 현판



내삼문



외사주문



전사청



교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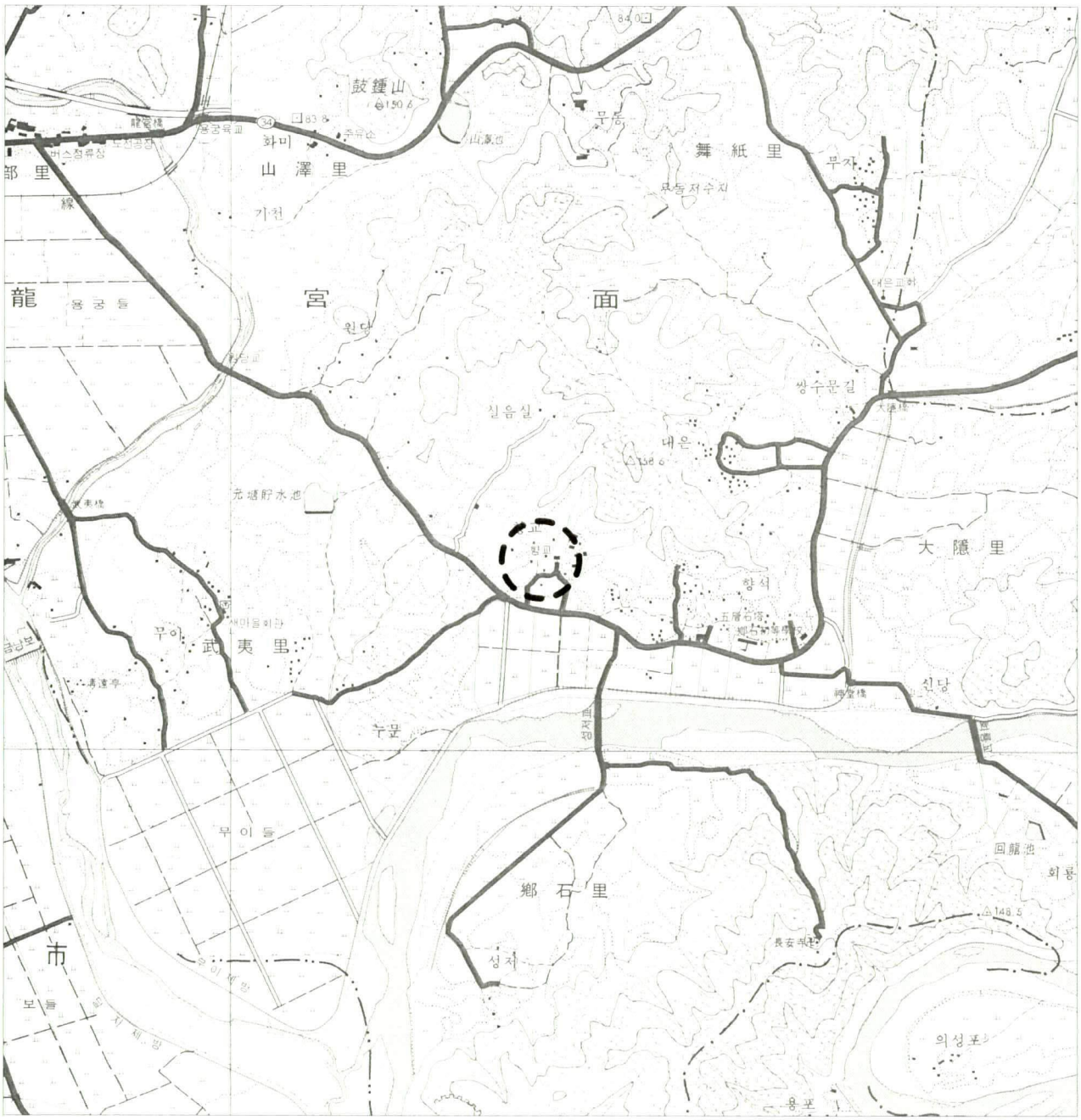


화장실



16.용궁향교(龍宮鄕校)

- 지정사항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10호(일괄)
- 지 정 일 : 1985년 8월 5일
- 소 재 지 :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266
- 건축구성 : 대성전, 신문, 명륜당, 동재, 세심루, 외삼문, 교직사, 협문 등



1.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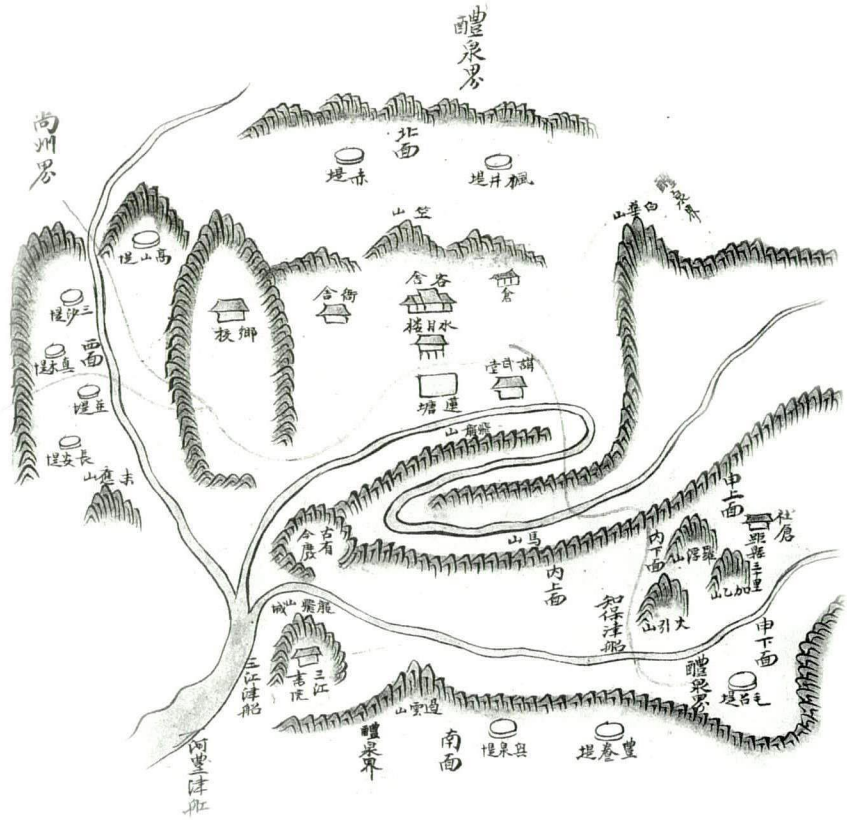
용궁은 본래 신라의 축산현(竺山縣, 또는 園山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16년(757)에 예천군의 영현으로 하였다. 고려 성종 14년(995)에 용주(龍州)로 승격되었고 자사(刺史)를 두었다가 목종 8년(1005)에 자사를 파하였으며, 현종 3년(1012)에는 용궁군으로 낮추어 상주목의 임내(任內)에 두었다.

명종 2년(1172)에 감무(監務)를 두었고, 조선 태종 13년(1413)에 감무를 현감으로 하였다. 그 뒤 고종 32년(1895)에는 안동부 소관의 용궁군이 되었다가 다음해 경상북도 소속 군이 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예천군에 통합되어 용궁면이 되었다.

용궁이라는 지명은 용담소(龍潭沼)와 용두소(龍頭沼)의 용이 이루어 놓은 수중의 용궁과 같이 지상에도 이러한 용궁을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지은 것이라 한다. 조선시대에는 치소가 용비산(龍飛山) 북쪽의 낙동강지류인 남천(南川)유역에 있었으나 철종 때 서쪽으로 옮겨 성화천(省火川) 주변에 자리잡은 것이다.

외부와의 연결은 도로보다 하천을 많이 이용하여 남쪽의 하풍진(河豊津)이나 동쪽의 사창(社倉) 등을 통하여 물자를 운반하였다. 북쪽의 문경관할이었던 조령산성(鳥嶺山城)에는 용궁의 산창(山倉)이 있어 충청도지역으로 물자를 운반하였다. 하천유역에는 부취루(浮翠樓)·수월루(水月樓)·청원정(淸遠亭) 등의 누정이 있었다.

용궁향교는 그 건립연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용궁현이 신라 때 축산현으로 시작하여, 고려 때 용궁군 등으로 개칭되다가, 조선 조에 현(縣)으로 정착되는 것으로 보아, 조선초기 지방군현이 정비되면서 '一邑一校'의 원칙에 따라 각 지방에 향교를 설치, 보급하는 과정에서 설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문화재청 자료에 의하면 조선 태조 7년(1398)에 현 위치에서 동쪽으로 100m 떨어진 곳에 세웠다가 정종 2년(1400)에 화재로 소실되었던 것을 중종 7년(1512)에 현 위치에 복원되었다고 하였다. 또, 2003년도에 성균관에서 발간된 『校宮大觀』 용궁향교 편에는 조선 태종 4년(1404)으로 되어 있다.



龍宮懸

이후 용궁향교는 중간에 소실(燒失)된 적이 있었고 중종 7년(1512)에 지금의 자리에 이건(移建)하였다고 전한다. 그 위치는 현(縣) 동쪽 10리다. 선조 25년(1597) 임진왜란 중에 불탔으나 선조 35년(1602)에 대성전과 명륜당을 먼저 중건하고[1], 인조 4년(1626)에 세심루를 창건하였으며[2], 인조 14년(1636)에 세심루(洗心樓)를 중건하였다. 명륜당 재건에 대해서는 『木齋集(목재집)』(洪汝河 지음) 卷 6에「龍宮明倫堂記」가 있다. 이후에도 헌종 14년(1848), 철종 14년(1863, 長周炳重修記), 고종 10년(1873, 高永鎭重修記), 1893년 등 수 차례에 걸쳐 명륜당, 대성전 등의 중수가 있었다.

1978년에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수하였으며, 1981년에 주소(廚所)를 중건하였다. 1986년에는 명륜당을, 1990년에는 대성전을 연목이상 해체하여 번와보수 하였다. 1989년에는 외삼문과 담을 보수하였으며, 1991년에는 신문과 대성전 주변 담을 보수하고, 세심루와 명륜당, 재실 등의 기단 및 석축을 보수하였다. 1992년에 방충방연제 도포공사를 하였으며, 1998년에 세심루를 산자 이상 해체보수 하였다. 2001년도에도 동재를 산자 이상 해체보수 하였으며, 2003년도에 서재를 건립할 예정이다.

현재 향교에 소장된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3], 위에서 언급된 자료와 이들을 중심으로 향교의 창건 이후 연혁을 정리해 보았다.

● 문헌류

- 駿奔錄(준분록, 辛酉二月 및 庚申二月)[4], 鄕校田畓査正案(향교전답사정안, 壬寅九月), 慕聖契(모성계, 丙午), 靑衿錄(청금록, 壬午八月 및 丙子二月), 鄕案錄(향안록, 乙未七月), 任負錄(임부록, 甲午 十一月), 時到錄(시도록, 甲戌), 任員錄(임원록, 癸丑五月 및 壬申二月, 乙酉八月 등 3권), 校任錄(교임록)[5], 鄕校節目冊(향교절목책), 龍宮官儒生成冊(용궁관유생성책), 교중입의(校中立義), 龍宮鄕校備品坿帳(용궁향교비품대장, 丙寅八月) 외 3책

● 기문류(연대순)

- 庠舍養士記(상사양사기, 上之十年甲申, 1464년), 門樓記(문루기, 崇禎紀元後甲申, 1644년), 明倫堂記(명륜당기, 癸巳(1663년)), 洗心樓記(세심루기, 乙巳(1689년)), 典祀廳重修記(전사청

1)__ 이전기록에는 선조 36년(1603)으로 되어 있었으나, '門樓記(문루기, 崇禎紀元後甲申, 1644년 제작)'을 보면 壬寅(임인)년에 명륜당을 건립하였다고 되어 있어 수정하였다.

2)__ '門樓記(문루기)' 에 보면, 議堂(의당) 壬寅(임인)년에 향교를 건립할 적에 명륜당과 함께 문루를 건립하였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하였고, 丙寅(병인)년, 즉 1626년이 되어 건립 논의가 있어, 사인(士人) 이군(李君)과 더불어 재력(財力)을 모아 건립하였으며, 아래의 이름은 입덕(入德), 위의 이름은 세심(洗心)이라 하였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기문은 이십여 년 후인 '崇禎紀元後甲申', 즉 1644년에 각(刻)되었으며, 현재 명륜당 내에 걸려 있다.

3)__ 이하의 자료는 2003년 5월 현지 보완조사시 조사된 향교 소장 자료이다.

4)__ 모두 2권이 있으며 한 권은 신유년 2월까지의 현관 등 향교 관련 재임들의 이름을 적은 목록으로 계유(癸酉) 8월부터의 기록을 모은 책이며, 다른 한 권은 경신(庚申) 2월부터 현재까지의 기록이다.

5)__ 萬曆二十七年 己亥 八月 이후의 기록으로, 1599년부터 기록되어 있어 사료(史料)적 가치가 매우 높다.

중수기, 庚申(1860년)), 明倫堂重修記(명륜당중수기, 癸亥(1863년)), 鄕校重修記(향교중수기, 甲子(1864년)), 西齋重修記(서재중수기, 癸卯(1873년)), 鄕校節目(향교절목, 同治十二年癸酉, 1873년), 講學所創建記(강학소창건기, 丁亥(1887년)), 儒所重修記(유소중수기, 戊子(1888년)), 鄕校儒所重修記(향교유소중수기, 戊子(1888) 및 壬辰(1892년)), 鄭候功續記(정후공속기, 癸巳(1893년)), 聖殿重修記(성전중수기, 癸巳(1893년)), 校宮重修記(교궁중수기, 丁酉(1897년) 및 癸卯(1903년, 2개)), 鄕校重創實記(향교중창실기, 丁巳(1917년)), 鄕校重修記(향교중수기, 癸酉(1933년)), 大成殿重修記(대성전중수기, 戊寅(1938년)), 明倫堂修繕記(명륜당수선기, 壬午(1942년)), 鄕校重修記(향교중수기, 庚子(1960년)), 龍宮鄕校重修記(용궁향교중수기, 丁未(1967년)) 등

이상의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98(1404)	창건(추정)
1400	화재로 소실
1512	현 위치에 중건
1597	임진왜란으로 소실
1602	대성전, 명륜당 중건
1626	세심루 창건
1636	세심루 중건
1663	명륜당 중수
1689	세심루 중수
1848	향교 일곽 보수
1860	전사청 중수
1863	명륜당 중수
1873	서재, 대성전 중수
1887	강학소 창건
1888	향교 일부 및 유소 중수
1892	향교 일부 및 유소 중수
1893	대성전 중수
1897	향교 일부 중수
1903	향교 일부 중수
1917	향교 일곽 중수
1933	담 보수 및 재랑(齋廊) 단청
1938	대성전 중수

1942 명륜당 중수
1960 향교 일부 중수
1967 향교 일곽 중수
1978 대성전, 명륜당 보수
1981 주소(廚所) 중건
1986 명륜당 연목 이상 해체 번와보수
1989 외삼문, 담 보수
1990 대성전 연목 이상 해체 번와보수
1991 신문, 대성전 주변 담 보수, 세심루와 명륜당 및 재실 기단, 석축 보수, 하마비(下馬碑) 건립
1992 방충방연제 도포공사
1998 세심루 산자 이상 해체보수
2001 동재 산자 이상 해체보수
2003 서재 건립(예정)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는 대성전, 신문, 명륜당, 동재, 세심루, 외삼문, 교직사, 협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입지 및 배치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鄕石里)에 위치한 용궁향교는 예천 읍내에서 34번 국도를 타고 문경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928번 지방도(용궁방면)를 타고 향석리 표지판을 약간 지나친 곳에 자리잡고 있다. 길가에 큰 자연석을 세우고 '龍宮鄕校' 네 글자를 새겨 놓았다.

향교는 산허리에 외삼문, 세심루, 명륜당, 대성전의 순으로 일직선상에 배치시킨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이다. 건물 주위는 와장(瓦墻)으로 두르고 담 밖 동쪽에 '口'자형의 주사(廚舍)가 있다. 명륜당 앞에는 현재 동재만 남아 있으며, 동서무는 소설위인 관계로 건설하지 않은 것 같다. 동서재는 허물어 없어진 것을 근년에 와서 동재만 복구하였고, 1989년에 외삼문을 신설하였다. 전체적인 배치는 서남향하고 있다.

한편, 외삼문에서 직선 방향으로 전면의 지방도를 향해 시선을 연장한 곳에 하마비가 있는데, 1991년에 이곳으로 옮겨 세우고 기념비문을 새겼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전면 3칸, 측면 3칸의 규모의 익공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하단은 자연석을 2단으로 쌓고 상단은 화강암 장대석을 두른 단층기단 위에 방형 대좌에 정연한 원형 주좌(柱座)를 초석을 얹었다. 기단 상면은 전돌로 마감하였으며, 내부는 통칸으로 우물마루로 되어 있다. 평면은 어칸이 12척으로 좌우 협칸보다 2척 가량 넓은 반면, 측면에서는 3칸의 주칸이 7척으로 모두 동일하다.

전면과 후면에는 심벽을 구성하였고, 전면 어칸에는 중앙에 두 짝 세살문을, 좌우 협칸에는 어칸 기둥에 붙여 외짝 세살문을 달아내었다. 좌우 측면은 중방 하부에 자연석과 암기와를 차곡차곡 쌓은 화방벽을 구성하고 상부에 아귀토로 마감한 기와를 얹었다.

기둥은 배흘림이 완연한 원형 기둥을 사용하였으며, 기둥머리에는 초익공을 구성하였다. 익공재 외단은 그리 길게 빼지 않은 쇠서 형태로 되어 있으며, 보머리는 마름모 형태로 다듬었다. 주심 첨차의 단부는 초각하였으되 매우 세장하며, 주간에는 화반을 1개씩 두었다. 귀포에서는 익공재 내단을 뒤로 빼어 고주 몸에 결구시켰으며, 보는 수장재 단면과 같고 외단을 초각하였다.

가구는 어칸에서 무고주, 좌우 측벽에서 2고주 5량가로 되어 있으며, 3분변작의 위치에 중대공을 놓았는데, 보방향 보아지를 놓고 소로를 놓아 장방형 단면의 종보를 받았다. 그 위에는 어칸에서는 파련대공을, 좌우 측벽에서는 '工(공)'자형 대공을 놓았는데 이는 예안향교 대성전의 대공과 유사한 형태이다.

처마는 전후면 모두 홑처마이며, 좌우에는 방풍판을 달았다. 전체적으로 외부의 단청은 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매우 훼손된 상태이나, 내부는 모로단청이 잘 남아 있다. 전면 어칸 상부에 '大成殿' 현판을 걸어 두었다.

(2) 신문(神門)

신문은 사방 단 칸 규모의 사주문으로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전면에 명륜당 오른편에서 오르는 계단을 두었으며, 전면 기둥렬에 두 짝 판문을 달았다. 가구는 3량가로 가칠단청 하였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전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계 팔작지붕 건물이다.

자연석으로 쌓은 이중 기단 위에 둔중한 자연석 주초를 놓고 배흘림이 완연한 원형 기둥을 세웠다. 평면은 가운데 3칸을 당(堂)으로, 좌우 퇴칸을 실(室)로 구분하였으며, 실 전면에는 마루를 덧달았다. 또한 당 전면에는 다시 한 단의 단을 3칸 통으로 두어 같은 기단 내에서도 다시 당(堂)의 위계를 높여주면서 동시에 자연스러운 오르내림을 가능하게 하였다.

당 후벽은 판벽을 꾸미고 모두 두 짝 판창을 달았으며, 창호 하방에는 문설주를 두었던 흔적이 있어 영쌍창을 달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측협칸 후벽 창호는 다른 칸 보다 크

게 하여 후면에 위치한 신문을 통하여 대성전으로 통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러한 처리는 흔치 않다. 실 전면과 좌우 바깥쪽 벽면에는 두 짝 세살문을 달고, 내부 당 쪽 벽에는 서실의 동벽은 삼분합 세살문을, 동실의 서벽은 외짝 정(井)자살문을 달았다.

기둥머리에는 2익공의 공포를 얹었는데, 살미의 외단은 길고 두텁게 뻗어나가되 끝을 뾰족하게 하였으며, 보머리는 익공재와 같은 너비로 하여 궁글렀다. 전면 우측 귀포에서 도리방향 주심첨차의 외단이 익공형, 보방향 첨차의 외단이 첨차형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전면 좌측 귀포에서는 도리방향 주심첨차의 외단이 첨차형, 보방향 첨차의 외단이 익공형을 유지하고 있다. 대개 정면성을 강조하는 경우 전면으로 향하는 외단을 익공형으로 초각하는데, 전면 우측 귀포에서는 반대로 되어 있다. 한편 주간에는 화반을 놓았는데, 당 좌우 협칸 전후면에는 소로를 수장한 원형 화반을 놓았으되, 당 어칸 전후면과 좌우실 전면, 그리고 측면 등에서 일부 대성전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형태의 화반을 사용하였다.

가구는 5량가로 되어 있으며, 4분변작의 위치에 동자주를 놓고 포대공을 꾸몄다. 종보 위에는 운형대공과 도리방향 첨차를 놓아 종도리를 받았으며, 서실 당측 상벽에 놓인 종대공 하단에는 뜬창방을 두었던 장부구멍 흔적이 남아 있다. 한편 좌우 실 전면에는 덧마루 하부에 아궁이를 두었다.

지붕은 전면과 측면을 겹처마로 하고 후면은 홑처마로 하였으며, 단청은 하지 않은 백골집이다. 내부에 다수의 기문과 묵서명 등이 남아 있으며, 명륜당 전면 어칸 상부에 '명륜당' 현판을 걸었다.

전체적으로 건물이 두툼한 부재를 사용하여 견고하면서도 무겁지 않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 귓부분에서 갈모산방의 춤을 높여 추녀를 많이 치켜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2) 동재(東齋)

동재는 전면 5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좌우 대칭으로 중앙에 부엌 1칸을 두고, 좌우는 내부 통칸으로 온돌방을 꾸몄다. 방 전면에는 모두 1/4가량을 뒤로 물러 퇴칸을 구성하였으며, 가구는 3량가로 되어 있다. 부엌 전면에는 두 짝 널문을, 좌우 실 각 칸 전면에는 외짝 세살문을 달았다.

(3) 세심루(洗心樓)

세심루는 전면 7칸, 측면 2칸 규모의 중층 익공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전면에 외삼문 후면에서 오르는 계단을 두었으며, 향교의 누각으로는 비교적 큰 규모로, 단층 기단 위에 덤벙 주초를 놓고 굵은 원형 기둥을 세웠다. 하층은 사방에 벽체를 두지 않았고, 하층 좌측 협칸 후면칸에 상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두었는데, 다만 어칸 기둥 하부에 문을 달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상층 바닥에는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방형 기둥을 사용하고 있다. 전면은 판벽을 구성하고, 각 칸 마다 하부에 머름을 두어 두 짝 판창을 달았는데, 둔테를 외부에 달았다. 측면과 후면에는 벽체를 구성하지 않고 간소한 난간을 둘렀다.

기둥머리에는 초익공을 구성하고 보머리는 직절하였으며, 주간에는 소로를 수장하였다. 가구는 5량가로, 3분변작의 위치에 포대공을 놓아 종보를 받았으며, 중앙에 제형판대공을 놓고 다시 종도리를 받았다. 대들보는 자연곡재를, 종보는 직선재를 사용하였다.

지붕은 홑처마로 되어 있고 좌우에 풍판을 달았으며, 단청을 하지 않은 백골집이다. 상층 내부 어칸 전면쪽 상부에 '洗心樓' 현판을 걸어두었다.

(4) 외삼문(外三門)

외삼문은 전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익공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솟을삼문으로 되어 있다.

전면 중앙에 3단으로 구성된 1개의 계단이 놓여 있으며, 자연석으로 쌓은 단층 기단 위에 덤벙 주초를 놓고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웠다. 좌우 측벽은 심벽으로 되어 있으며, 각 칸 중앙렬에 설주를 두고 두 짝 판문을 달고 상부에 홍살을 꾸몄다.

기둥머리에는 초익공을 구성하였으며, 주간에 소로를 수장하였다. 가구는 3량가로 대들보 중앙에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를 받았다.

긋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으며, 각 칸 판문 전면에 2태극 문양을 그려 넣었고, 서까래 마구리에도 같은 문양을 그려 넣었다.

다. 기타

기타 건물로는 교직사, 협문 및 가건물 등이 있다.

교직사는 흔치 않은 'ㅁ'자형 살림집 형태를 하고 있는데, 현재 동재 후면 향교 담 바깥에 자리잡고 있다. 단층 기단 위에 덤벙 주초를 놓고 방형 기둥을 사용하였으며, 간략한 3량가의 구조에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다.

협문은 교직사로 통하며, 동재 후면에 1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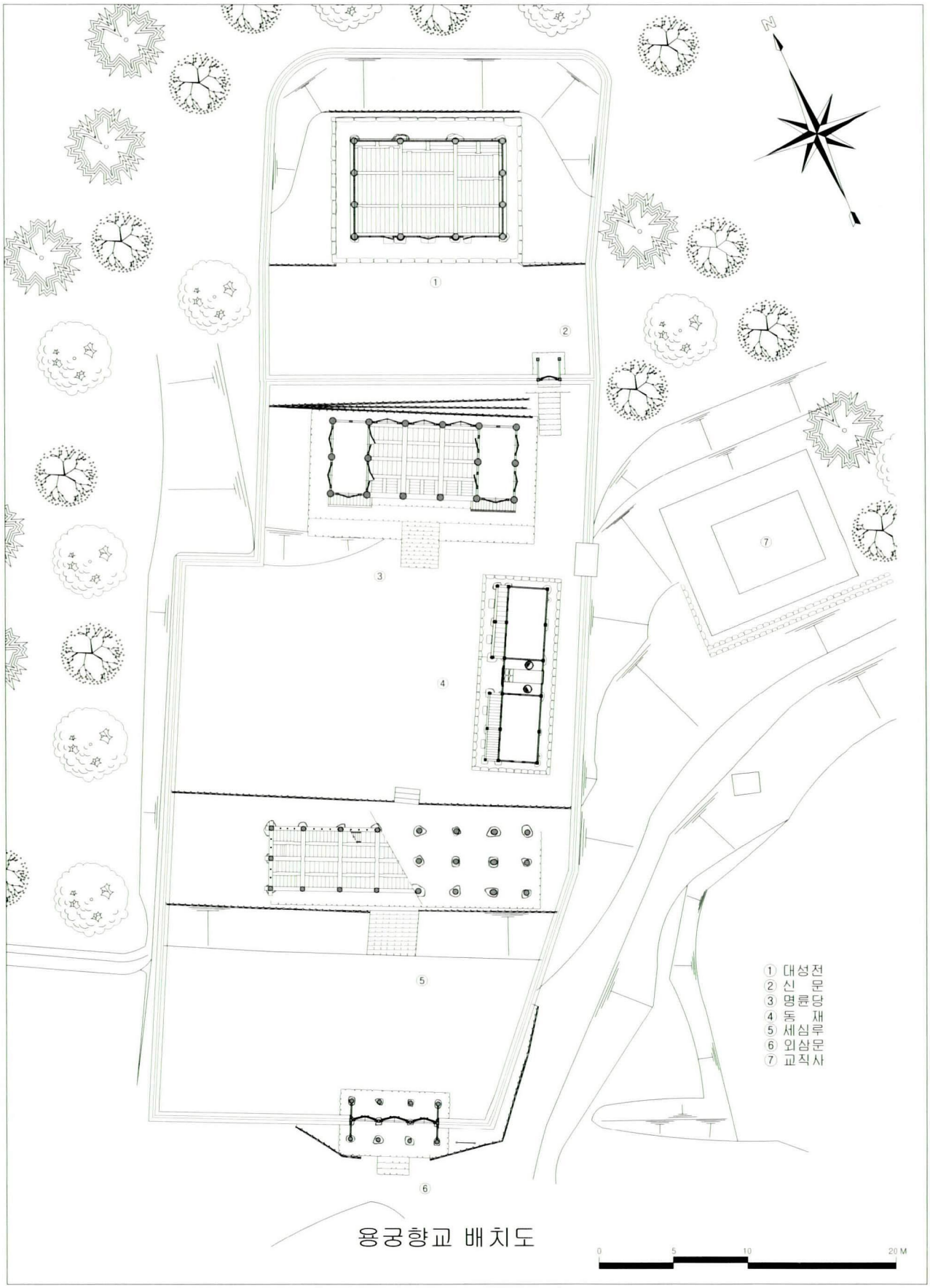
가건물은 세심루 남서쪽에 있으며 2003년 보완조사시 철거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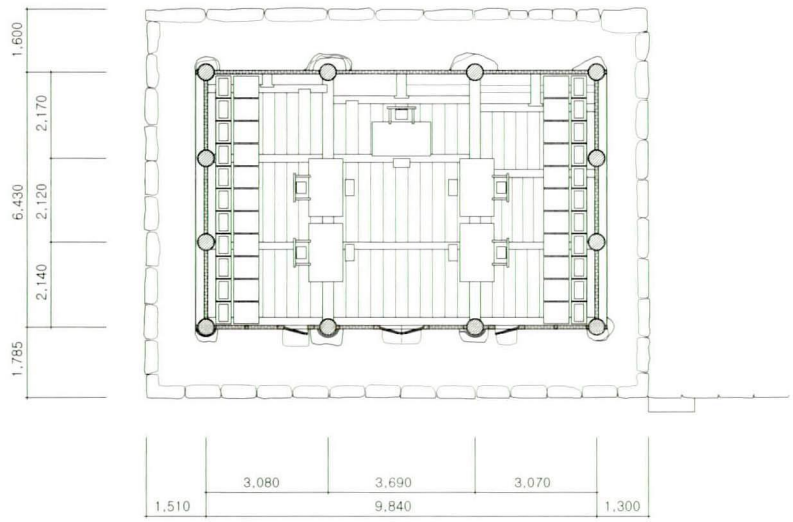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용궁향교(龍宮鄕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10호(일괄)
창건시기	조선 태조 7년(1398) 또는 조선 태종 4년(1404)	입 지	구릉지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향교재단
좌 향	남서향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齋後堂 남북 종축 1개
중건시기	1400 화재로 소실(추정) 1512 현 위치에 이건(중건) 1597 임진왜란으로 소실 1602 대성전, 명륜당 중건 1626 세심루 창건 1636 세심루 중건	대지조성	3단 : 세심루, 신문 기준
설 위	5聖, 宋朝 4賢, 海東 18賢	인접시설	없음
건축구성	대성전, 신문, 명륜당, 동재, 세심루, 외삼문, 교직사, 협문		
특기사항	남북 종축선상에 중심건물이 배치되어 있음 문루의 규모가 전면 7칸으로 비교적 큰 편임 동재의 평면이 부엌을 가운데 둔 좌우 대칭형을 이루고 있으며 5칸으로 비교적 큰 편임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3×3칸 / 초익공 / 홑처마 맞배지붕 / 무고주(어칸) · 2고주(측벽) 5량가 / 外 : 전돌, 內 : 우물마루 / 연등천장 주고 3400 / 주칸 어칸 3690 협칸 3080 / 수장폭 90 / 도리단면 Ø=240전후 처마내민길이 1500 / 기단높이 : 전면 950, 후면 200 / 초석크기 약 600×750 전후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3벌대 / 자연석 바른층쌓기, 장대석 상면 마감 없음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어칸) 종 보 : 3분변작
초 석	정평주초 / 원형 주좌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 완연한 배흘림	대 공	중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파련대공(어칸), 工자형(측벽)
공 포	초익공 / 보머리 마름모꼴 다듬음	창 방	방형 / 뺄목 첨차형 초각
처 마	홑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연등천장 / 外 : 전돌, 內 : 우물마루		
특기사항	대성전 형식으로는 매우 간략한 초익공으로 되어 있으나 부재 치목기법이 매우 우수함 초석의 주좌가 비교적 훌륭한 편이며, 가구 구성이 매우 간결함 배흘림 기법이 매우 완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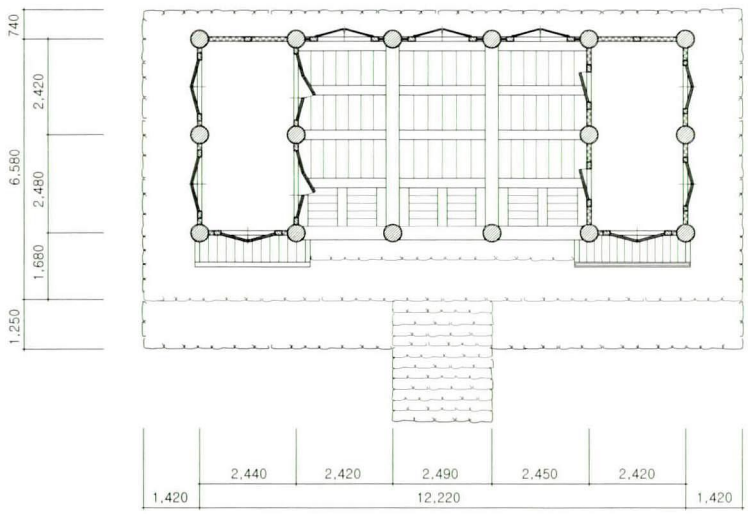
명륜당 건축 요소			
개 요	5×2칸 / 이익공 / (전측면) 겹처마 (후면) 홑처마 팔작지붕 / 5량가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지반자 주고 2480 / 주칸 2490 / 수장폭 110 / 도리단면 Ø=220 / 보단면 : 대들보 380×500, 종보 340×380 처마내민길이 1600 / 기단높이 : 전면 1140, 후면 240 / 초석크기 800×500 전후		
기 단 계 단	이중기단 전면 1개 (11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어칸) 종 보 : 4분변작
초 석	덤벙주초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 완연한 배흘림	대 공	중대공 : 동자주+포대공 종대공 : 운형대공
공 포	이익공 / 보머리 수장폭, 궁글림	창 방	방형 / 뺄목 익공형 혹은 첨차형 초각
처 마	(전,측면) 겹처마 (후면) 홑처마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 붕	팔작지붕
수 장	회사벽 / 백골청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지반자		
특기사항	화반의 형태가 동일하지 않으며, 귀포에서 첨차 외단 처리가 일관되지 못함 전면과 측면을 겹처마로 두고 후면은 홑처마로 두었음 배흘림 기법이 매우 완연함		



용궁향교 배치도



용궁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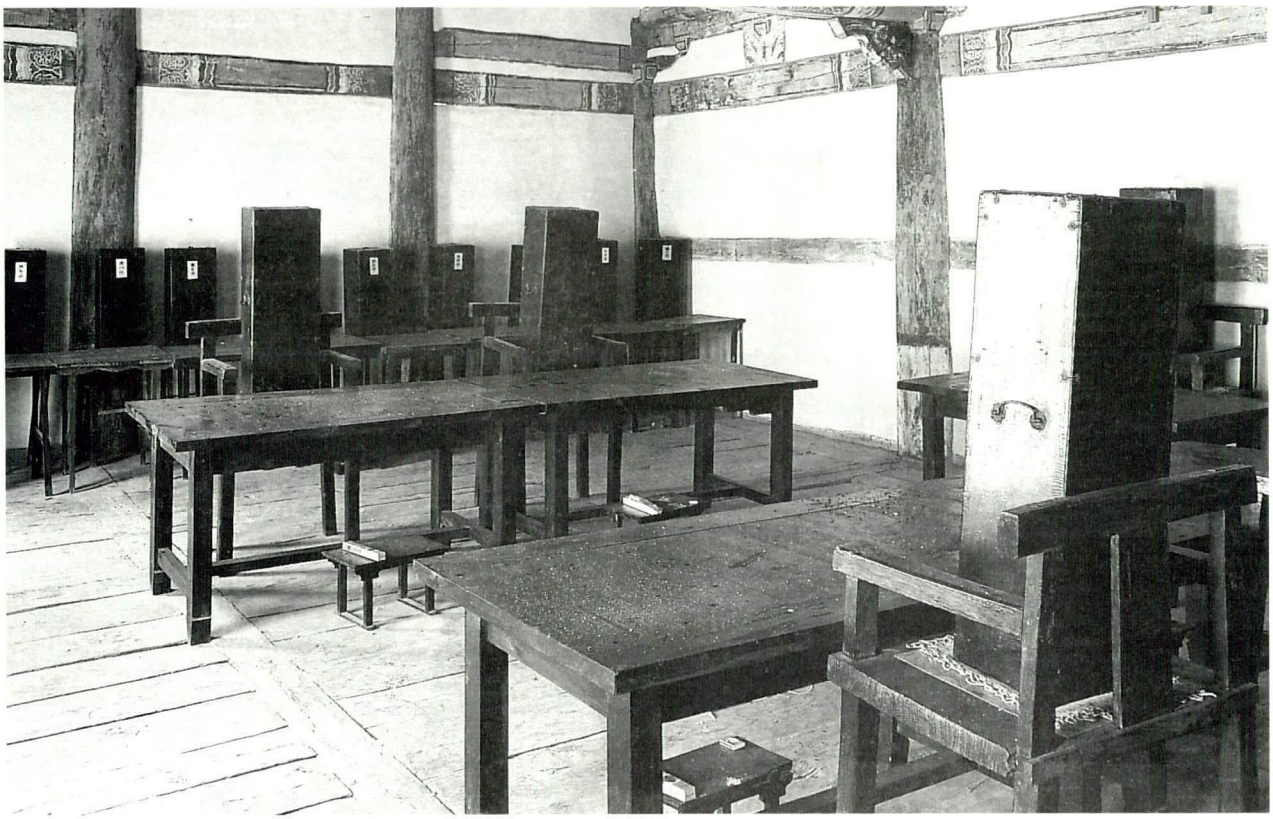


용궁향교 명륜당





대성전



대성전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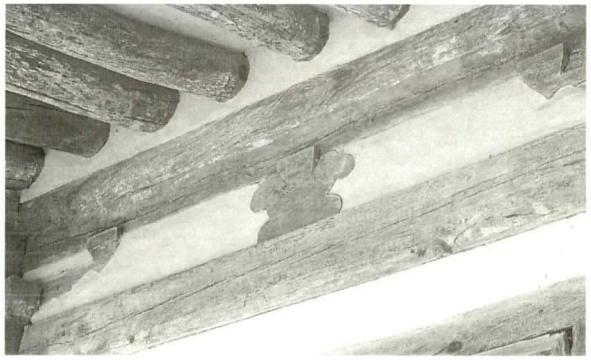
대성전 전면 어칸



대성전 전면 주상포



대성전 전면 귀포



대성전 전면 화반



대성전 전면 초석



대성전 내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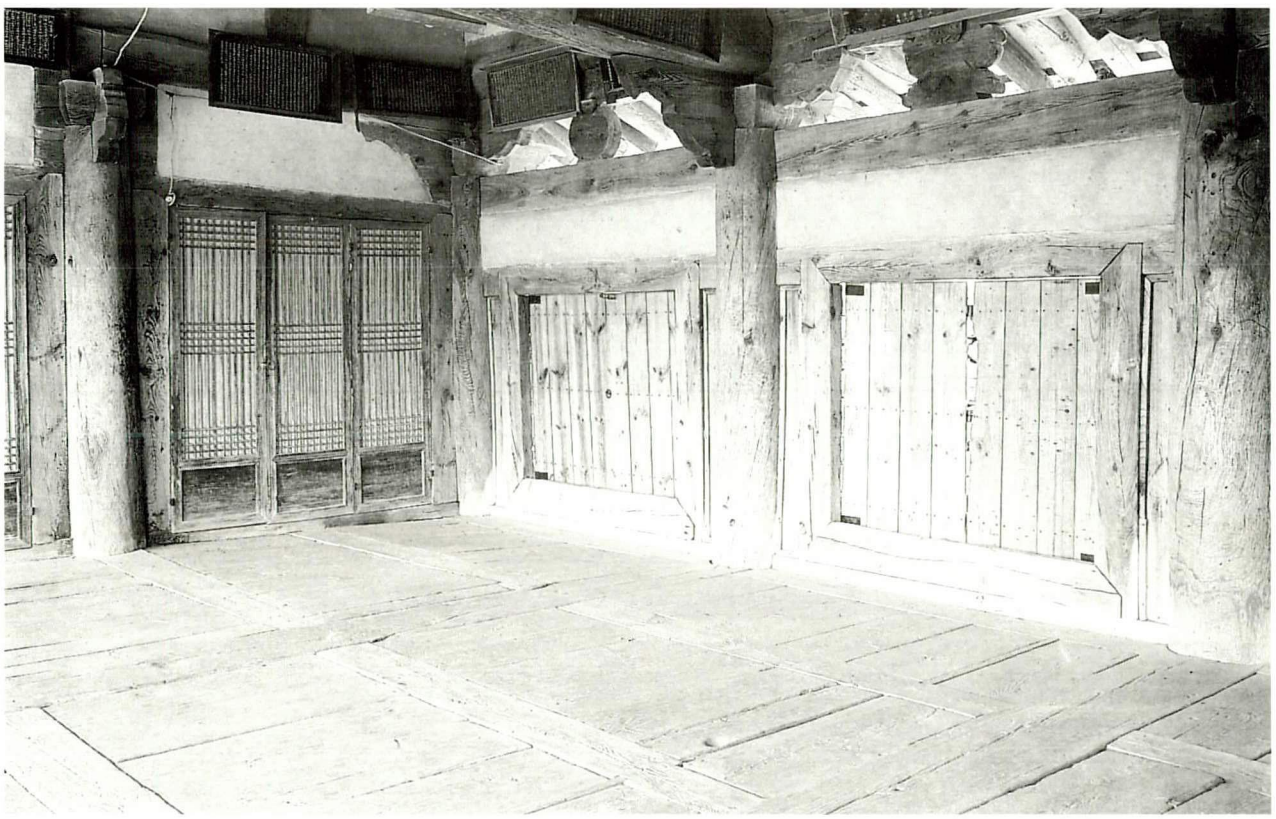
대성전 내부 중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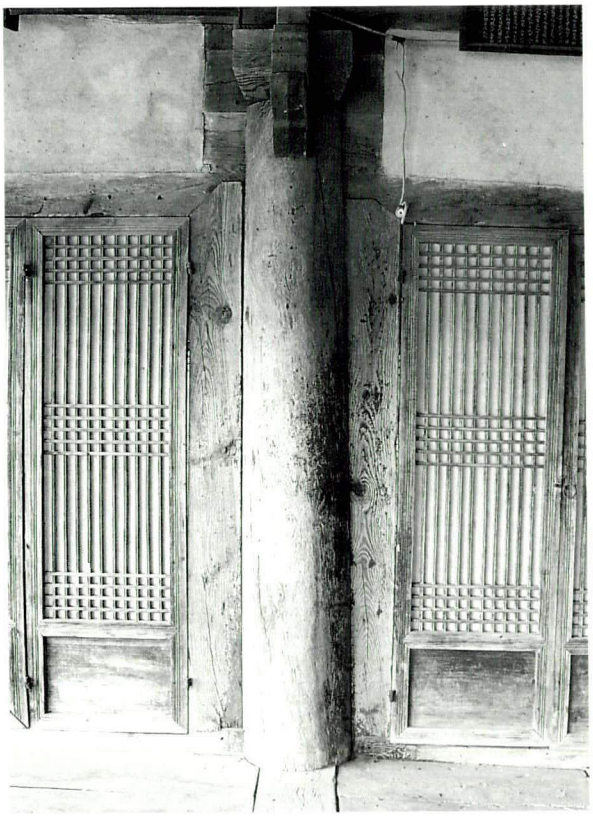
대성전 내부 종대공



명륜당



명륜당 내부



명륜당 내부 기둥



명륜당 전면 주상포



명륜당 전면 귀포



명륜당 전면 툇마루



명륜당 전면 화반



명륜당 전면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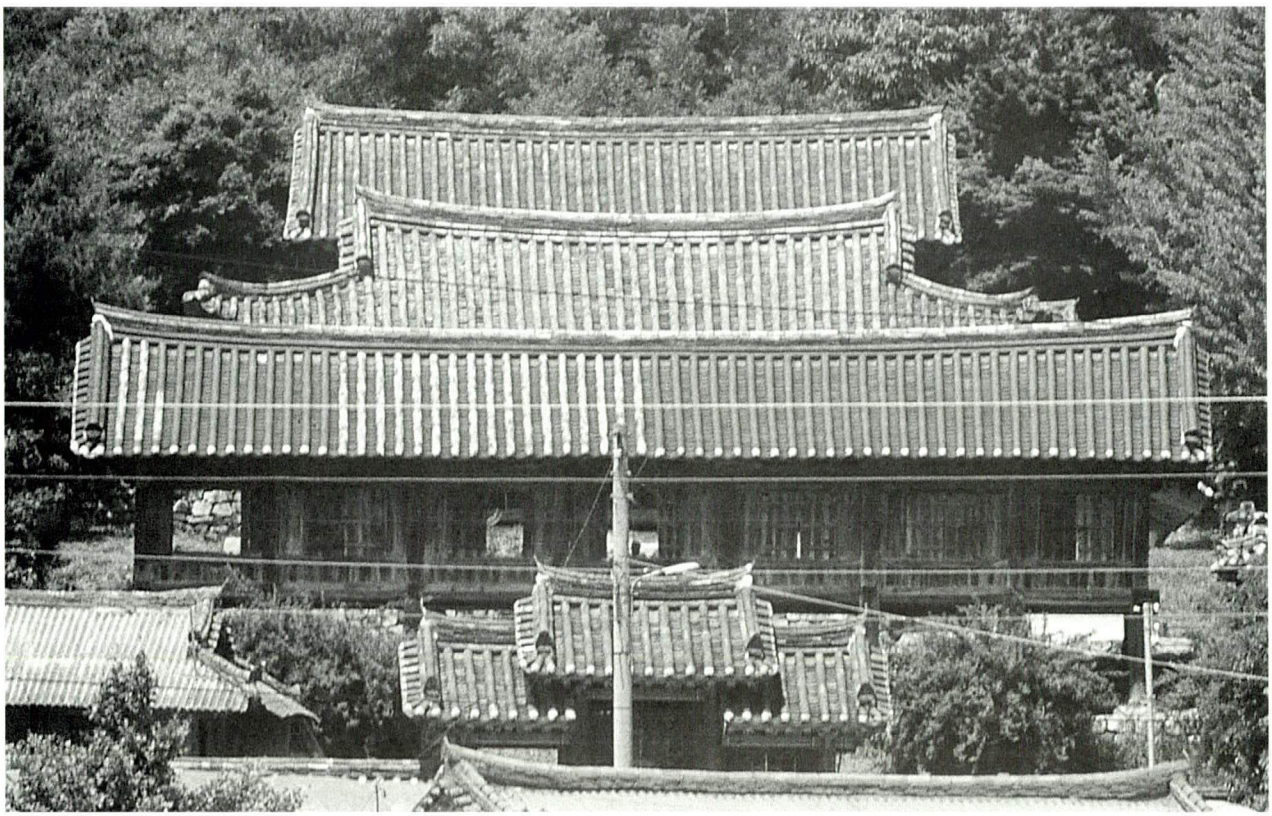
명륜당 내부 가구



명륜당 내부 중대공



명륜당 내부 종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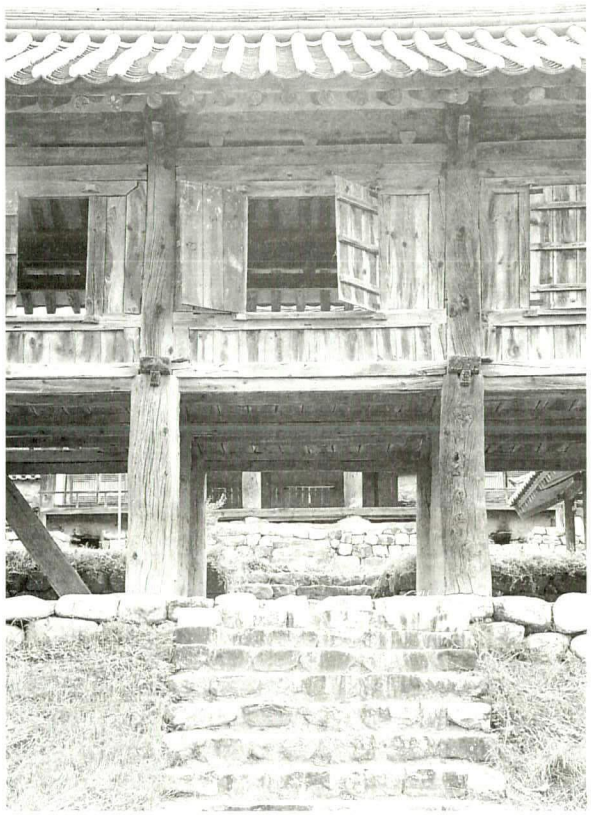
세심루



세심루 상층 내부



세심루 내부 가구



세심루 전면 어칸



세심루 내부 중대공



세심루 내부 종대공



동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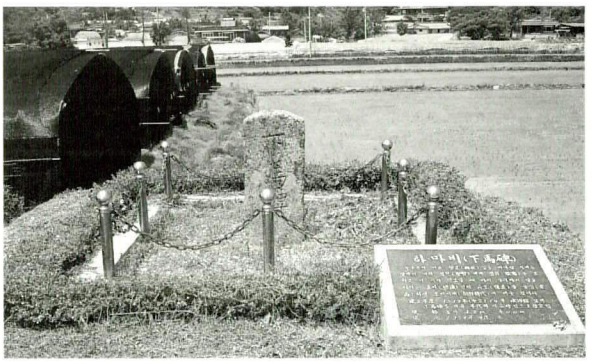
외삼문



교직사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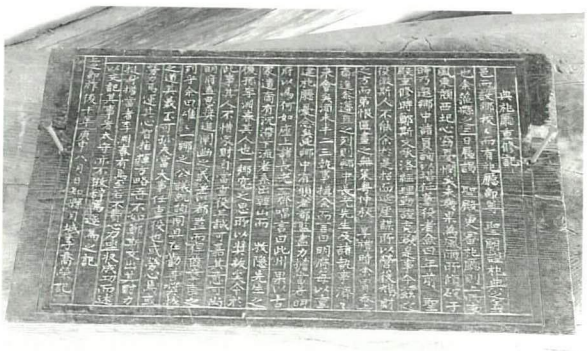
하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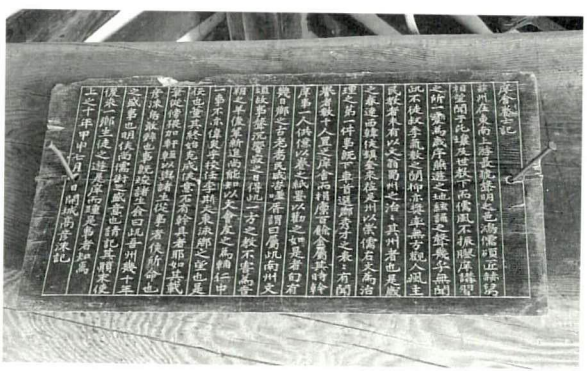
세심루 전면 가건물



용궁향교 전경



전사청중수기(1860년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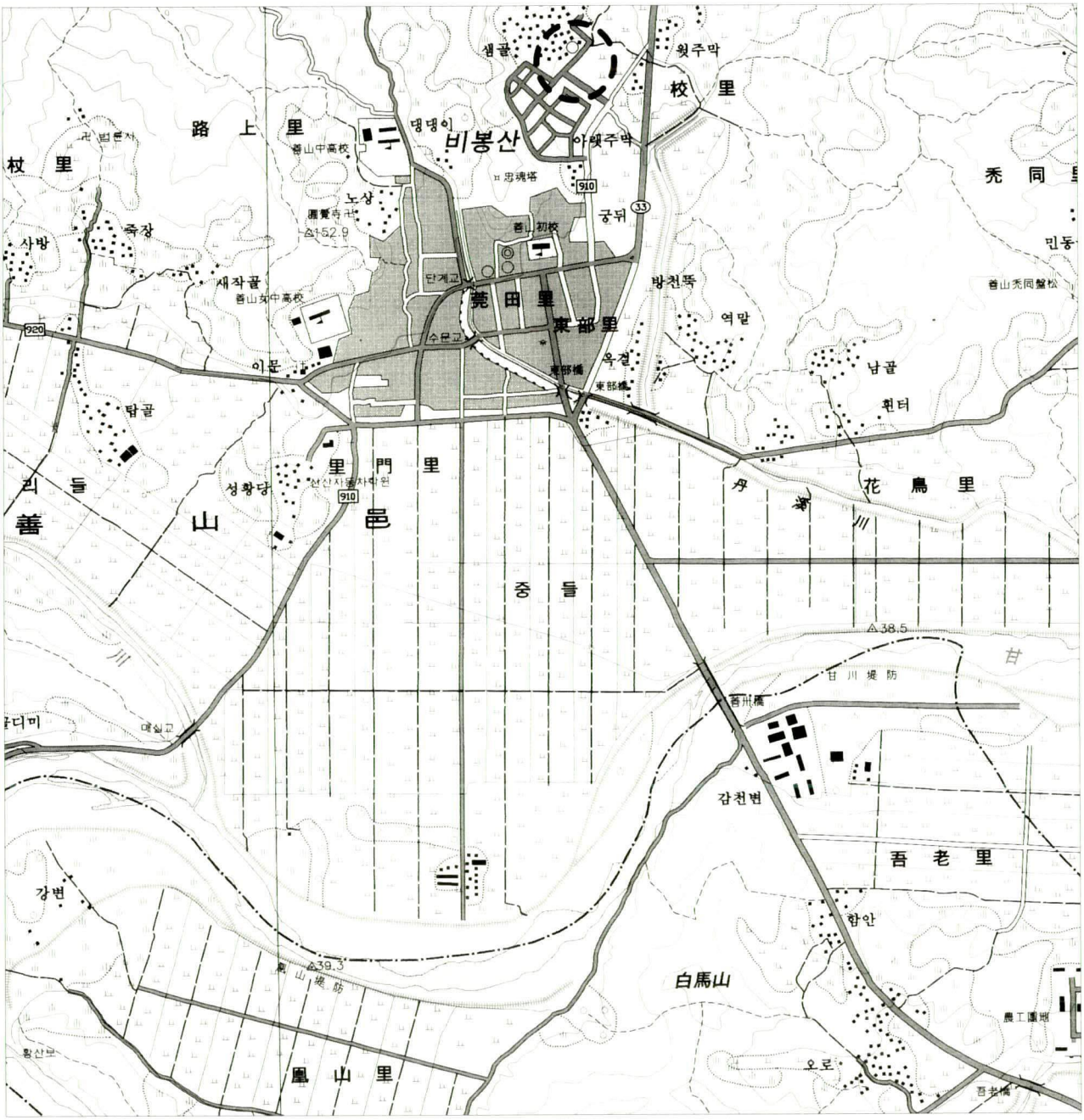


상사양사기(1464년 제작)



17. 선산향교(善山鄕校)

- 지정사항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23호(일곽)
- 지 정 일 : 1985년 8월 5일
- 소 재 지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교리 838
- 건축구성 :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청아루, 외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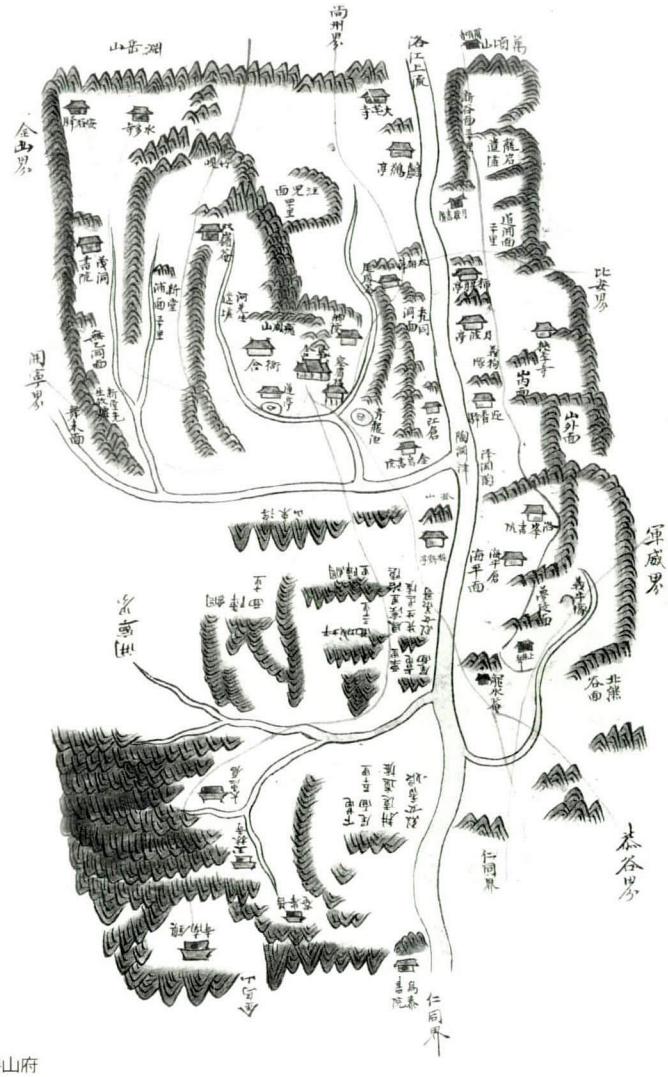
1. 연혁

선산읍지에 의하면 이곳은 본래 신라 일선군(一善郡)이었으나 진평왕(眞平王) 때 주(州)가 되어 군주(軍主)가 다스렸다. 신문왕(神文王) 때 폐주(廢州)하였고 경덕왕(景德王) 때 숭선군(嵩善郡)으로 고쳤다. 고려 성종 14년(995)에 선주(善州)로 고쳐 자사(刺史)를 두었으며 현종 9년(1018) 상주(尙州)에 소속시켰다. 인종 21년(1143)에는 일선현이 되고 현령을 두었다. 뒤에 지선주사(知善州事)를 두었다. 조선 태종 때 선산도호부가 되었다.[1] 속현으로 해평현이 있다.[2]

본 향교는 조선 초에 창건되었다고 사료되며 대략 태조 5년(1396)으로 추정된다.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으나 선조 32년(1599)에 부사 김용(金湧)이 대성전 5영(楹), 동서무 각 3영, 신묘(神廟)를 지었으며, 인조 1년(1623)에는 부사 심륜(沈倫)이 명륜당 5칸, 동서재 각 3칸, 남루(南樓) 7칸, 서쪽에 교관위(敎官衛), 전사청, 주고(廚庫)를 지었다.[3]

기묘(己卯, 1639년 혹은 그 후의 기묘년으로 추측) 윤(閏) 4월 초 8일에 작성한 「明倫堂重牕(명륜당중창)」에는 공사 내역과 소요비용의 세부사항을 기록하였다. 이 때의 공사범위는 명륜당의 중창과 단청, 회화, 일주문 신립(新立), 주방수즙(酒房修葺), 양현당 중창 등이었다. 공장, 단청 등의 물용(物用)은 고례(古例)에 의거하여 교생의 부조금을 예방(禮房)이 답인(踏印)하고 수봉(收捧)하게 했다.

「재목작용질(材木斫用秩)」에 보면, 浮橋木(부교목) 4株(주) : 금오서원이 허작(許斫)하여 보내오고, 木(목) 8주 : 교촌 국내(局內)에서 재임



善山府

1)_ 『善山邑誌(선산읍지)』(1895년경).

2)_ 『善山邑誌』에 따르면 해평현은 "일명 波登(파등)으로 선산도호부의 동쪽 33리에 있다. 본래 신라 並井縣(병정현)이었다. 고려 초에 해평군으로 고치고 福州縣(복주현)을 속현으로 두고 상주에 종속되었다. 인종 21년(1143)에 선산도호부에 來屬(내속)되었다"고 되어 있다.

3)_ 선산향교에서 소장한 '文廟重修失氣(문묘중수실기)'에는 '庚子(경자, 1600년)'에 부사 김운(金雲)이 성묘(聖廟) 5영(楹)과 동서무 각 3영을 중건하였고, 인조 2년(1624)에 부사 심륜(沈倫)이 명륜당 5칸과 남루(南樓) 7칸을 중건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성균관에서 발행한 『校宮大觀』, 선산향교 편에는 각각의 시기를 1599년과 1623년으로 언급하였다. (成均館, 『校宮大觀』, 2003 : p.813)

(齋任)이 분부하여 베어 오고, 연목 10개와 부교목 2개는 산성(山城)에서 베어 오도록 분정(分定)하고, 이목(履木)이 비장(臂丈)보다 더 큰 것 100개는 음장(淫長)의 양처산(兩處山)에서 나누어 베도록 분정하고, 탱교목(撐橋木) 경(脛) 만큼 큰 것 12개는 도개(道開) 법파산(法波山)에서 베어 오도록 분정하였다. 또 이 공사에 드는 역정(役丁) 258명은 교촌민이었는데 문기(文記) 말미(末尾)에는 색리(色吏) 김광호(金光浩)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전쟁으로 일부 파손되었던 것을 1967년에 보수하였으며, 대성전 현판을 제작하고 제기와 제수 등을 새로 만들었다. 1968년에 향교 일곽을 보수하면서 단청을 새로 하였으며[4], 1973년과 1975년에 청아루와 내삼문을 각각 보수하였다. 1987년에 대성전과 내삼문을 보수하고, 1990년에 명륜당을 보수하였으며, 1991년에 일곽을 보수하였다. 1992년에 방충방연제 도포공사를 하였다. 원래 명륜당 동편에 화장실이 있었으나 철거하였다.

향교에 소장된 자료로는 청금록(靑衿錄)류 문헌과 행임록(行任錄), 향안(鄕案) 등 기타 홀기(笏記)와 좌목(座目) 등 다수가 있으며, 기문이 남아 있다.
창건 이후의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96	창건(추정)
임진왜란 중	소실
1599	제향영역 중건 : 대성전, 동서무, 신묘
1623	강학영역 중건 : 명륜당, 동서재, 남루, 교관위, 전사청, 주고
1639(추정)	명륜당 중건
한국전쟁 중	일부 파손
1967	향교 일곽 보수
1968	향교 일곽 보수 및 단청
1973	청아루 보수
1975	내삼문 보수
1987	대성전, 내삼문 보수
1990	명륜당 보수
1991	향교 일곽 보수
1992	방충방연제 도포공사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는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청아루, 외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4)__ '善山鄕校重修記(선산향교중수기)', 이 기문은 기유(己酉)년, 1969년에 제작되었다. 공사는 1968년에 마무리되었다. 보인회, 『校宮記集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3 ; pp.73-75

2. 입지 및 배치

선산읍내에서 33번 국도를 타고 동부리를 지나 교리로 가다 보면 산등성이에 보이는 아파트 뒤쪽에 자리잡고 있다. 길 좌측으로 향교임을 알리는 간판이 있으며 길에서 경사지에 자리잡은 향교의 전모를 쉽게 볼 수 있다.

선산향교는 선산읍 교동의 비봉산(飛鳳山) 기슭 아래 옥녀가 거문고를 타는 듯 하다는 玉女彈琴形(옥녀탄금형) 명당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사가 급한 대지를 3단으로 조성하여, 청아루, 명륜당, 내삼문, 대성전이 남북축선상에 배치되어 있고 향교의 정문으로 사주문(四柱門)인 입덕문(入德門)이 남아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전면 5칸, 측면 3칸 규모에 전면에 개방형 퇴칸을 둔 익공계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기단의 정면은 다듬은 돌을 2벌대로 쌓은 후 갑석을 두른 정연한 기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측면, 배면은 막돌쌓기로 하였다. 또 좌우퇴칸 기단전면에는 4단으로 구성된 계단을 각각 두었다. 기단 위에는 전면 평주열과 고주열에 원형 주좌가 있는 초석을 놓고 원주를 세웠다. 정면 칸살 구성은 각 칸을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측면은 어칸을 넓게 하였다.

전면 벽체의 구성은 5칸 가운데 3칸에 문얼굴을 내고 모두 쌍여닫이 울거미 널문을 달았다. 양측칸에는 상방 하단에 붙여 빗살 광창(光窓)을 내었으며, 각 칸 모두 문상방 상부에 빗살 광창을 설치하였다.

기둥 상부는 창방으로 결구시켜 전후 동일한 형상의 파련각한 화반을 올려놓았다. 외1출목 2익공 양식으로 살미는 끝을 날카롭게 하여 약간 치켜올린 형상으로 2익공 살미 위에는 툇보머리를 내밀어 봉두(鳳頭) 형상으로 초각하여 외목도리를 받고 있다. 첨차는 주심첨차와 행공첨차로 구분이 되는데 모두 하부에 초각을 한 형상이다. 주심도리는 툇보 위에 나지막한 승두를 올린 다음 놓여져 있으며, 출목과 주심 사이는 순각반자를 얹었다. 또한 내부 후벽 상단에 놓인 화반에서 각 칸 마다 약간씩 다른 문양이 그려진 것이 이채롭다. 한편 후면의 익공은 단청 방법만 다를 뿐 전면과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가구(架構)는 어칸에서 1고주, 측면에서 2고주 5량가로 하여 2주열은 모두 고주로 하고 툇보와 대들보를 기둥 몸에 꽂아 놓았다. 대들보 위에는 4분변작의 위치에 중대공을 놓았는데 중대공은 보방향 보아지와 주두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종보를 얹었다. 종보 위에는 파련대공을 세웠으며 측벽에서는 제형판대공을 세웠다. 중, 종도리 하부에는 뜬장혀를 결구시켜 놓고 사이에 소로를 수장하였는데, 중도리 하부의 뜬장혀는 대들보 상단 일부를 깎아내고 놓여져 있다. 또한 내부 단청이 가칠단청인 반면 중대공과 종대공에만 당초문을 그려 넣고 단청을 한 점이 눈에 띈다.

지붕은 부연을 덧대어 겹처마로 구성한 후 맞배지붕을 올리고 암수막새를 얹었으며, 양측 박공부에는 풍판을 설치하였다. 전면 어칸 상부에 '大成殿' 현판을 달았으며 전면을 모로단청으로, 후면에는 가칠단청하여 마무리하였다. 기단 갑석 일부에 탑 옥개석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사용되었다.

(2)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전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어칸이 좌우칸 보다 넓으며 솟을삼문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면에 지형차로 인하여 축대를 쌓았는데, 명륜당과의 거리가 협소하여 축대를 파내고 어칸 전면에 계단을 놓았다. 단층 기단 위에 원형 초석을 놓고 원형 기둥을 올렸다. 좌우 측면은 심벽을 구성하고, 전면 어칸에 두 짝 판문을 달고, 좌우 협칸에는 외짝 판문을 달았다. 가구는 3량가로 대들보 중앙에 동자주를 놓아 종도리를 받았다. 어칸 판문 전면에는 2태극 문양을 도채하였으며, 가칠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전면 5칸, 측면 3칸 규모에 전면에 개방형 퇴칸을 둔 익공계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막돌쌓기한 기단을 높게 하고 전면 기단 맨 윗단은 장대석으로 마감하였다. 전면에는 2군데에 계단을 설치하여 놓았다. 자연석으로 주초를 놓은 후, 원주를 세웠다.

평면 구성은 전면 5칸을 모두 개방시키고, 가운데 3칸을 대청 마루로 꾸몄으며, 양측칸은 전면 1칸을 물려 퇴칸을 구성하여 툇마루를 놓은 후, 2통칸 온돌방을 들였다. 방 전면은 쌍여닫이 띠살문을, 대청과 접하는 측면은 키가 큰 쌍여닫이 띠살문을 앞 칸에 설치하였다. 또한 외부에 면하는 좌우 측면에서 앞칸은 외짝 여닫이 세살문을, 뒷칸은 세살문을 눕혀 달아 벼락닫이창을 만들었다. 마루 후면에는 모두 하부에 머름을 꾸미고 두 짝 판문을 달았으며, 좌우 실은 벼락닫이창을 달았다.

기둥머리에는 이익공의 공포를 구성하였는데, 모두 외단이 길고 가늘게 뻗어나간 쇠서형으로 되어 있다. 주심첨차는 단부를 사절하고 하단을 초각하였으며, 주간에 화반을 놓았다. 가구는 5량가로 4분변작의 위치에 주두를 놓고 보방향 보아지와 도리방향 첨차를 결구하여 중보를 받았다. 종보 중앙에는 운형대공과 첨차를 결구하여 종도리를 받았다.

지붕 전면에만 암수막새를 놓았으며, 측후면은 아귀토로 마감하였고 건물은 가칠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전면 어칸 상부에 '明倫堂' 현판을 달았으며, 동실 당(堂)쪽 앞칸 상부에 '溫故齋(온고재)', 반대편 서실에는 '學習齋(학습재)' 현판을 달아 놓았다. 현재 내부에는 '鄕校重修記' 등 2개의 기문이 걸려 있다. 한편 명륜당 전면 서쪽에는 작은 방형의 단과 작은 비석이 놓여져 있고 비석면에는 '道良姑之壇' 이라 써 있다.

(2) 청아루(靑莪樓)

사주문을 들어와서 바로 경사가 급한 높은 계단을 오르면 누각이 나타난다. 청아루는 전면 7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에 좌우 퇴칸 후면으로 단 칸 씩을 덧달아 확장한 'ㄷ' 자형 평면으로 되어 있다. 누각 하부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층 가운데 5칸은 우물마루로 꾸며 중층으로 하고, 좌우 퇴칸은 앞칸을 마루로, 뒷칸을 익실(翼室)로 온돌방을 들여 마루와 같은 레벨로 한 단층이다. 선산향교에는 동서재가 없는 대신 이 마루방과 온돌방이 재사(齋舍)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이렇게 누각과 온돌방이 합하여 'ㄷ'자의 평면을 가진 곳은 경상북도 내에서 상주향교 명륜당이다.[5]

단층 기단 위에 덤벙 주초를 놓고 원형 기둥을 세웠다. 하층 어칸에는 다시 후면으로 오르는 계단을 두었는데 탑 옥개석 일부가 사용된 부분도 있다. 하층은 모두 벽체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상층은 전면칸 모두 하부에 머름을 구성하였고, 그 중 가운데 5칸은 상여닫이 울거미널창을 달았다. 좌우 퇴칸은 널문 대신 살창을 달았으며, 후면은 모두 개방하고 어칸 부분만 마루의 절반을 안쪽으로 따내어 난간을 설치하였다. 이는 건물 하층에서 강학영역으로 오르기 위한 처리이다.

상층에는 방형 기둥을 사용하였으며, 기둥머리에는 사괘를 트고 장혀와 내외단을 간결하게 초각한 짤막한 보아지를 결구한 다음 대들보를 받았다. 가구는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제형판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은 3량가로 되어 있다. 동익실의 앞 칸 어칸쪽 대들보 상부에는 '輔仁齋(보인재)' 현판을, 서익실의 앞 칸 어칸쪽 대들보 상부에는 '文會齋(문회재)' 현판을 걸어두었으며, 건물 어칸 상층 전면에 '靑莪樓' 현판을 걸었다. 건물 후면에 용도가 불분명한 석물이 남아 있는데, 연화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석등(石燈)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3) 외문(外門)

외문은 사방 단 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향교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대지 경사로 인하여 전면에 긴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건물은 단층 기단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웠으며, 전면에 두 짝 판문을 달았다. 3량가의 가구에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를 받았으며, 종도리 전면에 '入德門' 현판을 걸었다.

다. 기타

기타 건물은 따로 없으며, 다만 외문 전면 경사지에 두 개의 비석이 자리잡고 있다. 하나는 '行府使金□思轍校中遺惠碑' 이며, 다른 하나는 '金僕炳愚永世不忘碑' 로 두 비석 모두 시멘트 기단 위에 서 있고, 맨 마지막 글자는 기단에 반쯤 묻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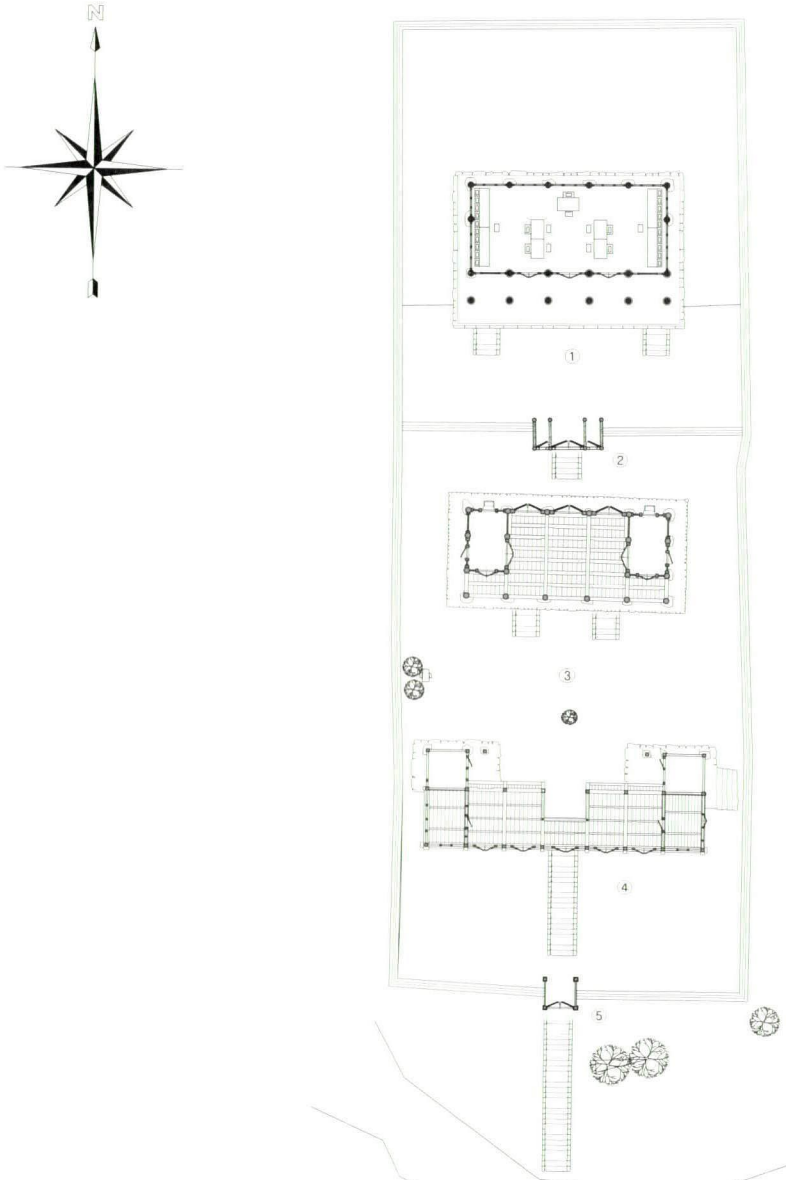
5)_ 이러한 처리는 동서재가 소실되면서 증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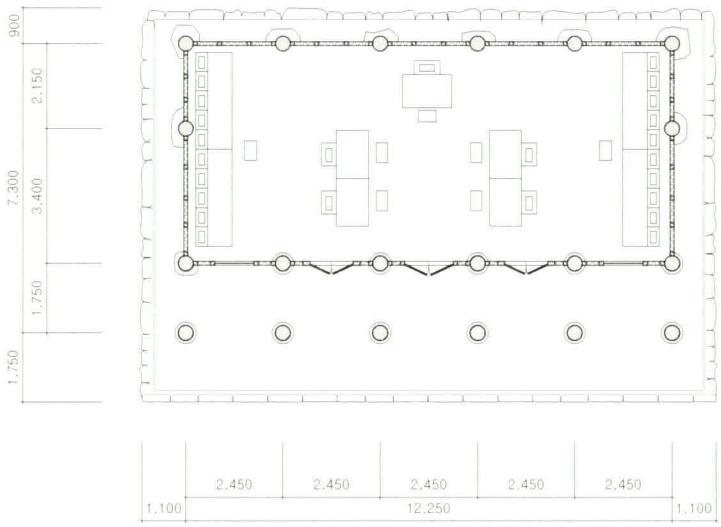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선산향교(善山鄕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23호(일곽)
창건시기	조선 태조 5년(1396) (추정)	입 지	산지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향교재단
좌 향	남향	배치형식	前學後廟 / 종축 1개
중건시기	임란 중 소실 1599 제향영역 중건 1623 강학영역 중건	대지조성	3단 : 청아루, 내삼문 기준
설 위	5聖, 宋朝 2賢, 海東 18賢	인접시설	없음
건축구성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청아루, 외문		
특기사항	동서재가 없는 대신 청아루의 좌우 퇴칸 후면에 한 칸을 덧달아 동서재로 구분함 청아루의 형식이 지형차를 이용, 전면에서는 중층, 후면에서는 단층이며 'ㄷ' 자형 평면임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5×3칸, 전1퇴칸 / 외1출목 2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1고주(어칸) · 2고주(측벽) 5량가 / 전돌 / 연등천장 주고 2790 / 어칸 2450 / 수장폭 90 / 도리단면 Ø=240전후 / 보단면 : 대들보 340×320, 종보 320×300 처마내민길이 1840 / 기단높이 : 전면 970, 후면 200 / 초석크기 Ø=540전후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세벌대 / 장대석 바른층쌓기 전면 2개(각 4단)	보	대들보 : 전고주 후평주 걸침(어칸) 종 보 : 4분변작
초 석	정평주초 / 원형 주좌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약한 민흘림	대 공	중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파련대공(어칸), 판대공(측벽)
공 포	외1출목 이익공 / 보머리 초각	창 방	방형 / 뺄목 초각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심벽 / 모로단청+가칠단청 / 연등천장 / 전돌		
특기사항	각 칸의 칸살이 동일하며, 내부 후면 주간 화반의 문양이 서로 다름 기단 전면에만 장대석에 갑석을 갖춘 정연함을 유지하여 정면성을 강조함 전면만 모로단청하고 후면은 가칠단청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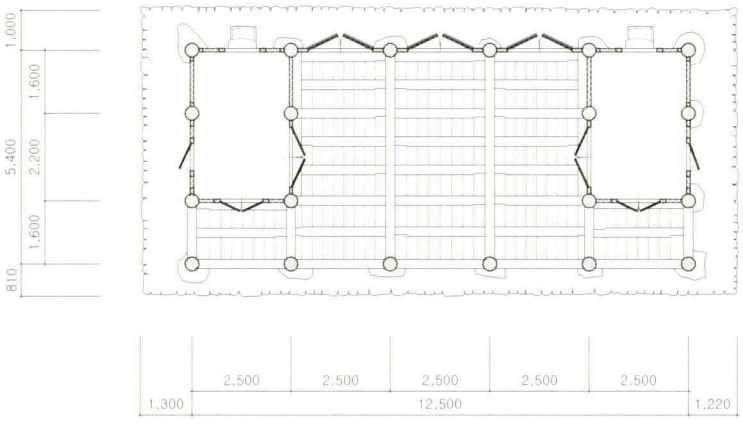
명륜당 건축 요소			
개 요	5×3칸 / 이익공 / 겹처마 팔작지붕 / 5량가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지반자 주고 2800 / 주칸 2500 / 수장폭 105 / 도리단면 Ø=240 / 보단면 : 대들보 450×340, 종보 320×270 처마내민길이 1750 / 기단높이 : 전면 1100, 후면 240 / 초석크기 770×750 전후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막돌쌓기 전면 2개 (5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4분변작
초 석	덤벙주초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 민흘림	대 공	중대공 : 포대공 종대공 : 운형대공+첨차
공 포	이익공 / 보머리 마름모꼴로 다듬음	창 방	방형 / 뺄목 익공형 초각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 붕	팔작지붕
수 장	심벽 / 가칠단청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지반자		
특기사항	전면 기단 상부에만 장대석으로 갑석을 놓았음 지붕 전면에만 암수막새를 두어 정면성을 강조하였음		



선산향교 배치도



선산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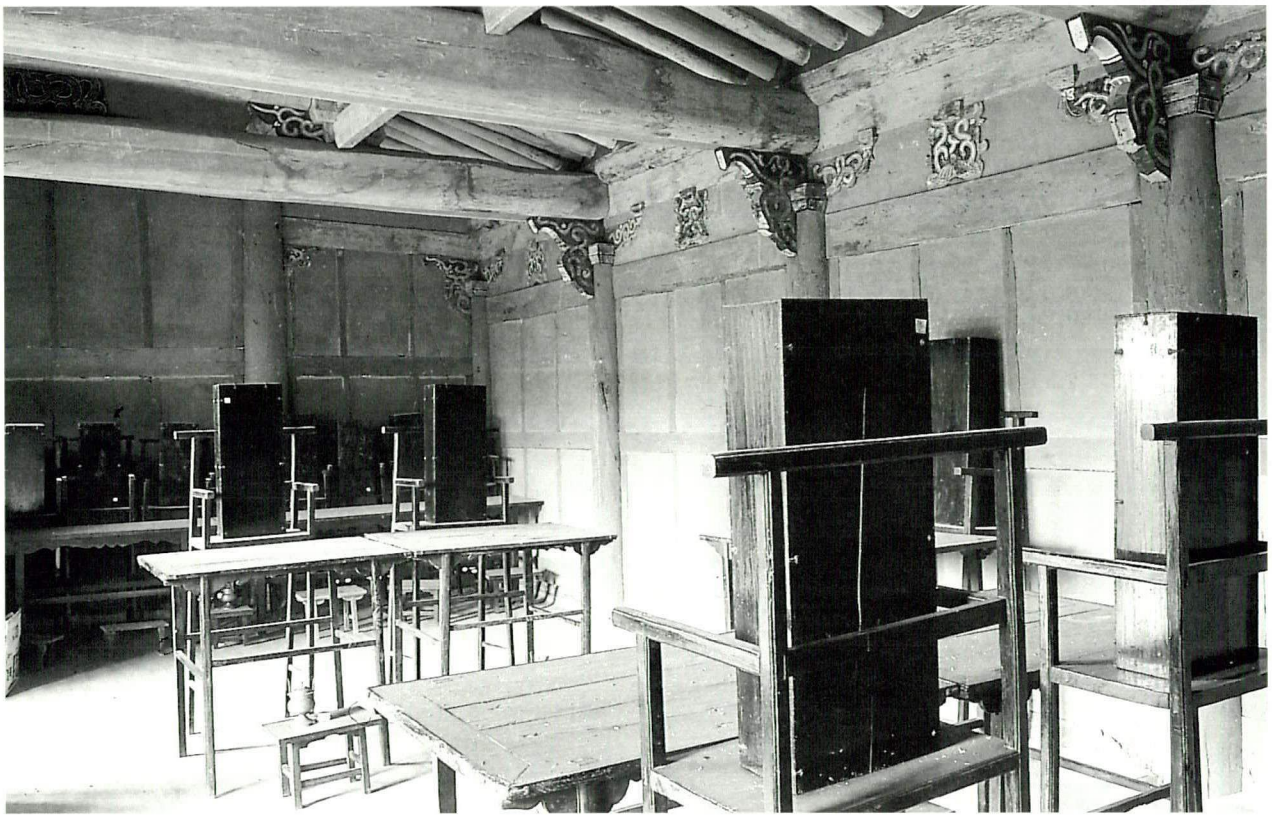


선산향교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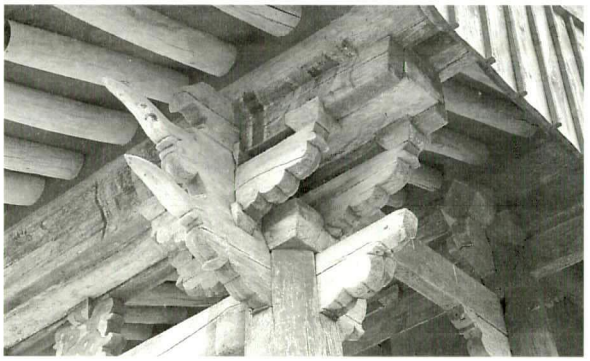
대성전



대성전 내부


대성전 전면 고주 결구


대성전 전면 주상포


대성전 전면 귀포


대성전 전면 퇴칸


대성전 전면 화반


대성전 전면 초석



대성전 내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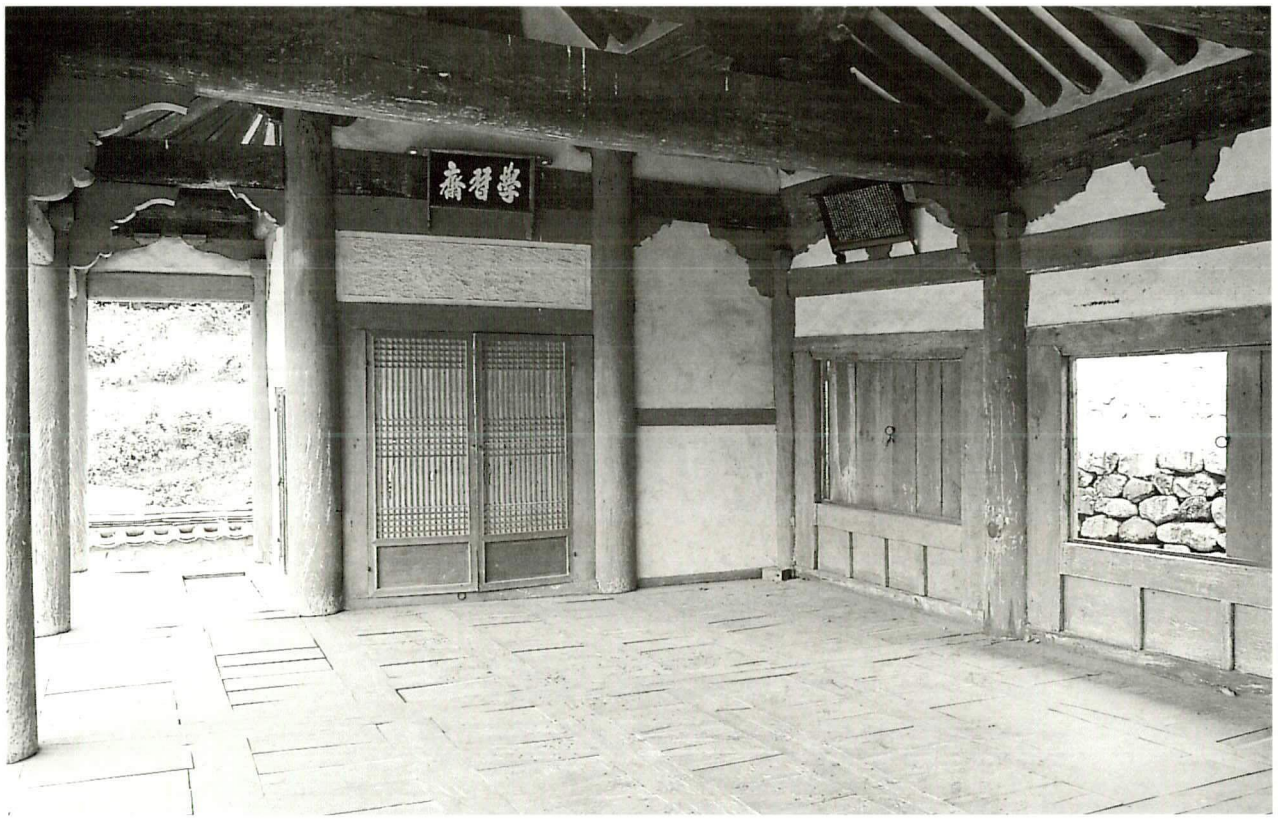
대성전 내부 중대공



대성전 내부 종대공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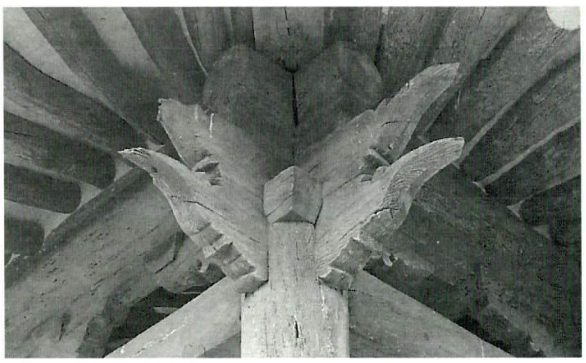
명륜당 내부



명륜당 측후면



명륜당 전면 주상포



명륜당 전면 귀포



명륜당 주간 화반



명륜당 기단



명륜당 내부 가구



명륜당 내부 중대공



명륜당 내부 종대공



내삼문



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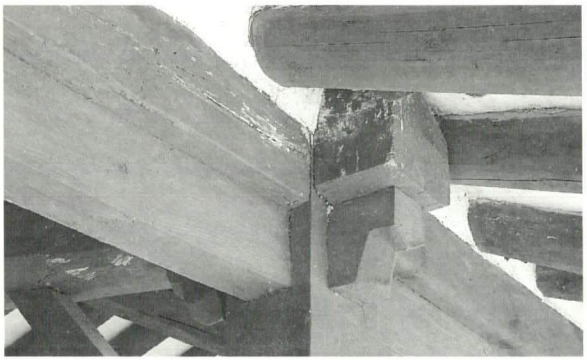
청아루



청아루 상층 내부



청아루 전면 어칸


청아루 후면 주상부 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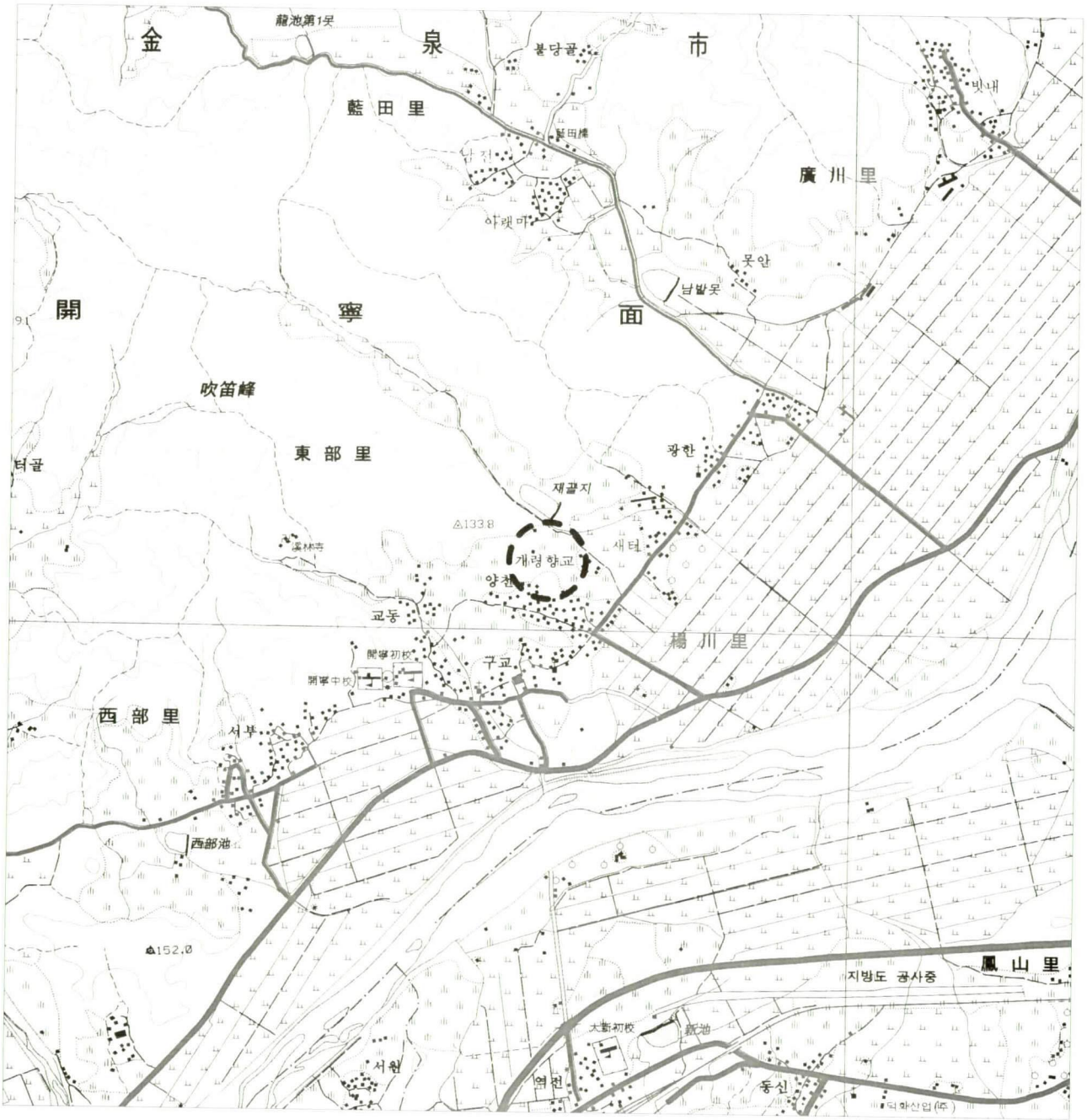

청아루 후면 석물


청아루 하층 내부



18. 개 령 향 교(開寧鄕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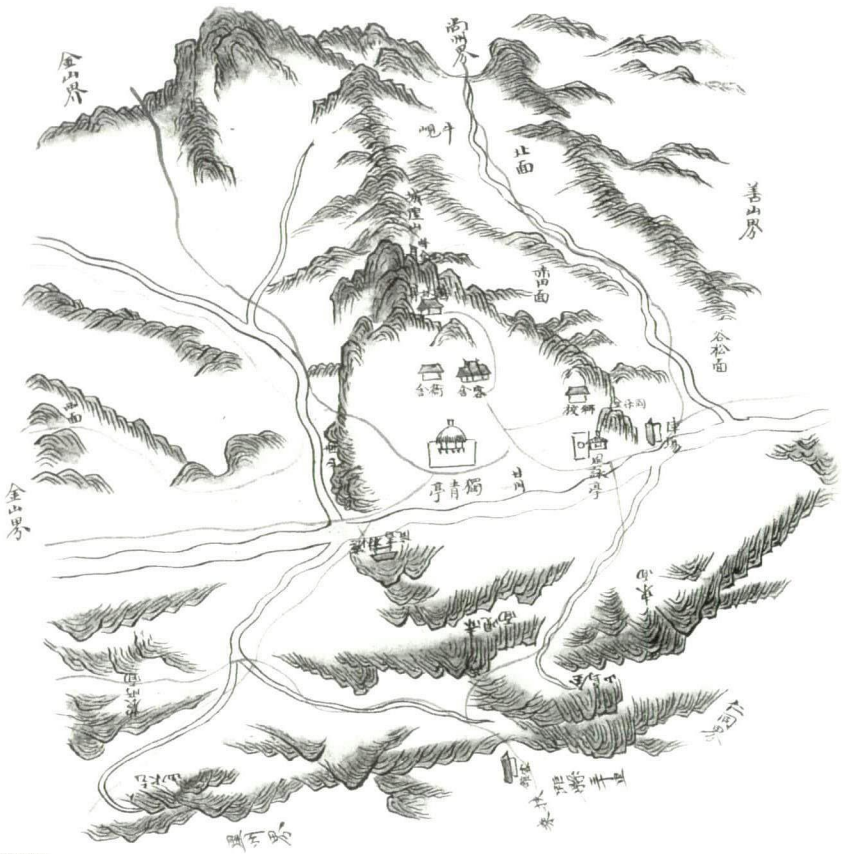
- 지정사항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19호(대성전)
- 지 정 일 : 1985년 8월 5일
- 소 재 지 :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동부리 408
- 건축구성 :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외삼문, 협문 등



1. 연혁

개령현(開寧縣) 읍지(邑誌)에 의하면, 본래 감문소국(甘文小國)이었으나 신라가 이를 취하였으며, 진흥왕(眞興王) 때 주(州)를 폐하였고, 문무왕(文武王) 때 감문군(甘文郡)이 되었다. 경덕왕(景德王) 때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고려 현종 때 상주(尙州)에 소속시켰다가 명종 때 감무를 설치하였다. 조선 태종 때에 현감(縣監)으로 예개(例開)하였다. 선조 34년(1601) 역적(逆賊) 길운절(吉云節)의 일로 말미암아 혁파되어 금산군(金山郡)에 소속되었다. 선조 39년(1606) 금오산성(金烏山城)을 보장(堡障)한 일로 선산부(善山府)에 이속(移屬)되었다가 광해군 원년(1609)에 현(縣)으로 복구되었다.

개령향교는 조선 성종 4년(1473) 현감 정란원(鄭蘭元)이 지금의 위치보다 남동쪽으로 떨어진 유동산(柳東山, 일명 관학산(觀鶴山)) 밑 감천(甘川) 옆에 창건하였다. 중종 17년(1522)에 현감 태두남(太斗南)이 크게 수축(修築)하였고 명종 18년(1563)에는 현감 윤희주(尹希周)가 중수하였다. 임진왜란에는 주민들이 왜병을 물리침으로써 전화(戰禍)를 면하였다. 광해군 원년(1609)에 향교가 물에 자주 잠기자, 이듬해인 광해군 2년(1610) 3월에 현감 강수(姜遂)가 도감 심대임(沈大任), 장의 정산화(鄭山華), 유사 이천도(李天道)와 함께 유동산 남쪽 아래로 옮겼다. 그 후 영조 40년(1764) 8월 12일에 현감 박사형(朴師亨)이 225냥을 조성하여 대성전을 중수상량하였고, 헌종 3년(1837) 3월에 현감 이창식(李昌植), 도감(都監) 이양직(李陽稷)에 의하여 현 위치로 이건되었다.[1] 1921년에 외삼문을 중건하였고[2], 일제 말기에는 잠시 김산향


開寧縣

1)_ 이 시기의 기록은 다음의 세 기문에 남아 있는데, '鄕校移建記(향교이건기)' 의 말미에는 '丁酉五月下浣' 이라 되어 있으며, '明倫堂移建記(명륜당이건기)', '上樑文(상량문)' 의 말미에 '崇禎紀元後四丁酉五月下澣' 이라 되어 있다. 그런데, 『校宮大觀(교궁대관)』에는 1989년에 대성전 중수시 발견된 '開寧鄕校新築重修移轉記文(개령향교신축중수이전기문)' 를 언급하면서 '崇禎紀元後四丙寅', 즉 헌종 3년(1866)으로 언급하고 있다. 기문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 이전기문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 된다. 여기서는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간주하고, 기문을 기준으로 내력을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成均館, 『校宮大觀』, 成均館, 2003 ; p.736 참조)

2)_ 현재 외삼문 어칸 종도리 장혀 하단에 상량묵서명이 남아 있다.

교(金山鄕校)에 폐합(廢合)되었다가 1946년에 복원되었다.

폐합 직전에 개령면장 허신이 담을 보수하고, 1961년에 전교 김영홍(金榮洪)의 노력으로 대성전을 개수(改修)하였으며[3], 1982년에 대대적인 보수를 하였다. 1988년에는 전교 오상봉(吳相鳳)의 노력으로 명륜당을, 이듬해에는 대성전을 각각 중수하였다. 1991년에는 대성전에 단청을 하고 교직사를 재축하였으며, 1992년에 담을 수축하였다.

근래에 동서재를 복원하였으며, 서재 북편의 협문도 신축하였다. 원래 외삼문 서편에 작은 화장실이 있었으나 담을 보수하면서 제거하였다.

창건 이후의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73	창건
1522	대규모 보수
1563	향교 일곽 중수
1610	이건
1669	대성전 번와 보수[4]
1679	내삼문, 외삼문 번와 보수[5]
1764	향교 일곽 중수
1837	현 위치로 이건
1921	외삼문 중건
일제 말	김산향교 폐합
1946	복설
1961	대성전 보수
1982	향교 일곽 대규모 보수
1988	명륜당 중수
1989	대성전 중수
1991	대성전 단청, 교직사 재축
1992	향교 일곽 담 수축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는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외삼문, 협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__ 이 때 성금을 내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1962년에 제작된 '鄕校補修誠金芳名錄(향교보수성금방명록)' 으로 남아 있다.

4)__ 현재 대성전 지붕에 남아 있는 망와(望瓦) 가운데 명문이 남아 있는데, '康熙八年' 이라 되어 있으며, 이는 현종 10년인 1669년에 해당한다. 최소한 번와 보수 이상의 공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__ 내외삼문의 내림마루에 사용된 명문와에 '康熙十八年' 기록이 있으며 이는 조선 숙종 5년에 해당하는 1679년이다. 이는 최소한 번와 보수 이상의 보수 공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2. 입지 및 배치

개령평야(開寧平野)가 내려다보이고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기슭에 입지하고 있다. 면사무소 표지판을 보고 좌회전하여 마을 입구까지 직진하다가, 학교를 끼고 좌회전하여 좁은 길로 약 300여 미터를 직진하면 그 곳에 향교가 자리잡고 있다.

대성전, 명륜당, 내외삼문 만이 남아 있던 상황에서 최근 동서재를 복원하였으며, 대성전과 내삼문과의 거리가 짧아 동서무는 건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동서재가 명륜당의 후면에 위치하는 전당후재(前堂後齋)형 배치로 강학영역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적인 배치는 경사지인 관계로 대지를 3단으로 구획하여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또한 명륜당과 대성전의 중심축이 서로 일치 하지 않는 꺾인 축을 형성하고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전면 3칸, 측면 4칸 규모에 전면에 개방형 퇴칸을 둔 익공계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측면이 4칸으로 정면보다 측면이 더 긴 특이한 칸살구성을 하고 있다. 칸살은 전면의 경우 어칸이 좌우 협칸보다 1척 가량 더 넓으며, 측면은 중간 설주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주칸을 조절하였고, 전후퇴칸은 중앙 2칸에 비하여 3척 가량 작게 되어 있다.

막돌쌓기한 기단 위에 원좌(圓座)를 가진 것, 탑신석(塔身石), 자연석 등의 여러 형태를 지닌 초석을 놓았으며, 특히 전면 고주열 서측 협칸의 서편 초석은 탑신석(塔身石)으로 좌우의 우주(隅柱) 새김이 명확하다. 그 위에 흘림이 있는 원주(圓柱)를 세웠으나, 좌우 측면의 가운데 설주는 방형을 사용하였다. 대성전 내의 바닥은 몰탈로 마감한 위에 장판을 깔아 둔 상태이며, 기단 전면에는 원래 우측 1군데에 계단을 두어 오르게 했으나 최근에 좌측에도 2단의 계단을 추가하였다.

벽체의 구성은 원래 전면 고주열 각 칸에 쌍여닫이 울거미널문을 달았는데 최근에 상부에 교살을 둔 창호로 교체한 것이며, 양 측면 앞쪽 어칸 중방 하부에는 교살 광창을 내었다.

기둥머리에는 전면은 이익공, 후면은 초익공을 결구하여 정면을 강조하였다. 살미는 길게 빼내어 날카롭게 하고 윗부분에 연봉을 첨가시켜 초각하였으며, 전면에는 화반을 두었으되 후면은 소로를 수장하였다. 전면에서 툇보머리는 직절한 다음 초각재를 끼워 넣었다.

가구는 어칸에서 1고주, 좌우 측벽에서 2고주를 구성한 7량가로, 배면 평주 위와 고주 몸에 끼워 대들보를 걸었으며, 전면 퇴칸은 툇보를 결구하였다. 대들보는 휘어진 자연곡재를 사용하였고 중대공은 먼저 휘어진 대들보에 맞추어 다듬은 부재를 보방향과 도리방향으로 교차하여 놓고 그 위에 다시 각각 동자주익공과 첨차를 놓고 주두를 놓아 중보와 중도리 장혀를 받고 있다. 중보 위에는 보방향으로 중종대공을 놓았는데, 초각하지 않은 양봉(樑奉)을 높게 하여 도리방향 첨차와 주두를 놓아 종보를 받고 있다. 또한 종보 위에는 높이가 낮은

파련대공을 세우고 종도리장혀 하부에만 뜬장혀를 결구시켜 놓았다.

겹처마로 하여 맞배지붕을 채택하고 양 측면에는 풍판을 달았다. 지붕에는 암수막새를 얹었는데, 지붕마루 망와에 명문이 일부 남아 있으며, '康熙八年□四月 瓦匠金令山' 이라 되어 있어, 현종 10년(1669)의 것임을 알 수 있다. 대성전 전면 어칸에 '大成殿' 현판을 걸어 두었으며, 모로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2)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전면 5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가운데 3칸 중 어칸을 높인 솟을삼문에 좌우에 실(室)이 1칸씩 결합된 매우 독특한 평면을 하였다.

대지의 경사차로 인하여 동재 전면에서 이어지는 계단을 따라 높직하게 자리잡은 내삼문은 단층 기단 위에 덤벙 주초를 놓아 그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웠다. 좌우의 실은 제기고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앙 3칸 전면에 두 짝 판문을 달았고, 특히 어칸 판문 전면에는 2태극문양을 그려 넣었다.

가구는 3량가로 되어 있으며, 가운데 3칸은 굴도리로 하고, 좌우측칸은 납도리를 사용하였다. 문 상방 상부에는 홍살을 꾸몄으며, 1982년 보수시 신재(新材)로 교체되었다. 명문와가 전면 서측 퇴칸 내림마루와 후면 어칸의 서측 및 서측퇴칸의 내림마루 등에 남아 있는데, '康熙十八年八月(이하 판독 어려움)'으로 되어 있어 숙종 5년(1679)의 것으로 보인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전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계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대지의 경사로 인하여 외삼문 후면에 6단의 계단을 두고 다시 경사를 조금 둔 곳에 4척 정도의 막돌쌓기한 기단을 놓고 그 위에 덤벙 주초를 놓아 건물을 앉혔다.

향교의 향은 남향이나 명륜당은 후면을 개방하여 외삼문에서의 출입은 건물의 뒤쪽으로 되어 있다. 평면의 구성은 좌우 퇴칸을 온돌방으로 하고, 좌측 퇴칸은 후면 칸 반 칸을 들이밀고 마루를 꾸몄다. 좌우 퇴칸의 전면에는 쪽마루를 시설하여 난간을 설치하였는데 이 마루는 나중에 설치한 것 같다. 중앙 3칸은 우물마루로 두었으며, 우측 퇴칸의 후면칸은 우측으로 블록조 건물을 덧대어 보일러실을 두었다.

기둥은 모두 원주를 사용하였으며, 초익공으로 하고 살미의 형태는 대성전과 동일하며, 보머리를 초각하였다. 대청 전면은 판벽으로 하여 머름을 들이고 그 위에 문얼굴을 내었는데, 쌍여닫이 울거미널창을 달았다. 좌우 실 전면에는 두 짝 세살문을 달았으며, 내부에는 좌우 실의 전면칸에는 두 짝 세살문을, 후면칸에는 높이가 약간 높은 외짝문을 달았다.

가구는 5량가의 가구로 대들보 위 4분변작의 위치에, 종보와의 간격이 좁아 운두가 낮은 보아지와 주두, 뜬장혀로 종보를 받았으며, 다시 그 위에 파련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고 있

다. 종도리장혀와 중도리장혀 하부에는 뜬창방을 보내고 그 사이는 소로를 끼워 놓았다. 보와 기둥엔 많은 헛구멍들이 있어 변형이 심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지붕의 구성은 겹처마로 된 맞배지붕으로 하고 양 측면에 풍판을 대었다. 외부는 석간주 가칠단청하였으나, 내부 대들보에는 화려한 용(龍)문양 등을 그려 넣는 등 모로단청으로 도채하였다. 또한 서실의 동벽 상부에 놓인 대들보는 중간에 놓인 설주로 인하여 좌우 대칭의 문양을 그려 넣은 점이 특이하다. 전면 어칸 상부에 '明倫堂' 현판을 걸어 놓았으며, 내부에 다수의 기문이 걸려 있다. 한편 전면 기단과 일부 초석 등에 탑(塔) 부재로 추정되는 석물이 섞여 있으며, 명륜당 동편 전면에 두 개의 비석이 자리잡고 있다.

(2) 동서재(東西齋)

동서재는 근래에 복원한 것으로, 모두 전면 2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내부는 각 칸을 구분하였으며, 각 칸 전면에 두 짝 세살문을 달아 놓았다. 단층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방형 기둥을 세웠으며, 남측 기단 중앙에 아궁이를 내고 바로 옆에 굴뚝을 세웠다. 심벽으로 벽체를 꾸미고 가구는 3량가에 동자주를 얹어 종도리를 받았다. 단청을 하지 않은 백골집으로 풍판은 달지 않았다.

(3) 외삼문(外三門)

외삼문은 전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솟을삼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면에 외부에서 오르는 경사로를 시멘몰탈로 마감하여 기단 상면에 이르고 있다. 초석 일부는 탑 옥개석으로 보이는 석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덤벙 주초를 놓고 방형 기둥을 세웠다. 중앙렬에 설주를 두고 각 칸 모두 두 짝 판문을 달았으며, 문 상방 상부에 홍살을 각각 꾸몄다. 좌우 측벽은 심벽을 꾸몄으며, 지붕에 다수의 명문와가 남아 있다. 어칸 판문 전면에만 2태극문양을 도채하고 석간주 가칠로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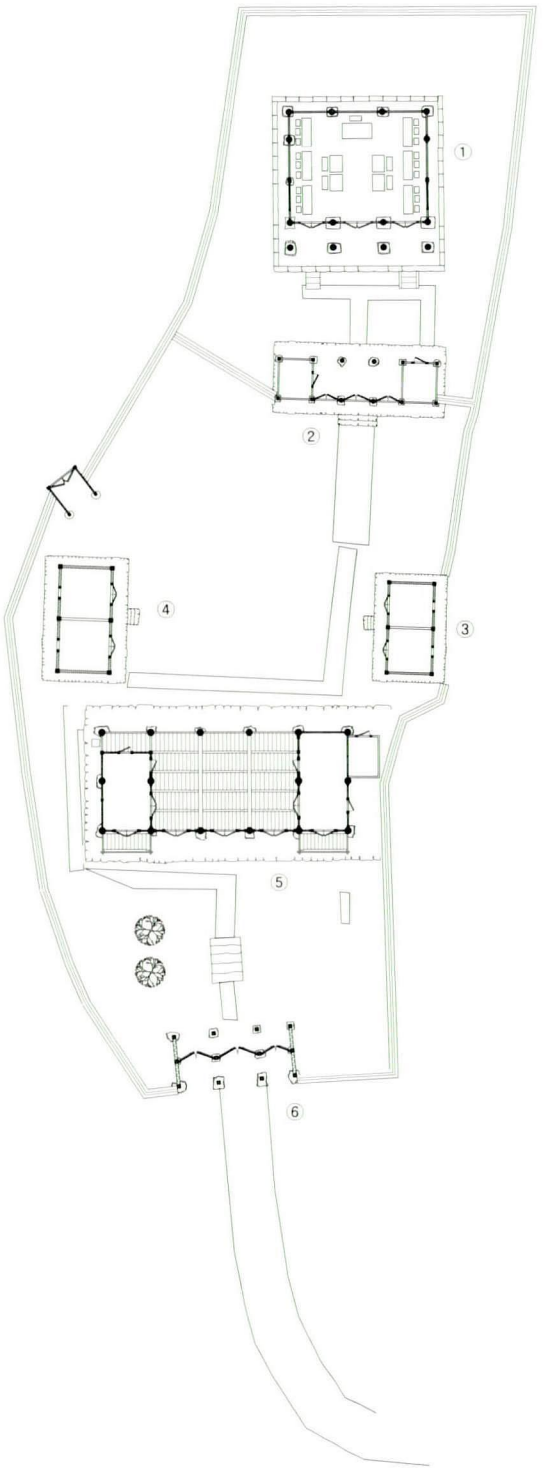
어칸 종도리 장혀 하단에 상량묵서명이 남아 있는데, '龍 夫子誕降二千四百七十二年辛酉三月壬辰朔二十六日丙寅乙未昔立柱同時上樑扉' 라 되어 있어, 1921년에 세운 건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명문와는 모두 2가지가 있는데, 전후 내림마루 망와로 대부분 글자가 모멸되어 알 기 어렵다. 다만, 각각 '丙寅五月', '康熙十八年八月(이하 판독 어려움)' 정도 파악되며, 뒤의 것은 내삼문과 동일하게 숙종 5년(1679)의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기타

기타 건물로는 협문이 있다. 협문은 서재 후면에 자리잡고 있으며, 전면에 담을 둘렀다. 사방 단 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개령향교(開寧鄕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19호(대성전)
창건시기	조선 성종 4년(1473)	입 지	산지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향교재단
좌 향	남향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堂後齋 남북종축 2개(꺾인 축)
중건시기	1610 이건 1937 현 위치로 이건	대지조성	3단 : 내외삼문 기준
설 위	5聖, 海東 18賢	인접시설	없음
건축구성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외삼문, 협문		
특기사항	대성전과 명륜당의 향이 어긋나 꺾인 축을 형성하고 있음 경북지방 향교의 일반적 배치인 전재후당형 배치가 아닌 전당후재형 배치를 하였음 내삼문의 규모가 좌우에 실(室)을 둔 5칸으로 제기고의 역할을 겸하고 있음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3×4칸, 전1퇴칸 / 2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1고주(어칸) · 2고주(측벽) 7량가 / 전돌 / 연등천장 주고 2500 고주 3530 / 어칸 3080 / 수장폭 110 / 도리단면 Ø=240전후 / 보단면 : 대들보 490×350, 중보 340×340 처마내민길이 1800 / 기단높이 : 전면 770, 후면 270 / 초석크기 약 750×650 전후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막돌쌓기 전면 2개 (각 2단)	보	대들보 : 전고주 후평주 걸침(어칸)
초 석	정평주초 / 원형 주좌 등 다양함	도 리	7량 / 굴도리
기 둥	원형 기둥 / 민흘림 측면 중간 설주는 방형 기둥	대 공	중대공 : 포대공 중종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파련대공(어칸), 판대공(측벽)
공 포	2익공 / 보머리 직절후 초각재 끼움	창 방	방형 / 뺄목 초각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심벽 / 모로단청 / 연등천장 / 전돌		
특기사항	초석의 형태가 원형 주좌를 둔 것, 탑신석, 자연석 등으로 매우 다양함 7량가의 도리 간격이 거의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음		
명륜당 건축 요소			
개 요	5×2칸 / 초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5량가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지반자 주고 2750 / 주칸 3090 / 수장폭 90 / 도리단면 Ø=240 / 보단면 : 대들보 500×420, 종보 370×350 처마내민길이 1800 / 기단높이 : 전면 1100, 후면 600 / 초석크기 620×540 전후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막돌쌓기 없음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4분변작
초 석	덤벙주초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 민흘림	대 공	중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파련대공
공 포	초익공 / 보머리 초각	창 방	방형 / 뺄목 초각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 / 모로단청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지반자		
특기사항	대지 경사와 양재(兩齋)가 후면에 위치하여 후면으로 출입하게 되어 있음 대들보 측면에 용(龍) 문양을 그렸고, 중간 설주에 맞추어 좌우 대칭 머리초를 도채함 기단 일부와 초석 등에 탑 부재 등이 사용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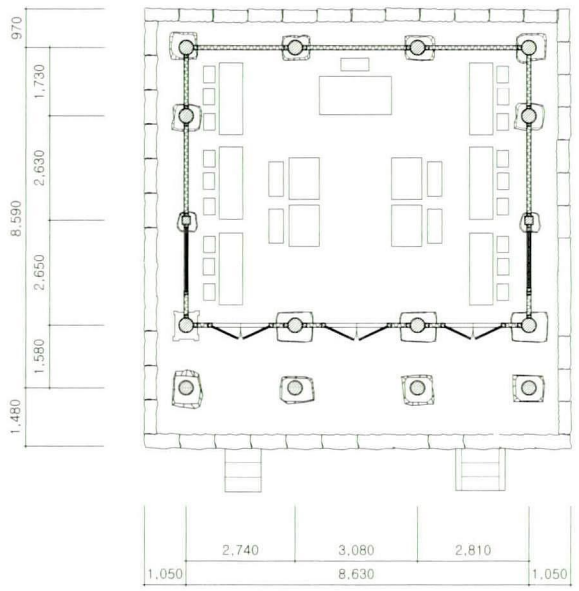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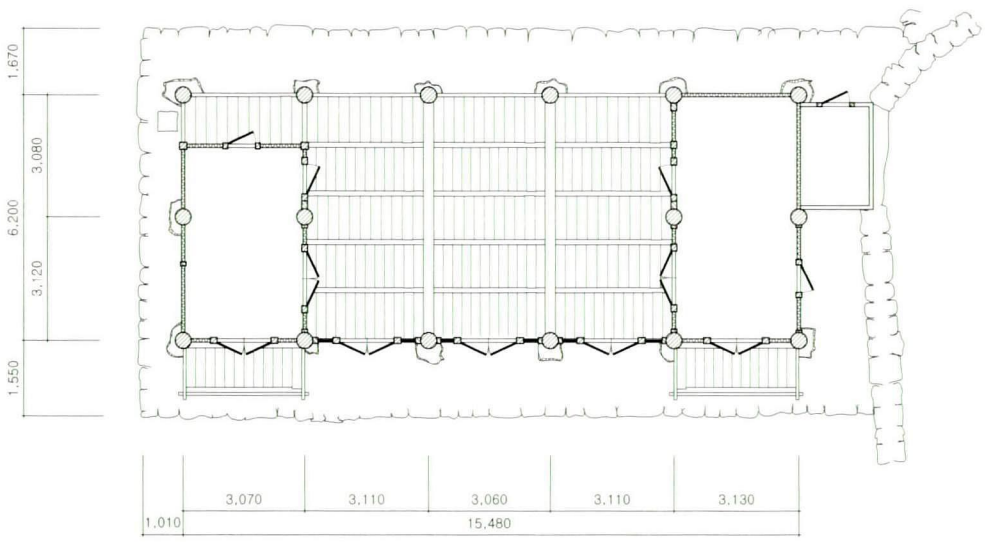
① 대성전
② 내삼문
③ 동 재
④ 서 재
⑤ 명륜당
⑥ 외삼문

개령향교 배치도





개령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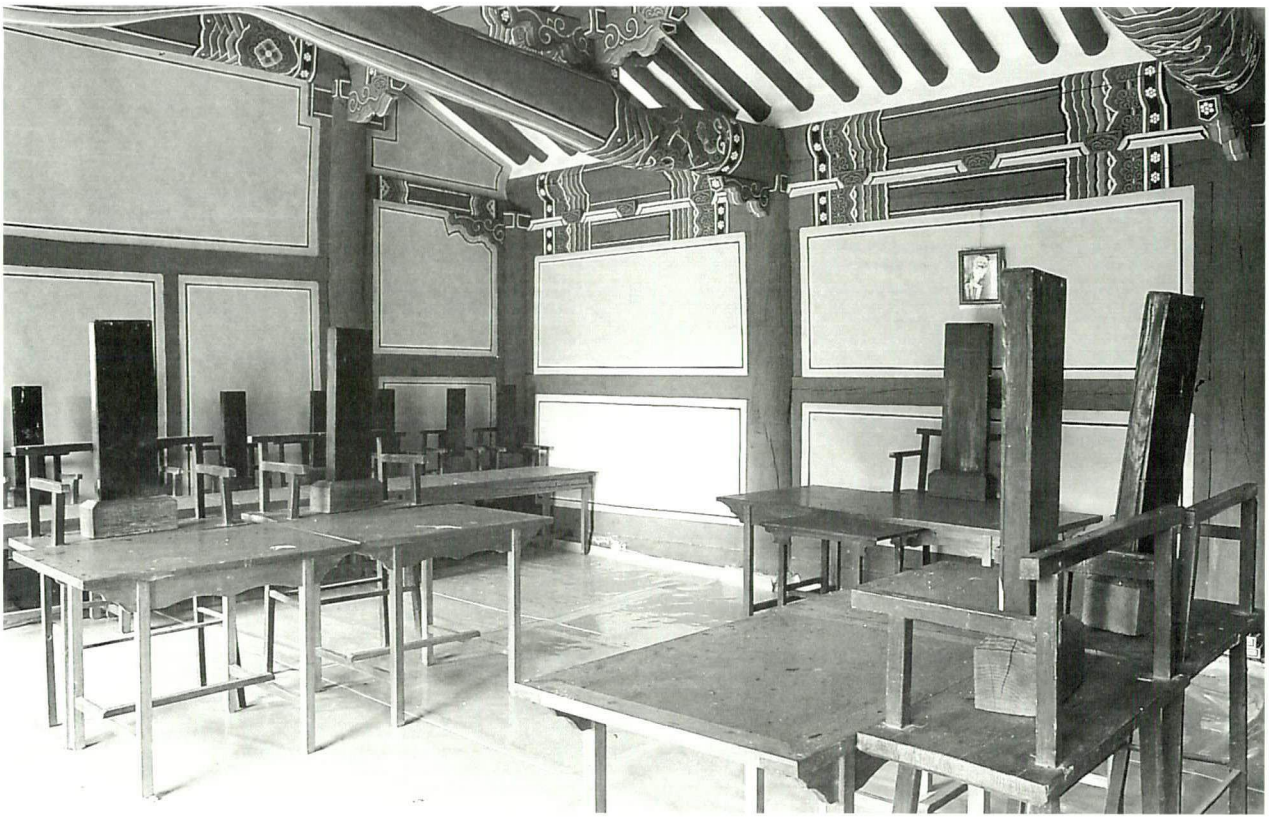


개령향교 명륜당

0 0.5 1.0 2.0 4.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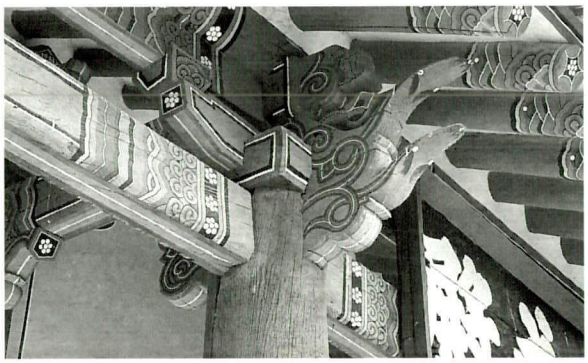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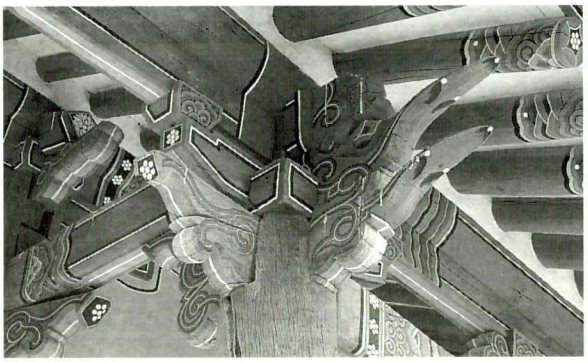
대성전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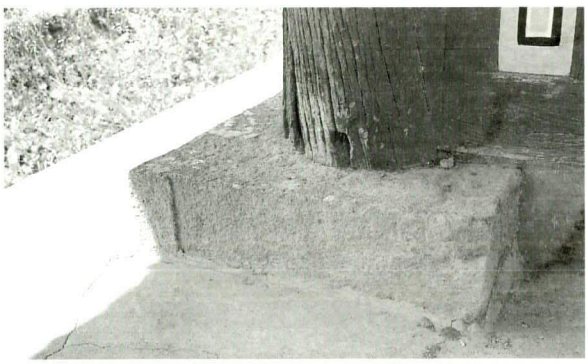
대성전 전면 퇴칸



대성전 전면 주상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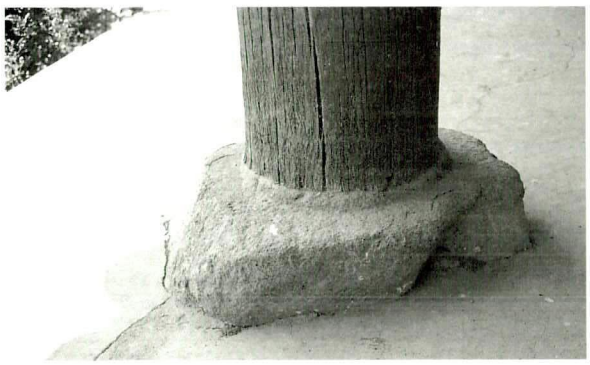
대성전 전면 귀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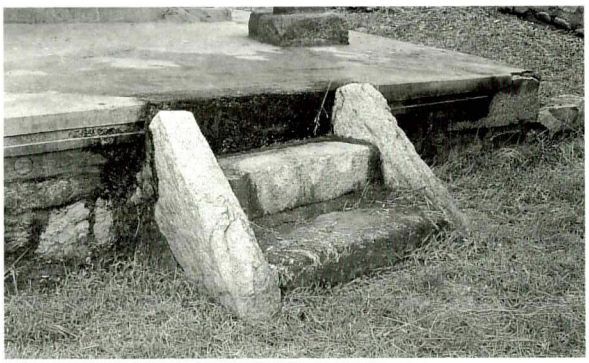
대성전 초석(탑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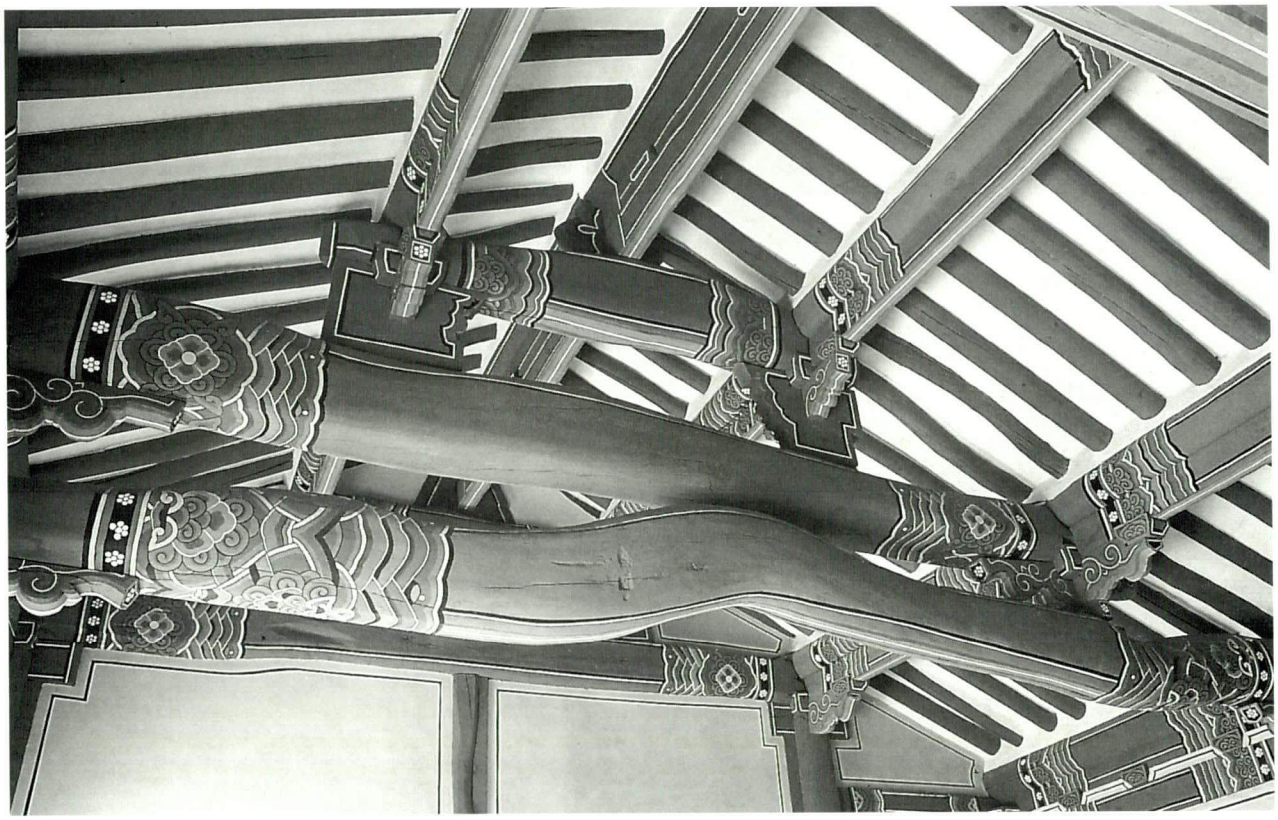
대성전 초석(탑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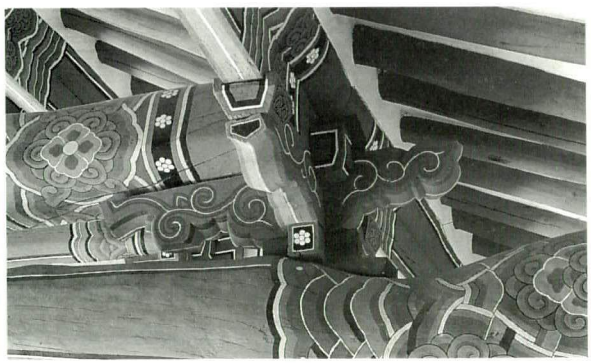
대성전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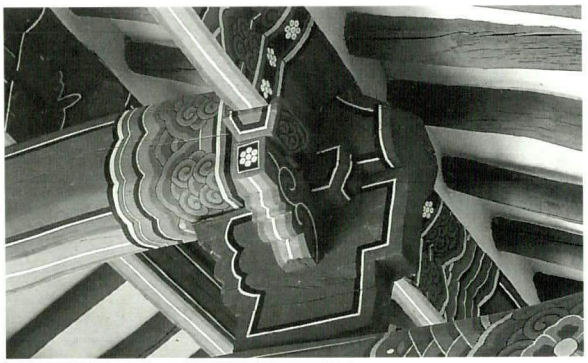
대성전 전면 계단



대성전 내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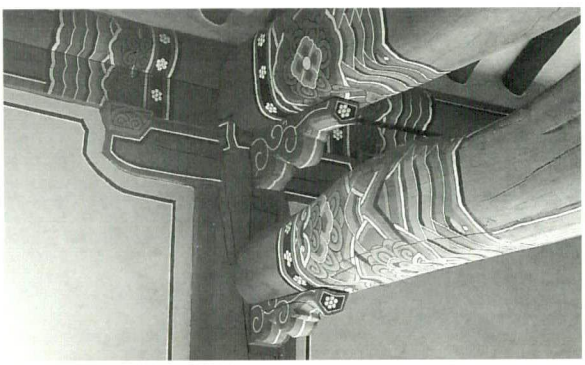
대성전 내부 중대공



대성전 내부 종중대공



대성전 내부 종대공



대성전 내부 전면 대들보 결구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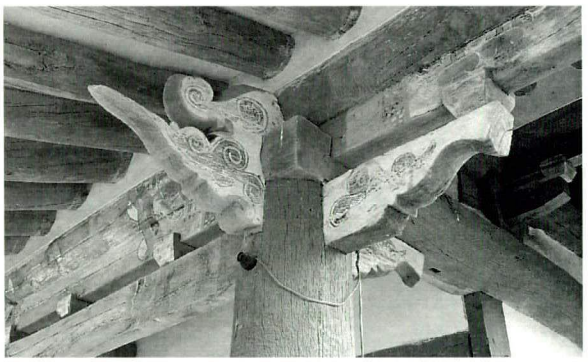
명륜당 내부



명륜당 전면 어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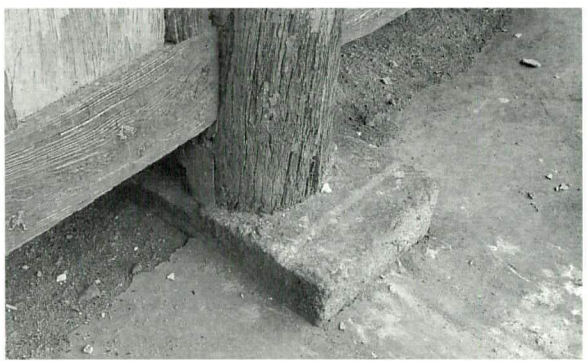
명륜당 전면 주상포



명륜당 전면 귀포



명륜당 후면 주상포



명륜당 전면 초석



명륜당 내부 가구



명륜당 내부 중대공



명륜당 내부 종대공



동재



서재



내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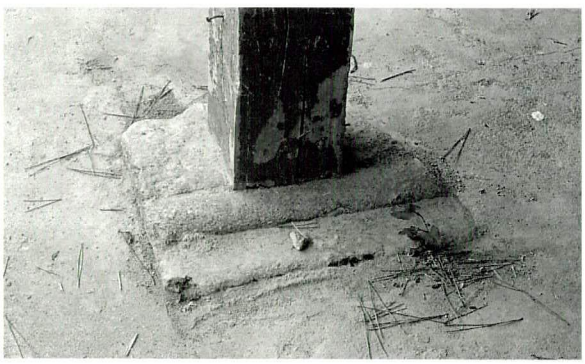
내삼문 내부 가구



외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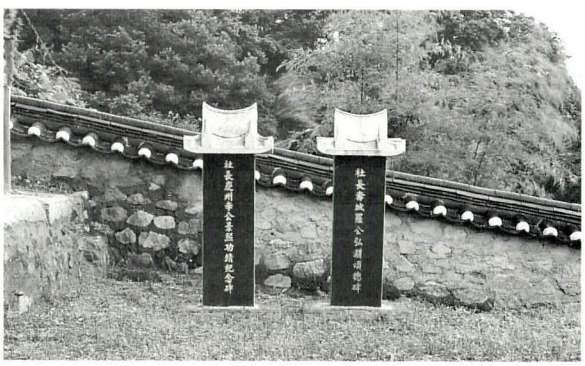
외삼문 내부 가구



외삼문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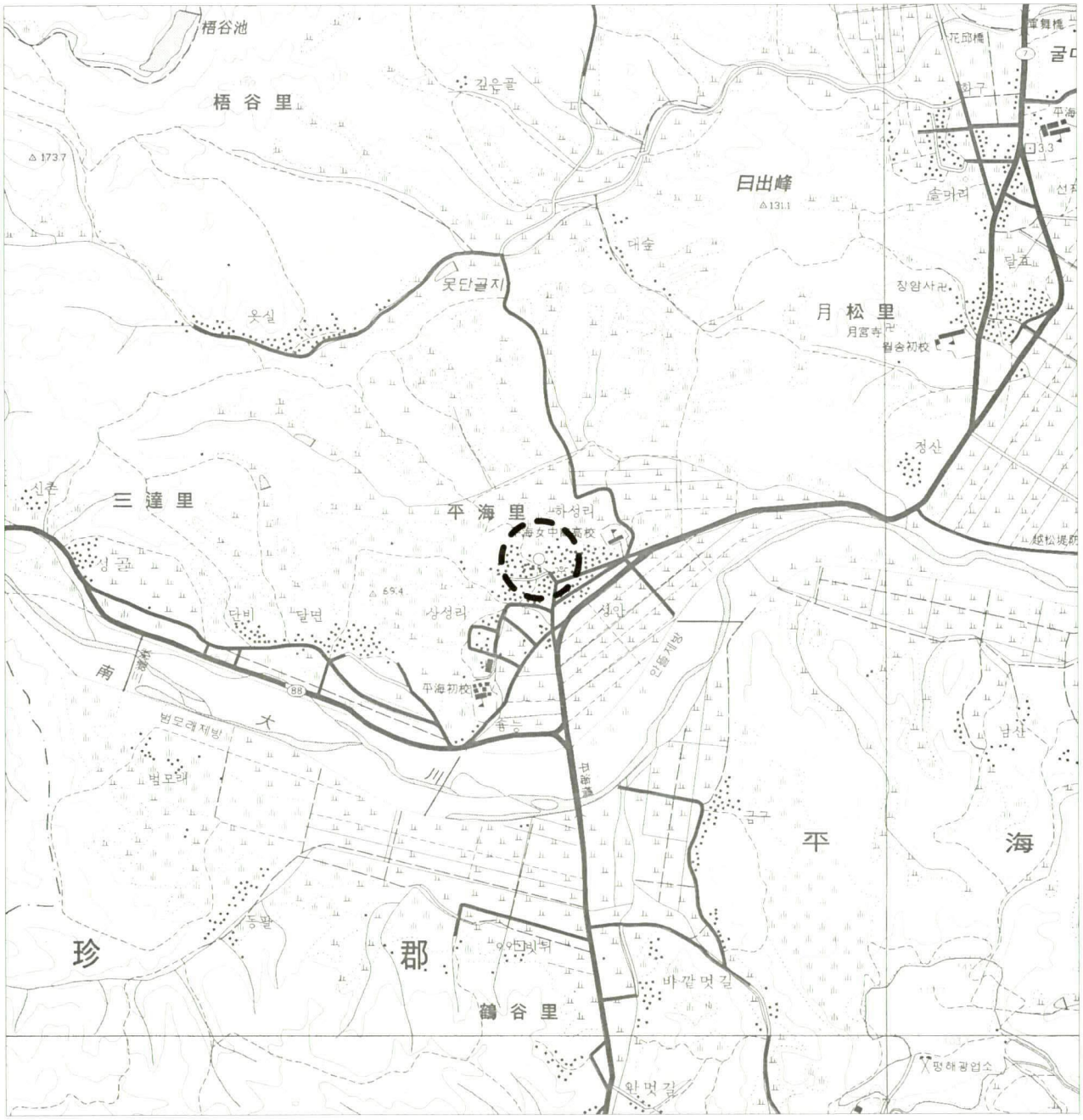
협문



비석군

19.평 해 향 교(平海鄕校)

- 지정사항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60호(대성전)
- 지 정 일 : 1985년 8월 5일
- 소 재 지 :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901
- 건축구성 : 대성전, 동무, 서무, 내삼문, 명륜당, 태화루, 외삼문, 교직사, 사주문, 화장실, 협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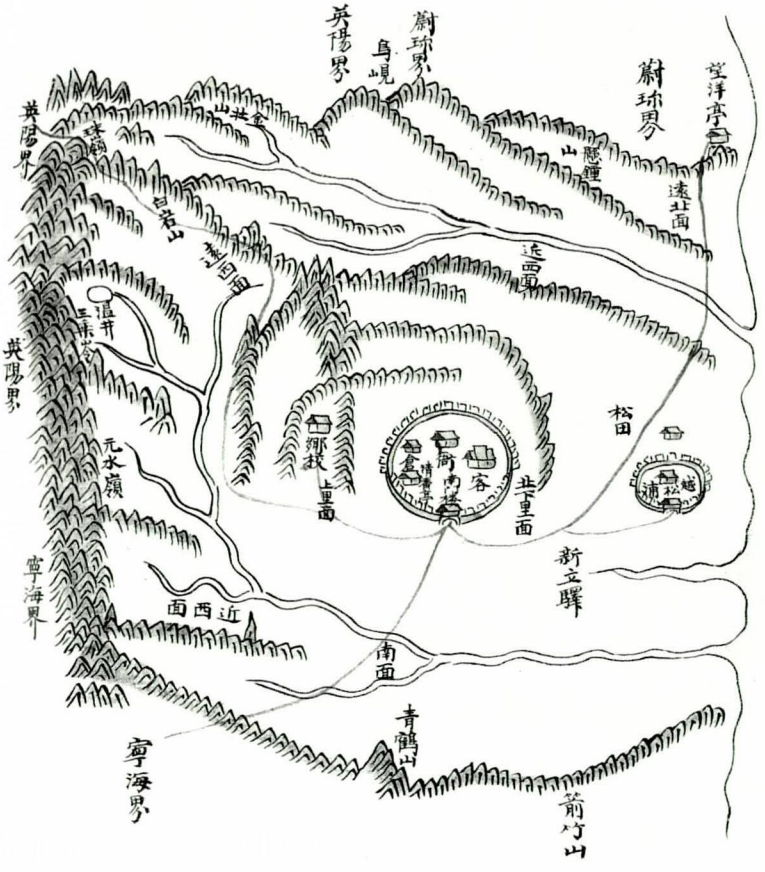
1. 연혁

평해는 경상북도 울진 지역의 옛 지명으로 본래 근을어(斤乙於)라 하였는데 경덕왕 16년(757)에 평해로 고쳐 유린군(有隣郡)의 영현으로 하였다. 고려 현종 때 예주(禮州)의 영현으로 하였다. 명종 2년(1172) 감무(監務)를 두었고, 충렬왕 때 지군사(知郡事)로 승격하였는데, 이는 이곳 사람이 왕의 원나라 입국시 왕을 배종(陪從)하여 공을 세웠기 때문이다.

조선 세조 12년(1466)에는 군으로 승격하였고, 1914년 울진군 평해면이 되었다. 1963년 울진군이 강원도에서 경상북도로 이관되었으며, 1980년 평해읍으로 승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평해 부근 해안에 수군(水軍) 만호(萬戶)가 주둔하는 월송진(越松鎭)이 있었고, 이곳에 성곽이 있었다. 해안지방에는 구진포(仇珍浦)·정명포(正明浦)·후리포(厚里浦) 등의 포구가 있었으며, 백암온천(白巖溫泉)은 이 시대에도 알려진 휴양지였다.

지형적으로 태백산맥이 평해를 에워싸고 있어 고려 말에 왜구의 피해가 바다로부터 있었으며, 또 여진이나 몽고병의 침입이 북쪽으로부터 있었으나 서남쪽으로부터의 피해는 없었다. 따라서, 평해는 동해안을 따라 북쪽과 긴밀한 유대가 있었다.



平海郡

평해향교는 고려 공민왕(恭愍王) 6년(1357)에 군 동쪽 2리 저전(楮田) 반월산(半月山) 아래에 지었다가 조선 태종 7년(1407)에 군수 김한철(金漢徹)과 향중 유림이 협의하여 송릉동(松陵洞)으로 이건하였다고 한다[1]. 이후 성종 원년(1470)에 대성전이, 동왕 5년(1474)에는 명륜당이 건립됨으로써 어느 정도 향교로서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선조 18년(1585)에 고을 수령과 향중 유림이 함께 힘을 모아 대성전을 중수하였으나[2], 향교가 협소하고 멀리 있어 광해군 4년(1612)에 고을 다수의 유림이 건의하여

1)_ 이 시기의 묘제(廟制)는 5칸이되 주군(州郡)은 3칸이라 되어 있고, 현(縣)은 무를 두지 않는 것(無廡)라 되어 있다. 平海鄕校, 『平海鄕校誌(평해교지)』上, p.31

2)_ '大成殿上樑文(대성전상량문)', '明倫堂上樑文(명륜당상량문)' (이상 宣祖十八年乙酉, 즉 1585년), 平海鄕校, 『平海校誌(평해교지)』下, pp.14-15

성내(城內) 즉, 현재의 위치로 이건되었고, 이 때 순상(巡相) 오윤겸(吳允謙)이 동서무를 짓고 대성전을 증수(增修)하기를 청하였다고 한다. 인종 7년(1629)에 태화루가 이건되었으며, 효종 7년(1656)에 망료석(望燎石)을 세웠다. 숙종 12년(1686)에는 제기고가 지어졌으며, 영조 8년(1732)에 대성전과 명륜당이 중수되고, 동왕 18년(1742)에 동서무가 비로소 지어졌다. 영조 40년(1764)에 대성전을 중건하였고[3], 정조 5년(1781)에는 식루(食樓)를 짓고 제기고를 다시 지었으며, 2년 후에는 하마비를 세우고 입구를 단장하였다. 순조 25년(1825)에는 대성전 주변의 담을 보수하고, 헌종 4년(1848)에 홍살문을 개건(改建)하였다. 다시 고종 6년(1869)에는 동서무와 태화루(太和樓)가 중수되었으며, 동왕 23년(1886) 가을에는 대성전과 명륜당이 수리되었다.

1908년에 직제 전부가 직원(直員)으로 통일되었고, 1913년에 문묘를 중수하였다. 또 이 때부터 명륜당과 태화루를 학교(學校)건물로 사용하였다.

1949년에 농지개혁으로 교토(校土) 전부가 매각되었고, 이 해에 당시 울진군 민의원(民議員) 이었던 전만중(田萬重)과 중수위원장이었던 안용훈(安鎔熏)이 당시 문교부에 청하여 먼저 대성전을 수리하였고, 같은 해 7월 유회(儒會)에서 동서무와 태화루 보수를 논의하여, 유림(儒林)의 각출로 동서무를 도리 이상 해체보수하고, 태화루 역시 방풍판과 난간 등을 보수하였으며, 동무 후면 담도 보수하였다. 또한 대성전과 명륜당, 태화루의 현판을 새로 제작하였다[4].

한국전쟁 중에 다수 피해를 입었던 것을, 1976년에 대성전을 보수하였으며, 1977년에는 전교(典校) 김이두(金利斗)가 사재를 출연하여 국고보조로 태화루를 복원하고 명륜당을 중수하였다고 한다. 또한 주사(廚舍)를 재건(再建)하고 대성전을 번와보수 하였으며, 재복(齋服)과 제기(祭器) 일체를 완비하였다. 이러한 기록은 '太和樓復建記(태화루복건기)'(1979년 제작), '平海鄕校復元記(평해향교복원기)'(1982년 제작) 등 2개의 기문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1977년 한 해에 진행되었다기 보다는 연차적으로 차례차례 진행된 듯 하다.

1989년에 방충방연제 도포공사를 하였으며, 1990년에 대성전에 단청을 하였다. 1992년에 동무와 서무는 기단을 자연석 기단으로 교체하고 연목이상 해체 보수하였으며, 내삼문은 번와보수 하였다. 1993년에는 명륜당을 보수하였는데, 기둥 드잡이 보수 및 동바리이음 보수, 연목이상 해체 보수 등을 하고, 사주문을 연목이상 해체 번와보수 하였다. 1994년에는 대성전을 연목이상 해체 번와보수 하였고 고색땜단청을 하였다. 1996년에는 태화루의 침하된 초석을 드잡이 보수하고, 산자 이상 해체보수 하면서 대성전 일부 부재를 교체하여 고색땜단청을 하였다. 또한 이전까지는 제향영역만 담으로 구획되어 있었고, 교직사와 명륜당 사이에는 담이 없었으나 이 때 외삼문 우측에서 제향영역으로 연결되는 약 25m의 담을 신축하

3)__ '平海鄕校大成殿上樑文(평해향교대성전상량문)', 기문에 '英祖 甲申'이라 되어 있어, 1764년에 썼음을 알 수 있다. 平海鄕校, 『平海校誌(평해교지)』下, pp.15-17

4)__ '鄕校重修記(향교중수기)', 平海鄕校, 위의 책, p.43-44

였다[5].

현재 향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로는 『儒案(유안)』 3권과 『額內外案(액내외안)』, 『古今鄕案(고금향안)』, 『完議(완의)』등과 제반 향교관련 자료를 수록한 『平海校誌(평해교지)』 (上, 下)가 있다.

창건 이후의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57	창건
1407	이건
1470	대성전 건립
1474	명륜당 건립
1585	대성전 중수
1612	현 위치로 이건
1629	태화루 이건
1656	망료석 건립
1686	제기고 건립
1709	명륜당 보수(추정)
1732	대성전, 명륜당 중수
1742	동서무 건립
1764	대성전 중건
1781	식루 건립, 제기고 중건
1825	대성전 주변 담 보수
1848	홍살문 개건
1869	동서무, 태화루 중수
1886	대성전, 명륜당 보수
1913	향교 일곽 중수, 명륜당 및 태화루 학교 건물로 사용
1949	대성전 보수, 동서무 도리 이상 해체보수, 태화루 보수, 담 일부 보수, 대성전 및 명륜당, 태화루 현판 제작
한국전쟁 중	일곽 건물 피해
1976	대성전 보수
1977-1982	태화루 복원, 명륜당 및 대성전 번와보수, 주사 중건, 재복 및 제기 완비
1989	방충방연제 도포공사
1990	대성전 단청

5)_ 1980년대 이전의 주요 향교 연혁은 『平海校誌(평해교지)』 上, 下를 참조하였다.

1992	동서무 기단 교체 및 연목이상 해체 보수, 내삼문 번와보수
1993	명륜당 기둥 드잡이 및 동바리이음, 연목이상 해체 보수, 사주문 연목이상 해체 번와보수
1994	대성전 연목이상 해체 번와보수 및 고색땜단청
1996	태화루 초석 드잡이 및 산자 이상 해체보수, 대성전 보수, 담 증축, 외삼문 이건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는 대성전, 동무, 서무, 내삼문, 명륜당, 태화루, 외삼문, 교직사, 사주문, 화장실, 협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입지 및 배치

평해향교는 평해읍사무소 뒤쪽 경사진 산기슭에 남향으로, 삼성봉 남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전면에는 서에서 동으로 남대천이 흐르고, 안산(案山)으로 등기산이 있다. 향교는 평해읍사무소를 보고 우측 골목으로 따라 오르다 보면 산 자락을 거의 다 올라간 경사가 급한 곳에 널찍하게 자리잡고 있다. 지형에 따라 남향이 아닌 남서향을 하고 있다.

대성전을 제일 높은 곳에 배치시키고 내삼문, 명륜당, 태화루, 외삼문을 일직선축으로 하여 배치시킨 전학후묘(前學後廟)형이다. 예전에는 홍살문이 있었으나, 현재는 읍사무소가 자리잡고 있다. 현재 동서재는 없으며, 제기고 등 다수의 건물이 있었으나 한국전쟁 중 다수 소실되었다. 교직사가 향교 영역 담 바깥 오른편에 자리잡고 있으며, 중심축선상에 중요 건물이 자리잡고 있는데, 대성전, 명륜당, 태화루의 전면 칸 규모가 각각 5칸으로 동일하다.

대지 전체는 크게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사가 심하여 외삼문을 들어서면, 급경사 계단을 올라 높직한 축대 위에 태화루가 있고 그 후면에 다시 기단을 높직하게 하여 명륜당이 자리잡고 있으며, 다시 내삼문 좌우로 꾸며진 축대를 올라 내삼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전면 5칸, 측면 3칸 규모로 된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내부 통칸으로 바닥에 전돌을 깔았으며, 어칸의 칸살을 좌우칸보다 2척 가량 넓게 하였다.

자연석으로 3단을 고르게 쌓은 단층 기단 전면에는 어칸과 좌우 퇴칸 전면에 각각 2단으로 된 계단을 두었다. 기단 상면은 강회다짐 하였으며, 원형 주초를 놓고 그 위에 민흘림을 둔 원형 기둥을 세웠다. 벽체는 측후면 중방 하부를 화방벽으로 두었으며 나머지는 심벽으로 하였다. 전면은 어칸 중앙에 두 짝, 좌우 퇴칸에는 어칸쪽 기둥에 붙여 외짝 여닫이 세살문을 달고 좌우 협칸에는 중방 상부에 정(井)자살 광창을 두었다.

기둥머리에는 전면은 외1출목 2익공, 후면은 출목 없이 2익공을 구성하여 정면을 강조하

였다. 전면은 익공재 외단을 길게 뺀 쇠서로 하였고 보머리는 익공재의 폭만큼으로 줄여 초각하였으며, 출목간에는 순각판을 얹었다. 출목과 주심의 첨차 형태는 동일하며, 주간에는 화반을 1개씩 두었다. 한편 후면에서는 보머리를 빼내어 사절하였으며, 전면에서 창방 뺄목은 단부를 '1'과 같은 형태로 두었다.

가구는 어칸에서 무고주, 좌우 측면에서 2고주 5량가로 되어 있으며, 직선에 가까운 대들보 위 3분변작에 근접한 위치에 중대공을 놓았다. 중대공은 보방향 보아지와 도리방향 첨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위에 종보를 얹었다. 종보 중앙에는 제형 판대공과 도리방향 첨차를 놓고 뜬장혀를 결구하여 종도리를 받았으며, 장혀와의 사이에 소로를 수장하였다.

지붕은 전면만 겹처마로 두었으며, 서까래 단부는 사절하였다. 좌우에 방풍판을 달았으며, 용마루 좌우에는 머거블 대신 숫기와를 세로로 세워 두었다. 모로단청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전면 어칸 상부에는 '大成殿' 현판을 걸었다.

(2) 동서무(東西廡)

동서무는 같은 평면과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각각 전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익공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통칸으로 내부에 전돌을 깔았으며, 어칸의 칸살이 좌우 협칸의 2배 정도 되어 있다. 벽체는 심벽으로 되어 있으며, 각 칸 전면에는 외짝 세살문을 달았는데 어칸의 것이 좌우 칸의 것보다 넓다.

단층 기단 위에 원형 주초를 놓고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웠다. 초석 일부에 고막이 흔적이 남아 있는 듯 하며, 기둥에도 약간의 흘림을 두었다. 기둥머리에는 전면에만 초익공을 결구하였는데, 외단은 부드럽게 뻗어 나온 쇠서로 되어 있고, 보머리는 약간 사절한 뒤 초각한 부재를 끼워 넣었으며, 주간에는 소로를 수장하였다.

가구는 3량가로, 중앙에 제형 판대공을 얹고 도리방향으로 짤막한 첨차를 놓고 장혀와 종도리를 받았다. 지붕은 아귀토로 마감하였고, 가칠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3)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전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명륜당 후면에 근접하여 쌓은 축대 위에 단층 기단을 쌓고 전면 어칸에는 축대를 파내어 조성한 4단의 계단을 두었다. 방형으로 거칠게 다듬은 초석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웠으며, 좌우 측벽에만 심벽을 구성하고, 전면 각 칸 기둥렬에 두 짝 판문을 달았다.

가구는 3량가로 짤막한 방형 동자주를 얹어 장혀와 말각방형 단면의 종도리를 받았으며, 도리 이하 석간주 가칠단청, 도리 이상 모로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4) 사주문(四柱門)

사방 단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전면에 장대석 계단을 두었으며,

단층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방형 기둥을 세웠으며, 후면 기둥렬에 안쪽으로 열리는 두 짝 판문을 달았다. 간략한 3량가로, 가칠단청 하였으며, 서까래 마구리에 3태극을 그렸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전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계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로, 평면은 가운데 당(堂) 3칸을 두고 좌우에 실(室)을 두었으며, 전면 각 칸을 반 칸 씩 뒤로 물려 전면에 퇴칸을 구성하였고, 우측에 덧마루를 붙여 달았다. 칸살 구성이 좀 특이한데 어칸이 8척, 좌우 협칸이 6척, 좌우 퇴칸이 10척으로 실:당:실의 입면상 비율이 1:2:1이 된 점이 특이하다.

자연석으로 6단을 가지런하게 쌓은 단층 기단 위에 덤벙 주초를 놓고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웠으며, 다만 우측면 가운데 기둥만 방형 기둥을 사용하고 있다. 마루의 높이가 그냥 오르기에는 비교적 높직한 편이며, 바닥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다. 좌우 실의 전면에는 두 짝 세살문을 달고, 좌우 실의 후면칸 각 좌우측면으로는 각각 외짝 세살문을 달았으며, 당 후벽은 판벽으로 각 칸 하부에 머름을 꾸미고 위에 두 짝 띠장 널문을 달았다.

기둥머리에는 사괘를 트고 창방과 초익공을 놓은 다음 주두를 얹고 대들보를 받았는데, 익공재 외단은 쇠서나 앙서도 아닌 특수한 형태로 전면만 상단을 빗깎은 다음 직절하고 하단은 여러 번 궁글려 첨차 단부 비슷하게 초각하였다. 내단은 단부를 사절하였으며, 주두 좌우에 반쪽 소로를 붙였다. 전면 기둥 좌우 일부는 면을 고르게 다듬고 창방 하부에 장부 구멍이 남아 있는 등 전면에 창호를 두었던 흔적이 일부 남아 있다. 또 전면에는 원래 난간을 두었었으나 현재는 없고, 우측에 부설된 덧마루 하단을 따로 단을 쌓아 높이를 조절한 것으로 보아 측면으로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구는 어칸에서 무고주 5량가로 4분변작의 위치에 보방향과 도리방향으로 놓인 판재를 십자(十字)로 놓고 종보를 받았으며, 종보 중앙에는 제형판대공과 짤막한 도리방향 부재를 놓아 좌우에서 반쪽소로를 붙여 놓았다.

지붕은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소박하게 마감하였으며, 지붕마루에 명문와가 놓여 있는데, '康熙四十 二年九月日 色吏孫致孝 瓦匠孫應立 僧持□'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숙종 29년(1703)에 해당하고, 이 시기에 한 차례 보수된 것으로 판단된다. 좌우실 전면에 아궁이를 두고 후면에 굴뚝을 내었으며, 이전에 학교 교사(校舍)로 사용한 적이 있어 변형이 많고, 일부 부재에 다수의 장부 구멍이 남아 있다. 전면 어칸 상부에 '明倫堂' 현판을 달았다.

(2) 태화루(太和樓)

태화루는 전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중층 익공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경사가 심한 곳에 막돌로 축대 겸 기단을 쌓은 후 덤벙 주초를 놓고 상하층 별재(別材)로 된 원형 기둥을 세웠다. 하층은 벽체 없이 개방형으로 두었으며, 전면 우측 퇴칸 후면칸

에 상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두었다. 상층 바닥은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하층과 마찬가지로 벽체는 구성하지 않았으며, 사면에 계자각난간을 둘렀다.

기둥머리에는 외1출목 2익공의 공포를 구성하였는데, 살미의 외단은 부드럽게 빼낸 쇠서형으로 보머리는 익공재 폭 만큼 줄인 다음 두 번 궁글려 마무리하였다. 주심과 출목의 첨차 형태는 동일하며, 출목간에 순각판을 얹었다. 익공집에서 주간에 놓이는 화반이나 소로는 놓지 않았으며, 가구는 5량가로 되어 있다. 4분변작 위치에 주두와 2단의 보 방향 보아지와 도리방향 첨차를 놓고 이중장혀를 받아 종보를 받고 있으며, 종보 중앙에는 제형판대공과 도리방향 첨차를 놓아 종도리를 받게 하였다. 좌우 측면에서는 2고주를 형성하여 각각 창방과 툇보를 고주 몸에 끼우고, 상부에 중대공과 유사한 보아지를 결구하여 종보를 받았다.

지붕은 전후면 모두 홑처마로, 좌우에 방풍판을 달았으며, 내부 어칸 종도리 장혀 하단에 '檀紀四千三百十年丁巳十二月十九日申時上樑' 이라 되어 있어, 1977년에 중건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내부에 복원기문 등 2개의 기문이 걸려있다.

(3) 외삼문(外三門)

외삼문은 전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익공계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좌우 협칸은 어칸의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으나 각각 전면 기둥렬에 두 짝 판문을 달았다. 자연석 단층 기단 전면에는 8단의 계단을 두고, 기단 위에 원형 주초를 놓고 원형 기둥을 세웠다. 측면과 후면에는 벽체도 중방도 두지 않고, 대들보로만 연결된 점이 특이하다.

기둥머리에는 이익공을 구성하였는데, 초익공은 내외단을 모두 직절하고, 이익공은 외단을 직절하였으나 초익공보다는 약간 더 내밀어 원형 단면의 보머리를 받고 내단은 사절하였다. 보와 도리가 같은 단면으로 되어 있으며, 주간에 소로를 수장하였다. 대들보 중앙에 판대공을 두었으며, 종도리 장혀 하단에는 '歲在丙子十一月二十日午時立柱上樑' 이라 되어 있어, 1996년에 이건한 것으로 보인다.

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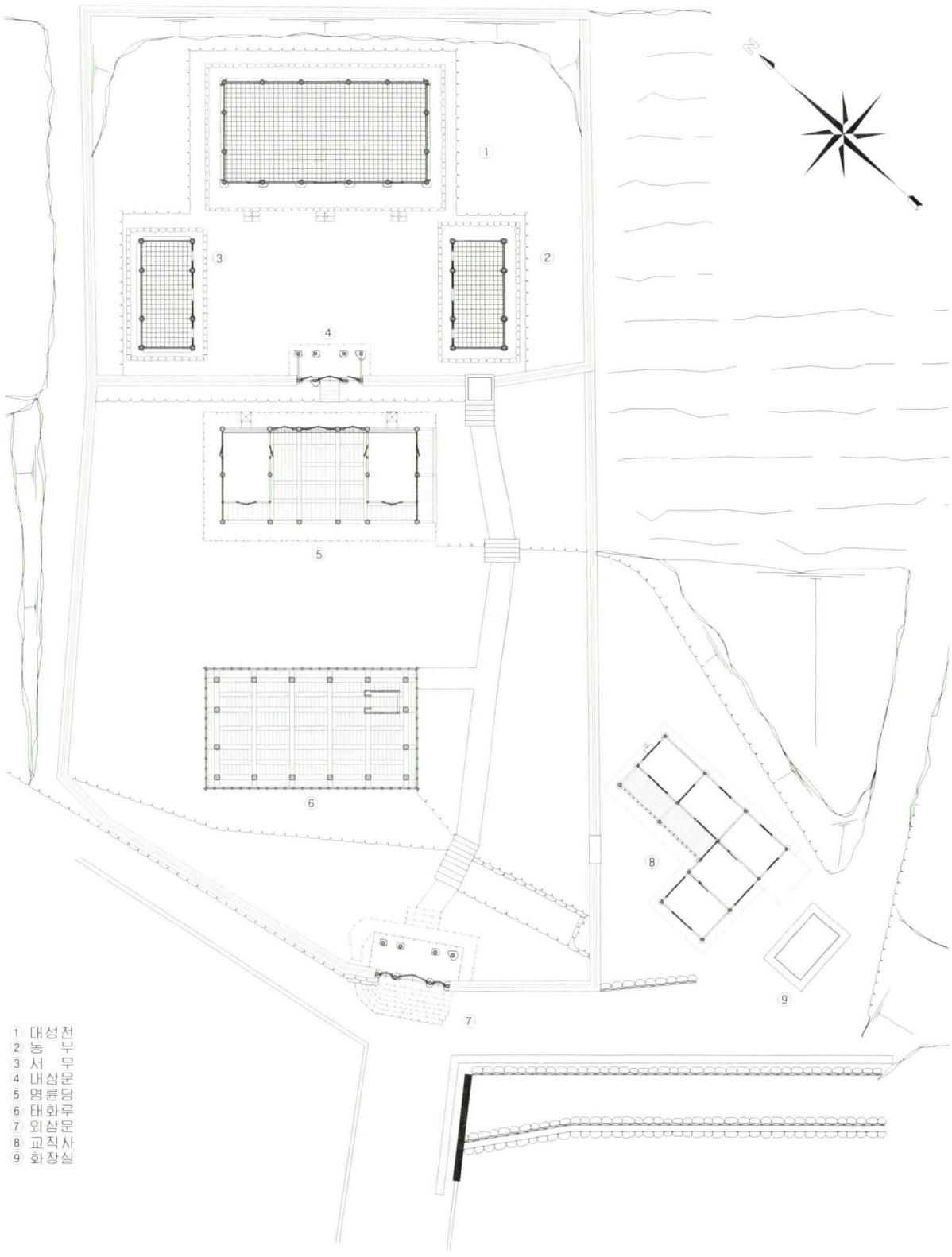
기타 건물로는 교직사(校直舍)와 화장실, 협문 등이 있다.

교직사는 향교 담 바깥 오른편에 자리잡고 있는데, 'ㄱ' 자형 평면의 살림집으로 현재 향교 관리인이 거주하고 있다. 좌측 2칸 전면에 툇마루를 두었으며, 나머지는 방으로 꾸몄다. 간략한 3량가 건물로 지붕에는 팔작지붕을 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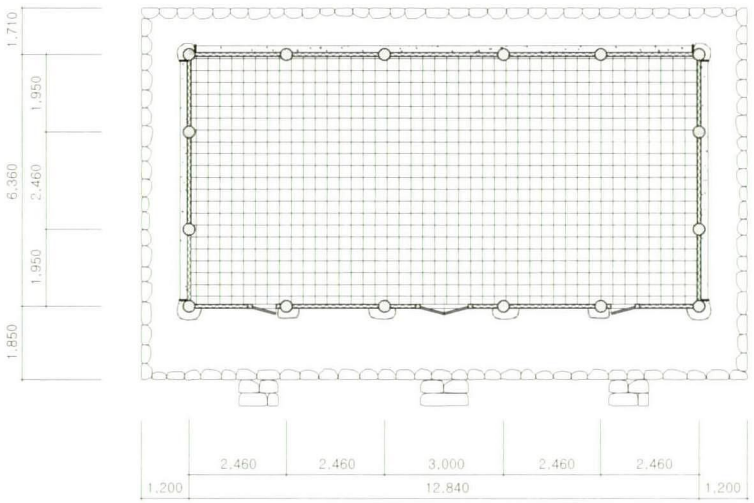
화장실은 전면 2칸, 측면 1칸 규모의 팔작지붕 건물로 근래에 지은 시멘블록조 건물이며, 지붕에만 한식기와를 얹고 팔작지붕을 꾸몄다. 협문은 1996년에 일곽 담을 신축하면서 새로 만든 일각문으로, 교직사와 강학영역을 연결시켜주고 있다. 태화루 앞에 다수의 비석이 놓여져 있으며, 가첨석(家檐石) 있는 것이 1개, 없는 것이 12개이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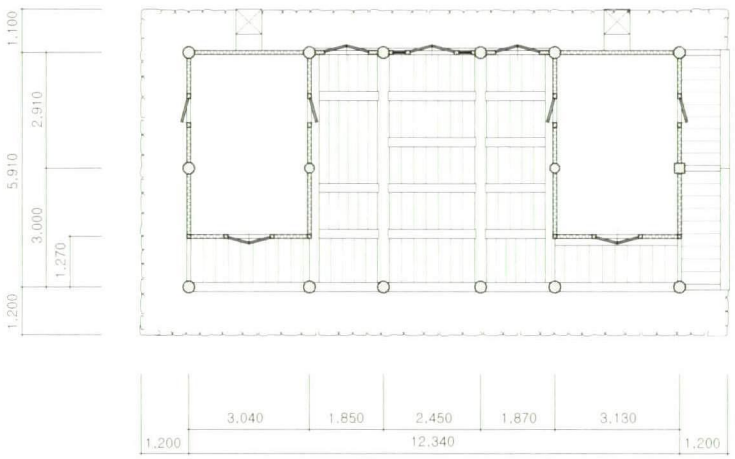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평해향교(平海鄕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60호(대성전)
창건시기	고려 공민왕 6년(1357)	입 지	산지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향교재단
좌 향	남서향	배치형식	前學後廟 / 종축 1개
중건시기	1407 이건 1612 현 위치로 이건 1764 대성전 중건 1977 태화루 복원	대지조성	3단 : 내외삼문 기준
설 위	5聖, 宋朝 6賢, 海東 18賢	인접시설	평해면사무소
건축구성	대성전, 동무, 서무, 내삼문, 명륜당, 태화루, 외삼문, 교직사, 사주문, 화장실, 협문		
특기사항	동서재가 없으며 중심축선 상의 배치가 뚜렷함 외삼문은 비록 규모는 작으나 팔작지붕에 짜임새가 튼튼함 대성전, 명륜당, 태화루의 평면 규모가 5칸에 각각 27평, 23평, 24평으로 서로 비슷함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5×3칸 / (전면) 외1출목 (후면) 무출목 2익공 / (전면) 겹처마 (후면) 홑처마 맞배지붕 / 2고주(측벽) 5량가 / 전돌 / 연등천장 주고 2340 / 어칸 3000 / 수장폭 100 / 도리단면 Ø=210전후 / 보단면 : 대들보 430×420, 종보 340×280 처마내민길이 1840 / 기단높이 : 전면 650, 후면 140 / 초석크기 약 Ø=430 전후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세벌대 / 자연석 바른층쌓기 전면 3개(각 2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어칸) 종 보 : 3분변작에 근접
초 석	정평주초 / 원형 주좌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 민흘림	대 공	중대공 : 보아지+첨차 종대공 : 파련대공(어칸), 판대공(측벽)
공 포	전면 외1출목 2익공, 보머리 초각 후면 2익공, 보머리 사절	창 방	방형 / 뺄목 '}' 형 초각
처 마	전면 겹처마, 후면 홑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심벽+화방벽 / 모로단청 / 연등천장 / 전돌		
특기사항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어칸, 좌우 퇴칸에 출입문을 두고 좌우 협칸에 광창을 두었음 측면 길이에 비하여 매우 길쭉한 직재(直材)를 대들보로 사용하였음 전후면의 공포 및 지붕 처리가 달라 정면성을 강조하였음		
명륜당 건축 요소			
개 요	5×2칸 / 초익공 / 홑처마 팔작지붕 / 5량가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지반자 주고 3000 / 주칸 어칸 2450 협칸 1860 퇴칸 3090 / 수장폭 100 / 도리단면 Ø=210 / 보단면 : 대들보 340×400, 종보 340×340 처마내민길이 1500 / 기단높이 : 전면 1800, 후면 120 / 초석크기 500×500 전후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6벌대 / 자연석 바른층쌓기 없음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4분변작
초 석	덤벙주초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 약한 민흘림	대 공	중대공 : 십자(十字)형 첨차 종대공 : 제형판대공+첨차
공 포	초익공 / 보머리 직절	창 방	방형 / 뺄목 직절
처 마	홑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 붕	팔작지붕
수 장	심벽 / 모로단청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지반자		
특기사항	전면에서 실: 당: 실의 칸살 비율이 1:2:1로 되어 있음 주상포와 종대공에서 반쪽소로가 사용되고 있음		



평해향교 배치도



평해향교 대성전



평해향교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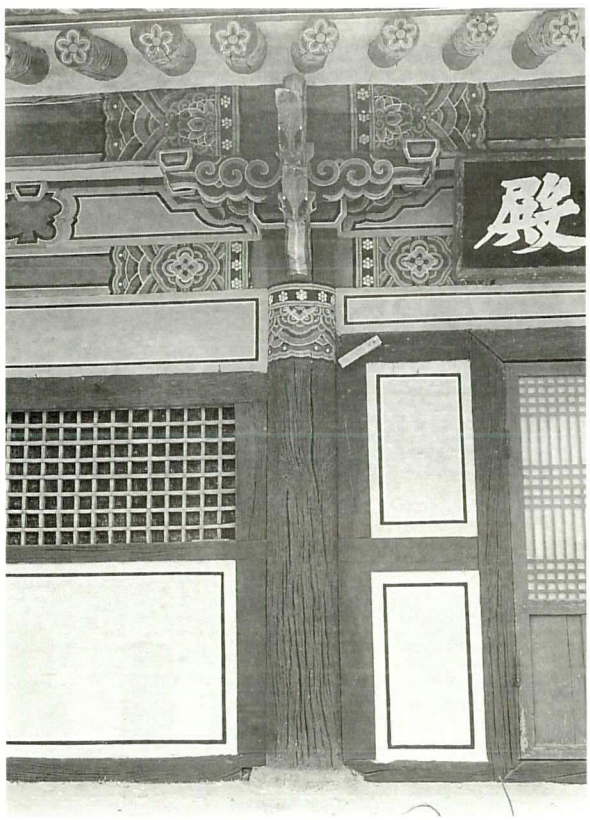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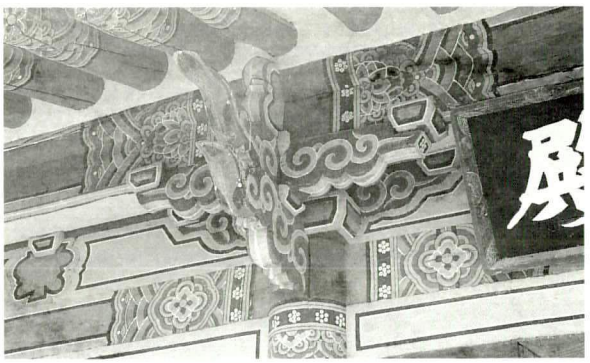
대성전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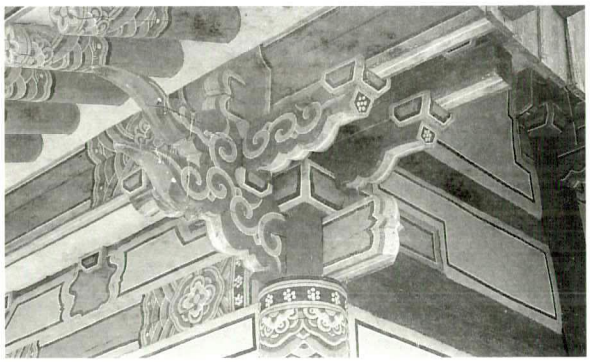
대성전 측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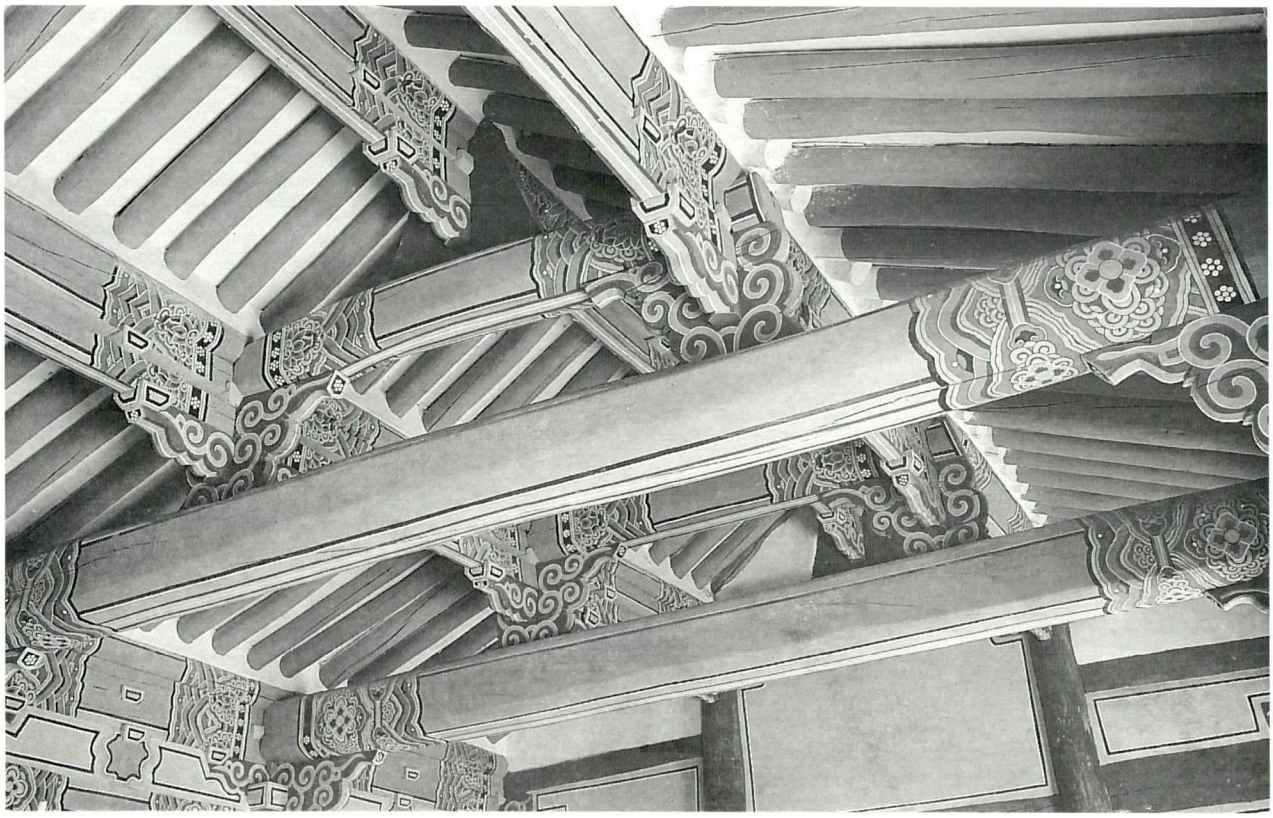
대성전 전면 기둥



대성전 전면 주상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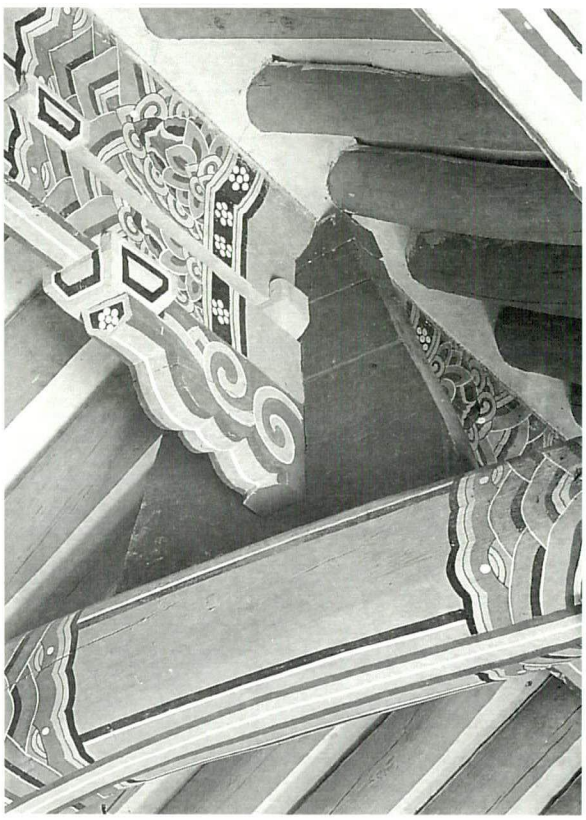
대성전 전면 귀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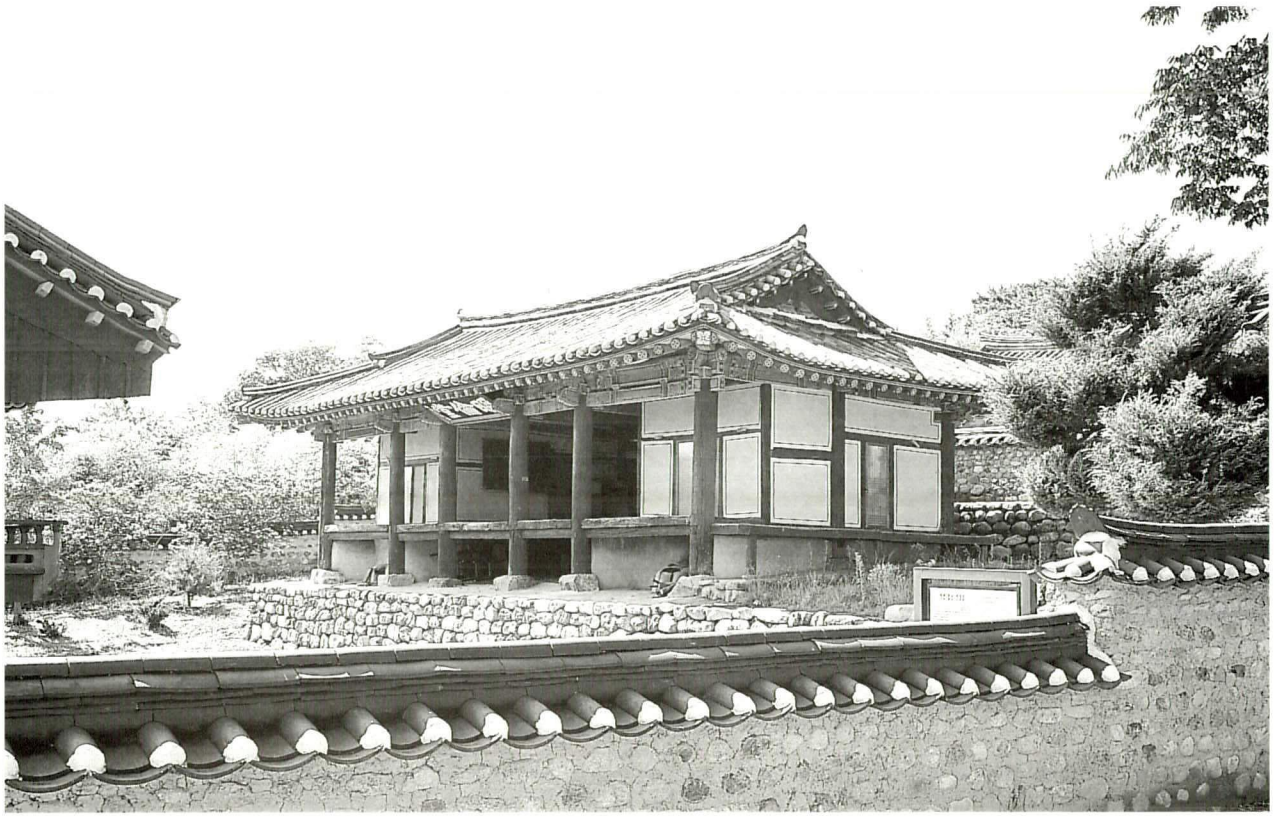
대성전 내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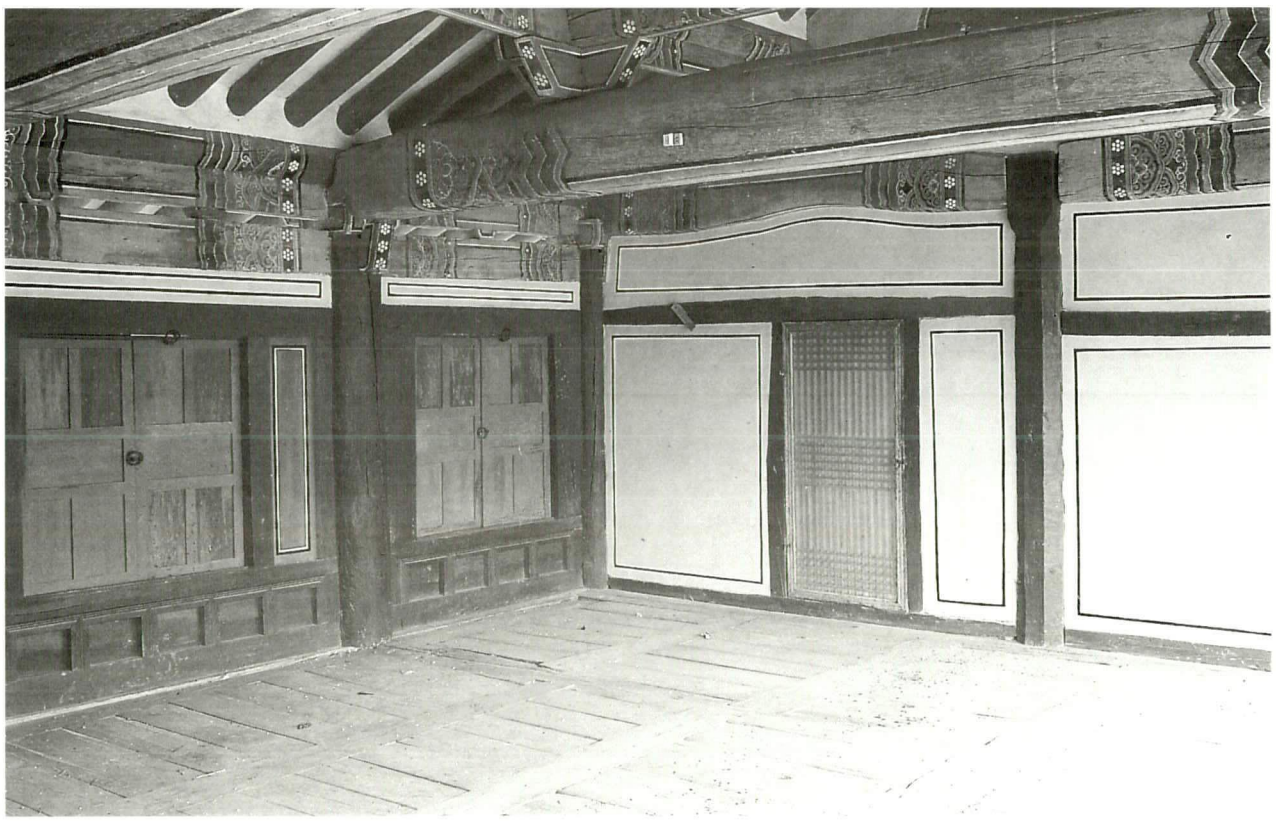
대성전 내부 중대공



대성전 내부 종대공



명륜당



명륜당 내부



명륜당 전면 어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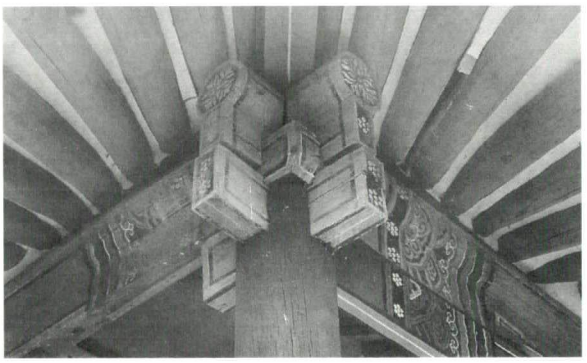
명륜당 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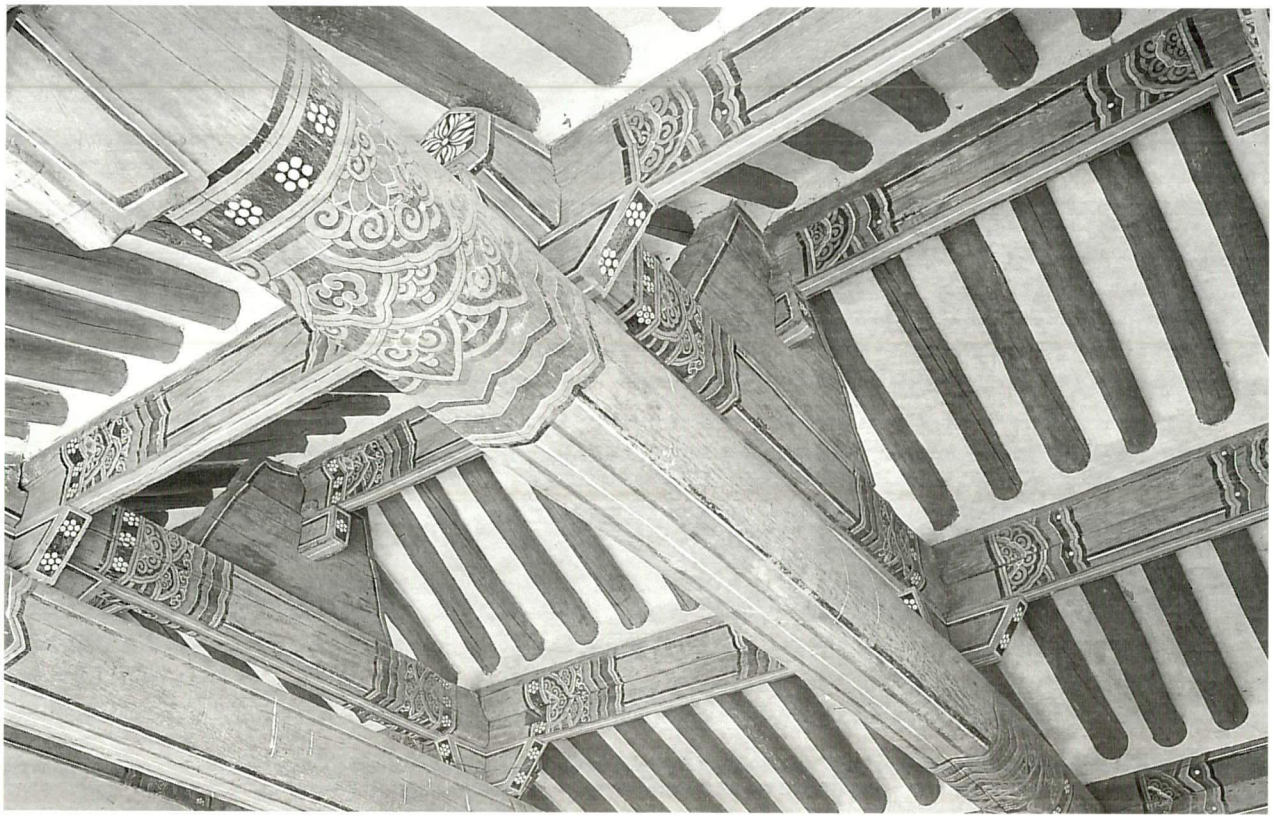
명륜당 전면 주상포



명륜당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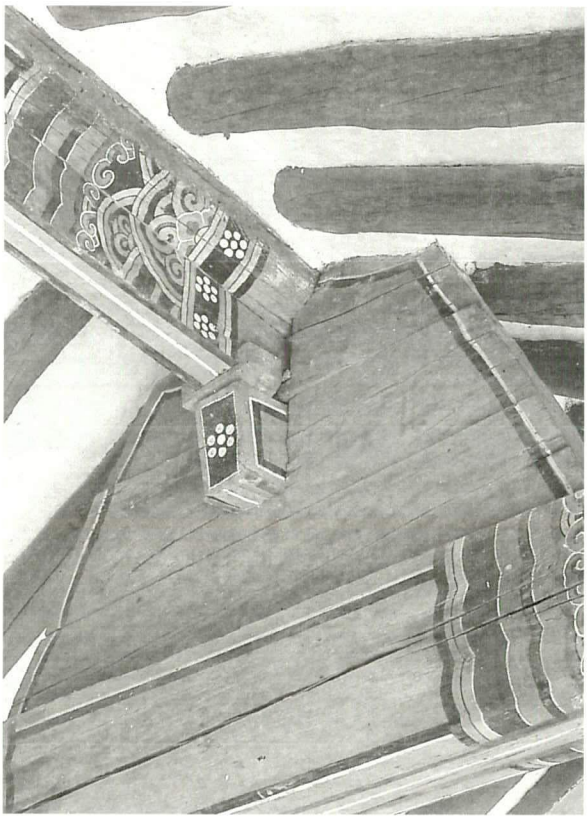
명륜당 전면 귀포



명륜당 내부 가구



명륜당 내부 중대공



명륜당 내부 종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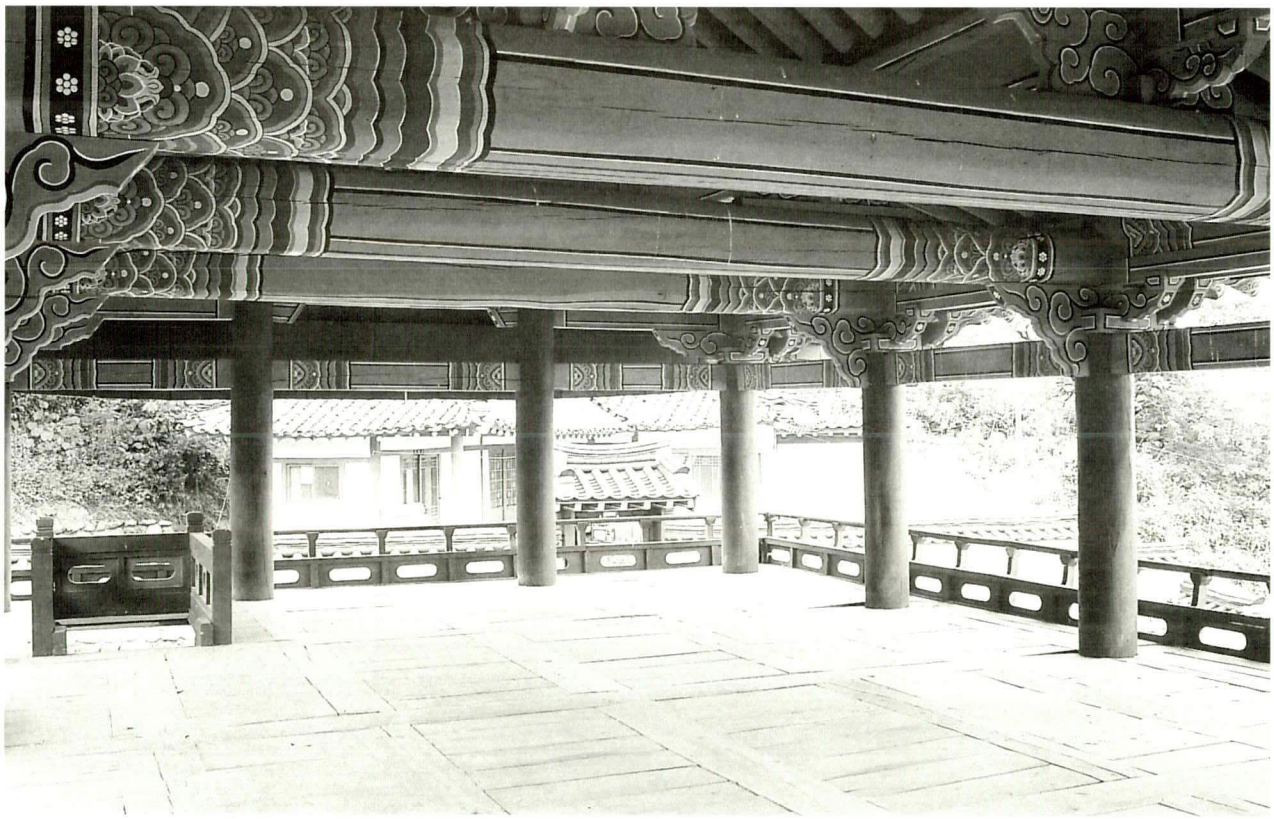
동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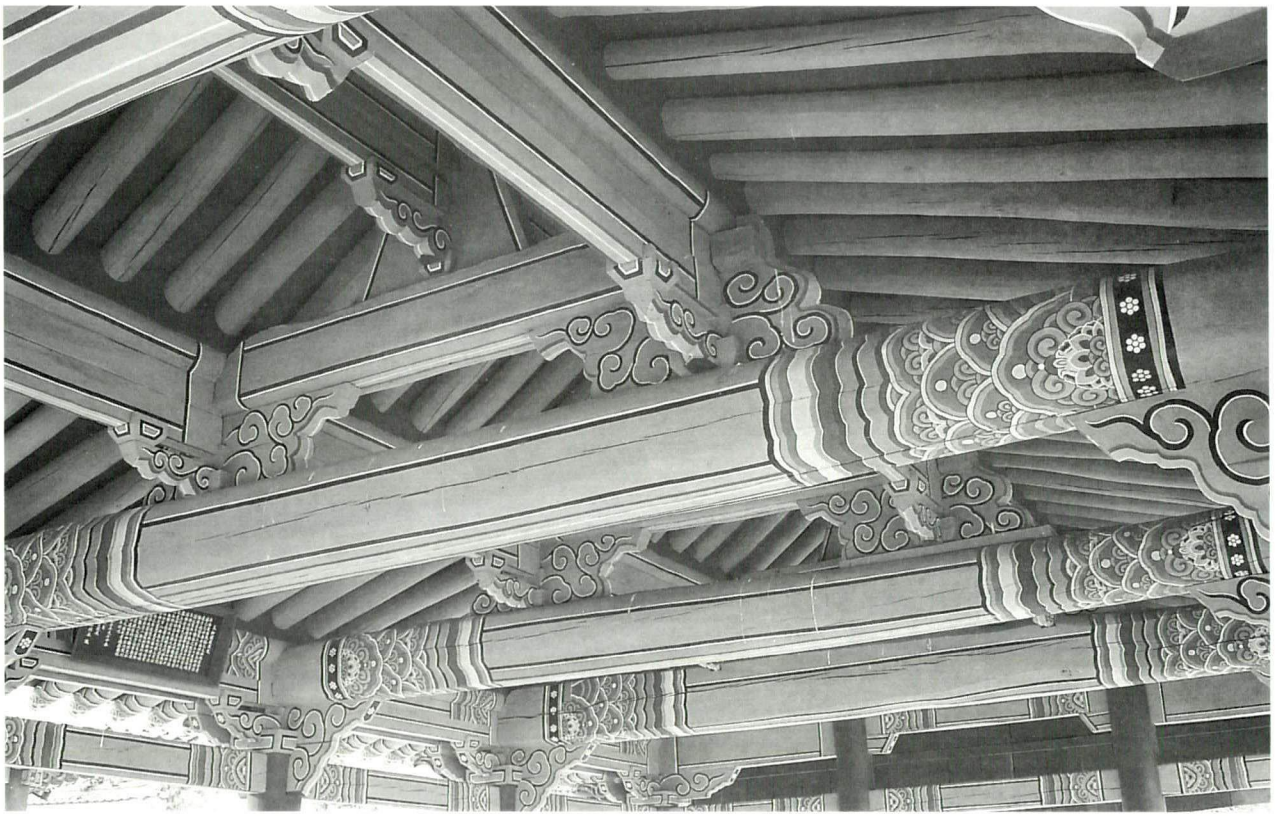
서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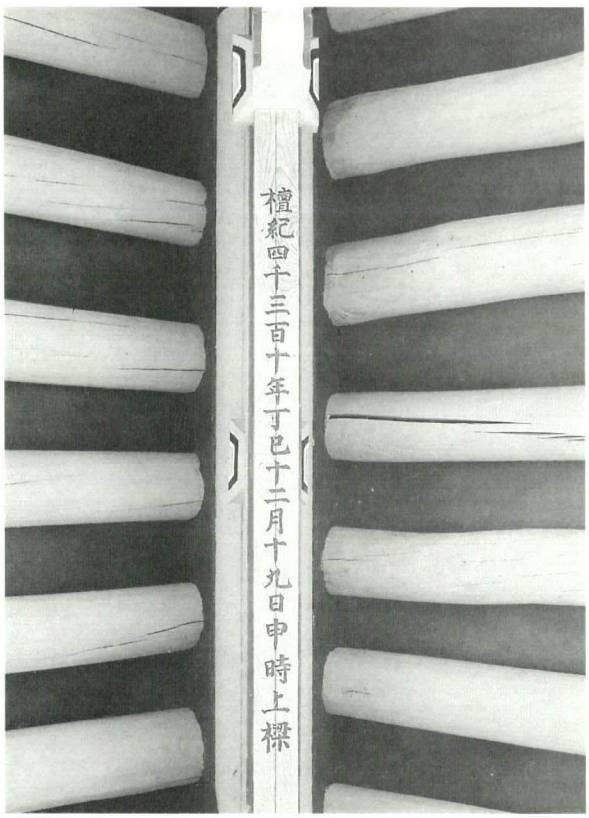
태화루



태화루 상층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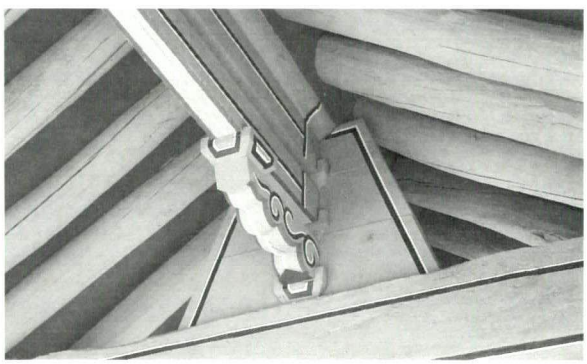
태화루 내부 가구



태화루 내부 상량묵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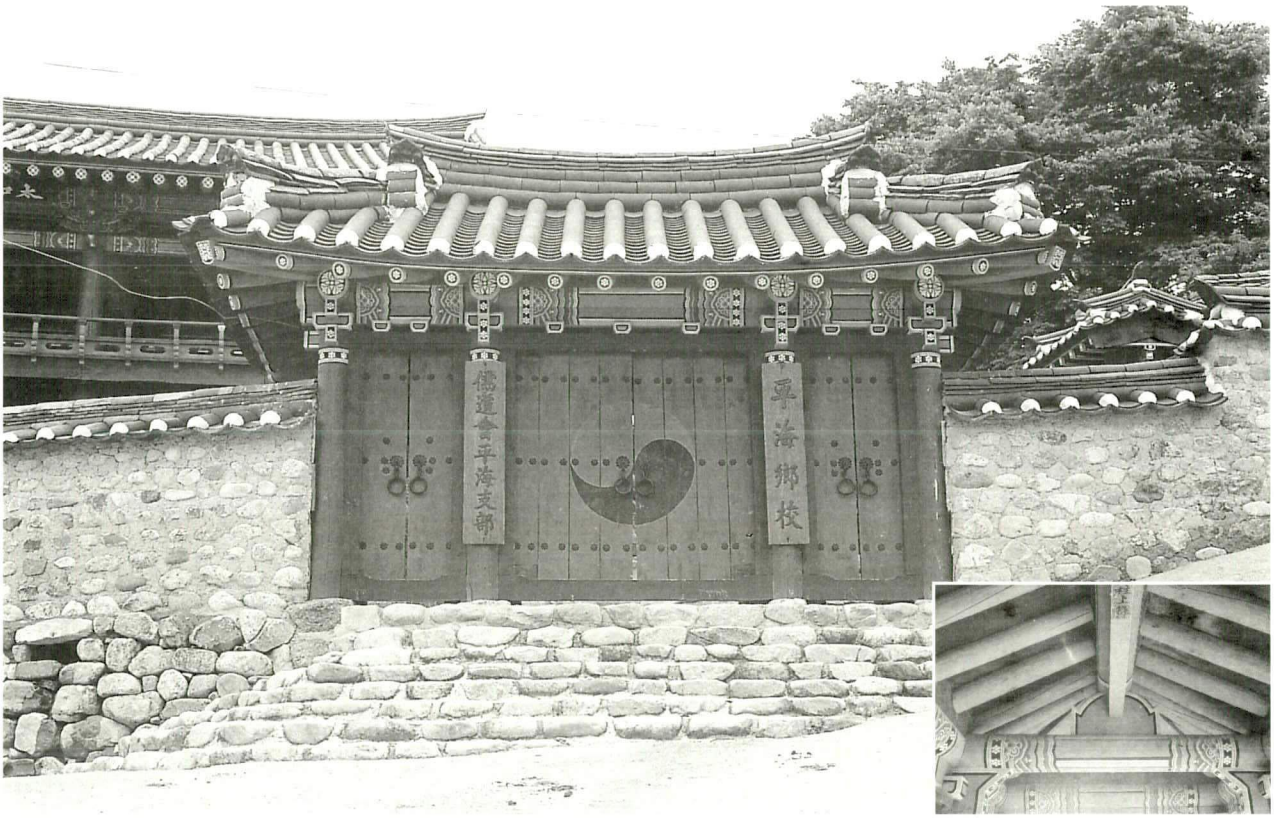
태화루 내부 중대공



태화루 내부 종대공



내삼문



외삼문



교직사 및 협문



사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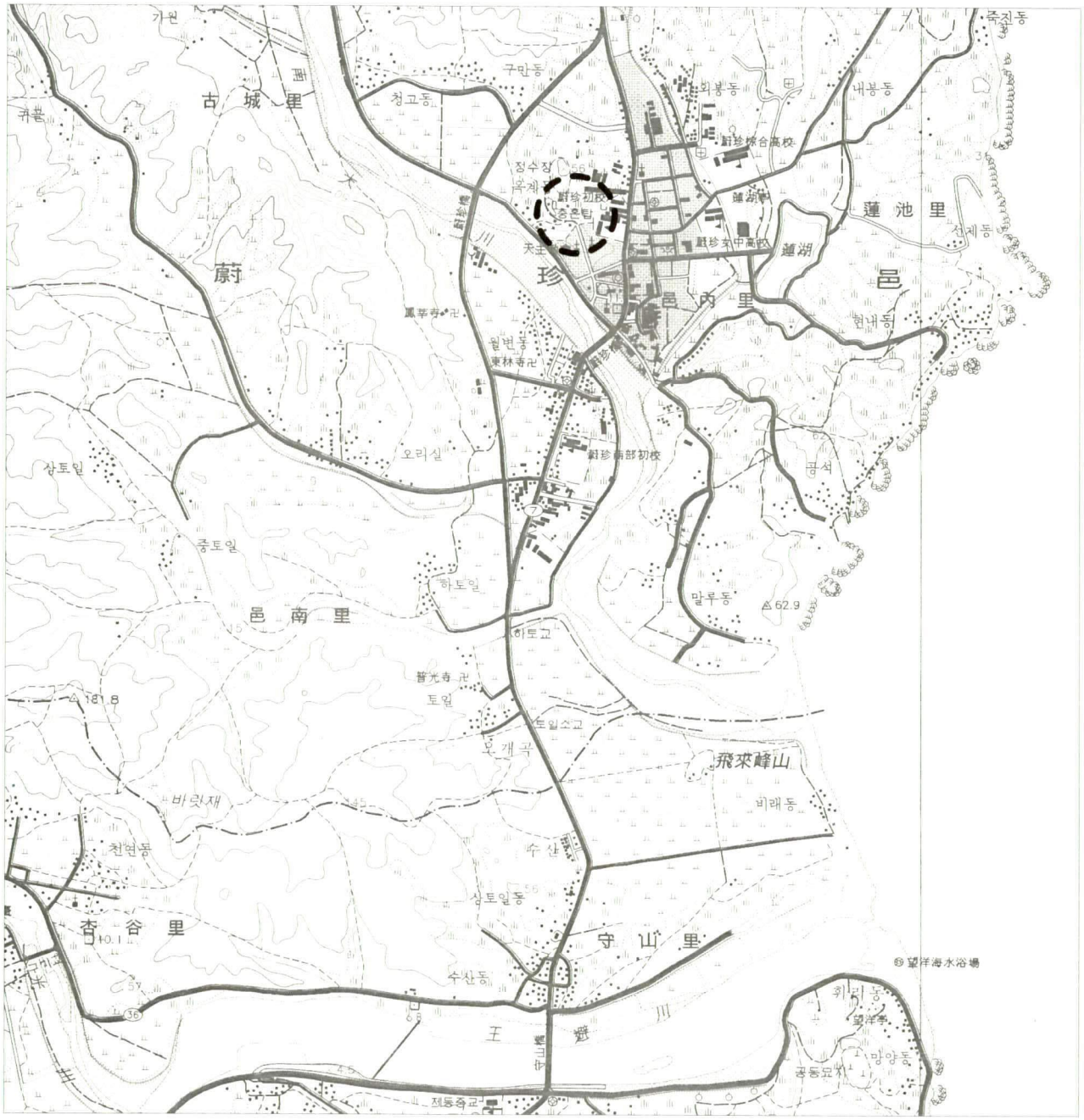
비석군



강희(康熙) 42년(1703)명 암막새

20. 울진향교(蔚珍鄕校)

- 지정사항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59호(대성전)
- 지 정 일 : 1985년 8월 5일
- 소 재 지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653-1
- 건축구성 : 대성전, 제기고, 내삼문, 명륜당, 서재, 외사주문, 교직사, 전사청, 제물고, 화장실, 협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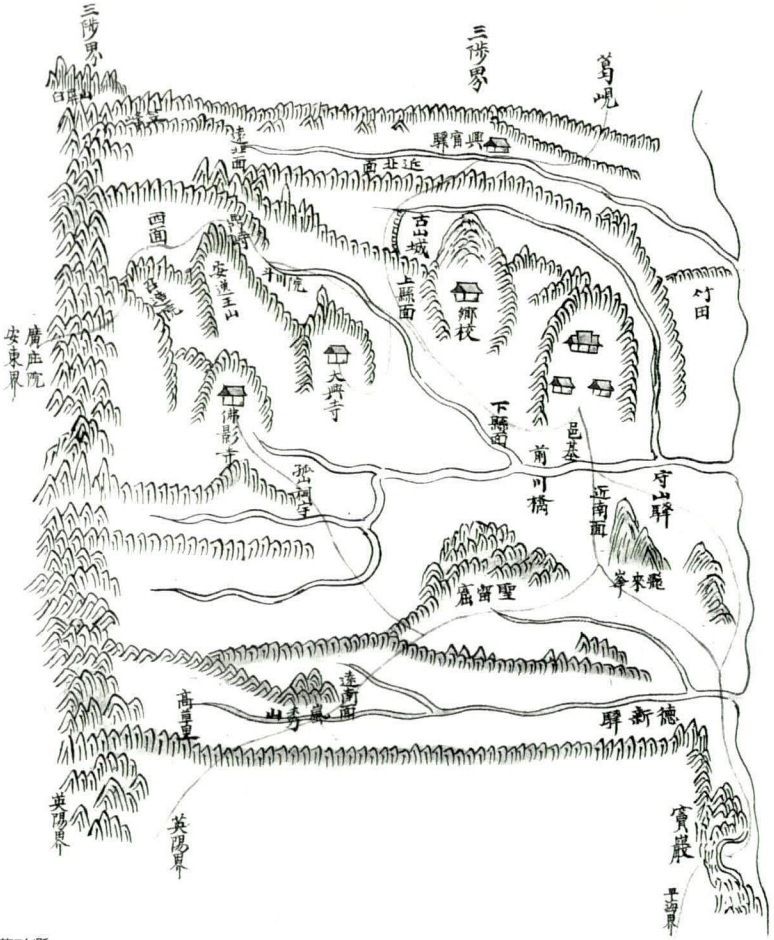
1. 연혁

우진(于珍) 등으로 불리던 울진은 삼국 통일시기에 비로소 현재의 군명으로 바뀌었다. 고려 때는 교주(交州) 또는 강릉도(江陵道)에 속한 현(縣)이었다가 충렬왕 때 군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조선 태조 1년(1392)에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면서 고려 공양왕(恭讓王)은 원주(原州)를 거쳐 간성(杆城)으로 축출 당하였다가 태조 4년에 삼척(三陟) 궁촌(宮村)에 옮겨 이수(移囚)되었다. 이에 공양왕의 차남(次男) 왕석(王奭)과 이조(李朝)에 불복한 장천영(張天永), 임제(林悌, 前 將軍), 최복하(崔卜河, 太司諫), 전생(田生, 太學生) 등이 복위코자 울진(蔚珍)을 근거지로 정하고 모의하던 중 발각되어 근왕파(勤王派) 전원이 역모(逆謀)죄로 피살되고 인근 군민들도 많이 죽음을 당하였다. 이에 따라 북삼현(北三縣)은 삼척군에, 태백현(太白縣)은 봉화군에, 수비현(首比縣)은 영양에 각각 이속되었다.

태조 5년(1396)에 왜구의 내습으로 옥숙(玉淑)읍성이 분탕(焚蕩)됨에 한성(漢城) 판윤(判尹) 조순렬(趙巡烈)의 상소로 고산성(古山城, 고성리 산성)에 산세(山勢)가 외관(外冠) 방어에 적당하다 하여 읍을 옮겼다가 중종 23년(1528)에 전 경흥부사 장백손(張伯孫)이 지세의 불리(不利)로 읍을 옮기라고 상소하여 이듬해인 중종 24년(1529)에 현령 권박(權博)이 민원(民願)에 의하여 다시 옥숙동으로 환원(還元)하였다.

명종 11년(1556)에 관찰사(觀察使) 윤인서(尹仁恕)와 현령 이언화(李彦華)가 상의하여 외적 방어상 고산성이 적합하다 하여 또 다시 산성을 수축하고 읍을 옮겼다. 선조 26년(1593)에 왜적의 침입으로 산성이 파괴되자 광해군 13년(1621)에 남홍(南鴻) 등이 상소하여 현령 이웅남(李雄男)이 옥숙동에 다시 이읍(移邑)하였다. 숙종 5년(1679)에 현령 최진품(崔震品)은 옥숙동으로 옮기는 등 많은 변천이 있었다.

고종 31년(1894) 갑신정변(甲申政變) 때에 현(縣)을 군(郡)으로 승격하고 다음 해에 전국을 23부(府)로 구분할 때 강릉부에 속하였다가, 또 다음해에는 부(府)를 폐하고 전국을 13개 도(道)로 개편할 때 강원도(江原道)에 편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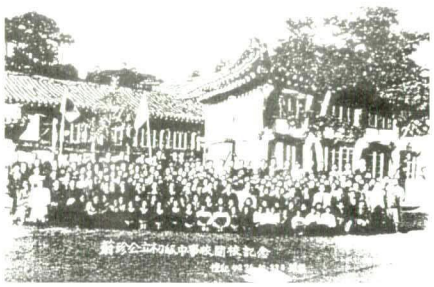


蔚珍懸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으로 평해군(平海郡)을 병합하고 8개 면(面)으로 획정(劃定)되었고, 1963년 1월 1일자로 강원도에서 경상북도로 이관(移管)되었다.

향교는 조선 성종 15년(1484)에 읍내리 월변동(月邊洞)에 건립되었다가 이후 숙종 23년(1697)에 고성리 성저동(城底洞)으로 이건하였다. 다시 고종 9년(1872)에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였으며, 1935년에 군수 최형직(崔炯稷)과 유림의 노력으로 대성전을 중수하였고, 1949년에 제기(祭器) 등을 새로 마련하였다.[1]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대성전과 동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속건물이 전부 소실되었으며, 1970년과 1976년에 담과 주사(廚舍)를 보수하였다. 1979년에 명륜당을 중건하였으며, 1989년에 제물고를 신축하였고, 1990년 대성전에 단청을 새로 하였다. 1991년부터 1992년까지 2년간 제향영역을 정비하였으며, 1992년에 서재를 신축하였다. 1993년에는 교직사와 명륜당을 보수하면서, 대성전 동편 담도 함께 보수하였다. 1994년에는 대성전을 번와보수 하였으며, 1995년에는 명륜당과 대성전에 단청하고, 제기고를 이전 및 보수하였다.

해방 이후 사진자료[2]에 의하면 학교로 사용되었던 중층누각 건물인 태화루(泰和樓)가 현재 향교 앞 민가 건립 지역에 자리잡고 있었으나, 현존하지 않는다. 한편 명륜당 내에는 '勸奬文(권장문)'[3], '聖廟重修記(성묘중수기, 戊寅孟秋)', '重修記(중수기, 戊寅季秋)', '鄕校重修記(향교중수기, 壬戌)' 등 소수의 기문이 걸려 있다.


해방 이후(1946) 당시의 울진향교

창건 이후의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84	창건
1697	이건
1872	현 위치로 이건
1935	대성전 중수
1949	제기(祭器) 마련
1950	대성전과 동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속건물 전소(全燒)
1970	향교 일곽 담, 주사 보수
1976	향교 일곽 담, 주사 보수
1979	명륜당 중건
1989	제물고 신축
1990	대성전 단청

1)_ '校宮紀功記(교궁기공기)', 기문 말미에 '檀紀四千二百八十二年己丑八月' 이라 되어 있다.

2)_ 1946년에 촬영된 것으로, 명륜당 앞에 중층의 팔작지붕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 6월 보완촬영 중 울진향교 전교로부터 취득한 사진이다.

3)_ 기문 말미에 '崇禎後再辛亥秋七月下浣' 이라 되어 있어 영조 7년(1731)의 것임을 알 수 있다.

1991-1992 제향영역 정비
1992 서재 신축
1993 교직사, 명륜당, 대성전 동편 담 보수
1994 대성전 번와보수
1995 명륜당, 대성전 단청 및 제기고 이전 보수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는 대성전, 제기고, 내삼문, 명륜당, 서재, 외사주문, 교직사, 전사청, 제물고, 화장실, 협문 등으로 되어 있다.

2. 입지 및 배치

울진향교는 읍내 농협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다리 건너가기 전에 다시 우회전하여, 강변을 따라 비포장 길을 약 100여m 가다보면, 우측 골목 막다른 끝에 자리잡고 있다.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대성전과 서재를 제외하고 전소되었는데 1979년에 명륜당을 중건하였다. 월앙산(月仰山) 기슭에 남향하여 자리잡고 대성전을 북쪽 높은 곳에 두고 전(殿)의 동편에 단칸 규모의 제기고(祭器庫)가 있으며, 대성전의 정면에 내삼문을 두어 제향영역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내삼문의 남쪽에 명륜당을 두고 정면 서쪽에 사주문을 두어 향교의 정문으로 삼고 있다.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방식이다. 현재 전사청, 교직사, 제물고 등이 별도의 영역을 구성하고 있으며, 외사주문으로부터 이어지는 전돌로 만든 답도(踏道)가 명륜당 측면과 후면을 거쳐 내삼문 앞으로 이르고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전면 5칸, 측면 3칸 규모에 전면에 개방형 퇴칸을 둔 익공계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전면에서 어칸을 다른 칸에 비하여 1척 가량 넓게 하였고, 측면에서는 어칸의 칸살이 전후 퇴칸 칸살의 3배 정도로 매우 넓게 되어 있다.

강돌로 4단을 정연하게 쌓은 축대 위에 시멘몰탈로 마감하여 기단으로 삼고, 그 위에 전면은 운두가 높은 원형 주초를, 후면은 덤벙주초를 놓고 흘림이 약한 원주를 세웠다. 문얼굴의 구성은 정면 가운데 3칸에 문얼굴을 내어 문을 달고 있는데, 어칸은 쌍여닫이 궁널띠살문을 달고 양 협칸은 외여닫이 궁널띠살문을 달아 놓았으며, 양 측칸은 창호를 내지 않고 벽체로만 구성하였다. 또한 측면 어칸에 띠살로 한 광창(光窓)을 달아 들어열개로 하였다.

기둥머리에는 창방을 짜 돌리고 전면에만 원형의 화반을 1개씩 놓았다. 공포의 구성은 전면에는 2익공, 배면에는 초익공으로 처리하였는데, 전면 익공의 살미는 앙서로 하여 길게 빼내고, 단부는 사절하고 연봉을 첨가시킨 형태이다. 배면은 초익공으로 하여 초각하지 않은

판재를 사용하였다. 첨차는 하부를 초각하고 마구리는 둥글게 처리하여 전면에만 두었다.

가구 구성은 어칸에서 1고주, 측벽에서 2고주 7량가로 하였는데 2주열의 고주는 평주로 처리하여 대들보를 올려 고주 바깥으로 보머리를 돌출시킨 다음 툇보 뒷뿌리를 결구하였다. 특이한 점은 대개 이익공 구성에서 이익공재의 내단은 초익공재 내단과 함께 툇보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여기서는 툇보의 단면이 익공재와 동일하여, 이익공재의 내단을 초각하지 않고, 툇보와 같이 고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들보 위에는 중대공으로 방형의 보방향 판재를 놓아 중보를 올리고, 다시 그 위에 중대공과 같은 형태의 중종대공을 놓아 종보를 받고 있다. 종량 위에는 제형판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치고 있으며, 소설위 향교로서는 잘 채택하지 않는 7량가의 건물이나 건물높이는 높지 않은 편이고 장식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매우 소박한 구조를 하였다. 대들보와 중보 사이에 원형의 판재를 끼워 놓았는데 이것은 중보가 길어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잘 견디게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판단된다.

지붕은 겹처마의 맞배지붕으로 하고 양 측면에는 풍판을 달았다. 바닥은 장마루를 깔았으며, 건물 전면 어칸 상부에 '大成殿' 현판을 달았다. 모로단청으로 마무리하였으며, 강릉향교와 같이 기둥 하부를 흰색으로 처리하였다.

(2) 제기고(祭器庫)

제기고는 대성전 오른편에 자리잡고 있으며, 사방 단 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단층 기단 위에 덤벙 주초를 놓고 두툼한 원형 기둥을 세웠다. 전면에 외짝 띠장널문을 달고, 내부는 우물마루를 꾸몄다. 3량가의 가구에, 벽체는 심벽으로 두고, 석간주가칠로 마무리하였다. 제기고가 대성전과 이웃하여 같은 축대 위에 병렬로 놓이는 사례는 그리 흔치 않은 경우이다.

(3)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전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솟을삼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단층 기단의 전면에 통칸으로 7단의 장대석 계단을 놓았으며, 거칠게 방형으로 다듬은 초석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웠다. 각 칸 전면에 두 짝 판문을 달았으며, 어칸 판문 상부에는 장혀와의 사이에 태극문양이 도채된 화반 1개가 중앙에 놓여있다. 가구는 3량가로 대공 없이 대들보 중앙에 종도리 장혀와 종도리를 얹었으며, 긋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어 후에 새로 지은 건물이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전면 4칸, 측면 3칸 규모에 전면에 개방형 퇴칸을 둔 익공계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중앙 2칸을 마루로, 좌우 협칸을 온돌방으로 하고 전퇴칸에는 마루를 구성하였다. 지형차로 인하여 생성된 축대에 걸쳐 건물이 자리하고 있어, 전면(前面)은 중층 누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정면과 측면에 계자각 난간을 두르고, 서측면 중간에 2단의 계단을 두어 오르내리게 하였으며, 방 배면 상부에는 벽장을 달아 내었다. 한편 동실 후면 벽장 하부에는 시멘 블록으로 보일러실을 가설하였다.

이러한 층단 기단 위에 원형 주초를 놓고 원형 기둥을 세우고, 전면의 기둥은 상하층 별재(別材)이다. 좌우 실 전면과 측면, 마루 후면 각 칸에는 각각 두 짝 세살문을 달고, 가운데 두 칸의 전면에는 사분합문을 두었다. 또한 좌우 실의 마루측 벽체에도 두 짝 세살문을 달았으며, 마루쪽 창호 상부에는 귀갑(龜甲)살 광창(光窓)을 달았다.

기둥머리에는 이익공을 구성하였으며, 초익공은 외단을 앙서로, 이익공은 짤막한 쇠서로 처리하였다. 그 위에 결구된 단면이 원형인 툇보의 머리는 직절하여 태평화를 그려 넣었고 주간에는 소로를 수장하였다.

가구는 어칸에서 1고주 5량가로 되어 있으며, 대들보 3분변작의 위치에 원형 동자주를 세우고 짤막한 보방향 보아지와 장혀를 놓고 종보를 올린 다음 도리방향 첨차와 제형판대공을 세워서 종도리를 받게 하였다. 특이한 것은, 전면 고주에서 대개의 경우 고주 머리에 종보와 중도리를 놓아 장연과 단연을 받게 하는데, 여기서는 따로 고주 안쪽에 중대공을 다시 놓았고, 고주상부와 서까래 사이는 심벽을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지붕은 사면을 겹처마로 처리하였으며, 모로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또한 내부 대들보 중앙에는 용(龍) 문양 등을 그려 넣었으며, 외부 창호 상인방 이하의 벽체 외면에는 황색을, 위에는 청색을 덧칠하였다.

원래의 건물은 한국전쟁 당시 전소되었으며, 중층 누각이었다고 한다.

(2) 서재(西齋)

서재는 전면 3칸, 측면 1칸 반 규모에 전면에 반 칸 툇칸을 둔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단층 기단 위에 덤벙 주초를 놓고 그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웠다. 어칸은 당(堂)으로 두고, 좌우에 실(室)을 두었다. 실 전면과 당측벽에는 두 짝 세살문을 달았으며, 당 후벽에는 두 짝 판문을 달았다. 가구는 3량가로 되어 있으며, 가칠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3) 외사주문(外四柱門)

외사주문은 향교 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방 단 칸 규모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따로 기단을 두지는 않았으며, 원형 초석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워 기둥머리에 3익공을 구성하였는데 주두를 놓지 않은 변형된 기법이다. 초익공재는 창방머리로 외단을 앙서로 꾸몄고, 이익공재는 첨차의 외단이며, 삼익공재는 장혀의 외단으로 봉황두로 초각하였다. 보머리는 직절하였으며, 주간에 화반을 놓아 익공형식을 추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면에 두 짝 판문을

달았고, 내부 바닥에는 전돌을 깔았으며, 상부는 반자를 꾸몄다.

단 칸 규모인데도 팔작지붕을 꾸미고, 추녀도 알추녀를 사용하는 등 작지만 견고하게 잘 지어진 건물로, 전면 상단에 '蔚珍鄕校' 현판을 걸었다.

다. 기타

기타 건물로는 교직사(校直舍)와 전사청(典祀廳), 그리고 제물고, 화장실 등이 있다.

교직사는 내삼문 서편, 제물고 후면에 자리잡고 있으며, 전면 4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가운데 2칸과 우측 협칸 전면에 덧마루를 달았으며, 좌측 협칸은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운데 2칸을 통칸으로 하였으며, 후면을 반 칸 씩 덧달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방 전면에는 각각 두 짝 세살문을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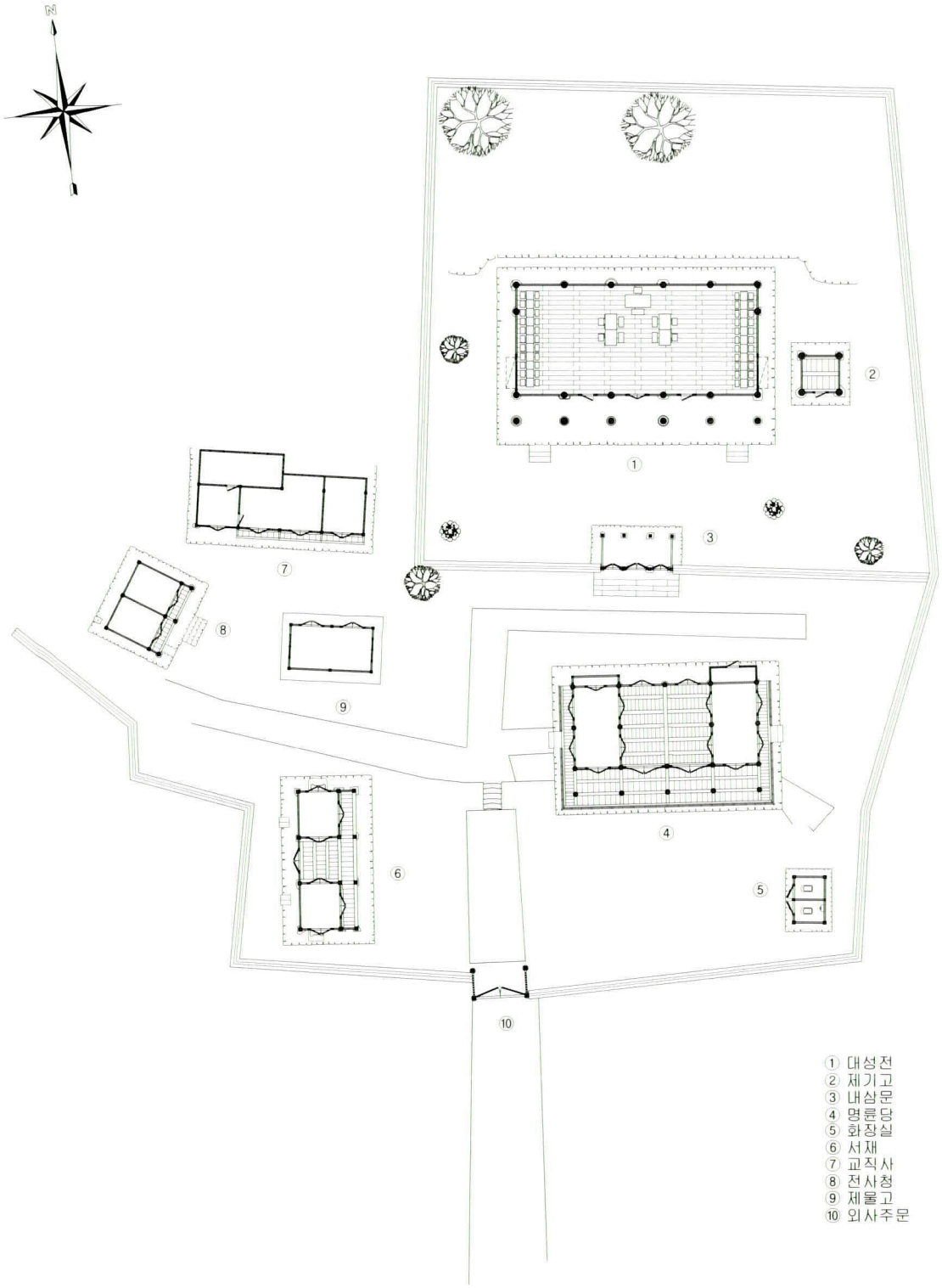
전사청은 향교의 가장 서편에 자리잡고 있는데, 현재의 서재 건물이 지어지기 전 서재(西齋)로 사용되었으며, 전면 2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강돌로 3단을 쌓은 단층 기단 위에 덤벙 주초를 놓고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웠다. 전면에서 두 척 정도 뒤로 물러 간략하게 샛기둥을 세우고 툇칸을 구성하여 마루를 두었다. 각 칸 전면에 두 짝 세살문을 달았으며, 벽체는 심벽으로 두었다. 3량가의 가구로 동자주를 놓아 종도리를 받았으며, 좌측칸 전면에 아궁이를 두고 후면에 굴뚝을 내었다. 모로단청 하였으며, 작은 규모이나 측면 칸살을 넓게 하여 큼직한 느낌을 주고 있다.

제물고는 명륜당 왼편에 자리잡고 있으며, 전면 2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내부는 통칸으로 되어 있으며, 단층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시멘몰탈로 마감하였다. 북측면이 전면으로 각각 두 짝 세살문을 달았다. 3량가의 가구에 동자주를 놓고 종도리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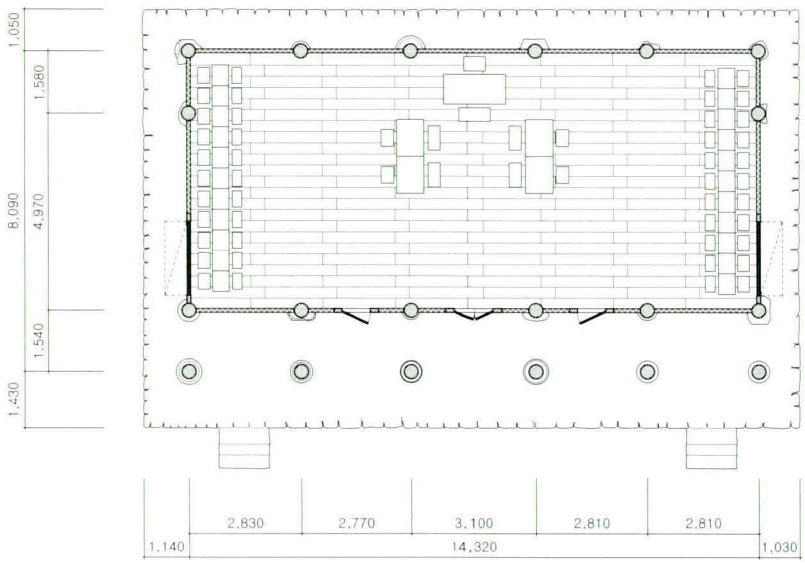
화장실은 명륜당 전면 동측에 자리잡고 있으며, 사방 단 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원래 동재가 있었던 곳이며, 건물은 단층 기단 위에 작은 방형 주초를 놓고 그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워 3량가를 구성하였다. 내부는 둘로 나뉘었으며, 숫막새를 얹고 가칠단청하였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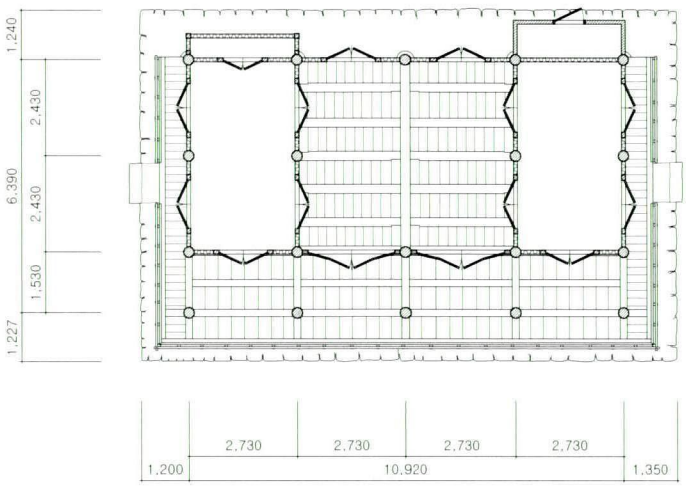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울진향교(蔚珍鄕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59호(대성전)
창건시기	조선 성종 15년(1484)	입 지	구릉지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향교재단
좌 향	남향 (대성전 · 명륜당 向 S5°W)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齋後堂 종축 2개
중건시기	1697 이건 1872 현 위치로 이건 1979 명륜당 중건	대지조성	2단 : 내삼문 기준
설 위	5聖, 宋朝 4賢, 海東 18賢	인접시설	없음
건축구성	대성전, 제기고, 내삼문, 명륜당, 서재, 외사주문, 교직사, 전사청, 제물고, 화장실, 협문 등		
특기사항	대성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은 모두 한국 전쟁이후 중건 혹은 신축되었음 외사주문에서 창방과 장혀, 도리를 이용하여 외관상 3익공을 구성함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5×3칸, 전1퇴칸 / 전면 2익공, 후면 초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1고주(어칸) · 2고주(측벽) 7량가 / 전돌 / 연등천장 주고 2640 / 어칸 3100 / 수장폭 90 / 도리단면 Ø=270전후 / 보단면 : 대들보 500×500, 종보 270×240 처마내민길이 전면 1780, 후면 1550 / 기단높이 : 전면 900, 후면 90 / 초석크기 Ø=540전후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네벌대 / 막돌 바른층쌓기 전면 2개(각 3단)	보	대들보 : 전고주 후평주 걸침(어칸)
초 석	정평주초 / 원형 주좌	도 리	7량 / 굴도리
기 둥	원형 기둥	대 공	중대공, 중종대공 : 판대공 종대공 : 제형판대공
공 포	이익공 / 툇보머리 초각	창 방	방형 / 뺄목 직절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심벽 / 모로단청 / 연등천장 / 전돌		
특기사항	툇보의 단면이 익공재 단면과 유사함 이익공재 내단이 초각되지 않고 뒤로 뻗어 고주 몸에 결구됨		
명륜당 건축 요소			
개 요	4×3칸 / 이익공 / 겹처마 팔작지붕 / 5량가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지반자 주고 3620 / 주칸 2720 / 수장폭 90 / 도리단면 Ø=240 / 보단면 : 대들보 370×370, 종보 350×350 처마내민길이 2200 / 기단높이 : 전면 1350, 후면 150 / 초석크기 Ø=450 전후		
기 단 계 단	층단기단 측면 1개 (1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3분변작
초 석	정평주초 / 원형 초석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대 공	중대공 : 동자주 종대공 : 제형판대공
공 포	이익공 / 보머리 직절	창 방	방형 / 뺄목 초각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 붕	팔작지붕
수 장	심벽 / 모로단청 / 堂 : 우물마루 · 연등천장, 室 : 온돌 · 지반자		
특기사항	전측면에 계자각 난간을 둘렀으며, 상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측면에 두었음 경사를 이용한 층단 기단으로 전면은 중층 누각으로 구성함 전면 고주열과 중대공이 각각 독립하여 서까래와 고주 사이에 벽체를 구성함		



울진향교 배치도



울진향교 대성전



울진향교 명륜당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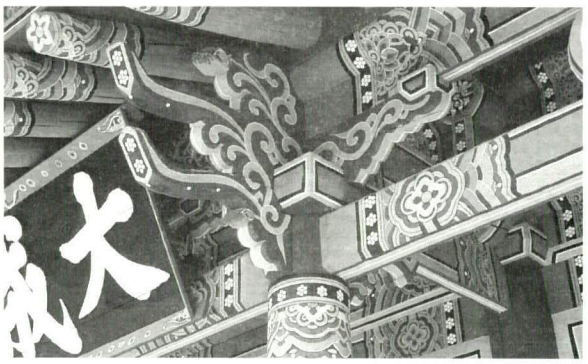
대성전 내부



대성전 전면 창호



대성전 전면 평주



대성전 전면 주상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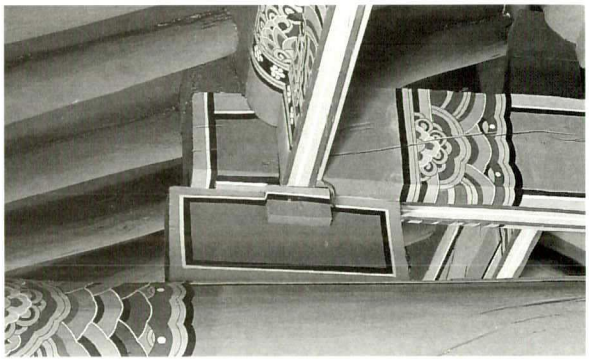
대성전 전면 귀포



대성전 내부 가구



대성전 내부 전면 대들보 결구



대성전 내부 중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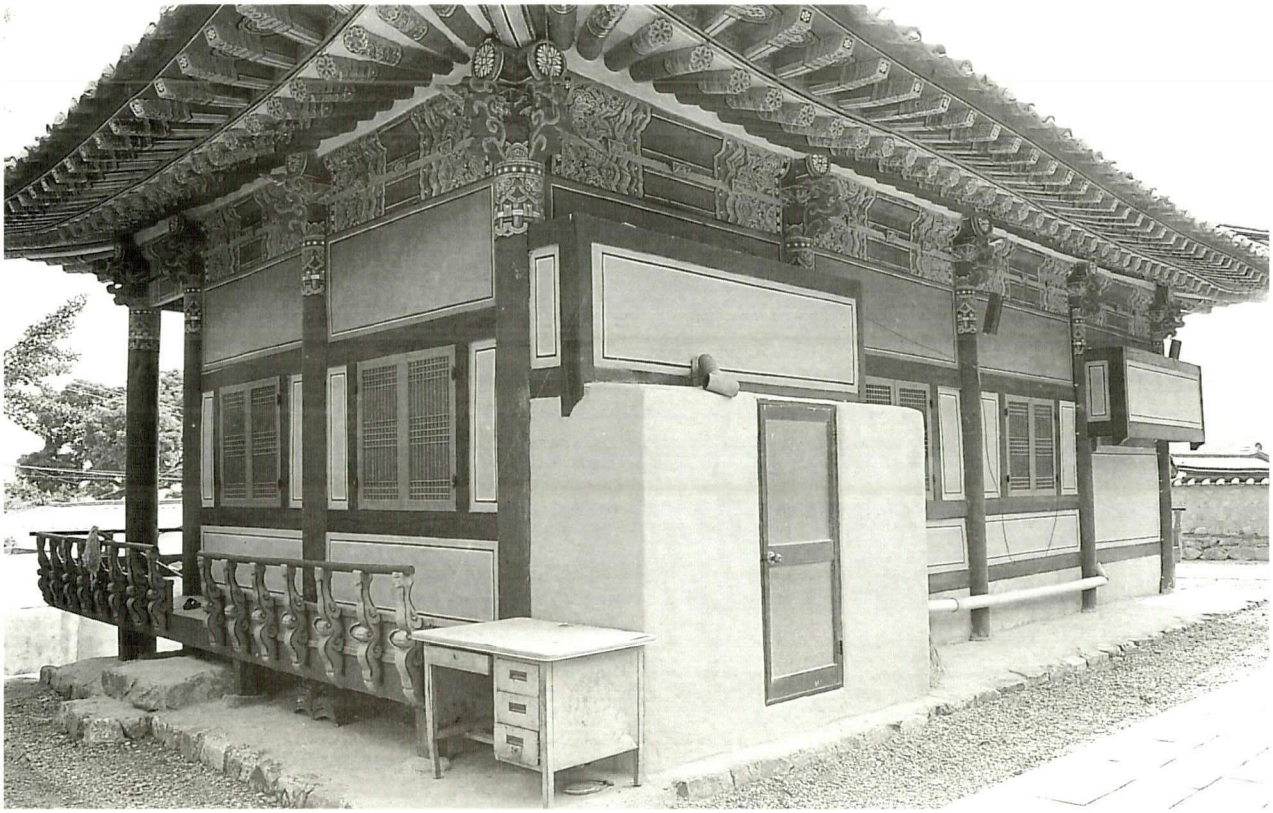
대성전 내부 종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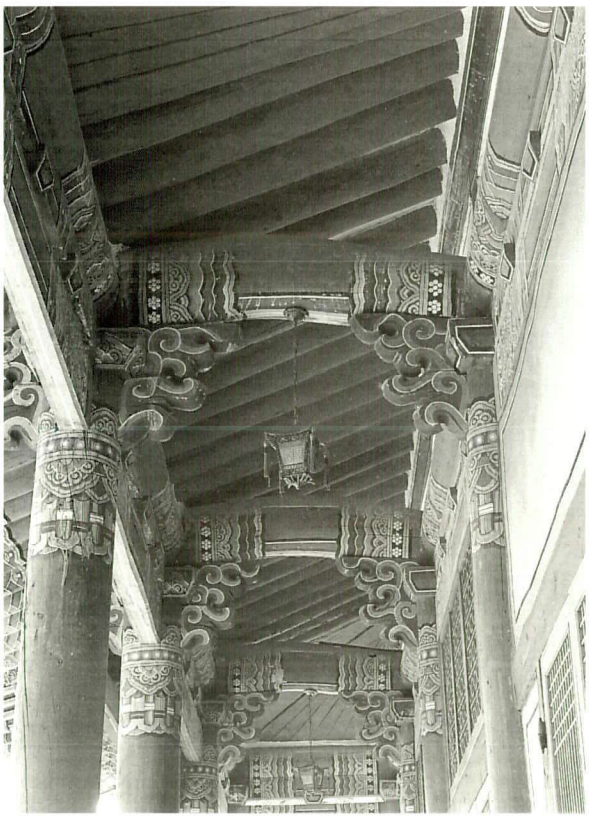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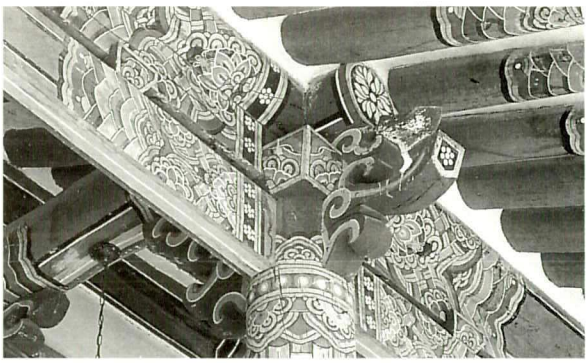
명륜당 내부



명륜당 측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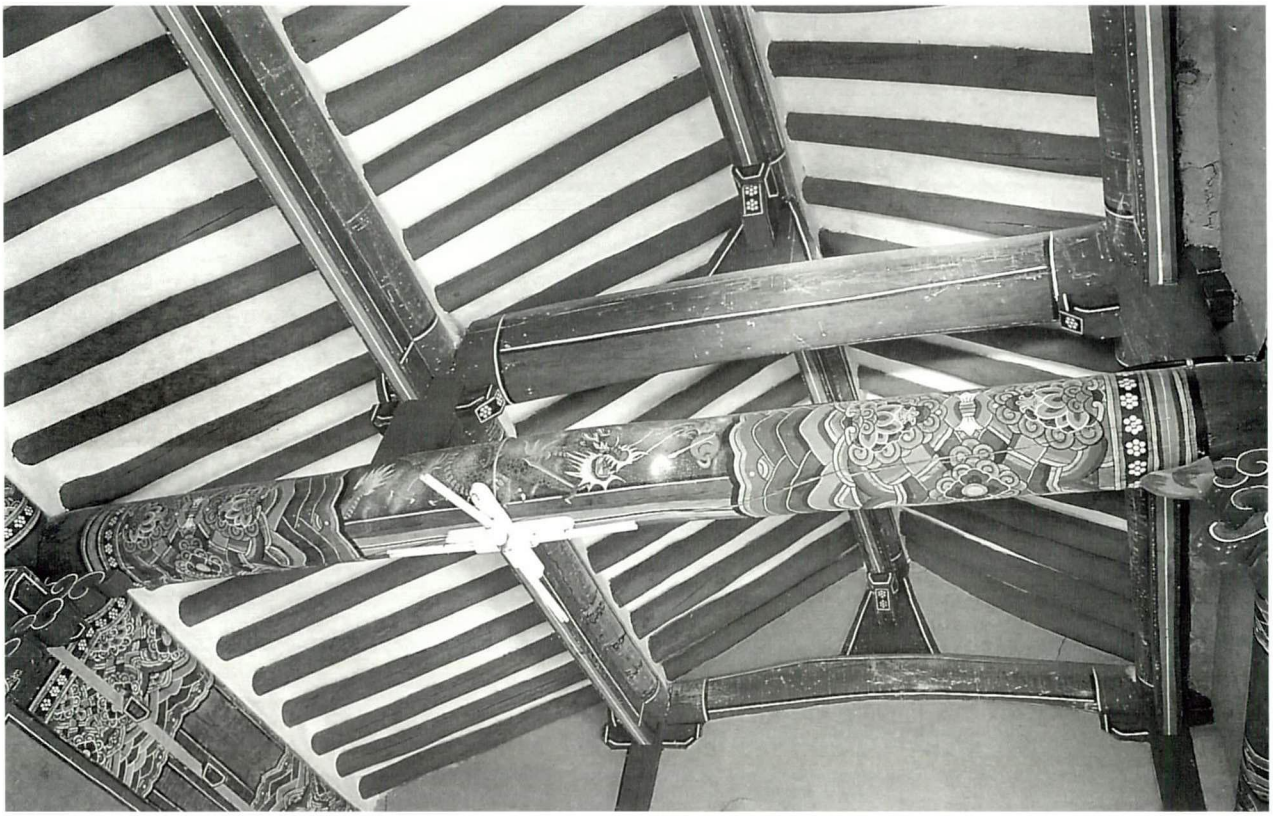
명륜당 전면 퇴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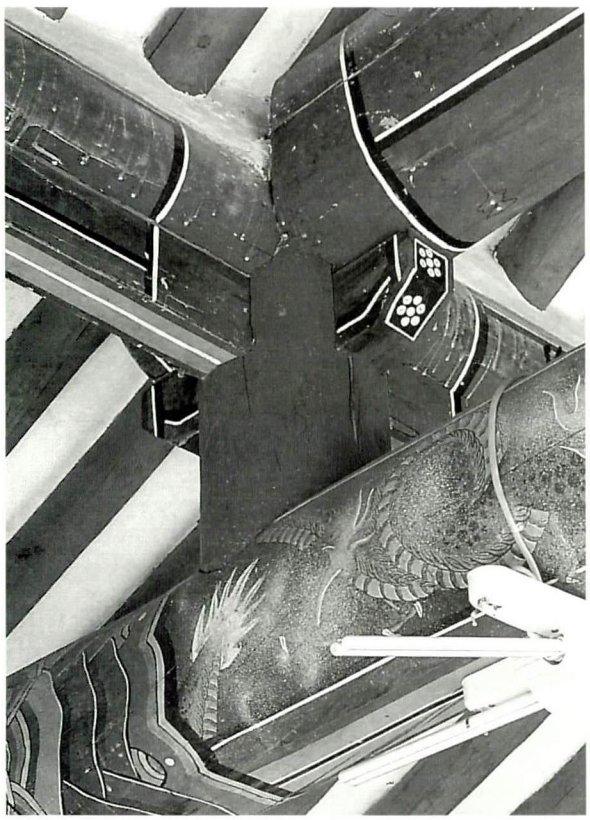
명륜당 전면 주상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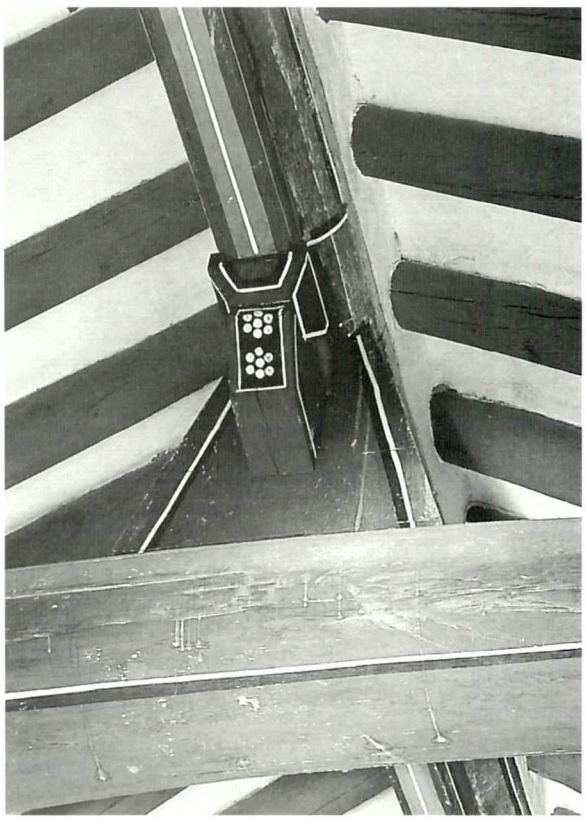
명륜당 전면 귀포



명륜당 내부 가구



명륜당 내부 중대공



명륜당 내부 종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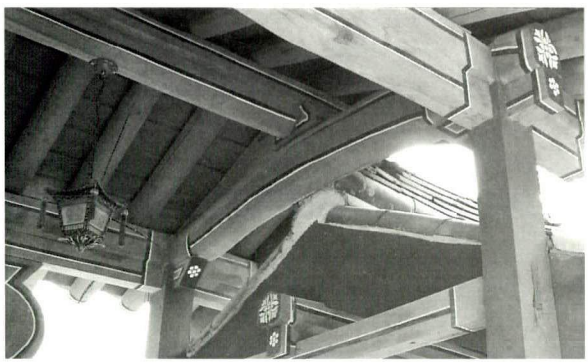
제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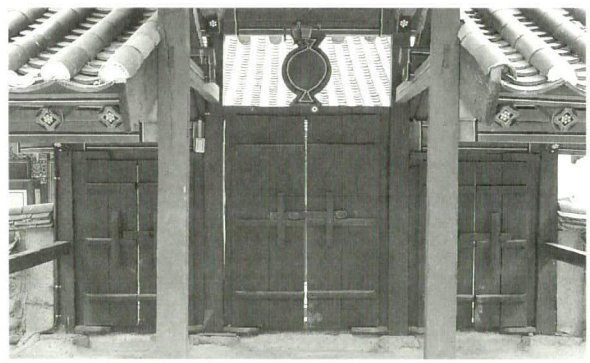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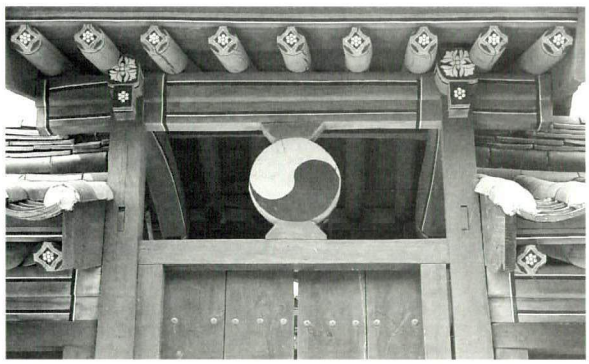
서재



내삼문


내삼문 가구


내삼문 창호 후면


내삼문 전면 화반


내삼문 후면 초석



외사주문



교직사



전사청



제물고



화장실

참고문헌

● 고문헌 및 향교지

「東京雜記」『韓國名著大全集』, 大洋書籍, 1972

慶州鄕校, 『慶州鄕校誌』(增補版), 慶州鄕校, 2002

善山邑誌

新增東國輿地勝覽

蔚珍鄕校, 『蔚珍儒道會誌』, 蔚珍文化院, 2000

平海鄕校, 『平海校誌』 上, 下

● 단행본 및 논문류

- 논문

김지민, 『鄕校建築의 營造規範에 關한 硏究』,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1983

조영화, 『慶北地域 鄕校建築에 關한 硏究』,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1987

- 단행본

경상북도, 『文化財大觀(Ⅲ)』有形文化財·無形文化財編, 경상북도,

慶尙北道·嶺南大學校, 『慶北鄕校誌』, 1991

국립문화재연구소, 유교건축총서 제1집 『서울·경기도의 향교건축』, 2000

국립문화재연구소, 유교건축총서 제2집 『강원도의 향교건축』, 2001

국립문화재연구소, 유교건축총서 제3집 『경상북도의 향교건축-남서부편』, 2002

김왕직, 『그림으로보는 한국건축용어』, 도서출판 발언, 2000

김지민, 『한국의 유교건축』, 도서출판 발언, 1997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사』, 기문당, 1996

文化財管理局, 『한국의 향교건축』, 1998

文化財廳, 『문화재수리공사보고서』, 1988~2002

보인회, 『校宮記集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3

成均館, 『校宮大觀』, 成均館, 2003

儒敎辭典編纂委員會, 『儒敎大辭典』, 博英社, 1990

장기인, 『木造』韓國建築大系Ⅴ, 보성각, 199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2

-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永川鄕校大成殿 實測調査報告書』, 2001

문화재청, 『永川鄕校大成殿 修理工事報告書』, 2001

Abstract

Traditional Public Schools and Confucian Shrines Architecture(*hyanggyogunchuk*, 鄕校建築) in Gyeongsangbukdo Province, Korea

Northern and Eastern Regions

(The Fourth Research Report of Confucian Architecture in Korea)

Introduction

From the late Goryo dynasty (918-1392, 高麗) to the Joseon dynasty (1392-1910, 朝鮮), a public school (hyanggyo, 鄕校) was built in each county and prefecture in Korea. It was a government policy to promote Confucianism that was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ruling class.

The school consisted of two parts: studying and ritual areas. The former was a public school and the latter a Confucian shrine.

The Confucian shrine was for memorial services, consisting of four buildings: a main hall (*daesungjeon*, 大成殿, a shrine for Confucius and his disciples), two flanking halls (east hall, dongmu, 東廡 and west hall, *seomu*, 西廡, shrines for famous Confucian scholars), and an inner-gatehouse (naesammun, 內三門).

The school consisted of four buildings: a lecture hall (myeongryundang, 明倫堂), two flanking buildings (the east, *dongjae* 東齋 and the west, *seojae* 西齋) as well as an outer gatehouse (oesammun 外三門). The two flanking buildings (Dongjae and the Seojae) are dormitories on the east and the west accommodating a number of students.

Other facilities in the Hyanggyo include administration office (Gyojiksa, 校直舍) for the school managers, and a two-storied pavilion near the main gate of the Hyanggyo for resting and poetry meeting.

1. The Hyanggyo in Gyeongju (慶州鄕校)

Located in Gyeongju, this is an architectural complex designed as No.191, Tangible Cultural Property of Gyeongsangbukdo Province. The complex faces south with an axis. Its shrine comprises a main hall (*daesunjeon*), two flanking buildings (yangmu, 兩廡, meaning Dongmu and Seomu) and a gatehouse (*naesammun*). Its school comprises a lecture hall (myeongryundang), two flanking buildings (yangjae 兩齋, meaning dongjae and seojae) and an outer gatehouse (oesammun).

The main hall (daeseongjeon) is a building of three by three bays in plan. It has a gabled roof and bracket sets of Ikgong-style (翼工). The existent building was reconstructed in 2002, and the original one is believed to be built in the early 17th century. The new one is higher than the old one.

The lecture hall (myeongryundang) is five by three bays in size with a gabled roof. Its bracket sets are made in the Ikgong style (翼工). A bracket set of higher column (高柱) is unique. There are stupa remains found in the base of the building.

2. The Hyanggyo in Youngcheon (永川鄕校)

The main hall (daesungjeon) is designated as No.161, National Treasure. The lecture hall (myeongryundang) is located in front of the main hall (daesungjeon) along the axis facing south. There are Yangjae and Yangmu in the complex.

The main hall (daesungjeon) is five by three bays in plan, having a gabled roof. The ends of bracket sets are curved, which is believed Chinese style.

The lecture hall (myeongryundang) is five by three bays in size with a gabled roof. The section of buyeon (浮椽) is not a square but a rectangular, which is similar to that in the Daesungjeon.

3. The Hyanggyo in Heunghae (興海鄕校)

The Daesungjeon of the Hyanggyo in Heunghae is designated as No. 87, Cultural Material. The Daesungjeon and the Myeongryundang are positioned along the same axis. Except Daesungjeon and Dongmu, all buildings are reconstructions after Korean War.

The Daesungjeon is three by two-bay building with a wooden floor, covered by a gabled roof. Its bracket sets is the Ikgong style.

The Myeongryundang is five by two-bays, having a hipped and gabled roof and Ikgong styled bracket sets.

A pavilion called Taehwaru (太和樓) is two storied, five by one bays in plan, having Ikgong styled bracket sets and a gabled roof.

4. The Hyanggyo in Cheongha (清河鄕校)

The Daesungjeon of the Hyanggyo in Cheongha is designated as No. 328, Cultural Material. It was relocat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Daesungjeon and the Myeongryundang do not share the same axis.

The Daesungjeon is a three by three-bay structure, having a gabled roof. It has excellent paintings inside and outside.

The Myeongryundang is four by two-bay in plan with a small wooden floor in front. The building is covered by a hipped and gabled roof with Ikgong-styled bracket sets. The front elevation of the building is four bays-even number, which is quite unusual. Generally speaking, bay number is odd in Korea.

5. The Hyanggyo in Yeonil (延日鄕校)

The Dasesungjeon of the Hyanggyo in Yeonil is designated as No.1, Cultural Material. It shows a typical arrangement: the Daesungjeon at the back and the Myeongryundang in front. There is a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axis of the ritual area and that of the studying area.

The Daesungjeon is three by two-bays, having a gabled roof with Ikgong-styled bracket sets. It is rare that the bracket sets are made in three-folded Ikkong-style. In the complex, there are neither Dongmu nor Seomu, Dongmu was built instead, as well as a building for storing ritual objects (jegigo 祭器庫).

The Myeongryundang is five by two-bays, having a hipped and gabled roof with Ikgong styled brackets sets. It seemed that the original plan of the building is three by three bays.

6. The Hyanggyo in Janggi (長鬐鄕校)

The Hyanggyo in Janggi is designated as No.327, Cultural Material. The ritual area is in the west and the studying area the east, this layout is, somehow, unusual.

The Daesungjeon is a three by two-bay building toped with a gabled roof. Its bracket sets are the Ikgong style. There are paintings of dragon. Comparing the complex with others, it is smaller in site plan.

The Myeongryundang has a four by two-bay plan, a hipped and gabled roof and Ikgong styled bracket sets. Many roofing tiles bare Chinese letters. As the Hyanggyo is located on the seaside, it has wooden components shaped as fish.

7. The Hyanggyo in Yeongyang (英陽鄕校)

The Hyanggyo in Yeongyang is designated as No. 75, Cultural Material. The Oesammun is a five by one-bay gatehouse and only the center bay is used as a gate.

The Daesungjeon is five by three bays, and has a gabled roof with Ikgong-styled brackets. There is a vacant front bay in front and dragon paintings in the center part of beams.

The Myeongryundang is five by two bay and has a gabled roof with Ikgong-styled brackets. The shape of the roof looks like a '工'. The central three bays are wooden floored, and two rooms eachs.

8. The Hyanggyo in Yeongju (榮州鄕校)

The Hyanggyo in Yeongju is designated as No.23, Cultural Material. It is oriented to the south. The Daesungjeon and the Myeongryundang are positioned along the south-north axis. The Yangjae is located behind the Myeongryundang.

The Daesungjeon is three by three bays in plan, having a gabled roof with the Ikgong-styled brackets. The forms of the bracket sets are different between front and rear. And, it has a '井' shaped lattice window for lighting.

The Myeongryundang is five by two bays in plan, having a gabled roof with the Ikgong-styled brackets. It was moved to the present site in 1993.

The pavilion, called Yeongguiru(詠歸樓), is five by one bays in plan, having a gabled roof. Originally, it functioned as a main gate was moved to the present site in 1991.

9. The Hyanggyo in Sunheung (順興鄕校)

The Hyanggyo in Sunheung is designated as No. 347, Cultural Material. Oriented to the south, it was relocated and reconstructed three times.

The Daesungjeon is a three by four-bay building, having a gabled roof with Ikgong-styled brackets. The stone bases of the building are reused material from old pagoda and stone lanter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 are structurally seven longitudinal beams, and architecturally four bays in front.

The Myeongryundang, four by three bays, has a hipped and gabled roof with brackets of the Ikgong style. Generally, the bay number of Korea architecture is odd, but this building has four bays. Columns of the building were make in two ways: square section and circular section.

10. The Hyanggyo in Uiseong (義城鄕校)

The Hyanggyo in Uiseong is designated as No.150, Tangible Cultural Property. The Daesungjeon is located in the east side and the Myeongryundang the north-west side. And, there is a pavilion in front of Myeongryundang.

The Daesungjeon, five by three bays in plan, has a gabled roof with the Ikgong-styled brackets. High columns (高柱) and the chungryang beam (衝樑) are structurally special, the latter is usually used in hipped and gabled roof.

The Myeongryundang is five by two bays in plan and has a gabled roof with the Ikgong-styled brackets. The front and rear are different in design.

11. The Hyanggyo in Bonghwa (奉化鄕校)

The Hyanggyo in Bonghwa is designated as No.253, Tangible Cultural Property. The plan of Gyojiksa (校直舍, a house for service man) is a 'ㅁ' shaped. A ceremony hall, Jeonsacheong (典祠廳, a house for ceremonial preparation) is located in front of the Daesungjeon, and its plan is similar to an ordinary house and Jegigo.

The Daesungjeon is three by three bays and has a gabled roof with the Ikgong-styled brackets. It looks simple outside, but the 7-beam structure is magnificent inside.

The Myeongryundang is four by two bays and has a hipped and gabled roof with the Ikgong-styled brackets. It shows a similar method of woodwork to the Daesungjeon.

12. The Hyanggyo in Jinbo (眞寶鄕校)

The Hyanggyo in Jinbo is designated as No.201, Tangible Cultural Property. There is neither Dongmu nor Seomu. The Daesungjeon and the Myeongryundang are oriented to the south along an axis.

The Daesungjeon is three by three bays and has a gabled roof with the Ikgong-styled brackets. A double-column system is used in front (two columns at each bracket set) and fire sidewalls.

The Myeongryundang is five by two bays and has a hipped and gabled roof with the Ikgong-styled brackets. The building has a small wooden floor in front.

13. The Hyanggyo in Gunwui (軍威鄕校)

The Hyanggyo in Gunwui is designated as No.185, Cultural Material. The arrangement of the Hyanggyo is oriented to the south with the Myeongryundang in front and the Daesungjeon at the rear, and other buildings left and right.

The Daesungjeon is three by three bays and has a hipped-and gabled roof with the Ikgong-styled bracket sets. The high columns and the front column are the same in height. And the building has a double basement in front.

The Myeongryundang is six by two bays and has a gabled roof, with the Ikgong-sytle bracket sets. Four bays in the center are finished with wooden floors, and one bay at each side. The shape of the roof makes a '工' pattern, which is typical in the Gyeonsangbukdo province.

14. The Hyanggyo in Bian (比安鄕校)

The Daesungjeon is designated as No.263, Cultural Material. The Daesungjeon and the Myeoungyundang each with its own axis. There is a pavilion and a pond in front of the Myeongryundang.

The Daesungjeon is five by three bays and has a gabled roof. Brackets are made in the Ikgong style. It has a brilliant painting inside as well as outside.

The Myeongryundang is four by two bays and has a gabled roof. Brackets are made in the Ikgong style. Two bays in the middle of the building are finished with a wood floor and the two end bays are heated floors (ondol 溫突). It has a high platform where the fireplace is located.

15. The Hyanggyo in Yean (禮安鄕校)

The Hyanggyo in Yean is designated as No. 28, Tangible Cultural Prosperity. The Daesungjeon is located in the eastern part and the Myeongryundang, the western part. There is no Yangmu.

The Daesungjeon is a three by three-bay building, having a gabled roof. Brackets are in the Ikgong style. A '工' shaped short column (daegong 臺工) is located on the upper beam, and a column of square section is used only in the center bay in front.

The Myeongryundang is four by two bays and has a hipped-and-gabled roof with the Ikgong-styled brackets. It looks like a two-storied building in front, having only one storey in the western part. Normally, it has two stories called Dongsil (east room) and Seosil (west room).

16. The Hyanggyo in Yonggung (龍宮鄕校)

The Hyanggyo in Yonggung is designated as No.210, Tangible Cultural Property. The Oesammun, Sesimru, Myeongryundang and Daesungjeon are all located along the south axis and the north. Interestingly, a pavilion called Sesimru (洗心樓) has seven bays in front. The Dongjae is symmetrical in plan, having five bays in front.

The Daesungjeon, three by three bays, has a gabled roof with the Ikgong-styled brackets. It shows excellent skills of wood carving and stonework.

The Myeongryundang is five by two bays and has a hipped and gabled roof with the Ikgong-styled brackets. The skill of entasis in columns is very good. The building has a small wooden floor in front.

17. The Hyanggyo in Seonsan (善山鄕校)

The Hyanggyo in Seonsan is designated as No.123, Cultural Material. The Hyanggyo faces south, the Daesungjeon and Myeongryundang are built along the south axis and the north, respectively. There is no Yangmu and Yangjae.

The Daesungjeon is a five by three-bay building, having a gabled roof with the Ikgong-styled brackets. Stone slabs are used to pave the platform, which is a traditional skill in Korean architecture.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painting and carving between the front- and the rear-elevation design.

The Myeongryundang is five by two bays and has a gabled roof with the Ikgong-styled brackets. A pavilion (called Cheongaru 菁莪樓) has seven by one bays in plan, and has a gabled roof with the Ikgong-styled brackets. It has an additional room at the rear side of each end bay, used as the Yangjae.

18. The Hyanggyo in Gaeryung (開寧鄕校)

The Daesungjeon is designated as No.119, Cultural Material. There is neither Yangmu nor Naesammun, but two rooms used as Jegigo.

The Daesungjeon is a three by four bay building, having a gabled roof with the Ikgong-styled brackets. Many components of an old stone pagoda are reused in the building as base stones. The building is a seven-beam structure, which is magnificent.

The Myeongryundang is five by two bays and has a gabled roof with the Ikgong-styled brackets. It's main entrance is not located in the front but in rear.

19. The Hyanggyo in Pyeonghae (平海鄕校)

The Daesungjeon is designated as No.160, Cultural Material. There is neither Yangmu nor Daesungjeon. Myeongryundang and Taehwaru are similar in design.

The Daesungjeon is five by three bays and has a gabled roof with the Ikgong-styled brackets. Interestingly, the brackets in front and rear are different in style.

The Myeongryundang is five by two bays and has a hipped and gabled roof with the Ikgong-styled brackets. In the front bay, the ratio between floor and room is 2:1.

A pavilion (called Taehwaru, 太和樓) rebuilt in 1977 is five by three bays and has a hipped and gabled roof with the Ikgong-styled brackets.

20. The Hyanggyo in Uljin (蔚珍鄕校)

The Daesungjeon is designated as No.159, Cultural Material. All buildings in the complex were rebuilt after Korean War, except the Daesungjeon.

The Daesungjeon is five by three bays and has a gabled roof with the Ikgong-styled brackets. The building is a seven-beam structure, which looks magnificent.

The Myeongryundang is four by two bays and has a hipped and gabled roof with the Ikgong-styled brackets. It was constituted on a sloped site, appearing as a pavilion in front. Originally, there was a pavilion in front of the Myeongryundang, but it was burnt down during Korean War.

■ **집필(執筆, Writer)**

조영화 (대경대학교 건축디자인과 교수)

Jo, Young-hwa(Professor, Dea-Gyung College, Department of Architectural Design)

조상순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조물연구실 연구원)

Jo, Sang-sun (Researcher,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Architecture Studies Division)

■ **도면(圖面, CAD Drawing)**

조영화, 조상순

Jo, Young-hwa / Jo, Sang-sun

우리건축사사무소, 무진종합건축사사무소

Woori Architects & Engineering / Moojin Architects & Engineering

■ **편집(編輯, Compilation)**

홍두식, 김재준, 강현, 조은경, 조상순, 문승현, 한주성, 채원탁(국립문화재연구소 건조물연구실)

Hong, Du-sik / Kim, Jae-jun / Kang, Hyun / Jo, Eun-kyung / Jo, Sang-sun / Moon, Seung-hyun / Han, Ju-sung / Chae, Won-tak (All the members of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Architecture Studies Division)

■ **사진(寫眞, Photography)**

조영화, 조상순

Jo, Young-hwa / Jo, Sang-sun

■ **영문번역(英文飜譯, English Summary & Translation)**

조상순

Jo, Sang-sun

■ **영문감수(英文監修, Correction of English Summary)**

Qinchua Guo (The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Lecturer, A Faculty of Architecture, Building and Planning, The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儒敎建築叢書 第4集

경상북도의 향교건축 – 북동부편

인쇄일 | 2003년 10월

발행일 | 2003년 10월

발행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집 | 예맥출판사(736-8334~5)

인쇄 | 서울특별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